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Folk Religion and Shrines
of Traditional Villages
in Gyeonggi - do, Korea

제당
祭堂

편·저자 김지옥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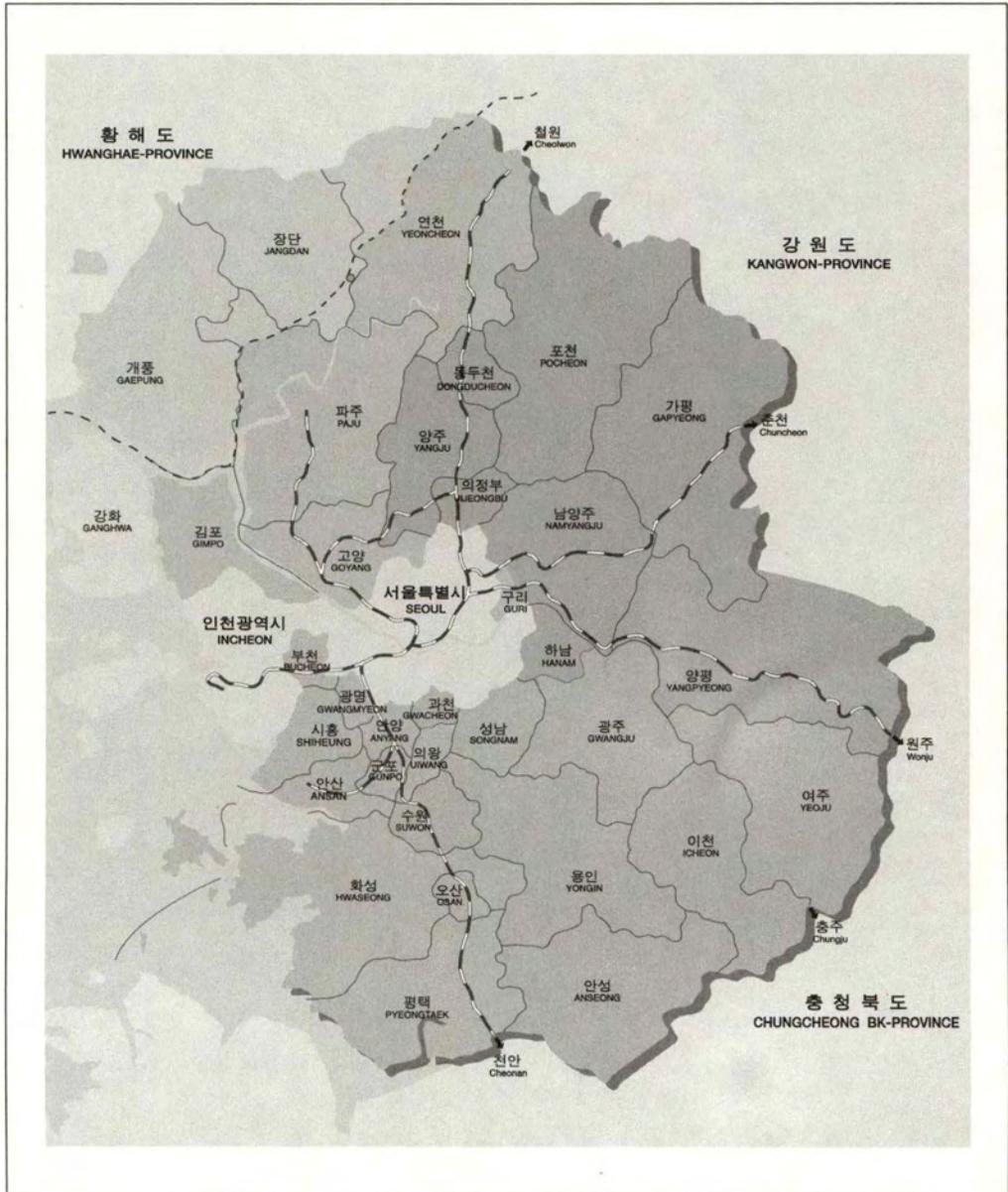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Folk Religion and Shrines
of Traditional Villages
in Gyeonggi-do, Korea

제당
祭堂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지도 Gyeonggi-Provincia Map



여 백

발간사



송 승 영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경기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중심의 생활터전이 되어왔으며, 특히 고려시대 이후에는 풍부한 문화를 향유해 온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생활환경속에서 나름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고, 다른 지역의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 복합적인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세계화는, 경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문화경쟁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의 정신적인 응집력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도약을 위한 정서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민족 문화유산을 찾고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히 변해가는 국토개발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원 경기도지회에서는 우리의 마을신앙과 민속을 바로알고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한 마을제당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의 민속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지를 통하여 마을제당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향토사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으며, 이 자료집의 내용을 근간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집필해주신 경기도박물관 김지욱님 외 여러분과 본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개요

이 글은 경기도내의 현전 마을신앙과 그 제의장소인 제당(祭堂)에 관한 조사보고서로, 도내 31개 시·군의 마을신앙에 대한 전승양상을 살필 수 있는 민속지(民俗誌)이다.

마을신앙은 기록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민속신앙(民俗信仰)이다. 각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신앙과는 달리 지연공동체(地緣共同體)인 마을을 단위로 형성되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유도하며 전승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신앙(共同體信仰)인 것이다. 그래서 마을 한 곁에 마을공동의 제의장소인 제당(祭堂)을 마련하고 있다.

제당은 인간과 신(神)이 접하는 집, 제사(祭祀)를 지내는 집이다. 우리나라 마을마다 설치되었던 이러한 제의장소는 그리스 로마의 그 웅장한 신전(神殿)과 같은 기능을 하는 우리의 신전인 것이다. 기와지붕을 얹은 보기 좋은 당집이거나, 슬레이트 지붕을 인 한 칸 크기의 작은 당집, 유난히 큰 바위, 사람의 발길이 쉬어 닿지 않는 마을 뒷산중의 정갈한 터, 유난히 크고 오래된 당나무, 정성을 다해 깎아 세운 장승, 솟대, 우물, 돌탑 등 형태도 다양하다.

조사내용은 먼저 각 마을의 제의현황과 제당의 형태·위치·규모·유래에 관한 것, 그리고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절차·제물차림·제의운영 등 관련의례에 대한 것이다. 글의 구성은 제1부에서는 조사내용을 편의상 경기도 31개 시군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경기도 전 지역의 마을신앙 전승현황을 목록화 하였다.

조사의 민속지적(民俗誌的) 시점은 2002년으로 대부분 이번에 새로이 조사한 것이며, 몇몇 사례만 조사자들이 기 조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조사마을은 시간과 보고서 지면 관계상 각 시군별로 2-5개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우선 제당의 형태와 전승실태를 보아 가렸다. 조사는 실제 제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행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또 전승현지에서 마을 토박이 어른들을 만나 대담조사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또 몇몇 마을은 제당만을 소개하기도 하여

사례별 편차가 보이기도 하나, 모두 직접 현지조사로 이루어진 내용이므로, 경기도의 마을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제2부로 수록한 전승현황표는경기민속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시·군지 등 그간, 각 시·군별로 발간된 보고서들을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의의 현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도내 각 문화원의 도움을 받았다. 이 현황표는 계속 수정 보완하여야 함을 안다. 문화는 변화하면서 전승되고, 또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작업은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종대, 친진기 학예연구관과 함께 진행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1990년 이전부터 민속신앙에 대한 현장조사를 두루 해 왔던 터라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서로 잘 알고 있어 작업이 수월하였다. 김영호, 김미애, 박선애, 민여진도 큰 도움을 주었으며, 총진행과 마무리 작업은 김지욱이 맡아 하였다. 또 도내문화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승현황을 확인하는 일은 김태훈 국장님과 백은영님의 몫이었다. 출판 작업을 도맡아해 준 김은주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지역 전체의 마을신앙과 제당(祭堂)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사례를 모두 함께 수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필자는 평소 각 시·군별로만 영역이 한정되어 조사·보고 되는 도내의 지역별 사례들을 두루 아울러, 경기도의 총체적인 문화양상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그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이 보고서가 그 기능에 한몫하기를 기대한다.

2002년 12월

김 지 욱 씬

목 차

제1부. 마을신앙과 제당의 실재	11
1. 가평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13
2. 고양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4
3. 과천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32
4. 광명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40
5. 광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46
6. 구리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58
7. 군포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69
8. 김포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77
9. 남양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87
10. 동두천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04
11. 부천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15
12. 성남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21
13. 수원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31
14. 시흥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40
15. 안산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46
16. 안성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58
17. 안양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72
18. 양주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177
19. 양평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189
20. 여주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204
21. 연천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217
22. 오산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27
23. 용인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31

24. 의왕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41
25. 의정부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49
26. 이천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57
27. 파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66
28. 평택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75
29. 포천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289
30. 하남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307
31. 화성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316
제2부. 마을신앙과 제당 전승 현황표	321
■ 사진 목록	475
■ 그림 목록	481
■ 참고 문헌	484

여 백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제1부**

마을신앙과 제당의 실재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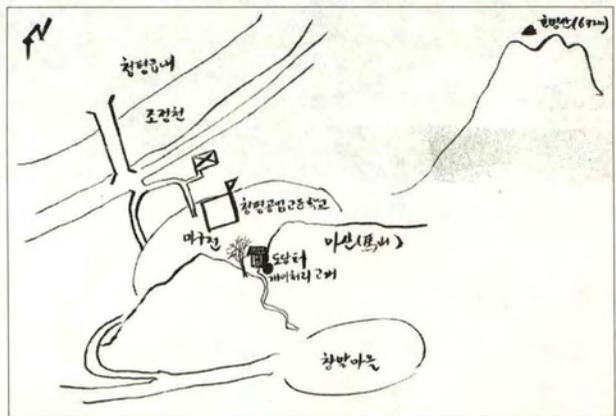
1. 가평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1-1. 외서면 청평 8리 마구전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외서면(外西面)은 가평읍에서 서쪽에 위치한 면이라 하여 외서면이며, 이곳은 청평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청평은 글자 그대로 맑은 물의 본고장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평댐과 청평 양수발전소가 있다. 청평리는 험천동, 청평천, 갈오개, 잠곡동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1939년 1차 행정개편과 1942년 재개편에 의하여 청평, 상천, 하천, 대성, 입석, 외방, 내방, 호명, 고성리로 동리 명을 개명하였으며, 1973년 관제개편에 의하여 입석·외방·내방리를 양주군 수동면으로 이관시키고, 외서면은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 학야리를 흡수하여 관할하게 되었다.

조사지인 청평 8리는 청평 소재지에서 조종천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동쪽으로 호명산(632m)의 연맥이 내려와 마을 바로 뒷산인 마산(馬山)까지 내려와 있다. 마산(馬山) 아래쪽으로 청평공업고등학교가 있다. 호명산에서 출현한 백마가 뛰어 내리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청평에서 바라볼 때 정 남쪽이므로 오행의 오자가 말 오자이기 때문에 정 남쪽 산을 마산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또 여기에 고개 생김이 개미허리 같다고 하여 개미허리고개가 있다. 이곳에 당집(대기소)과 도당터가 있다. 이 고개는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인적이 드물고, 호명산 호랑이가 내려와 자주 나다니는 통로였으므로 호랑이로부터 자주 호환을 받았다고 한다. 조사마을은 주로 변화한 소유의 외곽에 위치한 주택지로 마치 바둑판처럼 미로가 형성되어 있는 도회 지역이다. 조사지의 자



〈그림 1〉 청평 8리 마구전마을 산제당 위치도

연마을명은 마구전이다. 마산을 중심으로 청평 8리가 되었고, 마산 개미허리고개를 넘으면 청평 3리 창말마을이 있다. 이 두 마을은 원래 마산에서 함께 제의를 수행하던 한마을이었으나 행정 개편으로 분동 되면서 별도로 제의를 행하고 있다. 현재 청평 8리 마구전 마을은 약 350세대로 일부는 마을 동쪽으로 펼쳐진 농토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전형적인 도회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뒤쪽에 가래떡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마산 정상 아래 9부 고개 마루에 있다. 이 고개 마루는 마치 개미허리처럼 생겼다 하여 '개미허리고개'라고 불린다. 마을 회관에서 개미허리까지 걸어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개미허리 왼쪽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3칸짜리 점술인의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 산제사를 올릴 때 대기소로 사용



1-1. 개미허리에 있는 산제당터

하거나 일기가 불순 할 때 이곳에서 제의를 행하기도 한다. 제당은 대기소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시멘트 축대로 제단 형태를 만들어져 있고 그 오른쪽에는 높이 1m 50cm 정도의 누석단이 위치하고 있다.



1-2. 개미허리에 있는 산제당터 누석단

직접적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당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잡목들이 산제사터의 신성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산제당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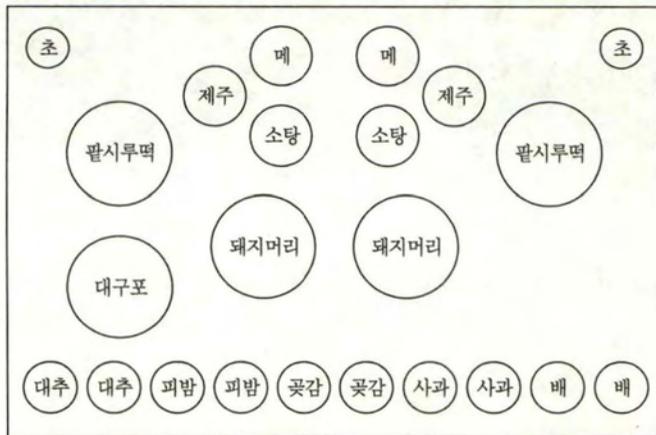
직접적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당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잡목들이 산제사터의 신성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산제당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다.

3) 제의내용

'산제사' 일은 음력 9월 1일 제사를 올린다. 1995년 청평 3리와 분동 되면서 청평 8리는 9월 1일, 청평 3리 창말마을은 음력 3월 1일에 각각 산제사를 올린다. 제의 시간은 해질 무렵 준비하여 오후 4시쯤에 제의를 올린다. 마을에서는 이 제의를 '산치성'이라고 표현하며 당집

이 있는 곳을 ‘산제당’이라고 부른다. 제의를 관장하는 분을 당주라고 한다. 당주의 선출은 제의 1주일 전 쯤 마을회관에서 선출한다. 당주의 자격 요건은 그 해 부정한 일이 없었으면 서, 연세가 환갑을 넘은 분, 가급적 그 해 좋은 일이 있었던 분이 선출되게 된다. 당주의 임 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하다. 그리고 산치성에는 특별히 ‘주관’이 있어 서 직접적으로 제의에 관계하기도 한다. 주관 역시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주관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계속해서 연임된다. 제관은 적어도 산치성 절차에 능통하고, 축 문을 직접 쓸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선출된다. 당주로 선정되면 마산에서 술가지를 꺾어 와 서 원새끼에 끼어서 금줄을 만든다. 금줄은 당주집 대문간에 걸어두고 그날부터 근신한다. 비린 음식을 먹지 않거나, 바깥출입을 매우 자제하며, 부정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밖에도 당 주와 주관은 개미허리에 올라 당집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당주와 주관이 함께 장만한다. 중요한 제물은 ‘통소’의 희생이었으나 지금은 돼지머리로 대신하고 있다. 모든 제물은 쌍으로 구입한다. 한편 그 밖의 제물로 대추, 밤, 꽃감, 사과, 배와 대구포, 두부, 무, 소지종이, 양초, 제주(막걸리) 등을 청평 장에 나가 구 입한다. 그리고 당주 집에서는 시루떡(백설기)을 2시루 준비한다. 시루떡은 간을 하지 않는 다. ‘메’ 역시 당주집에서 장만하는데 그 전에는 제장인 당집 옆에서 불을 지펴 밥을 지었었 으나, 요즘은 당주집에서 지어 준비한다. 제의 준비가 모두 끝이 나면 기본적으로 당주, 주 관 및 이장, 통장 등은 반드시 산에 오르고 마을 분들 중 깨끗한 분들도 모두 제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개미허리까지는 길이 좁고 경사도가 급하여 아직도 제물을 이동하는 것은 지계를 사용하여 옮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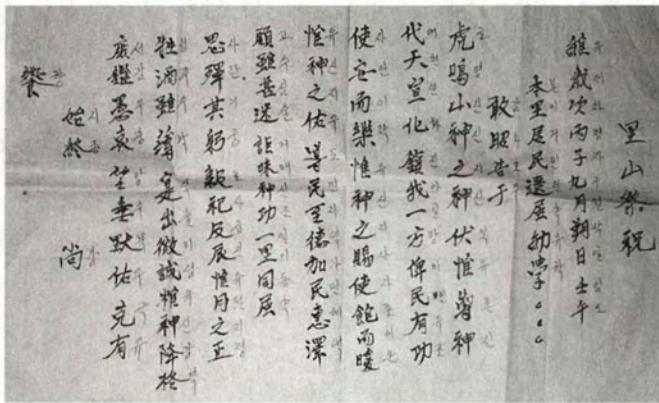


〈그림 2〉 외서면 청평 8리 마구전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

제물이 도착되면 목제기(木祭器)를 이용하여 진설을 한다. 일단 진설이 끝나면 당주가 강신(降神)을 하고 난 후 재배한다. 이어 주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이 끝나면 이장과 통장이 술을 붓고 재배한다. 이것으로 모든 제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네 전체에 대한 소지를 대표로 하나 올리고, 소지대를 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 소지의 내용은 주로 '가내안녕과 무탈'이 주종을 이룬다. 이것으로 제의가 끝나면 일부 음식물을 소지 문종이에 싸서 고시례를 하고 철상한다. 철상 한 후에는 일부 고기와 삼색실과 등으로 음복한다.

한편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산에 오르지 않았던 분들은 마을 회관에서 술을 걸고 돼지고기 국을 끓인다. 철상하고 내려온 당주 일행이 마을 회관에 도착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음복을 하고 덕담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마을회관에서 보낸다.

청평 8리는 공동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산치성 경비를 대신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향값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남은 금전은 다음으로 이월시킨다. 2002년 제의경비는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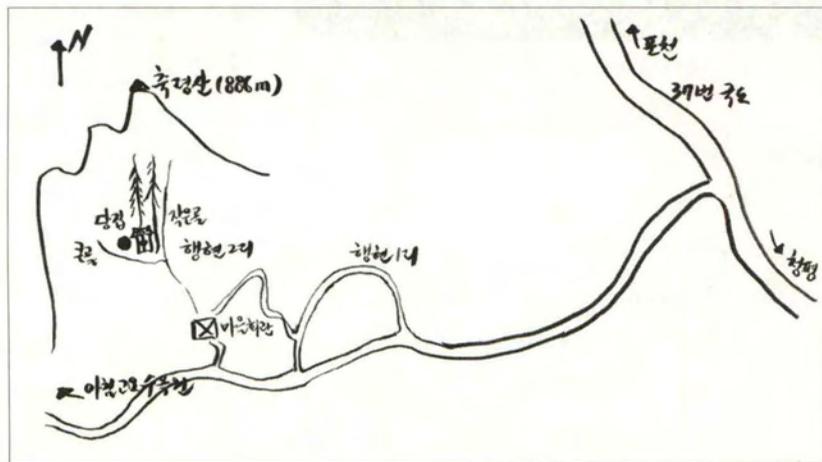
1-3. 마구전마을 산제사 축문

□ 제보자 : 신달균(남, 75세, 청평 8리 688-6번지. 산치성 주관)

1-2. 상면 행현 2리 산제사

1) 마을개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는 운악산(936m)은 일대에서 가장 규모 있는 산이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조종천은 북에서 남으로 계곡을 형성하면서 청평에 이르러 북한강으로 흘러 들게 된다. 청평에서 강원도 포천으로 가기 위해서 ‘이리울’삼거리를 거치게 되는데 행현 2리는 이곳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발상면 임초리(林草里) 버스 정류장에서 남쪽으로 산비탈을 돌아가면 두 갈래 계곡이 나타나는데, 이곳 소지명을 돌머루라 부르며 여기서부터 행현리(杏峴里)가 시작된다. 조사지는 해발 875m의 축령산(祝靈山)이 넘어질 듯 서있는 목전에 달려있다. 웅장하고 위엄 있는 자태와 신비로움까지 간직하여 비령산(秘靈山)이라고도 부른다. 가평군편 전설자료 “상면 비령리(秘靈里) 마을과 남면 비리터(秘靈堡 금대리) 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그 마을민이 타향에 이사 가서 살면 결식(乞食)을 하게 되고, 타향에서 이 마을로 이사해 오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이곳으로 이사해 와서 사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전설이다. 그러나 1871년도에 편집 발행된 가평읍지(加平邑誌)에 따르면 행현리에는 41호가 살았고, 축령리(기와집골)에는 18호가 살았던 것으로 보아 많은 주민이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조사지 행현 2리는 70여호가 살고 있다. 대부분 산악 지형 비탈을 이용한 계단식 농토에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미곡생산 농업이 주를 이루며, 일부 과수농사와 축산에도 종사하고 있다.



〈그림 3〉 상면 행현 2리 산제사터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의 뒤 축령산 4부 능선쯤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회관에서 가파른 '독박골'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면 좌측으로 논 '큰골' 우측으로는 '작은골'이 분리되는 가운데 높은 절벽 꼭대기에 당집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예전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 산천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들기도 하였으며, 조선조 7대 임금인 세조(世祖)는 어린 단종(端宗)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으나 못된 병에 걸려 가진 고생을 다하다가 이곳에 내려와 산천에 치성을 드린 후 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제당은 신목(神木)인 잣나무로 말구가 최소 1m 넘는다. 높이는 주변의 뾰뾰한 숲으로 둘러싸여 이를 짐작하기 어렵다. 이곳 신수 가운데에 2칸으로 만들어진 당집이 있다. 당집은 목재판벽으로 사방을 두르고 지붕은 함석으로 올린 맞배 형식인데, 지붕과 판벽 사이 도리부분이 모두 떠있다. 바닥은 마루방으로 되어있다. 마을에서는 이곳에 '산치성'을 올린다고



1-4. 축령산 중턱에 있는 산제사 당집

표현하며, 이곳에 '산신당할머니'가 계신다고 믿고 있다. 산신당할머니는 축령산의 '호랑이'로 현현(顯現)하기도 한다. 당집아래 작은골에는 소를 희생하였을 때 사용하던 넓은 콘크리트 바닥이 개울 옆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장만된 제물들이 가파른 벼랑길을 통해 당집으로 운반된다.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 9월 중 날을 잡아 시행한다. 주로 음력 1-3일 사이로 제의를 행하게 된다. 제의 시간은 대략 밤 11시쯤으로 제의를 마칠 때쯤이면 익일 오전 1시 가량 된다. 마을에서는 이 제의를 '산치성'이라고 표현하며 신목과 당집이 있는 곳을 '제당'이라고 한다. 제의 일시 최종 확정은 절에 가서 날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로 8월 그믐 경 마을 이장이 절을 찾아 날짜를 받는다. 가급적 9월 중 가장 빠른 날로 간택하며 만약 제의 당일 비나 눈이 오더라도 차질을 빚지 아니한다. 또한 날을 받으면 바로 마을회관에서 생기복덕에 맞추어 제관, 축관, 대화주, 소화주, 상군(일꾼) 4명까지 뽑게 된다. 일단 제관과 축관, 대화주, 소화주

는 소임이 정해지면 제의 당일까지 술가지를 끼운 금줄을 대문에 두르고 매사에 근신하며 바깥출입을 매우 자제한다. 또 제당에도 상군들과 함께 제의 당일 날 금줄을 메고 당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현재 행현 2리는 70여 가구는 대부분 제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대화주와 소화주가 함께 장만한다. 주로 현리 장으로 나가 장만하게 된다. 주요 제물인 소를 제외하고는 사과, 배, 대추, 두부, 양초, 소지 종이 등 간단한 제물이지만 최상품으로 구입한다. 소의 경우 통소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군청에 제물로 쓸 허가를 얻어 소를 잡았으나 앞으로는 소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시루떡은 반드시 대화주 집에서 장만한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3홉씩 얻어 떡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일괄적으로 집의 쌀을 가지고 떡을 하고, 이 후 제비로 정산하게 된다. 또, 제주로 사용할 조라는 제관 확정이 되는 날 대화주가 3홉이나 5홉 정도 량으로 '조라'를 담는다. 밥과 누룩을 준비하여 당집 앞에 땅을 파고 조라술을 담아 제의 당일 사용한다. 예전에는 제사 준비가 모두 끝이 나면 상꾼들이 소를 끌고 먼저 올라가 희생에 쓰이도록 잘 각을 떠 준비해놓는다. 정육점에서 소를 구입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제물로 받친다. 다만 내장 부위는 동네 분들이 음복을 하기 위해 별도로 삶아 준비한다. 소의 각은 기본적으로 머리, 좌측 갈비, 우측 갈비, 앞다리, 뒷다리로 구분하고 이를 서낭당 안쪽에 걸어 진설한다. 즉 머리는 당의 후면부에 좌측 벽에는 좌측 갈비, 우측에는 우측을 걸고 당 입구 쪽에 뒷다리, 당 앞쪽에는 앞다리를 걸어 한 마리의 소 전체를 상징적으로 진설하게 된다.

소를 제외한 제물은 대화주와 소화주가 마련하여 상꾼들과 지게로 당집으로 나른다. 제물이 도착되는 즉시 진설을 마치고 제관이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후 축관이 축을 하고 나면 이장이 술을 따르고 재배한다.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리게 되는데, 소지는 동네 전체 소지를 올리고, 제의에 직접 참여한 분들이 가정적으로 빌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각기 개인적으로 소지를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대기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철상준비를 서두른다. 한편 마을회관에서는 소의 내장과 선지를 이용하여 국을 끓이고 동네 분들이 모두 모여 제의를 마칠 시간을 기다린다. 산에서 제관들이 하산하면 바로 음복이 시작된다. 이 때 상꾼들은 제물로 올렸던 소를 70등분하는 작업을 개시한다. 저울을 준비하여 가가호호 같은 량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밤이 늦도록 작업하여 각 가정에서 '복'이 있는 희생 소고기국을 끓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음복을 하면서 제관과 이장은 제의 경비 결산을 간단히 보고한다. 제의 경비는 모든 주민들이 같은 금액을 균등 납부하는 각출방식이다. 돈이 남게 되면 모두 돌려준다. 2002년의 경우에는 제의 경비로 약 500만원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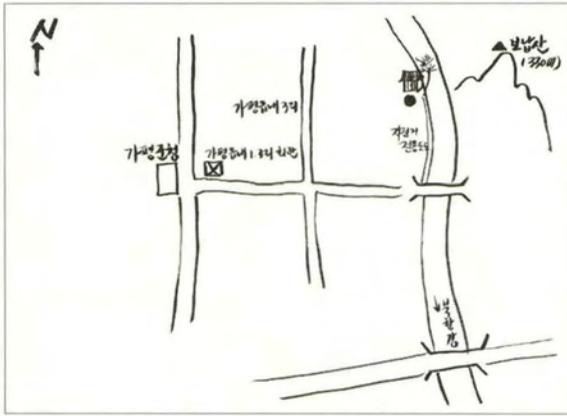
〈그림 4〉 상면 행현 2리 산제사 제물상차림

□ 제보자 : 한재수(남, 67세, 행현 2리 노인회)

1-3. 읍내 3리 산신제

1) 마을개관

원래 읍내는 포천군에 속해 있다가 1896년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읍내리는 가평군청 소재지이다. 행정의 중심지인 가평읍 읍내리(邑內里)는 예로부터 관좌(官座)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유래가 다양하다. 일찍이 고려말 풍수지리에 대가이던 정도전(鄭道傳)이 가평에 이르러 이곳 지리가 영묘(靈妙)함을 보고 관좌의 터로 적합하다 이 른 연유로 현(縣)터를 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가평읍의 지리적 형상은 멀리 태백산의 준맥이 명지산과 화악산에 와서 머물다가 명지산(明智山)은 남으로 내려와 이곳에 청룡(靑龍), 백호(白虎)를 만들며 읍내리에 머물고, 화악산(華岳山)은 동으로 흐르다 다시 기수를 남으로 돌려 보납산(寶納山)에 정기를 심으니 이곳에 빛나는 안산(岸山)이 되었다 한다. 풍수객들이 이르기를 좌청룡, 우백호의 동남향이자 득수득과(得水得破)가 잘 이루어 천하 명당이 이곳에 있다 하였다. 보납산의 형상은 군청에서 바라보면 문필(文筆)같이 보여지고, 그 외곽에서 바로 보면 노적거리 형상이 완연함으로 이곳에는 대대로 문장(文章), 명필(名筆)이 출현하고, 소부(小富), 대부(大富)가 태어나는 지형이라고 한다. 읍내리는 4개의 자연마을으로 나뉘어



〈그림 5〉 읍내 3리 마을 산제당 위치도

있었다. 군청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는 중촌(中村), 오른쪽에는 향교리(鄕校里), 지금의 사거리 일대를 객사리(客舍里)라 하였으며 보납산 아래 북쪽 마을을 엽광촌(葉廣村)이라 하였다.

조사지인 읍내 3리는 군청을 바로 보아 우측으로 자리 잡은 읍내 지역으로 대부분 도로와 연계서는 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로 안쪽으로는 대부분 살림집들이 들어차 있다. 이전에는 읍내리가 크지 않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각각 제의를 올렸으나 지금은 읍내리가 10개로 분할되어 읍내 3리만 대표성을 띠고 제의를 행하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뒤쪽에 흐르는 가평천 제방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1999년 현재의 당집은 이전에 개인 소유의 땅에 있다가 동 기금으로 37평을 구입해서 개·증축하게 되었다. 당집의 정면에서 바라보면 삿갓처럼 생긴 보납산(330m)이 들어온다. 정사각형의 당집은 조적 후 미장마감을 하고 지붕은 사모지붕 형태로 양기와를 올렸다. 좌우로 살창이 하나씩 들어 있다. 당집 정문은 합판 집성목으로 쌓여단으로 만들고 갈색 단청 위에 태극문양을 만들어 놓았다. 당 정면에는 ‘보납산신제단(寶納山神祭壇)’이라고 쓰여 있는 현판이 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읍내리북부마을(邑內里北部部落)’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당집 내부에는 특별한 신체는 없다. 앞쪽 정면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 제주를 담은 흙이 있다.



1-5. 읍내 3리 당집. 보납산신제단(寶納山神祭壇)

당집을 둘러싸고 ‘ㄷ’자 모양의 담장이 80cm 높이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당집 오른쪽으로는 수령 30년가량의 밤나무가 있다. 밤나무는 신목이라기보다는 당집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표식에 가깝다. 모시는 신은 보납산산신령이다.

3) 제의내용

‘산신제’는 양력으로 12월 말쯤 날을 잡아 제사를 올린다. 날을 잡는 분은 읍내에서 풍수(風水)를 보시는 신태모씨가 담당하고 있다. 당집에서 제의를 행하던 읍내는 군청을 기점으로 크게 남부와 북부로 나누고 현재 당집에서는 북부에 거주하는 읍내 분들이 제의를 올렸다. 현재는 읍내 3리 주민들만 제의에 참석하고 있는 실정이다(읍내리는 현재 10개의 리로 재편되었다). 제의 시간은 해질 무렵 준비하여 초저녁부터 제의를 시작한다. 제의를 관장하는 분을 특별히 선출하지 않는다. 제관은 마을 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축문을 담당할 분(신인제氏)과 마을 총무 등, 마을 사람 대표 2명이 제의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제관(이장)과 축관은 하루전날 사람들을 대동하고 당집 내·외부를 정비하고 청소한다. 특히 이날 ‘조라술’을 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제단 옆에 마련된 곳에 조라술을 1되가량 담고그 다음 날 있을 제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뜬다. 제관과 축관은 이발과 목욕을 하여 심신을 맑게 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제관과 총무가 함께 장만한다. 중요한 제물로는 통돼지를 올렸으나 지금은 돼지머리로 대신하고 있다. 돼지는 색깔을 가리지 않고 150근 정도로 잡는다. 그 밖의 제물로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대구포, 생복어, 소지종이, 양초, 시루떡 등을 읍내 시장



〈그림 6〉 읍내 3리 산제당 제물상차림

에서 장만한다. 제물 준비가 완료되면 제당으로 향한다. 제물이 당집에 도착되면 목제기(木祭器)를 이용하여 진설을 한다. 일단 진설이 끝나면 제관(이장)이 강신을 하고 난 후 재배한다. 이어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이 끝나면 다시 술을 붓고 재배한다. 이것으로 모든 제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네 전체에 대한 소지를 대표로 하나 올리고, 개인의 소지도 올린다. 소지의 내용은 주로 '가내안녕과 무탈'이 주종을 이룬다. 이것으로 제의가 끝나면 일부 음식물을 소지 문종이에 싸서 고시례를 하고 철상 한다. 철상 한 후에는 일부 고기와 삼색실과 등으로 간단히 음복한다. 제의가 끝나면 이튿날 제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군청 앞 마을 회관에서 돼지고기 국을 끓여먹으며 잔치를 벌인다.

읍내 3리의 제의 경비 마련은 가가호호 각출로 이루어진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성의껏 각출하여 제의를 올리고 연말에 정산 보고를 마을 회관에서 가진다. 만약 경비가 남으면 이월하여 다음해 경비로 보태게 된다.

□ 제보자 : 이만준(남, 67세, 읍내 3리 이장, 산신제 주관)

2. 고양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1. 덕양구 신원동 한우물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한우물은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속해있는 마을이다. 신원리는 덕양구 원당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마을 주변으로 통일로가 관통하고 있다. 신원리라는 명칭은 조선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현재의 신원 2리에 위치한 신원초등학교 앞에 궁을 짓고 살았을 때 그 궁의 이름이 신원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우물은 신원리 마을의 입구인 장뜰 마을에서 서쪽 방향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옛날 마을 한가운데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마을 전체가 그 우물을 먹고 살았다고 해서 한우물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 이 마을의 우물이 차고 좋아서(寒井村)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한우물에서는 산제사와 도당굿을 삼 년마다 한번씩 지냈지만 약 30여 년 전에 중단되었다. 47년 전에 한우물로 이주해 온 김광철(76)씨는 이 곳에서 산신제와 도당굿을 본 기억이 있고 젊었을 때는 제관이나 당주는 아니었지만 가서 절도하고 음복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2-1. 한우물마을 도당터(느티나무)

현재 뉴코리아 골프장이 있던 자리가 과거에는 낮은 산등성이였는데 그 곳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한다. 그 나무가 밤나무였다고도 하고 참나무였다고도 하는데 그 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마을에는 높이 15m에 둘레가 4.4m, 수령이 350년이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산신제를 지낸 후 그곳에서 도당굿이 열렸다.

(2) 제의과정

한우물은 삼 년 마다 한번씩 산제사와 도당굿을 지냈다고 한다. 어떤 해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고 형편이 닿지 않는 해에는 무당을 부르지 않고 마을 어른들끼리만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음력으로 시월 초에 좋은 날을 잡아 제를 지냈는데 제관이나 축관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동네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맡아서 했다. 산신제의 날짜가 정해지면 젊은 사람들이 비용을 추렴하러 다녔는데, 정해진 금액 없이 정성껏 냈다고 한다. 대개 쌀을 조금씩 내기도 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도 내고 해서 비용을 마련했다.

제물은 시루떡에 사과, 배, 감, 대추 등의 삼색과일과 소고기 산적이나 돼지머리를 장만했고 나무 밑에 향아리를 묻어 조라술을 빚어 사용했다.

(3) 결 산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다음해 농사가 잘 되고 마을이 편안하게 해 달라고 축원을 올렸다는 마을 노인들도 예전에 있었던 산제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 이 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외부에서 전입해 온 사람이 많고, 이 마을의 제를 주관하던 한봉수씨가 약 10여 년 전에 돌아 가셔서 정확하게 기억할 만한 분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 제사를 주관하던 분들이 살아있다면 백살이 훨씬 넘은 분들이지만 현재는 전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기억 하시는 분들의 말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산제사가 끝나고 나면 마을의 느티나무로 와서 도당굿을 벌였는데 이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모여 참여도 하고 음복도 했다고 한다. 마을에 술을 걸어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국수도 삶아 먹으며 술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날은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다고 한다.

□ 제보자 : 김광철(남, 76세, 덕양구 신원동 29번지)

2-2. 덕양구 신원1리 원신동 능골 동네고사

1) 마을개관

의정부에서 고양시로 오는 39번 국도 변에 있는 마을이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 1리에 들어간다. 원당에서 의정부로 가기 전 낙타고개 넘어 좌·우측에 있는 마을로 현재는 열 가구 조

금 넘게 살고 있다. 월산대군의 능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인데, 현재도 전주이씨 월산대군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원신동 동사무소 왼쪽으로 낮은 야산이 있는데, 능골로 넘어가는 셋길 끝에 높이 90cm, 둘레 115cm의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원뿔모양의 짚 주저리 형태로 있다. 원래 이 짚 주저리는 현재의 용호가든(식당)이 있는 자리 야산에 있었다. 십팔 년 전에 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2-2 원신동 능골마을 제당

팔면서 이전을 요구해와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았다. 산은 깎이고 그 자리에 식당이 생겼다. 짚 주저리를 현재의 위치로 옮길 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근처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한 후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겨왔다. 능골의 짚 주저리는 최병현(69)씨가 엮고 있는데, 2002년에는 길 건너편의 안토마을과 송강마을의 짚 주저리도 엮어 주었다고 한다.

(2) 제의과정

능골에서는 제의 명칭을 동네고사 지낸다고 한다. 제일은 매년 음력 시월 삼일 날로 정해져 있다. 십 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음력 시월 십오일을 제일로 정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날짜를 삼 일로 바꿔서 지내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부녀회에서 그 날에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이다. 제의날짜가 다가오면 각 호당 쌀 한 되에 돈 만원씩을 추렴해서 비용을 마련한다. 각자 정성을 드리는 일이어서 열일곱 가구 중 비용을 내지 않는 가구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제관은 별도로 없고 당주나 축관도 없다. 예전에는 무당을 별도로 불러다가 굿도 하고 했지만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없애고 마을에서 정성껏 모시고 있다. 무당은 3년 전에 부른 것이 마지막이었다.

능골의 마을고사는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제의다. 남자들은 떡시루와 돼지머리 같은 무거운

집이나 읍기고 주저리를 엮어주는 역할만 한다. 제사는 해가 진 직후에 이루어진다. 대부분 여자들이 참석하고 남자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 적게는 여섯 명 많게는 열 명 정도 참석한다. 제물은 떡 한 시루에 북어, 돼지머리, 막걸리를 준비한다. 제의에 참석하는 집은 소지를 올린다. 아들이 장가를 안간 집은 장가가게 해 달라고 빌고, 건강이 좋지 않은 집은 건강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리고 비손 한다.

(3) 결 산

능골은 가구 수가 적고 제사에 추렴되는 비용이 많지 않아서 부녀회에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장을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결산은 하지 않고 제사가 끝난 후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집으로 가져가고 또 같이 먹기도 하면서 음복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산을 맺는다.

□ 제보자 : 최병현(남, 69세, 덕양구 신원동 5통 2반)

2-3. 덕양구 신원1리 물구리 마을 산고사

1) 마을개관

고양시 덕양구 신원 1리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원신동 동사무소에서 원당 방향으로 50m를 올라간 지점에 용호가든 옆길을 따라 500m를 들어가면 물구리 마을이 나온다. 매봉재 윗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으로만 흘러서 늘 농경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水谷이라고도 불린다. 無乙古里라고도 불리며 동국여지승람에는 무을고리촌으로 기록되어있다.

현재 스무 가구 조금 안되게 살고 있는데, 2002년에는 아홉 가구가 참여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능골에서 물구리로 넘어 가면 고양시 보호수로 지정된 큰 느티나무를 하나 만날 수 있다. 느티나무로 가기 전 산 밑으로 민가가 한 채 있고, 그 집 뒤 오른쪽으로 높이 110cm, 둘레100cm정도의 원뿔모양 짚 주저리 형태로 있다. 산 아래 구석 쪽으로 있고 또 민가에 가려져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능골의 짚 주저리와는 달리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2-3. 신원동 물구리 마을 제장

구리에는 현재의 짚주저리 말고도, 마을 앞으로 나있는 들판 가운데에 한 개의 주저리가 더 있었다고 한다.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팔십 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 이도 있다) 신정이(82)씨는 벌에 있었던 짚 주저리는 축동 대감님을, 현재 남아있는 짚 주저리는 산령 대감님을 위했던 것이라고 한다.

(2) 제의과정

물구리의 제의 명칭은 산고사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신정이(82)씨가 열일곱 살에 시집을 왔는데 이미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제일은 음력 시월로 정해져 있다. 특별하게 정해진 날은 없고 절에서 나온 달력을 보고 마을의 부녀자들이 날을 잡는다. 김영순(63)씨는 이 날을 말날 이라고 표현을 했다. 절에서 나온 달력에는 날짜 아래 자축인묘를 적용해서 동물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오에 해당하는 말 그림이 있는 날이 부정하지 않고 손 없는 날이라 해서 음력 시월 중 말날에 해당하는 날을 골라 제를 지낸다. 시월초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다.

날짜가 잡히면 쌀 한 되와 돈 만원씩을 구석집(짚 주저리가 있는 집)에 가져 다 준다. 예전에는 그 집 할머니가 했었지만 돌아가시고 지금은 손자며느리가 이어 받아서 하고 있다. 쌀로는 시루떡을 하고 돼지고기와 삼색과일, 북어 세 마리를 제물로 장만한다. 제관도 축관도 없이 부녀자들만 모여서 소지를 올리고 비손을 한다.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산고사를 매년 지내면서 삼 년에 한번씩 만신을 불러다가 큰 굿을 했지만 지금은 몇 몇 가구만 참여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능골에서 넘어 오는 고개길 오른쪽으로 서낭이 있었는데 집으로 지어진 당의 형태는 아니고 오다가다 돌 한 개씩 던져 놓는 식의 서낭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산신제를 지냈지만 길을 넓히면서 낮은 산등성이었던 부분이 깎아지른 절벽 형태로 변해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물

(3) 결 산

참여하는 가구 수가 적어 고사에 드는 비용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고사를 지낸 후 비용을 추렴한 가구들이 모여 음복을 하고 제를 끝낸다. 마을주민들은 일년에 한번씩 농사지어서 햇곡식을 거둬들였으니 감사의 뜻으로 마을 고사를 지내고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 제보자 : 신정미(여, 82세, 덕양구 신원동 382번지)
김영순(여, 63세, 덕양구 신원동 382-2번지)

2-4. 일산구 고봉동 성석동 산제사

1) 마을개관

고양시 일산구 고봉동에 속한다. 성석동은 1990년 고양군일 때 6개읍 1개면의 행정구역을 갖추었을 당시 지명이 성석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성석동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성석동 7통에 해당되는 곳이다. 현재 이곳은 삼백 가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산제사에 비용을 추렴하는 가구는 팔십여 가구 정도 이다. 참여하는 가구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들이라고 한다. 자연마을 명칭이 오얏골, 진밭, 벌밭, 함뫂이, 사당골인 마을들이 예전부터 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함뫂이(하모시)에 사는 정준섭(77)씨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당굿이라고 해서 매년 도당굿도 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산제사만 남았다. 성석동은 음력 사월과 시월에 두 번씩 제를 지내고 있는데, 십 년 전에는 일년에 두 번 지내는 것보다 제물을 잘 차려서 한 번만 지내자는 의견이 있어서 삼 년 정도는 봄에만 지냈다고 한다. 그 이후 마을이 편하지 않고 자주 탈이 나서 다시 두 번으로 지내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함뫂이에는 어세공(1432-1486) 선생의 신주를 모신 부조묘 양숙사가 있는데 그 앞으로 난 길을 따라 산 쪽으로 20분을 올라가면 길의 오른쪽 끝에 열다섯 평 규모의 평지가 있고 그곳에 두 개의 제단이 갖춰져 있다.

가로 103cm, 세로 152cm, 높이 70cm의 대리석 제단과 가로 48cm, 세로 65cm, 높이 4cm의 얇은 대리석 상판인 구름상이 주제단과 5m 정도 떨어진 참나무 아래에 놓여있다. 이 제단은 약 십여 년 전에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산제사 터로 올라가는 길은 다른 어떤 곳 보다 잘 갖춰져 있어서 바로 앞까지 차로 제물을 운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2-4. 성석동 진발 산신제단



2-5. 성석동 진발 산신제터(구름상)

(2) 제의과정

성석동 산제사는 봄, 가을 두 번에 나누어 지낸다. 제일은 음력 사월 삼일과 음력 시월 삼일로 정해져 있다. 예전에는 사월과 시월 초하룻날이 되면 마을 어른들과 통장이 어떤 날이 좋을지 날을 받으러 갔지만 매년 가서 보면 번거로우니까 아예 못 박아 놓고 지내자 해서 지금의 날짜로 정해졌다.

제사 지내기 며칠 전에 마을 주민들이 전부 모여 화주 세 명을 선출한다. 이들을 상화주, 중화주, 하화주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상, 중, 하화주를 맡는다. 누가 몇 년도에 화주였는지 순서를 적어 놓은 책을 보고 정하는데 부부가 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화주가 될 수 있다. 내년 봄이 화주가 돌아올 차례인데, 부인이 사망해서 혼자 남게 되면 세 명의 화주 중에 한 명이 자격이 안되므로 두 명이 화주가 되어 지낸다. 부인이 사망한지 십년이 지났다고 해도 혼자인 사람은 화주에 선출될 수 없다. 화주로 뽑힌 사람은 동네를 다니면서 비용을 추렴한다. 과거에는 잘사는 사람은 더 내고 못사는 사람은 덜 내고 정성이니까 형편대로 냈지만 지금은 똑같이 나누어 내고 있다.

제물로는 밤, 대추, 배, 대구포, 북어, 두부, 소죽, 탕, 노구메, 조라술에 세 가지 종류의 떡을 쓴다. 세 명의 화주가 마련하는 제물이 다른데 상화주는 시루떡, 중화주는 인절미, 하화주

는 골무떡을 준비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소족은 항상 상화주로 선정된 사람의 집에서만 삶는다. 산제를 지내기 이틀 전에 세 명의 화주가 산에 올라가서 조라술을 해 넣었다가 제일에 걸러서 세 병을 만들어 상에 올린다.

제사는 새벽 다섯 시에 상화주가 산에 먼저 올라가고 중화주, 하화주 나이순서대로 올라가면서 시작된다(내려 올 때도 상화주가 먼저 내려온다). 성석동 산제는 세 명의 화주가 각자 자기 상을 차려서 제를 지내는 형식이다. 세 가지 종류의 떡과 노구메 세 그릇에 탕 세 그릇을 놓고 탕 그릇 옆에는 통후추를 같이 올려놓는다. 메와 탕, 두부를 제외한 제물들은 그릇을 쓰지 않고 제단에 하얀 종이를 깔아 그 위에 그냥 올려놓는다.

제물을 진설 할 때 두부는 생두부를 통째로 네 귀퉁이만 잘라서 올려놓는데 이 때 수수깥을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가 되게 잘라서 한쪽을 가르고 창호지를 세모모양으로 접어 수수깥에 끼운 후 두부 위에 세운다. 김길자(71)씨는 이것을 두부에 고깔 씌운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른다.

산제사 제물은 구름상이라 해서 제단의 왼쪽 편 참나무 밑에도 양을 조금씩 해서 제단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진설한다. 산제사 전에 1m 정도의 굵은 수수깥 아홉 개를 준비해서 한쪽 끝을 가르고 가른 끝 쪽에 하얀 창호지를 끼워 넣는다. 이것을 제단의 앞쪽에 세 개씩 화주 앞에 세워 놓은 후 산제사를 지낸다. 상화주가 제단에 절을 하고 수수깥 세 개를 제단에서 구름상으로 옮긴 후 구름상에 절을 하고, 중화주가 제단에 절을 한 후 또다시 수수깥 세 개를 구름상으로 옮겨 절을 한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화주가 제단에 절을 하고 남은 수수깥 세 개를 구름상으로 옮겨 절을 하면 산제사는 끝이 난다. 제사는 제단에서 시작해서 구름상에서 끝을 맺는다.

(3) 결 산

제사가 끝 날 시각이 되면 부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온다. 예전에는 부정한 사람을 제외 하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올라와서 음복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오지 않는다. 산에 올라간 사람은 단 한 명도 빠트리지 않고 그 몫을 나눠서 받아먹는다고 한다. 2002년에는 한 가구당 오천원씩 추렴을 했다고 한다. 산제사에 거두어진 비용이 남으면 마을기금으로 넣고 모자라면 제를 지낸 후 결산을 봐서 다시 걷는다.

- 제보자 : 정준섭(남, 77세, 일산구 성석동)
 김길자(여, 71세, 일산구 성석동)
 이건희(남, 75세, 일산구 성석동 7통 3번)

3. 과천시 마을신앙과 제당

3-1. 광창마을 산신제

1) 마을개관

광창마을은 과천경마장 서쪽에 위치해 있다. 청계산 자락에 위치하며 마을 위치가 다른 곳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서 과천동 어디에서나 마을이 잘 보인다. 서쪽으로 선바위, 뒷골, 안골과 마주 보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삼백여 가구 이지만 마을 제사에 참여하는 세대수는 토박이 50 여 가구 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음력 시월 스무 날로 제사가 정해져 있다.

이 마을이 산신제를 본격적으로 지내기 시작한 것이 1986년부터였다. 옛날에도 마을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때는 마을회관에 모여 일년 결산을 갖는 의미에서 떡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하루를 먹고 마시는 잔치의 의미였다. 일년 결산을 갖기 전 조상님께 감사의 뜻으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는 정도였지 산신제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 마을 고사도 외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 많아서 비용 추렴 문제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고 했다. 마을 제사가 조상님께 드리던 제사에서 산신제로 의례대상이 바뀐 것은 경마장이 생기면서부터였다. 경마장이 생기던 그 한 해에 마을의 젊은 사람들 십여 명이 심장마비 혹은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 유명한 만신을 불러 굿을 했더니, 청계산 자락을 끊어 경마장을 지어 신이 노했으니 산신제를 지내 위로해야 된다고 하면서부터였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마을 산신제의 대상은 참나무와 느티나무이다. 현재 그 나무 두 그루는 과천 경마장내에 있다. 맨 처음 산신제는 과천 경마장과 마을 사이에 난 작은 도로에서 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방법초소 건너 경마장 울타리 안에 있는 참나무에서 지낸다. 산신제를 지낼 때면 경마장에 연락을 해서 들어간다고 한다. 참나무에 고한 후 마을 입구 느티나무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느티나무가 개인소유의 땅에 있어서 약 육 년 전 땅을 팔면서 집을 짓게 되었고

집을 짓기 전에 느티나무를 경마장에 기증하게 되어 현재는 경마장내에 조경수로 옮겨졌다. 선바위 쪽에서 마을로 들어오면 작은 다리를 지나 오른쪽에 이 나무가 있었다.

느티나무를 신체로 삼아 제를 지내기 전에 왼쪽으로 어른 세 명이 안아야 될 만큼 큰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원래는 그 나무를 신체로 제사를 지냈는데 어느 해에 만신이 그 나무 보다는 느티나무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해 옮겨졌더니, 옮긴 첫해에 참나무가 쓰러져 버렸다고 한다. 누구도 손 댈 수 없어서 쓰러진 상태로 몇 년을 있다가 없어졌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없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현재는 경마장 안에 있는 참나무에서 지낸 후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2) 제의과정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20일로 정해져 있다. 산신제의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으로 한다. 옛날 마을 제사 때는 쌀이나 돈을 정하지 않고 각자 정성껏 추렴해서 했지만 지금은 공동기금으로 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제사에는 제관과 축관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산신제가 생긴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처음부터 간소화 시켰기 때문이다. 산신제의 주관은 통장이 하고 제물은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다. 제관의 역할은 마을의 연장자와 통장이 한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경마장 참나무에서 제를 지낼 때 여섯 명 정도가 간다. 이 때 부녀회에서 같이 가서 제물을 차린다. 마을 회관에서 제를 지낼 때도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제물은 통돼지, 메, 삼색과일, 삼색나물, 전, 북어, 시루떡, 막걸리를 준비한다. 2001년 까지만 해도 떡을 만드는 쌀은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준비했다. 마을 회관에 자루를 가져다 놓으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한 되든 한 말이든 정성껏 내서 떡을 했다고 한다.

(3) 결 산

현재는 마을기금으로 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기금은 예전 이 지역이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키우던 곳이어서 농작물을 팔거나 소, 돼지를 팔거나 하면 판매대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내 놓기도 해서 적립해 놓았다가 쓰고 있다.

1986년 산신제로 바뀌면서 통돼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를 지내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한다고 한다. 이 때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주민들도 원주민들이 초청 형식으로 부르는

데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음복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산신제가 끝나고 난 후 통장과 부녀회, 마을 원로들이 모여 결산을 하고 참여한 주민들에게 보고한다.

- 제보자 : 김경식(남, 67세, 과천동 광창 141번지)
 송인섭(남, 65세, 과천동 광창 136-9번지)
 강영두(남, 70세, 관문리 81-4거주. 현 갈현동 7-8번지 거주)

3-2. 갈현동 가일마을 산신제

1) 마을개관



3-1. 가일마을 산신제 신체

현재 과천시 갈현 2통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가일이란 가장자리 마을이라는 뜻이다. 찬우물의 마을회관 앞길로 나있는 길을 따라 1km 정도 들어가면 길 양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타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토박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가일은 약 십오 년 전부터 마을제사가 단절된 상태이다. 마을 앞길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넓혀지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 마을주민 중 한 명이 아들형제를 교통사고로 잃으면서,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데도 동네에 나쁜 일이 자꾸 난다고 마을제사를 없앤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갈현 2통(찬우물) 마을회관 옆길을 따라 가일 쪽으로 600m 지점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200m를 올라가면 마을 뒤의 산으로 올라간 꼭대기 능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군부대 사격장, 오른쪽으로 가면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인다. 오른쪽으로 100m 정도에 높이 5m, 둘레 2m 정도의 참나무가 능선에 서 있다.

(2) 제의과정

이 마을의 제의 명칭은 산제사이다. 동네에 아무 탈 없고 잘 해 달라고 산신령님께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음력 시월 상달이 되면 동네에서 날을 잡는다. 나이 생일 봐서 아무 탈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 해마다 돌아가면서 했다. 별말의 이원노(65)씨가 마지막 당주를 지냈다고 한다. 마을제사는 없어지기 전에 백 년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일은 주위에 별말과 웃말이 있는데 당주는 마을 간에 돌아가면서 선정했다.

제일이 선정되면 동네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당주 집에는 대문간에 금줄을 매고 대문 귀퉁이에 황토 흙을 뿌려 부정한 사람은 일체 들어 올 수 없도록 했다. 제사비용은 동네사람들이 쌀 한 되씩을 집집마다 추렴해서 떡도 하고 술도 빚었다. 제물은 떡 한 시루, 삼색과일, 돼지머리를 준비했다.

동네에서 글 잘하는 사람이 축을 써서 읽는 축관이 되었다. 밤 열한시면 당주와 축관, 제관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게에 제물을 지고 산으로 간다. 나무 밑에 제물을 차려 놓고 양쪽에 촛불을 켜놓고 향을 꽂은 후 두 번 절하고, 잔 한번 올리고 또 절을 한 후 축을 올리고 세 번째는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합동으로 절을 하면 제는 끝이 난다.

(3) 결 산

제를 지내고 내려오면 북어에 무를 넣고 탕을 끓여 탕 국 국물에 시루떡이랑 술을 마시며 음복을 했다. 날이 밝으면 제사에 비용을 추렴했던 가구들이 모여 떡을 나눠 먹으며 쓴 비용을 간단하게 보고했다.

□ 제보자 : 이원노(남, 65세 갈현 2통 492번지)

3-3. 갈현동 찬우물 우물고사

1) 마을개관

과천시 갈현 2통에 속하는 마을이다. 찬우물은 조선의 정조대왕이 선친의 능행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좋고 차서 우물에 정 3품에 해당하는 가자당상 벼슬을 내린 데서 가자우물 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물이 차고 맛이 있어서 찬우물로 불리기도 한다. 과거 찬우물은 바닥에서 물이 솟아 나와 흘러가는 개울 형태의 마을 공동우물이어서 주민들이 빨래도 하고 김장때면 배추도 씻고 하는 곳이었지만 과천면이 시로 바뀌면서 주위에 단독주택이 들어서서 물이 흐르는 길이 끊어졌다. 현재 찬우물은 25가구 살고 있으며 우물고사를 지내던 시기에는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행하던 마을제사의 명칭은 우물고사이다. 십 삼 년 전에 마을고사가 단절되었다. 마을에서 전적으로 제사를 담당하고 챙기던 향교장 출신의 김태근씨가 교통사고가 나고 뒤이어 치매가 오면서 제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서 단절되었다고 한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마을주민들 중에는 찬우물과 가자우물이 다른 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는 시에서 새로 조성한 대리석을 다듬어 주변을 잘 정리해서 약수터로 만든 가자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서 뒤쪽으로 50m 왼쪽에 마을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둥글게 올린 후 뚜껑을 덮은 우물이 있는데, 원래 있던 그 우물을 찬우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단지 지하로 흐르는



3-2 찬우물



3-3. 가자우물

수맥을 시에서 마을입구로 끌어 올렸고 그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양수시설을 옛날 우물 속에 설치했다. 옛날 찬우물은 높이 약 50cm, 지름 65cm의 둥근 콘크리트로 쌓아 놓았다. 속은 말라있으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발전기가 들어있다.

(2) 제의과정

매년 가을 추수를 끝낸 음력 시월이면 제사를 지냈다. 축관, 제관, 당주는 별도로 뽑기 보다는 마을의 제일 연장자가 제의를 담당했다. 제관의 역할은 김태근(2001년 90세 작고)씨가 주로 담당했으며 당주는 이장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우물고사의 비용은 별도로 추렴하지 않고 마을공동기금으로 처리했다. 이 동네 기금은 이장에게 주는 샅을 모아 마련했다. 봄 보리 추수 때는 보리를 한말, 가을 추수 때는 벼를 한말 이장에게 가정마다 추렴했는데 이장은 그 샅을 모아 동네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제의는 유교식의 제사 절차를 따른다. 제물은 돼지머리에 꽃감, 대추, 밤 등의 삼색과일과 막걸리를 사용했다. 제사는 오전 10시에서 11시면 지냈는데, 마을의 연장자 순으로 절을 하고 물을 잘 나오게 해주시고 동네 하는 일도 잘 되게 해 주십사고 빌었다.

과천시가 되고 집집마다 수도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흐르던 자리가 돌워졌지만 찬우물이 흐르던 당시는 집집마다 정월달이면 떡하고 촛불 켜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항상 치성을 드리는 장소였다고 한다.

(3) 결 산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 음복을 가졌다. 우물고사에는 남자들만 참여 했지만 끝난 후에는 아이들까지 와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결산은 마을의 일을 맡은 이장이 연말 결산(대동회)때 유인물로 결산 보고를 별도로 했다.

□ 제보자 : 김갑권(남, 67세, 갈현 2통 2반 9-2번지)

천희순(여, 68세, 갈현동 9-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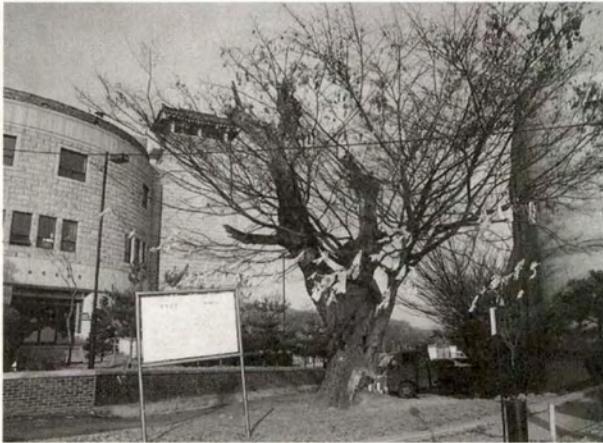
3-4. 남태령 하1리 도신제

1) 마을개관

현재는 과천동에 속해 있다. 과거 이곳은 하1리에 속한 한 개의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과천 1~4동에 속한다. 과천동은 과천에서 사당으로 가다 보면 관문 네거리가 나오는데 그 주변 지역이 과천동이다. 마을제사를 부르는 명칭은 하1리 도신제이다. 현재 도신제는 제사를 주관하는 대동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천시 문화원으로부터 매년 제사 비용으로 이백 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마을제사도 한 때는 소원해져서 단절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부동산실 명제 이후 마을공동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동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3-4. 하1리 도신제 당나무

하리 도신제는 먼저 산에서 산신제를 지낸 후에 내려와서 느티나무에서 도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를 지내는 곳은 과천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군부대가 있고 그 옆으로 송암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500m를 올라가면 송암사가 있고 송암사 뒷산을 따라 오르다보면 7부 능선에 돌로 쌓아담을 친 제단이 있다. 도신제를 지내는 신체는 느티나무이다. 현재

과천동 마을회관 오른쪽 옆으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다. 과거 느티나무는 남태령 고개 넘어 가는 길에 있었다. 양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 나무는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높은 차들이 나무에 걸리는 사고가 많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옮기는 과정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원래 있던 나무가 죽었고, 죽은 나무속을 파내고 작은 느티나무를 심어 지금처럼 유지하게 되었다.

(2) 제의과정

제사의 날짜는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룻날로 정해져 있다. 현재는 문화원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마을공동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오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주민들이 추수를 하면 쌀을 얼마씩 추렴해서 제사를 지냈다. 제일 일주일 전에 당주와 축관, 제관, 소임을 정한다. 소임은 마을 이장의 부탁을 받고 마을 마다 다니면서 비용을 추렴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제사날짜가 정해지면 생기복덕을 가려 부정한 사람은 제외하고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당주를 정하고 제관을 선정했지만 현재는 노인회 회장이 주관해서 제관을 하고 있다. 지금도 대동회에서는 제사 한 달 전에 주민들에게 초상집에 갔다 오거나 보지 못할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제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예고한다.

제삿날이 되면 제관 3인과 축관 1인,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 4~5인이 산으로 올라간다. 과거에는 해가 떨어지는 여섯 시가 되면 산으로 올라갔지만 요즘은 오전 열 시쯤 올라간다. 산제단터에 이르면 새옹이라는 놋쇠 솥에 밥을 지으면서 주변을 정리한 다음 제물을 진설한다. 산신제에는 새옹솥에 밥을 해서 솥 짚로 올리고, 돼지머리, 소족, 백설기, 북어포, 누름적, 삼색나물, 나박김치, 삼색과일이 제물로 올려진다. 과거에는 산신제에 쓰인 제물은 다시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 다 먹고 내려왔다. 산제사 제물은 가지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산에서 먹고, 먹지 못한 부분은 산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뿌려두고 내려왔다. 제의절차는 먼저 제주를 올리고 산신의 강림을 청한 후 제관이 헌작을 한다. 이때 아헌이나 중헌은 없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제관이 두 번 반절한 후 뒤돌아 앞드려 있다. 잔을 물리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재배를 한 후 소지를 올리면 제사는 끝이 난다. 산신제를 올린 후 아래로 내려와서 오후 열두 시쯤이면 느티나무 앞에서 도신제를 지낸다. 도신제의 제물은 도시루, 도당 할아버지, 할머니 시루, 군웅대감시루의 떡시루를 올리고, 돼지머리, 소족, 소적(두부적), 삼색나물, 누름적, 전, 삼색과일, 식혜 등이 준비된다. 제사의 차례는 산신제와 비슷하지만 도신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한다. 초헌은 동장이 하고 아헌과 중헌이 생략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통장이 올린다.

(3) 결 산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한다. 예전에는 늦가을 추수가 끝나자마자 지내는 제사여서 추수가 끝나지 않아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소임이 싸서 나눠 주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지금은 과천시의 지원이 있고 지역 유지들의 찬조금도 있기 때문에 제사가 끝나면 대동회에서 결산을 보고 그 결과를 문화원에 보고한다.

□ 제보자 : 신성제(남, 67세, 과천동 471번지)

4. 광명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4-1. 가학동 노리실 군웅제

1) 마을개관

노리실은 3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0세대에 이를 만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곳은 농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개봉역과 안양역과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한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그린벨트 안에 위치한 곳이라 월세나 전세 등의 세입자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노리실에서 전승되는 군웅제는 토착 원주민들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마을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이 마을과 이웃에 위치한 공세동 마을의 주민들은 거의 불교신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제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광명의 다른 곳에서는 전승이 단절되는 과정에 있지만, 이곳에서는 당분간 전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개발이 점차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리게 된다면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 제의 명칭과 시기

이 마을에서는 특이하게 군웅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光明市誌》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곳에서만 부른다.¹⁾ 옆 마을인 공세동에서는 특정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마을고사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의시기는 음력으로 10월 초열흘 경에 올린다고 《光明市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가을 추수 후에 택일을 한다는 것이다. 대략 10월 초4일 경에는 올리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2002년)에는 조금 늦어 10월 6일(말의 날, 午日)에 올렸다고 한다.

1) 《光明市誌》, 光明市, 1995, 611쪽.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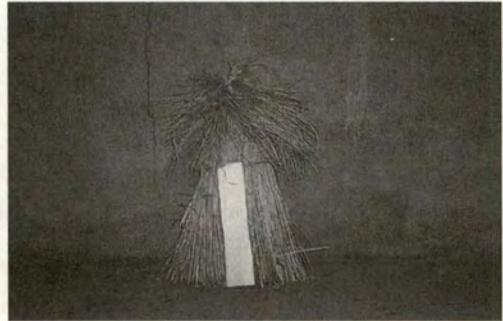
당의 이름은 그냥 사당이라고 한다. 원래 神木으로 모셨으나, 사람들이 점차 들어와 살게 되면서 당을 옮겨 세웠다. 마을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앞 산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당에서 본다면 마을의 전체가 바라보이는 위치다.

당은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고 위에 슬레이트를 이용해서 맞배 형태로 올렸다. 가로 265cm에 세로 236cm의 사각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앞쪽에 폭 70cm의 여단이문을 한 짝 내었다. 동쪽 벽에는 높이 154cm 위치에 벽돌 환기구를 만들어 놓았다.

당의 북벽 가운데에는 터주를 세웠으며, 제의 때마다 한지와 터주를 갈아준다고 한다. 터주는 총 높이가 87cm에 중간 예단을 걸친 끈까지는 47cm이다. 예단의 폭은 8cm 정도다.



4-1. 노리실 군웅당 전경



4-2. 노리실 군웅당 안 터주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제사가 다가오면 부녀회장과 통반장 부인 등 여자가 주동이 되어 시장을 본다. 제물은 주로 안양의 중앙시장에서 봐온다. 제사는 당일 아침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전날 장을 봐야만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고기·산자·약과·옥춘·사과와 배·삼실과 등이다. 祭酒는 막걸리를 구입한다.

제의를 담당하는 제관이나 축관에 대한 선출은 없고 마을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야 한다. 따라서 제사를 준비하는 금기 등은 거의 약화되어 있으며, 목욕제계 등도 자신들이 알아서 할 뿐이다. 또한 축문이 없기 때문에 축관을 뽑지도 않는다.

《광명시지》에는 제관을 순번제로 맡는다고 하였는데²⁾, 현재는 이런 방식도 아니다. 이와

2) 위 책, 612쪽.

같은 제관 회피현상은 오랫동안 금기를 지켜야 하는 부담과 함께 마을에서 사고나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관을 선출하거나 순번제보다는 마을일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의날 아침이 되면 부녀회 사람들이 사온 제물을 준비하여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당으로 옮긴다. 당에 도착하면 먼저 山祭라고 해서 대표로 남자 2명만이 산꼭대기로 오른다. 이때 제물은 대추와 밤, 북어, 막걸리 등이다. 제물을 차린 후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끝난다. 그런 후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고시례를 한다.

산제가 끝나고 당으로 내려오면 제물의 진설에 들어간다. 먼저 돛자리를 깔고 상을 놓은 후에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북어를 얹은 팔시루를 제단의 가운데에 놓는다. 그 오른쪽에 돼지머리를, 왼쪽에는 양푼에 쌀을 담고 초를 꽂고 실타래를 해서 놓는다. 그리고 앞쪽에는 삼실과잎 등을 놓는다. 진설이 끝나면 대표자가 먼저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그 다음에는 2-3명씩 함께 절을 하는데, 이때도 술은 단잔이다. 이런 방식으로 참석한 사람 모두가 절을 하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철상을 하고 당밖에 마을 쪽을 향해 상을 차린다. 이때의 상차림은 당 안에서 차린 것과 같다. 제물은 새로 갈아서 올리는데, 돼지머리만 그대로 사용한다. 단잔을 올리고 모든 사람이 절을 한다. 이어서 소지를 올리는데, 제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한다. 대개 동네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데, 이것은 축원을 잘하는 사람이 맡는다. “동네사람 어디가도 고생하지 않고, 늙어도 망령나지 않고 평안하게 해줍사.” 하는 식이다. 이후 철상을 하고 동네 회관으로 가서 음복을 한다. 이때는 대략 점심시간이 되며, 당에 오르지 않은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게 된다. 예전에는 점심을 먹은 후 풍물을 올리고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놀거리도 별로 없는 편이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현재 군웅제의 운영은 마을회의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거처럼 제관을 뽑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의 운영위원장, 통장·부녀회장·반장·노인회장 등이 주동이 되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관으로서의 금기 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제사에 드는 비용도 마을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에서 정성으로 팔시루를 마련하거나 돼지머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추수가 끝난 후 쌀 1 되씩을 거둬 제사를 지냈다. 대략 한번 제사를 드리는데, 50 - 60만원 정도가 든다.

이것은 모두 제물의 구입비용이 아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 음복을 하는데, 이때 국거리용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등 여러 음식과 술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이때 든 비용은 연말 마을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보자 : 김진선(남, 48세, 농업, 현재 이 마을에서 3대째 거주, 통장)

박경애(여, 44세, 김진선씨의 부인으로 결혼한 지 19년째. 통장 부인이기 때문에 마을 일을 소상히 알고 있으며, 군웅제도 통장보다 더 잘 알고 있다)

4-2. 가학동 공세동 마을고사

1) 마을개관

가학골에서 노리실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앞골과 뒷골이 있다. 마을의 인구는 옆 마을인 노리실의 반 정도인 60가구에 불과하다. 큰 길에서 더 들어온 곳에 위치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공세동은 조선시대 때 공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어진 명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농토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나무를 베어다 영등포 등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사람은 농사일보다는 광명이나 안양으로 직장을 다니는 비율이 높다.

현재 이곳에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으로 가는 직선 터널을 뚫고 있는 공사가 한참인데, 마을의 입장에서는 광명이나 안양으로 가는 길이 더 수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곳은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경향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마을의 마을고사도 이런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교통사고로 마을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서 고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원래 73년까지 축동에서 고사를 지내왔는데, 그 이후로 지내지 않다가 마을에 불상사가 많아지면서 다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제의 명칭과 시기

공세동에서는 그냥 '마을고사'라고 부른다. 마을에 길을 새로 내면서 사고가 많이 나자 4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때에는 안양에서 무당을 불러 독경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만으로 제사를 올린다.

제의일시는 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의 모내기 전에 올린다. 택일은 동네어른들이 정하거나, 아니면 서울 개봉동에 있는 원명사라는 사찰에 가서 스님으로부터 택일을 받아온다. 이 사찰에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용한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4-3. 공세동 당나무 앞

제당은 신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참죽나무다. 그 주위에는 조선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마을의 방풍을 위해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벨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매우 조심해서 모시고 있다. 주위의 발주인이 응달진다고 해서 나무를 베었는데,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나무들을 장작으로 팔거나 땔감으로 사용한 사람도 모두 죽었다고 한다. 이곳의 나무를 벨 때 구렁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이 마을도 노리실과 마찬가지로 축관이나 제관을 뽑지 않고 마을의 대표자들이 참가해서 제사를 올린다. 통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남녀에 대한 구분이 없다.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당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금기에 대한 관념도 그다지 엄하지 않다. 목욕제제도 자신들의 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이 마을은 아침 9시부터 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전 날 부녀회장이 주동이 되어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광명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다. 이곳은 전 부녀회장이 다니던 곳인데, 그냥 다니고 있다고 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사과와 배, 삼실과, 북어 3마리를 올린다. 팔시루는 방앗간에 맡겼다가 당일 아침에 찾아온다.

제물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고르기는 하지만, 흥정은 하지 않는다. 이것도 과거와는 변한 모습이라고 할 만하다. 즉 일반적으로 제물을 구입할 때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왔지만, 좋은 것을 고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것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

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시류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아침 9시쯤에 당으로 간다. 여기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깨끗하다고 생각되면 모두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마을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참죽나무 앞에 상을 펴고, 제물을 진설한다. 중요한 제물은 노리실과 마찬가지로 팔시루와 돼지머리, 그리고 쌀을 담은 양푼에 초를 꽂은 것이다. 이외에 사과와 배, 삼실과, 그리고 통복어 3마리 등이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노인회장과 통장은 혼자서 잔으로 올리고 절을 한다. 그리고 참가한 사람은 남녀의 구분이 없이 3 - 4명씩 무리를 지어 절을 올린다. 이 마을에도 역시 축문이 없다.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절차가 모두 끝나면 소지를 드린다. 소지지는 부녀회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소지는 먼저 마을소지를 올린다. 이때 마을의 연장자가 나와서 절을 하고 마을소지를 올린다. 이후에는 마을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 소지지를 받아들이고 와서 노인에게 준다. 그리고 상 앞으로 와서 절을 하면 노인이 소지를 올려주는 방식이다. 소지까지 올리면 철상을 하고 노인회장 등 몇 명이 간단히 음복을 하고 마을회관으로 간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부녀회원은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가 마을회관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면 방송을 해서 전체 음복을 하게 된다. 대략 점심 때가 된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4년 전에 제사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의 기금을 사용했다. 대략 2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 돈은 부녀회가 부담한다. 이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정성을 올린다고 해서 돼지머리와 쌀, 돈 등을 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체 음복 시에 사용된다. 돈의 경우에는 공동기금으로 잡는데, 제사 경비로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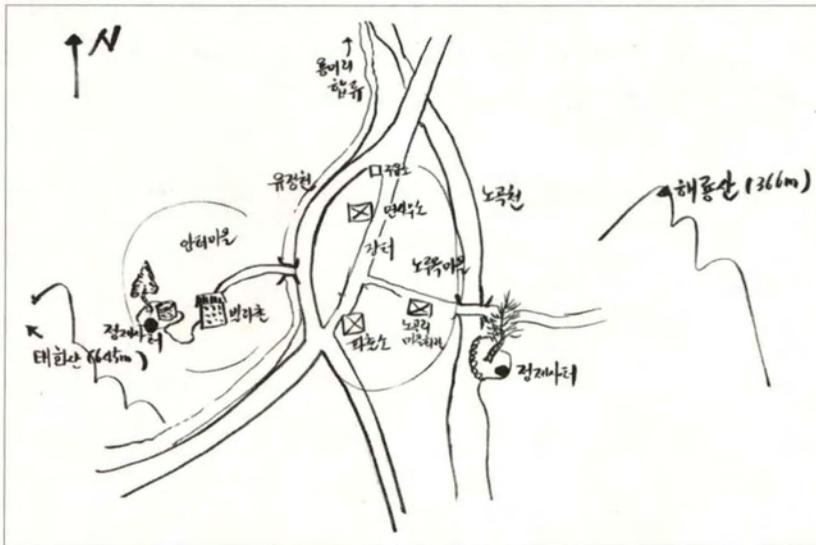
□ 제보자 : 김광현(남, 49세, 농사, 현재 이 마을의 통장 일을 맡고 있으며, 16대를 살고 있는 토박이)

5. 광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5-1. 도척면 노곡리 정제사

1) 마을개관

일제시대에는 도척면의 소재는 궁평이었으나 6·25 한국전쟁 이후 현재 노곡리로 소재지가 옮겨왔다. 소재지인 관계로 면사무소, 경찰서(파출소), 초·중고등학교, 병원, 성당, 교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신작로가 마을을 2등분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촌(路村)이었으나, 80년대 이후 광주시의 도시화와 더불어 아파트, 빌라 등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수도권 도농복합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 지리적으로 노곡리는 3개의 자연마을으로 나누어진다. 마을 서쪽으로는 태화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와 평행선으로 노곡천이 흐르고 그 반대편 동쪽으로는 해룡산이 남북으로 평행선을 그리며 뻗어있다. 그 아래로 노곡천과 규모가 비슷한 유정천이 흐른다. 이 두 우물은 곤지암 쪽, 용머리라는 곳에서 합류한다. 두 아산 사이에 자연마을이 자리 잡으며 논밭이 평행선을 그리며 길게 뻗어 있다.



〈그림 7〉 도척면 노곡리 정제사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의 명칭은 '정제사(井祭祀)'라 불렀다. 설날 저녁에 제의를 올린다. 제의를 행하는 장소는 안터마을(현재 토박이 8가구 + 빌라유입), 노루목 마을, 고노골 마을 등에 있었다. 6.25 한국전쟁 이전에는 마을에 우물이 4개 밖에 없어서 이 물로 마을 생활을 영위하였다. 현재 우물은 안터 마을에 향나무 우물이 유일하게 남아서 아직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우물은 모두 폐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도착면 사무소가 있는 마을인 노루목에 3개의 우물중 2개는 노곡천변에 붙어 있었고 하나는 현재 노루목 가운데에 있었다. 우물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되는 때 제의를 행하여 1년 동안의 무병장수와 재액초복을 기원하였다. 정제사는 마을의 '유물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도 '유물계'회원은 100% 마을의 정제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의 경조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다.

3) 제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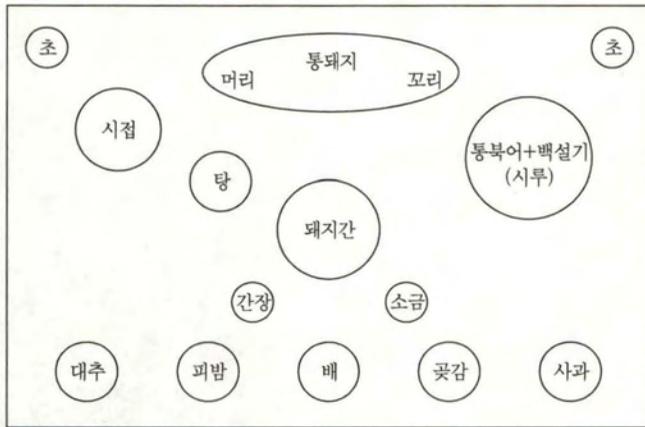
매년 음력 선달 28일 경 마을회관에는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다가올 정제 제관을 뽑는 모임을 가진다.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출하는데, 가급적 그 해 초상이나 나쁜 일이 없는 이로 해서 비교적 나이를 갖춘 남자로 선출한다. 제관으로 선출되는 즉시 제관은 제관으로 행해야만 할 금기에 들어간다. 제관은 바깥출입을 자제하며, 비린 음식을 삼가며 가급적 부부생활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추운 겨울이라도 개울가(노고천)에 나가 목간을 해야 할 정도로 제사가 있는 날까지는 엄격한 생활을 하게 된다. 제의는 우물청소로 먼저 우물을 깨



5-1. 노루목에 있는 정제사터와 신목(보호수)



5-2. 안터마을 정제사터



〈그림 8〉 도척면 노곡리 정제사 제물상차림

곳이 청소하고 금줄을 둘러 제의의 시작을 알린다. 금줄에는 종이, 솔가지, 숯이 끼워지며 왼 새끼로 꼬는 전형적인 금석이다. 또한 금줄은 제관이 머물고 있는 마을회관에도 설치된다. 마을 이장은 제수 마련을 위해 선달 그림날 광주장으로 나간다. 준비하는 제수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며 장사를 하는 분들도 제수물품임을 인식하여 값을 높게 부르지 않는다. 제수물 품은 기본적으로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제수 물품 중 가장 중요한 소고기는 60년 대 까지만 하여도 ‘통소’를 잡아 제물로 올리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 후 경제적인 이유로 소를 잡지 않고 소의 다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요 제물은 소다리, 막걸리, 포, 삼색과일, 초(2개), 향 등이며, 특별히 다른 음식은 제물로 쓰지 않는다. 통소로 제물을 올렸을 때는 몸이 깨끗 하고 생기가 맞는 분이 소를 잡아 지게로 4등분 된 소고기를 우물로 옮겼다. 그 뒤를 마을 이장과 제관, 축관, 유물계장이 뒤를 따르고 제장에 가더라도 별 탈이 없는 깨끗한 분들이 일부 우물가로 가게 된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관은 술을 따르고 축관은 준비된 축문을 읽는다. 축이 끝나면 ‘또 한 해도 물 잘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다. 그 밖에 동네의 무병과 초복을 바라는 축원도 하지만, 소지는 별도로 올리지 않는다. 간단히 제가 끝나면 계속해서 나머지 3우물을 돌려 같은 방식으로 제를 치른다. 모든 제의가 완료되면 지게로 소를 마을 회관으로 옮겨 마을 가구 수만큼 같은 양으로 나누어 마을에서 돌렸다. 이 소고기는 정월에 복이 있는 음식으로 여겨졌다. 지금처럼 소의 다리만을 사용할 경우는 회관으로 옮기는 즉시 끓여서 참석한 마을 주민들이 한 바탕 잔치를 치른다. 이미 제를 시작할 때 일부 주민과 부 녀자들은 마을 회관에 남아 소의 내장과 일부 고기로 국을 끓이고 마을 전 주민이 참석하여 나누어 먹는다.

維歲次 ○○正月 ○○寅朔 廣州郡 都尺面 老谷里
幼學 ○○敢昭告于

井甃之神曰名山大川莫不有神而井甃之神克著有驗
源于太華而發之也遠流爲甘泉而蓄之也深惟其
發之遠故其神也博畜之深故其神也靈非徒八家之共賴
寶亦一里之相應民之受傷也亦已多矣今茲煥烈不調
憲惑有癘疫識慢間以死亡哀此無辜并殃故
遂敢相率而邀惠于神窩惟尊神位列五祀
爲鎮一里最○瘟疫之鬼驅而除之權在尊神
掃而清之其權亦在尊神夫以可掃可驅之權苟不除之
清之使斯民永寧眞宜然完然一行潦之類而已豈或
所望於博施之功耶又况井之爲德不變爲貴則
昔日之所賞俯施者今豈獨漠○無應以貽神羞乎
伏願尊神默施陰功藻去邪崇流盡惡氛
使此一里之民永無疾痛之憂則至愚黎民
寧不知或於尊神邪噫嘻一字之饗未克備禮
衆人之誠可格神明神之格思庶可度思天清兮
氣糧運數兮風微尙尊神之不昧鑑此
民之至誠 尙饗

〈도척면 노곡리 정제사 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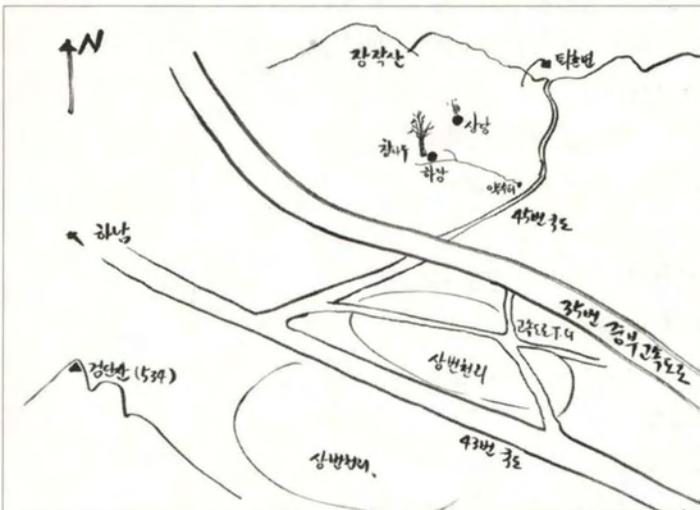
□ 제보자 : 강선구(남, 48세, 전임이장)

주진홍(남, 54세)

5-2. 중부면 상변천리 산치성

1) 마을개관

중부면 상변천리는 마을 중앙으로 번천(樊川)이라는 냇물이 흐르고 있는 양편으로는 산이 울타리처럼 싸고 있다고 해서 '상변천리'라 부르게 되었다. 서쪽으로 검단산이 산맥을 타고 동쪽으로는 산제당이 있는 장작산에 이르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가운데로는 번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뒤로 35번 중부고속도로가 남북을 가르고 있다. 행정구역상 상변천 1리로 되어 있는 이곳은 주요 성씨로 전주 이씨, 경주 이씨, 해주 오씨, 정선 전씨, 경주 선씨, 문화 유씨가 주종을 이루는 전형적인 각성마을이다. 마을에는 인접한 도회의 풍경에서 볼 수 없는 오래된 한옥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약 30년 간 큰 변화



〈그림 9〉 중부면 상변천리 당 위치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근 지역이면서도 1970년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논농사를 통한 벼 생산이 주요 수입원이다. 요즘에는 일부 가옥에서 축산과 원예 농사를 통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을 마을에서는 '산치성골'로 부르며, 마을 동쪽으로 뻗어있는 45번 국도 퇴촌방향에 자리한 장작산 3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장작산은 마을 서쪽에 자리한 검단산을 모산(母山)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상변천 3리에 해당한다. 장작산 입구에서 제당까지는 도보로 약 8분 정도 소요되며 산치성터는 계곡을 타고 오를 수 있다. 신체는 참나무로 직경 90cm, 높이는 15m 이상에 이른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수명이 300년은 족히 될 것으로 믿

고 있다. 치성터 앞으로 개울이 위치하고 있어 제의를 행할 때 이 곳 물을 사용한다. 신목(神木)인 참나무 아래에는 잡목 가지를 이용하여 평상을 만들고 제물을 칠상할 때 소머리를 올려놓는다. 본 제당에서 약 100m 정도 우측으로 걸어가면 본 치성터가 나온다. 이곳 역시 평평한 터에 참나무와 느티나무로 이루어진 신목이 위치하고 있다.

3) 제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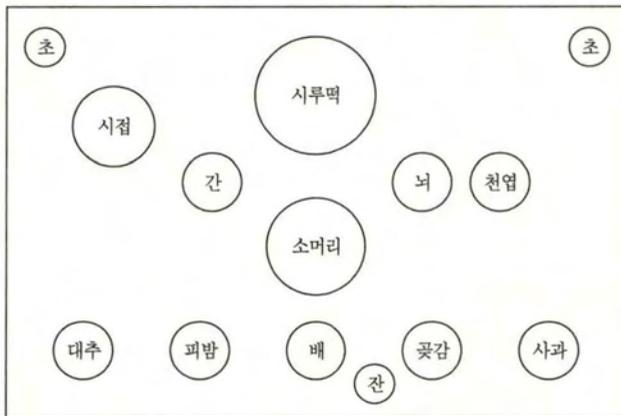
제의 일시는 음력으로 7월 그믐 밤 12시(0시)에 올리게 된다. 제의일시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보통 제의 시작 20전쯤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장이 마을회관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급적 그 해 복이 많았거나, 초상 등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연륜을 살펴 뽑게 된다. 제관은 '당주'라 불리며 1명이 선출된다. 일단 당주로 선출된 사람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비린 음식 등을 먹지 않으며 부부생활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 20일간의 금기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이러한 금기는 많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는 기본적인 바른 몸가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초상집' 등은 찾아가지 않는 것이 덕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의 당일이 되면 마을 뒷산 산치성터를 오르는 길을 정비한다. 상변천리 대다수 주민들은 '연방계'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원들이 주도적으로 이일을 지원 수행하게 된다. 이때 제당에 묻어 두었던 제기 일체도 꺼내서 닦아 두고(제기가 도난당한 수 년 전부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 술을 걸고 제물을 장만할 물을 끓이며 저녁을 기다린다.

제사에 쓰이는 간단한 제물인 초, 삼색실과, 소지종이 등은 이장과 당주가 함께 광주읍내(시내)에 가서 장만한다. 다만 주 제물로 사용할 한우(반드시 황소를 사용한다)는 미리 점찍어 두었던 농가에서 구입하거나 광주 우시장에서 구입하던 것을 약 10년 전부터 소머리와 내장 일부로 대체 되면서 단골 정육점에서 확보한다. 시루떡의 경우 그 전에는 당주 집에서



5-3. 장작산에 있는 산치성터 신목

찌던 것을 요즈음에는 떡 방앗간에서 주문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해가 지는 저녁 8시쯤 ‘당주’와 마을 이장 및 제의에 참석하는 회망자로, 모두 제물을 운반하는데 동원된다. 요즈음은 경운기를 이용하여 산제당 아래까지 운반하고 난 후 능선부터 지게를 이용하여 제단까지 젖어 올린다. 제물이 도착되면 계곡물을 이용하여 미리 끓이고 있던 가마솥에 소머리부터 삶아 내고 그 다음 내장 종류를 삶아낸다. 소내장은 기본적으로 콩팥, 간, 뇌, 천엽이며 그전 통소를 올렸을 경우에는 내장을 제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제기를 이용하여 제물 진설이 시작되고 바로 이어 제의를 시작한다. 제의는 ‘당주’가 막걸리를 한잔 따르면서 강신이 시작된다. 당주의 재배가 끝나면 제의 참석자 중 연세가 많으며 제의에 많이 참석하셨던 원로 노인들이 나와 축원한다. 축원은 미리 준비된 제문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내용은 “검단산 내력에 장작산 산신령님…”등으로 시작하여 대체로 마을의 안녕, 재액초복(災厄招福)의 의미가 담겨있다. 축원이 끝나면 이어서 이장이 술을 따르고 재배한다. 그 뒤를 이어 반장이나 마을 어른 분들이 몇 분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린다. 절이 모두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이름을 부르면서 올린다.(예, 아무개 소지이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장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지는 미리 준비한 백지를 이용하여 제단에 마련된 촛불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두 손을 번갈아 가며 재를 하늘로 날리는 시늉을 한다. 이때 멀리 하늘로 오르는 소지는 효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제의가 모두 끝나면 소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상한다. 소머리는 신목 아래에 미리 마련한 잡목 걸상에 올려두고 모두 철상한다. 간단한 음복이 끝나면 바로 마을 회관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통상 이때가 제의를 시작한지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 때이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면 부녀자들이 준비한 국거리로 간단히 야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며 음복한다. 그 전 통소를 이용하여 제의를 올렸을 경우에는 소를



〈그림 10〉 상변천리 산신제 제물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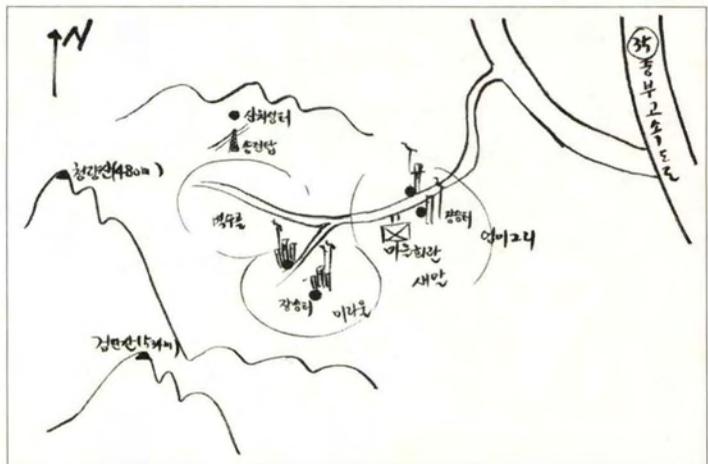
똑같은 분량으로 갈라 마을 전체에 돌렸으나 머리와 내장을 이용하여 제의를 올리고 나서는 마을 회관에서 모두 음복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음복 중에 이장은 그 날 소요된 제의 비용에 대해 결산 보고를 올리게 된다. 대체로 주민들에게 10,000원씩(2002년 기준) 각출하면 약간의 돈이 남게 되는데 다음해로 이월되게 된다. 조상들이 이어온 미풍양속으로 인식하는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계속해서 제의를 이어갈 생각이다.

□ 제보자 : 이상목(남, 46세, 상번천1리 508번지, 현재 마을 이장)

5-3. 중부면 엄미2리 장승제

1) 마을개관

중부면 엄미리(奄尾里)는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엄고개’와 ‘미라’(尾羅)를 합하여 ‘엄미리’(奄尾里)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한양에 살던 엄정승(嚴政承)이라는 이가 이곳에 명당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고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고개의 형태가 ‘뱀의 꼬리’같다고 해서 ‘엄미리’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사지역인 엄미 2리는 크게 미라울, 벽수골, 새말 등 3개의 자연 마을이 모여 이루어져있다. 미라울의 경우 밀양 박씨가 이곳에 묘를 쓰고 난 후부터는 ‘밀양골’이라 하였는데 이 말이 변하여 ‘미라울’이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며, 벽수(碧水)골은 마을 뒷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냇물이 하도 맑고 푸르러서 이 마을을 ‘벽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새말의 경우 옛날에 이 마을을 지나던 원(員)님이 이곳을 지날 때 엄나무 가지에 새들이 쉬고 있는 모습이 하도 평화스러워 이 마을을 ‘새



〈그림 11〉 중부면 엄미 2리 당 위치도

말(鳥村)이라 했다고도 하고, 또 이 마을은 ‘새로 만들 마을’이라 해서 ‘새말’이라 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동서로 길게 자리한 엄미리는 서쪽에 남한산성을 끼고 있는 검단산이 마을의 동쪽 입구를 제외하고 완전히 감싸 안은 형국이다. 약 40호 가구가 산개하여 자리 잡고 있다. 엄미리는 40-50년 전에는 화전(火田)을 통하여 오이, 참외 및 빨감용 나무를 지고 미라울 고개를 넘어(청량산 고개) 서울 천호동 등지에 내다 팔거나 소규모 논과 밭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으나 현재는 90% 정도가 식당과 민박집 등을 이용하는 마을로 변화하였다. 성씨는 주로 안동김씨, 광주이씨, 곡부공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각성 마을이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5-4. 벽수굴 위 산치성터가 있는 마을 뒷산

“장승제는 말하자면 산신제의 보초라. 장승이 세워지면 마을을 지키거든 그 때 산신제를 올리거든” 엄미리는 산치성 보다 장승제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마을 어른들의 증언에 의하면 산신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신제 제당(산신당)은 미라울 뒷산 8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신체는 수령 100년 정도의 소나무가 위

치한 곳이나, 엄격히 말하면 소나무가 신목이라기보다는 위치를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신목 주변 평지가 제당이라 할 수 있다. 장승의 경우는 마을 입구인 새말과 마을이 끝나는 미라울 입구에 위치한다. 새말의 경우에는 마을 회관에서 약 50m 동쪽에 위치하며 개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천하대장군” 왼쪽으로 “지하대장군”이 서있다. 장승은 오리나무로 굽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말구 20cm 정도이고 머리 부분은 30cm 내외이다. 장승 깎기가 끝나면 붉은 주철(황토칠)을 하여 벽사의 의미와 함께 방부 효과를 노린다. 새말의 경우는 개천 위 좌우로 누석단에 위치하며, 미라울의 경우 미라울 갈림길 좌측에 “지하대장군” 우측 산비탈에 “천하대장군”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장승 후미 1m 내외에는 높이 2.5-3m에 이르는 솟대도 위한다. 솟대는 꼭대기에 기러기가 설치되어 서울방향(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솟대를 특별히 ‘기러기대’라 부른다. 특히 미라울의 “천하대장군”의 경우에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5기 정도가 썩지 않고 서 있으며, 광주시에서 보존 차원으로 입구가 없는 녹색철망 펜스를 설치하여 놓았다.

3) 제의내용

제의는 격년제로 실시된다. 제의 날짜는 2월 초 날을 잡아서 실시한다. 현재 장승제는 실제로 5년 정도 중단되었으나 올해는 날을 받아 제의를 행할 예정이다. 날을 선택할 때는 마을에서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이 정월 보름 즈음에 마을회관에서 날을 잡는다(최근까지 마을 어른 공제범씨가 보았다). 이때 당주와 화주 각 1명도 함께 선출하게 하게 된다. 당주와 화주로 선택된 분들은 몸을 정하게 하고 바깥출입을 가급적 자제하며 이발과 목욕을 하며 몸과 정신을 다잡는다.

장승제날이 다가오면 아침 일찍 부정하지 않는 분들로 10명 정도 마을 회관에 모여 장승 나무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다. 주로 새말 뒷산 쪽이나 미라울 뒷산쪽으로 간다. 주로 말구 20-30cm 정도의 오리나무로 선택되는데 간택이 된 나무가 선정되면 각지고 각 막걸리를 부어 놓는다. 일부는 솥대에 이용될 가느다란 재목을 함께 구한다. 나무가 구해지고 베기가 끝나면 마을회관 쪽으로 이동하여 장승 깎기를 실시한다. 장승 깎기는 참석한 모든 분들의 함께 참여하여 만든다. 깎기가 완성되면 미라울 모퉁이에 있는 황토를 물에 이겨 장승에 넉넉히 바른다. 이렇게 하여 벽사의 의와 함께 장승이 비바람에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일단 한번 마른 황토 주칠은 실제로 비바람에 잘 씻기지 않는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화주'가 광주 읍내로 나가 장만한다. 제물은 대추, 밤, 감(곶감) 등 삼색실과와 통북어, 대구포, 두부 등을 구입한다. 제물용 떡은 쌀을 뽕아와 당주 집에서 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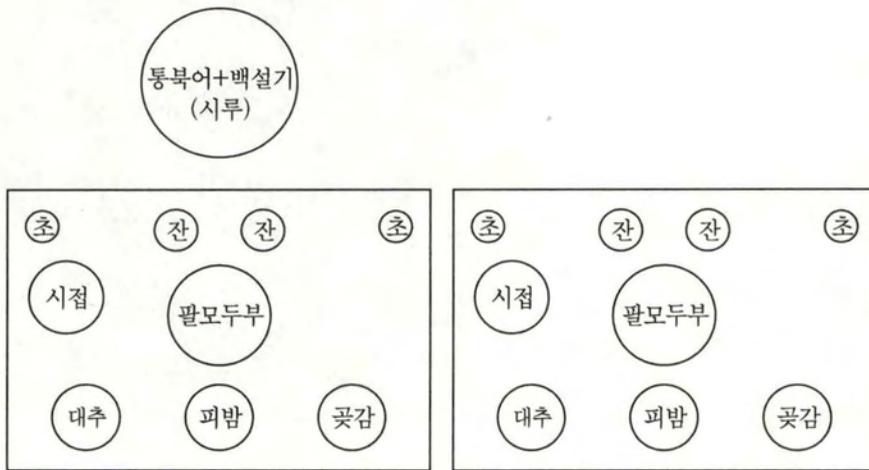


5-5. 미라울 길목에 있는 장승(천하대장군)



5-6. 미라울 길목에 있는 장승(지하여장군)

떡을 만든다. 과일은 껍질을 까지 않는 상태로 소쿠리에 준비한다. 제주는 막걸리를 이용하나 산신제에 사용될 제주는 '조라'를 특별히 준비한다.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산신당 언저리에 땅을 파고 조라 단지를 파묻는 것은 대략 제의 날짜를 받는 그 날 오후쯤에 '당주'와 '화주'가 실시한다. 오후 4-5시쯤이면 장승제 준비를 서두른다. 이미 작업이 완료된 장승은 바로 설치를 서두른다. 이 때 직접 제의에 참석하지 않는 동네 분들은 장승이 설치되면 주변에서 사실상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고 장승제를 구경하며 잡담을 나눈다. 당주는 먼저 술을 따르고 재배를 한 후 간단히 준비한 축을 읽는다. 다시 술을 따르고 당주의 재배가 2번 끝나면 절을 끝내고 바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이름, 생년을 부르면서 개별가족 모두를 올린다. 소지올리기가 끝나면 통복어를 장승에 매어 달고 장승제를 마무리한다.



〈그림 12〉 장승제 제물상차림

산신제 제물상차림

장승제가 끝나면 당주와 화주는 저녁을 먹고 개울물로 몸을 씻고 밤 9시-10시 사이에 산신당으로 오른다. 산신당에 오를 때 마을에서 부정한 일이 없는 동네의 깨끗한 분들 10여 명도 함께 산에 오른다. 제의 순서와 모양새는 장승제와 같으나 제주로 쓸 술이 이미 물어두었던 조라를 사용하고, 별도로 시루떡을 올리지 않는 차이가 있다. 산신제의 경우도 장승제와 마찬가지로 소지를 올린다. 이 때 소지는 동네 분 전체 명단과 찬조를 내신 분들의 소지를 올리는 것이 통례이다. 마지막으로 통복어를 소나무에 감아 두고 철상하는 것으로 산신제도 마감을 하며 하산 후 마을회관에서 간단히 음복하는 행사가 있다. 제의 비용은 대체로 마을

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경비정산은 '당주'와 '화주'가 간단히 구두 정산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한 해 장승제를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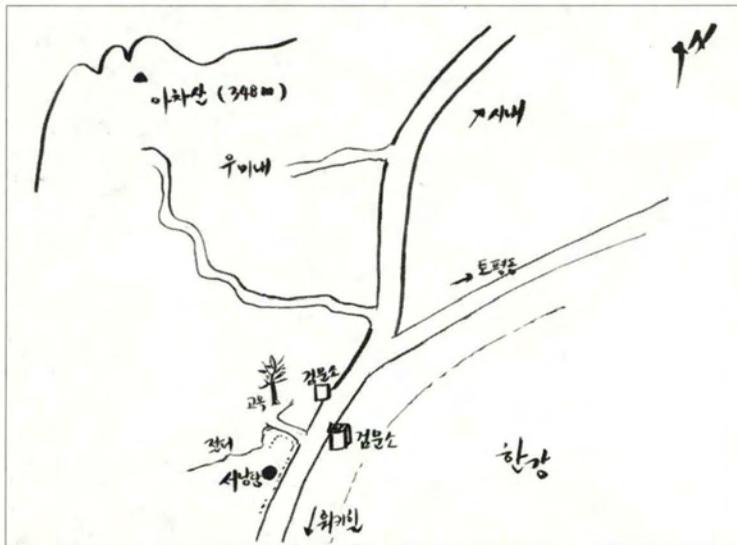
- 제보자 : 공재범(남, 65세, 엄미 2리 469번지)
- 이연수(남, 64세, 엄미 2리 635번지)
- 신종철(남, 57세)

6. 구리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6-1. 아천동 우미내 마을 서낭당제

1) 마을개관

아천동 우미내 마을은 행정 구역상 구리시 동구동 관할로 서울시 동쪽 끝 중랑구와 연하고 있다. 아차산(해발 348m) 기슭의 마을로 여씨네가 입촌하여 세거한 이후 김해김씨, 경주김씨, 전주이씨, 경주최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전형적인 각성반이 마을이 되었다. 지금은 약 47호 정도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따라 가옥이 연하고 있는 전형적인 계거(溪居)의 모습을 보인다. 과거에 우미내 앞들은 모두가 저지대여서 한강의 범람으로 사실상 농사가 짓기 어려웠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로 뗏목 수송을 하거나 아차산에서 화목을 베어다가 서울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요즘의 농사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야채와 화훼 농사를 하고 있다.



〈그림 13〉 아천동 우미내 마을 당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에 대한 이해는 마을에서 전해오는 장자뭇전설을 통해서 가능하다. 광포하게 퍼져 있는 장자뭇 전설은 아천동 우미내 마을의 서낭고사(대동고사)의 연유를 설명해준다. 마을에서 이 서낭제를 대동고사라고도 부른다. 서낭제 제장은 빈향고개 혹은 서낭고개로 불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구리에서 서울 워커히 호텔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콘크리트 판을 북방식 고인돌처럼 괴어 만든 당집으로 크기는 가로 1m 50cm 정도 높이는 150cm 정도로 상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안에 돌로 만든 여자 흉상이 자리하고 있다. 여자 흉상은 젊은 처녀의 모습으로 현대적인 조각 솜씨로 만든 것이다. 1993년도에 통장을 지낸 분이 흰 칠을 하여 놓았다. 이렇게 지금의 당집은 6.25 한국전쟁시 폭격으로 소실된 후 마을 사람들의 기금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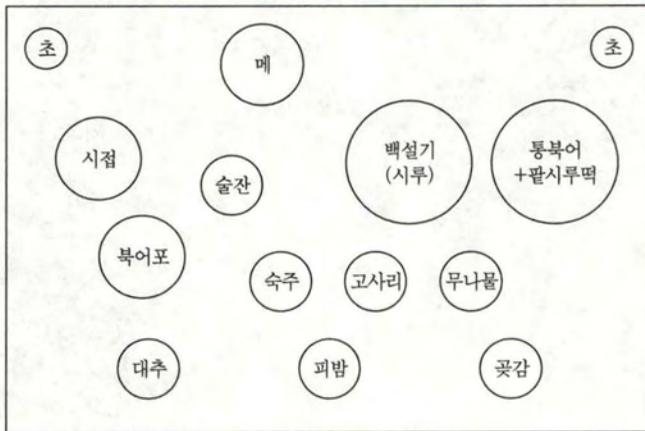
6-1. 우미내마을 서낭당

3) 제의 내용

제의 일시는 음력으로 10월 초사흘 안에 날을 잡는다. 지금은 대체로 날을 뽑아서 10월 초순 돼지날이나 말날을 잡는 것이 통례이다. 음력 선달 그믐에 부정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시작되는 1주일 전쯤 제의일시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보통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글을 읽고 동네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들에 의해 제일의 확정과 생기복덕을 살피 제관을 선출한다. 일단 제사에 참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예전에는 매우 엄격한 자기 근신에

들어가지만 요즈음에는 그리 심하게 근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바깥출입을 가급적 자제하며 시내에 나가 이발, 목욕을 하며 몸과 정신을 다잡는다. 음식 금기까지는 옛날보다 너그러워 졌다. 다만 산짐승은 절대 잡지 않는다. 산치성 하루전날이 되면 당주는 서낭당을 정비하고 금줄을 설치한다. 금줄은 이렇게 서낭당 이외에도 당주의 집에 치게 된다. 금줄은 왼새끼에 창호지를 40cm 간격으로 끼운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금줄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산치성 날이 왔음을 알리는 일련의 행위들이 작년(2001년)을 정점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의에 쓰이는 제물은 ‘당주’가 준비하게 되는데 천호동까지 10리 길을 걸어서 장을 보았으나 요즈음에는 구리시 시장으로 가서 장을 본다. 제물로는 삼색실과, 북어포, 숙주나물, 고사리, 무나물을 놓는다. 메도 한 그릇 올라가게 된다. 제기는 현재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이용하여 제물을 올리게 된다. 제주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막걸리를 사용한다. 쌀은 떡집에서 빵아와 당주 집에서 백설기를 만든다. 과일은 껍질을 까지 않는 상태로 준비한다.



〈그림 14〉 아천동 우미내마을 서낭당제 제물상차림

한편 당주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낭당으로 향한다. 이때 마을 사람도 자발적으로 참가를 원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제물 진설이 시작되고 바로 이어 제의를 시작한다. 제의는 제관이 막걸리 한잔을 올리면서 시작하여 일반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재배를 3번 하게 된다. 축문은 별도로 없으며 바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네의 대동소지를 올리고 난 후 개별 가옥마다 소지를 올리게 된다.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마을에 별도로 도당나무가 있고, 산제터가 있어 제의를 진행할 때 산신제, 도당제, 서낭제 순으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를 지냈다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제의가 점차 약화(간단)의 과정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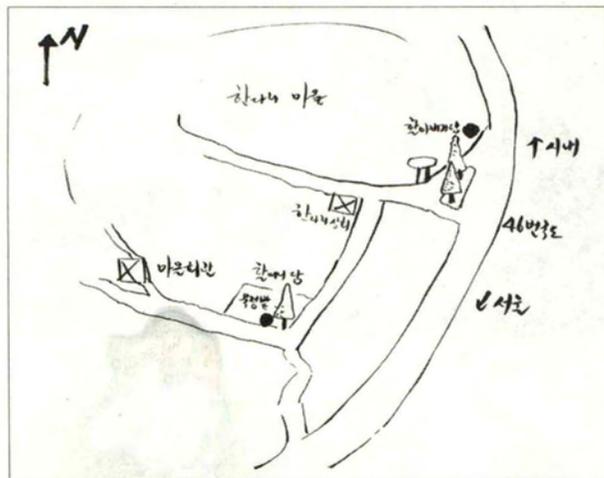
제의가 끝나면 철상하여 당주집으로 간다. 당주집에서는 미리 음식을 장만하여 오시는 대로 모여 음복을 하게 된다. 당주집에서는 무와 소고기를 넣은 탕국과 함께 쌀밥을 지어 동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지금도 제의가 끝나면 마을 회관이나 당주집에 모여 간단한 음복을 나누며 마을의 단합을 다지는 덕담을 주고받는다. 제의 경비는 제의 수일 전 10,000원-30,000원 정도를 각출하게 된다. 성의껏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사가 끝나고 정산 관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월금이 있을 경우 다음 제의 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 : 김금순(여, 72세, 마을 토박이로 우미내 입구에서 미니 슈퍼 운영)

6-2. 교문 1동 한다리마을 대동고사

1) 마을개관

교문동 한다리 마을은 행정 구역상 구리시 교문 1동 관할로 서울시 동쪽 끝으로 나아가는 46번 국도를 연하고 있다. 한다리라는 용어는 마을에 큰 다리가 있었다는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원래는 외다리였는데 조선시대 내시촌에 가마를 들이기 위해 큰 다리가 놓여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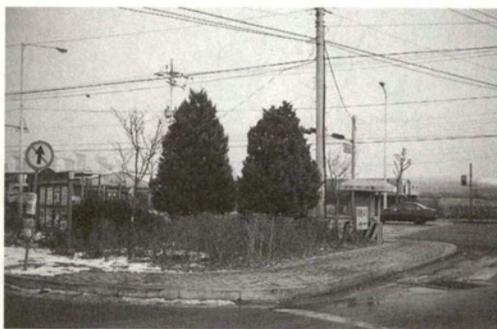
〈그림 15〉 교문 1동 한다리 마을 당 위치도

조선시대에 발행된 지도에는 한교(漢橋), 규장각의 고문서에는 일교(一橋), 대교(大橋)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 ‘대’ ‘일’자는 모두 우리말로 크다는 뜻을 가진 한자말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흰다리(白橋)라고도 불리었는데 이는 한 다리가 하얀 화강석으로 놓여 있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각성반이 마을이며, 약 70호 정도가 살고 있다. 대부분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이 30%정도이고 70%에 이르는 토박이들은 농사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사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로 주요 작물은 ‘오이’ ‘배추’ ‘상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원예 농업과 축산 농가도 있다. 일부 마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논은 식량 확보를 위한 벼농사를 짓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입구와 마을 내 마을회관 입구에 있는 향나무를 신목으로 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향나무는 46번 국도를 연하고 있는데 마을 입구 오른쪽에 수령 50년 정도의 향나무 2그루가 좌우로 연하여 서있다. 마을 입구의 향나무는 ‘할아버지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 안쪽에 있는 향나무는 마을회관 입구 오른쪽 묵정밭 위에 위치하고 있다. ‘할머니당’으로 불리는 이 향나무는 ‘할아버지당’ 보다 수령과 수고가 크고 높다. 약 100년 정도의 수령으로 추정된다. 46번 도로 확충 이전 한다리 마을에서는 별도로 모시던 오래된 향나무(수령 300년 추정)가 있었으나 4차선 도로 확충으로 당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당나무를 베어내고 보상받은 기금으로 현재의 당목을 구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 할아버지 당 신수(神樹) 향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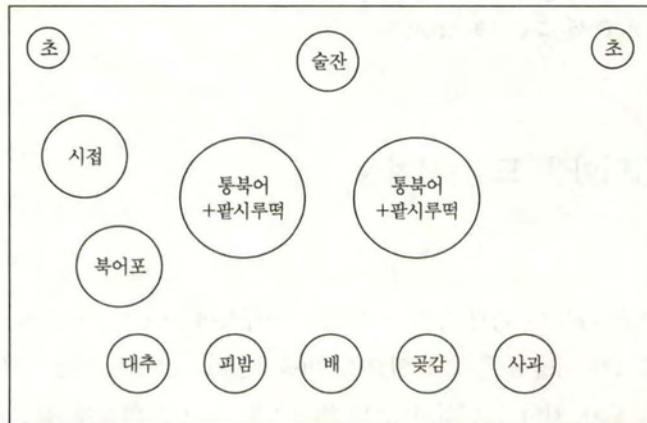
6-3 할머니 당 신수(神樹) 향나무

3) 제의내용

제의는 대동고사라고 부른다. 10월 초하루 쯤 날을 잡는데 가급적 1-3일 이내에 날을 받

는다. 대체로 1일이나 3일 날로 확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고사가 시작되는 제의일시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고사 3일~5일 전쯤 보통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진다. 제관 선출은 주로 노인회의 몫으로 그 중 글을 읽고 동네 대소사에 직접 자문을 해주는 어른과 동네 이장 등의 의견으로 당주 1명이 선출된다. 일단 당주로 선출된 분은 엄격한 자기 근신에 들어간다. 바깥출입을 금하고, 몸을 정하게 하고, 비린 음식 등을 먹지 않는다, 특히 이장은 이날 마을 방송을 통해 제일과 당주 확정 사실을 발표하고 동네에서 좋지 않은 일은 자제하고 비린 음식을 먹지 말도록 권고하는 방송을 몇 차례 실시한다.

제의에 쓰이는 제물은 당주가 준비하게 되는데 시내로 나가 장만한다. 제물 선정 기준은 가장 깨끗하고 큰 것으로 기본적인 과일인 삼색실과, 북어포를 구입한다. 제물로 올릴 시루떡은 떡집에서 쌀을 찿고 당주 집에서 백설기를 만든다. 삼색실과는 껍질을 까지 않는 상태로 준비한다. 모든 제물과 떡은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제당에 각기 올릴 2벌을 준비하게 된다. 떡은 4시루를 찿서 각 2시루씩 상에 올리게 된다.



〈그림 16〉 교문 1동 한다리마을 대동고사 제물상차림

당주와 이장은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을 입구로 향한다. 제의 순서는 먼저 할아버지 당에서 제의를 행하고 이어 할머니 당으로 옮기게 된다. 제의를 행할 때는 마을 사람도 자발적으로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나 대체로 당주, 이장, 반장, 통장 및 마을 노인회 대표들이 제의를 행하는 대표가 된다. 제물 진설이 시작되고 바로 이어 제의를 시작한다. 제의는 당주가 '막걸리' 한 잔을 올리면서 시작하여 일반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재배를 3번 하게 된다. 축문은 별도로 없으며 바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후 개별 가옥마다 소지를 올

리게 되는데 70개(70호)가 준비되고 ‘동네 편안하게’와 ‘집안 별 탈 없게’ 해달라고 읊조린다. 제의가 끝나면 떡 한 조각, 북어 한 마리, 삼색과일 각 1개를 문종이에 싸서 신목 아래에 두고 할머니 당으로 옮기게 된다. 할머니 당에서 제의 순서나 제물 진설은 차이가 없다.

제의가 끝나면 별도로 현장 음복은 하지 않는다. 모두 철상하여 마을 회관으로 간다. 마을 회관에서는 제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네 부녀자들이 음식 장만을 하고 있다. 주로 ‘쇠고기 무우국’과 밥을 하고 안주꺼리도 장만한다. 마을 분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리고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덕담을 나눈다. 제의 경비는 모두 다 동네 기금으로 운영한다. 수년 전에는 각 출하였으나 요즘에는 동네에 자금이 운영되고 노인회 등에서 지원금이 있어 이것을 경비로 대신한다. 만약 이월금이 있을 경우 다음 제의 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대동고사의 영험성에 대해 강력한 믿음이 동반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대동고사는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 때도 그치지 않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 계속해서 제의를 올릴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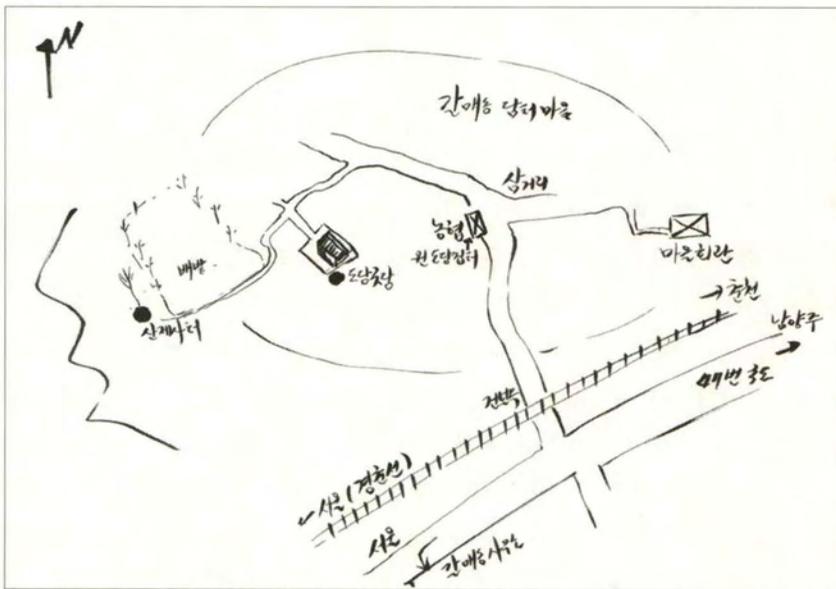
□ 제보자 : 조진원(남, 65세, 교문 1동 650번지)

6-3. 갈매동 담터마을 도당 산치성

1) 마을개관

구리시 갈매동 담터마을은 행정 구역상 구리시 동구동에 속한다. 구리시 최북단에 위치한 이 마을은 47번 국도가 서울을 향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갈매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또한 경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철도 건널목을 지나야 마을에 진입할 수 있다. 조선 시대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는 양주군 노원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원면의 담터와 구지면의 사노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갈매리라 하였다. 이때 구리면의 한 리가 되었으며 1979년 갈매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가 1986년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갈매동이 되었다. 마을 주위의 산의 모습이 첩과 매화와 같다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갈매동 북북서 방향에 불암산이 있고 북동쪽 방향에는 진접의 태미산이 있다. 풍수지리적인 해설에 의하면 목마른 말이 화접리에 있는 샘말의 물을 먹는 형국인 ‘갈마음수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마가 갈매로 바뀐 것이라는 설도 있다. 조사지 담터마을은 장기마을과 함께 삼화농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갈매동 6, 7, 8, 9통 지역을 말

하며 북쪽과 서쪽으로 둘러싼 작은 야산들이 마치 마을을 담으로 둘러싼 듯하여 붙은 이름이다. 구리시 전역이 수도 서울이 가깝게 있어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담터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편이다. 그것은 이 지역이 개발 제한지역에 속하게 된 이유와 함께 경춘선이 마을 앞을 가르고 있어 개발에 유리하지 않은 이유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갈매동의 역사는 약 500여 전으로 보고 있으며 담터마을도 이 때쯤 여러 성씨들이 들어와 형성된 전형적인 각성촌이다. 현재 약 140호가 살고 있다. 갈매동을 관할하는 동사무소는 건너목을 건너 위치하고 있다. 담터마을에는 현재 중소 가내공장들과 상업지역이 소읍처럼 형성되어 있고 그 언저리는 배와 복숭아밭 단지가 펼쳐져 있다. 토박이분들은 이곳에서 대부분 과수 농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17〉 갈매동 담터마을 당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을 마을에서는 '산치성터'로 부르며, 마을 앞 야산 중턱에 배나무 밭이 끝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수령 수백 년으로 추정되는 신목(神木)이 있었으나 고사하고 특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공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산치성터로 오른 길 오른쪽에는 도당집이 있다. 이곳은 행정적으로 산 22번지로 배나무 밭 앞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대 경 농협이 들



6-4. 갈매동 당집

어오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 도당집은 북향으로 마을의 얇은 언덕 위에 길이 10m, 폭 3m에 이르는 블록조 양기와 우진각 집으로 푸른색 도색된 양기와가 올려져있다. 당집 출입구는 측입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당집 좌측에는 굴참나무가 있는데 이곳 도당집 신목으로 받들어 지고 있다. 원래 담터마을에서는 해마다 산

신제가 끝나면 격년제로 도당굿을 3일씩 올렸으나 많은 경비부담(1990년경 경비가 1,500만원 정도였다)으로 인해 현재 전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제의내용

산치성일은 음력 3월 1일이나 2일 날 선택한다. 제의일시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도당굿을 올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 도당굿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음력 2월 1일 산일 볼 사람을 뽑는 회의를 하고 만신을 불러 부정을 쳐 잡귀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로부터 제의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는데 산일을 할 사람은 2월 15일 경에 해(깨끗한 나무를 베어다가 쪼개서 해를 만듭)를 만들기도 한다. 다시 음력 2월 그믐날 만신이 와서 산일 할 사람의 육갑을 쫓아 제일선정과 조라술 모시는 시간, 제사 모시는 시간, 조포(두부)모시는 시간, 치성을 올리는 시간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당집으로 가서 대들보에 첩을 부쳐 날이 잡혔음을 알린다. 만약 제일이 3월 2일 날로 잡히면 당일밤에는 산치성이 이루어지고 그 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만신은 유가를 돌게 된다. 3월 3일부터는 본 도당굿이 이루어진다. 도당굿의 제일은 대개 정일(丁日)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현재는 산치성만 올리게 되면서 음력 2월 그믐쯤에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 제관과 축관 및 산일 보는 4사람을 선출한다. 일단 제관과 축관 및 산일을 맡은 사람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비린 음식 등을 먹지 않으며 부부생활도 자제한다. 그리고 도당굿이 있을 때는 제관집과 도당집에는 백지, 솔가지를 끼운 금줄을 메고 대문 앞에는 황토를 뿌린다. 그리고 제의 당일에는 아침 일찍 도당집과 산치성터를 깨끗이 청소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산일 보는 분' 2명이 청량리로 나가 구입한다. 도당굿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진설하는 제물에 크게 차이가 있다. 도당굿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제물로 소머

리와 황계(黃鷄)수탉을 쓴다. 이 밖에도 배, 은행, 꽃감, 대추, 밥, 통후추, 고비, 더덕, 메밀, 쌀, 도라지, 돌미나리, 다시마, 북어포, 조포, 노구메, 붉은팥시루떡 1시루 등이 중요 제물이며, 도당곳이 없을 때는 소머리와 황계수탉이 제외된다. 제주로 쓰이는 조라·노구메의 경우에도 도당곳이 있을 때만 도당집 마당 조라 묻는 자리와 조라를 하던 자리에서 담게 되며, 곳이 없을 때는 간단히 막걸리를 제주로 진설하게 된다. 시루떡의 경우 그 전에는 당주 집에서 찌던 것을 요즈음에는 떡 방앗간에서 부탁하여 찌게 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해가 지는 저녁 9시쯤 제관과 축관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산치성터로 향하고 '산일 보는 분'들은 지게로 제물을 운반한다. 요즈음은 차량을 이용하여 산치성터 까지 운반하게 된다.

제물이 도착되면 곧 산할머니 상에 올릴 노구메를 만들고, 목제기를 이용하여 산할아버지 상과 산할머니 상을 별도로 진설하게 된다. 산할아버지 상은 시루떡을 올리며 산할머니의 경우는 시루떡 대신에 노구메를 올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구메가 잘 지어지면 제관은 술을 붓고 강신한다. 제관의 재배가 끝나면 축관은 준비한 축문을 읽고 재배를 올린다. 축문은 도당집에 보관되어 있어 제의 당일에만 꺼내어 읽게 된다. 축의 내용은 동네의 안녕과 재액초복(災厄招福)의 의미를 담고 있다, 소지올리기는 별도로 없으며 축문으로 대신한다. 제의가 완료되면 제물 중 일부를 고시례를 하며 간단한 음복이 이루어진다. 음복은 제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동네 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제당은 동네와 가까워서 제의가 종료되면 동네에 큰 징이 있어 그 징을 울리게 된다. 이때가 대략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된다. 징 소리를 들은 동네 분들은 모두 산치성터 자리로 와서 '복'이 있는 음식을 모두 잡숫는다. 모든 제물은 절대 남겨서 가지고 오지 않는다. 만약 제물을 다 먹지 못한다고 하여도 남겨 오는 법은 없어 그 자리에 두고 온다.



〈그림 18〉 갈매동 담터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

담터는 마을 행사를 위한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해 경제 규모를 보고 산할아버지 제사(산치성) 경비를 가가호호 각출을 할 것인지, 혹은 자금 사정이 좋아 동네기금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보통 이 결산회의는 정월 보름 경에 마을회관에서 하게 된다. 현재 담터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산치성은 물론 도당제와 함께 올려 격을 갖추는 일이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제보자 : 차천석(남, 72세, 갈매동 담터 220번지)
최용출(남, 80세, 갈매동 담터)
안영달(남, 78세, 갈매동 담터)

7. 군포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7-1. 금정동 산축제

금정동은 과거 농촌이었으나 신도시개발 이후 아파트와 주택단지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원래 거주민들이 모여 금정동 향우회를 조직하였으며, 이들에 의해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산축제를 지내고 있다. 향우회 회원은 6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회원들이 내는 월회비 5000원으로 운영되며 현재 적립금은 약 2000만원 정도가 있다. 회관은 마을 명의로 되어 있어 마을의 대소사를 위해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금정동의 산축제는 현장조사를 한 후에 제의과정을 직접 관찰조사하게 되었다.

1) 당의 구조와 위치

당은 원래 방앗간이 있던 마을 입구에 있었다. 그런데 약 70년 전에 제물로 쓸 소를 당에 묶어 놓았더니 소가 현재의 당 위치인 참나무 밑으로 도망가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앞에 당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당을 현재의 참나무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당은 마을의 뒷편에 있는 레포츠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에서 마을이 내려다보인다. 당의 주위는 스텐 파이프를 둘러놓고 참나무가 세 군데에 세워져 있다. 가운데 나무에서는 산축제를 지내기 전에 산신제를 지낸다. 당의 앞쪽에는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위에 제물을 차리게 된다. 제단에는 금정도당대제단(衿井都堂臺祭壇)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2) 제의절차

산축제의 제의일시는 음력 7월 1일 낮 12시에 하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정월 초2일에 행해졌다. 정월 초에 하던 것이 7월로 변경된 이유로는 정초가 바빠서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7월 제의의 특징은 이때가 김매기도 끝난 후라 사람들의 기력이 많이 쇠잔해지기 때문에 소를 잡아 몸도 보신하는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제의날이 정해지고 동네에 부정할 일이 생기면 제를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7월초로 날을 정한 것도

7월에 부정한 일이 생기기 전에 제사를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부정은 초상, 애기 출산, 사고 등을 말한다.

제의날이 다가오면서 제관과 축관을 뽑는다. 올해의 경우 양력으로 7월 25일에 뽑았는데 제관은 이현수씨(남, 64세), 축관으로는 서병구씨(남, 66세)로 정했다. 과거에 뽑힌 자들은 바깥출입도 못하고 했지만, 현재는 금기사항이 많이 축약되어 2일에서 3일전부터 자기 집에서 목욕제계하는 정도이다. 제관과 축관을 뽑기 위해서 향친회의 이사들이 모여 정하게 된다. 뽑힌 자들은 집과 당에 황초를 뿌리고 금줄을 쳤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축관의 경우 최창복이란 분이 계속 맡아 했는데, 일제침략기에는 구장일도 보고 한문을 알기 때문에 맡겼다고 한다. 현재도 안양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92세나 되기 때문에 축관을 바꾸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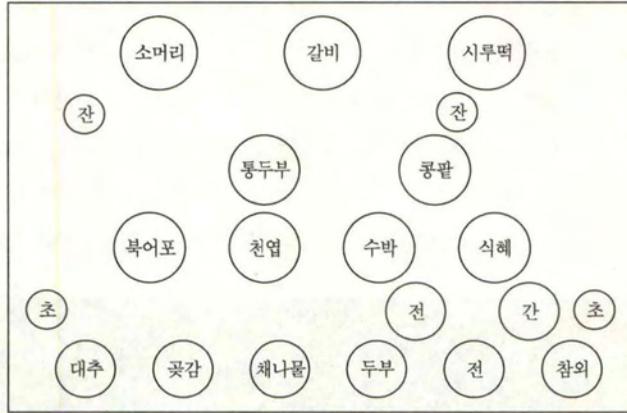
제물의 구입은 향친회 총무가 맡아서 한다. 가장 중요한 제물은 소이다. 과거에는 소 한 마리를 사와서 제물로 사용했지만, 요즘은 소머리·고기·천엽·간·콩팥 등으로 간소화되었다. 우측은 제사에 쓰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기의 구입은 주로 독산동 우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나, 요즘은 동네의 농협 구판장에서 사오는 편이다. 독산동에서 구한 이유는 바로 소를 잡기 때문에 싱싱한 것을 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한우인지 구분이 가능하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 과일과 명태포 등을 구해오며, 팔시루떡을 준비한다.

현재와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일주일 전에 수원의 우시장에서 소를 사와서 제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고기를 마을의 호수별로 분배하였다고 한다. 당시는 약 56호 정도로 별타가 20호로 가장 많이 살았다.

음력 7월 2일 사람들은 향친회 사무실로 모여 들었다. 이때는 이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마치 향우회를 개최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향친회 사무실에는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제물을 삶거나 시루떡을 이곳에서 직접 만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제주집에서 음식을 장만하였다. 남자들은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도 제사에 관한 이야기나 세상사는 이야기 등을 나누고 있었다. 올해에는 오전에 비가 내려서 제사 장소를 향친회 사무실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산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에 올랐을 때는 거짓말 같이 비가 그쳐서 사람들은 당할아버지가 도와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까지 지프 등을 이용해서 제물을 운반하였다. 원래 이곳은 등산로 형식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곳인데, 산축제만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당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만이 오를 수 있다. 당에 와서 제물을 진설하기 시작하였다. 진설이 완료되면 당의 앞쪽에 있는 참나무로 한 사람이 가서 산신제를 드린다. 참나무 밑에 통북어와 잔만 올리

고 재배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다음에 본당으로 와서 산축제가 시작된다. 이때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 금정동 산축제 제물상차림

도포와 건으로 차려 입은 제관이 먼저 향을 피운 후 소지를 시작한다. 소지는 대동소지, 향친회소지, 축관소지의 순으로 행해진다. 대동소지 때에는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대동소지올시다’, 제관이 하는 향친회소지에는 ‘금정동 향친동우회 소지올시다. 주민 여러분의 만복과 건강을 비읍니다’라고 말한다. 축관소지 때에도 향친회 소지와 같다.

소지가 끝나면 다시 잔을 올리고 수저를 콩팥위에 올린 후 제관이 절을 한다. 이 절이 끝나면 오른 사람들이 모두 절을 한다. 그러면 축관은 독축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읽는 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維
歲次戊寅年七月庚申朔初二日壬寅 李賢秀
敢昭告于

衿井山堂	后土地神	惟神最靈	越自開闢
護此閭卷	默佑千代	諸祥愉臻	群災消却
百穀豐穰	六畜繁殖	虎豹遠跡	妖邪斷氛
瘴疢驅辟	祥風灑墟	疆域人壽	人口興旺
英俊鐘梳	富饒漸進	特降遐福	永垂吉緒
實賴神休	函養冥功	每年有期	吉月令辰
誠潔致禱	謹以清酌	祇薦于神	
尚 饗			

〈금정동 산축제 축문〉

독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있다. 독축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면 이때 한 사람이 촛불을 끄고 술을 당목 주위에 뿌린다. 그런 후 다시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술을 당목에 뿌리는 과정을 2회 반복 한다. 이때도 역시 오른 사람들이 모두 절을 올린다. 이것으로 제사는 끝나며 축문소지를 올리고 고시례와 음복을 하기 시작한다. 간략한 음복이 끝나면 철상을 하고 제물을 모두 향친회 사무실로 운반한다. 제사가 끝난 시각은 12시 30분쯤으로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

향친회 사무실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복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농악을 치고 놀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마을의 변화로 인해 술과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7-1. 금정동 산축제 독축

3) 결 산

제의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40에서 50만원 정도이다. 이 비용은 전액 향친회의 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축관과 제관에 대한 사례는 없는데, 현재 제물의 장만을 마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이다.

□ 제보자 : 최창규(남, 63세, 군포시 금정동, 원래 이곳이 고향으로 현재 향친회 회장을 맡고 있다)

7-2. 산본 2동 광정마을 산축제(山祝祭)

산본 2동도 농촌지역이었으나, 현재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변했다. 원래는 시흥군 남면 산본리의 광정마을과 골안마을이 참여하였는데, 현재 산축회 회원들은 광정마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뒤쪽에 있는 수리산의 최고봉인 태홀봉 산신을 모시는 수리산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수리산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제의로서, 고려시대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등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만 제외하고는 계속 지내왔다. 제의일시는 매년 1월과 7월 초 길일을 택해서 지내는데, 올해는 음력으로 1월 3일과 7월 4일에 지냈다. 정월 초의 경우 설날은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5일에 택일을 해서 지내고 있다. 현재 이 제의는 폐쇄형 마을축제에서 개방형 축제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89년 군포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특별한 민속경연행사가 없기 때문에 수리산 산신제라는 명칭으로 두 번이나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1) 당의 구조와 위치

당은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이 있는데, 할아버지당은 태을초등학교 뒤 수리산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은 수리산 산신당이다. 마을에서 약 15분 정도 산 쪽으로 오르는 곳에 남향으로 세워져 있다. 할머니당은 개나리아파트 뒤에 있으나, 현재 이곳에 터널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할아버지당은 현판이 ‘修理 山山神祭堂’으로 적혀있다. 당은 기와지붕에 시멘트로 4개의 기둥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벽면이 없다. 당안의 규모는 세로가 280cm에 가로가 270cm 정도이며, 4단의 계단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제단의 뒤편에는 판석을 이용해서 촘촘히 세워놓은 상태이며, 양측면은 30cm 정도의 폭으로



7-2 산본 2동 수리산 산신제당

시멘트를 발라 놓았다. 층층의 계단식으로 제단을 높여 놓았는데, 위패를 놓는 맨 위의 제단 규모가 65×43×17cm이다. 당의 오른편 입구 쪽에는 신목으로 생각되는 소나무가 1그루 있으며, 그 밑에는 헌식을 하고 가리는 기와 1장과 60cm 높이의 벚가릿대가 세워져 있다. 이 당 전체는 스텐 철책으로 막아 놓았는데, 등산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제의과정

산축회에서 조를 짠 순번대로 당주와 축관을 각 1명씩 선정한다. 이외에도 집사 2명이 있어 이들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 원래는 마을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았지만, 현재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를 짜고 그 중에서 나온 사람을 당주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의준비중 중요한 일은 제육인 소를 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4 - 7일 전에 수원이나 독산동, 안산, 화성군 사강까지 가서 소를 구해온 후에 당주집에서 먹이다가 군포관내에 있는 도축장에서 잡는 방식을 취했다. 요즘은 독산동의 도살장에서 미리 소를 보아둔 후에 전날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사에 쓸 제물이기 때문에 당일 잡아서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법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루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는 소를 물먹여 잡는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생겨난 법이라고 한다. 소를 잡게 된 것은 과거 농촌에서 일년에 한번도 소고기를 먹기가 힘든 때였기 때문에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소고기를 마을사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월에도 소를 잡지만, 특히 7월 제의에는 힘든 김매기 등의 농사일이 끝난 후라 육체적인 피로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를 회복한다는 실용적인 면도 지닌다고 하겠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소를 함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리와 4족, 간, 허파 등 주요부위만을 장만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제사비용은 대개 돈으로 거두었으며, 돈을 낸 사람들에게는 고기가 1메씩 분배되었지만 못낸 사람은 반메 정도를 할당받았다.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은 가마솥을 떼어 맡길 정도로 가혹한 면도 있었지만, 참여의식이 강조된 때문인지 현재도 제의가 전승되는 근간이 되었다. 올해의 경우 소를 미리 봐두었다가 전날 사가지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잡았다. 잡은 소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다음날 찾아와 제사를 드리게 된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소를 2마리 잡았는데, 나누어도 서너 근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올해 소값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2마리를 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주와 제관은 정월제사의 경우 12월 중순 경, 7월 제사는 6월 말에 정한다. 요즘은 이들 임무를 맡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산축회 회원들을 4명씩 조를 짜서 강제로 맡기게

되었다. 제사를 맡게 된 조는 조원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을 당주로 정한다. 택일은 어디에서 봐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 중에서 일진을 보는 사람이 대략 정하게 된다. 당과 당주, 축관의 집에는 금줄을 쳤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황토 정도만 뿌려 놓는다. 현재 당 주위는 수리산 등산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표식이 없어도 예전과 같이 지낸다고 하였다. 당제를 지내기 전 날에 뽑힌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목욕제계를 한다. 특히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마을 전체는 음식을 끊어 먹을 수 없다. 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제의를 위해 금기를 지키는 것이다.

소 이외의 제물은 마을에 있는 산본 구시장에서 구해오는 편이다. 구입하는 물건은 북어와 삼살과, 능금, 싱싱한 과일 등을 구해 쓴다. 여름철에는 과일이 풍성한 때라 구할 수 있는 과일을 많이 사는 편이다. 떡은 팔시루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작은 시루를 쓰는 편이다. 큰 시루는 산에 오를 때 무겁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한 과거처럼 시루떡을 동네사람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루는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본당에 놓고, 다른 하나는 할머니당인 작은 당에 올린다. 조라술은 당주가 제사 지내기 전날 저녁이나 밤중에 시간을 택해서 당의 오른쪽에 있는 터줏가리에 넣어둔다. 특별히 땅을 파는 것은 아니며, 그냥 터줏가리만 덮어 놓는 식이다. 누룩과 엇기름 등을 넣는데, 노인들 얘기로 겨울에는 추운데도 얼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장하기도 한다.

제육은 당에서 삶는데, 이 시간에 따라 제의시간도 부정적이다. 1월에는 오후 3 - 4시경이며, 7월에는 2시 반 정도에 한다. 제물의 준비가 완료되면 당주집에 모여 있다가 당으로 오른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큰당과 작은 당에서의 제물차림이 같기 때문에 준비한 제물이 많은 편이며, 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게 등에 지고 오른다.

당에 도착하면 제물의 진설에 들어간다. 그런 후에 당주가 강신잔을 드리고 탕을 올리면 4배를 한다. 가정집에서의 일반적인 제사는 재배를 하지만, 큰 제사인 당제사·용왕제·종묘대제 등에서는 4배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도 다시 당주가 잔을 올리고 4배를 하는데, 올라온 사람들도 같이 절을 드린다. 그런 후에 축문을 읽기 시작한다. 축문은 축관이 읽으며, 이것이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대동소지가 먼저 오르고, 나머지 오른 사람들이 약 20장 정도의 소지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다시 당주가 잔을 올리고 오른 사람들이 모두 절을 4배하면 본당에서의 제의는 끝난다. 그리고 잡신제라 하여 제물을 모두 왼편으로 옮겨놓고 잔을 올린 후 절을 한다. 이때 제물은 순서없이 그대로 놓아두며, 잔은 단잔이다. 절을 마치고 제물을 내린 후에도 절을 올린다. 잡신제까지 끝나면 고시레라고 해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 사



7-3. 산본 2동 산신제 축문

방으로 두루 뿌린다. 여기까지 마치면 간단히 음복을 하고 작은 당으로 옮긴다.

작은 당에서의 제물차림은 본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문도 똑같이 써서 독축을 하며, 소지가 동일하게 올려준다. 여기에서도 간단히 음복을 하고 철상을 하여 마을로 내려와 당주집으로 간다. 당주집에서 와서 제물을 '주미'라고 하여

당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물을 나누어주는 반기를 시작된다. 이때 소고기도 분육을 한다. 특별히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음복을 하는 일은 없다. 과거 이 마을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잠을 소를 먹은 사람이 죽은 예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과거 나무를 해서 뿔감으로 사용했는데, 산에 나무가 없어 어떤 사람이 모르고 당이 있는 근처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리병신이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당에 대한 치성이 깊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3) 결 산

제물 구입비에 대한 비용추렴은 산축회에서 부담을 한다. 이를 위해서 1인당 5만원씩의 회비를 거두는데, 제의가 끝나고 7월 20일 경에 거둔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총무이다. 올해의 경우 소 이외의 제물비로 25만원 정도가 들었으며, 소값은 총 1,115kg(1kg당 3,400원)에 3,791,000원이 들었다. 당주집에 대해서는 사례비 대신에 분육한 소 한몫을 더 준다.

- 제보자 : 이석구(남, 71세, 성종의 3남인 전주이씨 안양군파의 종손, 현재 종친회 사무실 근무)
- 이기영(남, 64세, 이곳에서 17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7월 제의에서 제관)

8. 김포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8-1.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1) 마을개관

향산리는 원래 행산리로 불렸으나, 일제 때 행정명을 개편할 때 향산리라고 하였다. 김포 문화원에서 발간한 《金浦의 說話》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 향산리로 부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상항 마을에 수백 년 된 향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향산리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산리는 원래 농촌이었으나, 개발의 붐으로 인해 마을 곳곳에 공장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공장은 아파트가 세워지는 계획에 따라 점점 퇴출되는 과정에 있다. 현재 향산리는 동네가 커지면서 1리와 2리로 나누어졌다. 1리는 150세대에 250명 정도, 2리는 110세대에 약 2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따라서 도당고사도 1리 구향과 2리 상향이 별도로 지내는데, 당은 하나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내고 있다. 2002년에는 향산 2리에서 지냈다. 이외에 종달새 마을이라고 하여 향산 3리가 있다.

향산리에는 향산교회가 있는데, 약 200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 향산리에서 다니는 신도는 약 3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2) 제의명칭과 시기

향산리의 제의명칭은 도당고사, 혹은 산고사라고 부른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향산리가 한강과 인접해 있을 때 마을에서 도당굿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고사는 무당을 부르지 않은 마을고사, 즉 도당굿이 퇴락하면서 경기도 지방의 일반적인 마을제의 명칭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제의시기는 음력으로 11월 초삼일로 정해져 있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원래는 도당산에 산판을 둥그렇게 해서 터주가리를 세웠었다. 약 10년 전부터 향산 1리의 현 위치에 당집과 비석을 세웠다. 당은 PVC원단을 뽑는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당에 대해 문의했으나, 자기들도 금년에 이곳에 입주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였다. 원래 이곳에 당을 세울 때는 공장이 없었는데, 공장이 입주하면서 새롭게 당도 개축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당의 북쪽에는 상수리나무가 심어져 있다.

비석에는 '香山里陶唐神靈'이라고 새겨서 당 안의 북쪽으로 세웠다. 도당이 일반적으로 都堂으로 표기하는데 비해, 이곳에서는 질그릇 도와 당나라 당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특이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당 안에는 창문이 양쪽에 나 있으며,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마치 개량한옥인 듯한 느낌을 준다. 당앞으로 문을 냈는데, 문이 화초문양으로 장식된 철문 샹시의 형태라 호기심을 자아낸다. 이곳에 당을 세우면서 전통적인 구조방식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가옥에 쓰이는 장식재를 활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멘트로 약 22cm의 높이로 기초를 세운 후 적벽돌을 이용해서 세로 126cm, 가로 180cm로 담을 쳤다. 창은 좌우로 설치했는데, 약 144cm의 높이에 위치한다. 당 안의 좌하단에 조라단지를 설치한다. 당 앞에는 상석이 놓여져 있는데, 높이 43cm, 85cm×60cm의 크기다.



8-1. 향산리도당신령비 (香山里陶唐神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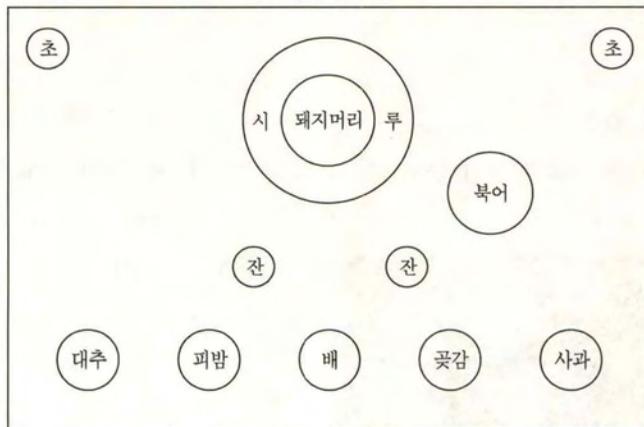
8-2. 당안에 보관중인 조리술 단지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산고사를 위해서 제관 2명과 축관 1명을 뽑는다. 이들은 11월 2일 바로 전날 뽑는데, 대개 마을의 연장자이거나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택한다. 올해에는 김행원씨(64세)를 축관으로 뽑았다. 이외에 제관들은 이장과 반장 등으로 정한다. 이들이 지켜야 할 금기는 거의

없으며, 목욕제계도 재량껏 하는 방식이다.

제물의 구입은 이장이 구해오는데, 김포읍장을 주로 이용한다. 김포읍장은 5·7일장이라 올해는 4일 전(양력 12월 2일) 장이 설 때 구해왔다고 한다. 제물로는 대추·밤·사과·배·감·산자·옥춘·약식·복어 등이다. 돼지머리는 전날 구해서 이장 집에서 삶아 놓는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제물 가격을 흥정하거나 고르기를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본 물건을 그냥 구입해야 한다. 이외에 팔시루떡을 하는데, 방앗간에서 맞춘다. 여기에는 팔 3되와 쌀 1말이 필요하다. 이외에 조라술을 담아놓기 위해서 단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매년 새 것을 사용한다. 올해에는 만 4천원 정도를 주고 구입했다. 조라술은 전날 이장 부인이 하루 전에 당집 안에 넣어두고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꺼내서 사용한다. 원래 술을 담그는 사람은 제관 부인이었으나, 현재는 제관을 뽑기 보다는 동네일을 보는 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장 부인이 하고 있다. 10시쯤에 모든 사람이 모여 간다고 했는데, 제관이 약간 늦어 10시 20분쯤 출발하여 트럭을 이용하여 30분에 도착했다. 당에 도착해서 제관들은 준비된 제복을 입었다. 당은 미리 청소가 되어 있었으며, 조라술을 담아둔 단지를 꺼내 베로 짜서 술을 담았다. 제관들은 제물 진설에 들어갔는데, 가운데 시루를 놓고 그 안에 돼지머리를 얹었으며, 시루의 양편에 복어를 꽂았다. 그 외의 제물진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 향산리 당산제 제물상차림

제물의 진설이 완료되면 제관과 축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제관이 잔을 올린다. 그리고 제관 이용구씨가 축문을 읽기 시작한다. 독축이 끝나면 잔을 내리고 다시 잔을 올린 후에 재배를 한다. 다시 퇴주 후에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이것을 제관과 축관이 3번을 반

복한다. 즉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차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끝나면 당 옆에 떡 등을 고시레하며, 철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제관과 축관은 도포를 벗어 버리고 축문을 태운다. 이것은 대동소지의 역할을 하는데, 축문을 태울 때 축언을 간단히 읊조린다. 이러한 절차로 끝나는 시간이 약 25분 소요된다. 참고로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壬午年 丙午朔 拾壹日
 初三日
 祭官 李龍九 敢昭告于

 香山里所在 堂主人山神 前納吉
 部落용성 편안건강 화목친절
 尙
 饗

〈향산리 당산제 축문〉

5) 제의 운영과 결산

제사를 드리는 날은 마을 전체가 놀고먹는 날로 생각했다. 제물로는 통돼지를 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호호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기가 귀한 편도 아니고 해서 15년 전



8-3. 당으로 가는 제관

부터는 돼지머리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도 원래는 밤 11시 정도 였는데,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오전 10시 반쯤에 드리게 되었다. 이 제사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음복으로 점심을 같이 한다.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10년 전에는 가가호호 쌀 반 되씩을 거둬 사용했는데, 현재는 동네자금으로 집행한다. 약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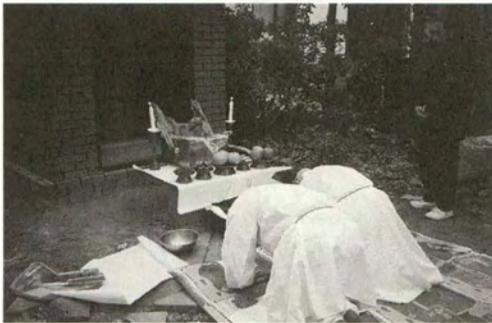
-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편으로 올해는 약 28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祭主에 대한 사례는 없다. 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 12월 28일 마을 총회에서 보고한다. 이 제사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크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다. 마을에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신도도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고사를 안 지내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8-4. 제물진설



8-5. 조리술 거르기



8-6. 독축후 재배



8-7. 고시례



8-8. 소지



8-9. 당문에 걸어 놓은 복어

8-2. 통진면 동을산 1리 상야마을 산신제

1) 마을개관

김포읍에서 강화 쪽으로 가는 도중 수창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너른 평야가 나오는데, 그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다. 동을산리는 상야·하야·신대마을로 이루어졌으며, 신대는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와 형성된 마을이다. 상야마을에서 산신제를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야와 신대마을의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

동을산리(冬乙山里)라는 지명의 유래는 마치 겨울새가 움츠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상야마을의 호수는 40호로 농가가 30호이며, 비농가가 10호 정도이다. 논농사를 주로 짓는데 약 25만평 정도가 된다. 밭은 만 오천 평 정도이며, 포도과수원을 많이 하고 있다. 상야마을에는 약 30년 정도가 된 장로교회가 하나있는데, 현재 신도들은 별로 없는 편이다.

2) 제의명칭 및 시기

이 마을에서 지내는 제의명은 산신제로, 정월 초에 택일을 해서 지낸다. 1월 3일 쯤에 <천지대요>라는 책을 보고 택일과 생기복덕을 보고 제관을 선정한다. 뽑는 사람은 도가집과 측관, 제관 3명이다. 이외에 3개 마을의 이장이 제례위원이라고 해서 참여한다. 특히 제관들의 생기복덕이 맞아도 집안에 달거리를 하는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뽑힐 수가 없다. 날이 정해졌는데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2월 초내에 택일을 다시 해서 제사를 드린다.

3) 제당의 명칭 및 형태

당은 신목으로만 이루어진 형태이다. 상야마을 뒤쪽의 야산인 주당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갈참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다. 원래의 신목은 현재 고사된 실정이며, 그 뿌리에서 난 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산신제를 드린다. 당에서 모시는 신은 산이라고 하며, 남녀의 구분은 확실하지 않다. 예전에 이 마을에 호랑이가 왔다간 발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호랑이를 산신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산신의 영험과 관련되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주당산 너머의 말구릅밭이란 곳이 있는데 한 대감이 이곳을 말을 타고 지나가려고 하였다. 동네 노인들이 말에서 내려 걸어갈 것을 권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말구릅밭 근처로 오자 정말 말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

감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말이 움직이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산이 영험한 것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이 이곳에서 산신제를 올리게 되었다.



8-10. 신목과 산신제터



8-11. 조라술 묶는 터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날이 정해지면 도가집에 황토를 뿌려 잡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도가집은 제물을 준비하고 돼지나 소 등을 잡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금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의날짜가 잡혔는데, 다른 마을 사람이 들어왔으면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제사가 끝나야 나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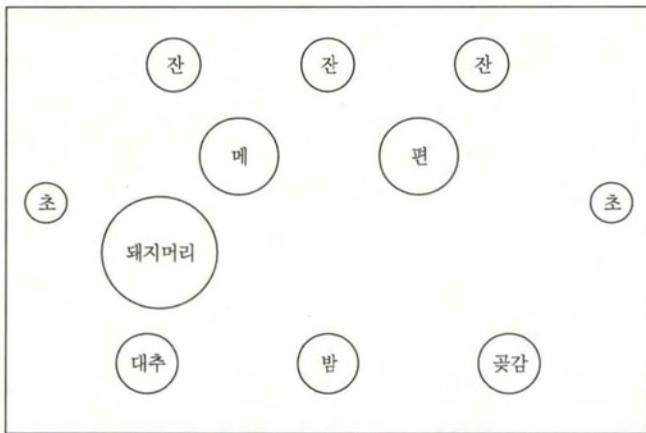
제물로는 통돼지 한 마리와 기타 제물로 나눌 수 있다. 원래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제육으로는 소를 잡았는데, 일제에 의한 탄압 때문에 동네에서 키우는 돼지 중에서 검정색으로 된 재래종을 정해서 구입하게 되었다. 조라술은 1되 서홉을 담는데, 이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당일조라’는 제삿날 새벽에 미리 누룩의 담은 술을 목욕재계를 한 후에 당으로 올라 땅을 파서 묻고 짚으로 덮어놓는 것이다. ‘전날 조라’는 제사지내기 전날에 목욕재계를 한 후에 술을 담아 놓은 것을 당 옆에 묻어둔다. 이러한 조라술의 준비는 택일을 해서 담는다.

기타 제물의 구입은 도가집과 이장이 마송에서 서는 장에 맞춰 구입한다. 대개 제의날 아침에 가서 사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의 제물로는 메로 쓰기 위한 반미가 3되 서홉, 편을 만들기 위한 편미가 3되 서홉, 백지 11장, 양초 1쌍, 우두 1개 등을 마련하라고 축문에 적혀 있었다. 이 중에서 우두는 쓰지 않고 돼지머리를 사용한다. 즉 돼지머리는 제의과정에서 사용되며, 나머지 고기는 연로하신 어

른들에게 나누어준다. 돼지머리를 삶고 편이나 메 등이 마르면 밤 11시쯤에 해시(亥時)에 맞춰 당으로 오른다. 당에는 제관과 축관, 그리고 이장들뿐만 아니라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참여한다. 오르는 순서는 제관이 앞서고 축관과 도가집의 순이다. 이들은 대개 목욕재계를 하는 등 정갈하게 준비를 하고 오른다. 또한 제관과 축관은 도포와 건을 쓴다. 제물은 멬빵으로 상을 앞으로 묶고 그 위에 엮어 운반한다. 지게와 같이 뒤로 하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당에는 금줄을 치지 않은 대신에 모닥불로 밝혀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라는 것을 알린다. 그리고 당으로 오르는 길목에 전깃불을 켜서 환하게 밝힌다.

당에 도착해서 미리 쳐둔 차양에 제사상과 병풍을 두른다.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편, 메, 삼실과와 술 등으로 간단한 편이다. 메는 밥그릇에 담은 것이 아니라 큰 양푼에 담아서 상에 올린다. 상에는 잔이 세개 올라 있는데, 그 잔들마다 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유래는 알지 못한다. 삼실과와 잔은 목기로 사용하며, 돼지머리와 메는 양푼 등의 그릇을 이용한다. 제기는 동네의 것이 있으며, 도가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번 도가집으로 옮긴다. 이때의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동을산 1리 상아마을 제물상차림

상차림이 끝나면 먼저 제관이 헌작을 한 후에 절을 한다. 그런 후 축관이 축을 읽고 절을 한 다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절을 올린다. 이것이 끝나면 소지에 들어간다. 소지는 축관과 제관이 같이 하지만, 원래는 덕담을 잘 하는 사람을 불러서 가기도 하였다. 먼저 동네소지를 7장 정도 올린다. 그런 후에 개인별로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올려준다. 소지의 내용은 간략하다. 즉 “김포군 통진면 동을산리 주민 전체가 오늘 정성을 드리오니 소례를 드리면 대례로 받으십시오. 이 산신제를 잡수시고 난 이후에 마을에 사고 없이 모든 일

이 잘되게 해주십사.” 하는 식이다.

이때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한때 축문의 한자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풀어쓴 적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축문대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축문의 말미에는 제물의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백미, 술을 담기 위한 조라미, 반미, 백저, 洋醋, 牛頭 등이 있다. 이외에 본래 사용하던 축문 대신에 간략한 축문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에서의 제사가 끝나면 남쪽으로 내려와 백지만을 깬 상에 먼저 사용한 제물을 그대로 차린다. 여기에서도 당에서 한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축문은 없다. 소지도 올려주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신을 모시거나, 본신을 따라 다니는 수배신을 위한 제의인 것 같았으나 잘 모신다고 하였다. 이것이 끝나면 철상과 함께 고시례를 하게 된다. 고시례를 하는 음식은 떡과 메를 제외한 과일이나 고기 등이다. 고시례는 동서남북으로 제물을 떼어서 던져준다. 예전에는 어린이나 청년들이 고시례 음식을 먹으면 병도 안걸리고 명도 길어진다고 해서 새벽에 잠도 안자고 올라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린 제물 중 거의 반 정도를 고시례로 사용했다.

또한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제물을 한 봉지씩 싸서 나누어 준다. 이것을 먹으면 명이 길고 복을 준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후에 제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려오면 끝이 난다. 도가집에 내려오면 대략 11시쯤이 된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음복을 하며, 다

維歲次 干支朔 幼學○○○ 敢昭告于
 后土神靈奧百村居奠止攸舊瞻彼唐
 峴爲其鎮峙天慳地秘景仰庇庥人神
 相衣賓主如對是庸悃誠歲歲潔薦
 牲豆若保崇隆洒祿我稼我穡日豐
 日登我痒我疇云噤惟神取佑
 象類其安歲聿既經孟春是屆
 季朔且告泰享元氣辰良日吉凡
 我諸人齋沐一虔霽懞藉芋○穆將
 仰謹以牲酒祗薦虔告伏惟
 奠靈庶歆斯觴尙 饗

〈상아마을 축문〉

維歲次 丁巳正月丙午朔 初四日己酉 幼學崔泳德
 敢昭告于
 后土神靈 象類奧澤 歲聿既經 維此孟春
 日吉辰良 侍主諸人 齋戒洗心 掃塵精壇
 致誠享祀 唯
 神保佑 瘟疫疾患 盜難火災 官府口舌
 非命橫厄 出入無碍 禍去福來
 吉至凶退 百病消除 洞里太平
 稼穡豐登 商業繁昌 家家富潤
 謹以牲酒 祗薦于
 神 尙
 饗

〈상아마을 축문〉

음날에 도가집으로 마을사람 전체가 모여 음식을 먹고 농사를 치며 놀기도 한다. 음복은 주로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한다. 돼지고기는 먼저 노인분들에게 각 1근씩 나누어주고 남은 고기로 음복을 하는 것이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제의 비용은 예전부터 쌀을 거두었다. 예전에는 5되씩으로 했지만 호수가 줄고 비용도 올라서 30년 전부터는 1되씩 받는다. 이때 거둔 쌀은 대략 2가마 정도이다. 각출은 선달그믐부터 각 마을의 이장이 맡아서 거둔다. 제의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마을의 돈으로 지원을 해준다. 대략 15 -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돼지구입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이다. 도가집에 대해 사례로는 별도로 양념값이나 수고비조로 15만원 정도를 준다. 과거에는 장작도 한 단을 주고, 돼지다리도 한 짝을 주었다. 요즘도 돼지다리 한 짝은 준다.

산신제를 잘못 모셔서 탈이 난 경우는 없었다. 한번은 산신제를 괘시하여 동네가 술렁거릴 때 제사를 지냈는데, 축원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동네에서 잘못된 일이 있고 해서 그냥 지내왔다. 젊은이들도 크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다. 마을에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신도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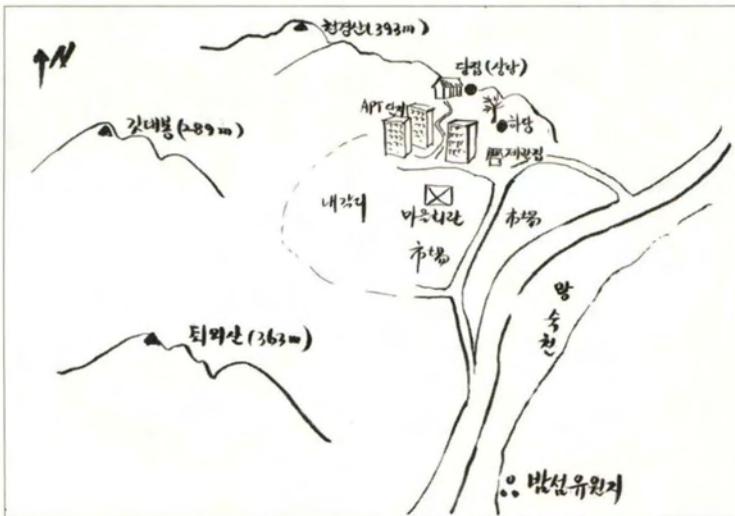
□ 제보자 : 조우현(남, 64세, 농업, 김포군 통진면 동을산 1리 상야마을. 평양 조씨로 개풍에서 내려와 현재 4대째 거주. 산신제 축관으로만 30년 정도 참여)

9. 남양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9-1. 진접읍 내각 1리 내동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남양주시 진접읍은 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대에는 풍양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양주군에 편입되어 접동면이 되었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으로 진별면과 별비면이 통합되어 진접면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980년 남양주군이 신설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현재는 남양주군은 남양주시, 진접면은 진접읍으로 승격되었다. 산업은 쌀 생산 중심의 논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시내에서는 수확량이 가장 많으며, 도시근교의 특성을 살려 상품성이 높은 작물 중심의 원예 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하였다. 조사지인 내각리의 경우 47번 국도가 지나가는 우측변에 소읍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도농복합지이다. 역사적 기념물로 조선시대 이희조가 세운 '태극정'이 있다. 이미 시내에는 아파트촌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전형적인 도회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토박이들은 약 150여호(실제 산제사에 참여하는 숫자와 같음)에 이르며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신작로가 있어 상업지역이 잘 발달되어



〈그림 22〉 진접읍 내각 1리 내동마을 당 위치도

변화한 시내를 연출하고 있다. 내각리는 오른쪽으로 천견산과 왼쪽으로는 퇴매산이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는 왕숙천이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을 이루고 있다. 내각리 초입의 왕숙천에는 서울 근교에서 이름 나있는 밤섬 유원지가 자리하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9-1. 산제사를 올리는 당집 전경

제당은 마을의 뒤 야산 정상 부근에 있다. 마을 뒤 야산은 동북쪽 천견산이 흘러와 멈춘 곳으로 산이 높지는 않으나 험하고 수목이 울창한 명산이다. 제당은 신목(神木)으로 만 이루어진 하당(下堂)과 하당에서 100m 위 능선에 자리 잡은 상당(上堂)이 있다. 상당은 당집의 형태로 되어있다. 상당은 크기는 가로 5.5m×세로 3m 크기의 시멘트 블록을 조적하고, 지붕은 스테이트 맞배집으로 마감하였다. 전면에는 80cm 가량의 들문이 5개 달려있다. 내부에는 전면 벽에 길다란 금줄이 하나 걸려있다. 그 아래로 제단이 마련되었고 제물을 차리기 위한 나무상자도 4개 있다. 당집 오른쪽에는 제의가 행해질 때 쓸 조라를 담그는 구멍도 있고 그 아래로 가마솥을 걸 수 있는 한테 아궁이가 두 개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제의 때 회를 만들어 불을 밝혔으나 지금은 서낭당까지 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불로 불을 밝힌다. 능선을 타고 100m 쯤 내려온 하당은 소나무로 군락을 이룬 곳이다. 역시 음력 이월에 제사를 올렸던 흔적으로 금줄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내각리에서는 이곳에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두 분을 모셔두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9-2. 당집 오른쪽에 조라솥을 담는 곳



9-3. 제물을 찌거나, 음복용 요리를 위해 술을 거는 야외 화덕



9-4. 당집 내부. 희생 소를 올려놓는 제단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 2월초와 10월 초 택일하여 일년에 2번 제사를 올린다. 제의 시간은 밤 9 시쯤에 올린다. 마을에서는 이 제의를 ‘산제사’라고 표현하며 신목과 당집이 있는 곳을 ‘당집’이라고 한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과 제관(영좌)의 선출은 음력 정월 보름 ‘대동회’ 때 이루어진다. 대동회는 정월 보름날을 잡아 동네 어른들이 모두 모여 동네 결산 보고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 가급적 좋은 날을 잡게 되는데 동네에서 산소의 명당 자리를 보는 분을 모셔 일진을 맞추어 날을 잡고, 생기복덕을 가려 영좌와 소임을 선출한다. 내각리는 모두 5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좌를 보조할 소임도 각 반별로 1명씩 5명을 뽑게 된다. 영좌와 소임은 1년 동안이 2월 제사와 10월 제사 모두를 책임지게 된다. 1년간의 영좌와 소임 생활은 그 기간 내 계속해서 근신하고 조신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보름 전부터 금기 기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일단 영좌와 소임이 정해지면 4-5일을 앞두고 영좌 집에는 술가지를 끼운 금줄을 대문에 두르고 매사에 근신하며 바깥출입을 매우 자제한다. 특히 비린 음식이나 외지 사람과 조우하지 않는다. 또 제당에도 소림들과 함께 제의 하루전날 금줄을 메고 당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현재 내각리에서는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실제로 제의에 참여하는 가구는 150호에 불과하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영좌와 소임이 함께 장만한다. 주로 내각리 자체에서 조달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도 가게 집에서는 모두 한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건으로 저렴하게 내어 놓는다. 주요 제물은 소머리로 동네 푸줏간에서 사전에 주문하여 맞춘다. 내각리에는 토박이 정육점이 2곳이 있어서 2월 제사와 10월 제사를 나누어 고기를 담당한다. 소머리는 반드시 한우 황소로 선택한다. 기타 제물로는 간단히 삼색실과(대추, 밤, 감 혹은 곱감)와

배, 산자 등을 각 2벌, 문어발 2, 통북어 40마리, 소죽 2벌을 구입한다. 모두 2벌씩 구입하는 것은 산할아버지 1벌, 산할머니 1벌을 별도로 진설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루떡은 반드시 영좌 집에서 장만한다. 진설할 제주는 식혜로 화주가 제의 하루전날 밥과 옛기름을 준비하여 제당 옆 조라터에 묻어 준비한다. 조제량은 대체로 1되 가량 담는다. 제의 준비는 영좌집에서 대체로 이루어진다. 영좌집에는 산제사와 관련된 각종 물목기, 축문, 제물을 진설할 사기 제기, 각종 집기가 보관되며 제사 준비를 위하여 이를 모두 꺼내 닦고 청소한다. 제사 준비가 모두 끝이 나며 영좌는 흰색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서낭당으로 향한다. 소임들은 제물을 지게에 지고 서낭당에 올랐지만 지금은 서낭당 밑까지 길을 내고 경운기로 제물을 운반한다. 서낭당에는 영좌와 소임 말고도 이장, 통장, 노인회대표 등 부정이 없는 마을 대표들이 20 - 30여명이 별도로 서낭당에 오른다.



9-5. 산제사용 산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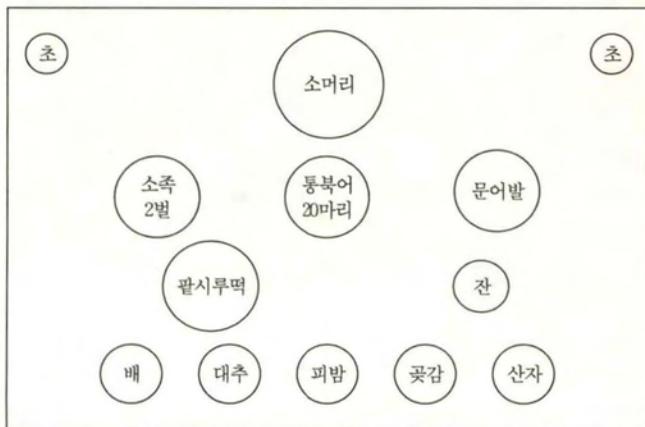


9-6. 봄철용 제물 물목기



9-7. 제물 진설용 제기(제관집에 보관)

제물이 도착되면 곧 진설을 마치고 영좌가 강신을 하고 난후 재배한다. 이어 이장이 준비한 축을 읽는다. 축이 끝나면 다시 잔을 드리고 재배한다. 보통 6시경 산에 올라 제의를 올리면 8시경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먼저 화주가 술을 한잔을 붓고 절을 올리면 이어서 이장이 절하고 이장은 준비해온 축문을 읽는다. 축문이 순서가 끝나면 마을 대표들이 차례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재배가 모두 끝나면 영좌는 각 가가호호의 소지를 올리게 된다. 이때 제의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각기 자가 소지를 별도로 올린다. 영좌는 자기 개인 가정에서부터 제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소지를 맡아 모두 올리게 된다. 소지의 내용은 ‘가내안녕과 무탈’이 주종을 이루며 각기 개인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소지가 모두 올라가면 모든 제의가 끝난다.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임들은 가마솥을 2개 걸고 하나는 선지국을 하나는 밥을 짓는다. 대체로 제의 종료에 맞추어 음식 장만을 하게 되는데 제의가 끝나면 모든 참석자들이 서낭당 공터에 둘러앉아 음복을 하게 된다. 음복이 모두 끝나면 철상하고 모두 영좌집으로 가서 다시 간단한 음복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제의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고 문서상의 결산은 해마다 정월 보름 즈음에 실시되는 대동회 때 보고 결산을 하게 된다. 2002년의 경우에는 제의 경비로 약 200만원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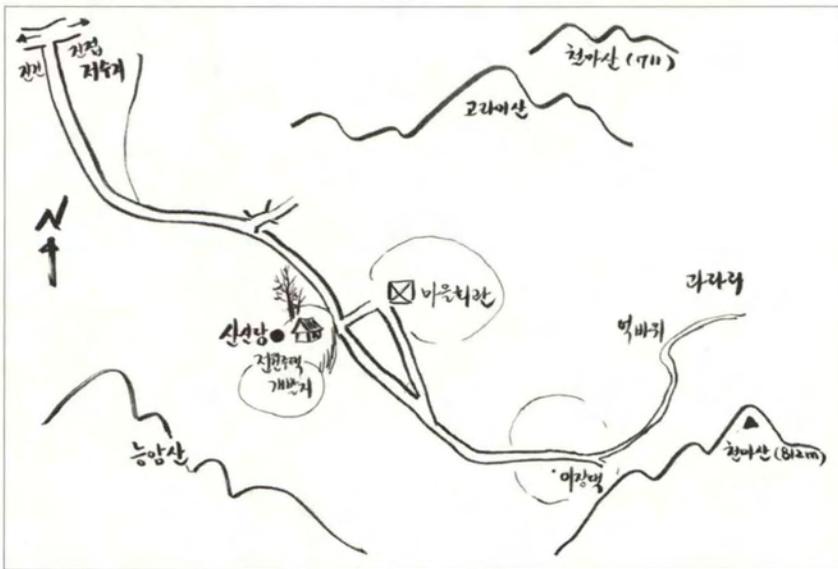
〈그림 23〉 진접읍 내각 1리 내동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

- 제보자 : 이진수(남, 67세, 내동 노인회)
신광균(남, 85세, 내동 노인회)

9-2. 오남읍 팔현 1리 산제사

1) 마을개관

오남읍은 본래 풍양현지역으로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건천면과 접동면 일대였다. 1914년 행정구역 동폐합때 이 지역은 진건면에 편제되었다. 팔현리는 건천면 팔현리를 그대로 편제한 것이며, 오남리는 건천면 어남상(於南上)리 / 어남하(於南下)리 / 오산(梧山)리 전부와 단곡(丹谷)리의 일부를 합하였고, 양지리는 건천면 양지 / 단곡리 / 접동면 증포리 각 일부를 개편한 것이다. '오남'이란 명칭은 이 때 오산의 '오'자와 어남의 '남'자를 따서 유래한 것이다. 또는 세조가 광릉 묘지터를 찾으러 광릉방면으로 가는 길에 건너다 본 곳이라 하여 '어람리(御覽里)'라 하던 것이 와전되어 '의냄리', '어냄이', '어남'이라고 불려오다가 '오남'으로 되었다고 한다. 1983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진건면에서 진접면으로 이관되었고, 1989년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개설되었으며, 1995년 5월 6일 시조례 제140호에 의거 오남면으로 승격되었다. 2001년 9월 12일 남양주시 조례 제454호에 의거 오남읍으로 승격되었다. 2002년 현재 양지·팔현·오남리의 3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조사지인 팔현 1리는 오남읍에서 정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산촌마을이다. 양숙천 원수원이 흐르고 있는 천마산 깊숙한 곳에 산개한 가옥들이 높은 산자락과 계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들



〈그림 24〉 오남읍 팔현 1리 산신당 위치도

은 농업에 종사하나 빼어난 경치 덕분에 요즈음은 음식가게와 민박집, 전원주택 등이 많이 늘어났다. 현재도 이곳저곳에 택지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팔현리는 현재 35가구 정도 살고 있으나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회관에서 개울을 건너 보이는 절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팔현 1리 마을이 시작되는 초입이기도 한데, 현재 산신당 주변에 전원주택(통나무집)을 짓기 위한 택지 개발이 한창이다. 이곳은 천마산 줄기가 내려오다 멈춘 듯한 형상인데, 지반이 모두 암석으로 이루어진 벼랑이다. 당집은 이 벼랑 끝에 위치하여 마을 전체를 조망 할 수 있다. 당집을 마을 사람들은 '산신당'이라 부른다. 실제 산신당에는 길이 60cm, 폭 30cm 정도의 현판에 푸른 단청으로 '산신당(山神堂)'이라 음각되어 있다. 산신당은 1칸짜리 와가(瓦家)로 삼량(三樑), 초입궁(初入宮) 맞배집으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풍판(風板)을 달아내었다. 지붕 역시 격조를 높이기 위해 겹처마로 달아내었다. 산신당은 전체적으로 단청을 하였으나 세월에 의해 그 흔적만 남아있다. 기둥도 제재하지 않은 원주형으로 자연미를 살렸고 벽체는 진흙과 회를 섞고 잡석을 끼워 올렸다. 담장도 자연석과 진흙으로 격조있게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정돈되고 균형잡힌 당집으로 주변 풍경과 어울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당 내부에



9-8. 팔현1리 산신당 전경



9-9. 팔현1리 산신당 내부 산신할아버지상

는 뒤쪽으로 폭 40cm, 높이 1m 정도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 벽면에 그림 1폭과 천정에 그림이 1폭 붙어있다. 정면 벽에 있는 그림은 '산신할아버지와 호랑이'가 함께 그려져 있다. 벽면에는 '팔선녀' 그림이 그려져 있다. 현재 이 당화(堂畵)는 약 30년 전에 탕화화가에게 부탁하여 걸어 놓았다. 과거에 있던 당화는 퇴색되어 소각되었다. 당집 주변에 소를 희생하던 우물가와 대기소는 토지 개발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3) 제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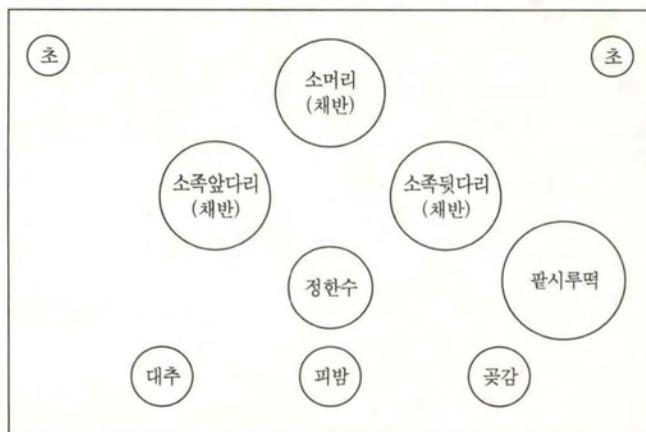
'산제사'일은 음력 8월 초에서 10월 초 사이에 택일하여 제사를 올린다. 가급적 월 초로 날을 잡는다. 제의 시간은 해질 무렵 산에 올라 밤 9시쯤에 올린다. 마을에서는 이 제의를 '산신제'라고 표현하며 당집이 있는 곳을 '산제당터'라고 부른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은 가까운 절을 찾아 날을 잡는다. 팔현리는 제의가 시작되면 한시적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제관은 물론 상시에도 당을 관리하는 당주가 별도로 있다. 이 당주가 제일이 가까워지면 동네분들 중 생기와 복덕을 가려 제관 1명 화주 1명을 임의로 선출한다. 즉 당주가 제주와 화주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당주가 이렇게 제관과 화주를 선출하는 시기는 대략 제의를 3일 정도 앞두고 뽑게 된다. 일단 제관과 화주로 선정되면 그 날부터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부부동침도 삼가 한다. 예전에는 술가지를 끼운 금줄을 대문에 두르기도 하였다. 특히 바깥출입을 매우 자제하여 부정한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당주와 제관은 당집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제관과 화주가 함께 장만한다. 중요한 제물인 소고기 구입은 주로 장현에 있는 도살장에 전화하여 좋은 물건을 미리 확보한다. 예전에는 통 소를 1마리 제물로 구입하여 산신당 옆에서 직접 잡아 제물로 올렸으나 요즘에는 소머리 와 소 앞다리와 뒷다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리고 이곳 도살장에서 선도가 좋은 선지도 1말 구입하여 음복 시 사용한다. 한편 그 밖의 제물과 제사에 필요한 물건은 예전에는 직접 나가 구입했으

나 요즈음에는 전화로 주문하여 배달 받아 사용한다. 삼색과일(대추, 밤, 꽃감)과 창호지(소지용), 초, 향 등은 배달시키고, 화주집에서 시루떡은 직접 찐다. 시루떡에는 절대 소금 간을 하지 않는다. 진매 역시 화주집에서 장만하는데 그 전에는 제장인 당집 옆에서 불을 지펴 밥을 지었었다. 특히 특징적인 제물로 당집 옆 우물터에서 뜬 정한수가 제주를 대신한다. 제사 준비가 모두 끝이 나면 당주, 제관, 화주는 의관을 정제하고 산신당으로 향한다. 이 때 짬이 저녁 8시쯤이다. 이 밖에 마을 분들 중 심신이 깨끗한 분들도 함께 산에 오르는데 당주와, 제관이 제의를 행하는 동안 우물터에서 술을 걸고 가지고 온 선지와 각종 야채를 넣은 국을 끓이면서 제의 마칠 시간을 기다린다.

제물이 도착되면 목제기를 이용하여 진설을 한다. 원래 팔현리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좋은 제기가 있었으나 몇 년 전 각종 유기제기와 목제기 등을 도난당하고 지금은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제기를 대신하고 있다. 일단 진설이 끝나면 당주가 강신을 하고 난 후 재배한다. 이어 축을 읽는다. 축문이 끝나면 제관과 이장이 재배한다. 이것으로 모든 제의를 마치고 마지막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가가호호의 소원을 말하며 당주가 올린다. 소지의 내용은 주로 ‘가내안녕과 무탈’이 주종을 이루며 각기 개인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소지가 모두 올라가면 모든 제의가 끝난다. 철상을 한 후에는 일부 고기와 삼색실과 등은 당집 담장위에 올려두고 모두 음복 준비를 한다.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준비된 술에는 선지국이 끓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음복을 실시한다. 철상한 소머리와 다리도 이 때 선지국 술에 넣어 삶아 일일이 고치에 꽂아 동네 어른분들 댁에 일일이 돌린다. 늦은 시간까지 음복하며 덕담을 나눈다.

팔현 1리는 선후회라는 친목계 단체가 활성화 되어있다. 다른 고장 보다 젊은이들이 많은



〈그림 25〉 오남읍 팔현 1리 산신당 제물상차림 / 당집내 진설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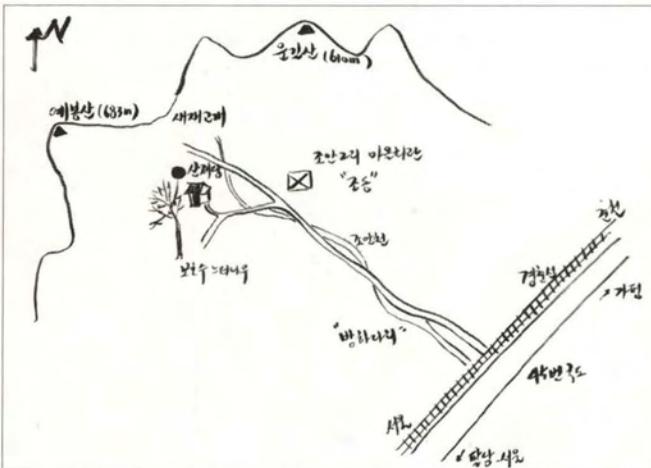
관계로 이들에 의해 동네의 대소사 일들과 산신제 까지 모두 선후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산신제의 경우 선후회에서 가가호호 십시일반 각출을 하고 각 단체나 장사를 하는 분에게는 후원금도 추렴하여 제의경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2002년 제의경비는 약 500만원이 소요되었다.

□ 제보자 : 홍순오(남, 41, 팔현 1리 이장)

9-3. 조안면 조안 2리 조곡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남양주시 조안면은 시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면소재는 조사지인 조안리이다. 본래 양주군 와부면이었으나 1980년 남양주군의 와부읍 조안출장소로 되었다가 1986년 조안면으로 승격되었다. 지형은 서고동저형으로 면의 서쪽을 달리는 광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동으로는 북한강이 북동에서 남서로 흐르다가 면의 남단에서 남한강과 합류하여 서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서쪽의 산맥은 몇 개의 소하천이 침식곡을 형성하면서 동쪽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유입하면서 소규모의 평탄지를 형성하고, 계곡을 따라서 취락이 발달하여 있다. 조사지인 조안리의 경우도 동쪽으로 운길산(610m)과 서쪽으로는 예봉산(683m), 북쪽으로는 조조봉이 마을을 휘감고 있으며 그 가운데로는 조안천이 흐르고 있다. 이 조안천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그림 26〉 조안면 조안 2리 조곡마을 당 위치도

로 취락이 발달한 전형적 계거촌(溪居村)을 형성하고 있다. 주민들의 90% 정도가 밀양박씨로 종가택도 있는 집성촌이다. 조안리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상수도원으로 중요시되는 한강 지역에 있는 관계로 친환경 농업이 장려되고 있다. 조사지 조곡마을에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 작목반이 결성되어 무농약, 무화학비료

를 사용하여 깻잎을 생산하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내어놓아 호평을 받고 있다. 행정구역 상 조안 2리는 조동I(2002년 현재 47가구)과 그 아래에 위치한 방하다리(2002년 현재 28호)로 이루어져있다. 주지하였듯이 조안천 역시 팔당상수원과 직결되어 주변 농경지에서는 거의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아직도 논농사 위주의 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축산의 경우에도 친환경 목축업을 영위한다. 일체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지하수 물과 발효퇴비로 소를 키우고 있다)과 과수농사를 영위하는 가구와 대도시에 터전을 두고 있는 전원주택 소유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의 왼쪽 조안천 건너 예봉산이 끝나는 산비탈에 마을을 바라보고 서있다. 예봉산은 인근에서 가장 높고(해발 683m) 험한 산으로 예전에는 호랑이도 살았다고 한다. 당집으로 오르는 앞길에는 경기-남양주-20으로 보호 지정된 수령 190년이 넘는 마을느티나무가 있다. 그 위로 30m 지점에 현재 잘 정비되어 신축되어진 당집은 1999



9-10. 조곡마을 산신당

년 만들어진 것이다. 그전 당집은 전체 1칸 형식으로 면적은 3평에 이르고 있다. 시멘트블럭조에 스테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신축하면서 시멘트 거푸집을 이용한 초입궁 와가 형식을 띤 당집을 만들었다. 지붕은 맞배집으로 풍판(風板)을 달고 겹처마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초입궁 포형식을 뺐지만 모두 시멘트 거푸집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당집 앞에는 1999년 당집을 중수하면서 세운 기념비문이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당비의 내력과 현재의 당이 세워지기까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당시 이 당집 건립비용으로 평당 1,000만원 씩 3평으로 3,000만원이 소요되었다. 당집 내부에는 좌우로 짝으로 주저리를 튼 터



9-11. 산신당 재건 기념비

줄가리가 있고 그 위로 높이 1m 정도, 폭 30cm 정도의 제단이 ‘ㄴ’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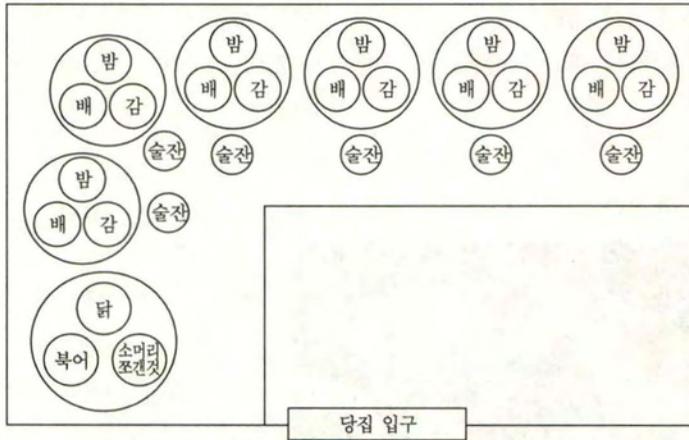
이밖에도 당집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산신제터가 있다. 신목은 아니지만 제당에는 늙은 밤나무가 있다. 당비 제의를 올리기 전 화주가 먼저 들러 제의를 행하고 당집으로 돌아와 본 제의를 행한다.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 9월 1일에 제사를 올린다. 제의 시간은 대략 밤 12시(0시)에 시작하여 새벽 2-3시면 모두 끝이 난다. 마을에서는 이 제사를 ‘산제사’라고 표현하며 당집이 있는 곳을 ‘당집터’라고 한다. ‘당화주’ 및 ‘허드레화주’, ‘축관’의 선출은 음력 8월 20일게 마을 회관에 모여서 실시한다. 이전에는 동네 어르신 중 생기 복덕을 맞추는 어르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아서 작년부터 이장이 직접 유로인터넷을 통해 생기복덕을 맞추어 화주를 뽑았다고 한다. 일단 화주 및 허드레화주로 축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목욕재계하고 매사 근신하며 바깥출입을 매우 자제한다. 그리고 비린 음식이나 외지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화주집에 금줄을 메지는 않는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일부는 마을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가 장만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 값을 흥정하지 않고 가장 좋은 실한 것으로 구입한다. 구입 품목은 밤, 감, 배와 암탉 3마리, 생복어 20마리, 초, 향 등이다. 제단에 올릴 제물은 모두 7 모듬을 준비한다. 총무는 연세가 있는 분으로 마을에서 두루 덕망이 있는 분이 선출된다. 제물 중 중요한 소머리와 탕용 소고기는 양수리 정육점에 미리 맞추어 둔다. 기타 제물은 허드레 화주가 장만한다. 허드레 화주는 집에서 시루떡과 백설기를 직접 찌고, 소머리가 도착하면 소머리도 찌서 준비한다. 제사 준비가 모두 끝이 나며 의관을 갖추고 화주부부와 허드레 화주부부는 함께 당집으로 향한다. 당에는 화주부부, 허드레 화주부부 외에도 이장, 통장, 노인회대표 등 부정이 없는 마을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다. 대략 밤 10시쯤 당에 올라 진설하게 되는데 이때 화주는 별도로 장만한 배, 밤, 감, 소고기탕, 닭 1마리를 들고 당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산신터 밤나무 아래 가서 절을 하고 돌아온다. 그 후 당집에서 제의를 행하게 된다.

진설 후 화주가 술을 7잔 붓고 3배한다. 절이 끝나면 간단히 축을 읽고 다시 재배한다. 기타 이장이나, 통장, 마을 대표들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 후 모두 다 철수한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당집 앞 공터에서 불을 피우고 밤을 지낸다. 아침 해가 밝으면 철상하여 허드레 화주집으로 가서 아침과 음복을 겸하는 것으로 제의는 모두 끝이 난다.



〈그림 27〉 조안면 조안2리 조곡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

한편 제의 경비소요 결산은 동네 총무가 진행한다. 동네가 밀양박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契)가 없어도 경조사에 모두 참여하는 단결력이 있다. 다만 마을 ‘대동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1월 10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한 해 동안의 경비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가 있다. 이 때 그 전해 올렸던 산제사 결산도 함께 이루어진다. 총무의 임기는 3년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 2002년의 경우에는 제의 경비로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 제보자 : 박홍렬(남, 70세, 조안 2리 노인회)
신광균(남, 46세, 조안 2리 이장)

9-4. 별내면 덕릉마을 산제

1) 마을개관

조선의 14대 왕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묘인 덕릉 밑에 있는 마을이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말 삼거리에서 별내면사무소 가는 길로 진입한 후 면사무소 앞 다리를 건너기전 상계동 길로 3km를 가다 보면 57사단 동원 훈련장이 있고,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마을이 덕릉마을이다. 마을길로 접어들어 제일 꼭대기에는 599년에 지어진 홍국사가 있어서 길을 따라 오른

쪽으로 음식점과 찻집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스물 네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산신제와 도당굿을 함께 행하던 100여 년 전만 해도 70여 가구가 거주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9-12 덕릉마을 산신각 전경



9-13 덕릉마을 산신각 측면

마을회관에서 10m정도 위쪽으로 산신각으로 가는 길이 있다. 마을 길 오른쪽(동쪽)으로 낮은 야산이 있고 그 야산에 서쪽을 정면으로 보고 산신각이 지어져 있다. 산신각이 지어진 산 위에서 보면 마을 전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다.

산신각은 정면 350cm, 측면 280cm의 맞배 지붕으로 지어져 있다. 정면 좌, 우측에 지름 90cm의 기둥을 330cm 간격을 두고 세웠으며, 산신각 내부에는 폭 60cm의 나무선반을 좌측과 우측 그리고 정면에 바닥에서 높이 90cm 지점에 삼면으로 설치해 깃상으로 쓰고 있다. 산신각 주변에는 철 구조물로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울타리 바깥에도, 산신각 정면으로 가로 115cm, 세로 93cm, 두께 50cm 정도

의 돌을 두 개 겹쳐 제단을 마련해 놓았다. 덕릉마을 산신각은 1882년 세워진 것이라는 현판 기록이 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산신각은 불이 나 소실되었고 각각 大同秩, 塘峴, 順和宮의 제목아래 산신각을 새로 지을 당시 비용을 추렴한 사람들의 명단이 산신각 정면에 현판으로 걸려있다. 그 이후 마을의 산신각은 낡고 허물어져 1998년 경기민속 자료 9호로 선정되면서 완전 보수를 거쳐 지금의 깨끗한 모양을 유지하게 되었다.

산신각에는 가로 170cm, 세로 120cm의 산신도가 있는데 망건을 쓰고 흰 수염을 기른 산신이 의자에 앉아 있으며 산신의 오른쪽 뒤로 관음보살이 쟁반에 석류 두 개를 받쳐 들고



9-14. 덕릉마을 산신각 정면



9-15. 덕릉마을 산신각 내부 산신도

서있고 그 앞에 두 명의 동자가 서있으며, 한명의 시중이 앉아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다. 산신의 왼쪽으로는 호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다.

현재 산신도는 도난을 우려하여 마을의 조덕만씨 집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 김문길(67)씨는 이 그림을 오래 전 홍국사 주지였던 범화 스님이 그렸다고 알고 있으며, 홍국사에도 똑 같은 산신도가 있었는데 35년 전쯤 도난당했다고 알고 있었다.

2) 제의과정

덕릉마을의 제의 명칭은 산제이다. 제사는 음력으로 정월과 시월에 지낸다. 정월 초하룻날과 시월 초하룻날이 되면 날을 잡는다. 제일은 정월 1-3일, 시월 1-3일을 넘기지 않는다. 날을 잡는 당일이 제일이 될 수도 있다. 부정이 있으면 그 달은 제사를 거른다.

제일이 정해지면 화주 한 명과 축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산신제에 참여 하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제관이 된다. 몸이 깨끗한 사람을 화주로 선정한 후 그날 마을 방승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린다. 날짜가 길어지면 부정 타기 쉬우니까 되도록이면 당일 날 선출할 때가 많다. 현재 마을에는 성인남자들이 여덟 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화주를 선정하기가 힘이 든다고 한다. 어떤 해는 마을에 상을 당해서 제를 거르기도 하지만 마땅한 화주가 없어서 제를 거르기도 했다. 이 마을의 제사는 이십 여 년 전부터 많이 간소화되었다. 제

사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렴한다. 산신제에 참여하는 가구는 서른여섯 가구 인데 이곳에서 살다가 나간 열 가구 정도가 산신제에 비용을 추렴하고 있다. 덕릉마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원이 산신제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루를 지고 다니면서 한집에 한 되씩 쌀을 걷었다. 현재는 제비를 제사 전에 걷지 않고 화주로 선정된 사람이나 이장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제가 끝난 후 가구 수 만큼 나누어서 받는다. 1982년 까지만 해도 화주로 선정되면 그 집에 수고비를 별도로 지급했다고 한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추렴을 해서 제물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했다. 공동으로 마을을 위한 일에 수고를 하고도 돈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82년 이후 없어졌다. 화주가 집에서 떡을 찌거나 메를 지을 때 나오는 쌀뜨물은 산제사가 끝날 때까지 소를 먹일 수도 없었다고 한다. 제사를 끝내야 그 걸 먹이지 그 안에 먹이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하며, 떡방아도 깨끗한 여자들이 나와서 빵아 가지고 백설기를 찌서 제사 지내야 했다. 제물은 대추, 밤, 꽃감 등의 삼색과일과 덕릉마을은 제물에 사과를 절대 쓰지 않는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산적, 북어포, 소머리, 삼색나물(미나리, 무, 숙주), 튀각, 후추, 탕, 새옹채로 메 두 술을 올린다. 술은 약주를 준비한다. 제물준비를 과거에는 화주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은 후 준비를 했지만 98년도부터 마을회관에서 준비한다. 마을회관 뒤에는 산신제 음식을 준비하던 마을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제일 전날 우물을 치고 우물에 금줄을 두른 후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황토를 마을회관 문 앞에 뿌려 놓는다. 밤 열시에서 열한시 사이에 산신각으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다. 제물의 내용은 정월과 시월이 똑같다.

산신제는 유교식으로 이루어진다. 제물을 진설 한 후 잔에 술을 부어놓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절을 한 후 축문을 읽고 잔을 올린 후 다시 절을 한 후 나와서 각 호당 소지를 올린다. 산신각 제사가 끝나면 새옹의 메와 삼색 나물을 가지고 나와서 산제당 울타리 밖에 있는 제단에 올린 후 삼배를 올리면 제사는 끝이 난다. 1998년 이전만 해도 축문 없이 제를 지내다가 산신각이 민속자료로 선정되면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전주이씨 시제를 담당하는 어른을 찾아가 축문의 기본 틀을 받아왔다. 제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정월달과 시월 달에 큰 차이를 보인다. 정월 산제사는 명절이거나 명절 직후여서 고향으로 제를 지내러 오는 모든 사람이 참석하기 때문에 많지만 시월에는 참석 인원이 많아야 열 명 정도다.

3) 결 산

산신제가 끝난 후 밤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하고 아침에는 산제 지낸 음식

을 나누어 주면서 결산도 같이 본다. 화주나 이장이 먼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돈을 받는다. 덕릉 마을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을 노나매기친다고 한다. 또 산신각 노나매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제보자 : 김문길(남, 67세, 별내면 덕송 2리 339번지)
- 한용우(남, 66세, 별내면 덕송 2리 339번지)
- 조희현(남, 73세, 별내면 덕송 2리 337번지)
- 조명현(남, 68세, 별내면 덕송 2리)

10. 동두천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0-1. 하봉암동 산신제

1) 마을개관

동두천시 하봉암동은 의정부에서 3번 국도를 따라 동두천으로 가다 보면 북쪽 제일 끝 쪽에 연천군과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3번 국도에서 말뚝고개를 넘기 전 왼쪽 편으로 난 길을 따라 500m 정도 가다 보면 마을 입구가 보인다.

하봉암이란 이름은 마을 앞쪽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 바위산 중에 황새모양을 한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 바위를 황새바위라 불렀으며 이 바위를 중심으로 남쪽을 뿔사야위 북쪽을 아랫사야위로 부르기도 했다. 이 바위가 새바위 즉 봉암으로 불린데서 마을을 상, 하로 나눠 봉암동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삼 년마다 한번씩 산제사를 지내고 마을입구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굿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동네제사를 산제라고 부르고, 굿을 부군굿이라고 불렀다. 현재 100여 호의 가구가 모여서 살고 있다. 이 마을에서 지내는 공동제의는 단절된 지 18년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조금씩 오차를 두고 있다. 마을제사가 단절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진다. 산제사가 없어질 당시에 교회에 다니는 주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중단되었다기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통장을 맡아 마을 일을 하게 되면서 제사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나라에서 굿을 하거나 산제사 지내는 것을 미신으로 여기고 근절하던 시기에 제사를 중단한 이후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다는 사람도 있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하봉암동 3번 국도에서 400m 지점에 마을로 가는 입구 왼쪽으로 470여 년이 된 둘레 5m, 높이 23m의 느티나무가 부군굿을 하던 장소였고, 마을의 북쪽으로 나 있는 자진사리로 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30m 정도 가다 보면 백여 평 정도의 소나무 밭이 있는데 그곳이 산신제



10-1. 하봉암동 산신제단

의 느티나무를 숫부군나무, 불타 없어진 나무를 암부군나무로 불렀다고 한다.

현재 산신제 터에는 가로 60cm, 세로 90cm, 높이 37cm의 대리석 제단과 가로 22cm, 세로 25cm, 높이 23cm의 향을 올려놓는 작은 제단이 산신제 터였음을 말해주는 높이 72cm의 검은색 비석과 함께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산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이후 주변에는 개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시설이 생겨서 찾는 사람 없이 악취와 함께 방치되고 있다.



10-2. 하봉암동 부군나무

(2) 제의과정

이 마을의 제일은 그 해 음력 10월 10일 밤 열두 시였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산제사 열흘 전에 마을 회의를 통해 부정한 사람이나 상을 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을 가려서 제관과 축관을 한 명씩 선출하고, 음식과 심부름을 담당하는 하주를 세 명 선출했다. 이 때 하주를 상하주, 중하주, 하하주로 불렀는데, 상하주는 제사에 쓰일 음식을 담당하고 중하주, 하하주는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제물은 삼색과일에 삼색나물과 통 돼지, 술, 탕, 적이 준비되었다. 산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날 새벽에 상하주는 목욕을 한 뒤, 산제사 터에 가서 부군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어 조라술을 해 놓는다. 다음날 열한 시에 가서 꺼낸 후 걸러서 사용한다. 산제사에 쓰일 돼지는 통 돼지를 내장을 꺼낸 후 사용했는데 이 때 반드시 까만 돼지만 사용 했다. 흰

돼지나 얼룩덜룩한 색이 있는 돼지는 절대 사용 할 수 없었는데,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이어
서 까만 돼지만 사용하는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산제사의 차례는 먼저 제물을 진설 한다. 이 때 통 돼지에는 칼을 꽂아 놓고 제를 지내는
데 칼을 꽂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돼지를 통째로 올리니 신께서 마음대로 잘라 잡수
시라는 뜻이 아니겠냐고 풀이 하는 노인도 있었다. 제물 진설 후 분향제배, 강신, 초헌, 아헌,
고축(산신축을 읽는다), 종헌의 차례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상화주, 중화주, 하화주가 각각 소
지를 올린 후 돼지의 양쪽 귀를 잘라서 네 조각을 낸 후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하나씩 던지
면 끝이 난다.

산제사를 지낸 후 세 명의 화주는 부군곳까지도 도맡아 준비한다. 부군곳에는 남녀노소 구
분 없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모여 참여를 할 수 있었다. 인근 청송면에서 궁말 무당과 동두
천 보산동의 싸리말 무당을 번갈아 불러 부군곳을 했는데 산제사부터 부분곳까지 삼일 동안
이루어졌다. 하봉암동의 산제사나 부군곳은 단절 되었지만 지금도 마을의 동장이나 부녀회
장, 노인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시루떡이나 막걸리를 조금씩 차려 놓고 마을입구의 느티나무
에 먼저 알리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3) 결 산

모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잡은 돼지의 부속물로 국을 끓이고 껌질은 삶아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정리를 한다. 이 때 잡은 돼지는 돈이나 곡식을 덜 내고 더 낸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먹고 나누어 가졌다.

- 제보자 : 최두환(남, 79세, 하봉암 264번지)
- 홍기섭(남, 84세, 하봉암 262번지)
- 이근성(남, 65세, 하봉암 200번지)

10-2. 지행동 종이골 느티나무고사

1) 마을개관

종이골은 행정구역상 동두천시 지행동 248번지에 해당하며 행단마을과 이웃하고 있다. 종
이골이라는 지명은 옛날 이곳에는 닥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종이를 생산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다. 일제시대에는 공동작업반 조직인 진흥회의 명칭을 당시 구장이 화성진흥회라 하여 화성마을로 고쳐 부르기도 했다. 일제 시대에 행정구역을 개편 하면서 종이골의 종이紙자와 이웃 마을인 행단마을의 은행나무 솎자를 따서 지행동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종이골은 지행동 1~3통 까지를 포함한다. 가구 수는 대략 1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빌라와 아파트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10-3. 지행동 종이골 제장

수월암에 다니는 보살 한 명이 살고 있는데 양쪽으로 두 그루 있는 나무를 몇 년 전에 그렇게 부른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종이골 마을 제일 안쪽으로 느티 나무가 두 그루 놓여있다. 수령은 500년 이고 높이 22m, 둘레 5.2m의 느티나무는 현재 동두천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두 그루 중 더 굵고 가지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은 암나무이고 가늘게 한가지로 뻗은 것은 숫나무라고 마을 사람들은 얘기한다.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마을에

□ 제보자 : 안병철(남, 73세, 지행동 248번지)

10-3. 지행동 행단골 행단제

1) 마을개관

행단골은 동두천시 지행 5통에 속해있다. 3번 국도를 따라 의정부 방향에서 1.5km 지점에 중앙고등학교가 있고 이 고등학교 왼쪽 옆으로 나있는 길을 따라 1.1km 올라가면 행단골이 나온다. 이 마을은 세종 16년에 태어난 어유소 장군이 1456년 무과에 급제하기 까지 이 곳에

서 학문과 무예를 익혔다고 전해져 온다. 학문을 익힌 은행나무 밑단을 행단이라 하여 행단 마을이 되었고 사당을 크게 지어 놓고 조상을 모시어 사당이 있는 골이라고도 불린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제를 지내는 신체는 은행나무이다.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수령이 1000년이 넘었고, 높이 30m, 둘레 9m에 달하는 고목이다. 원래 이 나무는 두 그루였는데 현재 나무가 서 있는 곳의 토지 소유자인 이강진씨의 고조부 때에 장마로 한 그루가 집 쪽으로 쓰러 졌



10-4. 행단골 은행나무 제당

지만 신목이어서 손대지 못하고 3년을 두었다가 치웠다고 한다. 현재는 은행나무 주위에 쇠기둥을 박아 줄을 치고 보호해 놓았으며 은행나무 밑에는 들들이 하나 놓여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이웃마을에서 이 들들을 탐내서 몰래 와서 지고 갔는데 얼마 후 그 동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 온 적도 있었다.

(2) 제의과정

행단제는 매년 시월 상단에 길일을 택해 지행, 송내, 행단 3개 마을이 함께 치르던 행사였다. 나무에 제를 올린 후 줄다리기, 들돌지기 등의 놀이가 마을대항으로 벌어졌으며 대항에서 이긴 마을은 장원기와 들돌을 다음해까지 보관했다고 한다. 행단제는 조선초기부터 그 시원을 보고 있다. 무인이었던 어유소 장군이 이 마을에서 성장하여 소년시절 들돌지기에서 장원을 하였다고 하며 학문과 무예를 이 은행나무 아래서 연마하여 세조 때 무과에 급제했다고 전한다. 그 후 이 나무를 신성시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제의가 수 백 년 동안 거행되었다.

6.25 한국전쟁 이 후 마을 간에 행해지던 놀이와 의식이 축소되어 딱히 정해 놓은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몇 년 가다가 한번씩 제를 올리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마을 사람들이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 받은 것을 계기로 동두천시 문화원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고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이전에 마을 사

람들이 은행고사라고 부르던 제의도 문화원의 보조금을 받은 이후 매년 지내게 되면서 행단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행단골 사람들만 은행나무 고사를 지내던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고사를 지내기 약 보름 전에 마을 회의를 소집하고 좋은 날을 잡아 음력 시월 상단에 지냈다. 제관과 음식을 장만하는 도가를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했는데,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이나 도가로 선정 된 집은 함부로 출입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지냈다.

동두천시에서 보조를 받기 전에는 동네에서 각 가정마다 쌀도 조금씩 내고 돈도 조금씩 형편 되는대로 정성껏 추렴해서 고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외부인사들이 찬조금을 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내기도 한다.

현재 고사를 지내는 날짜는 매년 음력 시월 일 일로 정해져 있고 시간도 낮 12시에 지내지만 예전에는 해가 지고 난 뒤 저녁 여덟 시에서 아홉 시 사이에 지냈다고 한다. 고사에 쓰이는 제물은 부녀회에서 장만을 하는데, 제물은 앞줄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귤, 사과, 수박, 포도를 진설하고 뒷줄 왼쪽부터 북어, 돼지머리, 시루떡 순서로 진설한다. 고사의 차례는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 뒤 초헌, 아헌 후 축을 읽고 종헌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2002년에는 초헌을 마을 노인회장이 올리고, 아헌은 동두천시장이, 종헌은 문화원장이 올렸다.

(3) 결 산

은행나무 고사가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나 참여 인사들이 전부 음복을 한다. 행단제는 행단 마을만의 제의가 아니라 동두천시의 행사로 자리 잡았다. 동두천 여고에 풍물패가 생긴 이후 해마다 마을 고사의 흥을 돋우기 위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마을의 대표들과 원로들이 모여 함께 결산을 하고 있으며, 제물을 장만하고 돈을 쓴 내역서를 작성하여 동두천시로 해마다 보내고 있다.

□ 제보자 : 박재선(남, 45세, 지행 5통 2반 20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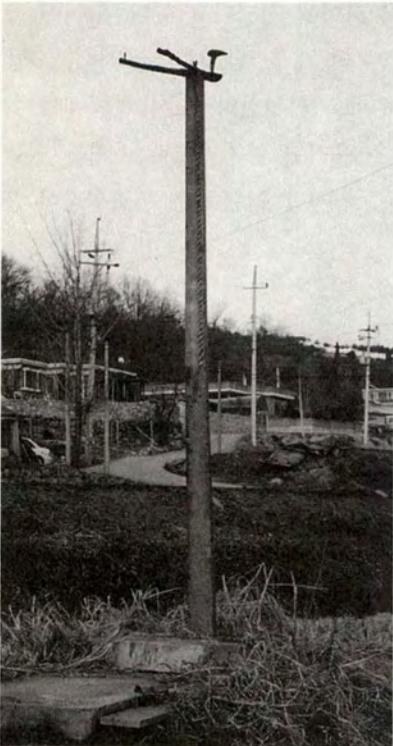
박양희(남, 71세, 지행동 181번지)

박호빈(남, 67세, 지행동 175번지)

10-4. 송내동 아차노리 솟대고사

1) 마을개관

아차노리는 의정부에서 3번 국도를 따라 가면 동두천시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현재는 행정구역상 동두천시 송내동에 속해 있지만 몇 년 전까지는 행정구역이 불현동이었다. 아차노리는 아차동으로도 불리는데 고려시대 말기의 무신 주왕의 밧자리를 잡기 위해 당대의 유명한 지사 무학대사가 천보산맥의 형세로 보아 산맥이 멀리 뻗어있을 줄 알고 묘터를 정해 놓고 내려와 보니 이곳에서 산맥이 끊어진 것을 알고 아차 내가 실수를 하였다 고 한탄한 것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 되었다 한다. 현재 이 마을은 열두 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10-5. 송내동 아차노리 솟대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마을입구에 기러기를 얹어 놓은 솟대가 세워져 있다. 솟대 위에 얹어 놓은 새를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라고 부르고 있다. 밤나무로 기러기를 깎아서 기둥 위에 얹어 놓았으며 새의 머리는 동쪽을 보고 있다. 새의 날개 양쪽에는 벧짚으로 지름 9cm, 길이 1m 정도의 원새끼를 꼬아 걸어 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동아줄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러기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예전에는 밤나무로 기둥을 해서 세웠지만 사오 년 마다 한번씩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무거운 밤나무 기둥을 옮기는 것도 힘들고 또 휘어지지 않고 곧게 선 나무를 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전신주를 구해서 나무 색깔로 페인트를 칠해 세워 놓았다. 솟대 아래에는 가로 60cm, 세로 100cm, 두께 20cm의 대리석으로 제단을 마련해 놓았다. 옛날에 나무가 무척 귀했던 때에도 솟대 세우는데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집에서 가꾸는 귀한 나무라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제공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걸 싫어해서 취해진 방도라고 한다.

동두천에는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아차노리 건너편 별판에도 솟대가 두 개 더 있었

는데 해방 이 후에 없어졌다가 자꾸 화재가 나서 다시 세웠다고 한다. 이 후 6.25 한국전쟁 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을 솃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 제의과정

마을 사람들은 마을공동제의를 솃대고사라고 부르는데 제일은 매년 정월 14일로 정해져 있다. 이 고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몇 백 년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다. 고사를 지내기 일주일전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비용을 추렴하러 집집마다 다닌다. 비용은 특별하게 얼마로 정해진 게 없고 그 해 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002년에는 가구당 만 오천 원씩 추렴했다.

솃대고사에는 제관이나 축관을 별도로 뽑지 않는다. 고사를 주관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화주를 한 사람 선정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맡는다. 아차노리는 마을입구에서부터 마을 끝까지 집들이 일렬로 늘어선 형태로 열두 가구가 있는데 마을 아랫집에서 시작해서 마을 위쪽으로 순서가 돌아 간 후 다시 되짚어서 위에서 아래로 화주의 순서가 돌아온다. 화주를 맡을 차례가 돌아오면 부정한 일에 가지 않고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조심한다. 2002년에는 박중빈(81)씨가 화주를 맡았다. 예전에는 고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마을 사람뿐만이 아니고 마을에 살지 않지만 마을 안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까지도 포함되었다. 아차노리가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동해를 지키는 용왕신에게 물을 많이 내려 달라는 기원을 담은 솃대고사였기 때문에 마을 안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도 연락을 해서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간소화되어 마을 사람들만 참여한다.

제물은 떡 한시루에 북어 두 마리 그리고 막걸리를 준비한다. 제물은 제사를 지내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제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사를 지내기 전에 화주의 집에 모여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벗짚으로 동아줄을 엮은 후 전해에 걸어 놓았던 솃대의 줄을 교체한 후 오후 세시나 늦어도 네 시에는 고사를 시작한다. 특별한 절차 없이 절하고 막걸리를 올린 후 화주가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백오십 여 년 전에 먹을 게 없고 생활이 곤궁해서 몇 해 동안 고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꾸 탈이 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다시 복구해 놓았다.

(3) 결 산

마을 사람들은 특별하게 결산을 별도로 가지지는 않는다. 제물을 마련하고 남는 비용은 고

사가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기 위한 안주 마련에 쓰인다. 솟대고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그 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 제보자 : 한장교(남, 66세, 불현동 7통 7반)
박중빈(남, 81세, 불현동)

10-5. 송내동 안골 산제사

1) 마을개관

안골은 행정구역상 동두천시 송내동으로 분류된다. 아차노리에서 북쪽으로 800m 올라오는 곳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3번 국도에서 마을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 안골은 조선시대 중엽에 형성된 마을인데 칠봉산 산자락을 따라 골짜기 안으로 길이 굽어져 있고 골이 깊어서 안골로 불렸다. 현재 마을 주민은 사천 목씨, 함종 어씨, 파평 윤씨가 주를 이루어 살고 있고 50여 가구가 조금 넘게 살고 있다.

2) 제의절차

(1)당의 구조와 형태

안골마을에서는 마을 제사를 산제사 지낸다고 한다. 산제사 지내는 곳을 다르게 부르는 말은 없고 산제사터라고 하는데 마을 동쪽으로 있는 산자락의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당집이나 제단 없이 터만 있다. 옛날에 마을 어른들이 지금의 장소를 산제사 터로 잡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곳에서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좋은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은 천막을 치기 편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구멍을 뚫어 놓아 막대기만 끼우면 천막을 쉽게 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2)제의과정

안골의 산제사는 매년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날씨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후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농사지를 시기이므로 농사짓는 사람이 흙을 파게 되어 흙 속의 벌레를 건드려서 죽게 되니까 살생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하

게 날짜를 정해둔 것은 아니고 이월 초하룻날을 기준으로 잡아도 날을 보는 사람한테 가서 날짜를 받을 때 좋지 않다고 하면 며칠을 늦추기도 한다. 매년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를 지내기 전에 동네에서 초상이 나거나 짐승을 잡았을 경우 날짜를 물리기도 하는데 다시 잡아도 도저히 날이 안 나면 그 해는 지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다 보면 삼 년씩 건너뛰기도 한다. 2002년에도 마을에 노인 한 분이 돌아 가서서 지내지 못했다.

산제사를 위해서 마을에서는 축관 1명, 제관 3명, 심부름이나 천막을 치고 불을 피우는 일을 하기 위한 화부를 3명 선출한다. 제관을 선출하는 일은 마을의 통장이 동네 어른들과 날을 잡으러 갈 때 상을 당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생년월일로 생기복덕을 가려서 당일 날(음력으로 1월 30일) 선출한다. 예전에는 보름전이나 열흘 전에 선출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고 부정 탈 일이 많아지니까 그 날 아침 먹기 전에 날을 보러 가서 그 해에 해당되는 나이를 가려서 제관을 선출한다. 과거에는 제관으로 뽑히면 외부출입을 삼가고 매일 목욕제계하며 부인과의 잠자리도 조심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간소화 했다. 산제사 날을 받은 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금기사항은 지키지 않고 있다. 대신 날을 받았으니 치성을 드리게 얼마 내고 가라고 하면 기꺼이 냈다고 한다. 그러면 산제사 마지막에 축관이 누가 이렇게 내고 갔다고 고한 후 소지를 올려준다.

산제사의 제물은 당일 날 준비된다. 아무 탈 없고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제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팔을 넣지 않고 백설기를 한 시루 찌고 밤, 대추 등의 삼색과일과 탕, 포, 적에 소고기로 제물을 준비한다. 유교식의 산제사 이지만 과자나 나물 종류는 쓰지 않는다. 화부는 제물에 관한 것은 취급할 수 없고 천막치고, 불 피우고, 산제터 주변에 있는 풀을 뽑는 등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한다. 음력 1월 30일 열 시가 조금 넘으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축관과 제관, 화부들이 산제터로 올라가고, 열두 시가 되면 산제사를 지낸다. 제사에 쓰이는 비용은 마을에서 가구당 얼마씩 추렴한다. 비용은 그 해의 물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가장 최근의 산제사에는 가구당 만원 정도를 추렴했다. 현재 안골의 산제사는 통장이 주관하고 있지만 오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의 유학회(현 상호회)가 별도로 있어서 마을의 큰일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다. 유학회에는 산제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갖춰져 있었을 만큼 마을의 많은 일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기능을 축소해서 통장에게 산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이관시켰다.

(3) 결 산

제사를 지낸 후 마을회관으로 가져와서 제사 지낸 축관, 제관, 화부와 통장, 반장 마을의 원로와 마을 개발위원 등 남자들 몇 명만 모여서 결산보고를 하고 음복을 한다. 제사의 비용은 가정마다 추렴을 하지만 다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여자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을 대표하는 열명 내지 열세 명 정도의 남자들만 모여서 결산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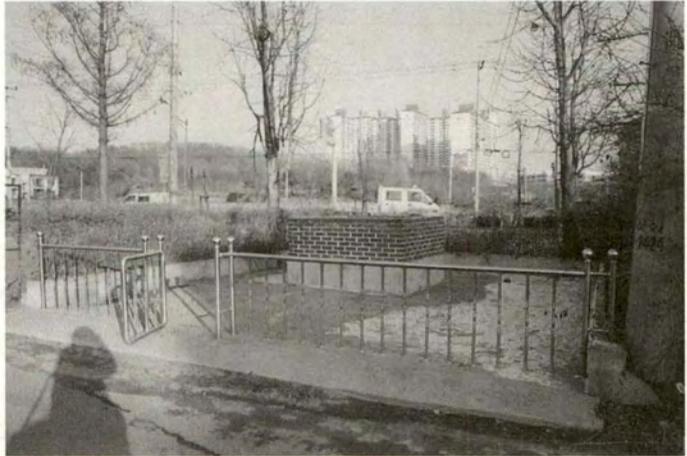
□ 제보자 : 목우상(남, 68세, 불현동 288-5번지)

11. 부천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1-1. 원미구 역곡 1동 벌웅절리 우물고사

1) 마을개관

벌웅절리는 행정구역상 원미구 역곡 1동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벌골 또는 절골이라고 부른다. 절골이라 부르게 된 것은 옛날 이곳에 봉응사란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 왜군의 침략에 응(應)하여 왜군을 쳤(伐)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을 뒷산인 둔대산(춘덕산)



11-1. 벌웅절리 우물

은 임진왜란 때 사래리에 사는 박진이 의병 200여명을 거느리고 전투를 한 기록이 있어서 후자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마을의 지형이 벌(蜂) 모양처럼 생겼다고 봉웅절리라고 부르다가 벌웅절리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제사를 지내는 대동우물은 큰 역곡역에서 원종동으로 가는 큰 도로변의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벌웅절리 사람들은 이 우물을 대동우물이라고 부르며 이 곳에서 지내던 고사를 우물고사라고 부른다. 우물은 8평 정도의 공터에 가로 170cm, 세로 190cm, 높이 110cm의 네모 모양의 콘크리트로 쌓아 올려져 있다. 도로변으로는 회양목을 심어 낮은 울타리를 쌓았고 마을 쪽으로는 스테인레스 기둥을 세우고 작은 문을 달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원

래 이 우물은 바닥에서 물이 흘러 넘쳐 바가지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우물이 어서 벌웅절리, 사래리, 역골등 세 개 마을이 물을 길어다 먹었지만 주변이 개발되어 집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관정을 판 후로 물이 부족해 지금은 완전히 말라 있다.

(2) 제의과정

매년 음력 7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좋은 날을 골라서 고사를 지낸다. 대부분 칠월 칠석을 기준으로 고사를 지내지만 칠월 칠석에 고사를 지내지 못해서 다른 날을 잡더라도 7월 10일을 넘겨서 지내지는 않는다. 요즘은 열흘 안에 일요일이 있는 날을 골라 우물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약 십 년 전 우물이 마른 이후 두 해 정도 제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마을에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고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가 중단 된 후 우물에 뚜껑을 씌우고 콘크리트를 덮어 완전히 봉했는데 마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우물치성 드리던 것을 중단해서 그렇다는 어른들의 말에 두껍게 덮은 뚜껑을 열고 현재 상태로 복구 해 놓았다. 우물의 둘레를 낮추면 아이들이 빠질 위험이 있어서 높게 쌓고 담을 만들었다.

벌웅절리의 마을 고사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인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지만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저 조상대대로 물려져 왔으니 전통을 이어서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한다. 매년 우물고사를 지내면서 삼 년 내지 오 년에 한번씩 무당을 불러 큰 굿을 하기도 했다. 큰 굿을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쌀도 가져다 놓고 돈도 가져다 놓기도 해서 무당은 그걸로 비용을 대신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우물고사에 쓰이는 비용을 마을 사람들이 각자 추렴해서 했다.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다니면서 쌀도 걷고 돈도 걷고 해서 고사 비용을 모았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집안 형편 닿는 대로 조금씩 추렴했었지만 지금은 마을에 애향회라고 해서 삼십 대에서 오십 대의 중 장년층이 모여 조직한 모임에서 고사를 주관하고 회비로 비용도 지출한다.

우물고사에는 제관이나 당주를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고사를 지내기 전날 마을의 애향회 회원들이 우물 주위 풀을 깎고 우물 속을 깨끗이 청소한다. 고사는 애향회원들과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들이 가서 절만하고 오는 정도다. 여자들은 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남자들만 참여한다. 제물의 종류는 삼색과일에 돼지머리, 술과 떡 한 시루를 놓고 지낸다.

(3) 결 산

고사가 끝나면 마을회관으로 와서 돼지고기와 과일, 떡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마을 애향회가 주관이 되어 마을 어른들을 초청해서 음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음식을 차리고 나누는 일만 부녀회 회원들이 도와준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렴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애향회 회원들만 별도로 모여서 결산보고를 갖는다.

□ 제보자 : 송정식(남, 74세, 역곡 1동 11통 5번)

11-2. 원미구 역곡2동 사래리 산치성

1) 마을개관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먹골 어귀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역곡 2동 삼신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아래에 있던 박철정이 이곳으로 와 선비가 왔다는 뜻의 土來里라 불렀다고도 하고, 옛날 이곳에 유명한 선생이 글을 가르치고 있어서 각지에서 선비들이 모여 왕래가 빈번하였다고 사래리로 불렀다는 설도 있다.

현재 이곳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어서 원래 사래리를 구성하고 있던 토박이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사래리 주민들은 제사를 산치성 드린다고 한다. 죽산 박씨가 중심이 되어 400년을 전해 내려오면서 행하던 것이었다. 현재 마을 중 장년층들이 모여서 만든 애향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다들 직장에 다니다던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엄격하게 금기사항을 지켜가며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다.



11-2 사래리 산치성 제당

2) 제의 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사래리 산치성터는 원래 지금의 삼신아파트 14동과 15동쯤 되는 곳에 있던 커다란 소나무였다.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그 곳이 산이었으며 그 주위에는 산고사 우물이라고 해서 눈에다가 우물을 동그랗게 파놓았지만 삼신 아파트가 생길 때 산을 깎으면서 소나무도 베어 없애고 우물도 없어져 버렸다. 처음 아파트를 지을 때 신목이어서 인부들이 서로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인부 중 한 명이 나서서 베어 냈다가 곧바로 원인 모를 병이 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마을 주민들 사이에 한동안 떠돌았다고 한다.

현재 산치성터는 삼신아파트 뒤쪽으로 있는 원미산 등산로를 따라 100m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오른쪽 배수로 건너편으로 10m 정도 언덕 위에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자리는 3평정도 크기의 평지이며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5m 지점 위쪽에 서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신체이다. 산치성을 드린 후 참나무 밑 등 부분에는 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묶어 놓았다. 그 곳이 등산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등산객들이 그 주저리를 풀어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제의과정

예전에는 산치성 날짜가 음력으로 시월 초하룻날로 정해져 있었다. 과거에는 사래리와 벌웅절리, 역골을 합해도 가구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에 시집을 가거나 이사를 간 사람도 원하면 사래리 산치성에 참여 할 수가 있었다. 실제로 사래리에서 벌웅절리로 열아홉에 시집을 온 송정식(74) 할머니는 결혼을 하고도 6년 동안 사래리 산치성에 쌀이나 돈을 내고 참여를 했다고 한다. 송정식 할머니 외에도 사래리에서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이가 산치성에 정성을 들이기도 했고 그 주변에 세 사람이 더 참여를 했다. 사래리 산치성도 몇 년 동안 잠시 중단 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주변 마을의 네 가구는 제외되었다.

예전에는 산신제가 있기 열흘 전에는 마을회의를 거쳐 당주를 선출했다. 당주는 생기복덕을 가려 앉은 당주와 선당주를 뽑는데, 당주로 뽑힌 집 앞에는 금줄을 쳐서 부정 탄 사람들이 못 드나들게 조심을 시켰다. 선당주는 동네를 다니면서 제사 비용을 추렴해서 받고 산에 우물치고 제물을 사러 다니는 등 굿은일을 도맡아 하지만, 앉은 당주는 산제 전날 목욕제게 하고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다가 밥과 누룩을 섞어 조라술을 해 넣고 산신제에 쓰일 떡을 찌는 등 제물을 준비한다.

지금도 산신제는 음력 시월 초하룻날로 많이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날짜를

일요일이 끼인 초사흘까지 잡기도 한다. 다른 날로 미루면 부정 탈 경우가 자주 생겨서 더 이상 미루지는 않는다. 외지에 나가 있어도 사래리가 고향인 사람들은 산제를 지낼 때가 되면 그 날짜에 맞추어 모인다고 한다. 현재는 선당주, 앉은 당주를 날을 가려 뽑지 않고 시간이 되는 사람이 산신제에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제물은 삼색과일, 돼지머리, 시루떡이 준비되고 술은 전날 물어 두었던 조라술로 한다.

산신제를 올리는 시간이 밤 열두시이므로 마을회관에서 먼저 떡시루를 얹어 놓고 마을의 평온을 기원하는 선고사를 올린 후 밤 열 시쯤 제물을 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제의 차례는 제관이 제단에 산치성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절을 하고, 조라술을 가져다가 제관이 잔을 올린 후 두 번 절한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소원을 빌며 태운 후에 술잔에 술을 붓고 제관을 비롯한 산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두 번 절하고 산제를 마친다.

(3) 결 산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쌀이나 돈을 조금씩 추렴해서 비용을 내고 산신제를 지냈기 때문에 장만한 제물을 공평하게 떡 한 조각까지 똑같이 나누고 먹었지만 지금은 사래리 애향회가 조성한 회비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 제를 지낸 후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하고 애향회 회원들끼리 결산보고를 한다.

□ 제보자 : 이현예(남, 84세, 역곡 2동 62-7번지)
최종보(남, 82세, 역곡 2동)

11-3. 춘덕산 산치성

역곡 1동 벌웅절리 마을 뒤로 둔대산(현 춘덕산)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박진이 이끈 의병이 1592년 9월 둔대산을 중심으로 왜군과 벌인 치열한 전투가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역곡동에서 400여년을 대대로 살아온 죽산 박씨의 대동보 기록에 의하면 의병장 박진이 2백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전투를 벌일 때 함께 싸우던 그의 형 박헌이 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박진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서 형의 시신을 찾아 선영에 묻었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의병으로 참전하여 죽은 마을 주민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왜군 주력부대를 퇴각 시킬



11-3. 춘덕산 산치성 약수터

일찍 산에 올라 주변을 청소하고 오전 10시에 산신제를 지낸 후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과 간단히 음복을 하고 있다.

수 있도록 도와준 둔대산에 감사하기 위해 매년 음력 시월에 산치성을 지냈다고 한다. 계속 내려오던 산치성제는 일제 때부터 단절되었는데 현재 벌음절리에는 산치성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전혀 없었다.

최근에 춘덕산수회가 주관해서 박진 전승비가 세워진 약수터 옆에서 간단하게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제사날 아침

12. 성남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2-1. 수정구 깊은골(심곡동) 산제사

1) 마을개관

깊은골은 현재 성남시 수정구에 속해 있다. 인능산 밑 깊은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깊은골이라고 불렸으며 심곡동은 깊은골의 한자표기이다. 성남의 서울 비행장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마을 입구에 효성고등학교가 있으며 효성고등학교 옆으로 난 길을 따라 400m 가다 보면 마을이 양옆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 가구 수는 100여 호 정도 되는데 순흥 안씨와 성주 이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효성고등학교 후문 옆에는 주민들이 거북바위라고 부르는 검은 색의 바위가 있는데 마을에 복을 물어다 주는 바위라 해서 주민들이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원래 이 바위는 마을 하천에 있던 넓적하고 큰 바위에 얹혀져 있었지만 하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옮겨 놓았다고 한다. 거북바위는 머리를 비행장 쪽으로 두고 있는데, 옛날 그 지역이 전부 논이어서 그곳의 것을 거북이가 열심히 먹고 똥을 마을 쪽으로 누어 마을이 풍요롭고 잘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2) 제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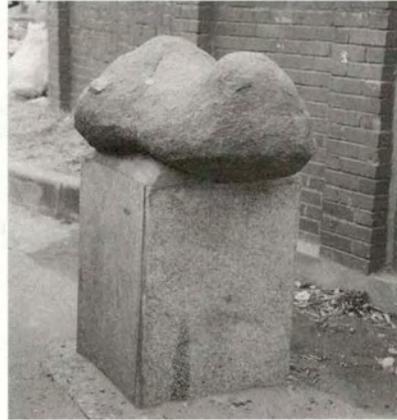
(1) 당의 구조와 형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동네고사 또는 산신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제사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 왔지만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는 모른다. 제당에 대해서 부르는 특별한 명칭은 없고 동네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가면 개울 옆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산신제를 지낸 후에는 마을로 와서 우물에도 제사를 지낸다. 웃우물로 불리는 이 우물은 마을회관 옆 느티나무 앞으로 있는 길을 따라 20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있다. 지금은 이 우물을 먹지 않지만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이용하던 공동우물이었다. 평소에는 뚜껑을 덮어 놓고 있지만 제사 하루 전날 우물을 치고 청소를 한다.



12-1. 수정구 심곡동 웃우물



12-2. 수정구 심곡동 거북바위

(2) 제의과정

제사는 매년 음력 칠월 초하루 오전 열 시를 전후해서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제주를 선정하는 방법이 엄격 했지만 6.25 한국전쟁 이후에 현재의 방식으로 간소화 되었다. 마을에 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몇 년 생 누가 좋겠다고 하면 제사 며칠 전에 불결하지 않고 온순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을 제주로 선정한다. 과거에는 뽑힌 사람은 제사 전까지 날마다 목욕제재하고 부인과 잠자리도 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금기사항을 지켰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지만 부정한 것을 피하고 조심하는 정도로만 지키고 있다.

제사 전에 제물의 준비는 통장이 주관한다. 제물로는 소머리와 소족을 쓰는데 예전에는 소 한 마리를 마을에서 직접 잡았지만 지금은 도살장에서 잡는다. 소를 잡기 전에 각 가정에서 원하는 만큼 고기의 양을 주문 받고, 마을 사람들은 주문한 분량만큼 소 값에서 나누어 낸다. 소를 잡은 비용은 고기를 팔아서 충당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마을의 공동자금에서 지출한다. 마을의 공동자금은, 마을에 초상이 나면 병원에서 사망해서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의 공동상여를 쓰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거나 달구질을 하면 나오는 비용을 모았다가 마을기금으로 사용한다.

산신제를 지내는 제물은 소머리와 소족, 막걸리, 촛불과 향이 전부이다. 제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생기복덕을 가려 뽑은 제주 한 명과 일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해서 세 명 정도가 올라간다. 산신제는 축문이 별도로 없고 제주가 술 석잔 올리고 세 번 절하면 끝이 난다.

산에서 내려와 웃우물에서 다시 한번 제를 지내는데 우물고사는 제물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산신제에서 사용했던 제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3) 결 산

산신제를 지낸 후 마을회관에서는 소를 잡은 후 나오는 부산물로 국을 끓여서 술을 마시고, 국밥을 만들어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여 음복을 한다. 산신제와 관련된 특별한 마을 회의는 없고 결산도 별도로 없다.

- 제보자 : 이광섭(남, 65세, 수정구 심곡동 347번지)
 안평길(남, 63세, 수정구 심곡동 362번지)
 이상만(남, 74세, 수정구 심곡동 371번지)

12-2.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고등동은 성남시 수정구에 속해있다. 고등동은 고산동과 등자리로 크게 구분되는데 고산동의 高자와 등자리의 登자를 취하여 고등동이라 부르고 있다. 등자리는 인능산 밑인데 덕수 이씨 후손이 등과하는 경사가 잇따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덕수 이씨네 묘가 많은데 벼슬이 높아 石燈이 세워진 마을이란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성남비행장과 연결되는 지방도로에서 마을 입구까지 약 600m를 들어가면 등자리 마을이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등자리 마을 어귀에서 왼쪽으로 약 300m 정도를 걸어가면 용천사라는 작은 암자가 있고 사찰 뒤쪽 7부 능선에 북향하고 산제당이라고 불리는 당집이 있다(용천사 보살은 할아버지 산신당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산제당은 시멘트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정면 340cm, 측면 250cm 규모로 지어져 있다. 예전에는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은 흙벽 집이었는데 2000년 봄에 마을공동기금으로 현재의 규모로 다시 지었으며 내부는 장판을 깔고 벽지로 마무리 했다. 당집을 들어서면 오른쪽 벽에 산신도가 걸려 있는데 가로 130cm, 세로 98cm 이며, 그림에는 산신이 왼손은 수염을 잡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검지가 지면을 향하고 있다. 또 정면 우측에는 남녀 동



12-3. 수정구 등자리마을 산신당



12-4. 수정구 등자리마을 산신당 내부

자가 서있고 좌측에는 호랑이가 산신 앞에 엎드린 채 머리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산신도 아래에는 높이 80cm, 가로 70cm, 세로 120cm의 작은 단이 설치되어 향로와 촛대가 놓여 있다.

(2) 제의과정

등자리 마을의 제사는 산제라고 부르며, 일흔이 넘은 마을의 노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고 기억을 할 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회의를 거쳐 제관을 선출한 후 산신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마을에 있는 용천사의 보살이 주관해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제를 지낼 때는 음력으로 시월 그믐날 제물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십일월 초하룻날 0시에 제를 지

냈지만, 용천사 보살이 주관한 후로는 음력 십일월 초하룻날 오전 7시에 제를 지낸다.

예전 동네 사람들이 제를 지낼 때는 지내기 며칠 전에 마을 회의를 거쳐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비용을 추렴했다. 회의를 거쳐 일 보는 사람도 대 여섯 명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을 돌면서 비용도 추렴하고 제물도 준비했다. 비용은 각 호당 쌀을 한말씩 거두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도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비용은 참여하고 싶은 가구를 대상으로 얼마씩 추렴한다.

현재 제를 주관하는 용천사 보살은 마을의 산신제를 주관한지 십 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장을 봐서 장만해오고, 밥을 짓고 나물을 장만하는 것만 보살이 하고 있다. 밥을 지어 바치는 일을 마을 사람들은 노구메를 드린다고 했지만 보살은 공양을 드린다고 했다. 장만하는 제물은 통돼지나 소머리, 떡 한 시루, 메 한 그릇, 나물 세 가지(도라지,

고사리, 미나리) 북어 한 마리, 과일 세 가지, 소주를 준비한다.

비용을 추렴하고 제물을 준비하며 차리는 과정은 여전히 마을 주민들의 몫이지만, 제관의 역할은 용천사 보살이 대신하고 있다. 제물을 제단에 진설하고(이 때 통돼지는 산제당 안에 있는 제당에 올릴 수 없으므로 산제당 바깥 오른쪽에 시멘트로 마련된 제단에 진설 한다) 보살이 불경을 외우면 제가 시작되는데, 제를 지내는 중간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향을 하나씩 피워 들고 제당 주변을 돌면서 마을의 무사안일을 기원한다. 제의가 끝나면 고시례를 하고, 마을에 대한 소지를 올린 후 각 가정의 소지를 올린다.

(3) 결 산

산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물을 마을회관으로 옮겨와 집집마다 몫을 나누고 음복을 한다. 요즘은 비용을 추렴하고 장을 봐서 제물을 차리는 일은 통장과 부녀회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통장이 결산 보고를 한다.

□ 제보자 : 이종림(여, 76세, 수정구 등자리 156번지 용천사 보살)

12-3. 수정구 시흥동 모랫말 산제사

1) 마을개관

모랫말은 수정구 시흥동에 속해있는 마을로 성남비행장에서 대왕관교로를 따라 오다가 여수로 쪽으로 접어드는 초입에 있다. 모랫말이란 이름은 주변의 탄천 물이 넘으면서 마을에 모래가 많이 쌓여 모래밭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마을의 산신제는 십오 년 전에 중단된 상태다. 제사가 중단되던 때에 약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크고 작은 교회 세 개가 생기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용추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산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제당은 마을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이며 신체는 참나무이다. 모랫말 동산으로 불리는 낮은 동산은 마을 뒤로 길게 뻗어 있는데 서쪽 끝에 신체인 참나무가 서있다. 이 참나무는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해 울타리를 쳐 놓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에서 설치한 낮은 울타리와 입간판이 녹슬어 있다.

(2) 제의과정



12-5. 시흥동 모랫말 산신제 신체

모랫말의 산제사는 음력 시월 초순에 제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딱히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사 날짜는 보름 전에 날을 잘 보는 사람이 상주, 아기를 낳은 집, 부정한 집을 제외 한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출하는데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과 가장 잘 맞는 날을 골라 제사를 지냈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집 앞에는 금줄을 치고 대문 옆에 황토 흙을 놓아 부정한 사람들은 그 집을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제사에 쓰이는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추렴해서 마련했는데 정해진 금액이 없이 형편껏 정성을 모았다. 제물은 소머리와 과일과 시루떡을 쓰고 술은 막걸리를 사용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면 제관과 3~4명

의 남자들이 제물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를 지냈는데 이 과정에 여자들은 참여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간은 해가 지고 나면 저녁 일곱 시와 여덟 시 사이에 시작했다.

(3) 결 산

제사를 끝낸 다음날 아침에 산신제에 비용을 추렴 했던 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한다. 준비되는 음식은 많지 않아도 오지 않은 사람까지 챙겨 조금씩 나눠준다. 비용을 추렴하러 다니는 이가 통장이므로 마지막 결산도 통장이 마을사람에게 보고한다.

□ 제보자 : 김상봉(남, 69세, 수정구 상적동 87번지)
이규준(남, 84세, 수정구 상적동)

12-4. 수정구 시흥동(사송2통) 샘골과 송현마을 뒤편바위고사

1) 마을개관

샘골과 송현마을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 2통)에 들어가는 마을이다. 시흥동 모랫말의 마을회관 앞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넘어 가면 샘골과 송현마을로 가는 길이 나온다. 샘골 1개반과 송현동 2개 반이 한 개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샘골과 송현마을은 산고개를 하나 넘어야 갈 수 있다. 송현마을 쪽은 택시회사와 도예공장 등 몇 개의 회사와 공장이 있고 샘말은 집들만 있지만 도로 쪽으로 새로 지어진 집들은 외부에서 새로 전입해온 집들이다. 3개 반을 합해서 백여 가구 정도 되지만 순수한 토박이는 30여 가구가 조금 넘는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샘골과 송현마을의 중간지점인, 마을 주민들이 송현동산이라고 부르는 산의 정상에 놓인 커다란 바위이다. 주민들은 이 바위를 뒤편바위, 듄바위, 뒹바위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바위의 높이는 약 5m, 둘레는 22m로 거대한 바위이다. 송현마을에서 샘골로 넘어가는 길 왼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샅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면 큰 바위가 놓여 있다. 바위의 동쪽 편에는 바닥에서 80cm 정도가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곳에다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 주민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12-6. 수정구 샘골, 송현마을 뒤편바위

(2) 제의과정

제의 날짜는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룻날 밤 0시로 정해져 있다. 제사가 몇 년 된지는 모르지만 수백 년 전부터 지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과거에는 보통 제사 3일전 마을회의를 거쳐

서 집안에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정했다. 제관으로 선정된 집은 대문에 흰 새끼줄에 흰 창호지를 끼운 인줄을 치고 대문 앞 양쪽으로 황토를 뿌려 놓아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산제사를 지내기 전에 옷우물이라 불리는 우물을 청소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심했다. 요즘은 제관만 특별히 선출하고 음식은 세 개 반의 반장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준비한다.

과거에는 제사에 쓰이는 비용을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추렴해서 모았지만 외부에서 유입 되어온 사람이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용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1개 반에서 십 만원씩 삼십만원을 모아 비용을 충당한다. 제물은 소머리, 유과, 감, 대추, 사과, 북어포 등을 준비하는데 제사 하루 전날 통장이 어떤 제물이 필요하니까 사다 놓으라는 물 목을 정해주면 시장에서 구입해 놓는다. 2002년에는 샘골의 염철린(57)씨 집에서 제물을 준비했다.

산제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오르는 시간은 밤 열한 시쯤이다. 제관과 제물을 지고 갈 사람까지 해서 여섯 명 정도가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로 올라간다. 산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바위 옆에서 향을 피우고 술을 한잔 올린 후 제사가 시작됨을 알린다. 간단한 의례가 끝난 후 산제를 올리는데, 제관이 술을 한잔 올린 후 절을 하고 통장이 술을 올린 후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면 제사가 끝난다. 이 때 축문은 읽지 않는다.

(3) 결 산

과거에는 각 가정마다 비용을 추렴했기 때문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비용을 낸 가정은 고기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눠서 먹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 추렴을 하지 않아서 음복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에서 빠졌다. 지금은 동네공동기금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작은 봉지를 만들어 조금씩 담아서 다 나누어 먹는다.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한 후 헤어진다. 결산은 각 반별로 반장들이 별도로 주민들에게 한다.

□ 제보자 : 우흥환(남, 75세, 수정구 시흥동(사송 2통 3번) 669번지)

염철린(남, 57세, 수정구 시흥동 669번지)

12-5. 분당구 운중동 하산운동(아랫퇴루니) 산제사

1) 마을개관

아랫퇴루니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판교동과 인접한 동네이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에 속하였으며 퇴루니(산운동) 아래쪽에 해당 되므로 아랫퇴루니 또는 하산운동으로 불렸다. 현재 이곳에는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까지 약 1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 곳이 개발예정지구로 묶여 있어서 몇 년 안에 근처의 마을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나이 많은 주민들은 어쩌면 2002년을 마지막으로 제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마을 뒤쪽으로 도당대라는 산줄기에 커다란 참나무 신체가 있었으나 약 이십 년 전에 자연 고사했다. 예전에는 그 나무에 황새가 많이 와서 살았는데 황새 배설물이 떨어진 자리가 저절로 삭아서 나무가 죽었다고 기억하는 주민도 있었다. 현재는 참나무가 있었던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주민들은 산제사라고 부른다. 문승규씨 집(버스 정류장 앞 슈퍼)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끝까지 가다 보면 마을이 끝나는 곳에 산으로 가는 길이 있다. 산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연안 이씨 무덤들이 많은데 그 왼쪽으로 참나무 있던 자리가 있다.

(2) 제의과정

아랫퇴루니의 산제는 매년 시월 초하룻날 0시에 지낸다. 과거에는 산제를 지내기 일주일전에 마을회관에서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서, 일년 동안에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당주로 뽑았다. 이 때 제관 한 사람과 축관 한 사람도 같이 선정한다. 당주로 뽑힌 집 앞에는 짚으로 원새끼를 꼬고 술가지를 매달아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들이 드나 들 수 없도록 했는데 이 금기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산제는 통장과 반장, 노인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주관하고 있다. 제관은 마을의 노인들 중에서 유지급이 담당하며 당주는 통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당주가 된다. 과거에는 매년 당주를 선출하고 당주가 제관의 역할도 함께 했지만 지금은 마땅히 제물을 준비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제물을 차리는 비용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구당 얼마씩 추렴을 해서 제를 지냈지만, 마을회관에 있는 방 하나를 세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적립

해서 공동기금으로 쓰고 있다.

제사의 제물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 되었다. 백설기로 시루떡을 하고 소머리와 조라술을 빚어 오색 과일에 북어포를 제물로 쓴다. 조라 술은 쌀밥에 누룩을 넣고 옛기름을 섞어 항아리에 담아 물을 붓고 제당 옆에 묻어 하루를 두었다가 사용한다. 요즘은 제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로 많지 않다. 당주와 통, 반장 인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지만 부정한 사람과 여자는 제외된다고 한다. 제를 지내는 순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 다음 제주가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다음 절을 하면 끝난다. 제당에서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소지를 각자 하나씩 태운다.

(3) 결 산

산제가 끝나고 나면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부 먹고 다음날 마을 회관에서 노인들을 모셔 대접한다. 동네 땅에서 나오는 방세 등의 수입에서 산제의 비용을 충당하는데 통장과 음식을 장만한 당주에게 약간의 수고비도 지급한다. 이렇게 쓰이는 동제의 비용이 2002년에 약 50만원 정도 쓰였다. 산제와 관련된 축문 및 마을제사 물목은 매년 기록해서 통장이 별도로 보관한다.

□ 제보자 : 문승규(남, 70세, 분당구 하산운동)

이영제(남, 75세, 분당구 하산운동 46번지)

13. 수원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3-1. 권선구 탑동 골말서낭제

1) 마을개관

권선구 탑동에 속하는 자연마을인 골말은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수원지역에서 현재도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³⁾ 우봉 이씨와 전주 이씨들이 가장 오래된 거주민들이며 그 외 손씨, 홍씨, 정씨 등 각성들이 살고 있으며,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능행차 때 다니던 옛날 소릿길로 '왕대미'라는 지명이 전한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2개 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30 여 가구가 살고 있다. 그 중 원 거주민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었으며 마을 건너 쪽 칠보산 아래 있는 논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된 마을 대동회가 있어 마을의 중요한 일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 대동회 외에도 청년회, 노인공경회가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기금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마을 일도 서로 분담하여 마을대동회에서는 서낭제를 주관하며, 그 안에 속해있는 청년회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마을잔치를 개최한다. 노인공경회에서는 추석날 동네잔치를 열어 척사대회를 하고 풍물을 논다. 기금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내는 찬조금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30 - 50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00여 평 되는 마을 공동 대지가 있어 그 자리에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지었으며, 지금도 중요한 마을 일에 대해서는 임시총회를 열어 처리하고 있을 만큼 단합이 잘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두레패가 있을 때에는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크게 놀았는데, 서낭 → 우물 → 마을의 순서로 풍물을 쳐 내려왔다. 이를 '두레논다' 혹은 '두레친다'고 하며, 농번기에도 쳤던 것인데 당시 사용하던 풍물들을 도둑맞고 지금은 필요한 것만 몇 개 다시 구입해 놓았다.

2) 제의장소

제의를 행하는 곳은 마을 앞쪽으로 자리한 '골말서낭당'인데, 당집의 형태가 아니라 600년

3) 1997년도 당시 제의 현장조사 이후, 택지개발로 인하여 마을 제당터의 규모도 작아지고 마을도 많이 변하였으나 제의는 전승되고 있다.

이상 된 향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그 주위로 크고 작은 나무가 둘러서 있는 제사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 어느 날 밤에 신목을 외지사람에게 도벌당하고, 1993년, 그 자리에 어린 향나무를 심고 비석을 세워 신목이 있던 곳임을 기념하고 있다. 비석에는 「골말 城皇神祭壇碑」이라고 세우고 뒷면에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1982년에 수령이 600여 년 된 성황당 나무를 도벌당한 후 혹자는 미신이라고 하기도 하나 선현들의 미풍양속을 잇고 전통문화로 발전, 승화시키고자 이 비를 세우며, 성황신께 동민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같이하기를 기원”하였다.

서낭당에 대하여는 지금도 그 영험함을 전하고 있다. 옛날 정조 임금의 능에 행차하실 때 이 곳으로 지나갔는데, 말발굽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에서 내려 당을 뵈고 갔더니 떨어졌다고 하며, 서낭나무를 베면 탈이 난다고 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 마을에서는 월남 참전 용사가 6명 있었는데 모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사람들 중에는 군에 갈 때와 첫 휴가를 왔을 때 에는 서낭에 절을 하고 간다. 서낭당과 구분하여 그 옆으로 공터를 닦고 큰 툇마루를 두어 평소에도 마을사람들의 휴식터로 삼고 있다.

3) 제의 절차와 내용

이 마을에서는 마을고사를 “서낭제”라고 하며 매년 음력 7월 1일 아침 10시경에 지내고 있다. 제의주관은 골말마을회에서 마을공동 경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마을에 초상이나면 마을회 청년들이 일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것을 모은 것이며, 100여 평 되는 마을 공동 땅이 있어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지었다.

1997년 8월 3일(음력 7월 1일)에 지낸 서낭제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제관은 일주일 전에 열리는 마을회의인 대동회에서 제관의 사주를 보고 집안에 상(喪)을 당하였거나 하는 등의 굶은 일이 없고, 경사가 있는 깨끗한 사람으로 가려 미리 뽑아 두었으며 축관도 정해 두었다.⁴⁾

이 마을의 경우 제사에 관련된 실질적인 일들은 대동회의 회장, 총무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관은 오직 제의만 행한다. 제사에 일정한 격식이 없고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회의 결정에 그대로 따른다. 제관이 가려진 후에는 마을 전체가 금기에 들어가 비린 것을 먹지 않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으며, 굶은일은 삼가 한다. 제를 지내는 당일 날 아침에는 지금

4) 제관은 손영기씨(남, 73세, 을축생), 축관은 이병수씨(남, 65세)가 맡았다.

은 없어진 마을 공동우물을 퍼내고 대청소를 한 후 그 새 물을 처음으로 떠서 정화수로 젓상에 올렸다. 지금은 제관이나 축관집 수돗물을 받아서 쓰고, 마을회에서 도랑, 변소 등을 청소하여 마을을 깨끗하게 하였다.

마을회원들은 서낭당에 젓상을 준비해 두고 소머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는데, 아침 일찍 마을회원중 한 사람이 소를 구입하러 나갔던 것이다. 예전부터 골말 서낭제는 제사의 규모가 커서 제물로 소를 잡아서 지냈으며, 흉년이 들면 소머리만 사서 지내기도 했지만, 전쟁 중에도 결코 거른 적이 없었다.

서낭제에 사용할 소는 황소 중에서도 깨끗하고 잡티가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하기 때문에 널리 수소문해서 광주나 오산 등지에서 구해온다. 젓상에는 소머리만 올리는데, 제장 한쪽에 땅을 파고 나무로 불을 지펴 소머리털을 그을린 후 젓상에 올리고 그 자리는 묻어 버린다. 젓상에는 다른 제물은 더 차리지 않고 쇠머리와 제주(祭酒) 그리고 정화수(물)만 올린다. 술은 청주를 사서 쓰며, 정화수는 축관의 집에서 받아왔다. 이렇게 젓상을 차린 후 제관과 축관은 제복을 입고 젓상앞에 선다. 제관이 술을 한 잔 올리고 절을 한 후 제상 앞에 앉으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예전부터 전해오던 축문은 잃어버리고 몇 해 전에 다시 작성한 축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祝 文

유세차 정축년 칠월 일일
경기도 수원시 탐동 골말 마을
성황당 치성제 감소고우
권선구 탐동 골말마을회

때는 바야흐로 정축년 칠월일일에
경기도 수원시 탐동 골말마을회 주민일동은
감히 축문을 골말마을 토지지신과
골말 신령신당 부군께 엎드려 고하옵니다.
좋은 땅위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산 그림자 속에 기운이 솟아나고

마을을 이루어 화려하게 맞으니
 사람들이 이곳을 명당이라 이루네
 하늘로부터 삼광을 받고 오복을 갖추게 되니
 상서로운 안개가 골짜기에 서리고
 상서로운 연기가 골말마을을 휘감네
 온세상이 명랑하고 해와 달이 밝게 비추니
 복받을 땅을 택하여 살집을 지으니
 가정이 번영하고 자손이 많아
 논과 밭은 기름지고
 남가리와 땔감이 가득히 쌓였도다
 소와 말은 크게 살이 찌고
 닭과 개는 잘 자라니
 낮에는 밭갈고 밤에는 독서하여
 어진사람 양성한다.
 예의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어른을 공경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를 버리고 공을 받들도다.
 집집마다 부자되어 번영하고 귀인되니
 악마는 멀리 물러가고 질병은 침입하지 못하도다
 노소가 스스로 즐기니 이웃과 마을이 모범이 되고
 소원을 이루어 복과 녹을 함께 누리는 도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정성껏 음식과 뜻을 함께 모아
 몸을 깨끗이 씻고
 아침부터 밤까지 몸을 더럽히지 않고
 향불을 밝혀 삼가 청작을 드리오니
 신이여 도우사 후한이 없도록
 흠향하시오서.

〈탑동 골말서낭제 축문〉

축관은 축문을 읽은 후 제관과 함께 절을 하고 물러난다. 이어서 만신이 주관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예년에는 없었던 일이나 올해는 마을에 도로구획공사로 마을에 변화가 생길 예정



13-1. 제물 분육 -소 1마리

올렸던 소머리를 굿상으로 옮기고 별도로 마련한 시루떡과 북어 한 마리, 배 5개, 참외 5개, 수박 1개, 그리고 정종 술 두 그릇을 올렸다. 떡은 팔시루떡으로 그 위에 물을 한 그릇 올리고 시루채 차렸다.

만신이 먼저 간단히 고하고 마을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한 명씩 나와 소머리에 돈을 꿰고 절을 하였다. 이어 만신이 굿상 앞에 앉아서 “천신할아버지, 천신할머니”, “서낭할아버지, 서낭할머니”, “군웅할아버지, 군웅할머니” 등을 청하였는데, 계속 양손을 펼쳐 손뼉을 치는 듯한 모양으로 팔을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청신무가를 구송하였다. 이어서 공수를 내리자, 만신 뒤로 앉아있던 10여명의 동네 할머니들이 공수를 받으며 웅대를 했는데, 만신은 집집마다 개인 소지를 올려야 하는데 마을회에서

응해주지 않았다고 서운해 하였다. 만신은 골말대동에 모두 편안하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출퇴근 길에 아무 사고 없이 받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축원을 하였다. 축원을 마치고 만신은

이라 특별히 마을회에서 만신에게 청한 것이다. 만신은 대동만신은 아니지만 몇 해 전부터 이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어 일부 부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의 절차와 내용은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만신은 먼저 준비해온 좁쌀을 제당 주변에 뿌리고 그 사이 일하는 몇 사람이 「골말성황신제단비」 앞에 굿상을 차렸다. 제사상에



13-2 만신과 부인들의 처성



13-3 마을제관들의 재배

떡을 조금 떼어 주변에 뿌리고 곶상에 올렸던 제주를 제관과 이장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모금씩 마시게 했다. 부인들이 떡과 과일을 나누어 함께 음복하였다. 몇 일간의 열대기후 속에서 모처럼 비가 내린 날이고, 또 만신에 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고기를 나누는 작업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어 크게 어우러지는 자리는 못되었다.

당제는 아침 10시 50분경에 시작되어 11시 25분에 마치고 음복과 고기를 나누는 일이 계속되었다. 소는 2마리를 잡아왔는데, 이를 125개의 몫으로 나누었다. 내장도 별도로 50개의 몫으로 나누어 원하는 집에서는 가지고 갈 수 있게 비닐봉투에 담았다. 미리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몫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후에 방송을 하면 와서 가지고 간다. 후에 제의 경비 결산 등을 위해 마을회의가 열린다. 경비는 마을회 기금으로 우선 해결하고 후에 집집마다 동일하게 나누어 건는데, 예전에는 가을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고기값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금도 고기는 당일날 미리 가져다 먹고 한달 정도가 지난 후까지 기다려 준다. 크게 경비가 안들고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은 각자 자기 고기를 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제보자 : 이병수(남, 65세, 축관)
- 손영기(남, 73세, 제관)
- 황형규(남, 44세, 37통 통장)
- 홍종현(남, 38세, 26통 통장)
- 이종범(남, 59세, 마을대동회 총무)
- 차금순(여, 63세, 이 마을로 시집 온 후 계속 거주)

13-2. 영동시장내 거북산 당집

1) 제당명칭

당집의 형태로 거북산당집이라고 칭한다.

2) 제당위치

팔달문 영동시장 안에 있는 서울은행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3) 규모 및 형태

정면 507cm, 측면 266cm 규모의 당집으로, 원래는 짚으로 이엉을 한 둥그런 모양의 초가였는데 1964년에 현재의 모양으로 중수되었다. 예전에는 당 앞에 작은 연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당의 영역도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 많이 축소되었다. 서낭나무 밑에는 서낭신이라 하여 불상 모양을 한



13-4. 거북산당

작은 형상이 모셔져 있다. 당집 안에는 정면에 도당할아버지·할머니 그리고 염라대왕님이라고 쓰여진 두 폭의 무신도가 벽면에 나란히 있고, 그 밑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오른쪽 벽에는 신들의 이름(북두칠성님전, 삼불제석님전, 열두대신할머니전, 사해용왕님전, 옥황상제님전, 산신대감님전, 일곱칠성님전)이 쓰여진 지방이 걸려 있으며, 그 옆에는 칠성당이 마련되어 있다. 왼쪽 벽에는 종과 큰북을 걸고 그 아래에 쌀을 넣은 대감항아리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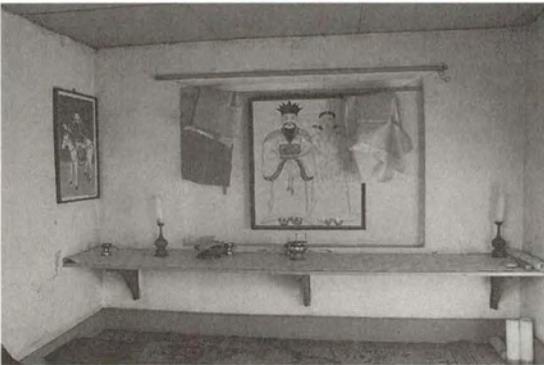
4) 제의내용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에는 연등을 달고, 음력 칠월칠석날, 음력 10월 7일에는 고사를 지낸다. 곳은 도당집 중수 때 하였고 그 후로는 다시 하지 않았다. 지금은 당을 지키고 있는 임복례씨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당을 지키고 있다. 특히, 음력 10월 7일에는 경기도당굿 기능보유자인 오수복씨를 청하여 고사를 지낸다. 비용은 임복례씨가 영동시장의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각출하여 마련한다. 거북산당 내부 왼쪽 아래측 벽에 '도당집 건립'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는데, 당 입주(立柱)는 1964년 3월 28일에, 상량(上樑)은 1964년 4월4일에 한 것으로 되어있다.

13-3. 고색동 큰말 도당집



13-5. 고색동 당집 외부



13-6. 고색동 당집 내부

이 고사, 그리고 10월초 소의 날에 지신제를 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칠석맞이 고사는 없어졌으며, 정월대보름 때에는 규모가 비교적 작기는 하나 줄다리기 행사를 한다. 줄다리기 당제는 청년회원 중에서 집사자라를 정해 진행하며 그 외 칠석맞이 고사와 10월에 진행되는 당제는 마을어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2002년에는 10월 17일에 제를 올렸다.

□ 제보자 : 유종훈 (남, 73세, 수원시 고색동, 경로회장)

1) 제당형태

붉은 벽돌에 청색기와를 인 2칸 규모의 당집으로 내부에는 정면과 좌측벽에 무신도를 걸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상 앞에는 헌납한 남녀한복을 걸어두었다. 그 아래로 벽에 설치한 나무제단위에는 촛대와 향로 등이 있다. 약 20년 전에 보수하였다.

2) 제당위치

지금은 폐선된 수인철도 부근에 있었던 것인데, 수인선이 생기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현재 사유지에 자리 잡고 있다.

3) 제의내용

당제는 일년에 세 번 지내는데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행사, 음력 7월 칠석맞

13-4. 세류 3동 당집

1) 제당형태

슬레이트 지붕을 인 당집으로 267cm(정면), 269cm(측면), 275cm(높이)의 규모이다.

2) 제당위치 및 내용

윗버드내 마을 언덕 공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당집이 있는 토지는 사유지인데, 세류동 원로들의 항의로 당집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마을 어른들은 시에서 이 지역을 매입하여 당집을 계속 유지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금도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당제를 지내고 있다.



13-7. 세류동 당집 전경

□ 제보자 : 김덕순(남, 76세, 수원시 세류 3동)

14. 시흥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4-1. 시흥시 신현동 포동 새우개 당제

1) 당(堂)의 위치 및 형태

포동의 도당은 새우개마을의 할미산(학미산)자락에 아담한 당집과 터주거리, 오래된 신목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마을의 동편과 서편입구에 장승과 솟대가 있고 마을 안에 “고사먹는 우물”이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해마다 마을 당제를 지내고 있다.

당 안에는 도당할머니와 할아버지, 군웅대감, 임장군 등 17 묶의 길지를

걸어두었고 짚으로 당집 울타리 안에 만든 도당터줏대감에도 길지를 묶는다. 이 터주거리도 예전에는 크기가 컸는데 지금은 작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마을 곳곳에 “고사 먹는 큰 돌”이 3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장승도 마을 여러 곳에 있었으나, 지금은 마을입구인 동



14-2. 포동 새우개 당집



14-1. 포동 새우개 당집 전경

편 장승, 학교 뒤쪽 소나무 아래 서편 장승만 남아 있다. 매년 당제를 지내기 전에 동네 대목수인 강씨가 밤나무로 장승과 솟대를 깎아 세웠다. 지금 서있는 장승은 7년 전에 만들어 세운 것이다. 대략 33년 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두 번, 정월과 7월에 당굿을 크게 행하였던 곳이다. 이 제의를 중단한 후 마

을 젊은이들이 사우디에 가서 죽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겼다. 이러한 이유에서 7년 전 다시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매년 7월 초사흘 날이나 초나흘 날로 당제일이 고정되었는데, 정월당사는 춥고 제의비용도 잘 내지 않아 7월 당사만 지내기로 한 것이다.

제의에 필요한 그릇, 상, 전깃줄, 칼, 수저, 돛자리, 물 지개, 물동이 따리, 수세미 등 그 당제에 필요한 용품 일체를 당 안에 보관하고 있다. 옛 문서와 집기들은 대부분 잃어버리고 7년 전에 새로 장만한 것이다. 지금은 여당주가 당집 열쇠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2) 제의절차 및 내용

(1) 제의 준비과정

일반적으로 마을의 공동제의를 행하려고 하면, 그 일을 주관할 당주와 제관을 맡을 사람을 생기복덕을 가려 뽑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 마을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묶인 당주가 있어 일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마을 당제는 남당주와 여당주⁵⁾,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 이끌어 가고 있는데, 특히 여당주 이씨는 도당일에 참여한지가 20년째가 된다. 남당주도 당에 오른 지는 30년 정도가 되며 직접 당주일을 맡아본지는 6 - 7년이 되었다. 이들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여당주는 각 가정을 돌며 제의비용을 걷고, 제물을 장만하는 일을 한다. 남당주는 제의일 전에 미리 제당과 도당우물을 청소하고 도당터구리를 새로 꾸며 놓는다. 당제를 지내는 날에는 일을 도와 줄 남자 4사람과 함께 당에서 돼지를 잡고 제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자들은 당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주는 제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제의경비는 각 가정마다 만원씩을 거두었는데, 자동차가 있는 집에서는 별도로 차 몫을 내어 '99년 당제 제비로 모두 104 몫을 거두었다. 여당주가 한 집씩 다니면서 거둔 것이다. 이 경비로 제물홍정을 한다. 제물은 제숙이라고 하여 수돼지 두 마리(돈 낸 사람 나누어 주는 것 포함, 예전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삼색과일, 소당아가씨 화장품, 한지 두 권, 북어 3마리, 쌀 등을 구입한다. 쌀은 3되를 구입해서 되반은 조라드리고 2되 반은 당으로 가지고가 메를 짓는데 쓴다. 한지로는 당에 모신 신(神)앞에 그리고 장승에 길지(吉紙)를 드리는데 쓴다. 정월 당제를 지낼 때에는 떡을 직접 찌서 올렸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다만 식혜로 조라를 드린다. 조라는 여당주 집에서 만드는데 당제 전날 밤에 드러도 금방 익는다.

소당아가씨는 배마다 모시고 있었던 배지킴이기 때문에 선주와 선원의 풍어와 안전이 중

5) 서병혁(남당주, 77세, 포동 36번지, 선장, 염전, 배치기 상쇠, 본동 출생), 이영분(여당주, 56세, 포동 12번지/마을단골 최용림의 양딸, 본동 출생)

심이 되었던 당굿에서도 모시는 대상이 되었다. 소당아가씨는 물에 빠져죽은 아가씨를 위로 해서 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이 어촌이었던 시기에는 안강만 나가는 배가 12척이 있었다. 이 때 배안에 모셨던 소당아가씨를 당에도 모셨던 것이다. 그 몫의 분, 로손, 루즈, 삼색옷감, 바늘, 실 등의 용품들을 해마다 새로 구입해서 갈아주고 묶은 것은 태우는데 바다 일을 하지 않는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

(2) 제의 진행과정

7월 초사흘 날 낮에 제물을 준비해서 당에 올라간다. 제의는 당일 날 낮에 당산에 올라가 돼지를 잡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돼지는 당산에서 직접 잡는데, 이때 돼지를 잡으면서 나온 피를 익혀서 먼저 고사를 지낸다. 이를 피고사라고 한다. 이 피고사는 일종의 초례(初禮)로서 당신에게 인간들이 짐승을 잡았다는 것을 알리고 도당신에 먼저 음미해 보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선지를 도당에서 받음으로서 돼지 한 마리를 모두 응감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상차림은 술 두 잔과 선지(피), 약간의 소금으로 간단하다. 돼지는 크게 6등분으로 나누어 벽에 묶은 줄과 나무 등에 걸어둔다. 그 중 갈비나 다리 하나만 삶아 제의에 올린다. 이때도 정성을 드리기 위하여 돼지를 잡을 때에는 수돗물을 쓰지만 돼지를 삶거나 메를 짓는 제물에는 우물물을 길어 쓴다.

당에 모신 신들에게는 제물을 받치기 전에 먼저 질지(길지, 한지)로 옷을 입힌다. 모두 17벌이 되며 도당터주거리와 양쪽 장승에는 질지와 함께 북어를 끼워 놓는다. 본고사는 저녁 무렵부터 메 짓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제물상은 도당안에 “질지(吉紙, 한지)”드린 17군데, 도당터주거리, 도당나무, 동서편 장승, 우물, 그리고 도당 밖에 오랫동안 도당을 모시다가 돌아가신 이 마을 단골만신인 최용림(93년 12월 사망)의 몫을 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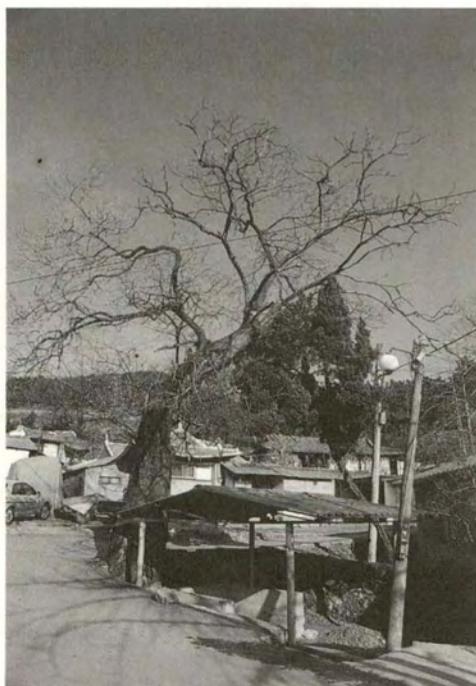
제물상차림은 메와 술, 삶은 고기로 간단하며, 소당아가씨 상에만 밥과 고기대신 과일과 두부를 차린다. 밤 11시 40분쯤 시작해서 12시에 제를 마쳐야 하지만 요즘은 조금 일찍 지낸다. 피고사를 지낼 때는 남당주 혼자 절을 하지만 이 메고사를 지낼 때는 당에 올라온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절을 한다. 축문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다만 남당주가 마을 사람들을 성씨별로 쳐들고(부르고) 축언만 한다. 축원의 내용은 당에서는 “도당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응감하시고 대동에 편하게 해주십사”고 하고 장승백이에 가서는 “동방천하대장군님 많이 응감하시고 애들 차타고 다니더라도 무사하게 해주십사”고 축언한다. 서쪽 서방천하대장군님께에도 똑 같이 기원한다. 절은 2번 받을 한다.

제의진행순서는 당 안에서 먼저 지내고 도당터주거리, 은행나무에 지내고 다음으로 대동우

물에 가서 지낸다. 이때 터주가리에는 술을 두잔 올리고 절을 하지만 나무에는 술만 두 잔 올린다. 특히 우물고사에는 고사상 양 쪽 끝에 밥을 한 접시씩 놓는다. 다음으로 동쪽장승, 서쪽장승에 지내는데, 장승에는 질지와 실타래, 북어를 묶고 술한잔 올린다.

제를 마친 후에는 다시 당으로 올라가 밤새 지키고 있다가 미리 정해 둔 주비들을 불러 고기를 나누어 준다. 쟁상에 올렸던 익은 고기도 조금씩이라도 모두 나누어 준다. 주비들은 각각 10집 몫의 고기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숙 받으시오”하면서 나누어 준다. 대부분 자고 있는 시간이다. 이 고기로 각 가정에서는 집고사를 지낸다.

주비까지 나누어 주고 청소하고 문 잠그고 내려와 당일 날 아침에 마을어른들을 모시고 메, 술국, 단술을 나누어 먹으며 음복을 하고 나면 도당을 모시는 3일 정성이 끝난다.



14-3. 포동 대동우물



14-4. 포동 마을입구 장승

(3) 결산 및 마무리

제의비용 관리는 1회로 끝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 필요한 제물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고, 일을 주관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각 집에서 거둔

제의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다.⁶⁾ 제비는 예전에는 호당 2,000 - 3,000원 정도 씩 거두었는데, 7년 전 다시 당제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1만원씩 거두어 돼지를 2마리씩 잡았다. 금년에는 104푼 정도 추렴하였다.⁷⁾ 모두 제의경비로 지출하였다. 사례비는 남, 여 당주에게는 쌀 한가마니 몫으로 12만원을 주고, 금년에는 조라드린 할머니에게도 3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당에서 돼지 잡는 일 등을 도와 준 4명의 일꾼에게도 각각 5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예전에는 남당주는 정월당사에는 쌀 반가마, 7월 당사에는 쌀 한 가마를 받았다. 7월 당사는 조라드리고 그 날 하루 종일 제속해서 고사드리면 그 다음날 내려와 3일이 걸린다. 정월당사는 돼지를 잡지 않고 소고기를 조금 사서 그날로 지내고 내려오므로 힘이 덜들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 반의 사례비를 준다. 점차 마을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도당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 제보자 : 서경혁(남당주, 77세, 포동 36번지, 선주, 염전, 배치기 상쇠, 본동출생)
 이영분(여당주, 56세, 포동 12번지, 본동출생)
 이영득(남, 54세, 인천 만수동, 본동출생)
 이영규(남, 88세, 포동35번지, 본동출생)
 김옥희(여, 66세, 방산2동 508-3번지)
 최금례(여, 62세, 방산동520-4번지)

14-2. 금이동 당나무 및 당집

1) 제당형태

당나무와 당집

2) 제당위치

금이동 마을 뒤 야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큰 당나무 바로 옆으로 작은 나무들과 어울린 당집이 있다.

6) 어업이 성했을 때에는 20여대의 선주들이 일년에 새우젓 한 동이씩을 당주에게 주었으며 당고사 때에는 필요한 음식을 전부 제공하였다.

7) 1930년에 작성한 옛 문서에 의하면 도당굿을 하였을 당시 정월고사의 추념은 국동과 포동을 구분하여 내게 했다. 포동사람들은 백미 한 되와 1원 40전을 내었고 배를 소유한 집에서는 배몫으로 별도로 더 내었다. 지금(1999)은 동일하게 1만원씩 내고 자동차를 가진 집에서는 그 몫을 더 내었다.



14-5. 금이동 당집 전경



14-6. 금이동 당집

3) 제의내용

당나무를 당할아버지라고 하며, 현재는 당나무가 고사하여 그 바로 옆 바위틈에서 자란 나무를 쓰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 날 당제를 지낸다. 당주는 제사 3일 전부터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우물에서 목욕제계를 하고 당나무에 불을 밝힌다. 주요제물은 소머리·백설기·밤·대추·배·사과·소적 등으로 당주가 신천 뱀내장의 우시장에 가서 장을 보아 온다. 제의에는 희망하는 마을사람들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주로 밤 10시 이후에 지내는데 터시루와 제물을 차리고 바로 제를 올린다. 제관의 축문 후 3번 절하고 음복한다. 당제 때만 쓰는 제기가 별도로 있어 당주가 보관한다.

□ 제보자 : 방삼영(남, 80세, 금이동)

15. 안산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5-1. 팔곡동 산신제

1) 마을개관

팔곡동은 담원·세학·정동·소학·능전·남산·봉건 등의 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북방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수리산 남쪽 기슭 8개의 골짜기 안에 위치해 있다 하여 팔곡동이란 동명이 생겼으며, 담원·정동·세학 등 3개 마을을 중심으로 산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팔곡동은 해주 오씨·경주 이씨·광주 이씨 등 각성들이 살아온 마을이며, 마을의 역사는 약 450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 생업은 농업으로, 마을단위로 두레가 활성화되었으나 점차 마을 토박이들이 노령화되고 마을을 떠나면서 두레는 해체되었다. 요즘은 농사 대신에 땅을 임대해 주는 임대업이 돈벌이가 되고 있다. 제보자들이 살고 있는 정동마을의 경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 수는 200여 가구 중 12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한다.

팔곡동 산신제는 1934년부터 2002년까지 70여 년 동안의 제의 문서가 잘 보관되고 있어 향토사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안산문화원에서는 팔곡동 산신제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안산문화원의 국비보조사업비에서 200만원이 배정되어 문화원과 산신제추진위원회의 공동주제로 계획되어있다.

2) 제의명칭과 시기

이 마을의 제의 명칭은 산신제이며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낮 12시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이 산의 산신령이 영험하여 말을 타고 산신당 앞을 지날 때면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만 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느 고관이 산 아래쪽에 있던 당을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당집이 있던 산을 ‘당안산’, 당집이 있었던 자리를 ‘당아래’ 혹은 ‘당아래길’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산신당은 예전보다 조금 높은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3) 제당의 규모 및 형태

팔곡동 산신제의 제당은 '당산'(팔곡동 뒷산) 정상에 마련되어 있다. 제당은 팔곡 1동과 2동의 경계지점에 있으며 팔곡 1동·2동에 속했던 자연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내던 제의였다. 팔곡동 산신제의 제당은 2군데이며, 산 정상에 천신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고 그 아래에 산신제를 지내는 산신당이 있다. 제당은 마을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길이 등산로로 잘 닦여 있어 오르내리는데 큰 무리는 없다.

산신당은 한 칸 집으로, 규모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85×325cm이다. 적색 벽돌을 쌓아 올렸으며 모든 벽면은 막혀 있다. 양쪽 벽면에는 가운데 부분에 붉은색으로 회칠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산신당에 낙서한 자국들을 지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칠해 놓은 것이다. 지붕은 기와로 된 맞배지붕 형식이며 출입문은 동남쪽 방향으로 나 있다. 문은 철문이고 양쪽 여닫이문을 달았다. 시멘트로 만든 제단은 폭 340cm, 높이 88cm이며, 단이 반으로 나뉘어져 탕화가 걸린 뒤쪽의 제단이 3cm 정도 조금 높다. 즉 제단이 두 단으로 올려진 형태이다. 천신제를 지내는 제단은 받침단 위에 상돌을 얹어 제물을 차릴 수 있도록 제상(祭床)을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상돌 앞에는 향상(香床)모양으로 다듬어 놓은 향돌이 있다. 평소에는 시멘트 제단을 노출시키나 제의 때가 되면 창호지로 깨끗이 덮어놓고 제의를 지낸다. 그러나 예전에 천신제는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평지'에서 지냈다. 그러다가 1991년 11월, 이곳의 한 독지가가 돈을 지원해 줘 지금과 같은 상돌과 향돌을 갖추게 된 것이다. 향돌은 각각 가로와 세로 33×27cm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상돌은 각각 가로와 세로 167×76cm로, 가로와 세로 132×113cm의 시멘트 위에 상돌이 얹혀져 있다.

산신당은 예전에 흙벽돌에 초가지붕이던 것을 1964년(단기 4297) 9월 7일에 중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산신당 내부에 있는 상량문의 기록("龍 歲在甲辰檀紀四二九七年九月初七日 午時重修上樑干壬坐丙向 祝 除滅寅 害疾病 繁登大畜五穀 歲歲太平 龜")에서 알 수 있다. 중수 이후 초가지붕은 지금과 같은 기와지붕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山神堂'이라고 써어 있는 현판은 산신당 정문 위쪽에 있으며, 이 현판 역시 중수할 때 새로 만들어져 걸린 것이다. 산신당 내부에는 탕화 2개가 걸려있는데, 정면 벽면에 걸어두었다. 왼쪽에는 산신 탕화, 오른쪽에는 독성탱화를 걸어 두었으며 한 가운데에는 산신의 형상을 한 조형물이 있다. 예전에는 탕화가 없었으나 30여 년 전부터 탕화를 걸어두었다고 이한진씨는 제보한다.⁸⁾ 또한 창호지에 "堂山神位"라고 적힌 지방이 벽 중앙에 붙여져 있다. 그리고 벽면에는 환기구

8) 이 조형물은 임철호씨가 사서 놓아 둔 것이며 나머지 두 개는 서울에 사는 임씨의 생질이 30여 년 전에 사 보낸 것이라고 안산시사에 기재되어 있다(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 中, 1999, 502쪽 참조).

가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산신당은 보수공사 작업 중이므로 산신당 내부에는 기와를 비롯한 각종 공사자재들이 쌓여있다. 특히 기와의 도난을 우려해 요즘은 철문은 항상 잠그고 있다. 산신당 보수공사는 2002년, 팔공산 산신당에 관심이 있는 한 독지가가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줘 보수공사가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당물’이라 하여 산신제 제의 때 쓰려고 만든 우물이 있었다. 산신당 아래에는 지금도 ‘당물’이 있어 제의에 사용하고 마을 사람들도 약수터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 15-1. 팔곡동 산신제 당집



15-2. 당집 내부 산신행화와 산신불



15-3. 천신제장의 상돌과 향돌



15-4. 당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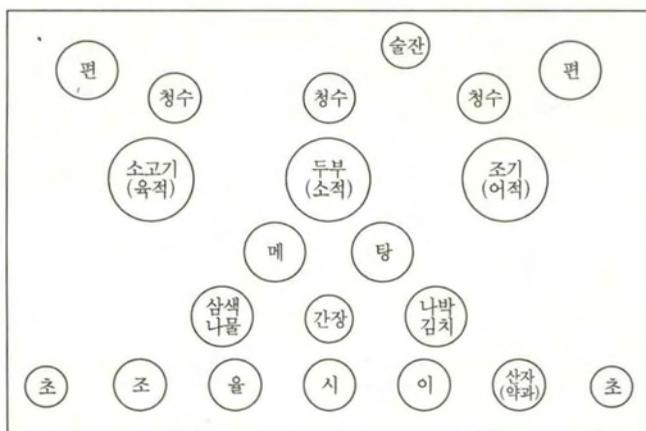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제를 올리기 위해 제관을 선출하는 데 초헌관·아헌관·종헌관·독축관·집사 2명 등 총 6명이 선정된다. 예전에는 제를 지내기 한 달 전, 미리 제관을 선출하였으며, 7개의 자연마을 중 가구 수가 많고 산신당과 근접한 3개 자연마을에서 당주·제관·주비(심부름하는 사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3개 마을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제물장만을 하였다. 그러다가 제

사를 낮에 지내면서부터 제관을 6명씩 선정하게 된 것이다. 원래 팔곡동 산신제는 밤 12시경(자시)에 지냈다. 그러다가 1995년, 이한진씨가 낮 12시경에 지낼 것을 제안한 이후부터 낮 12시에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예전에는 당주와 제관으로 선정되면 한 달 동안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부정한 것은 보지 않으며 종일토록 근신하였다. 이는 주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주비 역시 정갈한 마음으로 제물 준비를 하였다. 당주로 선정되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이의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황토 역시 대문 앞에 3군데씩 뿌려 놓는다. ‘당물’도 미리 청소해 두는 데 예전에는 당주와 마을사람들이 청소하였으나 요즘에는 제일 하루 전에 산신제추진위원들이 청소한다. 당물로 조라술도 만들고 제상에 올린 메도 지었으나 요즘은 당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렴은 4일 전부터 각 마을 추진위원들이 행한다. 2002년에는 1만원씩 걷었다고 하며 돈이 모아지는 형편을 보면서 제물을 장만한다. 1930년대 제의문서에는 담원(淡園)·정동(井洞)·선학(仙鶴)·소학(疎鶴)·능전(陵前)·남산(南山) 등 6개 마을 가구 수의 추렴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때는 쌀로 제의 비용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물은 현재 산신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이 농협마트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수원장에 가서 주비가 직접 제물구입을 하였다. 예전에는 ‘노구메’(늦쇠나 구리로 만든 작은 술에 당물로 지은 메)를 지어 술 짚로 올렸다고 하며, 주 제물로 통소를 잡았다. 그래서 흠이 없고 정갈한 통소를 잡아 산신제 지낼 ‘적’을 먼저 떼놓고 나머지 쇠고기를 당주집에서 일일이 나누어주었다.⁹⁾ 이렇듯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통소를 잡았으나 점차 토박이들이 마을을 떠나고 외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돼지 한 마리, 돼지 머리 등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조라



〈그림 28〉 팔곡동 산신제 제물상차림

술도 당주가 직접 담가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는 안산 양조장에서 특주(막걸리)를 배달시켜 제주로 쓰고 있다. 이밖에도 삼색나물은 아무거나 3가지를 갖추어 올리고, 어적은 조기나 송어를 쓰며 편으로 인절미와 시루떡을 올린다. 메와 탕은 탕화와 조형물 앞에 각각 3개씩 놓았으나 요즘은 간소화되어 1개만 놓는다.

11시경이 되면 제물진설을 끝내고 제를 지낼 준비를 하는데, 팔곡동 산신제의 제물상차림은 전과 같다.

제물진설이 끝나면 먼저 산 정상에서 천신제를 지내는데, 제물은 간략하게 술과 과일·포만 가지고 올라가서 지낸다. 별도로 축을 읽는 것은 없고 집사가 술을 따르면 절을 하고 내려온다. 이때는 6명의 제관들만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산신당에 내려와 산신제를 지내는데, 먼저 분향제배를 하고 산신을 내리는 강신례를 행한다. 집사가 술을 따라주고 제상에 올려두면 초헌관이 절을 한다. 아헌관·종헌관이 모두 절을 하고 나면 독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해마다 이한진씨가 독축관이 된다고 하며 제일(祭日) 당일 아침에 축문을 새로 쓴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山神祭祝

維 歲次 年 月朔 日于支幼學何某

敢昭告于

堂山之神巍巍其位昭昭厥靈威鎮

一境恩被四民此域居民境仰神明

擇此良日各遂微誠犧牲既潔酒果

且精

神其降臨爲之保佑除去疾病消滅災害

福祿連線壽考無擋六畜繁甬五穀豐登

登家家慶福歲歲太平伏願

산신제 축문

어가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드리러 참석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 중 깨끗하고 부정 타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제의에 참여할 수 있다.

2002년 팔곡동 산신제는 산신당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일(祭日)이 연기되

독축관은 축문을 다 읽고 불에 사른다. 축문을 읽은 후에는 소지를 올리는데 예전에는 가가호호 가구 수 대로 소지를 올려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마을별로 ‘어느 동네 잘 되게 해 주십사’ 하고 간단히 소지를 올린다. 그러나 초헌관·집사 등 제의를 주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지를 개인적으로 올리기도 한다. 소지를 올리고 나서 고시례를 하고 간단히 음복하면 산신제가 끝이 난다. 산신제에는 토박이 뿐 아니라 외지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의로, 여자들은 당집 안에 들

9) 쇠고기는 산신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먹을 수 있었다.

었다. 그래서 음력 10월 18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이때 안산 문화원장이 초헌관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팔곡동 산신제를 홍보하기 위해 산신제추진위원회에게 결정한 사항이다. 제일은 웃거리 만신에게 물어서 이날로 택했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팔곡동에는 7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정동(우목골)·담원(담넘어)·세학(쇠골) 등 3개의 자연마을이 주축이 되어 팔곡동 전 동민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산신제를 지냈다. 그리하여 당주와 제관 그리고 주비 등이 이들 세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선정되었다. 그러다가 한때 당골만신에 의해 산신제가 주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관 선정이 어려워지고 재물준비도 서로들 꺼려 제사지내는 일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마을과 인연이 있는 ‘웃거리 만신’¹⁰⁾이 제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웃거리 만신은 본인이 재물준비를 하여 축을 읽고 소지를 올렸다. 그런데 만신이 독축하는 축문이 원래 산신제 축문보다 내용이 못하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2002년부터 산신제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제의가 주재되고 있다.

만신이 제의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수고비를 지불하였다고 하며, 지금은 그의 며느리가 산신제 때 와서 수고해 주고 있다. 현재 산신제추진위원회는 예전에 각 마을의 당주와 주비였던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듯 산신제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까닭은 점차 당주나 주비가 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개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마을단위로 추진위원을 두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재물장만은 3개 자연마을이 돌아가면서 마련하지만, 제관은 산신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정되고 있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하고 제의 경비에 대한 결산을 한다. 예전에는 통장이 결산보고를 했지만 현재에는 산신제추진위원회 총무가 결산보고를 하고 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제의가 끝난 다음날 ‘심을 닦기 전’에 결산을 하고 음복을 하였다. 예전에 추렴을 쌀로 거뒀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고 남은 쌀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줘 이듬해 쌀을 늘려 받았다.

□ 제보자 : 이한진(남, 61세, 상록구 팔곡 1동 587-2, 현재 산신제 집행위원장, 8년 간 통장)

오을영(남, 59세, 상록구 팔곡 1동 560-2, 현재 산신제 총무, 제의 경비 및 산신제 관련 장부 관리·보관)

10) 이 마을에서 살다가 수원시 구운동으로 이사 간 단골만신으로, 당시 수원에 있는 웃고리(수원시 농촌진흥청 주변지역)에 살았다고 하여 ‘웃거리만신’이라 불렀다.

15-2. 양상동 아랫버대마을 정제(井祭)

1) 마을개관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버드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버대라는 마을명칭을 갖게 되었는데, 성냥공장에서 버드나무를 사가면서부터 버드나무가 멸종되다시피 했다. 양상동은 아랫버대와 윗버대가 있어 두 마을 각기 다른 정제를 지내왔다. 원래는 윗버대가 먼저 생긴 마을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랫버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입촌성씨는 최씨라고 하는데, 현재도 11호가 살고 있다. 윗버대에도 정제를 지내는데, 아랫버대와 거의 비슷하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샘이 2곳 있다.

아랫버대는 논과 밭이 약 30만평 정도가 되는 농촌이었으나, 고속도로가 세워지고 이주단지만 만들어지면서 약 20만평 정도로 줄어들었다. 아랫버대는 약 1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남녀 인구가 250명과 270명 정도이다. 여기에서 농업만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세대는 40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외에 사람들은 안산의 공장지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다. 특용작물로는 하우스를 중심으로 오이·토마토·수박 등으로 재배한다. 약 20세대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연간 순수익이 1,200만원 정도이다. 이외에 축산농가가 4호 있는데, 대개 30-40마리 정도를 키운다.

정제는 이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승되어온 제의라고 하겠다. 현재 정제는 마을의 남쪽에 있는 우물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1·4후퇴 때 평안도 피난민들이 들어와 물을 푸면서 마른 적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항상 샘에 물이 차있었다고 한다.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동우물을 쓰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동네사람들을 대접하고 벼 네 말을 기증한다. 대동우물 이외에도 마을에서 혼례식이 있을 경우 가마를 사용하고 초상이 날 경우 상여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입사식을 치루어야만 이들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제의 진행과정

(1) 당의 구조와 위치

정제는 음력 7월 1일로 정해져 있다. 7월 달이 제사를 지내는 달이기 때문에 7월로 정했다고 한다. 1일에 행하는 것은 새 달이 시작되기 전에 부정할 일이 생길까 우려해서이다. 제의 장소는 마을의 대동우물에서 하는데, 이를 오릿물이라고도 부른다. 오릿물은 대동우물에서부

터 물이 약 5리를 흘러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우물의 구조는 윗쪽에 샘이 있고 아랫쪽에 빨래터를 만들었으며, 지붕을 함석으로 올렸다. 샘은 약 96cm 높이로 벽을 만들었으며, 가로 세로가 각각 250cm, 348cm 정도이다. 샘의 아랫쪽에는 물이 흘러나오게 통로를 설치하였고 그 위에 제단을 사용하도록 140×25cm 정도의 판석을 깔았다. 샘의 윗쪽에는 향나무가 한그루 있어 神木으로 생각한다.

3) 제의과정

제관은 통장이 맡아서 한다. 올해에는 통장인 김병세(41세)씨가 맡아서 했다. 특징은 이 마을의 경우 축문이 없는 것인데, 따라서 축관도 선출하지

않는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특별한 금기는 없으나,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특히 비린 것 중에서도 개고기를 금한다. 이때가 삼복이 겹쳐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제의를 할 때 남녀구분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개고기를 먹은 사람만은 올 수 없다.

7월 1일이 되면 통장의 주관 아래 대동사람들이 나와 우물청소를 하게 된다. 이때 우물의 물을 모두 퍼내는데, 약 200바가지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찰 정도로 샘물의 양이 풍부하다. 이외에도 마을 청소를 하고 풀을 깎으며, 도로를 보수한다. 이때 중요한 일이 제물로 사용할 소를 잡는 일인데, 1951년 이후부터 소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는 소의 목덜미 부위를 3근 정도 사서 제육으로 사용한다. 제육은 과거 도살장에서 맞춰 왔으나, 올해는 축협에서 사왔다. 축협에서 사온 이유는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속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먹을 것까지 약 20근을 구한다.

제물의 구입은 반장들이 맡아서 하는데 7월 1일 아침에 안산에 나가서 구해온다. 제육을 제외하고는 수박과 닭, 술과 음료수 등을 마련한다. 음료수는 가게 집에서 기증하기 하며, 새



15-5. 아랫벼대 정제터와 신목



15-6. 아랫벼대정제터

로 전입한 세대에서 준비하기도 한다. 준비가 끝나면 부녀회에서 생 쇠고기를 적처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과거 소를 잡아서 생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후에 낮 11시경에 우물로 이동을 한다. 이때 마을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비린 고기를 먹은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

당에 도착해서 제물의 진설에 들어간다. 그런 후에 제관 혼자 절을 하고, 덕담을 한다. 덕담의 내용은 “동네 아무 사고 없고, 평안하게 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간략하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우물 주위에 서서 구경을 한다. 제관의 순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절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특징은 축문이 없기 때문에 소지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소지의 경우도 절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4) 결 산

제의에 드는 비용은 제육 이외에 큰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제가 끝난 후에 마을사람 전체가 음복을 하기 때문에 술과 음식이 필요하다. 이 비용까지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돈은 마을자금으로 충당하며, 연말 총회 때 같이 결산을 본다. 현재 마을의 마을기금은 약 3-400만원 정도이며, 노인회기금과 부녀회기금도 거의 비슷하다.

정제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는 편이다. 예전부터 정제를 잘못 지내면 마을에 탈이 생긴다고 하여 잘 지내왔다.

□ 제보자 : 목영학(남, 61세, 농업, 이 마을에서 10대째 거주, 1998년 2월까지 13년간 통장일을 맡아 했다. 특히 통장은 제관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통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관을 하지 않고 집사 역할을 했다)

15-3. 선감동 불도 당집

1) 마을개관

10년 전 탄도, 불도, 선감도, 대부도, 오이도를 이어 막은 후 육지로 변한 곳으로 바다 건너편은 화성군 서신면 전곡이다. 조사지인 불도는 작은 어촌마을로 지금도 3년마다 한 번씩 정월 보름 경에 날을 잡아 당제를 지내고 있다. 성씨는 지씨, 이씨, 문씨 등 각성받이이며, 종교는 주로 불교로 대부도에 있는 쌍계사에 다니는 사람이 많고 탄도에 교회가 있으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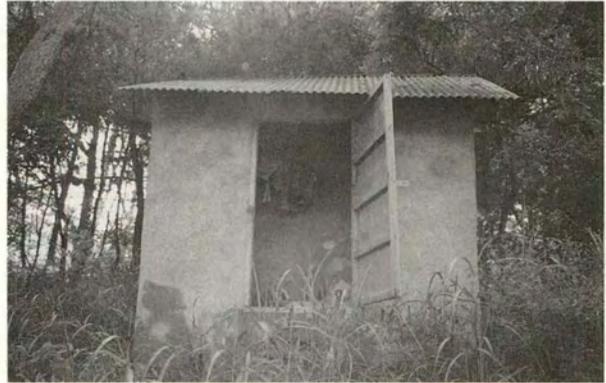
인은 몇 명되지 않는다.

생업은 마을 주변에 임야가 약 4만평 정도 있고 거기에 개간된 밭이 조금 있다. 그리고 주로 탄도 앞 묘섬에 있는 굴 양식장에서 석화를 10월 말부터 2월말까지 채취한다. 한달 평균 7번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며, 껍질 채로 판매하기 때문에 수월해 졌다. 탄도와 함께하는 공동 어장이기 때문에 개인별 배당량이 있으며, 한 번에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 외에는 탄도에서 회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깃배는 젊은층에서 7-8명 정도가 부리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대동초등학교에 다니며 그 이상은 주로 인천에 유학하고 있어 대부분 인천에 집을 가지고 있다. 교통편 역시 안산에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인천에서는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어 인천을 생활권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던 중에 돌부처가 그물에 걸려 그 부처를 모셔놓고 정성을 드렸다고 하여 불도라고 하였으며, 화성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절인 상림암에 그 부처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이 마을에는 당이 2개가 있는데 큰당과 작은 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큰당은 마을 뒤쪽으로 자리 잡은 당산에 바다쪽을 향해 당집 형태로 꾸며져 있고, 작은 당은 마을로 들어가는 옛길의 길목에 있는 크지 않은 나무로 상징되어 있다.



15-7. 불도당집 정면

곳이 끝난 뒤에 창호지에 쌀을 조금 싸서 서낭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둔다. 이 작은 당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마을로 들어가는 옛길이 되며, 바로 산 쪽으로 들어가면 큰당이 있다.

큰당은 스텔트지붕을 인 1칸 크기의 벽돌집으로 12년 전에 새로 지은 것이다. 바다쪽을 향해 있으며 정면 가운데로 양철문을 달았다. 내부에는 낮은 돌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기 3, 촛대 2, 한지로 접어 겹쳐둔 고깔모 3, 향꽃이를 엮었다. 오른쪽 구석에는 꽃병에 꽂은 조화, 촛대, 분통, 손거울, 색동고무신 3켢레, 초를 두었고, 왼쪽 위로는 줄을 치고 어린아이의 색동 한복을 걸어 두었는데 서낭님에게 바친 서낭님 옷이다. 당집을 보면서 왼쪽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는 조라술 담그는 자리가 있다.

이 불도의 서낭은 할머니당이고 옆에 있는 탄도 마을의 서낭당은 할아버지당인데, 두 당은



15-8. 불도당집 내부

서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당집 부근에서는 함부로 소변을 보거나 나무를 자르는 등의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3) 제의절차 및 내용

(1) 제의 준비과정

이 마을에서는 대개 “당제”, “당굿을 지낸다”고 하며, 마을대동회가 있어 이를 주관하고 있다. 대동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설달 그믐 안에 당주를 정하고 정월 초사흘 날 안

에 만신에게 당굿날을 가리러 간다. 대개 정월 보름안쪽으로 날을 잡는다. 지금은 3년에 한번 당굿을 지내는데, 지난번에는 음력 정월 열 이튿날 지냈다¹¹⁾.

당주는 부부 1집을 선정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집은 제외한다. 당주가 선정되고 날을 가린 후에는 금기에 들어가 음식도 비린 것을 먹지 않고 소금장 정도만 먹는다. 당주는 당산날 하루 전에 제당을 청소하고 조라술을 묻는 곳에 술을 만들어 묻어둔다. 제물은 통닭, 삼색실과, 식혜, 두부 2모, 둥근 달떡 두개 등이고 어·육류는 올리지 않는다. 달떡은 마을부인네들이 당주집에 모여 직접 만들며, 별도로 멍쌀로 마름모 모양으로 만든 갠팍이 떡을 150개 정도 만드는데, 이것은 만신이 굿 끝판에 제수굿 할 때 마을사람들에게 복 받으라고 나누어주는 떡이다.

만신은 동네만신이 있었는데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지금은 없다. 동네만신이 있을 때에도 화성 송산면 마산리 단골을 불러 했다. 재작년에는 인천무당이 맡아 하였다.

(2) 제의 진행과정

만신들은 당산날 낮에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당주집 고사를 지낸 후 2 - 3시경에 당산에 올라간다. 당맞이를 가는 것이다. 만신들이 기를 앞세우고 당으로 올라가는 도중 언덕길에서 탄도 쪽을 보면서 “탄도 도당할아버지 불도 당제 지내니 술 잡수시러 올라오시오”하고 3번

11) 1995년에 지냈으니 1998년에 지낼 차례이다.

외친다. 탄도 서낭신인 도당할아버지를 불러 함께 모시는 것이다.

당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2시간 정도 굿을 하고 당신(堂神)을 모시고 마을 가운데 있는 당마당으로 내려온다. 당마당에서의 굿은 저녁식사 후에 시작하여 밤새 놀고 다음날 아침에야 끝난다. 당마당에는 천막을 치고 한쪽 옆에 화톳불을 피우며, 바다쪽으로 굿상을 차리고 그 옆으로 집집마다 개인정성으로 꽃반을 가져다 놓는다. 꽃반은 개인축원상으로 소반위에 쌀을 깔고 그 위에 쌀을 담고 실감은 수저를 꼽은 밥그릇을 엮는다. 조라술도 떠 놓는다.

대동에 대한 치성을 드릴 때는 당주가 대표로 굿상 앞에 절하고 만신의 공수를 받는다. 굿을 마치고는 산반이라고 꽃반 올린 사람들을 불러 쌀점을 쳐주고 축원소지를 올려 준다. 쌀알이 짝수로 나와야 좋은 것이며, 이러한 개인축원 상다짐에 밤이 새는 것이다.

예전에 배부리는 집에서는 뱃기를 미리 당마당에 세워 두었다가 당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가서 신을 내린다. 당신(堂神)을 내린 뱃기는 자신들의 배에 가져다 꼽고 고사를 지낸 후 다시 당마당에 가지고 와서 꼽아 두었다가 그 다음날 굿이 모두 끝난 후 배에 가져다 꼽아 둔다.¹²⁾ 예전에는 마을에 7개 정도의 뱃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만신과 함께 오는 악사는 예전에는 3현 6각을 모두 잡혀 6명이 짝을 이루었으나 요즘은 피리, 해금, 장구, 대금 4명과 만신 1명이 오는데 150만원 정도를 주고 대신 굿상에 쓸 제물에 대하여는 만신이 준비해 오게 한다.

(3) 결산 및 마무리

제의경비는 마을대동회의 공동경비로 하고 부족분은 현금으로 호당 거출한다. 그러나 쌀은 집집마다 정성으로 조금씩 거둔다. 당주에게는 별도의 사례비는 없지만 당집에 깔기 위해 해마다 새로 구입하는 돗자리를 당굿이 끝난 후 당주집이 갖도록 하고 있다.

결산은 당굿이 끝난 날 저녁에 당주집에 모여서 음복을 하면서 계산하고 끝낸다. 당제를 지낸 후에는 풍물을 두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금기처럼 전한다.

□ 제보자 : 홍기선 (남, 58세, 선감동 21번지)

장일수 (남, 57세, 선감동 24번지)

12) 기를 먼저 꼽기 위해 “달기하는거”는 이 마을에서는 없고 대부분 남사리 훔곳에는 있었다고 한다. 기를 먼저 가져다 꼽는 사람이 도장이 되는 것이다.

16. 안성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6-1. 아양동 아롱개마을 미륵고사

1) 마을개관

아양동 아롱개마을은 각성마을로 그 전에는 해주 오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3가구 밖에 남아있지 않다. 현재 아롱개마을에는 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토박이들이 이곳에 남아있다. 이 마을로 들어온 외지인은 2~3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아롱개'라는 마을의 이름은 이곳 인근을 흐르는 내(川)가 있는데 아침에 안개가 끼면 이곳이 '아롱아롱하게' 보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롱개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 마을 사람들의 주생업은 농업이며 지금까지 마을에는 두레패가 남아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마을 노인들이 두레를 운영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2) 제의명칭과 시기

아양동 아롱개마을에는 2개의 미륵부처가 있다. '아양동 보살입상'과 '아양동 석불입상'이 그것인데, 각각 향토유적 10호·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시지정문화재이다. 이때 큰 미륵이 보살입상이고 이것보다 작은 것이 석불입상이다. 마을 주민들은 보살입상과 석불입상을 부부로 여기고 미륵부처에게 고사를 지내고 있다.

미륵부처에 고사를 지내게 된 지는 약 9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수해를 입어 불상이 쓰러진 것을 마을 주민들이 두레를 통해 기금(쌀)을 거둬 복구하였다. 그리고 쓰러진 불상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 낮 12시가 되면 미륵부처에게 고사를 지낸다.

마을 주민들의 체보에 따르면 미륵부처의 영험함 때문인지, 일제 강점기 때나 6.25 한국전쟁 시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끌려가서 낭패 본 사람도 없다고 한다. 이는 미륵부처가 아롱개마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장수하면서 살고 있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미륵부처는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36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미륵부처가 있는 곳을 '미륵데기'라고 부르고 있다. 미륵데기는 아롱개마을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당시는 가구 수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륵데기는 마을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미륵부처는 이곳에 있는 보살입상과 석불입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두 불상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미륵부처는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의 위치는 현 위치에서 3m 앞이라고 하며 일제 강점기 당시 수해로 도괴(倒壞)·목 부분이 파손되었다. 미륵부처는 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살입상은 여자라고 여기며, 머리 부위에는 화관(花冠)과 화편(花瓣)이 새겨져 있고 하단에 복발(覆鉢)이 있다. 얼굴 전체의 인상은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후덕함을 느끼게 하며 양미안(兩眉眼)·비량(鼻梁)·구순(口脣)이 정제되고 양귀는 가늘고 길다. 보강한 목 부위에는 3도(道)의 흔적이 엿보인다. 현재 보살입상의 총 높이는 338cm, 어깨 폭은 118cm의 규모이다.

석불입상은 남자라고 여기며, 얼굴 인상도 엄숙한 위엄이 깃들어있다. 머리 부위에는 관모(冠帽)처럼 두정(頭頂)에 표식이 있고 양미안·비량·구순이 정제되었다. 귀는 짧으며 목에는 3도(道)가 없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팔에 걸쳤는데 좌우의 늘어진 소맷자락에는 각각 3개의 의문(衣文)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무릎 부위 하단부부터 매몰되었는데 현재의 높이는 260cm, 어깨폭은 79cm의 규모이다. 석불 앞 시멘트로 조성한 제단석에는 “乙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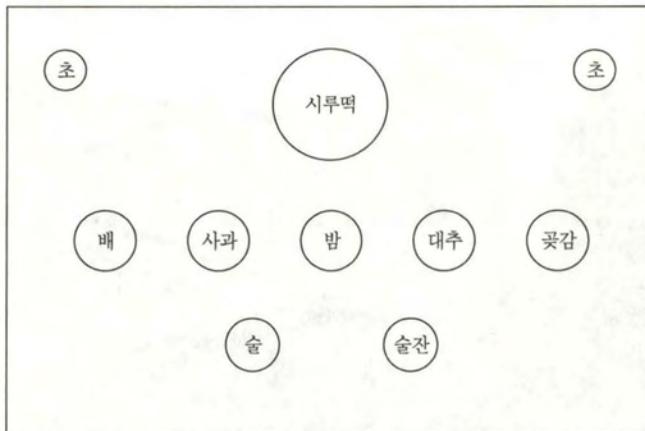
16-1. 아롱개마을 미륵부처 제당(좌:보살입상, 우:석불입상)

年 正月十四日 峨洋洞 一同”이라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1965년 1월 보수 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보살입상 옆에는 큰 가시나무가 있으며 보살입상의 크기보다 낮게 잘려져 있다. 이는 가시나무 가지가 우겨져 보살입상 쪽으로 기울어지므로 보살입상의 안전을 위해 잘라놓은 것이다. 가시나무는 이곳에서 ‘망우리’(깡통돌리기)를 하던 아이들이 불씨를 붙여 한때 불에 타기도 하였으나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 좌측 편에는 보살이 개인적으로 갖다놓은 널찍한 제상(祭床)이 있다. 보살입상과 석불입상이 있는 제당 주변은 시멘트 블록을 쌓아올려 담을 둘러놓았고 앞쪽으로는 철책이 둘러져 있다. 또 미륵부처 앞에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조그마한 가로등을 설치해 두었다. 그리고 뒤로는 초를 넣어두는 함이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미륵부처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한 보살이 사비를 들여 직접 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보살입상 앞 제단석을 받드는 아랫돌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시멘트로 덧바른 흔적이 보인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제물장만은 마을 부녀회에서 하며 부녀회장이 중심이 되어 마련된다. 주로 안성장을 이용하며 부녀회에서는 마을회관에 모여 찌개와 밥을 지어 고사 준비를 한다. 부녀회에서 제물장만을 주관하게 된 것은 7~8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보통 4일전에 제물을 장만해 놓는다. 미



〈그림 29〉 아롱개마을 미륵고사 제물상차림

14) 보살입상과 석불입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미륵부처 앞에 있는 설명 표지판의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인용.

룩고사를 지낼 때 제상(祭床)에는 시루떡이 통째로 올라가며, 사과·밤·곶감·대추·배·실타래를 묶은 통북어 등이 올라간다. 예전에는 마을에 술을 잘 담그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이 직접 제주를 담가주었다. 요즘에는 막걸리를 사다가 제주로 쓰고 있으며, 술을 담그지 않은지는 10여년이 넘었다. 또 시루떡도 제물을 장만하는 집에서 직접 떡을 찌으나 요즘은 방앗간에서 맞춰서 고사당일에 가져오고 있다. 미룩고사를 한 번 지내는데 약 20만원 정도의 제물비용이 소요된다. 아롱개마을 미룩고사 제물상차림은 다음과 같으며, 보살입상과 석불입상 앞 제단석에 각각 진설한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12시 정각에 고사를 지낸다. 통장이 술을 따라 주면 대표가 절을 하고 고사를 마친다. 보통 마을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마을 노인이 대표가 된다. 통장의 말에 따르면 마을 노인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표가 된다고 한다. 고사를 위한 축문은 별도로 없고 소지를 올리는데, 고사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 개인소지를 올린다.

이곳 미룩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는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이 고사 지낼 때 와서 경을 읽어 주고 마을 대동소지를 올려준다고 한다.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어김없이 참여하여 고사를 진행시키고 미룩보살을 관리해 주고 있다. 고사지내는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며 고사를 마친 후에는 두레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걸립을 한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미룩고사의 제물비용은 두레패의 걸립을 통해 마련된다. 미룩고사가 끝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걸립을 하는데, 이때 모아지는 비용이 동 기금이 되어 고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고사를 지낸 다음날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비용에 대한 결산을 한다.

□ 제보자 : 오영식(남, 47세, 아양동 347번지, 현재 통장)

김재복(여, 78세, 아양동 348번지)

곽가비(여, 75세, 아양동 348-3번지)

16-2. 금광면 상중리 상촌마을 산신제

1) 마을개관

상중리는 상촌·중촌·가촌 등 3개의 자연마을을 통합하여 이르는 말로, 3개 자연마을의 총 가구 수는 63가구가 된다(2002년 7월 현재). 그 중에서도 조사지인 상촌마을은 농가구 15농가·벼농사 6농가, 총 21가구, 76명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2002년 7월 현재). '상촌'이란 지명은 3개의 자연마을 중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상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며 주 생업은 나무를 팔아다 내다 파는 것이었다. 1960년대까지 이것이 주요 생업이 되었으나 지금은 벼농사를 주요 생업으로 하고 있다.

예전에 상촌마을에는 杞溪 俞씨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가구 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각성들이 들어와 모여 살고 있다. 현재 토박이들은 4가구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나머지 가구들은 최근에 들어온 외지인들이라고 한다. 2002년에 기도원이 마을에 들어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당집을 중수하거나 산신제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당집 중수와 관련하여 토박이들과 갈등관계에 있다.

상촌마을은 지역적으로 충청북도 진천군과 인접해 있어 실제 장을 보더라도 안성장 보다는 진천군에 있는 장을 주로 이용한다. 상촌 마을에서 진천군으로 넘어가는 경계지점에는 석남사(石南寺)라는 절이 있는데 안성시에서 가장 오래된 절 중 하나다. 마을 주민 중에서 불교신자들은 이곳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

2) 제의명칭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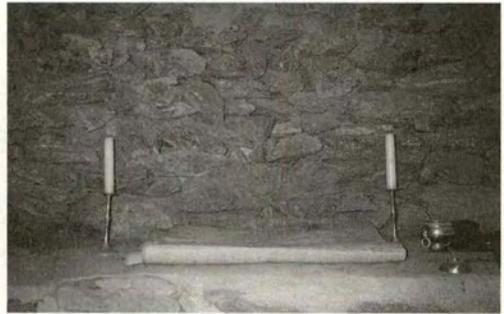
상촌마을의 산신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 밤 9시경에 지낸다. 예전에는 상중리에 있는 가촌마을과 상촌마을이 함께 산신제를 지냈다. 이때는 음력 정월 초이레, 밤 12시경(子時)에 제를 지냈다고 하며 상중리 안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촌과 상촌마을이 인접해 있어 이 두 마을이 함께 제를 지낸 것이다. 그러다가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 당시 이곳 지역의 피해가 커 산제당이 소실되었다. 그래서 산신제도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이후 상촌마을이 독자적으로 산제당을 지어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당집의 위치도 바뀌어 예전에는 가촌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으나, 현재는 상촌마을을 바라보는 동·남향으로 산제당이 내려와 위치하고 있다.

산신제를 초사흘에 지내는 까닭은 초이레쯤 되면 마을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져 친정에 다

너오는 사람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부정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상촌마을에서는 다시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할 때 초사흘로 제일을 옮겨 잡은 것이다. 만약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제일(祭日)이 연기되는데, 되도록 열흘 안으로 날을 받아서 다시 지냈다. 이렇듯 열흘 안에 제일을 정하는 것을 “망 안에 잡는다.”고 한다. 제일이 연기되면 다시 제일이 잡힐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외지인들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그래서 되도록 날을 “앵기지 앓고”(연기하지 앓고) 초사흘에 지낸다. 마을에서 초상이 나거나 누군가 출산을 하였다면 제일을 자꾸 연기하면 계속 부정한 일들이 생겨 보름이 넘게까지 제일이 연기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고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월 초사흘에 지내고 있다.



16-2. 상촌마을 제당 전경



16-3. 상촌마을 제당 내부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상촌마을 산제당은 마을 앞산인 삼봉산에 자리하고 있다. 삼봉산은 장차 ‘장군이 날 산’이라고 하여 명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삼봉산에는 ‘칼바위’, ‘투구바위’, ‘말바위’라고 인식되는 지명이 있다. 산제당은 마을과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산제당 주변에는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당집 전체



16-4. 상촌마을 제당 정면

가 돌로 쌓아 올려진 돌벽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돌은 이 산에 있는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사이사이의 빈틈은 흙으로 메꾸어 놓았다. 제단 역시 돌로 쌓아서 만들어진 형태이다. 그리고 제단 위쪽과 앞쪽에 시멘트를 덧발라 평평하게 해 놓았다. 당집은 가로 310cm, 세로 340cm이며 전체높이 200cm의 규모이다. 문은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함석으로 마감하였으며 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문 길이는 128cm, 폭은 72cm가 된다. 지붕은 소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서까래에 함석지붕의 형태를 갖추었다. 내부에는 제단 위에 촛대·향로·술잔·돛자리 등이 있고 다음 제의 때 사용할 빨감(마른나무)이 한쪽에 쌓여져 있다. 가촌마을과 함께 산신제를 지냈을 때에는 산제당이 초가지붕에 돌벽의 형태였다. 그리고 돌을 현재처럼 네모나게 쌓지 않고 둥그렇게 쌓아 원형의 당집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산제당이 너무 낡고 초라해 다시 중수하고 싶지만 마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¹⁵⁾들이 마을 기금으로 당집을 중수하는 것을 반대하여 이것이 쉽사리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정월 초사흘이 다가오면 마을의 '들목'과 '날목'에 '원사나끈'(금줄)을 둘러쳐 놓는다. 이는 마을로 들어오는 부정한 이들을 막기 위해 상징적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다. 예전에 마을 입구에 금줄을 둘러쳐 놓으면 정초에 석남사로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마을 산제사에 누를 끼칠까봐 개울을 건너 논길로 돌아다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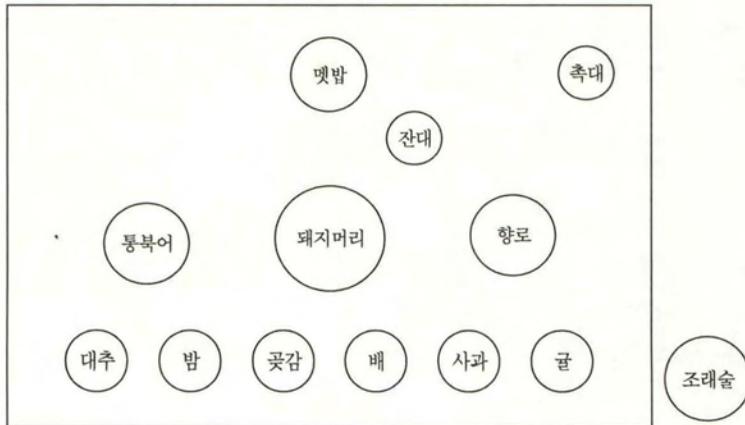
제일(祭日)이 되면 아침을 일찍 먹고 모두 마을회관에 모인다. 통장이 마을회관으로 모이라는 방송을 하면 모두 이곳에 모이는데 이곳에서 제관과 집사자를 선정한다. 제관은 생기복덕을 가려 길한 사람으로만 선정되었으나 요즘에는 이렇게 가려 뽑으면 제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나 제관으로 선정한다. 제관은 한 명만 뽑으며 제관을 보조할 집사자가 한 명 더 선정된다. 그리고 통장은 의무적으로 제의에 참여해야 한다. 보통 제관은 집사자보다 연령이 많다. 예전에는 제관과 집사자만 산제당에 올라가 제를 지냈다. 그리고 가촌마을과 함께 지냈을 때에는 어느 마을을 가리지 않고 각 마을의 통장들이 대표로 제관 1명과 집사자 1명을 선정하였다.

제관이 선정되면 제관과 집사자는 시장에 가서 제물을 장만한다. 예전에 가촌마을과 함께 산신제를 지냈을 때에는 통돼지를 제물로 올렸다. 안성장의 돼지는 비싸기 때문에 20리를 걸

15) 현재 상촌마을에는 기도원이 들어와 있다.

어서 진천장으로 돼지를 사러 갔다고 하며 갈 때는 지계를 짊어지고 갔다. 항상 시장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진천군에 소재한 마을의 돼지를 봐두었다가 제일에 돼지를 가지러 가기도 하였다. 돼지는 주로 마을 젊은이들이 사 오는데 예전에는 돼지를 사 오는 사람들에게 용돈을 두둑이 쥐어줬으므로 젊은이들이 서로 가려고 다투었다고 한다. 이들은 그 돈을 받아 술을 사 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돼지를 도살하더라도 통째로 올리지 않고 돼지머리만 제상에 올렸다고 하며 삶지 않고 날 것으로 올렸다. 그리고 제가 끝나면 고기를 세대수대로 똑같이 나눠주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통돼지 대신에 쇠머리나 돼지머리를 사다가 대신하고 있으며 마을회의 시 쇠머리와 돼지머리 중 어떤 제물을 올릴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주 제물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통돼지를 제물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 돼지를 도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5~6년 사이 마을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통돼지는 더 이상 잡지 않게 되었다. 제물을 준비할 때에는 통복어·창호지·향·과일(사과·배)·대추·밤·꽃감 등을 마련하며 이는 예전에 가촌마을과 함께 지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 또 쇠머리나 돼지머리를 살 때는 2개를 장만하여 하나는 산신제 제상에 올리고 다른 하나는 삶아서 음복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상촌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30〉 상촌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

제관은 시장에서 제물을 장만하는 한편 목욕탕에 들러 목욕제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장만한 제물은 마을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바로 산제당에 올라가 놓아둔다. 제물은 꼭 제관이 장만하지 않더라도 외지에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마련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딸감을 시장

에 내다 파는 주민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에게 부탁하여 제물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제일 아침, 제관 집에서 조래술을 직접 빚었다. 보통 조래술은 땅에 묻지 않고 방안 옷묵에 이불을 덮어둔다. 제일 당일에 술을 빚어도 저녁까지는 술이 다 익는다고 하며, 이는 산신의 영험함으로 술이 몇 시간 만에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제관과 집사자가 제물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마을 주민들은 샘을 치고, 길을 닦아 놓으며 미리 빨감을 마련해 놓는다. 그리고 8시가 되면 미리 쌓아 두었던 마른 나무를 떼서 불을 지펴 놓는다. 이 불로 밥을 짓고 마을 주민들이 몸을 녹이며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산신제를 지낼 때에는 선정된 제관과 집사자만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제당 밑에서 장작불을 때며 대기한다. 산제당 인근에는 우물이 없으므로 밥을 지을 물이나 제물준비에 필요한 물을 양동이에 지고 올라간다. 제의는 먼저 분향재배부터 올리는데 이것은 먼저 하늘에 있는 천신들에게 제를 지내는 것이다. 집사자가 술을 조금 부어주면 제관이 몇 번 돌리고 나서 모사그릇에 따라낸다. 그리고 제관이 부복하고 꿇어앉아 있으면 강신례를 올리는데, 집사자가 술을 조금 따라주면 다시 모사그릇에 따라내고 재배를 올린다. 집사자가 술을 가득 채우면 제관이 절을 하고 멧밥에 숟가락으로 '삼질'(숟가락을 꼽아두는 것)을 한다. 술을 첨작하고 제관이 재배를 올리는 것을 3차례하며 마지막에는 제관과 집사자가 함께 재배한다. 그리고 나서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리는데, 상촌마을 산신제 축문은 한자와 한글을 병용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축문은 김재근씨가 맡아서 보관하다가 제의 당일 직접 써서 독축한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癸未正月申寅初三日丁未上村

○○○ 山神敢昭告于

癸未年마을주민건강하심 출향인들無故들하심 今年농사豊作하여大農들게하심

마을住民間상호和睦하게하심 년년히健康하게하여주십시요.

〈산신제 축문〉

축문을 독축하면 소지를 올리는데 예전에는 소지를 세대수마다 올려주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간소화되어 대동소지 한 장만 올리며 '마을 주민 모두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십시오'고 빌면

서 소지를 태운다. 제가 끝나면 돼지머리의 귀와 코 부위에서 고기를 떼어 “산신님 잡수라고” 고시레를 한다. 그리고 과일도 몇 개씩 던져 놓는다. 고시레가 끝나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간단히 음복을 한다. 이때 통북어나 밤을 불에 구워먹는다.

마을로 내려오면 음복을 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간다. 이전에는 통장 집에 모여서 음복을 하였으나 마을회관이 건립된 이후 이곳에서 음복을 하게 되었다. 산제당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 동안 마을에서는 미리 또 다른 돼지머리를 삶아 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안주로 삼아 마을 회관에서 모두 모여 다시 음복한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예전에는 마을에 동 기금이 많았으나 마을에 전화를 놓아주는 등 차츰 지출이 많아지게 되어 현재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마을에는 산신제를 위한 동답도 있으나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역시 많지 않다. 제물비용은 동 기금에서 충당하며 개인적인 사비는 별도로 들이지 않는다. 결산보고는 산신제가 끝나면 바로 하지 않고 음력 시월 그믐날, 마을 총회 때 한다. 이렇듯 마을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는 이유는 이맘때가 되어야 비로소 동 기금을 빌려다 쓴 사람들이 10월 탈곡을 마치고 현금을 가지게 되어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보자 : 김재근(남, 65세, 금광면 상중리 395번지. 2002년까지 15년간 통장 역임)

16-3. 도기동 도구머리마을 산신제

1) 마을개관

도기동은 뒷산이 거북의 머리처럼 생기고 큰 돌이 박혀 있으므로 독머리, 도구머리 또는 석두, 도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도기동이라 하여 읍내면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안성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⁶⁾ 도기동 사람들은 예전에 트집쟁이여서 당시 장돌뱅이 등이 마을로 들어오면 어떠한 트집이라도 잡았다는 데서 마을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한다.¹⁷⁾

16) 한글학회, 『한글지명총람』 17 경기편 상, 1985, 464~465쪽 참조.

17) 경기도 박물관, 『경기민속지』 II 신앙편, 1999, 287쪽 참조.

이 마을의 형국은 ‘조래미’(쌀조리)형국으로 “쌀을 일어 콧콕 채우는 부자가 되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도구머리마을은 농업을 주 생업으로 하는 마을이었으나 현재 농사보다는 안성시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제의명칭과 시기

도구머리마을의 산신제는 매년 정월 초하루, 자시(子時)에 지낸다. 마을 주민들은 서낭신을 모신다고 믿고 있으나 여기서 서낭신은 구체적으로 산신(山神)을 일컫는다. 예전에는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정제(井祭)를 지냈으나, 정제는 2002년부터 행하지 않기도 하고 현재는 산신제만 지내고 있다. 또한 정월 초사흘에 산신제를 지냈으나 마을에 부정 타는 일이 자주 발생되어 결국 봄까지 제가 연기되는 일도 생겼다. 이처럼 제일(祭日)이 자주 연기되면 제물을 여러 차례 준비해야 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추가되어 10여 년 전부터 정월 초하루로 제일을 옮기게 되었다.

제보자 서병관씨의 말에 따르면 이곳 산신이 영험하여 산신제를 안 지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보자의 사촌 형님 되는 분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후처가 산신에게 제물로 오른 돼지고기를 적게 나눠준다고 불평을 하자 그 자리에서 입이 붙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서병관씨가 “미련한 인간이 뭐 압니까...”하면서 산신에게 빌었더니 비로소 입이 열었다고 한다. 또 이 마을에 살았던 만신(당골)이 산신당 근처에 있는 자신의 밭을 경작하다가 똥장군을 지고 거름을 주게 되었는데, 산신당 근처를 오염되게 하였다고 벌을 줘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고 한다. 이 마을을 지나치는 스님이나 보살들은 “탑산을 위해야지, 탑산을 위하지 않으면 마을이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을을 떠나갔다고 한다. 이처럼 도구머리마을의 산신은 영험하기로 이름 나 있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당집은 마을 뒷산인 성안산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산을 ‘탑산’이라고 말한다. 당집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당집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뿔뿔하게 늘어서 있다. 산신당은 2칸 집으로 방과 제단으로 구분되었다. 당집은 각각 가로와 세로가 617×260cm이며 돌을 쌓아올려 흙으로 메우고 전체적으로 흙벽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돌을 쌓아올린 아래쪽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보호차원에서 현재 시멘트로 덧 발려져 있는 상태이다.

벽의 내부를 보면 수수깡을 짚으로 엮어서 흙을 바른 형태이며, 문 위에는 창살로 되어 있어 환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붕은 기와 위에 슬레이트를 덮어 놓은 형태로, 소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서까래 사이를 흙으로 메웠다. 산신당 뒤쪽에는 굴뚝이 있는데 이는 산신당 내부에 있는 방을 데우기 위해 마련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면에는 아궁이가 있어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은 나무로 만든 양쪽 미닫이문으로 길이 147cm, 폭 50cm이다. 내부에는 위패와 신체(神體)를 놓아 둔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으며 가로 171cm, 세로 31cm가 된다. 아래쪽으로는 시멘트로 만든 제단이 별도로 있는데, 이는 제물을 놓기 위한 제단이다. 시멘트 제단은 폭 165cm, 높이 45cm이다. 제단 왼쪽에는 '성주대'가 있는데 성주대에는 북어 2마리가 묶여 있으며 창호지를 서낭대 위쪽에 여러 장씩 묶어



16-5. 도구머리마을 제당



16-6. 도구머리마을 제당 내부

놓았다. 성주대는 그냥 옆에 세워두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지종이에 소망을 적은 것을 성주대에 매달아 두기도 한다. 또 '지석'이라고 하여 백시루떡을 조금씩 성주대에 매달아 둔다.

구체적으로 산신의 신체는 없으나 대신 산신을 받들어 모시는 '용마'가 신위 양쪽에 위치한다. 왼쪽에 흰말과 오른쪽의 적색말은 서로 내외지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에 산신의 신체로 볼 수 있다. 당집 안에는 작년 제의 때 쓰던 제물과 촛대·술잔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호박엿과 밤·백시루떡 조각 등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 또한 주발에는 각각 콩과 팥이 수북이 담겨져 있다. 위패 뒤쪽에는 흰색 창호지를 벽면에 붙여 놓았으며 위패는 창호지로 쓴 상태이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먼저 제관부터 선출한다. 제관은 제의 당일 일진(日辰)과 생년월일시를 보고, 마을 대동회에서 미리 제관들을 선정해 두었다. 산신제를 주재하기 위해서 당주·축관·제관(초헌·아헌·삼헌)·심부름꾼 2명 등 총 7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며 당주는 조라술과 밥·떡 등 제상에 올라갈 제물들을 장만하였다. 요즘에는 당계계에서 제관과 제물 비용이 결정되고 있으며, 제의 형식이 간소화되어 제관과 당주만 선정되고 있다.

제관과 당주로 선정되면 깨끗하고 정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당우물에 가서 목욕재계를 한다. 이들은 내려올 때 고깔을 쓰고 내려오는데, 이는 내려오면서도 어떠한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보고 내려오라는 의미에서 고깔을 쓰고 내려오는 것이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당우물에서 목욕재계를 할 때면 하나도 춥지 않았다고 한다. 제물은 선달 그믐날, 제관이 안성장에 나가 삼실과·통복어 10마리·베·돼지머리 등을 구입한다. 예전에는 주 제물로 검정 토종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요즘은 형편이 좋지 못해 돼지머리를 올리고 있다. 돼지는 삶지 않고 날것을 올렸으며 복부만 갈라 내장을 빼내고 통째로 올렸다. 통돼지를 잡지 않은 지는 50년 정도 되었다. 이외에도 대추·밤·복어·포·약주(祭酒) 등이 제상에 올라가며, 제사에 드는 비용은 총 15만원 정도다. 제일이 되면 제관과 당주는 4시부터 산신당에 올라간다. 이들은 당집 내부에 있는 방안에서 밥을 직접 해먹으며 저녁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들은 동네에 부정한 일이나 사고나 발생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기 위해 미리 올라와 있는 것이며, 만약 동네에 부정한 사실이 제관에게까지 알려지면 제일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옛말에 “생삼사칠”이라고 하여 ‘난 부정은 사흘가고, 죽은 부정은 이레가 간다’는 말이 있다. 산신제 역시 부정한 일이 발생되면 제일이 연기되지만 자꾸 제일이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관들이 미리 당집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9시 무렵이 되면 제물이 진설되는데, 제물을 진설하고 난 후 잔을 붓고 재배를 한 후 축문을 읽는다. 또 다시 잔을 붓고 절을 두 번 하고 난 후 당주는 각자의 소원을 빈 종이를 당집 안에 있는 성주대에 붙여 놓는다. 예전에는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우물 앞에서 정제(井祭)를 지냈다. 정제를 지낼 때에는 당주와 제주만 참여하며 당주 집에서 준비한 밥과 미역국·삼실과·쌀 3되 3홉 등을 제물로 올려놓았다. 산신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내려온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어른들을 모셔놓고 다시 음복을 한다. 도구 머리마을의 산신제 축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山神祭祝

維歲次 干支 某年 某月 某朔 某日 干支 幼學 何某 敢昭告于
 主山神位前 人之所居 莫不有鎮 山之所府 岡不有神
 惟茲洞中 百福有臻 山關地關 莫居吾民 歲無癘人
 秋有豐登 于誰其佑 維山之靈 九龍餘脈 琺琿有命
 良之元氣 大畜奇形 靈焉在玄 下 示 宜 人所虔告
 必有所應 歲運若和 恐有癘疫 居民所禳 惟持高岳
 茲涓吉辰 虔誠齋沐 設蒿再拜 酒香特潔 伏維尊靈
 驅逐邪鬼 轉穴爲祥 安養人民 蕃育鷄性 山下派中
 一心齋祝 激此微誠 特垂保佑 裨無後難 四時通妥
 老少俱安 呵噤虐癘 動土砥木 無所忌囑 萬歲永賴
 伏願岳靈 感此欽格 尙

饗

〈산신제 축문〉

5) 제의 운영과 결산

산신제 비용은 노인회에서 3년 동안 호당 1홉씩 걷은 쌀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마을에는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결성한 당계제도 있다. 현재는 예전부터 관리해 온 쌀을 걷어 산신제 비용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집집마다 걸립하여 비용을 각출하였다.

□ 제보자 : 박용산(남, 58세, 안성시 도기동 458번지, 통장)

서병관(남, 83세, 안성시 도기동 441번지, 현재 마을 노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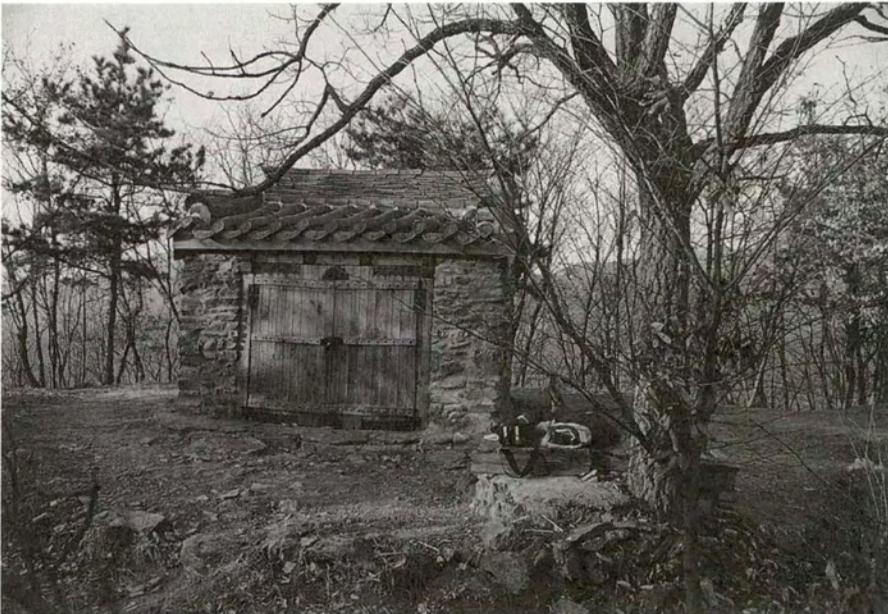
이정석(남, 68세, 안성시 도기동 196번지, 근래에 제의에 참여)

17. 안양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17-1. 관양동 수촌마을 당제

1) 제당형태 및 규모

예전에는 규모가 크고 초가지붕에 돌담으로 지은 전형적인 경기도의 당집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후 돌담과 초가지붕은 없어지고 기와로 보수된 당집이 남아있다. 규모는 정면 350cm, 측면 340cm, 높이 220cm이며 기와를 인 돌벽으로 단단히 지었으며, 내부에는 시멘트로 바른 단이 있다. 예전에는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 당집을 옷당(상당)이라 부르며, 마을 바로 뒷편에 아랫당(하당)이라 불리는 너비 1m 30cm에 폭 70cm 크기의 탁자형 제단석이 소나무와 함께 자리 잡고 있다.



17-1. 관양동 당집

2) 제당위치

관악산 줄기 약수터 부근의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뒷편으로 관악산 줄기인 큰골산 방향 1.5km 거리에 당집이 있는데, 약수터로 가는 길의 약 100m지점에 있는 묘소에서 꺾어져 올라가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약수터로 바로 가면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된다.

3) 제의유래 및 내용

수촌마을은 행정구역상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이며 자연마을명은 뽕말이다. 예전부터 뽕대쭉(영커시과의 다년초)이 많이 자생하는 곳이라 하여 뽕말이라고 불리던 것이 구전되다 보니 뽕말이라 부르게 되고 빼어날 수(秀), 마을 촌(村)을 합쳐 수촌이 되었다고 한다.

매년 음력 시월 초이틀로 날을 정해두고 제를 지낸다. 제관은 보통 당제 1주일 전에 마을 어른들이 생기복덕을 가려 안당주와 바깥 당주(또는 선당주, 앉은당주) 2명을 선출한다. 안당주는 제물을 만들며 바깥당주는 제물을 구입하고 제의비용을 추렴하는 등 바깥 일을 하는 것이다. 주요제물은 소와 시루떡이다. 제사전날 아래당 소나무 밑에 터주가리 짚을 세우고 조라술을 묻어 두었다가 제주로 쓴다. 제의순서는 옷당→아랫당→성황나무의 순서로 지내며 단 앞에는 자리를 깔고 촛불을 밝힌 후 초헌, 아헌, 종헌, 독축, 소지, 음복의 순으로 행한다. 마을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약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과천 찬우물에서 용한 단골무당을 불러 큰 굿을 벌렸다.

□ 제보자 : 김득춘(남, 82세, 수촌마을 노인회장)

17-2. 석수동 산신제

1) 제당 형태

돌탑 제단 및 우물

2) 제당 위치

석수1동 유유산업 뒷편으로 할아버지산이 있으며 산 입구에 우물이 있다. 산신제단은 원래 큰기둥 모양의 바위와 함께 잘 손질된 송림이었으나 어느 해인가 제단이 산 아래로 굴러 땅



17-2 석수동 할아버지산 제단



17-3. 석수동 할아버지산 우물

속에 묻힌 후 지금의 새로운 제단을 쌓아 놓았다. 할머니산은 경수산업도로 옆에 있는 별장 가든 뒷산으로 산신제단은 일봉사에서 산 정상 쪽으로 100m 위치에 고사샘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이 제단 역시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큰 소나무와 함께 있었으나 6.25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석수1동의 할아버지산과 안양2동의 할머니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고 하여 쌍산신제라 불린다.

3) 제의유래 및 내용

예전에는 음력 시월 초하루에 마을회의를 통해 제일을 정하였으나 지금은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로 정해두었다. 제관은 할아

버지산과 할머니산에 함께 제를 지내기 때문에 2명의 안당주와 2명의 선당주를 생기를 보아 가려 뽑는다. 제비는 동네 전체에서 추렴한다. 제는 밤 10시경 할아버지산에 먼저 오르는 길 확인한 후 할머니산 마을에서도 제물을 들고 출발한다. 각자의 산신제단에 도착하면 전날 묻어 두었던 조라술을 제주로 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제의절차는 제관의 절과 축문으로 간단하다. 고시례를 한 후에 대동소지를 올리고 간단히 음복한다.

□ 제보자 : 유기홍(남, 80세, 안양시 석수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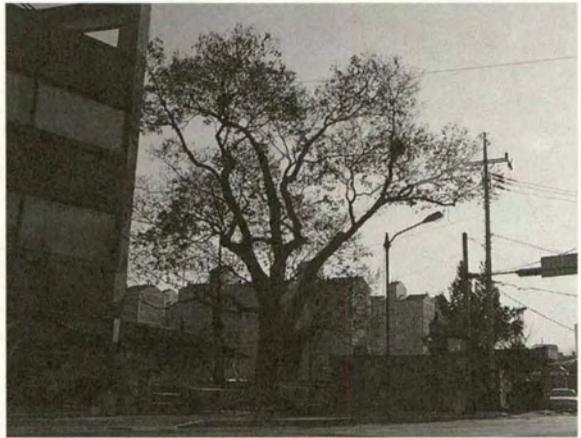
17-3. 석수1동 삼막골 당제

1) 제당 형태

당나무와 우물

2) 제당 위치

삼막천을 따라 좌측으로, 삼막골 입구 도로변에 느티나무로 된 할아버지 당나무가 있고 위로 100m 쯤 올라가면 향나무로 된 할머니 당나무가 있다. 현재 할아버지 당나무는 도나무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할머니 향나무는 할아버지 당나무와 맞은 편에 있었으나, 77년 대홍수 때 뿌리채 뽑혀 쓰러진 것을 현재의 위치인 삼막천 왼편으로 옮겨 심어 놓았다. 두 당목에 모두 우물이 달려 있는데, 할머니 당목의 우물은 당목 맞은 편에 있으며, 할아버지 당목의 우물은 이종축씨 집 옆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 우물 근처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송정(松井)이라 부른다. 두 우물 모두 콘크리트에 뚜껑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당 우물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17-4. 석수 1동 할아버지 당나무



17-5. 석수 1동 할아버지당 우물

3) 제의유래 및 내용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제를 지낸다. 제관은 보통 제일 보름 전에 1~2동 주민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제물은 제의 하루전날 할아버지당, 할머니당 나무 아래 조라를

뭇어 두었다가 제주로 쓰고, 고기는 돼지머리를 올린다. 제의경비는 참여의사가 있는 마을사람들에게 추렴한다. 제는 밤 10시경에 올리는데, 할아버지 나무에 먼저 올린 후에야 할머니 나무에 지낸다. 제의 순서는 삼헌, 독축, 소지, 음복의 순이며 이어서 우물고사도 지낸다.

□ 제보자 : 이공순(여, 79세, 안양시 석수1동)

18. 양주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18-1. 광적면 가납1리 渴魚肥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가납 1리는 이제 농촌마을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농토는 없어지고 그곳에 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곳곳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어 인구의 팽창이 급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2반까지 구성되어 인구가 600여 가구에 2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토박이는 약 1/5 정도다.

가납 1리는 새남골·앞말·건너말(추교동)·양짓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마을이 커지면서 6 - 7년 전부터 새남골에서도 자체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가납 1리가 10월 1일 0시에 지내고, 새남골은 같은 날 밤 10시경에 지낸다. 사실 새남골에서도 한 2년을 안 지냈더니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 다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마을은 붕어혈의 형국을 하고 있어 마을에서 절대로 오리를 기르지 못하게 했다. 만약 오리를 키우면 젊은이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택지개발로 인해 혈 자체가 없어진 실정이다. 여기에 작성된 보고서는 2002년도 현재 마을제외의 내용이다.

2) 제의명칭과 시기

가납리의 마을제의 명칭은 산신제이다.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인지는 축문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도락산을 향해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도락산 산신으로 추정된다. 제의일시는 오래 전부터 음력 10월 1일 새벽 0시에 지내왔다고 한다. 만약 음력 9월 달에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며, 연기해서 날을 정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요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원래부터 산신제를 지내던 곳은 아니다. 현재 지내는 곳보다도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바람에 현재의 위치로 옮

졌다. 이곳은 원래 장부고개라고 해서 약간 높았지만, 지금은 택지개발로 모두 깎아버려 산의 모습은 거의 없다. 이곳은 자동차 도색을 하는 임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곳의 밑에 제당을 마련했다. 이곳으로 옮긴 지는 약 1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건물이 세워지는 추세를 보면 이 장소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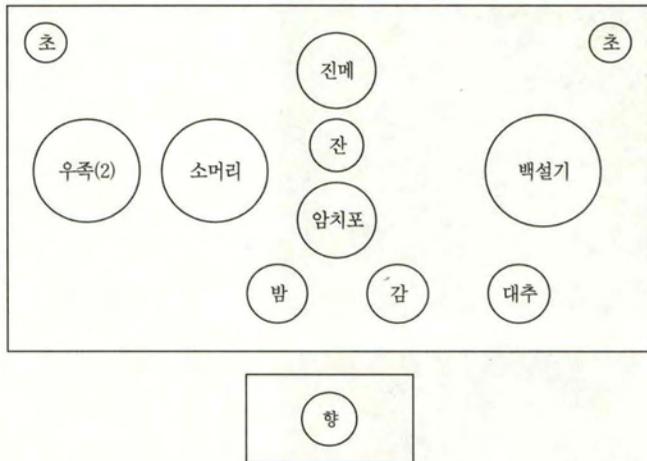
제당의 주변에는 십여 년 안팎의 참나무들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제사상과 병풍을 마련하였다. 제단의 오른쪽에는 조리술을 묻어두는 곳이 있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관과 축관, 그리고 앓은 화주와 선 화주를 일주일 전에 정한다. 앓은 화주는 말 그대로 앓아서 제물을 만드는 사람을, 선화주는 서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 화주는 말 그대로 잡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뿔뿔한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금기에 엄매이지 않는 듯하다. 몸만 정갈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당 주위에 금줄을 치지 않은 것도 그런 금기의 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화주들은 제물을 구입하고, 祭酒를 담근다. 먼저 중요한 제물로 소머리와 앞다리 1개, 뒷다리 1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소 한 마리의 희생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에는 의정부의 정육점에 가서 구입했으나, 현재는 마을의 농협 직매장에서 구해온다. 원래는 생돼지를 잡았지만 약 40 - 50년 전부터 이렇게 구입했다고 한다. 돼지를 잡기가 복잡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 중에서 돼지를 잡을 만한 사람도 없고 해서 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 머리와 다리의 구입가는 돼지 2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돼지를 잡았을 때는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했다. 그후 먹는 것이 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머리로 사용했다. 이외의 제물은 의정부 광흥시장 내에 있는 목호상회에서 구입하였다. 대추와 밤은 각 1되씩, 감 5개를 사오며, 암치포 한 마리를 구입한다. 제주는 전날 누룩으로 담가서 제당의 오른쪽 땅에 묻고, 낙엽으로 덮어 놓는다. 이외에 백설기 반말을 방앗간에서 맞춰 온다.

소머리와 우족은 당일 10시에 구해서 오후 4시부터 삶기 시작하여 약 8시까지 삶는데, 이때 물은 우물에서 길어오지 않고 생수(건국 샘물)를 넣는다. 이외에 특별한 제물은 두부전이다. 두부전은 5 - 7개로 흡수를 맞춘다. 이외에도 두부를 사각으로 썰어놓는데, 이것은 국거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다음날 마을 전체 음복의 국거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진메를 짓기 위해서 쌀을 씻는데, 약 7시 40분경이다. 진메는 약 11시쯤에 짓기 시작하여 12시에 당으로 가서 제물을 진설하기 시작한다. 제물의 진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가남 1리 산신제 제물상차림

상을 차린 후에 강신을 한다. 다시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단배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축문을 읽는데, 한자로 적혀있어 축관을 정하는데 힘이 든다고 한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문을 읽은 다음에 메의 뚜껑을 열어 놓는다. 그런데 이 마을의 소지를 올리는 방식이 특이하다. 소지자 명단은 종이로 말려 있는데 한지로 계속 이어 붙였기 때문이다. 이 명단에는 약 200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소지를 올리는 사람은 2명인데, 한 사람은 소지의 이름을 부르고 어느 정도 되면 소지를 찢어 태워버린다. 즉 축원의 내용이 없이 기원대상자를 부르는 방식인 것이다. 소지가 끝나면 철상을 하고 제관 혼자 음복 하는 것으로 끝난다.

楸橋洞 山神祝文
 維歲次 壬午十月丁丑朔 初一日丁丑 楸橋洞民
 代表 某 姓名
 敢昭告于
 山神尊靈前 氣序流易 時維仲秋
 維歲一新 茲率洞民 去事監亨
 兼願福來 謹以酒果 庶羞一薦
 伏乞保佑 佑神 尙饗

〈산신제 축문〉



18-1. 제물준비(국거리용 두부)



18-2. 산제사터 젓상(녹동메)



18-3. 조라술 따르는 모습



18-4. 제물상차림

18-5. 헌작



18-6. 독축



18-7. 명단소지



18-8. 음복



5) 제의 운영과 결산

돼지고기	12,000원
준비시 점심 저녁 식대	48,500원
백설기 반말	25,000원
제주 원료 및 제물	24,000원
수고비	50,000원
전기용품	8,400원
담배 1보루	14,000원
두부	36,000원
족 2개	120,000원
소머리	140,000원
총 계	477,900원

〈2001년의 지출내역서〉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비용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산신제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소머리와 우족이다. 총계는 대략적으로 50만원 정도가 들며, 2년 전부터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는 약 300명으로부터 천원 정도 개인추렴을 받아서 썼다. 2001년의 지출내역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의 경우에는 우족 13만원과 소머리 18만원이 들었다. 이외의 비용은 작년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두부는 만원으로 줄었다. 암치포의 값으로 1만2천원, 대추가 2만원, 밤이 5천원, 등이 들었다. 이외에 식대와 백설기 값 등이

18-2. 백석읍 홍죽3리 천죽마을 산치성

1) 마을개관

홍죽 3리는 냇대, 혹은 川竹이라고 부른다. 동쪽에 있는 개천에 희귀한 대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하늘에서 죽순만을 먹는 새가 날아왔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이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냇대 도망을 쳤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듯이 보인다.

이 마을은 전통적인 농촌으로 원래 벼농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부추 등을 심는 밭농사가 약 10ha 정도이다. 마을 인구는 약 80가구 300명 정도인데, 산치성에는 약 65가구가 참여한다. 학교는 연곡초등학교, 백석읍에 새로 신설된 백석중학교와 가남리에 있는 조양중학교로 통학한다.

2) 제의명칭과 시기

이 마을의 제의 명칭은 산치성, 혹은 산제사라고 한다. 음력 10월 초하루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해가 저물 무렵 산에 올라 매를 짓고 기다리다가, 신령의 기척이 있으면 제사가 시작된다. 신령의 기척이란 나무가 흔들거리거나 소리가 나거나 산에 오른 제관들이 판단한다. 대개 9시가 넘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산지당은 월암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걸어 오를 때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요즘은 트럭으로 오르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산지당이 있는 산사면에는 거의 산소가 없는데, 이곳에 산신이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고 한다.

산지당은 원래 토담에 초가로 지붕을 이었으나, 당이 허물어지고 보기 싫다고 해서 5년 전에 현재와 같이 시멘트 담에 슬레이트로 팔작지붕을 올렸다. 당의 뒤쪽에 참나무가 있는데, 약 200년에서 30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하게 제물을 올리지는 않는다.

당은 직사각형의 구조로 북쪽에 창이 나있고 문은 왼편 밑에 여단이로 설치되어 있다. 북벽은 폭 90cm, 높이 40cm, 길이 333cm로 제단을 만들었다. 당의 안팎 밑바닥으로부터 30cm로 파란색을 칠해 놓았다. 당 밑에는 녹음매를 지을 숲을 엮을 수 있도록 돌로 만들어 놓았으며, 그 밑에 샘이 있다. 이 샘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야 한다.



18-9. 홍죽 3리 산제당



18-10. 조리술 주저리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산치성을 위해서 마을에서는 상하주와 하주를 뽑는다. 상하주는 총괄 지휘를 맡고 있으며, 하주는 음식준비와 장만을 담당한다. 특히 이들 하주는 남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해야 한다. 이들은 음력으로 9월 그믐에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는데, 이 마을의 조인환(70세)씨가 따진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녹음매를 지을 때 설게 되는 등 어떤 징조가 나온

다고 해서 주의한다. 즉 집안 여자가 월경 등이 있을 경우 미리 말을 한다. 2002년에는 상하주로 강정구(67세), 하주는 조명동(51세)씨와 황명섭(44세)씨가 뽑혔다. 뽑힌 사람은 집에서 목욕재계를 한다. 원래 하주가 되면 금연을 하고 잡념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마을사람들도 출입을 금하게 되어 있으며, 추렴비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금줄과 황토를 화주집에 쳤으나, 5년 전부터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상하주는 제의전날 당 앞에 있는 우물을 청소하고 조라술을 빚은 단지를 당에 놓고 와야 한다. 현재 이 마을에서는 산치성과 관련해서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제물상차림과 제례 순서, 제물목록, 축문 등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제육으로 사용할 돼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동네 축사에서 붉은 색으로만 된 돼지를 고른다. 원래 재래종은 흑돼지였으나, 현재 흑돼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사에서 키우는 돼지 중에서 고른다. 이 돼지는 약 120kg(2백근)으로서 10월 1일에 구입해서 바로 잡았다. 제물을 당에 올릴 때 피가 흐르면 안되기 때문에 살짝 굽는다. 이외에 닭도 오르는데 수컷으로 잡으며, 삶아서 얹아있는 형상으로 만든다. 나머지 제물은 화주 1명이 백석읍내의 농협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본다. 예전에는 의정부의 시장 내 묵호상회에서 장을 보았으나, 현재는 가까운 곳에서 그냥 구입한다. 또한 백설기를 하는데, 약 3되 정도가 든다. 제물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대추	2홉	백지(사고기)	10장	쇠족	1개
생울	5홉	떡쌀	3말(평두)	정육	3근
감	9개	점심쌀	1말(평두)	소간	1근
배	9개	참쌀	3되	두부	2모(대)
다시마	1끄리	팥	1말	치자	1
복어	3개	녹두	1.5되	돼지	1마리
포	3개	계란	1판	초	2개
만수향	1갑	영계	1수	식용유	1병

〈제물 목록〉

제의 당일 상하주 집에서 제물의 준비에 들어간다. 이때 만드는 것이 용떡으로 참쌀을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고, 콩으로 눈을 박는다. 닭을 삶고 이외에 제물을 준비한다. 특이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고 실고추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이나 두부적 등 여러 가지를 하주의 부인들이 준비한다. 이때 부인들은 마스크를 써서 입막음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은 그런 금기도 없어졌다. 방앗간에는 팔시루를 3판이나 맞춘다. 백설기와 용떡은 팔시루 위에 올려놓는다. 따라서 용떡과 팔시루도 3판이 필요하다. 특히 용떡은 하주 부인이 각각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당에 올라가서 녹음매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당에 오르기 전인 6시경에 간단하게 하주 부인들이 저녁을 준비한다. 이 식사에는 고기가 오를 수 없으며, 채소만으로 준비한다. 또한 제물을 향해서 입맛을 다시게 되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주의를 한다. 이러한 동안에 하주 중의 한 명이 축문을 쓴다.

유세차 정축10월병오삭 초 1일 병오

○○○

○○○

○○○ 등의 동민일동삼가고합니다

월암산 신령님 저희 주민과 가족에

일으게까지 모든 재앙과 고난을

멀리하여 주십사 주육이며

떡과 과일로 동민 일동이

뜻모아 정성껏 드리오니 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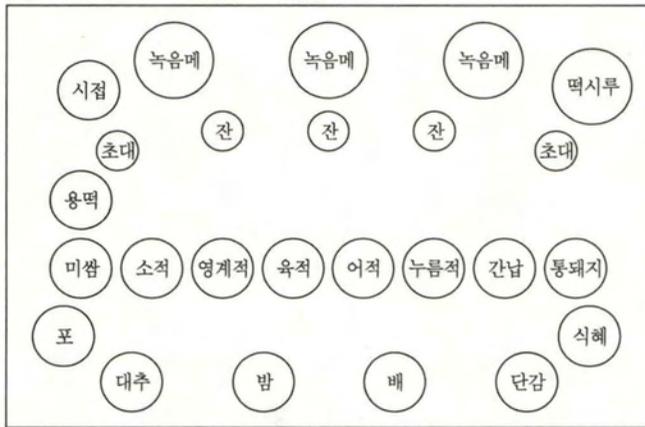
향하옵소서

〈천죽마을 축문〉

어느 정도의 준비가 끝나면 해가 저물기를 기다린다. 해가 떨어지면 하주부부 3쌍이 당으로 오르는데, 요즘은 트럭을 이용해서 쉽게 오를 수 있다. 원래 걸어 오르게 되면 약 20 -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제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에 오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당에 도착하면 장작불을 피워 당에 오른 사람들이 추위를 녹인다. 하주들은 먼저 당으로 들어가 주저리 안에 있는 조라술을 꺼낸다. 이를 위해 포 등을 이용해서 누룩을 짠다. 그런 후에 주저리는 다시 당 안에 놓고 나온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장작불 주위에 모여서 신령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신령은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불기운의 움직임 등으로 판단한다.

7시 50분 쯤에 제물의 진설에 들어간다. 진설은 남녀가 구분없이 같이 한다. 자리가 좁아

서 용떡이나 백설기를 괏시루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런 후에 녹음메를 짓기 시작한다. 원래 당 밑에 준비한 곳에서 메를 지어야 하나, 지금은 야외용 가스렌지를 이용해서 메를 짓는다. 원래 문서에 담겨진 제물상차림에 따라 제물을 차려야 하나, 제단으로 만든 공간의 폭이 비좁기 때문에 떡시루와 용떡은 한 곳으로 몰아 놓았다. 또한 통돼지의 경우에는 단 밑에 놓았으며, 명태와 간장 등도 원래 없었지만 진설되었다. 이외에 닭과 어적, 간납 등은 중간에 나머지는 구분없이 맨 앞으로 배치했다. 녹음메의 경우에는 각 하주들이 지은 것을 자신들이 직접 단 위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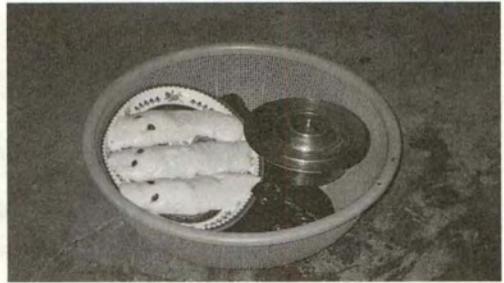


〈그림 32〉 천죽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

제물의 진설이 완료되면 당 안에는 남자들만이 들어와 제사를 들이기 시작한다. 잔은 역시 하주들이 자신의 것을 각각 올린다. 분향 후 모사하고 강신 재배를 하며, 잔을 올린다. 그런 후 메의 뚜껑을 열고 수저를 쫓는다. 그러면 모든 제관이 부복을 하고 있으며, 축관은 축문을 읽기 시작한다. 축문이 끝나면 다시 재배를 올린다. 그것이 끝나면 합문의 절차에 의해 조용히 있다가 다시 메의 뚜껑을 덮고 재배를 올린다. 절의 경우 하주 3명이 함께 올린다. 이후 소지를 드리는데, 동민을 대표한 대동소지를 올리고 하주들의 자기 소지를 올린다. 이것이 끝나면 고시례를 하고 철상에 들어간다.



18-11. 제물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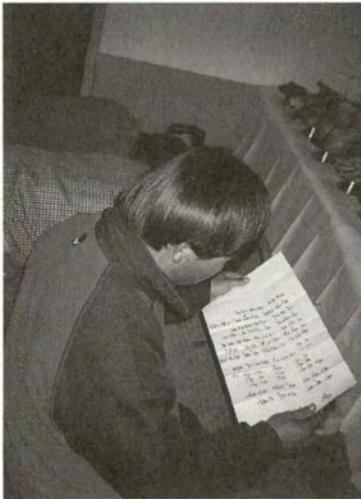
18-12. 녹음메와 옹덕



18-13. 조라술 내리기



18-14. 제물상차림



18-15. 독축



18-16. 묵념



18-17. 철상

5) 제의 운영과 결산

10월 1일 산치성이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화주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모여 추렴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방송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모이게 하는데, 추렴비도 말해준다. 2000년에는 65가구에서 만원씩, 2001년에는 만2천원 씩 거두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화주집으로 모이면 결산과 음복을 한다. 이때 젊은이들이 떡과 고기를 분배한다. 하주, 특히 상하주에게는 돼지머리 등을 더 주어 사례비를 대신한다. 음복 시에 조라술은 먹지 않는데, 제대로 익지 않아서 툭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주 등을 별도로 구입한다.

□ 제보자 : 냇대 마을의 산치성은 2002년도 10월 1일 제사를 조사하였다. 이외에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상하주였던 강정구씨, 그리고 하주였던 황명섭씨가 있다. 그는 평해 황씨로 현재 이곳에서만 11대째를 살고 있으며, 농사를 본업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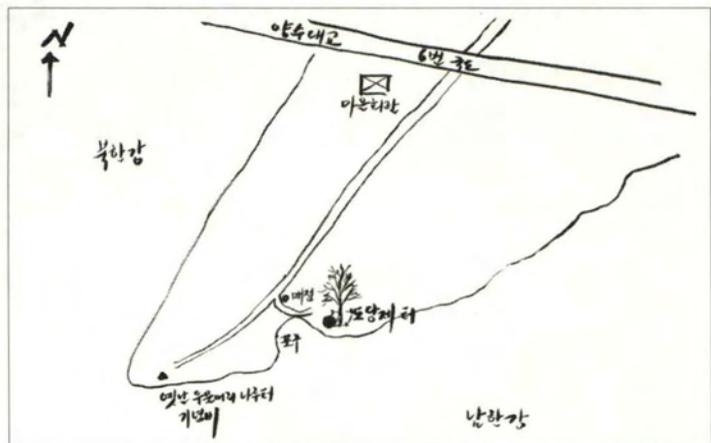
19. 양평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19-1. 양서면 양수 5리 두물머리 도당제

1) 마을개관

양서면은 군의 서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병합되어 양평군이 될 때 지금의 양서면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면의 북부에 위치한 청계산의 동쪽으로 벼락바위(378m)라는 봉우리가 솟아 그 여맥이 면내로 뻗어 있다. 남한강과 그 지류 일대에 평지가 형성되어 경작지로 이용되며, 또한 여기에 취락이 발달하였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 채소류, 두류 등이 생산된다. 팔당댐에 물이 차면서 양수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합수점으로 커다란 호수를 형성하며,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조사지인 두물머리는 면의 최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다고 하여 ‘두물머리’라고 한다. 현재 두물머리는 양수리에서 좌측으로 1km 안쪽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양수리 시가지 외곽에 밀려 있지만 예전에는 두물머리가 양수리 중심지여서 원양수리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토양은 퇴적 사질토여서 매우 비옥하다. 예전에는 보리와 호밀 곳이었으나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으로 논농사, 야채, 과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많은 가구가 민물고기를 잡는 내수면 어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경치가 아름다워 여름 한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왜정 때는 두물머리에 100여 세대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30여호 남짓 산개하여 정착하고 있다.



〈그림 33〉 양서면 양수 5리 두물머리 도당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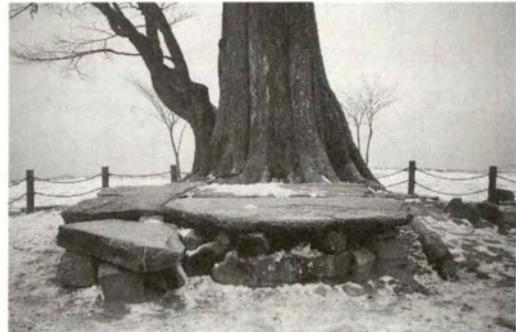


19-1. 두물머리 도당터 신목(느티나무 원경)

제당은 마을 끝 쪽 옛날 ‘두물머리 나루터’ 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당은 신수(神樹)로 되어 있는데 수령 400년에 들레 6.2m, 높이 26m에 이르는 거수(巨樹)이다. 수종은 느티나무이다.

지금은 팔당댐으로 인하여 수위가 높아져서 물가에 붙어 위치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당나무에서 50m 이상

내려가야 강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당터에 있는 현재 느티나무는 할머니 나무이며, 할아버지 나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과 군인들이 와서 베어 버렸다. 대동아 전쟁이 가열되자 총 개머리판용으로 신목(神木)을 자른 것이다. 당시에 당터 주변에는 수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었으나 모두 5그루가 잘리고 그나마 마을 사람들이 항의하여 현재 느티나무(할머니)는 남아 있게 되었다. 잘려나간 느티나무는 군수공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양수역에 실어 놓았다가 결국 바로 해방되어 나무를 싣고 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현재 당수 앞에는 북동쪽으로 넓은 돌을 겹쳐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 원래 이곳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었을 때는 격년에 한 번 정도 무당을 불러 도당굿을 크게 벌렸으나 해방 이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성을 모아 도당제(洞祭)를 올리고 있다.



19-2. 두물머리 도당터 신목앞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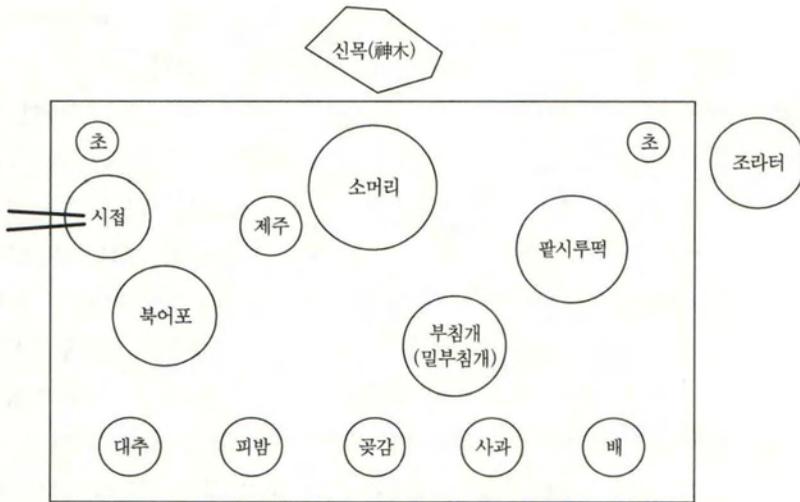
3) 제의내용

‘도당제’는 음력 9월 2일로 정해져 있다. 원래는 음력 9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좋은 날로 택일하였으나 수년 전부터 날을 정해 별도로 날을 잡기 위해 일진을 보지는 않는다. 제의 시간도 예전에는 12시 무렵에 제의를 행했으나 현재는 오후 10시쯤으로 2시간 앞으로 당겨 놓

있다. 마을에서는 이 제의를 '도당제'라고 표현하며 당집이 있는 곳을 '도당제터'라고 부른다. 제관의 선출은 제의 1주일 전 쯤 마을회관에서 선출하게 된다. 제관의 자격 요건은 그 해 부정한 일이 없었으면서 연세가 환갑 정도를 넘고, 가급적 그 해 좋은 일이 많았던 분이 선출되게 된다. 이 때 '일보는 분'도 뽑게 된다. 일보는 분이 제물구입, 제당 청소 등 제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맞게 된다. 제주로 선정되는 날부터 제주 집에는 원세끼에 흰 문종이를 끼어서 금줄을 만들어 대문간에 걸어두고 그날부터 근신한다. 비린 음식을 먹지 않거나, 바깥출입을 매우 자제하며, 부부 관계도 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제의 당일 아침 '일보는 분'과 도당터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일보는 분'이 양수리 장터에서 장만한다. 중요한 제물은 무당을 불러 크게 굿을 할 때는 소를 통째로 잡았으나 일반적인 제의에는 소머리를 올린다. 그 밖의 제물로 대추, 밤, 꽃감, 사과, 배와 북어포, 소지종이, 양초, 등을 구입한다. 제주로 사용할 조라는 술을 하지 않고 식혜(감주)로 하게 된다. 제일 하루 전날 일보는 분이 제관과 함께 엿기름과 밥(쌀)을 가지고 도당터에 가서 '조라'를 만들어 묻는다. 제단 우측에 별도로 '조라터'가 있어 그곳에 보관·숙성하게 된다. 제의 준비가 모두 끝이 나면 기본적으로 제관 및 일보는 분과 이장 및 통장, 마을에 대표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도당터로 이동한다.

제물이 도착하면 목제기를 이용하여 진설을 하고, 바로 제관이 강신을 하고 난 후 재배한다. 이어 독축 후 이장과 통장이 술을 붓고 재배한다. 축문은 소각하게 되는데 해마다 제의 하루전에 양수리 역전에 풍수를 찾아 축문을 받아오게 된다. 축문의 내용은 '동네의 안녕과 복을 비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밖에 참석한 이장과 기타 대표들이 조라(감주)를 올리고 재배한다. 이것으로 모든 제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예전에는 세대별로 각기 올렸으나 최근부터는 동네 전체에 대한 소지를 대표로 하나 올리고 있다. 소지의 내용도 주로 '동내(가내) 안녕과 무탈'이 주종을 이룬다. 이것으로 제의가 끝나면 일부 음식물 등으로 음복한다. 물론 음복전 일부 조금씩 떼어낸 음식물로 고시례를 한다.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당터 한켠에서는 허드레 일을 하시는 분과 제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동네 분들이 술을 걸고 소머리를 삶아 준비를 모두 해 놓는다. 제의가 끝나고 철상할 때 쯤이면 술에 국물이 끓고 있어서 삶아 데친 소머리를 그대로 넣어 음복을 준비한다. 마을 사람들 누구나 음복에 참여하며 덕담을 나누며 밤 늦게까지 도당터에서 밤을 보낸다.

두물머리에서는 동내 공동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도당제 경비를 대신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지대를 내는 분이 양수리 읍내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를 적립하였다가 다음 행사에 쓰기 위해 이월시킨다. 2002년 제의경비는 약 80만원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34〉 양서면 양수 5리 두물머리 도당제 제물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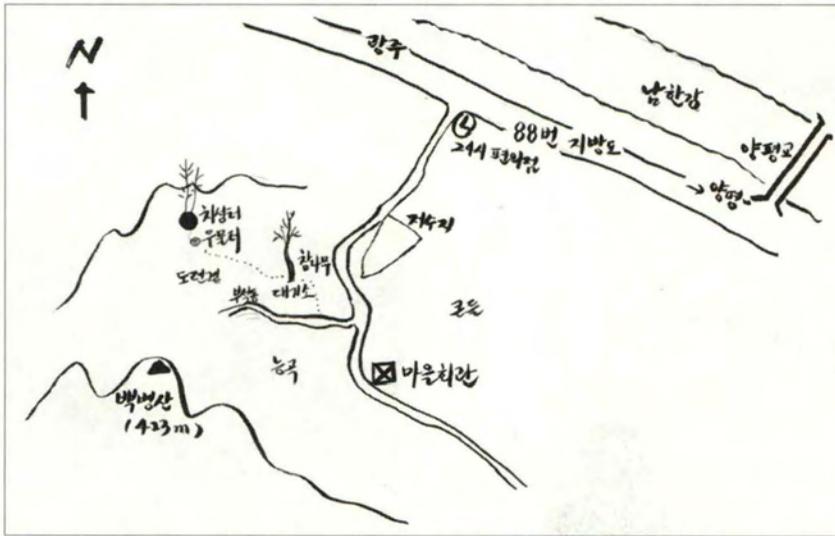
□ 제보자 : 김영운(남, 82세, 양서 노인회)

19-2. 강상면 병산2리 느리울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강상면은 군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양근군 남시면이라 칭하였는데,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병합하여 양평군으로 될 때 지금의 강상면으로 개칭되었다. 면의 남쪽과 서쪽에 있는 양자산과 백병봉의 여맥이 면내로 뻗어 대체로 산지가 많다. 다만, 남한강으로 흐르는 여러 작은 내와 남한강 유역에서 평지가 형성되어 경작지와 취락으로 이용된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 채소류다. 그밖에 밤도 많이 생산된다. 남한강 위에 건설된 양평교를 건너 양평읍과 연결되며 양평과 광주의 곤지암을 잇는 도로가 있다. 광주로 가는 이 88번 지방도 주위로는 전형적인 관광 노촌(路村)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조사지인 병산 2리 느리울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의 주산은 백병산(423m)으로 면내에 가장 큰 봉우리 양자산(710m)과 함께 큰 두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마을 앞인 북쪽으로 남한강이 흐르며 형성한 충적 평야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주 진입로는 88번 지방도로 광주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 백병산 쪽으로 등글게 형성되어 있다. 모두 68호로 전형적인 각성반이 마을이다. 최

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외지에서 들어온 마을 사람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느리울은 능곡, 도련곶, 부석동 등의 자연 마을이 합해서 만들어 졌다. 마을 입구에는 규모 있는 저수지가 있으면 완만한 구릉 사이로 취락지와 농토들이 잘 정렬되어 있다. 농업은 주로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와 축산 농가도 증가 일로에 있다.



〈그림 35〉 강상면 병산 2리 느리울 마을 산치성터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의 뒤 백병산에서 내려온 여맥을 따라 발달한 마을 야산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도련 곁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의 위치에 높이 3m, 폭 10여 m의 병풍 같은 암반이 치성의 대상이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산치성터'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행하는 제의를 '산신제' 혹은 '산치성'이라 부른다. 병풍바위 암반 사이로 수령 50여년 정도의 오리나무와 참나무 등이 솟아 나와 있어 신령성을 강하게 뽐내고 있다.

병풍바위 아래로 10m 지점에는 우물터가 있다. 우물터는 낙엽과 나뭇가지에 덮이지 않도록 지름 50cm 정도의 주름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뚜껑을 만들어 씌워 놓았다. 가뭄이 한창이던 조사기간에도 물은 항상 솟아나 이 물로 '양주(감주)'를 담아 제주로 올린다. 이밖에도 치성터 아래 2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제물로 사용할 통돼지를 잡는 곳



19-3. 느리울마을 산치성터 바위

필요시 중간 연락을 맡게 된다.

느리울의 산신은 호랑이로 자주 현현(顯現)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 어른들이 똑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꿈에서는 호랑이가 매우 점잖게 산치성터에 나타나면 그것이 제의를 올리는 뜻으로 받아들여 바로 그 해 제의를 올리곤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동네 분들에게 호랑이가 현현(顯現)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19-4. 느리울마을 산치성터 우물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 윤달이 드는 다음해 2월 중 날을 받는다. 따라서 제의는 3년 내지 4년마다 오게 된다. 가능하면 2월에 드는 첫 정일(丁日)혹은 미일(未日)에 선택하여, 2001년의 경우 2월 3일로 날을 잡았다. 제관 선출은 음력으로 정월 그믐 경 마을회관에 원로들이 모여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1명, 축관 1명, 당주 1명을 뽑게 되는데, 젊은이들의 배움을 위해 제관 보조 3명을 별도로 뽑는다. 이들로 하여금 차후 젊은이들에 제의를 맡았을 때 어려움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 왔다. 일단 제관이 선정되면 제관은 제의 날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원새끼에 창호지를 끼운 금줄을 동네 길목 4곳과 당주집, 치성터 등에 치게 된다. 치성터에 금줄을 칠 때는 제당의 낙엽을 모아 정리하고 우물도 깨끗하게 퍼내어 ‘양주(감주)’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그리고 당주

이 별도로 있다. 신목(神木)은 아니지만 말구 지름이 80cm에 이르는 참나무가 서 있고 얇은 돼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바위가 있다. 직접 제의를 행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여기에서 머물며 술을 걸고 내장을 삶아 순대를 만들며 제의가 끝난 후 음복할 준비를 한다. 이곳은 치성터와 마을의 중간 지점으로

와 제관은 제의 당일까지 매사에 근신하며 바깥출입을 자제한다. 현재 느리울 68호 전 세대가 제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도 도시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제의에 대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어 마을의 화합에 산신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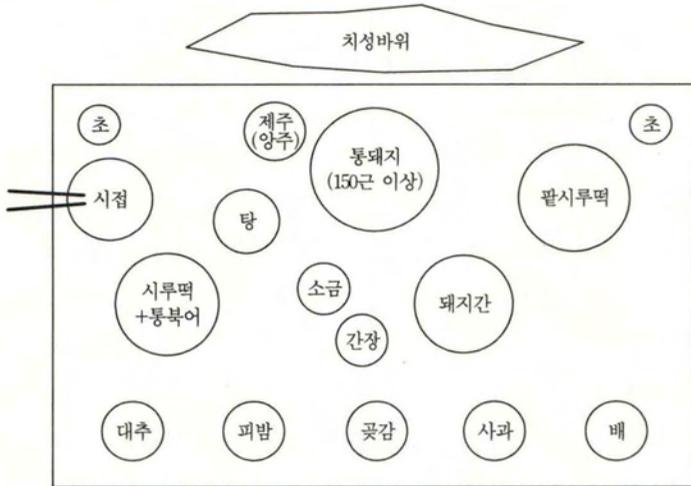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당주와 보조 1명이 함께 양평읍에 나가 장만한다. 주요 제물인 통돼지의 경우에는 인근 돼지목장에서 특별히 부탁하여 구입하게 되는데 반드시 수돼지를 이용한다. 이는 암돼지를 희생하였을 경우 혹 새끼가 들어 있어 부정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제물인 통돼지를 제외하고는 사과, 감, 배, 밤, 대추, 두부와 무우(소탕용), 통복어, 간장, 실, 초, 향, 소지종이 등 간단한 제물이지만 최상품으로 구입한다. 시루떡은 반드시 당주 집에서 장만한다. 쌀을 뺏아와서 떡을 만들게 되는데 이날 마을 가가호호 전체가 제의를 마친 직후 모두 시루떡을 찌고 가내 무사태평을 빌게 된다. 특히 제의 하루 전날은 밥과 옛기름을 가지고 치성터로 가서 치성처 우물물로 '양주(감주)'를 담아 제주 준비를 하게 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보조들과 마을 청년들이 먼저 참나무터로 돼지를 데리고 올라 제물로 쓸 부분과 내장을 분리하여 둔다. 특히 음복시 사용하는 순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산을 오른다. 돼지의 희생이 끝나면 바로 순대 만들기에 들어가고 가마솥에 물을 끓인다. 당주와 제관, 축관은 미리 마련해 놓은 도포와 유건을 쓰고 산치성터로 오른다. 치성터에 오르면 목제기를 이용하여 바로 진설하고 제의 준비를 서두른다. 이때쯤 참나무 대기소에서는 돼지를 지고 오라와 최종적인 진설이 이루어진다. 돼지는 내장을 들어낸 통돼지와 간을 별도로 올린다. 진설이 끝나는 대로 당주가 술을 올리고 재배하면서 제의가 시작된다. 이어 축관이 축을 읽고 나면, 제주와 이장 순으로 술을 올리고 동네 안녕을 바란다. 제의의 마지막 과정은 소지올리기이다. 소지는 가가호호 건명(가옥의 호주)을 부르며 일일이 올리게 된다. 모든 가옥의 소지가 올라가면 소지값을 낸 외지인이나, 고향을 떠나 있는 분, 군에 간 분들을 위해서도 소지를 올리게 된다. 소지는 소지 종이에 불을 사르며 '000의 소지입니다. 모쪼록 올해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한다. 소지 올리가 끝나면 떡만 가지고 참나무 대기소로 철상한다. 나머지 제물을 그대로 두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철상한다.

참나무 대기소에서는 삶은 내장과 순대를 준비하였다가 제관 일행이 내려오면 간단히 음복한다. 그리고 방송으로 산제사가 끝났으니 가정마다 시루떡을 만들어도 좋다는 것을 두어 차례 실시한다. 산신제가 끝나야 가내의 소원을 빌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음복을 마치고 연로하신 분들은 모두 철수하고 젊은 사람들은 참나무 대기소에서 술을 마시며 날을 세운다.

날이 밝으면 철상하여 돼지를 모두 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집집마다 돌린다. 각 가정에서는 이 고기로 아침 국을 끓인다. 그리고 아침 후에는 어른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순대와 내장탕으로 음복하며 덕담을 나누며 하루를 즐긴다.

음복을 하면서 이장과 총무는 제의 경비 결산을 간단히 보고한다. 제의 경비는 모든 주민들이 같은 금액을 균등 납부하는 각출방식이다. 2001년의 경우 5,000원씩 각출하였지만 돈이 남았다. 이는 별도로 소지값에 보태는 경우나 외지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돈이 남을 경우 이월하여 다음 마을일이 생겼을 때 사용한다.



〈그림 36〉 강상면 병산 2리 느리울마을 산신당 제물상차림

- 제보자 : 정원호(남, 41세, 병산 2리 806번지)
- 윤재봉(남, 67세, 병산 2리 639번지)
- 이대우(남, 63세, 병산 2리 961번지)
- 이우구(남, 76세, 병산 2리 638번지)

2) 당의 위치 및 형태

지산마을의 장승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갈림길 좌우측에 나누어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 마을을 소개하는 이정표 역할의 장승을 추가로 마을 입구에 2기 세웠다. 장승은 전문가가 깎은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과는 모양도 많이 다르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좌측 장승에는 ‘수풍숲 입구’라고 되어 있으며 오른쪽 장승에는 ‘일신 3리 지산’이라고 먹으로 써어져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마을을 감싸는 ‘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수풍수’라고 한다. 이는 동네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다는 물리적인 의미 이외에도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마을 입구 갈림길 바로 오른쪽에는 실제 제의를 모시는 ‘地下女將軍’이라는 한자어가 써어 있는 장승이 자리 잡고 있고, 갈림길의 왼쪽으로 30여 m를 들어간 위치에 ‘天下大將軍’이라는 한자어가 써어진 장승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장승은 2001년 세워진 장승으로 ‘辛巳年陰二月初二日’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장승의 크기는 170cm 정도에 말구 지름이 25cm 정도이다. 지하여장군은 조금 규모가 작은 편이다. 지산마을의 장승은 솟대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솟대 위에 얹혀진 새를 황새라고 하는데, 그래서 솟대를 별도로 ‘황새대’라고 부르고 있다. 장승의 크기는 1998년 조사시에는 높이 150cm, 지름 20cm 정도이다. 솟대는 장승보다 높이가 훨씬 높은 2m 정도이고, 지름은 5cm 정도이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이 장승과 솟대가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1967년의 조사자료(『한국의 마을 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에 의하면 수구막이 역할을 하는 마을입구의 나무숲에는 神木 1그루가 있었는데 이곳을 선왕당이라 했고, 神格은 여성으로서 삼신할메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왕당에 지내는 마을 공동제의는 매년 음력 3월 2일 09~12시 사이에 지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 조사자료에는 장승이 높이 1m, 둘레 80cm 정도의 크기였고 먹으로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라는 글씨가 써어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88년의 조사자료(『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에 의하면 그 당시의 장승은 재질이 소나무로 솟장승이 총길이 147cm, 지름 16cm이고 암장승이 총길이 145cm, 지름 13cm로 기록되어 있다.

장승은 제관을 비롯해서 마을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깎는다. 하지만 1988년의 조사자료(『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에 의하면 그 두 개의 장승에는 ‘天下大將軍’과 ‘地下女將軍’이라는 글씨와 함께 ‘丁卯年陰二月十二日’이라고 써어져 있어서, 1987년에 만들어졌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당시 그 옆에 넘어져 있었던 장승에는 ‘乙丑二月初三日’이라고 쓰여 있어서 1985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

문에 썩어서 없어질 때 다시 장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격년인 2년에 한 번씩 장승을 새로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12월 조사 당시 지산마을의 장승제는 격년제로 지내는 데, 음력 2월 10일 이전 丁日 새벽에 지낸다.



19-5. 지산마을 천하대장군



19-6. 지산마을 지하여장군

3) 제의내용

장승제를 전적으로 주관할 제관은 2명이 선출된다. 제관선출은 장승제를 지내기 3일 전에 한다.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3일 동안 본격적인 금기를 수행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제관은 자신의 집과 장승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놓는다.

장승제에 쓰이는 제물은 간단하게 삼색실과(밤 · 대추 · 꽃감) · 포(북어) · 시루떡(백설기) 등이다. 마을에 돈이 여유롭게 있을 경우에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쓰기도 한다. 다만 제물 중에서 돼지가 준비되었을 경우에는 돼지만 할아버지장승에서 먼저 사용하고 그것을 물려서 할머니장승에도 사용한다. 나머지 제물은 할아버지장승과 할머니장승에 별도로 준비한다. 제기(祭器)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승제의 순서는 ‘天下大將軍’이라고 씌어진 남장승에서 먼저 지내고 그 후에 ‘地下女將軍’

이라고 씌어진 여장승에서 지낸다. 할아버지장승과 할머니장승에서 지내는 제치는 동일하다. 장승제를 지낼 시간이 가까워 오면 제관들은 제물을 가지고 장승이 있는 마을 입구로 이동한다. 우선 장승 앞에 제물을 깨끗하게 진설한다. 분향강신(焚香降神)을 하고 술잔을 깨끗하게 가져놓는다. 그리고 술잔을 한 번 올리고 재배를 한다. 독축을 하고 재배를 한다.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을 평안과 번영을 위한 대동소지를 올린다.

장승제를 지내고 나면 날이 밝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관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고 대동음복을 한다.

□ 제보자 : 김영수(남, 85세, 지제면 일신3리)

19-4. 용문면 덕촌 1리 운계마을 구천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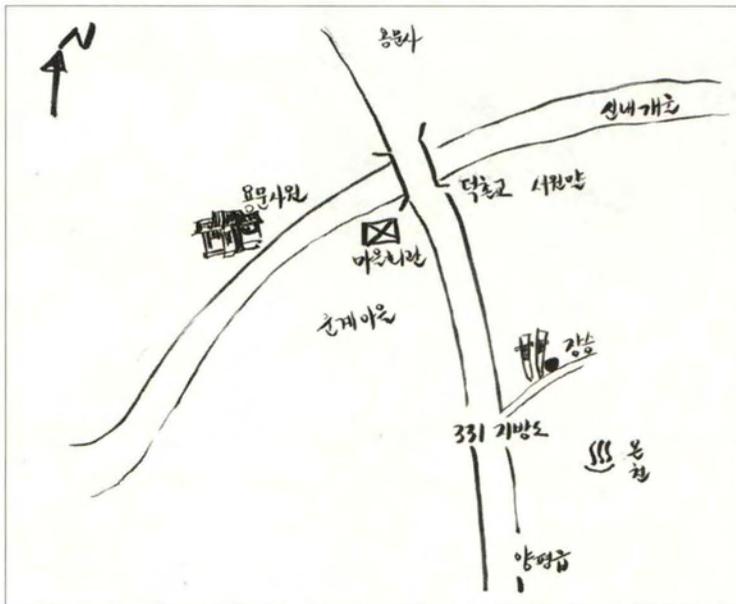
1) 마을개관

덕촌리는 원래 지평군 하서면에 속해 있었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거하여 봉대리·퇴촌리·덕동리·운계리 일부를 합쳐 그 중에서 덕동리와 퇴촌리 두 마을 이름을 따서 덕촌리가 되었다.

덕촌 1리는 그냥 운계(雲溪)라고도 부른다. 운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을에 운계서원(雲溪書院)이 있어서 유래한 것이다. 운계서원은 조선시대 선조 27년(1594)에 용문(龍門) 조욱(趙昱) 선생이 창건하였으며, 조성(趙晟)과 조욱(趙昱)을 제사지내고 있다. 덕촌 1리는 서원이 있어서 서원말이라고도 부른다. 덕촌1리는 1998년 12월 현재 80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 풍양 조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풍양 조씨는 30여 호가 된다. 덕촌 1리는 용문산(龍門山, 1157m)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어서 주변 여러 곳에 관광지가 조성되어있고,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현재 게르마늄 온천까지 들어와 외지 관광객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을 하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생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덕촌리는 용문천(龍門川)이 마을을 감싸듯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빙 돌아 흐르고 있다. 덕촌 1리에서 지내는 마을 공동제의를 구천제사(狗天祭祀)라고 한다. 공동제위의 명칭에 한자어 개 구(狗)자가 들어있는 것이 특이하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장승이 세워져 있는 곳을 '장승거리'라고 부른다. 장승이 있는 장승거리는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의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는 남장승과 여장승이 나란히 서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장승이 남장승으로 '天下大將軍'이라는 한자어가 씌어져 있고, 왼쪽에 있는 장승이 여장승으로 '地下女將軍'이라는 한자어가 씌어져 있다. 그 크기는 높이 2m, 지름 30cm 정도이다. 장승의 재질은 아카시아나무이다. 그 조형미는 투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세련된 맛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마룡에 있는 공장에서 깎아 왔기 때문이다. 장승은 1995년에 세워 12년이 흘렀지만 아카시아로 만들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림 38〉 용문면 덕촌 1리 윤계마을 장승터 위치도

장승이 있던 자리는 예전부터 장승이 있었던 자리였다. 제보자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장승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가 자라기도 했다고 제보하고 있는데, 1967년의 조사자료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에 의하면 1930년대 후반까지 장승이 존재했고 그곳에 깨끗한 모래를 깔고 제의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던 것이 장승은 사라지고 없고 느티나무만이 자리 잡고 있던 상태에서는 그 느티나무에 구천제사



19-7. 운계마을 입구 장승

를 지냈다. 장승과 느티나무에 구천제사를 지내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한동안 구천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그 이후 어느 해부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용하다는 어떤 곳에서 그런 연유를 물어봤더니 마을에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12년 전에 장승을 세우고 구천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구천제사는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에서 사흘로 넘어가는 자정에 지낸다. 장승은 썩어 없어져야만 새로 깎아서 만든다.

3) 제의내용

구천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3명이 선출된다. 제관 1명, 축관 1명, 도가(음식 장만하는 집) 1명이 그들이다. 도가는 음식 장만하는 집을 말한다. 이들을 선출하는 것은 새해 설 전에 마을회의를 통해서 구천제사를 지내기 3~4일 전인 선달그믐쯤에 한다. 생기복덕이 맞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된다. 제관들이 선출되면 제관들은 자기 집에 금줄을 치고 금기를 수행하면서 구천제사를 준비한다. 1967년의 조사자료(『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2명(제관1, 축관1)의 제관만을 선출했었다. 제물은 도가집에서 전적으로 준비하는데, 제물은 개[狗:1마리 통째] · 삼색실과 · 백설기 · 포(북어) · 술 등이 준비된다. 특이한 것은 덕촌리의 공동제의 명칭과 결부되어서 제물 중에 개가 쓰인다는 사실이다. 제물로 쓰이는 개는 털 색깔이 한 가지 색이어야 하고 얼룩무늬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물로 쓰이는 개는 도가집에서 정월 초이틀 낮에 희생시킨다. 1988년의 조사자료(『경기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에 의하면 개를 제

물로 준비할 때에는 불로 그을리지 않고 더운물에 삶아서 털을 뽑고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정갈하게 준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천제사에 쓰이는 제비(祭費)는 40여 만원 정도이다. 이것은 마을에서 모아둔 공동기금으로 충당한다. 구천제사의 제차는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고, 술잔은 3잔을 올린다. 우선 제관들은 구천제사를 지낼 정월 초이틀 자정 즈음이 되면 제물을 가지고 장승거리로 이동한다. 우선 장승거리의 장승 앞에 제물을 정갈하게 진설한다. 촛불을 켜놓고 술잔을 깨끗하게 가져 놓는다. 술잔은 세 번을 올린다. 축문을 읽고 재배를 드리고 끝이 난다.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대동소지를 비롯해서 몇 개만을 올린다. 구천제사가 끝나면 제관들끼리 간단하게 음복을 한다. 1988년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祭次는 다음과 같다. 새벽 01시쯤 되면 제단에 종이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개는 함지에 넣어 제단 밑에 둔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관이 분향하고 강신 재배하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대동소지를 올리고 떡과 실과를 섞어서 고시례를 한다. 구천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제물을 거두어서 도가집으로 이동한다.

구천제사가 모두 끝난 정월 초사흘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대동음복을 한다. 1988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덕촌 1리는 축문을 한문으로 쓰지 않고 전부 한자의 음을 한글로 옮겨서 적어놓고 구천제사에서 독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을에서 한문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1988년 당시의 축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세차○○○○삭○○○○○
 운계마을대표○○○재감소고우
 천지신지산천후토호방신장복유
 신감재정인화재덕유성소극 신
 필감언유덕소시인필화언신임
 상조백복병지
 음양이시재화자멸시당세수공
 생질액
 근이주과간축다복신기흠재사아경
 내 구축요열정상가가호호영위안태
 건고 상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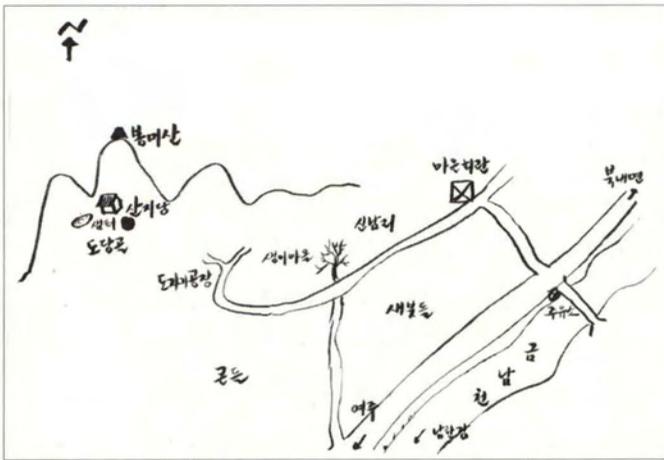
〈덕촌1리 축문〉

- 제보자 : 전식택(남, 85세, 덕촌1리)
 강호성(남, 85세, 덕촌1리)

20. 여주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20-1. 북내면 신남리 생이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그림 39〉 북내면 신남리 생이마을 산제사터 위치도

여주군 북내면은 군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소재지는 당우리이다. 본래 1914년 북면과 강원도 원주군 지내면을 병합하고 강천면 가정리를 편입하여 북내면으로 개칭하였다. 우두산, 고래산, 옥녀봉(419m) 보금산, 소달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금당천과 그 지류인 와장천,

곡수천, 오금천 연변에 곡저평야를 이루어 중앙부에 띠모양의 평야와 서남단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지역의 50% 이상이 구릉지 및 산지로 되어있다. 경지율은 25%로 미국위주의 논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인 신남리 생이마을은 소재지인 당우리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얇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뒤로는 봉미산이 마을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금당천이 흐르고 있어 농토는 대부분 금당천을 따라 길고 넓게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 논농사에 종사하나 최근 마을에는 가내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 농공을 함께하는 가구 수가 많은 상태이다. 생이마을은 행정적으로는 신남리 3반으로 50여 호가 각성인 마을로 전형적인 농촌이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의 뒤 봉미산(鳳尾山)에서 내려온 여맥을 따라 발달한 마을 뒤 야산 7부 계곡

이 형성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걸어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봉미산 잡목을 뚫고 오르면 갑자기 넓은 개활지가 나오는데 이곳에 제당인 ‘산신각’과 ‘우물터’가 있다. 산신각은 1칸 반짜리 스투트 맞배집으로 벽체는 조적한 후 미장 마감을 하였다. 산식각은 전면이 트여있고 ‘나머지 3부분’은 조적하였다. 뚫려 있는 정면은 대나무를 길게 쪼개어 받을 만들어 전면 전체를 막고 있다. 산신각 안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봉미산산신지위(鳳尾山山神之位)’라는 문구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산신각 오른쪽에는 ‘신성한’ 우물터가 있다. 인근에서는 이곳에서 물을 길러 먹는 가구가 많다. 실제로 이곳에서 행하는 마을의 ‘산제사’ 이외에도 개인적인 치성을 위해 오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멀리서 수원에서 한 달에 한번씩 오는 보살도 있다고 한다. 생이마을 사람들은 산신님이 여자산신령으로 인지하고 있다.



20-1. 생이마을 산신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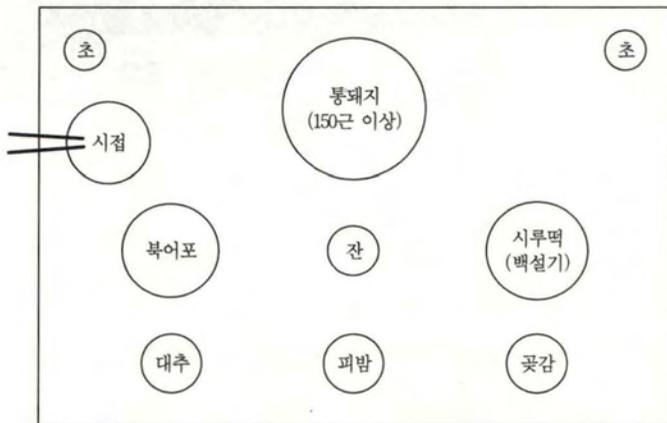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 동짓달 초순 동네에서 유명한 지관에게 날을 받아 격년제로 시행한다. 주로 음 1일 이나 3일 혹은 5일이 해당되는 것이 상례이다. 제관 선출은 보통 제일 2-3일전 마을 회관에서 결정한다. 생기북덕에 맞추어 가능한 나이를 뽑고 그 해 복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후보에 올라 선출된다. 제관을 선출할 때는 3명을 뽑고 화주 2명, 흥정꾼 5명을 선출한다. 흥정꾼은 주 제물인 돼지를 구입하거나 돼지의 각을 뜨는 사람들로 젊은 사람이 해

당된다. 일단 제관으로 선출되면 제관집에는 백지를 끼운 금줄을 친다. 이때 제관 뿐 만 아니라 화주 및 흥정꾼 집에까지 금줄을 설치한다. 그리고 난 후 3일 동안은 비린것(새우젓도 않먹음)을 일체 먹지 않고 근신한다. 예전에는 외지 사람들도 제의 하루 전부터는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화주는 산신각에 올라 청소를 하고 난 후 제일 사용할 제주(조라)를 담는다. 보통 밥과 누룩으로 1되 가량 담는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화주와 흥정꾼이’ 함께 여주장에 나가 장만한다. 주요 제물인 통돼지를 제외하고는 삼실과(감, 밤, 대추)와 북어포, 소지종이, 초, 향 등 등 간단한 제물이지만 흥정하지 않고 가장 좋은 물건으로 준비한다. 특히 돼지는 마을에 있는 목장에서 구입한다. 최소 150근 이상의 큰 돼지를 희생으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정월달에 검정 돼지를 사서 길러 동짓달에 제물로 사용하였는데, 요즘은 백돼지든 검정돼지든 가리지 않고 목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시루떡은 백설기로 반드시 화주 집에서 정성을 들여 장만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관, 화주, 흥정꾼 등은 산신각으로 오른다. 제의는 보통 밤 12시경 올리지만 준비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올라 술을 걸고 돼지를 잡아 내장을 삶는다. 제관은 초헌관이 강신하고 나면 축관이 독축을 한다. 이어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밖에도 잔을 올릴 이장, 통장 등도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마지막으로 동네를 대표하여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올해 별 탈 없이 보낸 것에 대한 고마움과 내년에도 무고하게 해 줄 것을’ 빌며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모든 제물은 ‘산신각 회장대’으로 물려서 다음 날 동네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일이 장만한다.

생이마을은 특별히 ‘산신각운영회’가 별도로 운영된다. 산신각운영회는 회장과 총무가 있으며, 제의 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직접 관여한다. 실제로 생이마을 산신각은 평상시에도 기부



〈그림 40〉 북내면 신남리 생이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

금이 들고 날기 때문에 주민 필요에 의해 생겼다. 제의가 완료되면 음복시 회장이 경비정산을 발표한다. 다만 올해 오랫동안 회장직을 역임하셨던 분이 작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회장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월 회의에 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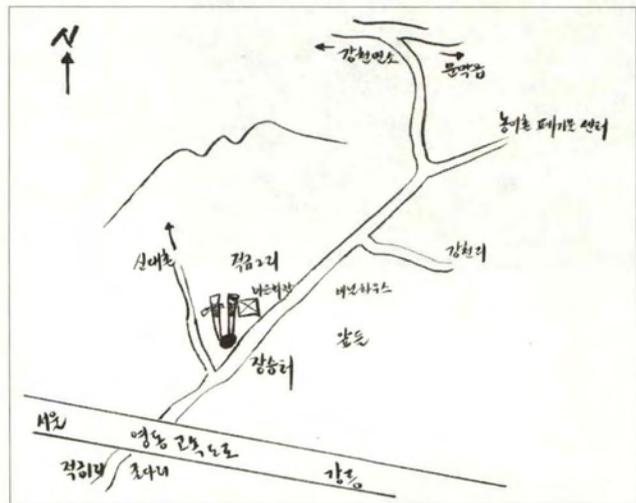
- 제보자 : 이봉춘(남, 86세, 신남리 241번지)
김옥현(여, 79세, 신남리 241번지)

20-2. 강천면 적금 2리 장승고사

1) 마을개관

강천면은 군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강원도 원주군에 속하였으며, 1906년 여주군으로 이속되었고, 1915년 원성군 부춘면 일부가 편입되었다. 이곳은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배가 편안하게 쉬어가는 곳이라 하여 강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군내에서는 농의 비율이 가장 낮고 주로 땅콩을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고추 재배로 대체되었다. 조사지인 적금리(赤今里)는 조선 초기 이 마을 일대에서 금(金)을 모아 두었기 때문에 적금(積金)이라고 하였으나, 언제부터인지 마을에 질병이 많아 장승을 세워 재앙을 막았다고 하여 붉은 적(赤)자를 써서 적금(赤今)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이름에 대한 내용은 장승고사를 지내게 된 전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003년 1월 현재 5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생업은 논농사와 밭농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논농사는 주로 벼를 재배하는데, 생계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도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다. 밭농사는 땅콩 농사와 담배재배가 성행했었는데, 근래에는 주로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적금2리



〈그림 41〉 강천면 적금 2리 장승 위치도

의 고추재배는 여주군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수확량을 보이고 있는데, 1가구당 3~4천평 정도의 재배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비닐하우스를 통한 채소 재배와 축산업 등에도 종사하는 가구 수가 늘어가고 있다.

적금 2리는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이 마을에 입향했고, 다음으로 의령 남씨가 입향했다고 한다. 현재 김해 김씨는 5가구, 의령 남씨도 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여러 성씨들로 구성된 각성바지 마을이다. 적금2리에서 지내는 마을 공동제의를 장승고사라고 부르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20-2 적금2리 장승

장승고사를 지내는 장승은 마을 뒤쪽으로 나가는 길 오른쪽에 나란히 두 개가 서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나란히 서있는 두 개의 장승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남장승으로 ‘天下大將軍’이라는 한자어가 세로로 썩어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장승으로 ‘地下大將軍’이라는 한자어가 세로로 썩어져 있다. 그 크기는 높이 170cm · 지름 20cm 정도이다. 장승의 재질은 나무로서 소나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두 개의 장승이 뛰어난 조각에 의한 조형미를 보여주지 않고 투박하면서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7년의 조사자료(『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에 의하면 2003년 1월 조사당시와는 다르게 장승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는 글씨가 썩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적금 2리에서 장승고사를 지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에는 원래 장승이 없었는데, 마을에 있는 집들이 향하고 있는 좌향, 즉 남향을 바라보면 산 능선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끊기는 곳이 있고 그곳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작은 산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이 작은 산을 ‘판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판동산은 가야리의 합천 이씨 소유였다. 아

주 먼 옛날에 합천 이씨 집안이 상(喪)을 당했는데 장지(葬地)가 탄동산이었기 때문에 묘소를 그곳에 쓰게 되었다. 그런데 상을 당한 어느 구질구질한 날에 모양새가 남루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상주(喪主)를 만나 뵙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상주와 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름모를 그 사람이 문득 상주에게 말하기를 “땅을 파다 보면 돌이 나올 것이다. 그 돌을 절대로 꺼내지 말고 돌이 나오는 그 깊이만큼만 땅을 파고 그 위에 관을 얹어서 묘소를 만들어라.”라고 했다. 그렇지만 상주가 돌 위에 관을 얹어놓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돌을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내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관을 그곳에 묻기 위해 땅을 파보니 정말 커다란 돌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상주의 주장대로 돌을 꺼내서 그 옆에 놓아두었는데 그때 그 밑에 있던 밝은 빛을 발하는 금두꺼비와 같은 것이 하얀 연기를 피우면서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상주의 주장대로 그곳에 묘를 썼다. 그 이후에 합천 이씨는 그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합천 이씨가 탄동산에 묘를 쓴 그 해부터 적금2리에 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많은 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노인들이 용하다는 어느 절의 대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대사가 마을을 한 번 살펴보더니 탄동산에 묘를 써서 마을에 돌림병이 되는 것인데, 남의 산(탄동산)을 파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탄동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아 줄테니 장승을 세워놓고 정월 열 나흘날 자정에 쌀 한 되이건 반 되이건 상관없이 집집마다 똑같이 거둬가 주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장승고사를 지내자 적금2리 마을은 병이 없고 무사했다는 것이다. 그때 대사가 장승을 세우라고 알려준 곳이 현재 장승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탄동산에는 묘를 팔 때 나왔다는 커다란 돌이 아직도 있고, 적금2리는 그때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승고사를 지내고 있다.

장승고사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지낸다. 정확하게는 해가질 무렵인 저녁 6시 정도에 지낸다. 장승은 격년(2년)마다 새로 만들어 세운다. 장승을 새로 만들 때에는 14일 낮에 제주집에서 깎는다. 장승을 새로 깎아 만들면 그전에 있던 장승은 그 옆에 그대로 쌓아놓고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지도록 놓아둔다. 장승이 있는 곳의 청소는 1년에 한 번 음력 8월 대보름 하루 전이나 2~3일전에 마을을 대청소할 때 하고 있다.

3) 제의내용

장승고사를 담당하는 제관은 음력 정월 초닷새쯤에 1명을 선출한다. 이때가 바로 적금2리에서 개최하는 대동회이다. 제관은 제주(祭主)라고 부른다. 제주로 선출된 사람은 뽑힌 그날부터 조용하게 금기를 수행하는데, 장승고사를 지내기 1주일 전에 장승이 있는 곳과 자신의 집에 금줄을 치고 외부출입을 될 수 있으면 삼가면서 장승고사를 준비한다. 제주가 선정되면

제물을 제주가 직접 준비하는데, 제물은 떡(백설기 1시루)·포·통복어 1마리·밤·대추·곶감·술 등이 준비된다. 메와 탕 그리고 사과·배와 같은 것은 제물로 쓰지 않고 있다.

장승고사를 지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음력 정월 14일 해가 질 무렵인 오후 6시쯤이 되면 제주는 제물을 가지고 장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현재처럼 마을에 방송시설이 없을 때였던 과거에는 마을의 풍물패들이 장승고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풍물을 쳐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때 마을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제주를 뒤따라 장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장승고사를 지내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우선 제주는 제물을 장승 앞에 가지런히 진설한다. 그리고 제주는 분향강신(焚香降神)을 한다. 술잔은 두 번 올린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장승과 할머니장승 두 개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무조건 초현으로만 올렸었다. 재배를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대동소지를 가장 먼저 올리고, 다음에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에 대한 소지를 올려주고,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 개개인들에 대한 소지를 다 올려준다. 장승고사가 모두 끝나면 떡을 장승의 머리 위에 한 주먹 분량을 얹어놓는다. 그리고 떡에 꽂아 두었던 복어를 장승에 매달아놓는다. 완전히 장승고사가 끝나면 제주집에서 제물과 더불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대동음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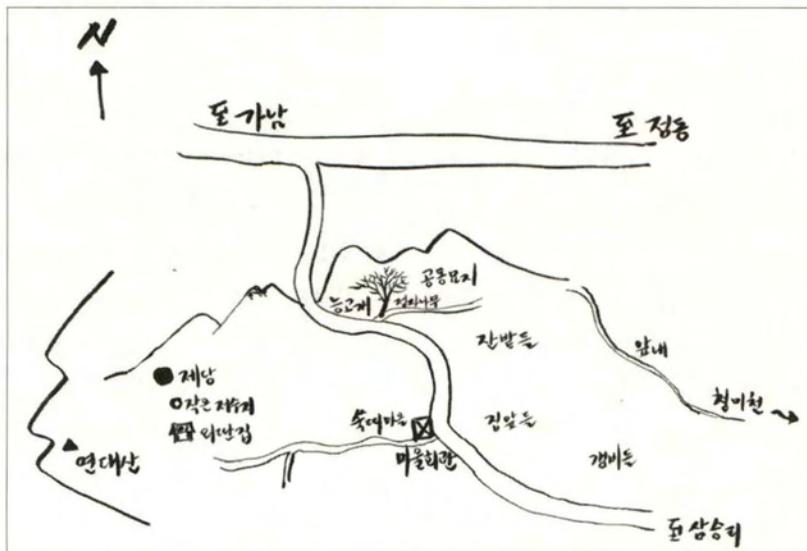
장승고사는 현재 쌀 1가마니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에는 마을 전체를 통틀어서 두말이나 세말만을 거두기도 했었고, 30년 전에는 다섯 말을 거두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을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1가마니로 정하고서 장승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장승고사가 끝나면 그것에 따른 결산보고가 있긴 하지만 간략한 것이다. 그것과는 별도로 마을의 대동회는 대략 음력 설 1주일이나 열흘 전쯤에 하고 있다. 이 대동회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를 선출하고 1년 동안의 마을일에 대해서 논의한다.

□ 제보자 : 이영광(남, 57세, 강천면 적금2리)

20-3. 가남면 연대리 쑥띠마을 산제사

1) 마을개관

여주군 가남면은 군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다. 1914년 가서, 소개, 근남 등 3개 면을 병합하고 가사면의 ‘가’와 근남면의 ‘남’자를 따서 가남면이라 칭하였다. 동부에 대포산, 신통산(235m), 철갑산, 강금산(281m), 연대산(227m)등이 솟아있으나 높이 100m 이하 대부분이고 서부의 양화천 지류인 대신천, 안금천 유역과 동남부의 삼승천 유역에 평야가 펼쳐져 있다. 경지율이 높고, 쌀, 고구마, 감자의 생산량이 군내에서 가장 높다. 또 축산, 과수 농사도 군내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있다. 조사지인 연대리는 연대산 줄기가 내려와 마을 뒤를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진밭’, ‘집앞’, ‘깡비’와 같은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주로 논농사가 많으나 특수작물에 집중하여 비닐하우스 농사가 주민들의 고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주요 생산물은 오이, 가지, 부추 등이며 전량 가락동으로 내고 있다. 쑥띠는 현재 80호 가옥에 가평 간씨와 여흥 이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제보자 간종 인씨는 현재 쑥띠에서 12대째 살고 있다.



〈그림 42〉 가남면 연대리 쑥띠마을 산제사터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의 뒤 연대산에서 내려온 여맥을 따라 발달한 마을 뒤 야산 3부 능선에 위치



20-3. 쑥띠마을 원수골 산신당터

로 분신한 산신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으로 정월 초사흘 오전 1시에서 오전 5시에 제의를 올리게 된다. 제관의 선출을 위해서 이장은 선달그믐날 마을 어른들을 소집하여 생기 복덕을 가려 제관 1명, 축관 1명과 조역 담당 8명 정도를 선출한다. 일단 제관으로 선출되면 설날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근신한다. 매일 12시에는 목욕도 하여 몸을 청결히 한다. 제의 당일이면 두루마기 복장으로 산신당으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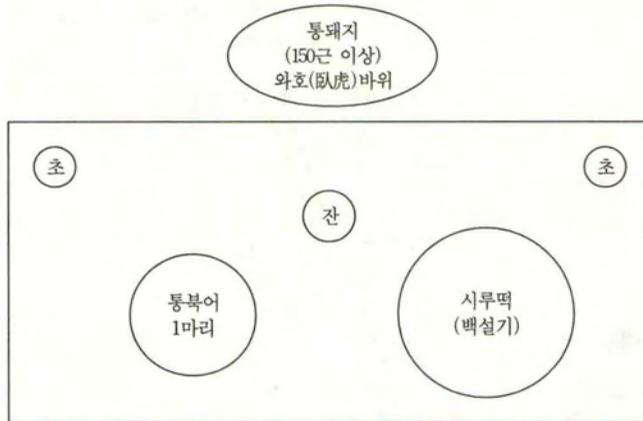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제관이 장만한다. 주요 제물인 통돼지이다. 원래 쑥띠는 제물로 ‘통소’를 올렸는데 한국전쟁 이후 돼지로 대신하고 있다. 통돼지 제물 이외에는 별도의 제물로는 백설기를 준비한다. 백설기는 반드시 홀수로 담게 되는데 5되, 5홉이나 3되 3홉을 써서 떡을 만들게 된다. 떡은 제관 집에서 준비한다. 이 밖에 제물로 통북어 1마리가 있고 그밖에 특별한 것이 없다. 일단 돼지를 흥정하여 사게 되면 제의 당일 날 아침 조역 담당자들이 마을회관으로 와서 돼지를 잡는다. 통돼지를 올리기 때문에 내포(내장)만 빼고 깨끗이 장만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관, 축관, 이장 등은 산신당으로 오른다. 제물은 조역 담당이 지게로 나르고 진설을 준비한다. 간단히 진설이 끝나면 제관이 제주(막걸리)를 따르고 재배한

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산신당’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원수골’이라 부른다. 원수골의 산신당에는 누워있는 호랑이(臥虎) 형상의 바위가 신체로 되어있다. 바위는 실제로 150근 짜리 돼지를 희생으로 사용하여 올려놓았을 경우 돼지로 인해 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다. ‘^’자 모양으로 생긴 바위는 넓이 50cm 정도, 길이 110cm 정도로 크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바위는 무척 크나 대부분 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라고 제보자는 설명하고 있다. 주변에는 참나무와 잡목이 뺨뺨이 둘러싸고 있으며 신체 주변으로 반경 20m 정도는 평평한 분지로 되어있다.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격(神格)은 호랑이

다. 강신이 끝나면 축관이 간단히 축을 읽는다. 축관의 축이 끝나면 마을이장이 술을 따르고 재배한다. 그 밖에 산신당에 오른 분들 중 연배에 따라 술을 붓고 재배하는 것으로 제의는 모두 끝난다. 특별히 소지 같은 것은 없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돼지고기를 일부 베어 내어 꼬치에 끼우고 제당 옆에 세워두고 음복한다. 음복이 끝나면 모두 철상한다. 이튿날 마을회관에서 제물로 희생되었던 돼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인다. 잔치가 종료될 즈음 이장과 총무가 제의 경비 내역을 발표하고 구두로 결산한다. 이 결산은 8월말에 마을 전체회의에서 한 번 상정되어 인쇄물로 보고 된다. 쑥띠마을은 산신제 경비는 별도로 각출하지 않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며, 2002년도 산신제 비용은 35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43〉 가남면 연대리 쑥띠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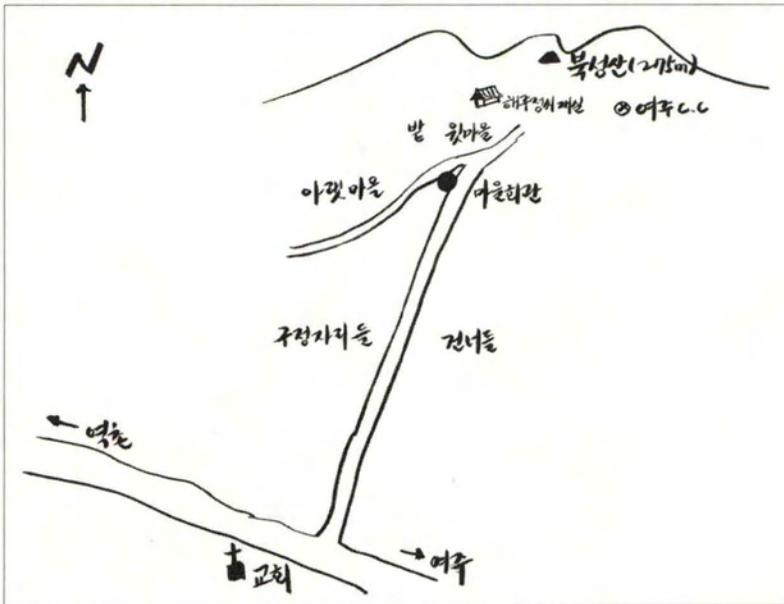
□ 제보자 : 간종인(남, 63세, 연대리 637-1번지)

20-4. 능서면 오개 2리 산신제

1) 마을개관

여주군 능서면은 군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1914년 수계면과 길천면 일부를 통합하여 영릉(英陵)서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능서면이라 칭하였다. 능서면 높은 지대는 없고 대부분 구릉지대와 충적 평야가 대부분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땅콩과 고구마를 군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채소나 과수, 고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조사지인 능서면 오개리는 면소재지 번도리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북쪽으로 북성산(275m)이 배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인 남쪽으로 '구렁자리', '건너들' 등으로 불리는 상당히 넓은 농토가 펼쳐져 있다. 오개리는 약 60호에 이르는 가구들이 대부분 논농사 위주의 농사를 짓고 있다. 평택임씨가 10대를 살고 있으며 나머지 성씨들은 이후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최근에는 비닐 하우스를 통하여 부추를 생산하는 작목반이 결성되었고 농사나 과수 농사, 혹은 축산(현재 젓소 2가구, 돼지 1가구, 한우 3가구)에 종사하는 농가도 급증하고 있다.



〈그림 44〉 능서면 오개 2리 산제사터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오개리는 원래 산신제를 올리지 않고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서 박수무당을 불러 경을 읽고 '가몽할머니'에게 도당굿을 올리던 곳이었다. 1970년도 소위 '미신타파'의 일환으로 '가몽할머니 도당굿'이 없어지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 대체 방안으로 북성산 기슭에서 '산신제'로 가몽할머니를 위한 제의를 이어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북성산 제당이 멀고 제의를 행하기 위해 어두운 길을 건다가 제관이 다치는 사고 등이 일어나자 굳이 '가몽할머니'를 북성산에서 모실 필요가 있느냐는 마을 전 주민의 의견에 따라 마을의 중심인 마

을 회관 마당에서 ‘가몽할머니’에게 산신제를 올리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제보자의 부친께서 가몽할머니 제의를 행하지 않았더니 동네 우환이 끊이질 않아 다시 제의를 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 동네 분들은 가몽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실제 인사사고가 없는 유일한 동네라고 마을 주민들은



20-4. 오개 2리 마을회관앞 제의터

군게 믿고 있다. 제당은 마을 회관 마당으로 북쪽으로 북성산이 바라다 보이고 우측으로 북성산에서 출발한 개천이 흐르고 있어 상징적으로 마을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곳이다.

3) 제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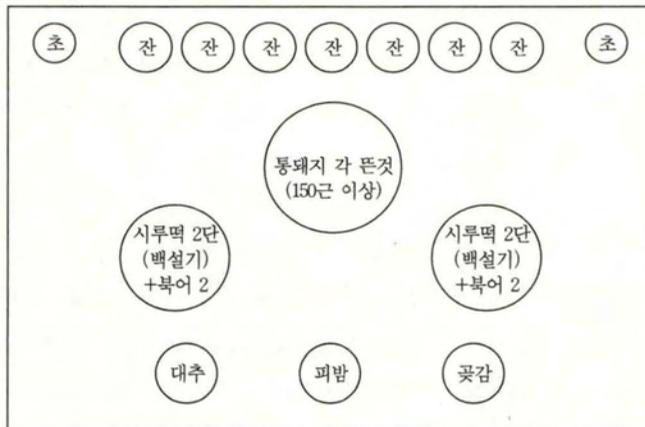
‘산제사’일은 음력 정월 초사흘로 격년제로 시행한다. 제관선출은 별도로 없다. 마을 이장이 제관으로서 당연직이 된다. 다만 생기복덕에 맞추어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할 분’ 남녀 각 3명씩을 뽑게 된다. 제의 시간은 오후 6시 쯤 제물을 차리면서 시작한 제의는 음복까지 마치게 되면 보통 새벽 02시 무렵이 된다.

제사에 쓰이는 주요 제물은 통돼지이다. 돼지는 색깔에 구애됨은 없으나 반드시 수놈으로 150근 이상을 희생한다. 돼지는 마을에 있는 목장에서 구입한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돼지를 사서 길러 제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물을 준비하는 집에서는 시루떡을 4시루 준비한다. 시루떡은 3말 3되 3홉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쌀 3되, 3홉씩을 각출하여 제비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떡을 제물로 만들어 올렸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쌀을 장만하여 차 후 정산한다. 제물을 준비하는 남자 분들은 돼지를 잡아 내장을 들어내고 목을 자르고 각을 떠 돼지를 여러 덩어리로 만들어 탐처럼 쌓아 올려 그 꼭대기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다. 그밖에 제물로 북어 8마리, 대추, 밤, 꽃감 등 삼실과와 소지종이, 초, 향 등을 준비한다.

제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을회관으로 와서 제물을 진설하게 된다. 제물 진설이 완료되면 마을이장(제관), 청년회장, 부인회장, 노인회장이 대표로 옷을 갈아입고 제장으로 나온다. 이때 부정이 없는 분들은 모두 제장에 참석할 수 있다. 먼저 제과인 이장이 잔을 따르고 강신한다. 그 뒤를 이어 노인회장, 부인회장, 청년회장의 순서로 제의를 올리고 나머지 잔을 올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누구든 술을 올리고 재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장이 동네

를 대표하여 소지를 올린다. 소지에는 ‘올해 별 탈 없이 보낸 것에 대한 고마움과 내년에도 무고하게 해줄 것을’ 읊조리면서 올린다. 동네 소지가 올려지면 그 이후부터는 가가호호의 소지를 올리게 된다. 소지 올리가 끝나면 모든 제물은 철상한다. 철상전에 고기, 과일, 북어 등을 조금씩 떼어 동서남북에 고시례를 한다.

마을회관 일각에서는 국을 끓여 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고기와 떡은 똑같이 분배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나누어준다. 제비 결산은 제관인 이장이 시간을 내어 음복중에 발표한다. 금년에는 가구당 10,000씩 각출하였다. 2002년 실제비는 560,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림 45〉 능서면 오개 2리 가몽할머니 산제사 제물상차림

□ 제보자 : 광대식(남, 65세, 오개 2리 491번지)

21. 연천군의 마을신앙과 제당

21-1. 전곡읍 신답리 산제사

1) 마을개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에 속한다. 원래 양주군 청송면 금촌리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논이 있어 쉼논이라 하였다. 1914년 개안, 쇠촌, 새말, 붉은데기, 애오라지를 병합해서 신답리를 만들었다. 현재 이곳은 6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 수는 백여 세대 정도 되고, 제사에 참여하는 가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 팔십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곳은 38선 이북에 있어서 북쪽의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따라 행정권이 수복된 지역이다. 전쟁 이후 폐허로 변해 집터만 남아 있었지만 군에서 이 곳에 새로 집을 건설해 주고, 완공식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21-1. 신답리 산신제당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마을 입구에는 신답정미소가 있다. 정미소 정문으로 난 길을 따라 오태근(77)씨 집 뒤쪽으로 200평 정도의 평지에 짚 주저리 형태로 있다. 이 짚 주저리는 높이 230cm, 둘레 750cm로 어른 다섯 명이 감싸 안을 만큼 큰 크기로 자리 잡고 있다. 모양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뿔형 모양이다. 네 그루의 나무에 둘러싸여 꼭 끼인 형태로 있는데 원래는 평지였으나 그 자

리에 나무가 자란 것이다. 짚 주저리는 제사를 지내기 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새로 엮어서 덮는데 작년 것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다시 씌운다. 주저리 속을 들여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속에는 옷나무를 원통형으로 잘라서 세워 놓았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하게 여겨 여기서는 어떤 벌목도 하지 않는데, 40여 년 전에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내 땀감으로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후 딸이 병에 걸려 사망을 했다. 사람들은 산제당 터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제의과정

신답리의 제의 날씨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새벽 0시이다. 제를 지내는 달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제사를 거르지 않고 다음달로 미루어서라도 반드시 지낸다. 해가 바뀌고 정월 초닷새가 되면 제를 진행할 사람을 가려서 뽑는다. 이 때 상화주, 중화주 두 명의 화주와 축관을 뽑는다. 상화주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중화주는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보통 50세 이상에서 부정타지 않고 정갈한 사람이 화주로 선정된다. 일단 화주로 뽑히면 집 앞에 흰 새끼에 술가지를 꽂아 금줄을 치고 대문 양쪽에 황토 흙을 뿌려 부정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제사의 비용은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장이 통보를 하면 반장들이 비용을 추렴하러 다닌다. 2002년에는 가구당 3,000원씩 추렴을 했다. 예전에는 곡식으로 추렴을 했지만 지금은 돈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제물장은 상화주와 중화주가 보러 다닌다. 제물로 준비되는 것은 돼지머리와 소의 생간, 대추, 밤, 꽃감 등의 삼색과일과 조라술이다. 상화주와 중화주는 제사 지내기 이틀 전에 목욕제계하고 제당터에 가서 조라술을 묻어 놓았다가 걸러서 제사 당일 날 쓴다. 지금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많이 간소화 되었는데,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에 쓰일 돼지를 마을 주민들 중 한 명을 선정해서 직접 키우기 까지 했다고 한다. 제사에 쓰일 돼지는 까만 숫돼지로만 썼는데 새끼일 때 구입하여 키워 썼다는 것이다.

음력 정월 열나흘 날 밤 열시쯤 되면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제물을 가지고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로 간다. 이 때 제관의 역할은 상화주가 담당하고, 축관은 이장이 할 때가 많다.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부정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당터로 모이는데, 이때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많이 줄고 날씨가 포근한 날이면 40~50 여명은 모인다. 제관과 축관이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축문을 읽으면 마지막 절을 주민 모두가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각 가정의 소지를 올리면 제사는 끝이 난다.

신답리는 제사가 끝난 후 몇 해 걸려 한번씩 대동굿도 열린다. 굿은 하는 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면 대동굿을 여는데 산제사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사흘이 걸린다. 마지막 대동굿은 오년 전에 있었으며, 만신은 이 마을에서 단골로 드나드는 사람이 연결해서 불러온다. 오전 열시쯤 굿을 시작하면 동네의 남녀노소가 다 같이 참여하여 각 가정의 소원을 말하고 소지까지 올리면 사흘씩 걸릴 때도 있었다. 이 때 만신에게 주는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가정의 정성을 더하는 것이어서 형편대로 놓는다. 정월 초하룻날이 되면 새벽 일찍 가서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3) 결 산

제사를 끝내고 나면 바로 간단한 음복을 하고 아침 여덟시면 비용을 추렴한 사람 모두가 모여 음복을 한다. 이 때 통장이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고 간단하게 보고하고 끝을 맺는다.

□ 제보자 : 오태근(남, 77세, 전곡읍 신답리 5반 90-5번지)

21-2. 청산면 대전리 산치성

1) 마을개관

양주군 청송면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밭이 있어서 한밭 또는 대전리라 하였다. 1983년도에 연천군 청산면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이곳은 180여 가구가 거주 하고 있는 큰 지역이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지역이었다가 다시 건립하여 살고 있다. 현재 마을제사에 참여해서 비용을 추렴하는 가구는 80여 가구이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와 경계하고 있는 종현산 꼭대기에 있다. 이 산은 높이 586.6m로 예전에 산 정상에 큰 종을 매달아 놓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산꼭대기에 서면 길게 늘어서 있는 대전리와 한탄강이 한 눈에 내려 다 보인다. 과거 이곳에는 성황당이 있었지만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현재는 5년 전에 주민들이 추렴해서 만든 가로 약 70cm, 세로 55cm, 높이 35cm 정도의 대리석 제단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21-2 대전리 종현산 산신제단

현재 종현산은 군사작전지역이어서 산 전체가 군사도로가 나있으며 제단이 설치된 산정상 2m 아래로는 군사용 병커가 사방으로 설치되어 있다. 몇 해 전부터 마을총회에서 산신당을 새로 짓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종현산이 군사지역이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군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 아직은 유보상태에 있다.

(2) 제의과정

이 마을에서는 공동제의를 산치성 드린다고 한다. 제의날짜는 매년 음력 시월에 좋은 날을 골라서 지내며, 특별하게 지정된 날짜는 없다. 보통 음력 시월 초닷새나 엿새가 제의날짜로 잡힌다. 이장이 제관으로 선출될 만한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적어서 날을 보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제관을 선정하고 날을 잡아온다.

이 때 직장에 다니거나 상처한 사람은 제관 선출에서 제외한다. 제관, 축관, 상화주, 하화주를 선정하는데, 제관이나 화주로 선정이 되면 집 대문에 왼새끼로 꼬아 술가지를 꽂은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는다. 제의 날짜가 정해지면 이장과 반장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참여할 의사를 물어보고 비용을 추렴한다. 보통 제의 날짜 5일전에 비용을 추렴하게 되는데, 2002년에는 가구당 만원씩 추렴을 했다. 비용은 참여하는 가구 수와 그 해 물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상화주와 하화주는 제물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한다. 보통 상화주가 음식을 담당하고 하화주는 주변을 청소하고 풀을 깎는 등 잔심부름을 담당한다.

산제사를 지내는 날은 초저녁이면 제관, 축관, 화주들이 산으로 올라간다. 산에서는 쌀가루를 시루에 얹혀 백설기를 찌고, 메를 짓는다. 제물로는 통돼지, 삼색과일, 북어포, 조라술, 메, 시루떡이 준비된다. 1967년 이전에는 마을에서 소를 잡아 소머리와 소족 4개를 제물로 이용했지만, 비용문제로 통돼지로 바뀌었다. 돼지는 검정이면 검정, 하안색이면 하안색 한가지 색깔로 된 것만 쓴다. 제사는 밤 열두시가 넘으면 시작 된다. 제사에 관한 준비는 통장이 주관하지만 제사에 참여는 선정된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3) 결산

제사가 끝난 아침에 비용을 추렴한 가구들이 전부 모여 음복을 한다. 이 마을은 제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렴해서 제에 들어가는 나머지 비용은 돼지를 몇 마리 더 장만하고 술도 준비하고 해서 마을 잔치로 이어간다고 한다. 마을 제사에 관해 기록해 놓은 장부는 별도로 없고 제가 끝난 뒤 음복을 하면서 이장이 보고 한다. 요즘은 비용을 쓴 내역을 결산 후 복사해서 참여한 가구 마다 돌린다.

- 제보자 : 임상근(남, 청산면 대전리 이장)
서승철(남, 66세, 청산면 대전리 530-40번지)

21-3. 청산면 궁평리 장승제

1) 마을개관

본래 양주군 청송면 지역으로 인조와 귀인 조씨 사이의 둘째 아들인 낙선군 이숙의 묘와 재궁이 있어 궁말이라 불렸다. 1983년 대통령령으로 연천군으로 편입 되었다. 현재 2개의 행정리와 1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을의 장승제는 1994년부터 행해졌는데, 당시 노인회장이었던 이택중씨가 장승을 구입해 마을 어귀의 장승고개에 세우고 축문을 지어 제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마을에 굶은일과 화재가 자주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장승제를 올리고 난 후부터는 화재나 굶은일이 생기지 않아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예전부터 신답리와 장탄리로 가는 옛 길목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고 그 곳에 장승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이 곳을 장승고개라고 하였다. 지금은 건너편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고개를 밀어 평지가 되었는데 이곳에 새 장승을 세웠다. 돌



21-3. 장승(앞)과 풀무산 자살바위

로 쌓은 높이 0.7m, 가로 10m, 세로 2m 정도의 화단 형태의 둔덕에 좌우로 향나무를 심고 잔디밭을 깎 다음 그 위에 2기의 목장승을 세웠다. 좌측에 천하대장군, 우측에 연하여 지하대장군이 서있다.

(2) 제의과정

이 마을의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 13일 오전 10시30분 경에 제가 시작된다. 제관의 선출은 마을 노인회에서 맡는다. 제를 2~3일 앞둔 정월 초에 마을 회관에서 가정에 이상이 없고 몸이 깨끗한 사람을 가려서 제관을 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양하지 않고, 그 날부터 몸을 삼가고 가급적 출타도 하지 않는다. 제물 구입은 마을 청송회에서 한다. 청송회는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마을 자치기구로 회원은 50여명이다. 제물의 준비는 그 해 선거로 선출된 청송회 회장 집에서 장만하며, 대부분 마을 안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한다. 제물은 비교적 넉넉하게 장만하는데 장승제가 끝나면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물은 일반 기제사와 비슷하지만 붉은팥, 쌀, 북어, 실 등 고사음식이 첨가되는 특징이 있다. 제물을 진설 하면 제관이 분향재배한 후 술을 한잔 올린다. 이어서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면 다시 술을 한잔 올리고 재배한다. 축문은 태우지 않고 보관한다. 합동 재배 후에는 풍물패들이 풍악을 울리며 노는 뒤풀이로 이어진다.

(3) 결 산

결산은 청송회 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의 비용은 주로 이곳 출신들의 기업가나 재산가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마을 장승제는 마을 노인회, 부녀회, 청송회 등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자치조직들이 모두 참여하여 추진하는 마을 대동잔치로 자리 잡고 있다. 장승제가 끝나면 청산면에서 면장까지 참석하는 큰 경로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한다.

□ 제보자 : 최호선(남, 73세, 전 마을 이장, 축관)

이병지(남, 78세, 청산면 궁평리)

21-4. 전곡읍 늘목리 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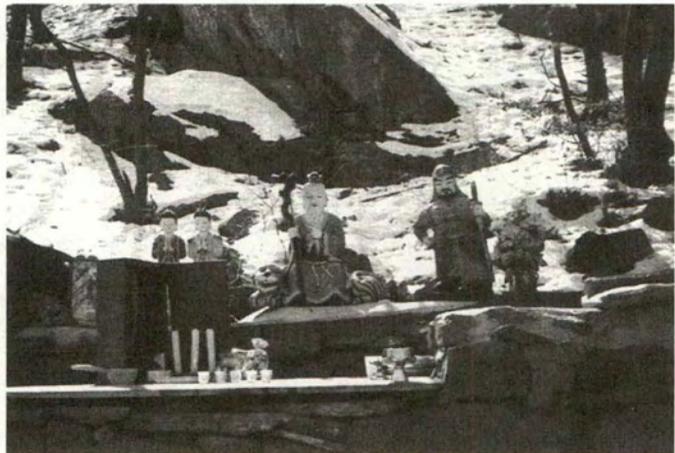
1) 마을개관

본래 적성군 동면 지역으로 고려말에 늘처사가 살았다 하여 늘목, 늘무기, 늘메기, 늘목동으로 불려오다 1914년 늘목리로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2개의 행정리, 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늘목리는 앞자리 부근에 있는 마을로 200년 전에 채광덕이란 선비가 터를 잡은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평강 채씨만 모여 살았다.

2) 제의과정

(1) 당의 구조와 형태

현재 산신제를 올리는 곳은 감악산 7부 능선에 자리 잡은 곱채골 산신당이다. 원래 곱채골 산신당은 감악산 정상에 있던 것인데, 그 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마을에서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아 30년 전인 1970년대에 이곳 마을 이장인 채수호씨가 주동이 되어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현재 곱채



21-4. 감악산 산제당 비둘대왕당

골에 자리 잡은 제당에는 특별한 신체가 없으나 감악산 정상에 있었을 때에는 남서낭, 여서낭으로 불리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30년 전에 군인들이 이 느티나무로 밥을 해먹고 눈과 팔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의 곱채골 산신당은 수직으로 선 바위가 연하여 병풍처럼 둘러 있는 곳으로 우물당이라 불리는 곳 외에는 전부 바위로 신체가 상정되어 있다. 비둘대왕당, 우물당, 상당 등 3개의 제당으로 구성되어있다.

(2) 제의절차

이 마을에서는 산신제 지내러 제당에 가는 것을 노구메 드리러 간다고 하거나 산치성 드린다고 한다. 제의는 음력 3월 7일 혹은 14일 등 7과 연결된 날로 꽃피고 날 좋은 때로 잡는다. 이 날에 좋지 않은 일이 겹치게 되면 제일을 미루어 다른 날로 잡아 제를 올린다. 산신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날을 잡는 것 외에는 개별적으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각기 제물을 올리고 개인 치성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제의는 마을 단골 만신에 의해 주재되며 그 비용은 마을 사람들 각자 성의껏 추렴하며, 만신은 이 비용으로 함께 굿을 할 무당들을 불러 굿을 진행한다.

제물은 농사를 지은 수확물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직접 경작하여 추수한 팥, 수수, 조, 콩, 쌀 등으로 팥떡, 수수떡, 인절미, 송편, 두부, 노구메를 준비하고 이 밖에도 삼색과일과 고사리, 도라지, 숙주 등 각종 나물을 준비한다. 제주는 막걸리나 동동주를 쓴다. 제물은 주로 집안의 가장이 지게로 운반하거나 안주인이 머리에 이고 당으로 간다. 도착하면 각자 자기 몫의 젓상을 차린다. 순서대로 진설하기 때문에 당 주변에는 제물이 넓게 차려진다. 제의는 주로 자기 집의 안녕과 복을 비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의 순서는 먼저 우물당에 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한 후 절을 하고, 비뜰당에 가서 준비해온 노구메를 적당한 자리에 진설한다. 이곳에서 안녕과 복을 빌며 제를 지낸다.

제물을 진설하고 개인적으로 비손한 다음에는 무당굿이 진행된다. 늘목 2리 당골 무당이 주로 굿을 맡아서 하고 북, 팽과리, 징잡이 등 악사는 외부에서 청해온다. 무당굿중에 각각 개인별로 소원을 빌며 소지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상당에서 제를 올린 후 고시례를 하면 제는 끝이 난다.



21-5. 감악산 산제당-상당



21-6. 감악산 산제당-우물당

(3) 결 산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준비해온 제물로 함께 음복을 하고 남은 음식은 집에 싸가지고 가 가족들과 함께 음복한다.

- 제보자 : 채수호(남, 65세, 늘목리가 고향, 이장, 음식점 경영)
이기순(여, 67세, 양주군 이대면에서 16세에 이곳으로 출가)

21-5. 연천읍 차탄 2리 군자산 산신제

1) 마을개관

원래 연천군 현내면 지혜동리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지혜동리를 차탄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내면에 편입 하였다. 현재 4개의 행정리 35개 반으로 이루어진 연천군의 중심지이다. 이곳은 마을의 공동제의라기 보다는 무당이 중심이 되는 무당굿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군자산 산신제로 불리며 매년 음력 4월 20일에 행해지고 있다. 굿의 주무는 서맹임 무녀로 16년 전 당할머니의 현몽으로 군자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제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제의절차

(1) 당의 구조와 형태

군자산은 연천읍 차탄리와 군남면 삼거리, 선곡리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327.8m로 보개 산 여맥에 있는 산이다. 당은 군자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드럼통으로 쪼개어 만든 한 평 남짓한 주실과 맞배형으로 스테이트 이중 지붕을 덧씌우고 사방이 트인 형태이다. 당집 왼쪽에는 나무를 신체로 삼아 당할머니를 좌정시키고 오색천을 감아 두었다. 당 내부에는 흰 실타래를 걸쳐놓은 바윗돌을 신체로 미륵장군을 모시고 있다. 산신제의 주무인 서보살의 꿈에 현몽하여 땅에서 꺼낸 돌을 미륵장군으로 모신 것이다. 당에는 옥수라고 부르는 샘물이 있다.

(2) 제의과정

산신제는 서보살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일부와 그와 동류의식을 가

지고 있는 무속인들에 의해 대동굿 형태로 산신제를 전승하고 있다. 이 날 행하는 산신제는 이 제당에서 열리는 굿중 가장 규모가 큰 판으로 벌어진다.

제물은 예전에는 백설기, 미나리, 조기와 밥을 올렸다. 당시에는 4월 20일 날 굿을 하고 5월 단오 때 산 정상에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고 한다. 지금은 당 할머니를 따르는 신도들과 무속인들이 제의 경비를 마련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굿은 부정풀이 부터 12거리가 진행되며 화재의 위험 때문에 다른 산신제처럼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3) 결 산

제의가 끝나면 복떡이라고 하여 제물을 경로당 등에 돌려 나누어 먹었다. 현재 서보살은 이 산신제를 연천읍 부인회 또는 관공서를 통해 대동굿으로 개칭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제보자 : 서맹임(여, 69세, 황해도 출신, 34세에 내림굿 후 이 지역 단골로 활동)

22. 오산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2-1. 금암동 당집 및 우물

1) 제당 형태 및 규모

이 마을의 제당은 삼면을 시멘트 벽돌로 세우고 기와마루를 제대로 올린 잘 지은 당집과 우물로 구성되어 있다. 당집은 정면 274cm, 측면 304cm, 높이 158cm의 규모이며, 정면은 문을 달지 않고 안쪽 벽과 이어서 시멘트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 현재의 당집은 40여 년 전에 새로 지은 것이다.



22-1. 금암동 당집 전경

2) 제당 위치

금암동은 수청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도로 끝에 위치한 마을로,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이라는 지형이 어울릴 정도로 아늑한 마을이다. 비단 금(錦)에 바위 암(岩)자를 쓰는 마을 지명처럼 비단결 같이 무늬 있는 돌이 동네 전체



22-2 금암동 당집 내부

에 많이 있다고 하며, 지석묘가 보존되어 있고 금바위라고 부르는 큰 바위가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옆에 함께 있는 은행나무와 함께 마을에서 위하는 바위와 나무로 삼고 있다. 당집은 마을 뒤 야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우물은 당산을 오르는 길목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의 당집은 40여 년 전에 벽돌집에 기와지붕을 이어 새로 지었다.



22-3. 금암동 당우물

3) 제의유래 및 내용

금암동은 큰말, 작은 말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주민의 성씨는 각성반이로 예전에는 전씨가 많았는데 지금은 우씨가 많다.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산신 하강일인 음력 10월 초하룻날 밤 12시에 산제를 지낸다. 제물은 집집마다 제의 비용을 거두어 소머리, 북어 10마리, 닭 두

마리, 대추 한 되, 밤 한 되, 감 10개 등을 준비한다. 마을 뒤를 감싸고 있는 도덕산 산신령을 위한 것으로 산신소지와 대동소지, 그리고 각 세대주별로 개인소지를 올린다.

- 제보자 : 노한문(남, 67세, 금암리, 상쇠)
- 최장희(여, 66세, 노한문씨 부인)
- 전응식(남, 71세, 금암리, 상쇠)

22-2. 갈곶동 당집

1) 제당 형태 및 위치

갈곶동의 제당은 정면, 측면 360cm 규모의 시멘트 벽돌담에 청색 기와를 얹은 당집으로 정면에는 여단이 대문을 달았다. 뇌머리산 가운데 있는 작은 과수원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매년 10월 초하루에 당제를 지내고 있으며 과수원 옆 동장 댁에서 당을 관리하고 있다.



22-4. 갈곶동 당집

22-3. 동탄면 금곡2리(신암) 산제사

1) 마을개관

금곡리는 크게 소일(쇠실)과 신암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1리와 2리로 구분된다. 신암마을은 팔봉산의 밑자락에 위치한 마을로써, '큰 바위섬에 새로 생긴 마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오산시에서 시내버스로 대략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며, 동탄면사무소 소재지인 오산리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

2) 당의 위치와 형태

신암마을의 당은 마을 뒷편에 있는 팔봉산의 북쪽 자락에 있는 계곡으로 당골이라고 부른다. 당은 당목이 하나 있으며 참나무이다. 당에서 밑으로 약 20m 지점에는 샘이 있는데, 당골 우물이라고 한다. 당골우물은 현재 시멘트로 만든 뚜껑을 얹어 놓았다. 과거에는 이 물을 길어다가 마을의 식수로 사용했다고 하며, 현재는 당제사 때 정화수로만 쓰일 뿐이다.

3) 제의절차 및 내용

이 마을의 제의는 당제사(산제사)라고 하며, 음력으로 10월 1일 10시경에 지낸다. 예전에는 9월 말일에 지냈는데, 10년 전부터 10월 1일로 고정하였다. 주요제물은 황소 1마리를 통째로 제물로 삼았지만, 현재는 소 안심과 간만을 맞춰서 쓰고 있다. 소를 잡아 쓸 때도 간과 안심만으로 제물을 올렸던 전통 때문이라고 한다. 소를 한 마리 살 때는 집집마다 서 말에서 다섯 말 정도 쌀을 거두어 비용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15,000원씩을 거두어서 제물을 구입한다. 당주는 제의 3일 전에 뽑는다. 제육은 일주일 전에 오산의 정육점에 맞추어 놓았다가 제의 당일 아침에 가져다준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관은 재배를 하며, 마을의 건강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축원을 간략히 한다. 이것이 끝나면 정수를 당목 주위에 뿌린다. 제관이 제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유사 두 명은 금줄을 끈다. 제의가 끝나면 이장은 간을 조금 썰어서 창호지로 싼다. 유사들이 끈 금줄로 간을 담은 창호지를 당목에 묶어 놓는다. 제물을 내려서 지계에 없는 동안에 이장은 제사상에 깔아 놓았던 창호지를 불에 태워 버린다. 이것이 끝나면 유사와 이장이 샘의 뚜껑을 덮고, 당주는 제육을 지계에 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제의를 하는 시간은 매우 간략해서 10분 정도면 끝이 나며, 당에 오른 후 약 30분 정도 만에 내려온다. 당주는 먼저 집으로 내려와서 마당에 명석을 깔아 놓는데, 이것

은 제비를 낸 사람들에게 제육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음복은 당주 집에서 제육으로 만든 음식과 소주로 대신한다. 결산은 연말 마을의 치성회에서 치루는 것이 통례이며, 당주에 대한 특별한 사례금은 없다.

- 제보자 : 김동하(남, 1925년생, 동탄면 금곡 2리)
이홍상(남, 1947년생, 동탄면 금곡 2리)

23. 용인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3-1. 지곡리 산제사

1)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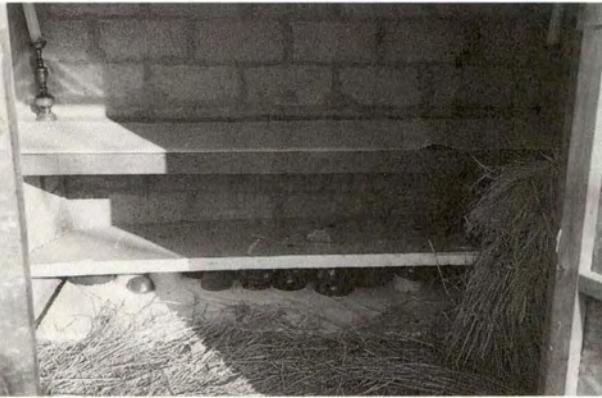
지곡리는 지곡 1리인 아랫말(하동)과 지곡 2리인 윗말(상동)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지곡1리는 한씨가 많이 살고 있는 한촌말, 박씨가 많은 박촌말 그리고 중간말로 구분되어 있다. 지곡2리에는 사기막, 대라울이 속하며, 개와집말(기와집말)에는 음애(陰崖) 이자(李 翥)의 고택이 있다. 한산 이씨는 중종조에 음애(陰崖) 이자(李 翥)가 지곡리에 사패지를 하사 받으면서 입향하여 그때부터 14대째, 약 500년간 살고 있다. 그 후부터 지곡리는 한산 이씨의 세거지가 되었으며 이자의 고택과 묘가 있다. 예전에는 35가구 정도가 거주했는데 최근에 외지인들이 전원주택을 지어 많이 유입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권은 수원시에 속한다. 마을 주민의 약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벼농사, 밭농사의 비율이 반반 정도이며, 주산물은 고구마, 원예와 오이농사 정도이다. 마을에는 회관 옆에 교회가 하나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니지 않고, 일부 신갈에 있는 천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며, 약 5년 전에 만신이 차린 절이 있다.

2) 당의 구조와 형태

이 마을의 제당은 지곡 2리의 산제봉에 있는 당집과 마을로 들어오는 큰길가의 아래, 위 입구와 중간에 장승이 각각 2기씩 서 있다. 제당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부분 왼쪽으로 당우물도 남아 있다. 제당은 30여 년 전에 새로 지은 시멘트 건조물로 정면, 측면 길이가 각각 243cm,



23-1. 지곡리 산제당



23-2 지곡리 산제당 내부



23-3. 묶은 당 터주가리를 나무에 묶어둔 장면

도로포장 공사 때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높이 230cm 규모의 정사각형 건물이다. 제당 옆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3-4년 전에 별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두었다. 제당 내부에는 나무판으로 만든 제단이 있고, 그 아래 제기를 보관해 두고, 오른쪽에 조라 항아리와 주저리를 두었다. 산제당에서 모시는 신은 산신으로, '할머니산신'이다. 장승은 채봉골에 2기, 마을 중간의 장승백이에 2기, 새로 생긴 보라리-지곡리간 새 도로면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 입구에 화강암으로 세운 석장승 2기가 있다. 즉, 옷말, 중간말, 아랫말에 장승이 있는 것으로 모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쌍을 이루고 있다. 옷장승만 150cm 정도 높이의 소나무로 만든 옛 장승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2002년

(3) 제의절차

이 마을 제의는 산제사라고 하는데 매년 음력 10월 1일로 날을 정해 놓고 지곡 1·2리가 함께 지내고 있다. 제관은 9월말에 선정하며, 우선 지곡2리 주민들 중에서 찾게 되는데 이는 산제당이 지곡2리에 있어서 일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제관 겸 당주 1명, 축관 1명, 주비 7명을 선정하는데 제관이 축관을 겸할 수도 있다. 주비는 제를 돕는 준비위원으로 지곡리 1반에 1명씩 뽑으면 7명이다. 당주는 부정이 거의 없는 노인 중에서 정하며 지금도 금기를 지키고 있다. 당주로 정해지면 10월 초하루에 대문 밖에 황토를 세 군데 놓아 부정을 막는데, 이후로는 당주와 제관, 축관만 출입을 할 수 있다. 제비는 10월 초하루 아침에 '주비'들이 집

집마다 다니면서 걷는다. 1999년에는 한 가구 당 1만 5천원씩 거두었다. 각자의 성의대로 더 내기도 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제비를 내지만 개신교인들은 내지 않는데, 이로 인한 별다른 마찰은 없다. 제물장은 10월 1일 산제사 당일엔 준비들이 수원으로 보러간다. 삼색실과(밤, 대추, 감), 북어 20마리, 미역 3일, 소머리, 적으로 쓸 소고기 그리고 모자라는 제기와 소지 종이도 사온다. 장을 볼 때 흥정은 하지 않는다.

제물 준비는 조라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주는 조라를 만들기 위해 9월 그믐 날 당집에 보관된 조라 향아리를 집에 가지고 온다. 깨끗이 씻은 향아리에 찢은 밥·엿기름·누룩을 버무려서 담는다. 이것을 10월 초하루 자시에 당주 부부가 가지고 당집에 간다. 조라는 하루 정도만 지나면 발효가 되므로 이것을 걸러 제주로 쓴다. 제물은 '주비'들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소머리, 떡시루, 두부 3모로 간단하다. 소머리는 당집 옆에 술을 걸어두고 삶고 메도 그곳에서 직접 짓는다. 제물상차림은 제사의 맨 윗줄 중앙에 작은 양은술에 지어 술 채로 올린다.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시루

채로 백설기를 놓고, 세 번째 줄 가운데 소머리를 놓는다. 그 양옆에 촛대를 세우고, 네 번째 줄 중앙에는 탕 3그릇을 둔다. 탕 그릇 위에 두부를 올리고, 탕의 서쪽으로 미역 잔각 3잎을



23-4. 옷장승



23-5. 중간장승



23-6. 이랫장승

놓는다. 그 밑줄에는 소고기적 3접시, 대추, 밤, 감을 놓고 북어포는 시루에 찌고 접시에 3마리씩 9마리를 놓고, 그 아래 조라술 3잔을 올린다. 제의 과정은 당주(제관)의 재배와 축관의 독축, 소지로 간단하다. 소지는 준비들이 각자 자기 마을의 세대주 소지를 올린다. 산신제후에는 옷말 사람은 옷말 장승에, 아랫말 사람은 아랫말 장승에 간단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장승제를 지낸다. 제의후 마을전체가 모이는 음복은 없다.

□ 제보자 : 이선규(남, 74세, 지곡리 243번지. 한산 이씨 음애 이자선생의 14대손)

23-2. 양지면 송문3리 반정마을 당집

1) 마을개관

송문리는 용인시에서 42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은산(형제봉)이 마을 뒤에 있고 마을 위치는 서향이다. 마을 사람들은 논농사와 밭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은 타지 인들이 많이 들어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풍수지리상 이 마을은 동그란 소반 모양의 금반형이라고 하며 송문리는 전주 유씨 집성촌이다.



23-7. 송문 3리 당집

2) 제당의 형태 및 규모

제당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정면 252cm, 측면 266cm, 높이 205cm 규모의 건물로 정면에 문을 달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다. 당 내부에는 그릇과 향아리 등 제의에 필요



23-8. 송문 3리 당집(내부)

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측면 중 입구 쪽을 바라보는 면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대쪽에도 건물을 하나 마련해 두었다. 산 쪽으로 약 20m 정도 거리에는 산에 제를 올릴 수 있는 제단을 설치하였다. 제단은 땅을 다진 후 짚을 올려놓은 상태로 남아있다.

23-3.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 산지사

1) 마을개관

초부리는 용인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광주읍내와도 거의 같은 거리라고 한다. 초부리는 상부곡과 하부곡으로 나누어지는데, 45번 국도에서 약 1.6km 정도 계곡을 따라 들어온 곳에 상부곡마을이 위치한다. 하부곡은 45번 국도에서부터 약 1km 내의 마을이다. 하부곡은 약 150가구가 거주하며, 상부곡은 50가구 정도로 작은 편이다. 대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지만 자급자족하는 편이며, 이외에 마을에 들어온 공장 등에 나가기도 한다. 상부곡만 하더라도 26개소의 공장이 있다. 농사가 취약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젊은이들은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나가 살기 때문에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 대부분은 외지에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학교는 대개 모현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왕산초등학교를 다니며, 중고등학교는 용인이나 신갈, 그리고 수원 등지로 통학한다. 교회는 하부곡에 초부장로교회가 있지만 신도는 별로 많은 편이 아니다.

초부리의 산지사는 상부곡과 하부곡이 같이 지내고 있으며, 제관들도 2명씩 분담하여 뽑는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하부곡에서 거주하다가 갈담리로 이사한 사람의 장례가 있어 하부곡 사람들은 상가집에 다녀왔기 때문에 제의에 참가하지 못했다. 상부곡에서는 산지사를 위해 초상집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2) 당의 구조와 위치

산지사터는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안산의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을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 걸어서 15 - 20분이 걸린다. 이곳으로 오르기 전에 샘이 있으며, 샘은 당일 아침에 물을 퍼준다. 산지사터는 왼편에 벅가리대를 세워 제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며, 오른편에 삼단의 구조로 땅을 파놓았다. 맨 위쪽에는 소머리를 놓고, 다음 단에는 기타 제물을 그리고 하단에서는 제관들이 절을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節目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築壇作三層 祭官立最下位이라고 하여 단을 삼층으로 쌓고 제관은 맨 밑에 선다고 하였다.

3) 제의 진행과정

이 마을에서는 제의일을 10월 초에 택일하는 방식을 취한다. 1998년은 10월 5일로 정해졌

는데, 이는 마을에서 보관 중인 산신제절목(山神祭節目)을 보면 산신하강일(山神下降日)이 제시되어 있어 10월초에 들어 가장 빠른 길일을 택하게 된다. 만약 산신하강일을 전후로 해서 마을에 초상이 나게 되면 날을 물리는데, 달을 바뀌어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산신하강일은 다음과 같다.

甲子 乙丑 甲戌 乙亥 庚寅 庚午 庚戌 庚申 辛亥
辛卯 壬子 壬申 壬戌 癸丑 癸酉 甲午 甲寅 己巳
己卯 己酉 癸卯 丙戌

택일과 함께 제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3헌관과 축관을 뽑는다. 1998년의 경우 초헌관은 이광순(남, 64세), 아헌관 송명선(남, 57세), 종헌관 이동배(남, 44세), 그리고 도가집이자 축관으로 이용희(남, 63세)씨가 맡았다. 종헌관인 이동배는 이장으로서 당연직이다. 원래 하부곡과 상부곡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하부곡 사람들이 초상집에 참석하느라 상부곡 사람들로만 정하게 되었다. 도가집을 선정할 경우 젊은 부부의 경우 제외하는데, 젊은 여자의 경우 달거리 등 부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올해 도가집으로 선정된 이용희씨는 부부와 아들만이 살기 때문에 뽑혔다.

뽑힌 사람들은 비린내 나는 음식인 생선종류나 새우젓, 개고기 등을 금한다. 도가집을 제외한 사람들은 외지출입을 할 수 있으나, 부정한 것을 보면 안된다. 금줄과 황토는 3일 전에 도가집에만 치는데, 금줄에는 술잎을 꽂아둔다.

제의 전날 저녁에는 도가집과 헌관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목욕재계를 한다. 제의날 아침이 되면 헌관들은 도가집으로 모여 하루 종일 같이 행동을 한다. 이때는 도가집에서 식사를 마련하게 된다. 특징적인 것은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기가 있다는 것인데, 산지사가 끝난 후에야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물구입품목에 은단이 들어 있다. 절목에도 前期二日入齋 不喫腥掌酒草 不忘語笑一心 恭敬勿雜思亂念 라고 하여 재실에 들기 2일전부터 금해야 할 음식과 행동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관과 도가집은 아침에 당으로 오르는데, 이때 소머리를 가져다 놓는다. 제기 보관장소의 이영을 새로 없애주며, 당 주위를 청소한다. 그리고 우물을 청소하고 이 물을 떠다가 제기를 닦아준다.

제물의 구입은 이들을 도와주는 유사들이 담당한다. 제의 당일 날 새벽 용인시장 내에 있는 형제상회로 가서 제물을 구해온다. 제물로는 대추·밤·감 등의 삼실과, 누룩, 양초, 향,

소지지, 누룩을 짤 때 사용하는 배보자기 등이다. 제육인 소머리는 정육점에 미리 통보해서 맞춘 후에 당일날 구해온다. 현재 정육점을 하는 동네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다. 원래는 통돼지를 구해서 제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마을사람별로 분육을 했으나, 6 - 7년 전부터 소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분육을 하는 일이나 돼지를 잡는 일 등 여러 가지로 번잡하기 때문에 소머리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구입하는 제물의 값은 흥정을 하지 않는다. 올해의 제물구입비로는 약 12만원 정도가 들었으며, 소머리값만 5만원이다.

도가집에서는 새벽에 구입한 누룩으로 조라술을 준비하는 일과 산지사예 쓸 메를 짓는 일이다. 누룩과 쌀 서되 서흙을 넣어 술을 만드는데, 건넛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익힌다. 당에 오르기 전에 도가집 부인이 배를 이용해서 삭혀진 누룩과 밥을 짜서 술을 담는다. 그리고 메는 도가집의 부엌에서 장만하여 오르기 전에 그릇에 퍼놓는다. 준비가 끝나면 밤 11시 20분경에 제물을 지게에 지고 당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당에 오르는 사람은 도가집과 현관들 뿐이며 여자도 참가할 수 없다. 당으로 가는 산 밑에 우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손과 얼굴을 씻었다. 원래는 목욕제계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이 약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시 40분 경에 당에 도착해서 낮에 준비했던 장작에 불을 지폈다. 그런 후 산지사터를 고



23-9. 상부곡 산제당 제물상차림

르고 신에게 고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제관들에 대해 호명을 하는데, 호명을 받은 초헌관부터 무릎을 꿇어앉는다. 호명이 끝나면 세 사람은 4배를 하고 물러난다. 신에게 고하는 것이 끝나면 제물의 진설을 시작한다. 먼저 상단에 소머리를 얹고 중간 단에는 짚을 깔고 제물을 진설하며, 초는 사발을 뒤집어 촛대로 사용한다. 이때 제기들은 주저리에서 꺼내 주저리와 제단의 중단에 뒤집은 상태로 놓아두었다. 제물의 진설은 다음과 같다.

제물의 진설은 간략하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았다. 진설이 끝나면 초헌관이 사배를 드린 후에 잔을 올린다. 올린 잔은 왼편부터 놓으며, 잔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 초헌관 후에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

을 한 후에 아헌관이 사배를 하고 잔을 올려 가운데 놓는다. 그런 후 종헌관이 사배를 한 다음 잔을 오른편에 놓는다. 헌관들의 절이 끝나면 음복례에 들어간다. 음복례는 초헌관만이 하는데, 초헌관이 당 앞에 부복을 하고 앉아 있으면 축관이 잔을 따라주고 소의 귀를 조금 베어내서 준다. 초헌관은 술과 음식을 입에만 대고 물린다.

음복례가 끝나면 소지를 시작한다. 축문소지는 축관이 하고 각 헌관들이 한 장씩 대동소지를 올려준다. 축문소지 시의 축원내용은 “풍년 이뤄지고 하시는 일이 술술 잘 풀리도록 산신령께서 굽어 보살펴 주소서”, 초헌관의 축원은 “상하부곡 주민들 아무 1년동안 질병없고 건강히 농사는 농사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편안히 근무해주시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소지까지 끝나면 철상에 들어가며, 올라온 사람들이 과일을 하나씩 먹는다. 이때 제기들은 다시 주저리 속에 넣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장작불을 끄기 시작한다. 하산하기 시작한 시간은 약 0시 15분 경으로 다시 도가집으로 들어갔다. 도가집에서는 아침에 노인들에게 드린 음복을 위해서 이때부터 소머리를 삶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것은 당으로 오를 때 동네의 개들이 짖어댔으나, 하산하는 동안에는 짖지 않고 조용하게 있다는 것이었다. 오른 사람들도 이 현상을 보고 산지사가 신통력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4) 결 산

산지사를 위해 각 집에서 돈을 거두는데, 올해의 경우 제사를 지낸 후에 건기로 하였다. 작년의 경우 하부곡에서 433,000원, 상부곡에서는 205,000원을 거두었다고 한다. 특히 이 마을에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협찬금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편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산지사가 끝난 후에 ‘山神祭需用記’를 작성한다. 한 사례로 1979년의 경우를 보면 첫 장에 乙未 十一月 初五日 有司 李光淳이라 적혀 있어 이 해의 제의일과 도가집을 알 수 있다. 2 - 4쪽까지는 제비를 낸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으며, 5쪽에는 수납금 내역이 적혀 있다. 상부곡 30명과 하부곡 65명이 낸 총액은 9만5천원이고, 이월금이 2만5백4십원, 이자 5천3백원이다. 지출금은 72,150원이며, 나머지는 이월금이다. 흥미로운 것은 맨 끝에 債務者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고, 괄호 안에 월 二分이라는 이자세를 기록한 내용이다. 남은 금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산신제 비용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지출금은 다음 쪽에 적혀 있는데, 이를 1997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장에는 다음 해의 유사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1979년도 지출금		1997년도 지출금	
豚 1 頭	47,260원	미원 · 풍풍 · 양초 · 술약	6,450원
밤 1 升	1,500원	은단 3개	4,500원
대추 0.5升	1,500원	배추 · 마늘 · 파	6,500원
생강 一근	100원	후레쉬 약	6,000원
사고지	200원	도마 大	12,000원
배 五個	1,000원	배 1마	3,000원
창호지 1枚	80원	소머리 大 1	90,000원
배 1尺	1,000원	창호지 · 소지	3,100원
은단 1匣	300원	단감 5개	5,000원
양초	250원	대추 1홉	1,000원
펜	100원	밤 1홉	1,000원
술약	700원	소주1박스(20병)	14,000원
白米 貳斗	8,000원	음료수 pt병 5병	5,500원
酒 2,2되	4,060원	후추 1통	1,600원
燃料	2,500원	생강 2근	4,000원
장유	2,500원	장유대 · 쌀값	150,000원
여비	1,100원		
計	七萬貳壹百五拾원	총지출금액	314,650원

장유대의 경우 1996년에는 십만원을 주었다. 이것은 도가집에 대한 일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지사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은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의 경우 팔세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마을이 평안하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제사날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모시는 집에서는 고사떡을 해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 제보자 : 이용희(남, 63세, 농업, 올해 도가집을 맡았으며, 연안 이씨로 17대째 이곳에 거주)
 이동배(남, 44세, 농업, 이용희씨와 같은 연안이씨로 증현관을 맡았으며, 현재 이장)
 송명선(남, 57세, 농업, 아현관을 맡았으며, 양평에서 이주한 지 30년 되었다)
 이광순(남, 64세, 농업, 초현관을 맡았으며, 성주 이씨로 원래는 예버랜드가 있는 포곡면 가실리가 고향인데, 73년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24. 의왕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4-1. 왕곡동 산신제

1) 마을개관

왕곡동은 수원에서 안양 방향으로 지지대 고개를 넘어서 과천간 고속국도의 오른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청풍 김씨가 입향 성씨로서 김우중이라는 분이 목사로서 있을 때 이곳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형세가 좋아서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2) 당의 구조와 위치

당은 백운산의 등산로 입구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초가집에 토담으로 만들었으나, 20년 전에 현재와 같이 적벽돌에 기와를 얹었다. 당은 222×223cm 정도의 정방형이며, 당의 앞쪽에 여단이문을 내었다. 당 앞에는 시멘트를 덮고 앞쪽으로 기와를 4장 깔아 놓았다. 당안에는 제단을 폭 60cm, 높이 30cm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130cm 정도의 높이에 널빤지를 설치하여 위패 2개를 모시고 있다. 이외에 조라술을 담그는 단지 등이 놓여 있다.

마을의 입구의 오른쪽에는 장승을 세워 놓았으며, 약 5년 정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장승



24-1. 왕곡동 당집



24-2 왕곡동 장승

이 10여기 정도가 있다. 장승의 나무 폭은 약 10cm 내외로 가는 편이다. 가장 큰 것은 천하대장군으로 143cm, 지하여장군은 124cm 정도이다.

3) 제의과정

이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함께 장승을 세운다는 점에서 상당과 거리제로서의 장승제 분할이 이루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초 1일로 정했으나, 마을에 초상이 났기 때문에 다시 날을 정해야 한다. 대개 20일 안에 다시 택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소를 구입한 후에 났기 때문에 9월 30일에 분육은 하고 제의날만 변경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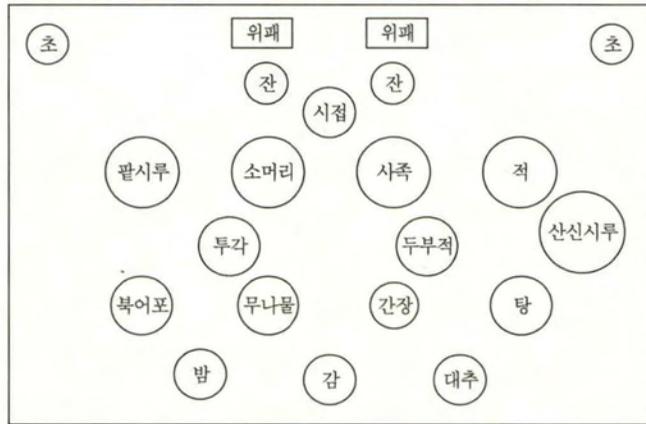
제물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이다. 소는 순수한 황색에 수놈을 구해서 사용한다. 이 장이 주관이 되어 동네의 소 중에서 정하며, 외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동네사람 중에서 소를 먹이는 사람까지 정해야 한다. 제의 전날 소를 당에 올라와서 잡으며, 산신제에 쓸 제물을 제외한 선지국과 내장으로 점심을 먹고 나머지는 분육을 한다. 올해의 분육은 서근에서 약간 모자란다. 산신제에 올리는 부위는 소머리와 4족, 그리고 적거리 10근 정도이다. 소를 잡을 때는 안심 2근 정도를 당 앞의 자작나무에 걸어놓고 술을 부어 놓는다. 이것은 소를 잡았음을 고하는 제의절차이다.

당주는 생기복덕을 따져 정하며, 이외에 축관과 유사 등을 열흘 전에 뽑는다. 생기복덕은 과거의 경우 동네의 노인들이 보았지만 요즘은 이를 보는 사람에게서 정해오며, 이때 택일도 같이 받는다. 당주로 뽑히면 집앞에 금줄을 걸고 황토를 뿌리며, 저녁마다 집에서 목욕제계를 한다. 원래는 마을의 개울에서 했지만, 간소화되는 바람에 집이나 목욕탕에 가서 하는 편이다. 당주는 바깥출입을 금할 뿐만 아니라, 육고기를 먹지 못한다. 당에는 금줄이나 황토를 뿌리지 않는다. 이때 마을에서는 일체 짐승 도살을 금하는 특징이 있다.

제사를 올리기 전에 당주는 당주집의 쌀로 녹음메 1그릇을 올리는데, 이를 전부터 매일 저녁 부부가 올라가서 메를 짓고 올려준다. 녹음메 올리는 시각은 이를 전과 전날은 저녁 7시 경이며, 제사 지내는 날은 제사가 끝나고 나서 당주만 남아서 올려주고 내려온다. 이외의 제물은 마을에서 구입해서 당주집에 가져다준다. 제물 구입처는 예전에 수원외의 영동시장을 많이 이용했지만, 요즘은 안양으로 나간다. 제물은 감·밤·대추의 삼실과와 고사시루로 팔시

루 서말, 산신시루로 백설기 석되, 조라술 서홉 등이 있다. 이외에도 두부, 북어포, 소탕(무·다시마·두부)은 반 그릇씩 장만한다. 제기는 당주집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의 당일날 아침이 되면 유사사령으로 뽑힌 사람들이 산에 가서 장승으로 쓸 나무를 4그루 베어 당주집으로 온다. 이때 장승을 깎는 사람도 유사사령이다. 장승을 세우는 곳은 2군데로, 마을입구와 지지대 고개를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세운다. 해질 무렵 간단한 제물과 술을 마련해서 따로따로 유사사령이 나누어져 세울 곳으로 간다. 도착해서 장승을 세우고 북어를 장승에 묶은 후 술을 올린 후 절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제물 준비가 끝나면 저녁 7시쯤 당에 오른다. 이때 제물 운반은 유사사령이 맡았는데, 요즘은 차를 이용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운반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 당에는 당주와 축관, 그리고 유사사령이 오른다. 이때 유사사령은 제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한다. 당에 도착하면 제물의 진설에 들어간다. 당은 전날부터 당주가 청소를 해 놓은 상태이다. 제물진설의 차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46〉 왕곡동 산신제 제물상차림

제물 진설이 완료되면 눕혀있던 위패를 세워 밑으로 내린다. 그리고 나서 제관과 당주가 잔을 올리고 절을 한 후 축관이 축문을 읽고 소지를 드린다. 그런 후 다시 제관과 당주가 절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어서 소지를 시작하는데, 소지는 마을소지와 개인소지를 올린다.

마을소지는 왕정마을과 골사그네, 통미 등 3마을을 말한다. 마을소지를 올릴 때의 축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소지는 왕정마을 소지입니다. 왕민마을 동민이 이 정성껏 제물을 차려 산신께 올리오니 이 정성을 깊이 받으셔서 동네 잘 되고 일년 열두달 아무일 없이 지내

維歲次 戊辰十月戊辰
 初一日戊辰幼學光遠 敢昭告于
 土地之神 白雲山神靈 山下居住
 大小人家 恒時保佑 年中泰平
 謹次餅果 致誠納酌 伏祝于靈 尚
 饗

〈1988년도 제의 때 사용한 축문〉

維歲次 丁丑十月甲午朔
 初二日乙未山下居 幼學
 金裕性 敢昭告于
 白雲山之神曰赫赫
 明神鎮此一洞潛幹陰權普垂
 靈貺體物 不遺洋洋在上民
 無大小家戶祝頌神人相須
 如桴捷應靡掃災沴麻垂
 無強於昭孔通肅然□爽齊
 心明薦庶冀歆
 饗

게 해주옵소서. 가축 우마 농가도 가축이 탈 없
 이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보다 앞서 시기에 제작된 축문으로 제보자의
 아버지가 작성한 축문은 이와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는데, 대략 1937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
 인다.

소지가 끝나면 철상과 함께 마을회관으로 내려
 온다. 1972년 이전에는 마을회관이 없었기 때문
 에 당주집에서 음복을 했다. 당주는 더 기다렸다
 가 녹음메를 바친 후에 내려온다. 마을사람들은
 회관에 모여있다가 당에 오른 사람이 내려오면
 같이 음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결 산

이 마을에서 지내는 산신제는 마을의 안녕과
 무고함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의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외한 마을사람들이 만오
 천원씩 제비를 추렴하였다. 결산은 음복과정에
 하며, 당주에게는 수고비로 산신시루와 소 1족을
 준다.

이 마을의 산신은 남자신령이고, 고천지역은
 여신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왕정마을에서 먼저 산신제를 지내야 고천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천에서도 남자산신을 모시고 있고 왕정마을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
 의가 완전히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신제가 끝나면 철상을 하고 도당터로 내려와 무당이 주관하는 곳이 밤새도록 있
 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침략기 말기에 전승이 끊긴 실정이다.

□ 제보자 : 김규훈(남, 73세, 농업, 청풍 김씨 13대손, 당주, 축관을 맡아서 했으며, 아버님 대에도 축문
 을 작성해서 사용)

24-2. 고천동 산신제

1) 마을개관

고천동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인면에 속해 있었다. 1885년 별사근내(坪沙川)·고고리(古古里)·고우물(古井洞)·안골(內谷) 등의 4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 고우물의 '고'자와 별사근내의 '천'자를 따서 고천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은 안골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상업 지역이나 공업지대로 변모되어 과거의 농촌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마을의 토박이 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의를 전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2) 당의 구조와 위치

고천동의 본당은 오전동산 394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아파트의 개발 등으로 인해 1992년 현재의 위치인 고천당 산 14의 2번지 오봉산 임야 60여평을 구입하여 본제당을 세우게 되었다. 당은 '古川山神祭堂'이라는 현판을 걸어 놓았으며, 사각지붕에 파란색 기와를 얹고 적벽돌로 벽을 쌓았다. 네 군데의 모서리를 34cm 정도 나오게 하였으며, 한 변의 길이는 약 340cm이다. 당 앞쪽에는 여단이 유리문을 2개 설치하였고, 당의 북벽에는 유리창을 내었다. 당안에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 만든 제단이라 마치 책상의 구조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24-3. 고천동 제당



24-4. 고천동 장승과 솥대

안골의 마을입구에는 장승과 솥대가 세워져 있다. 마을 쪽으로 볼 때 오른쪽에 천하대장군과 솥대를 세웠으며, 왼쪽에는 지하여장군을 세웠다. 천하대장군은 높이 149cm, 직경 9cm 정

도이며, 윗부분에 얼굴을 그리고 소의 꼬리를 이용해서 수염을 단 형태이다. 천하대장군의 뒤쪽에는 솟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승과 거의 비슷한 크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구부러진 나뭇가지를 세우고 끝부분을 가지로 연결하여 마치 새 1마리가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였다. 지하여장군은 먹칠을 한 흔적이 거의 달아 없어졌으며, 비너를 꽂아놓은 것으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3) 제의과정

이 마을의 산신제도 역시 10월 초에 지내왔다. 올해의 경우 10월 1일로 정해졌는데, 9월 말 쯤에 의왕시내로 나가 택일과 당주 등을 선택받아 온다. 당주의 경우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적합하다고 하며, 이 나이에 든 사람 중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을 골라 당주로 뽑게 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통장이며, 당주 이외에도 당주를 보조하는 소임과 문서 등을 뽑는다. 요즘은 당주를 서로 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주를 정하는 것도 큰 일이 되었다. 당주로 뽑히면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근신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부정을 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달거리 등의 부정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주로 뽑히면 먼저 금줄을 치고 황토는 뿌리지 않는다. 당에는 금줄도 치지 않고 황토도 뿌리지 않는데, 마을사람들이 알아서 당 주위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 당주는 뽑힌 날부터 매일 저녁 집에서 목욕재계를 하며, 외부출입도 금하는 편이다. 현재 당주는 시내의 고천동에서 뽑지 않고 안골의 마을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경향으로 굳어졌는데, 시내의 경우 부정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골은 의왕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과 목축 등을 주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일은 제육으로 사용하는 소의 구입이다. 올해의 경우 오산 우시장에서 소를 구입하기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제의날에 맞춰 가장 근접된 우시장이 개설되는 곳으로 찾아가 구입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며칠 전에 구해왔으나, 요즘은 마을에 차도 있기 때문에 제의 전날 가서 구해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를 구하러 가는 사람은 통장과 당주 등이다. 구한 소는 당일 아침에 잡아 소머리와 족 부위를 손질하고 피로 선지국을 끓이며, 제물로 쓸 고기만 남기고 분육을 한다. 이외에도 밤·대추·단감 등의 삼실과, 마른 낙지, 다시마 튀각, 북어, 생숭어, 양초와 창호지 등을 구한다. 이런 물건들은 총무가 구해야 하는데, 총무가 없기 때문에 통장과 마을사람들이 수원의 영동시장에 있는 이천상회를 주로 이용한다. 물건을 구입할 때 값을 흥정하지 않으며, 좋은 물건으로 구해오는 편이다.

당주집에서 준비하는 것은 잡은 소의 각 부위를 조금씩 삼는 일이 있고, 이외에 팔시루 1말을 준비해야 한다. 삼는 부위는 소머리·우둔·족·염통·씨앗갈비·뼈도가니·결간(간 중에서 좋은 것)·천엽·양짓머리·곶창·안심 등이다. 또한 제주는 당주집에서 준비하여 전날 저녁에 당 앞에 물어놓고 제의에 맞춰 사용한다. 대략 24시 정도를 담가놓는데, 여기에서는 누룩으로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감주를 제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제물의 준비가 끝나면 당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 오르는 사람은 당주 내외와 소임 내외, 문서 내외, 통장 등이다. 제의는 대략 오후 6시부터 시작하여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올라와서 당의 오른편에 있는 바위로 가서 당주만이 절을 하는 등 간단히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의 제물은 당에 올리는 제물의 가짓수는 같으나 양은 적다. 당에서 제물진설을 하는 경우는 많은 제물이 그대로 오른다. 이때의 진설은 부인네들이 차린다. 특징은 초를 사용하지 않고 심지를 쓴다는 것이다. 제물진설이 완료되면 당주가 절을 한 후 문서와 소임이 절을 하고 독축에 들어간다. 축문은 1992년부터 한글로 적어서 사용하고 있다.

祝 文

유세차

정축시월 무오삭 초하루

신미유학 김희영 감소고우

백운산하 도당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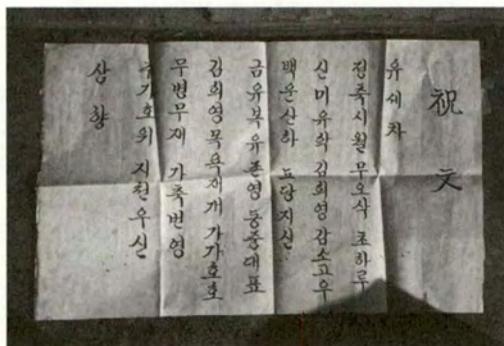
금유복유 존영 동중대표

김희영 목욕재개 가가호호

무병무재 가축번영

주가호위 지천우신

상 향



〈고천동 산신제 축문〉

독축이 끝나면 소지에 들어간다. 소지가 끝난 후 철상을 하며, 속쌀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를 지어 참여한 사람들이 '강주메'를 다 먹고 하산한다. 따라서 제물로 메는 오르지 않는 것이다. 마을로 내려와서는 당주집에 모이는데, 이때 동네사람들도 모여 있다. 당주집에서 선지국에 밥을 먹는 등 음복에 들어가며, 그 후 결산보고를 통장이 한다.

4) 결 산

제비의 추렴은 약 2만원씩 하는데, 약 180호 정도가 낸다. 이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거둔 돈으로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은 이월시켜 당을 보수하기도 한다. 만약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장이 알아서 채우며, 다시 걷는 일은 없다. 당주집에 대한 수고비는 별도로 지출하지 않는다.

- 제보자 : 김진항(남, 49세, 지물포 운영, 화성군 조암면에서 25년 전에 이 마을로 이주, 현 통장)
김희영(남, 68세, 이 마을에서 14대째 거주, 올해 당주로 뽑혔는데 3번째)

25. 의정부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5-1. 민락동 삼귀(三歸)마을 산치성

1) 마을개관

의정부시의 민락동은 행정구역상 송산동에 속한다. 의정부시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면서 포천군과 맞닿아있다. 남양주, 포천과 의정부를 가르는 용암산(477m)을 동쪽으로 등지고 앞으로는 시내로 나가는 민락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송산동은 용현동(龍峴洞), 민락동(民樂洞), 낙양동(洛陽洞), 고산동(高山洞), 산곡동(山谷洞)등 5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동이다. 송산동이라는 지명은 송산(松山) 조건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 하여 새 왕조의 부름을 여러 번 받았으나 벼슬을 버리고 이 곳에서 한거(閑居)하였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동(東)과 남(南)으로는 남양주시 별내면(別內面), 북(北)으로는 포천군 소흘면(蘇屹面), 북서(北西)로는 자금동(自金洞), 서로는 신곡(新谷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26.94km로 시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도농복합지역(都農複合地域)인 송산동은 최근 민락·송산택지개발 및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사회활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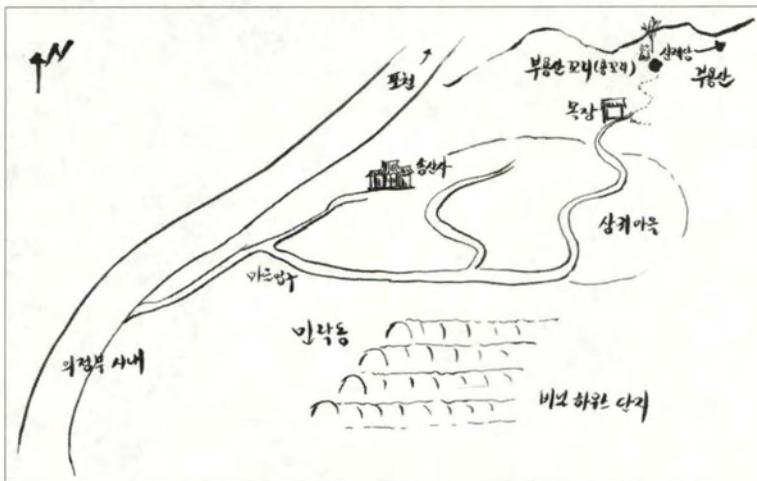


25-1. 민락동 삼귀마을 산제당터 터주거리

새로운 성장거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사지역인 민락동 삼귀마을은 송산사지(松山祠址가)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경기도 기념물 제42호로 고려말 여섯 충신의 절의를 추앙하여 1798년(정조 22년)경향의 사람들이 세웠는데,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그 뒤 1964년 유럽에서 150평 되는 옛터에 복원하였다. 조운의 호를 따서 이곳을 송산이라 하며 조운, 원선, 정구 등이 돌아온 곳이라 하여 삼귀(三歸)마을이 되었다. 삼귀마을은 현재 37호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가속화되지 않은 지역에 하나이다. 대부분 논농사와 함께 과수, 축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야채 등을 주력 상품으로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어, 고소득을 올리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뒤 야산에 9부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뒷산의 줄기는 부용산(211m)으로 마을의 남서쪽에 자리하며 용암산 줄기인 깃대봉을 마주하고 있다. 제당은 마을 가운데 길로 약 15분 정도 걸어올라 갈 수 있다. 제장에는 오리나무가 신목으로 되어있다. 원래 신목은 소나무였으나 고사(枯死)되고 현재의 오리나무로 신목을 삼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오리나무는 말구 지름 30cm 정도이다. 가지가 두 줄기였으나 하나는 고사하여 한쪽만 자라고 있다. 신목에는 작년 10월에 제의를 올렸던 원새끼와 소지 종이 가 걸려있다. 그 오른쪽에는 터주가리가 놓여있다. 이 또한 10월 제의 때 설치해 놓은 것이다. 신목 주변으로 사방 20여m 내에는 깨끗이 정비하여 잡목이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산제당터' 라 부른다.



〈그림 47〉 민락동 삼귀(三歸)마을 산제당터 위치도

3) 제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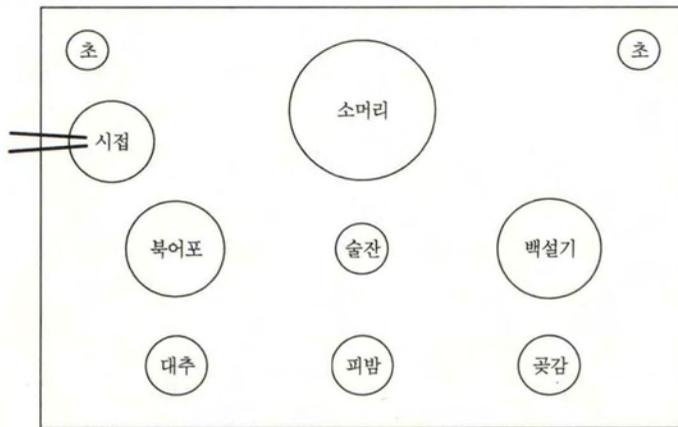
산치성일은 음력 10월 초 날을 잡아 이루어진다. 제의 시간은 역시 예전에는 자정에 가까운 때 올리다가 현재는 오후 6시에 산에 올라 오후 7시 정도에 제의를 행하게 된다. 마을에서는 이 제사를 ‘산치성’이라고 표현하며, 제당이 있는 터를 특별히 ‘산제당터’라 부른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제일 확정전 2-3일 전에 민락동에 영험한 지관을 찾아 날을 받는다. 여기에서 올해 제관을 뽑을 생기복덕을 함께 받아와 제관을 선출하게 된다. 보통 지관분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담배를 사드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현재는 지관이 돌아 가셨기 때문에 동네에서 날을 볼 줄 아는 분이 날을 잡아 주고 있다. 제의 일자는 가급적 빠른 날을 잡는다. 제관은 생기복덕을 가려 선택한다. 일단 제관이 선출되면 제관의 부인도 함께 제의를 치르게 되어 실제로는 제관 2명이 선출되는 것과 같다. 일단 제관으로 선출되면 그 날부터 몸을 조신하게 다루며 제의 준비를 서두르며, 가급적 출타를 하지 않는다. 또 제당에도 올라 금줄을 메고 당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온 터줏가리를 갖다 놓는다. 대부분 삼귀마을 토박이들은 대부분 산치성에 참여하는 편이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 중 시루떡을 제외하고는 이장과 제관분이 모두 시내에 나가 장만한다. 특히 제물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은 소머리이다. 소머리는 반드시 황소로 하며, 누런 황소를 구입한다. 그리고 정육점에 부탁하여 형태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 삶아 장만한다. 그리고 별도로 제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음복용으로 소고기 20kg 정도와 양지머리 등도 함께 구입한다. 이 밖에 제물로는 삼색실과(대추, 밤, 감(곶감))와 북어포를 구입한다. 제주는 약주(청주)를 대병으로 한 병 구입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관부부, 통장과 청년회 대표들이 깨끗이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산제당처로 향한다.

제물이 도착되면 곧 진설을 마치고 제관이 잔을 드린다. 보통 오후 6시경 산에 올라 제의를 올리면 8시경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먼저 제관이 술 한잔을 붓고 절을 올리면 이어서 통장이 술을 붓고 절을 올린다. 이후 청년회 대표가 술을 올리고 재배하는 것으로 제의는 끝난다. 별도로 축문을 읽지는 않는다. 재배가 모두 끝나면 제의에 참석한 분들부터 가내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난후 동네의 가가호호의 소지도 올려준다. 소지의 내용은 ‘동네무탈’을 바라며 모든 소지는 제관이 맡아 올린다. 소지가 모두 올라가면 모든 제의가 끝난다. 제의가 끝나면 남은 소지종이에 소고기를 조금 메고 북어와 소지종이를 신목에 감고 간단히 음복을 한다. 음복이 끝나는 대로 철상 한다.

제의가 끝나면 통장은 방송으로 제의가 잘 끝났다는 말과 함께 제주집으로 와서 음복을 하라는 방송을 한다. 제주집에서는 양지머리를 넣은 소머리국밥을 저녁으로 준비하여 제의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방송을 듣고 찾아온 마을 분들과 함께 음복을 나눈다. 마을회관에서 동네 분들이 모여 술을 한잔씩 하는 것으로 음복을 대신한다. 음복에 참여하신 어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소고기를 500g 씩 잘라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제의가 끝이 난다. 통장은 마을 자치체인 청년회 총무를 통해 제의 경비 지출 경위를 설명하고 최종 결산 보고를 한다. 삼귀 마을에서는 청년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동네 대소사에 직접 관여한다. 산치성도 이렇게 청년회공동기금으로 제의 경비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엔 청년회 기금은 500,000원이 소요되었고 일부 소지금에서 충당되어 제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



〈그림 48〉 민락동 삼귀(三歸)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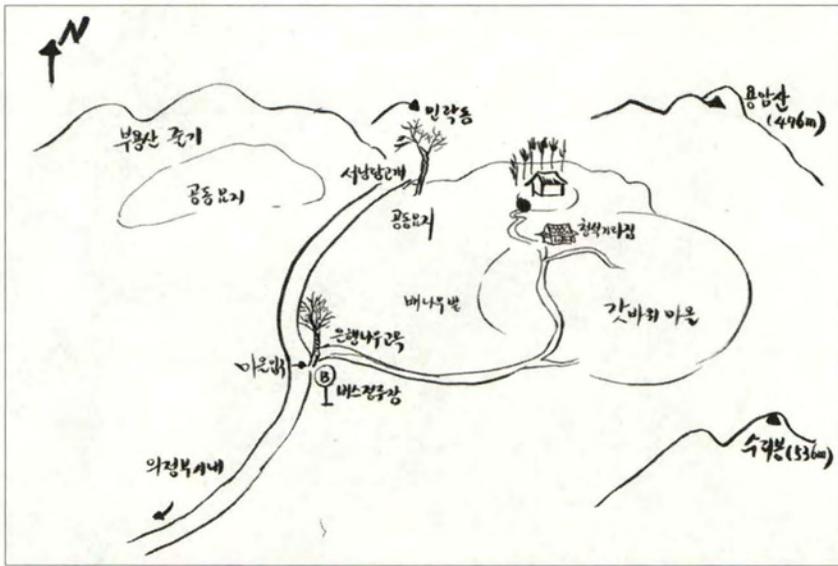
□ 제보자 : 이성재(남, 48세, 삼귀마을 통장)

25-2. 고산동 갯바위마을 산치성

1) 마을개관

의정부시의 고산동은 행정구역상 송산동에 속한다. 조사지역인 고산동 갯바위 마을은 그린 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가속화되지 않은 지역에 하나이다. 대부분 논농사와 함께 배농사에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배는 대부분 이곳 고산동에서 생산된 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배농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야채 등을 생산하여 시내 시장으로 내고 있다. 이곳 고산동 역시 외지인이 음식점사와 전원주택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입구에 아름들이 은행나무가 있고 민락동으로 나가는 고개 마루에는 서낭당이 있다. 마을의 형국은 깃대봉(289m)산줄기가 서쪽 마을 입구를 제외하고는 마을을 안고 있는 형상이다. 현재 깃바위마을에 거주하는 세대는 34호이다.



〈그림 49〉 고산동 깃바위마을 산치성터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뒤 야산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이 야산 줄기는 깃대봉(289m)과 한줄기를 이루고 있다. 제당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을 후미 민락동으로 넘어가는 서낭당을 지나 오른쪽 산비탈 배밭을 지나 접근하는 방법과 마을 안쪽에서 바로 야산으로 오르는 방식이 있다. 실제로 산치성을 올릴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한다. 그것은 산치성터 도당집까지 차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지계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재물을 저 날랐을 때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도당집까지 접근하였다. 도당집은 산치성터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은 뽕뽕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도당집은 판재로 벽을 이루고 전면에는 함석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스테이트 지붕으로 형식은 맞배지붕 형식을 빌었다. 전체적인 면적은 2평이 채 안 된다. 당집 안에는 제단이 설치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다.

민락동으로 넘어가는 서낭당에는 오방색 천이 걸려있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켜 놓은 촛불이 낮 시간에도 상당량 불을 밝히고 있다. 마을에서는 서낭당에는 별도의 제의를 올리지 않고 과거 도당제를 함께 올렸을 경우 무당들이 이곳에도 술을 부었다고 한다. 지금은 개인적인 치성터로 외지에서 개인적 치성을 하러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25-2 고산동 갯바위마을 제당

3) 제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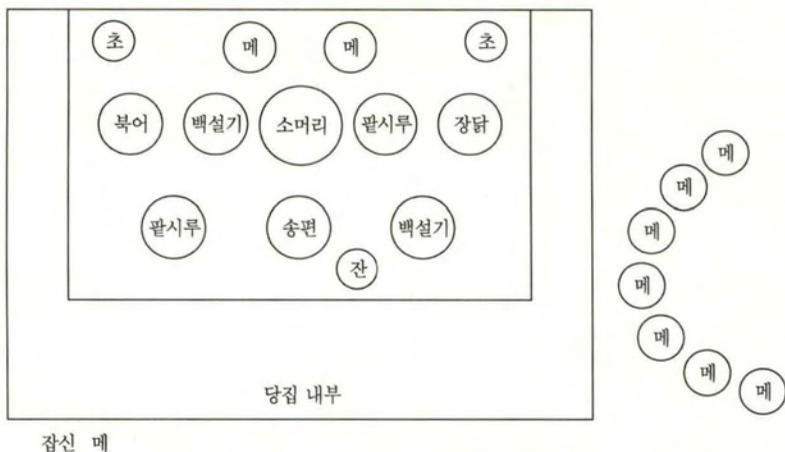
산치성일은 음력 10월 초 날을 잡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나, 날 잡는 일이 번거로워 마을 회의에서 10월 1일로 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의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때 올린다. 마을에서는 이 제사를 ‘산치성’이라고 표현하며, 예전에는 도당제라 하여 마을 사정이 좋았을 때 무당을 불러 산치성과 함께 도당제도 올렸다. 제당이 있는 터를 특별히 ‘도당터’라 부르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의 선출은 보통 마을 월례회¹⁸⁾에서 확정된다. 제주를 뽑는 기준은 나이

18) 월례회는 마을 자치기구로 마을의 경조사를 관할한다. 한달에 한 번 마을 전체가 모임을 통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특별히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월례회비는 월 10,000 원으로 정해져 있다

가 어느 정도 되는 분(50세 이상), 그 해 복이 많은 분이 우선적으로 후보에 오른다. 여기에서 제주로 후보에 오르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양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제주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일단 제주로 선출되면 제의 3일 전부 터는 몸을 조신하게 다루며, 가급적 출타를 하지 않는다. 약 10년 전부터 갯바위마을에 보살(점치는 분)이 들어와 산치성을 올릴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보살이 오고 나서 제물의 변화와 함께 제의 순서나 형식의 변화가 왔으나 마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이를 수용해 오고 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 중 일부만 제관분이 시내에 나가 장만한다. 특히 제물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은 소머리와 장닭이다. 정육점에 특별히 부탁하여 황소로 장닭 역시 제일 큰 것으로 장만한다. 이 밖에 삼색실과와 복어 20마리를 구입한다. 이 밖에 제물은 모두 제관집에서 장만하는 것이다. 먼저 송편 1시루, 팔시루떡 2시루, 백설기 1시루, 메 9그릇을 모두 준비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관과 통장과 월례회 회원 중 2명과 기타 산에 가서 제의를 행하고픈 동네 분들 4-5명이 모두 함께 제물을 가지고 도당집으로 오른다. 물론 보살도 함께 산제당처로 향한다. 이때 보살은 고깔을 쓰고 승복 차림을 한다.

제물이 도착되면 곧 진설을 마치고 제주가 잔을 드린다. 그 후 보살이 염불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덕담’으로 불리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살과 관계없이 제의가 진행되고 보살 역시 도당집을 돌며 계속해서 염불을 한다. 보통 오후 11시 경 산에 올라 제의를 올리면 오전 1시경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모든 분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면 제의는 모두 끝난다. 별도로 축문을 읽지는 않는다. 이 때 제의에 참석한 분들부터 가내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동네의 가가호호 소지도 올려준다. 물론 고향을 떠난 분까지 모두 소지를 올리게 된다.



잡신 메

〈그림 50〉 고산동 갯바위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

소지 내용은 ‘동네무탈’을 바라며 개인의 소망을 말한다. 소지가 모두 끝나면 간단히 음복을 하고 제의를 마무리한다. 이튿날 제주가 방송으로 음복을 잡수시라고 방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주 집에서 하루 종일 음복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제의 비용은 월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무는 제의 경비 지출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여 정기 월례회 때 최종 결산 보고를 한다.

26. 이천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6-1. 백사면 상용리 안말 성황제

1) 마을개관

이천시 백사면은 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소재지는 현방리이다. 백토면과 사북면을 1905년 백면과 사면으로 개칭하고 1914년 이를 병합하여 백사면이라 하였다. 북부지역은 원적산을 제외하고는 2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이며 남쪽 역시 대부분 많은 하천 덕분에 충적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야가 80%에 이르며 경지율이 약 50%나 된다. 대부분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논농사가 대부분이다. 조사지인 상용리는 소재지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은 전형적인 충적 평야지대이다. 마을 동쪽으로 복하천이 남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넓은 들에는 대부분 벼농사가 농업 기반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재배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 논농사에 종사하나 최근 마을에는 가내 중소기업이 일부 들어와 있다. 현재 상용리는 약 120세대 중 대부분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각성만이 농촌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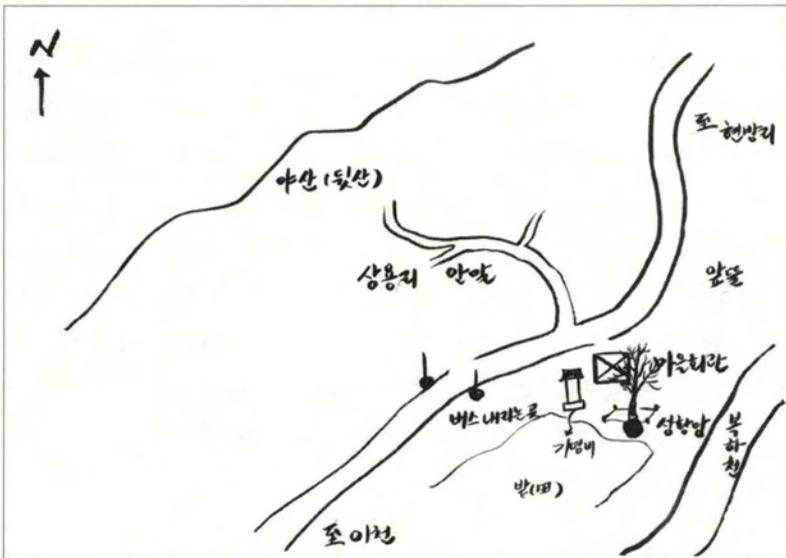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도지리를 거쳐 이천시내로 진입하는 383번 지방도 오른쪽에 위치한 마을회관에 있다. 이곳에는 수령 260년에 수고(樹高)26m의 들메나무가 신수(神樹)이다. 1998년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그 전에는 단순한 정자나무에 불과하였다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자 마을회회가 소집되고 여기에



26-1. 상용리 성황제당 신목

서 해마다 제의를 올리자는 의견으로 제의가 시작되었다. 최초의 성황제는 1998년 9월 15일 비각의 제막식 기념으로 시작되었다. 이날은 이천시와 백사면에서도 비각 제막식에 참가하고 나무를 아끼겠다는 성황제를 함께 올렸다. 비각에는 상용리 안마을이라고 크게 새기고 그 옆에 '정자나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비각을 세운다'라고 써어 있다. 마을 이장이기도 하였던 제보자는 '동네 평안과 경기도 보호수가 된 나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성황제를 올린다'고 하였다.



〈그림 51〉 백사면 상용리 안말 성황제당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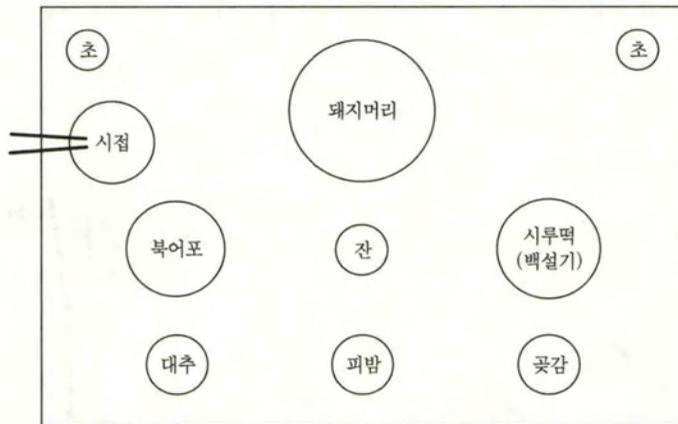
3) 제의내용

제의 명칭은 '성황제'라고 한다. 최초 제의일이 1998년 9월 15일 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으로 삼기 위해 제의는 양력으로 9월 15일로 정해져 있다. 제관은 이장이 당연직으로 봉해져 있다. 다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은 제의를 행할 때 각 기관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제관은 제의 하루 전날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여 심신을 맑게 한다. 안마을은 이중계가 있어서 동네 경조사에 관여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이중계장과 이장(제관)이 이천으로 나가 장만한다. 주요 제물은 돼지머리이다. 이밖에도 삼실과(감, 밤, 대추)와 북어포, 초, 향 등 간단한 제물이지만 흥정하지 않고 가장 좋은 물건으로 준비한다. 시루떡은 백설기로 2말 준비한다. 제사는 오전 10시부터

올리게 되는데, 이장은 방송으로 제의 참석을 알리는 방송을 하게 된다. 제의는 보통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관은 진설을 서두른다. 제의는 초헌관이 강신하고 나면 이어서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밖에도 잔을 올리고 싶은 분은 누구나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제의가 종료되면 철상을 한다. 북어와 삼실과 일부는 신목에 고시레를 한다.

제당과 마을회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복은 보통 마을회관에서 탕을 끓여 덕담을 나무면서 늦게까지 이루어진다. 제의경비 정산은 이중계장이 음복 중 발표하게 된다. 2002년의 경우 제의 경비는 300,000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52〉 백사면 상용리 안말 성황제 제물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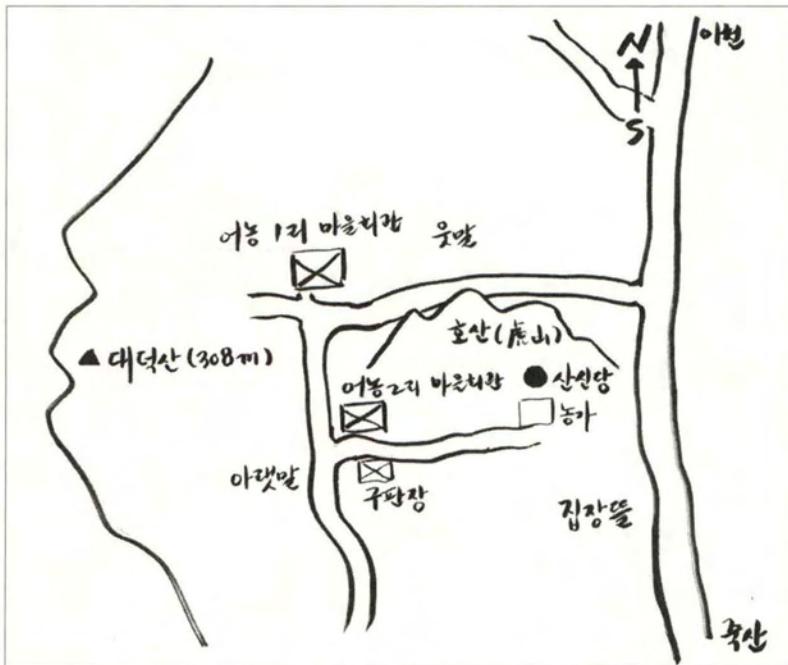
□ 제보자 : 이상욱(남, 70세, 상용리 노인회 회장)

26-2. 모가면 어농 2리 어룡골마을 호신제

1) 마을개관

이천시 모가면은 군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소재지는 진가리이다. 본래는 모산면과 가마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05년 두 면이 모면과 가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년에 두 지역을 병합하여 모가면이라 칭하였다. 면내는 높은 지역이 별로 없고 대부분 하천에 의

한 층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조사지인 어농 2리는 1961년에 자연마을 이었던 어농리를 1, 2리 분동하게 되었다. 지명 유래에 따르면 어농(於農)이라고 되기 전 어룡(御龍)으로 불리었다 한다. 고려말 고승(高僧) 대덕승을 찾아왔던 임금이 이 고을에서 유하였기 때문에 어룡(御龍)이라 칭하였다 한다. 또 어농리의 옛 이름은 於陵洞里였다고도 한다. 100년 전에 어느 도승이 와서 좌결(座訣)을 하다가 용(龍)이 승천한 자리는 농사를 지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 늘 농사를 짓는 다는 뜻으로 늘어(於)자와 농사농(農)자를 따서 “어농리(於農里)”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어룡골은 용(龍)이 승천한 곳이라는 전설에 따라 “어룡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마을은 서쪽으로 대덕산(308m)이 주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집장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들 너머로는 70번 지방도와 35번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을 가로고 있다. 현재 어농 2리는 약 40호가 정착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 벼농사를 위주로 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밭에는 특용작물로 고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전원주택의 개념으로 외지에서 들어온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3〉 모가면 어농 2리 어룡골 산제사터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앞 수호의 역할을 하는 호산(虎山)에 위치해 있다. 호산(虎山)은 ‘와호상(臥虎像)’ 혹은 ‘좌호상(座虎像)’이라고도 한다. 현재 마을에서는 이 제당터를 호혈로 보고 있다. 호혈(虎穴)에 해당하는 곳에 특별한 신체는 없고 산을 깎아 만든 1평 남짓한 공터에서 제의를 행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 제의를 ‘산신제’ 혹은 ‘호신제’라고도 한다. 마을 회관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현재는 가정집 뒷마당 비탈에 놓여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기와집으로 된 당집이 있었는데 6.25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호산에 좌정하고 있는 산신령은 여성성으로 상정된다. 현재 호산에 젓꼭지가 있어 호랑이에게 젓을 물린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3) 제의내용

‘산신제’일은 음력 정월 초순 길일을 택해서 올리게 된다. 길일은 면내에서 유명한 지관에게 날을 받거나, 사찰에서 날을 받기도 한다. 주로 음 1일이나 3일 혹은 5일이 해당되는 것이 상례이다. 날을 받아 올 때 생기복덕에 맞는 올해의 제관 나이를 받아 오기 때문에 제관 선출은 여기에 의거해서 보통 제일 2-3일전 마을 회관에서 결정한다. 생기복덕에 맞추어 가능한 나이를 뽑아 왔기 때문에 그 해 복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후보에 올라 선출된다. 제관을 선출할 때는 제관 2명 선출한다. 한 명은 제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한 명은 집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먼저 원새끼를 꼬아 백지를 끼워 금줄을 만들어 동네 각 길목에 설치한다. 또 제관 집 대문에도 설치한다. 이 때 호산에서 가져온 황토를 함께 뿌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제관은 가급적 외부 출타를 하지 않고 근신하는 생활을 한다.



26-2. 어룡골마을 유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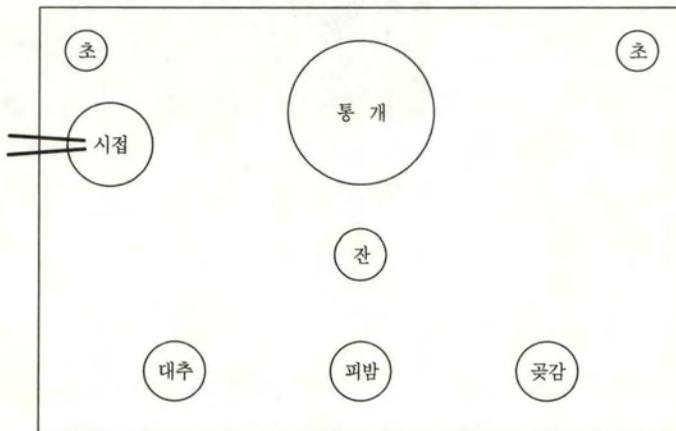


26-3. 호신제 제당터

제사에 쓰이는 주 제물은 '통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관이 마련한다. 통개는 가급적 동리에서 구하며 누런 토종개(황구)를 우선적으로 찾아낸다. 개와 함께 삼실과(감, 밤, 대추)도 오른다. 이 밖에 제주로 사용할 조라는 당일 아침 제관이 일찍 제당으로 가서 단지에다가 밥과 누룩을 넣어 술을 담는다. 개는 반드시 내장을 꺼내고 통으로 삶아 준비한다. 너무 삶아 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삶게 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관과 이장 및 총무, 노인회 등이 산으로 오른다. 이·반장, 화주, 흥정꾼 등은 산신각으로 오른다. 제의는 보통 초저녁에 실시하며 오후 9-10시 경이면 제의가 종료된다.

진설은 제단에 묻어두고 있는 목제기를 꺼내어 사용한다. 진설이 끝나면 제관이 강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축을 독축을 한다. 축은 예전에는 한자로 씌어진 것이었으나 현재는 국문으로 내용위주로 간단히 적는다. 축이 끝나면 이어서 이장이 술을 따르고 재배한다. 이렇게 제의를 행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반드시 호주 이름을 써서 준비한다. 제관은 일일이 호주 이름을 부르면서 '올해에도 복을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모든 제물은 마을 회관으로 옮긴다. 이미 마을 회관에서는 내포를 이용하여 개장국을 끓이고 있기 때문에 제의에서 철수한 분들이 회관으로 들어오는 대로 마을 전체 회식이 벌어진다. 개고기를 못 먹는 분을 위해서 다른 고기도 준비한다.

어농골은 특별히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잘 결성되어 있어 동네 대소사에 깊이 관여한다. 산신제 경비도 마을 공동기금을 운용하여 이루어진다. 2002년도의 경우 제비로 300,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림 54〉 모가면 어농 2리 어룡골 산제사 제물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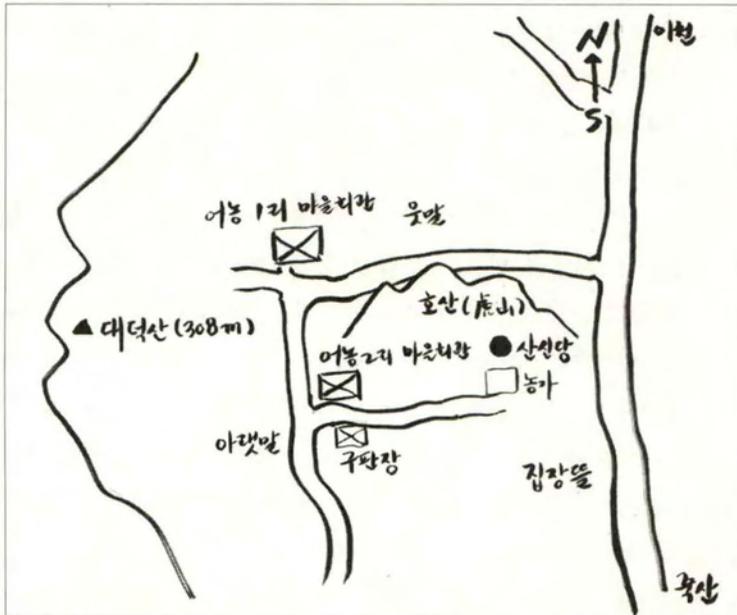
□ 제보자 : 장지성(남, 68세, 어농 2리 495번지)

26-3. 호법면 매곡 1리 돈의실마을 정제사

1) 마을개관

이천시 호법면은 군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소재지는 후안리이다. 1785년부터 호법리라 불렀는데, 1914년 대월면의 송갈산리, 모가면의 석당촌리, 마장면의 토곡리 등을 병합하면서 호법면이 되었다. 호법면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역사적·전통적으로 전국 최고 미질의 이천쌀의 주산지이며, 충숙공 박난영과 효자 강진기 등이 출생한 충효의 고장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이천시청으로부터 서남쪽으로 8km에 위치하며, 구조적으로 주민의 49.3%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마을은 뒤로 소학산(309m)을 주산으로 급하게 구릉을 형성하다가 마을에 가까이 오면서 완만해지는 형상이다 마을 앞에는 문 앞뜰이 있고 그 앞으로 단천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마을의 주 성씨로 고령 박씨만이 집성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성이다. 주로 논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간의 축산농가가 있다. 밭농사는 거의 없어 가내 소모용으로 고추를 조금씩 하고 있다. 그전에는 경제 생활권이 용인 백암장이었으나 요즘에는 시내 교통이 좋아져서 이천 시내 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55〉 호법면 매곡 1리 돈의실 정제사터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의 뒤 소학산에서 내려온 여맥을 따라 용출한 우물이다. 원래는 5개의 우물이 있었다. 옷말에 3개 아랫마을에 2개의 우물이 있었다. 이 곳 모두에 정제사를 올렸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되고 ‘어른우물’ 하나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어른우물은 다른 말로 ‘상등우물’이라고도 부른다. 현재에도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이지만, 대부분 집안으로 상수도가 연결되어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지름 1m 50cm 홍관을 박아 놓았고 안전을 위하여 뚜껑을 덮어 폐쇄하였다. 우물의 깊이는 약 3m 정도로 소학산에서 솟구치는 용수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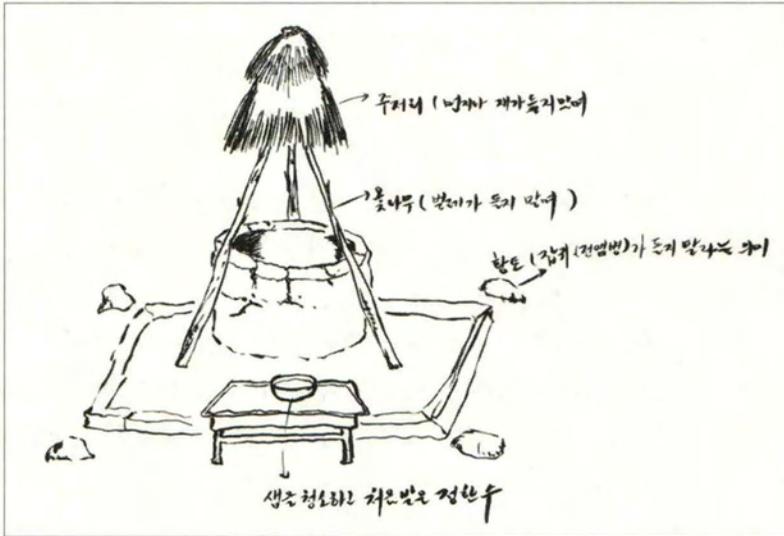
26-4. 돈의실마을 정제사터 “어른우물”

3) 제의내용

‘정제사’일은 음력 정월 3일이다. 원래는 3일에서 보름까지 사이에 택일하여 제의를 올렸으나 지금은 불편한 관계로 마을에서 3일로 날을 박았다. 만약 이 날짜에 초상이 나면 그 달은 건너뛰고 새롭게 날을 잡아 제의를 올린다. 제관 선출은 보통 초하루 설날 집에 차례를 올리고 마을회관에 모여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하게 된다. 2명을 뽑게 되는데 한분은 ‘생기’를 또 한 분은 ‘복덕’을 보아 선출한다. 일단 제관으로 선출되면 20년 전에는 제관집에는 백지를 끼운 금줄을 친다. 이때 제관집 뿐 만 아니라 우물가에도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뿌렸다. 지금은 금줄이나 황토를 뿌리지 않는다.

제사에 쓰이는 주제물인 경우 그전에는 소 1마리를 ‘통소’로 희생하였으나 30년 전부터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한다. 돼지는 반드시 육백종 수돼지를 사용한다. 육백종은 주둥이, 다리, 꼬리만 흰색이고 나머지는 검은 털로 덮여 있다 한다. 동네 젊은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돼지를 잡는 동안에 제관 일행들은 우물 청소를 한다. 우물 청소가 끝나면 그 맑은 물을 한사발 사각반에 올려 진설한다. 낮 11시쯤이면 잡은 돼지를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정제사를 올린다. 제사를 올리는 우물은 부정이 타지 않게 주저리를 썩은 옷나무삼발이를 설치(그림56 참조)하고 우물 주위에 황토를 뿌린다. 제사는 우물을 돌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물이 하나여서 한 곳에서만 제의를 행하게 된다. 먼저 지게로 지고 온 돼지와 미리 준비하여 놓았던 정화수 상위에 진설하고 제관이 재배한다. 모두 3번 재배하는 것으로 제의는 모두 끝나며, 그 후 마을 회관으로 제물을 옮겨서 덕담을 나누며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논다.

돈의실의 경우 정제사는 실소요 경비를 가구 수와 나누어 엄격히 각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재 기독교를 믿는 몇 가구를 제외 하고는 모든 가구들이 정제사에 참여한다. 2002년의 경우 정제사의 소요 경비는 400,000원 이었다.



〈그림 56〉 정제사전 주저리 씌운 삼발이

□ 제보자 : 이상원(남, 67세, 매곡 1리 돈의실 494-2번지)

27. 파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7-1. 금촌읍 아동 1리 안산말 鶴嶺山神祭

1) 마을개관

안산말은 학령산 밑자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말안장의 형국이라고 해서 안산동(鞍山洞)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곳에 교하현 관아가 있었다고 한다. 자연마을로 건너말, 안산말, 돌운말, 아랫말 등 4개 마을이 있다.

현재 이곳은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금촌 읍내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높은 편이다. 주로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서울이나 금촌 등지로 출퇴근하는 주민도 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빵 공장도 있어 점차 농촌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있다.



27-1. 아동 1리 안산말 祭舍門

2) 제의명칭과 시기

아동 1리는 산신제를 자연마을 별로 돌아가면서 지내게 된다. 2002년도에는 안산말에서 지낼 차례였다. 제의명칭은 학령산의 신령을 위한 제사라 산신제라고 부른다. 이 마을에서는 학령산신령을男神으로 보고 있다. 제의일시는 음력으로 10월 15일 0시에 지낸다. 이 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 초상이 나더라도 제사는 지내왔다고 한다. 만약 제관 중에서 집에 초상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은 초상에 참여할 수 없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산제당은 마을회관의 남쪽에 위치한 학령산으로 오르는 길에 있다. 산제당은 오른쪽으로부터 제기

등을 보관하는 祭舍와 산제당터, 그리고 돼지 잡는 곳과 메 짓는 곳, 제사 술 걸어놓는 곳 등으로 나누어진다. 祭舍는 약 6평 규모로 앞쪽에 양 여닫이문과 각 벽마다 창문을 설치했다. 앞쪽 처마에는 鶴嶺山祭舍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원래 제사는 초가로 지었는데, 1988년 기와로 엮어 개축했다. 현재도 비가 새어 천장이 내려앉은 실정이다.

祭舍에서 왼편 위쪽으로 산제당터가 있다. 3단 구조로 있으며, 끝에 비석을 세웠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이 주위를 천막처럼 쳤다. 밑바닥은 시멘트로 조성하고 적벽돌로 4단을 쌓아 60×134cm의 제단을 마련했다. 다시 위에 폭 60cm로 제단을 조성하여 전체가 2단 규모이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먼저 산신제를 위해서 일을 해 줄 제관 1명과 소임 4명, 그리고 축관을 10월 1일 쯤에 뽑는다. 이들은 생기복덕을 가려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고른다. 올해는 제관으로 윤광준(67세)씨가 뽑혔다.

9일에 당에만 금줄을 치고 목욕재계 등 금기를 지킨다. 음식의 경우 새우젓 등 비린 것을 먹지 않고 물김치 등을 먹는다. 쥐나 새도 잡아서 안된다. 9일에 제관은 당 근처에 조라술을 물어둔다. 제물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지다. 원래 재래종 검정색 돼지를 썼으나, 현재는 검정색 돼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흰색으로 고른다. 돼지가 동네에 없으면 며칠 전부터 이웃 동네로 알아보러 다닌다. 돼지는 수놈으로 정하며, 이때 가격 흥정은 하지 않는다. 2002년도에는 190근 짜리를 17만원 주고 사왔다. 이 돼지는 당일 오전에 당 옆에서 잡는다. 이외의 제물로 어물과 삼실과 등이 있다. 어물은 원래 대구포를 사용했는데, 먼저 짜



27-2. 아동 1리 안산말 祭舍



27-3. 아동 1리 안산말 제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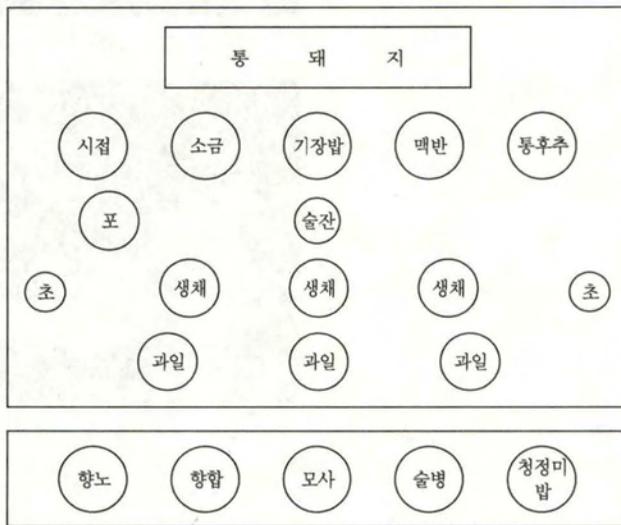


27-4. 제물상차림

고 또한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북어를 올린다. 이외에 배와 사과, 산자 등을 구한다. 이들 제물은 금촌 시장에 있는 남창상회에서 구해온다. 참고로 1905년도에 작성된 衙谷洞山神祭郷約에 수록된 제물품목과 산제용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祭物品目	① 白米 1器 ② 靑精米 1器 ③ 麥米 1器 ④ 猪 1首 ⑤ 釀酒 3獻 ⑥ 果實 3色 ⑦ 胡椒茶 1器 ⑧ 白塩 1器 ⑨ 大口脯 1首
山祭用品	① 茅沙 ② 香爐 香 ③ 屏風 1件 ④ 水布巾 1尺 ⑤ 祝紙 1枚 燒紙 1枚 ⑥ 黃燭 1雙 ⑦ 匙箸 1件 ⑧ 仰帳 1浮 ⑨ 揮帳 1浮 ⑩ 접시 8個 ⑪ 沙佛器 1坐 ⑫ 木葉 8個 ⑬ 酒盞 1坐 ⑭ 燈盞 1個

이 마을의 문서에는 최근의 향약까지 철해져 있다. 즉 축문의 경우에는 한자와 한글로 작성된 것이 같이 있으며, 이것은 제물상차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제물상차림의 배치를 보면 이 마을의 제단을 2단으로 만든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앞단에는 산신을 위해 통돼지를 올리기 때문이며, 나머지 제물은 뒷단에 진설한다. 문서에 나와 있는 제물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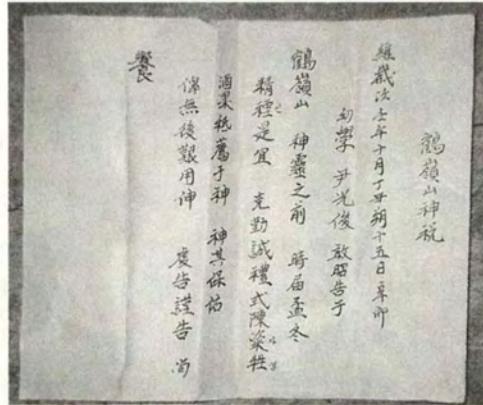
〈그림 57〉 아동 1리 안산말 산신제 제물상차림

19) 《坡州郡誌》·中, 坡州郡, 1995, 385 - 386쪽.

이 기록을 전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조사한 〈祭物記〉를 보면 白米1器만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三刀三合 서되서흙 이라고 적혀 있다. 즉 백미 1그릇이지만, 그 내용물은 서되서흙이라는 것이다. 즉 양의 차이가 있다. 청정미와 백미의 경우는 한 되 서흙으로 동일하다.

제사는 12시경에 시작된다. 먼저 제관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한 후, 축관이 축문을 읽고 절을 한다. 그런 뒤에 제관과 축관이 절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대동소지만 한 장을 태운다. 따라서 제의시간은 대략 30분미만으로 간략히 끝낼 수 있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鶴嶺山神祝
 維歲次壬午十月丁丑朔十五日辛卯
 幼學 尹光俊 敢昭告于
 鶴嶺山 神靈之前 時屆孟冬
 精禋是宜 克勤誠禮 式陳粢牲
 酒果祗薦于神 神其保佑
 俾無後難用伸 虔告謹告 尙
 饗



27-5. 아동 1리 안산말 산신제 축문

5) 제의 운영과 결산

다음날 아침 9시 경에 마을회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 음복에 들어간다. 원래는 남자들만이 참여했지만, 마을회관을 새로 만들면서 여자노인정도 설치되어 남녀가 모두 참석하게 되었다. 제관에 대한 사례는 하지 않는다. 메 등을 산제당에 올라와서 짓는 등 소임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통돼지를 잡아 마을사람 별로 나누었다. 하지만 현재는 4개반 중에서 한 반이 책임을 지고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반이 알아서 처리한다. 올해의 경우 안산말이 산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안산말에서 나누어 먹는다.

제사에 드는 비용은 돼지를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20만원 내외라고 한다. 이것은 마을계의 지원을 받는다. 물론 마을에는 기독교를 다니는 교인이 있지만, 이들은 고사 음식만을 먹지 않을 뿐 반대는 안한다고 한다. 특히 산제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 지냈기 때문인지 6.25 한국전쟁 때도 폭격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이 남아 있다.

27-2. 금촌읍 검산리 장골의 산제사

1) 마을개관²⁰⁾

검산리는 아랫골·좁바리(좋은 바리)·오장골·부새이의 4개 자연촌이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 127.2ha에 논이 73.4ha, 밭 8.8ha로 벼농사가 많은 지역이며, 인구는 69세대, 78가구에 30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을 앞으로 도로가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학교는 금촌에 있는 검산국민학교·문산중학교·과주여자상업고등학교·문산종합고등학교가 있다. 또 가까이에 월롱사라는 절이 있어 부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며, 교회는 검산 2리에 있으나 2가구에서 부인들이 다니고 있다.

마을 유래를 보면 검산리는 예부터 만촌동이라고 불리웠다. 이는 이 마을의 입향시조로 추측하고 있는 연안 김씨의 호가 만촌이었으므로 이를 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이 마을로 낙향해온 지가 200년 전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만촌동 동민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회는 만촌교의 보를 막아서 물세를 거두어 기금을 마련하였고 마을 입구의 방앗간과 마을 밭 400평이 동회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방앗간은 마을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어 1년에 35가마를 받고 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각 반에서 1명씩 임원을 뽑고 젊은층과 노인층에서 각 1명씩 2명을 감사로, 1명을 회장으로 두었다. 매년 양력 9월 말일 방앗간 대동추봉 때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며, 회장에게는 1년에 쌀 1가마씩을 사례로 준다. 따라서 이 회에서 동네제정을 관리하므로 산제사도 회장이 중심이 되어 일을 주관한다.

2) 제의명칭과 시기

만촌동 산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2일 밤 자정으로 그 날이 고정되어 내려오고 있다. 산제를 대개 초순으로 지내는 이유는 초순이 넘으면 부정한 일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쌀을 모두 거두었다가도 동네에 초상이 나가거나 화재가 나는 등 동네부정이 생겼을 때는 꼭 한달을 연기해 달가심을 한 후에 지낸다.

20) 현재 검산리 산제사는 급속한 개발로 인해 단절된 상황이다. 민속지적 조사 시점은 1991년이며 김종대, 김지욱, 송민선, 『산간신앙』(1993, 민속원)에서 재인용하였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당집이나 당나무는 없으며, 마을을 싸고 있는 월룡산 내력의 은봉산 산봉우리에 산제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터 아래는 우물이 있어 제 전날 당주와 소임이 가서 깨끗이 치우고 그 물을 길어와 떡을 찌고 조라술을 담근다. 제의 때는 제장에 광목으로 된 차양을 치고 그 안에 제상을 차린다. 안에는 지관, 소임 이하 몇 명만 들어가 제를 올린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마을 회장은 제의 3일전에 당주를 선정하는데, 마을 어른인 김종선(남, 83세)씨가 그해의 생기복덕을 짚어 보아 일진에 맞는 연령을 뽑아주면 회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연령의 사람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자를 가려 당주로 뽑는다. 올해는 39세, 51세, 63세가 해당 운의 연령이었으나 적합한 사람이 없어 복동인 연령에 해당하는 未生(36, 48, 61세), 丑生(30, 43, 55, 66세), 戌生(33, 34, 45, 46, 53, 58세)중에서 46세 김주영씨를 당주로, 55세 김순경씨를 소임(소당주)으로 선정하였다. 당주로 뽑히면 그때부터 비린 것을 먹지 않고 몸을 정갈히 하며 제물장만 할 준비를 한다. 마을에서도 마을입구에 금줄을 치고 살생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비린 것을 먹지 않는 등 모든 일에 조심을 하였으며, 특히 쌀 등이 나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요즘은 금줄도 생략되었으며 출입도 자유로워졌다.

제의 이틀 전에 당주와 소임은 집집마다 다니며 쌀 1되씩을 걷는다. 사실 이 일은 당주의 몫이나 그 부인이 하였다. 이 때 가정에 깨끗하지 못한 일이 있는 집에서는 내지 않고 제의 후에 현금으로 1,000원씩 낸다. 예전에는 이 때 쌀을 내지 않은 집들은 제물 비용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냈다고 한다. 이 날 정성으로 거둔 쌀로는 모두 떡을 하고 제물구입 경비는 대동회 기금에서 쓴다. 올해는 69호 중 57집에서 쌀을, 10집은 현금으로 냈으며 2집만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라 제비를 내지 않았다.

제의 전날 소임은 산제터에 가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였고, 당주는 조라술을 담아 묻어 두고 온다. 마을 회장은 제물장을 보아 당주집에 가져다준다. 제물은 예부터 메도 없고 고기는 북어뿐인 소산으로 지내오고 있어 간단하다. 흥정 내용은 밤 2홉·감 5개·북어 3마리·초 1곽·향, 그리고 사고지(어물천에서 주었음), 탁주가 전부이다. 제물은 당주집에서 찌는 4시루(덧말반)의 팔시루 떡이 주가 된다. 이 시루는 당주집에서 소임의 부인이 당주 부인을 도와 준비하며 저녁 무렵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사 시간을 기다린다.

특이한 것은 산제사를 지내기 전에 당주집에서는 자기 고사인 안고사를 먼저 올린다는 점

이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서는 산제사를 먼저 지내고 난 후 자기 고사(가정고사)를 지내게 되어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지내면 시루떡이 익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당주집은 산제사에 올릴 시루를 찌는 집이기 때문에 자기집 안고사를 먼저 올려 집을 깨끗이 한 후 산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당주집은 시어머니가 계실 때부터 묶어 논 고사라 해마다 11월 경이면 날을 받아 집고사를 지내왔는데, 올해는 산제사와 해운이 맞는 당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산제사를 지내는 날 안고사를 먼저 모시게 된 것이다.

제물은 원래 과일, 고기 등을 모두 차렸으나 이번에는 고기를 쓰지 않는 산제사를 모시는 날이므로 안고사에도 고기는 올리지 않았다. 제물은 작은 떡시루를 찌서 곳곳에 나누어 놓았는데 마루 상량에 묶은 성주와 뒷 결의 대감독 위에는 시루떡 한 접시와 포, 막걸리를 큰 쟁반에 차려 올리고 안방 지석 앞에는 흰떡을 놓았다. 지석은 검은 떡을 싫어하고 자손을 기원하는 곳이므로 흰떡을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다락·부엌·창고·헛간·뒤지 위에는 시루떡을 한 접시 갖다 놓고 우물과 굴뚝·뒷간에는 떡을 몇 조각 떼어 놓았다. 이는 묶이 각각이라 각 지킴이(家神)에게 별도로 놓는 것이다. 절은 하지 않으며 주부가 마음속으로 가족의 평안과 일년의 운을 빈다. 이 안고사가 끝난 후 산제사에 올릴 떡시루를 찐다.

제기는 자정에 지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젊은이들이 떡시루와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제터로 올라간다. 이 때 당주와 소임집 부인들도 함께 올라가 제상을 차린다. 제기는 당주집 그릇을 준비해 가며 시루도 동네 각 집의 것을 빌려서 쓴 것이다. 올해 산제사 날에는 비가 와서 터에 미리 비닐 천막을 쳐 두었다.

산제터에는 당주와 소임 및 그 부인들, 그리고 이장, 마을회장 등 10여명이 올라간다. 여자들도 올라갈 수 있으나 몸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기를 꺼려한다. 제당 안에는 당주·축관·소임 이하 몇 명만 들어가 제를 올린다. 제관은 당주가 맡고 축관은 몇 해 전부터 마을 회장이 하였다. 제관들은 평상복 차림이거나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거나 하며 제장으로 가는 길에 우물에서 세수를 하고 간다.

만촌동의 산제사는 그 절차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30년 전에 김종선씨가 처음 동네일을 맡아볼 때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니 초헌관이 먼저 절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축을 읽고 단잔으로 끝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네 대동에서 지내는 일인데 너무 단조롭고 간단한 것이 서운하여 자신이 일을 볼 때는 절차를 달리하였다. 먼저 대동을 위해 수고한 당주에게 초헌관을 맡게 하고 소임(소당주)은 아헌관이 되게 하였다. 또한 동네 재정일을 맡아하는 만촌동 동민회 회장이 삼헌을 올리게 하였으며, 축은 초헌 후에 읽는데 글을 아는 이종현씨가 맡았다. 소지는 축관이나 제관 중에서 입담이 좋은 사람이 축언을 하면서 올리게 하였으며, 먼저

대동소지를 올리고 당주소지-소당주소지-우마소지로 네 번을 올렸다. 개인소지는 대동소지로 대신하였으며 “일년 열두달 건강하고 잘 되게 해 달라”고 축언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다시 변하여 제관의 단잔, 단배로 간소화 하게 되었다. 제관도 지난해까지는 연세 드신 어른 중에서 한 분이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당주가 제관이 되었다. 당주는 잔을 올린 후 절을 하기 전에 축문을 읽는데, 축문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축문의 내용을 여러 장 인쇄해 두고 일진만 새로 적어 넣어 독축한 후 불태운다.

晩村洞山祭祀祝

維歲次己巳年十月癸亥朔三日乙丑

大小人等 敢昭告于

山神之靈 伏惟

禱堂尊神 月籠在後 長明護前 卜居晩村

俯察微誠 家無憂患 人無疾苦 山無盜賊

歲和年豐 瘡溢露積 六畜旺盛

謹以酒果 恭伸奠獻 尚

饗

〈장골의 산제사 축문〉

소지올림이 끝나면 촛불을 켜둔 채 떡 한접시, 과일 1개씩을 제상에 두고 내려온다. 조라술을 담아 묻고 주저리를 씌웠던 자리에도 떡과 밤·대추 하나씩을 둔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 제물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새벽 일찍 서로 먼저 올라가 찾아 먹기도 하였으나 요즘은 사라진 풍습이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음복은 당주집으로 내려와서 한다. 조라술과 떡을 먹으면서 뒷얘기를 하고 부인들은 시루 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나눌 준비를 한다. 이 떡은 큰 그릇에 나누어 담고 젊은 사람의 지게에 지게 하여 두 사람이 함께 집집마다 돌린다. 한 밤중인데도 문을 두드리며 고사떡 받으라고 소리치면 그릇을 들고 나와 받아 가고, 이렇게 떡을 나누고 나면 새벽 3시경이 된다.

당주와 소임은 아침에 산제터에 올라가 천막을 걷고 제장을 정리한다. 이 천막은 동네 소유로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산제사에 쓴 경비에 대한 결산보고는 매년 9월 말일에 갖는 마을 대동회에서 하게 된다. 올해는 밤·대추·감·복어·초·향 등의 어물구입에 12,000원, 팔시루떡을 찌기 위해 팔(1말 7되)·참쌀(1말 9홉)·설탕 등을 사고 음복 때 마실 약주·술안주(복어포) 등을 구입하는데 총 10만원 정도가 쓰였다.

- 제보자 : 홍승남(남, 1952년생, 이장, 금촌읍 검산 1리)
김주영(남, 1946년생, 당주, 금촌읍 검산 1리)
황임면(여, 1947년생, 당주부인, 금촌읍 검산 1리)
김순경(남, 1937년생, 소임, 금촌읍 검산 1리)
김종선(남, 1909년생, 금촌읍 검산 1리)

28. 평택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28-1. 동삭 2동 상서제마을 당제

1) 마을개관

동삭 2동 상서제마을은 법원 사거리에서 안쪽으로 4km이상 들어가면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접한 지제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제리에서 볼 때 동녘에서 뜨는 초승달을 보고 동삭이라고 하였다하여 동삭리로 불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상서제 마을은 행정구역상 비전동 12통 지역에 속한다. 상서제마을은 여러 성씨들이 사는 각성마을이며, 1960년대에 이곳으로 들어온 외지인들이 이 마을에서 고용살이를 하다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들어와 살았다는 한 문중이 15대째 내려오고 있다는 말에서 마을의 역사가 약 45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상서제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화평·무고를 위해 당제(堂祭)를 지내고 있는데 이는 마을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당신(堂神)을 위한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선달 그믐날 당제 뿐 만 아니라 음력 6월 그믐날, 자시 전에 정제(井祭)도 지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간이상수도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우물이 폐쇄되었고 정제도 이때부터 지내지 않게 되었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당집이 위치한 곳은 앞으로 산업도로가 될 예정지라 머지않아 당제의 전승이 끊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산업도로가 생기면 상서제마을도 두 개로 나뉘어 마을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 제의명칭과 시기

이 마을의 제의명칭은 당제이며 당집은 마을의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 밤 10시경에 당제를 지내는데, 구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당할아버지, 당할머니를 모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마을은 조선 태종 때에 덕천군의 후예가 낙향하여 서당을 짓고 후예들의 교육을 하던 곳이라 그때부터 당제를 이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²¹⁾

21)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上, 2001, 1126쪽 참조.

당집은 향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는 이곳에 제를 지내려고 오는 무속인들을 위해 마을에서 배려해 놓은 것이다. 특별히 영험한 이야기가 전해오지는 않으나 동네에 전염병이 돌고 불상사가 생기면 “당제사 잘못 지내서 그렇다.”고 믿고 더욱 치성을 드렸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상서제 마을의 산신당은 마을 뒷산의 소나무 군락에 자리하고 있다. 당집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가로 210cm, 세로 230cm의 규모이다. 벽면은 모두 막혔으며 노란색으로 회칠되어 있다. 이는 이곳에 제를 드리러 온 한 무속인이 직접 회칠해 놓은 것이라고 하며 당집 뿐만 아니라 제단도 노란색으로 회칠되어 있다.

제단은 나무로 짜서 만들었으며 폭 173cm, 높이 35cm이다. 지붕은 직접 산에서 소나무를 깎아 서까래를 만들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얹어 놓은 형태이다. 1960년대에 초가지붕을 기와로 바꾼 이후 지금의 슬레이트 지붕 형태가 되었다. 예전에 당집은 토담에 초가지붕이었다. 그러다가 비·바람에 당집이 쓰러져 1960년대에 다시 중수한 것이다. 지금도 상량문에는 중수시기가 적혀있으나 오래되고 퇴색되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중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집 내부에는 창호지에 당할아버지·당할머니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 벽면에 붙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중수하면서 없어지고 지금은 나무로 만든 제단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뿐이다. 당집 중수는 제보자인 임용근씨가 모두 맡아 해 왔다.

제단 위에는 초와 향로가 놓여있으며 당집 안에는 당제 때 쓰일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떡시루·제기를 담아 놓은 박스·돛자리 등이 보관되어 있다. 출입문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문은 가로 90cm, 세로 112cm의 나무로 만든 양쪽 여닫이문으로 되어있다.



28-1. 상서제마을 당집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예전에는 제상(祭床)에 통돼지가 제물로 올랐다. 이는 흔히 말하는 ‘조선 돼지’(토종 돼지)로 흰털이 하나도 없는 검은 돼지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 돼지는 상서제마을에서도 몇 가구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만약 마을에 적당한 돼지가 없으면 외지에 나가서 돼지를 구하러 다니는데, 이때 살아있는 돼지의 다리를 묶어 지게로 지고 왔다. 당일 구한 제물은 계속 묶어두었다가 오후에 동네에서 도살한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큰 가마솥에 삶아서 통째로 올린다. 소염(동네 심부름꾼)들이 돼지를 잡았으나 1960년대 들어 조선 돼지가 귀해져 구할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통돼지가 제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후로 쇠머리로 대체되었다. 쇠머리는 제일(祭日) 며칠 전에 미리 맞춰두었다가 제주가 당일에 가지고 온다.

당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주를 선정하는데 이때 제주는 한 명만 뽑는다. 그리고 통장은 제물준비를 담당하며 제물은 당일 아침에 평택시장에서 장만한다. 예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제물비용을 이장이 걷으러 다녔다. 그러나 현재 제물비용은 동 기금에서 마련되고 있으며, 한번 제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제주도 예전에는 며칠 전부터 미리 선정하여 금기를 지키게 하였으나 요즘은 통장이 당일 아침에 선정한다. 제주를 선정할 때 여자가 피 부정이 있는 집·초상난 집·출산한 집·장남이라서 기제사를 지내는 집 등은 제외되며, 제주뿐만 아니라 부인의 생기복덕도 가려 부부내외의 일진을 보고 선정하였다. 예전에는 제주로 통보되면 오히려 ‘복 받는다’고 생각하여 기쁜 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며, 절대 제주를 거절하는 법은 없었다고 한다. 제주로 선정되면 우선 마을의 길목에 금줄을 치고 우물물도 다 퍼낸 후 금줄을 두른다. 우물청소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수수대 3개를 샷갓모양으로 묶어 표시를 해두고 사람들의 부정을 막았다. 그리고 당제를 지내기 잔까지 우물물은 쓰지 않았다. 황토도 뿌리는데 우물에 접근하는 입구에 3번씩 양쪽으로 6군데에 뿌려 놓는다.

제물장만이 끝나고 저녁 무렵이 되면 쇠머리를 삶는다. 예전에는 제주 집에서 삶았으나 요즘에는 마을회관에서 삶는다. 쇠머리는 삶아진 찌로 소쿠리에 담아 제상에 올린다. 쇠머리가 준비되면 제물을 진설하는데 사과와 배는 한 개씩 올리며 밤·곶감·대추 등을 함께 올린다. 그리고 술은 약주를 제주로 쓴다. 제주는 ‘흰설기’를 집에서 만들어 시루 찌로 올린다. 당제를 지낼 때에는 제주와 통장만 올라가서 지내며 다른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나 요즘은 당제에 대한 관심들이 적어 제주와 통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제주와 제주부인은 목욕재계하여 몸을 정결히 한다. 그리고 제주는 당

집으로 올라가는데 당제는 유교식 제의로 간단히 진행된다. 먼저 술을 따라놓고 절을 두 번 반씩 세 차례하며 축문은 읽지 않고 대동소지를 올린다. 예전에는 가구마다 개인소지도 일일이 올려주었으나 지금은 20여 명씩 가구주의 이름을 한꺼번에 쪽 읽어 내리고 소지를 올려 준다. 상서제마을의 가구주는 모두 70여명이므로 소지는 모두 3개가 올라간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누구누구... 만수무강하게 해주시고 재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소지 올립니다.” 하고 소지를 태운다.

당제가 끝나면 촛불을 켜둔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요즈음은 3일 동안 촛불을 켜두나 예전에는 보름동안 촛불을 켜 두었다. 그래서 제주는 당제가 끝나더라도 보름동안 촛불을 밝히려 당집에 다녔다. 보통 저녁 먹기 전에 하루에 한번, 당집에 촛불을 밝히려 간다고 하며 이는 ‘당할아버지·당할머니에게 제주가 정성을 드리고, 자신의 정성도 드리느라고’ 행하는 것이다. 당제가 끝나면 당신에게 올렸던 제물을 가지고 내려와 마을 우물에도 정제(井祭)를 지낸다. 마을에는 큰 우물과 작은 우물 그리고 또 하나의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안에다 제물로 올렸던 고기를 떼어 던졌다. 그러면 그것을 건져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다녔다고 한다.

예전에 통돼지를 잡았을 때에는 당제가 끝나는 즉시 제주 집에서 고기를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면 자정이 넘어 새벽 2시까지 고기를 나누느라 제주가 힘이 들었다. 보통 나눠 받은 고기는 시레기 국으로 끓여 먹는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현재 제의비용은 동 기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으며 동 기금은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의 이자와 마을 동답을 경작하여 얻은 수익금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결산은 당제가 끝나면 바로 하지 않고 일년에 한번 마을의 대동회의 시에 함께 결산을 한다. 제주를 하느라 고생한 사람에게는 수고비로 약 1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며 이 역시 동 기금에서 제공된다.

□ 제보자 : 한경수(남, 63세, 동삭 2동 192번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이장 역임)

임용근(남, 67세, 동삭 2동 48번지, 작년(2002)에 제주)

28-2.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

1) 마을개관

은실마을은 현재 세교동 6통·14통의 마을 이름으로, 은곡(銀谷)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지형이 뱀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은행나무가 많아 골짜기를 이루어 음곡(陰谷)이라고 하다가 은실로 마을이름이 바뀌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은실마을에 속하는 6통과 14통의 세대수는 각각 237호, 181호이며 총 1158명이 현재 은실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은실마을은 각성마을이며 김해 김씨·경주 이씨·전주 이씨 등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으며, 이 마을 사람들의 주 생업은 농업이었으며 2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두레패가 크게 있었다. 또 예전에는 마을 앞이 전부 못이어서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도시계획에 따라 못이 매워져 마을 앞에 신작로가 나게 되었다. 예전에 이곳은 3·1운동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마을 중 하나로, 그 해에 당집에 켜두었던 촛불이 초가지붕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불이 바람에 번져 일본주재소가 있던 곳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로 잠시 이곳의 당제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서낭당이 중수되면서 당제도 전승되기 시작하였다.

2) 제의명칭과 시기

이 마을의 제의명칭은 당제이며, 서낭신을 모신다. 매년 음력 2월 3일 밤 9시경에 당제를 지내며 서낭신은 주산(主山)의 산신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당제는 은실마을 모든 사람들이 지내는 제의이며,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출산을 하는 가정이 있더라도 매년 음력 2월 3일이 되면 반드시 제의를 지낸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구 수가 워낙 많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되도록 제일(祭日)은 연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가구 수가 적고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금기가 철저히 지켜졌다. 제보자들은 당제 지낼 때만 되면 이상하게 추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자정 무렵에 당제를 지냈기 때문에 추워서 애를 먹었다. 또한 예전에는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쳐 놓으면 보름 전부터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고 외지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였다.

3) 제당의 명칭과 형태

은실마을의 서낭당은 마을 뒷산, 참나무와 소나무 숲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산은 마을의 주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주산에 큰 기둥을 박아 기를 끊어 놓았다고 전한다. 서낭당의 크기는 각각 가로 256cm, 세로 220cm이며 시멘트 블록을 쌓아올려 흰색으로 회칠하고 양쪽 벽면에는 시멘트를 덧붙여 모양을 내었다.



28-2 은실마을 당집 전경

현재의 당집은 1988년에 새로 중수한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지붕은 적색 기와를 올린 맞배지붕이며 문은 철문으로 양쪽으로 여닫게 되어있다. 문은 가로 137cm, 세로 165cm, 폭 61cm로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문은 평소에 열쇠로 잠가놓으며, 서낭당 열쇠는 현재 마을 노인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당집 내부의 제단은 폭 210cm, 높이 35cm이며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다. 특이하게도 제단에는 3개의 구덩이가 있는데 예전에 서낭당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지금보다 제단의 구덩이가 컸다. 원래 이 구덩이는 조라술을 묻어놓는 자리로, 구덩이를 모두 이용하지 않고 주로 가운데 구덩이를 이용하였다. 그러다가 당집의 형태가 바뀌고 더 이상 조라술을 담그지 않게 되면서 구덩이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멘트



28-3 은실마을 당집 내부

로 제단을 다시 만들 때, 예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구덩이의 크기는 줄여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당집이 흙벽에 이영을 엮은 초가지붕의 형태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다시 중수되었을 때에도 초가지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1988년

중수 때,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당집 내부에는 ‘城隍之神’이라는 지방이 벽에 써 붙여 있으며, 작년 제의 때 쓰던 술·음식 등이 제단에 그대로 진설 되어 있으며, 당 안에는 장판을 깔아두었다.

4) 제의절차 및 제물차림

예전에는 제의를 지내기 위해 제관과 축관·당주를 선정하였다. 보통 한 달 전부터 이들을 뽑아두었다고 하나 요즘에는 10일 전에 축관과 제관, 2명만 선정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관이 축관을 겸할 수도 있다. 제관이나 축관은 가정이 불행하지 않고 처녀가 되도록 없는 집을 골라 선정하였으며 통장이 직접 선출한다. 일단 제관이나 축관으로 선정되면 먼저 정화수를 대문에 떠놓고, 금줄을 대문 앞에 치며, 황토를 뿌린다. 그리고 3일전부터 외출을 삼가는 등 부정을 피하고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금기사항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전에 당주로 선정된 사람은 금줄을 만들어 서낭당 주변에 두르고, 조라술을 만들며, 황토를 뿌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 등을 하였다. 금줄은 마을의 진입로와 마을 공동우물에 둘러 마을에 제의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린다. 또 예전에는 서낭당 주변에 당우물이 있어 제물을 장만하는 물로 사용되었다. 당주는 우물을 청소해 두는데, 깊이가 약 2m 정도 되었다. 보통 우물 청소는 이틀 전에 해 두며 청소를 다 한 후에는 금줄을 쳐 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도 간소화되어 생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물 준비는 노인회에 속한 마을 어른들이 직접 한다. 평택장이나 송탄장에 가서 제물 준비를 하며, 예전에는 통돼지를 잡아다 제물로 올렸다. 이때 통돼지는 흰털이 하나도 없는 조선 돼지를 말하며 이는 일명 ‘재래종 돼지’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돼지는 송탄에 있는 서정리장이나 안성장에서 구입하였고 갈 때는 지게를 지고 가서 썰어지고 왔다. 그러나 요즘에는 통돼지를 올리지 않고 간소화되어 돼지머리를 제물로 올리고 있다. 한때 돼지머리를 올리기 전, 쇠머리를 올린 적도 있다고 하나 쇠머리가 비싸 지금은 돼지머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돼지머리 이외에도 제상(祭床)에는 시루떡·백설기·배·사과·포·쇠고기적·대추·밤·감·삼색나물 등이 오른다. 예전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으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된 편이다. 술은 당주가 직접 조라술을 담가 서낭당 안에 있는 구덩이에 묻어 두었다. 그리고 이 술을 제주로 썼다. 그러나 지금은 술을 담그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당집이 시멘트로 만들어져 조라술 빚는 것은 중단되었다. 제물 비용은 약 30만원 정도 소요된다. 외지인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토박이들도 제비(祭費)를 내며, 토박이들이 제의 때가 되면 노인정으로 찾아와 제비를 직접 주고 간다.

은실마을 당제에는 원래 축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없어졌다. 당제는 유교식 제의로 간단하게 행하며 단작단배를 한다. 먼저 창호지를 깨끗하게 깔고 촛불을 켜 다음 제물을 진설 한다. 그리고 제관이 술을 따라주면 제주가 절을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먼저 대동소지부터 올리는데, 대동소지를 올릴 때에는 “은실마을 100세대 400여명이 모두 안일하게 금년 한 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불사른다. 그리고 나서 제관과 제주의 소지를 각각 올려주는데 “제관 아무개 가정도 무사하게 잘 지나가고 좋은 일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한다. 그리고 나서 우마차·육축 등의 안일을 기원해 주는데 모든 가축들도 금년 한 해 잘 자라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 달라고 빌어준다.

당제가 끝나면 제관과 제주는 제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노인정에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음복을 한다. 예전에 통돼지를 잡았을 때에는 제주 집에 모여 음복을 하였으며 이때는 돼지고기를 안주로 삼아 제주(祭酒)와 함께 음복을 하였다. 예전에는 당제를 지내고 나면 밤 한 개·대추 한 개·떡을 떼 와서 가가호호에서 제를 올렸다. 즉 마을 단위에서 당제를 지내고 여기에 올렸던 제물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별도로 제의를 지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풍속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서낭당 내부에 붙어있는 ‘城隍之神’이라는 지방은 항상 벽에 붙어두었다가 제일이 되면 새로 써서 다시 붙여 놓는다.

5) 제의 운영과 결산

은실마을 당제는 현재 노인회에서 마을 어른들에 의해 주재되고 있다. 그러나 5~6년까지만 해도 통장이 제관들을 선정하여 제관과 당주·축관 등이 당제를 주재하였다. 이 마을에는 당제를 위한 동답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당제의 제물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동답은 3마지기(약 450평) 정도 된다고 하며 현재 노인정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정에 있는 마을 노인들이 직접 동답을 경작한다. 동답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약 100만원이 못되며 이 중에서 30만원 정도만 제물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노인정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 제보자 : 한영희(남, 78세, 평택시 세교 3동 255-3)
 송광섭(남, 76세, 평택시 세교 3동 416-9)
 임경재(남, 75세, 평택시 세교 3동 109-10)

28-3. 안중면 덕우1리 원덕우마을 우물제와 산신제

1) 마을개관

덕우리(德佑里)는 자미산²²⁾과 비파산이 감싸고 있는 마을로 1989년에 청북면에서 안중면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1리인 “원덕우”와 2리인 “수촌”(박씨 집성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미산성 아랫자락에 위치한 원덕우 마을이 더 오래된 중심마을임을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다. 마을은 전체 84가구로 가옥의 배치는 마을 앞의 도로를 따라서 일자형으로 기다랗게 늘어서 있어서 선상 취락구조를 이루고 있다. 마을 왼쪽의 “서낭고개”를 넘어서면 안중면 용성 2리 및 오투기 식품공장과 연결되고 오른쪽으로는 안중면 4거리 큰길과 연결된다. 그 전에 왼쪽 비파산과 이어진 고개를 넘으면 용성 3리 설창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서낭고개”는 덕우 1리 생활공간의 경계가 어느 정도 끝나는 지점으로 그 고개 오른쪽 자미산 자락에 산신당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논이 좌우로 길게 펼쳐져 있고, 논 가운데에 마을내 전주 이씨 후손들이 관리하는 우물이 있다. 마을에는 교회가 2곳, 암자가 1곳²³⁾있으며, 기독교인은 약 10호, 절 7호 정도, 성당 1집 정도 된다. 그 외 정미소 1곳, 마을회관 겸 노인정 1곳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앗간이 있다. 예전의 사당이나 재실은 없으며, 마을 뒤쪽으로는 보호수인 느티나무(수령 150여년)가 한 그루 있다²⁴⁾. 학생들은 대부분 안중면에 있는 초, 중고등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주 생업은 농업이며, 특용작물로 비닐하우스에 노각이라고 하는 늙은 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2) 제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원래 자미산 정상 부근에 원추형으로 지은 당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곳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산중턱의 적당한 곳에서 산 정상을 향해 제를 지내고 내려온다. 당집의 흔적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 당주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물은 마을 앞 논안에 있으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도 철조망을 쳐서 보존하고 있다. 우물은 밑창에 큰 자연석을 깔고 그 위로 자갈을 섞은 콘크리트를 3단으로 쌓아 올려 매우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바깥면에 消和2年 丁卯 重推3日 竣工 龍水井이라고 음각하였다.

22) 제보자 이세재씨는 “자미산”이라고 발음하고 있으며, 평택시 군에서 3번째로 높은 산으로 해발 101m라고 하였다. 이 산 정상부근에 당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그 산중턱까지 올라가 적당한 곳에서 산신 제를 지내고 있다.

23) 약 4년 전에 생긴 덕용암

24) 높이 13m, 둘레 3.8m. 지정번호 5-14-7-20-3

3) 제의일시 및 제의진행



28-4. 안중면 덕우리 산신제 분육장면

원덕우 마을의 공동체 신앙은 매년 한번씩 행하는 당제가 전승되고 있다. 연중 마을 공동의 가장 큰 행사로, 마을 공동우물에서 수신제(水神祭)로 여기고 행하는 우물고사와 산위에서 산신을 위하는 산신제(山神祭)를 함께 지내고 있다. 제의 일시는 매년 음력 7월 1일로

고정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은 “당제”, “산신제” 등으로 칭하고 있으며, 제의 당일날 제물을 구입하고 낮에 우물제를 먼저 지낸 후 제물을 준비하여 밤에 산신제를 지낸다. 이 마을의 공동체신앙은 전주 이씨²⁵⁾가 중심이 되어 전승하고 있다. 따라서 당주도 전주 이씨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적으로 모범이 되고, 다복한 집으로 골라서 맡긴다. 집안이 깨끗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고, 당해연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굶은 일이 있으면 안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당주를 선정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4-5회 이어서 계속하기도 하는데 현 당주²⁶⁾도 7-8회 정도 당주 일을 맡아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주집 문 앞에는 황토 한무더기와 재를 뿌린 물 한 그릇이 놓여 있는데, 제의 당일 날 아침에 당주의 모친이 직접 놓은 것이다. 양쪽 대문에 각각 놓았는데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고 부정 타지 말라는 뜻으로 비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물 떠났다”고 하는데, 제당이나 우물에는 하지 않고 당주집 앞에만 놓았다가 당제가 끝난 다음날 쓸어버린다. 집고사 때에는 하지 않았다.

당제 제물은 옛부터 황소 한 마리를 구입하여 쓰고 있다. 당제 지내는 당일 날 아침 이장과 마을사람 몇 명이 함께 안성 공도면에서 개인이 키운 소 한 마리를 구입하여 도축장에서 잡아 가지고 왔다. 무게 660kg짜리를 360만원에 구입하였다. 마을 공동기금으로 먼저 구입하고 후에 총 소요 경비를 계산하여 호당 고기를 가지고 간만큼 값을 계산하여 걷는다. 조사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제물로 쓸 소가 마을에 도착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앗간에서

25)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로 25-30호 정도 거주

26) 이제재 (남, 53세, 교사). 마을일에 적극적이며, 고인이 되신 부친도 초등학교 교감을 지내셨다. 현재 생존해 계시는 모친이 고사축원도 잘하고 민속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생고기를 펼치고 몹을 나누는 작업에 들어갔다. 고기를 나누는 일은 외부에서 일당 인부 1명을 구했으며, 마을 남자들 몇 사람이 함께 거들었다.

고기는 갈비, 뼈 등 큰 덩어리는 별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데, 이렇게 미리 큰 덩어리를 비싸게 팔아야 그 외의 것을 싸게 나눌 수가 있다. 살코기와 천엽, 내장, 피도 동일하게 나누며, 기름 덩어리는 대부분 버린다. 이번에는 총 70몹으로 나누었다.²⁷⁾ 남은 고기만 총 420근으로 이를 몹별로 달아 나누니 100kg 모자라는 5근씩이 된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나무고 다른 한쪽에서는 천엽 등 내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나눈다. 고기와 내장 천엽을 같이 한 몹씩 주는 것이다. 작업 중에 당주집으로 가 점심국수를 먹었다. 고기의 몹을 나누는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며 끝나갈 무렵인 1시 40분에 이장이 고기를 받아가라는 동네방송을 하자 집집마다 고기를 담을 그릇과 피, 내장을 담아갈 그릇들을 들고 작업하는 곳으로 모여 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모여들어 작업장 안이 가득 찼다. 이장이 기록을 하면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 작업이 끝나면 이장이 맡은 일은 끝난다. 총 경비를 계산하여 한 달 내로 각 호별 고기 대금만 거두면 되는 것이다. 2시 40분에 작업이 끝나고 이장이 뒷청소를 하였다.

(1) 우물고사

소고기를 나누는 동안 당주는 집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우물고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 당주가 당일 날 아침에 미리 청소를 해 두었다. 11시 20분경에 고기를 나누는 곳에서 소다리 한 쪽(뒤오른쪽 다리)을 긴 나무막대에 끼워 두사람이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나



28-5. 안중면 덕우리 우물고사

갔다. 당주가 뒤따르고 당주부인이 돗자리와 막걸리, 술잔을 가지고 와 전해주었다. 제물고기

27) 주민등록상 총 가구 수는 84가구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동회 참여 가구 수는 72가구이다. 그 중 천주교 인과 독신가정 2가구만 당제 제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는 우물 안쪽으로 가로 질러 걸었다. 당주는 돛자리를 깔고 작은 상을 놓고 막걸리 한 병과 물 컵 2개를 올려 두었다.

당주는 곧바로 막걸리를 잔에 받아 올리고 “쌈물 좀 잘나오게 해주시고 이 물을 먹고 동네사람들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소리 내어 입축언을 하였다. 이어 두 번 절하고 막걸리를 사방으로 뿌리면서 “막걸리도 많이많이 잡수시고, 고기도 많이많이 잡수시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언하면서 제물로 올린 생고기도 칼로 조금씩 잘라 사방에 던졌다. 함께 자리한 3사람이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고 제물고기도 조금씩 잘라 막걸리와 함께 음복하였다. 11시 30분에 우물고사가 끝났으며, 당주부인은 우물고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돛자리 등을 받아들고 들어왔다. 당주집에는 남자 어른들이 몇 분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뒷마당에서는 두 개의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한 솥에는 국수를 삶아 점심에 나누어 먹고 한 솥에는 소머리를 삶아 산신제 제물로 가지고 간다. 당주집에서는 별도로 산시루를 올리는데, 2시 30분경에 시루 찜 쌀을 찜기 위해 당주 모친이 직접 방앗간에 갔다. 쌀은 1되 7홉 3주먹 분량으로 하며 흰무리로 당주집에서 직접 찬다.

(2) 산신제



28-6. 안중면 덕우리 산신제

당주는 조금 쉬었다가 12시 15분부터 일을 도와주는 몇 사람과 함께 산신제 제물로 쓸 소머리를 불에 그을리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소머리가 폭 삶아져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 당주집에는 마을사람들도 몇 명 모이고 출가한 딸 가족까지 모두 모여 종일 떠들썩하였다.

저녁식사 후 밤 9시경에 제물

을 지게에 지고 당주, 당주모친, 작은아들, 딸 등 몇 명이 산으로 향하였다.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되며, 당주가 미리 제물 지낼 장소까지 올라가는 길에 풀을 베어 두었다. 비가 조금씩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는 상황이었다. 산 중턱쯤 올라가 돛자리를 펴고 젓상을 차렸다. 삶은 소머리와 당주집에서 산시루로 찬 작은 흰무리를 시루채 올렸다. 시루위에는 실을 묶은 북어 한 마리를 올리고, 촛대에 촛불을 켜다. 막걸리와 술잔 두 개를 올렸다.

당주가 먼저 술을 두잔 쟈상에 올리고 “원덕우리 그 동안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지켜주셨고,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도 더 건강하고 모든 일 잘되고 풍년 되게, 모든 일 소원성취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입축언을 한 후 절을 두 번 하였다. 술 두 잔을 한 잔씩 쟈상 앞쪽으로 3번에 나누어 버리고 다시 두 잔을 부어 쟈상에 올리고 모친에게 축원하라고 하였다. 모친은 절을 3번 하고 제상 앞에 앉아 길게 입축언을 하며 비손하였다.

“1999년 기묘년 해우년에 7월이라 상달이 옳습니다. 이렇게 원덕우리에서 소머리를 삶아서 당할머니, 당할아버지께 바쳤으니 몰라라하지 마시고 당할머니, 당할아버지께서 원덕우리 아무 연고 없이 사고 없이, 남의 동네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우리 동네는 재미산에 당할머니, 당할아버지께서 딱 누르셔서 사고 없이 하시고 맘먹고 뜻 먹은 대로 그저, 소머리 고사로 고이 곱게 받아주시고 연고 없이, 사고 없이 받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동네 집집마다 다 이름을 다 불러 댈 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김씨 네며, 이씨 네며, 최씨 네며, 박씨 네며, 그저 여러 각성 동네 여러분들 다 재미산에 당할머니, 당할아버지께서 그저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다 잘못된 것은 무릎 밑에 접어놓으시고, 앞으로 해운은 뭐든지 다 마음먹고 뜻 먹은 대로, 고이 곱게 그저 받들어 주옵소서 … 중략 … 이 75호 되는 여러 집안을 재미산에 당할머니, 당할아버지 행운은 앞으로 잡으시고 액운은 뒤로 물리쳐서 다 고이 곱게 받들어 주옵소서.”

비손 후 절을 3번 하고, 막걸리 두 잔을 양쪽에 뿌리면서 다시 입축언을 하였다.

“물아래 참봉, 물위 참봉, 못 먹었네 먹었네 하지 말고, 막걸리도 많이많이 잡숫고 고기도 많이많이 잡수시고, 다 고이 곱게 받드시고…” 여러 번 반복하여 입축언을 하면서 고기와 막걸리를 사방에 뿌린다. 이어서 소지를 올리고 마쳤다.

당주집으로 돌아와 한쪽에서는 제물로 음복을 하고 한쪽에서는 제물로 쓴 소머리고기를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15cm 정도 되는 나무꽃이에 손바닥 네 등분한 크기로 자른 고기를 두 저름씩 쪼았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동네 집집마다 하나씩 나누어 준다.

4) 결산 및 마무리

당일 날 저녁에 이장은 마을 총무와 함께 경비에 대한 결산을 한다. 이번 제의경비에 대한 결산은 다음과 같다. 마을총무가 작성한 내용이다.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99년 8월 11일자(음력 7월 1일) 마을 연내 행사에 있어 주민께 정지고사 일체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값	660×5450 = 3,597,000원	갈비	43근×8,000원 = 344,000원
2. 소운송비	= 50,000원	갈비	45근×8,000원 = 360,000원
3. 도살비	= 90,000원	족	4개 = 220,000원
4. 냉동차	= 200,000원	사골	4개 = 240,000원
5. 작업비	= 130,000원	지라	= 10,000원
6. 제초작업(8. 7)	= 60,000원	도가니	= 65,000원
7. 점심, 당주 잡비	= 104,000원	간	= 28,000원
8. 경상비	= 23,000원	꼬리방골	= 180,000원
		등뼈	= 60,000원
총 지출	4,254,000원	참뼈	= 50,000원
		목뼈	= 25,000원
총 지출	4,254,000원 - 잠육계	소가죽(1근1,500원)	= 120,000원
	2,041,500원 = 원목 총계	남은고기	= 357,500원
	2,212,500원 ÷ 70	잠육계	= 2,041,500원
	일목당 32,000원	고기값 1달 이후 납부자 2% 가산금	

1999. 8. 11

마을 총무 이 정 석

동네는 마을길을 중심으로 크게 ‘윗나분들’이 약 40호, ‘뒤편’이 약 50호로 전체 90여 호에 이른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농토는 북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마을 앞쪽으로는 ‘넓은들’이라하고, 영평천으로 흘러드는 지류를 넘어서는 ‘사장뜰’로 불린다. 나분들에 서는 대체로 논농사를 짓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경제작물이나 축산(착유), 육우 및 과수 농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29-1. 산제사후 북어를 신목에 걸어둠



29-2. 산제사터 신목(神木)

제당을 마을 가운데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100m 지점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제당은 목정밭이 끝나는 낭떠러지 부근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는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는 수령 약 3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엄나무가 서있다. 엄나무 주변에는 수백 년 된 참나무 등도 함께 서있다. 신목인 엄나무는

말구 둘레가 2m가 넘으며 지상으로 뺨으면서 크게 3가지로 갈라져서 자라고 있다. 현재 9월에 제의를 올렸던 소지종이와 북어가 매달려 있다. 원래 이 말은 수북 마을이었기 때문에 토박이 집은 원래 많지 않아 1950년대 지금의 마을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마을 제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목(神木) 앞에는 화강석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그 전에도(수북전) 이곳은 당시 정착했던 사람들의 신목으로 모시고 있었다고 한다.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 9월 9일이다. 제의 시간은 새벽 4시경에 올린다. 마을에서는 '산제사'라고 표현하며 이곳을 특별히 산지터라고 부른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그 해 산제사가 끝나면 다음해 이루어질 제의 일시와 제관선출을 미리 하여 다음 제사에 만전을 기한다. 선출된 제관 분은 사실상 혼자서 일을 처리한다기 보다는 제관이 선출된 가구 전체 일로 의미된다. 즉 제관의 부인도 제관을 도와 제의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생기 복덕을 가려 뽑던 제관 선출은 몇 년 전부터 동네 전체 윤번제로 하고 있다. 사실상 많은 가구 수가 아닐 뿐 만 아니라 사실상 제관이 된다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한 결과로 마을회의로 윤번제가 결정된 것이다. 제관으로 선출된 분은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제의 3일 전부터는 각별히 몸을 조심하고, 목욕 재계를 하며 집밖 출입을 가급적 삼간다. 제관 집에는 특별히 금줄을 메고 대문 앞에는 황토를 뿌리지 않지만 제당에는 제의 하루전날 금줄을 메고 당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분들의 모든 가옥이 불교 혹은 무교(無敎)이기 때문에 산제사에 100% 참석율을 보인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마을 이장과 제관집에서 함께 장만한다. 주로 포천 읍내에 나가서 제물을 구입하나 최근에는 영중면 장에 나가서 구입한다. 주요 제물로는 '돼지머리'로 가장 크고 잘생긴 것으로 장만한다. 기타 제물로는 대추, 밤, 배, 감(곶감), 사과 등의 과일과, 삼색나물(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소탕용 두부, 대구포, 통복어 등을 구입한다. 제물은 날것을 쓴다기 보다는 제주 집에서 삶은 것은 삶고 간할 것은 간을 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가장 나중에 제상에 진설한 밥을 준비하고 그것이 끝나면 새벽 3씨쯤 제관과 동장, 통장 등 마을 대표들이 산을 오른다.

제물이 도착되면 곧 진설을 마치고 제관은 잔을 드린다. 이후 이장이 제주를 다시 올리고 절한다. 그 다음은 통장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순서로 제의가 진행된다. 특별한 축문이 없고 제의가 끝나면 간단히 동네 안녕과 사육가축의 무탈을 비는 것으로 모든 제의가 끝난다. 제의가 끝나면 남은 소지종이에 통복어와 약간의 제물을 싸서 신목에 걸어두고 간단히 현장에서 음복을 하고 철상한다. 보통 4시경에 제의를 올리면 5시경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보통 제의가 끝날 무렵이면 동쪽이 밝아 올 때 쯤이다. 제관 집에서는 부인이 아침 준비를 한다. 소고기를 조금 넣은 맑은 무국과 밥을 준비하면 동네 분들이 모두 모여 음복한다. 이 때 아침 식사를 하며 동네 대소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이것으로서 모든 제의가 끝이 나고 이장과 제관은 결산 보고를 한다. 나분들에서는 마을 기금이 별도로 있어 이것으로 제비를 충당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월초 가가호호 정성껏 내어놓은 기금으로 제비에 보태게 된다.



〈그림 59〉 영중면 양문 2리 나분들 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

□ 제보자 : 이상필(남, 42세, 양문 2리 이장)

29-2. 영중면 성동 3리 산제사

1)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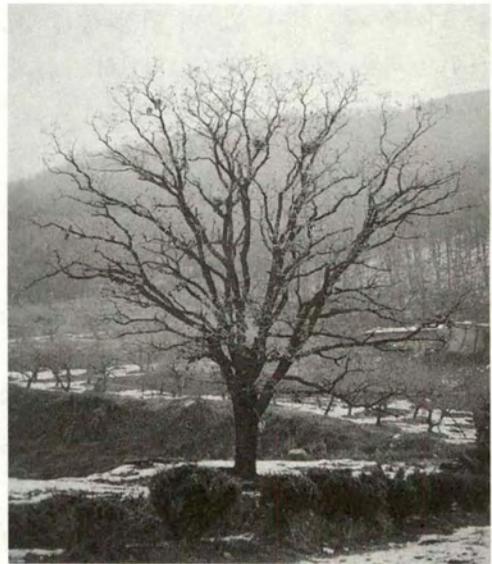
포천군 영중면은 군내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는 양문 1리에서 동북쪽 농로길로 약 1.5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성동 3리는 '풍혈산유원지'와 인접하고 있다. 한 여름 6월 까지도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녹지 않는데서 유래한 풍혈산이 마을 주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남동쪽으로 자리 잡은 풍혈산 아래로 약 58호가 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각성 마을이다. 동네 자연마을명은 '삼합(三合)'이라고 부른다. 자연동리 3개가 모여 이루어진 동네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논농사에 주력하고 있으나 풍혈산 기슭으로 산밭을 이용한 과수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야채 등을 일부 생산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 '앞들'은 제법 규모가 있는 들로 대부분 1모작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다.



〈그림 60〉 영종면 성동 3리 당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신목(神木)으로 오리나무를 위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산제당터'라 부른다. 성동 3리는 마을 중심길이 '+'자형으로 이루어진 원형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최근 신축한 마을회관 겸 노인회 경로당이 자리 잡고 있다. 산제당터는 이곳에서 마을 중심길을 지나 마을 우측 끝 냇시터가 끝나는 풍혈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약 50m 지점에 마을 상여각이 있다. 원래 성동리에서는 오래된 신목 참나무가 있었으나 고사(枯死)되어 약 50년 전(한국전쟁 이후) 지금의 오리나무 신목으로 제의 장소를 옮기고 신목으로 삼았다. 현재 신목으로 정해진 오리나무는



29-3. 성동3리 산제당터 신목

까치집이 달려있고 작년 10월에 올린 제물인 북어가 달려있다. 신목은 원가지에서 2m 정도 올라간 후 균일하게 가지가 뻗어 잘 조정된 나무처럼 보인다. 말구 둘레가 약 120cm 정도되어 수명이 100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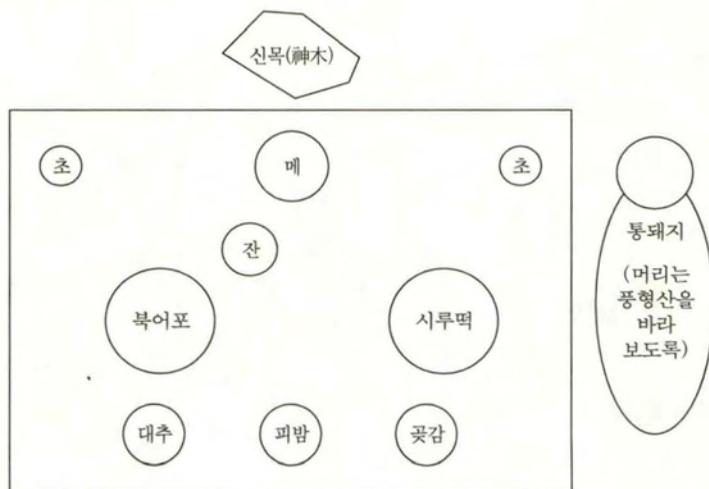
3) 제의내용

산제사일은 음력 10월 초순 4-5일 내에 이루어진다. 제의 시간은 밤 6시쯤에 올린다. 과거에는 자정무렵에 제의를 올리다가 약 10여 년 전부터는 초저녁에 제의를 올리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산제사’라고 표현하며 신목이 있는 곳을 ‘산제당터’라 부른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과 제관(화주)의 선출은 음력 9월 말일 날이나 10월 초 하루날 쯤으로 대략 제의가 행해지기 2-3일전 쯤 마을회관에서 결정한다. 제의 일자는 가급적 책력을 보고 맞추며 10월 중 1, 2, 3일날 등 빠른 날을 잡는다. 만약 좋은 날이 이 사이에 간택되지 않으면 4일이나 5일 날 제의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제관(화주) 선정은 “올해는 무슨 띠에 몇 살짜리가 맞는다”는 생기복덕을 가려 선택된다. 일단 화주가 선출되면 그 날 당장 화주 집에는 술가지를 끼운 금줄을 대문에 두르고 매사에 근신하며 바깥출입을 자제한다. 특히 비린 음식이나 외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 또 제당에도 제의 하루전날 금줄을 매고 당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대부분 성동 3리 분들은 불교도가 많아서 산제사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마을 이장이 주로 포천 읍내에 나가서 구입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가격을 흥정하지 않으며 가장 좋은 물건으로 선택한다. 주요 제물로는 ‘통돼지’로 크고 (150근 이상) 잘생긴 것으로 장만하는데, 돼지를 고를 때 몇 가지 선별 기준이 있다. 돼지는 가급적 검정돼지를 사용하며, 반드시 수돼지를 잡는다. 경우에 따라 최근에는 흰 돼지를 잡는 경우도 있으나 얼룩반점이 있는 돼지는 절대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 돼지는 최근에는 양돈농장에서 구입하나 과거에는 동네에서 기른 돼지를 잡았다. 기타 제물로는 간단히 삼색실과(대추, 밤, 감(곶감))와 대구포, 통북어를 구입한다. 특히 시루떡은 반드시 화주 집에서 장만한다. 진설할 제주는 화주가 제의 하루전날 밥과 누룩을 준비하여 제당 옆에 묻어 제주(조라)를 1되 정도 분량이 나오도록 준비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가장 나중에 제상에 진설한 메를 준비한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산제당터로 향한다. 산제당터에는 제관(화주)과 동장, 통장 등과 부정이 없는 마을 대표들이 5-6여명이 산제당터로 오른다. 제물이 도착되면 곧 진설을 마치고 화주는 잔을 드린다. 보통 6시경 산에 올라 제의를 올리면 8시경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먼저 화주가 술을 한잔을 붓고 절을 올리면 이어서 이장이 절하고 이장은 준비해 온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풍혈산 산신님께 올해도 큰 탈 없이 마을을 보살피 주심에 감사

하고 내년에도 동네 무탈하게 해주시고,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농사 잘되게 해주시고, 가축병이 안나고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축문은 후에 소지를 올릴 때 함께 태워 올린다. 이어서 통장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 후 함께 제의에 참석했던 분들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 순서로 절을 한다. 제의가 끝나면 각 호의 백지 소지를 올리게 된다. 소지는 동네 안녕과 사육가축의 안녕을 비는 것 등 각 가가호호의 소원을 담는 것으로 화주가 직접 올려준다. 소지가 모두 올라가면 제의가 끝난다. 남은 소지종이에 돼지 귀, 코, 볼살, 몸살, 꼬리를 반근 정도 베어 내고, 기타 통복어, 과일 등을 신목에 메어달고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한다. 음복이 끝나는 대로 철상 한다.

화주집에서는 마을 어른들을 위해 간단한 음복 준비를 하고, 제물로 올렸던 돼지를 70등분으로 나누어 가가호호 돌리는 것으로 모든 제의가 끝난다. 이장과 화주는 제의 경비를 설명하고 결산 보고를 한다. 성동리에서는 제의 전날 각 가정마다 정성으로 각출하여 제비를 마련한다(2002년의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7,000-10,000원 정도 각출하였다). 돈이 남게 되면 다음 해 쓸 수 있도록 적립하여 이장이 보관한다.



〈그림 61〉 영중면 성동 3리 삼합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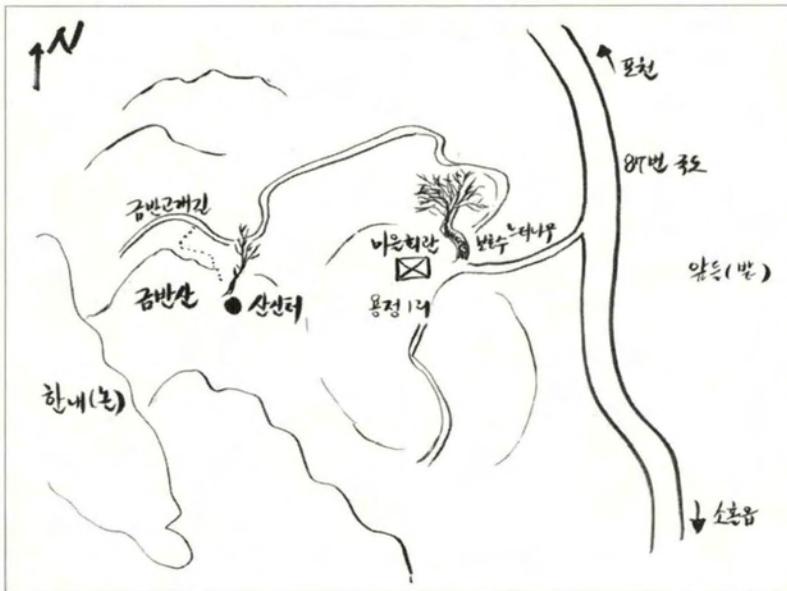
□ 제보자 : 김기동(남, 77세, 성동리 노인회)

김주동(남, 45세, 전임 이장)

29-3. 군내면 용정리 산신제

1) 마을개관

포천군 군내면은 군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현감이 있던 고장이라 현내면(縣內面)으로 불리다가 1905년 구읍리에 있던 군청이 지금의 포천읍 신읍리로 이전하면서 군청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군내면으로 개칭되었다. 용정 1리는 43번 국도에서 갈라지는 87번 국도 4km정도에 연하여 위치하고 있다. 마을서쪽으로는 포천천이 흐르고, 마을 뒤쪽(남쪽)으로 얽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당이 있는 이곳을 금으로 만든 반처럼 생겼다 하여 '금반산(金盤山)'이라 한다. 이 금반산을 고갯길을 넘어서 '한내'라는 농토가 펼쳐져 있다. 대부분의 논농사는 이곳에 있고, 마을 앞쪽(북쪽) 87번 도로 너머로 밭농사를 많이 하는 '앞들'이 있다. 대부분의 토박이들은 각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논농사로 벼를 생산하고, 밭에서는 감자와, 옥수수, 고추 등을 생산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용정리 주민은 약70%에 달하고 나머지는 읍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그림 82〉 군내면 용정 1리 당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신목(神木)으로 수령 100년 정도의 단풍나무로 금반산 고갯마루에서 산 정산 부위로 걸어가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산신티'라 부른다. 마을회관에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용정리에서 모시던 단풍나무 신목은 고사(枯死)되었고 그 뿌리가 자라나 현재의 단풍나무가 신목이 되었다. 신목은 작년에 지낸 제의의 흔적으로 신목 앞에 짚으로 터주가리를 틀어 놓았고 그 앞에 50cm 정도의 각기목을 이용하여 '土地山神之神'이라고 쓴 비목(碑木)이 박혀있다. 이 비목은 제보자가 직접 세운 것으로 해마다 새롭게 세운다고 하였다. 신목인 단풍나무는 주변의 다른 수목보다 오히려 굵기나 크기가 작아 보였으나 주변에 단풍나무와 같은 수종이 없고 당 주변만 노지로 형성되어 있어 신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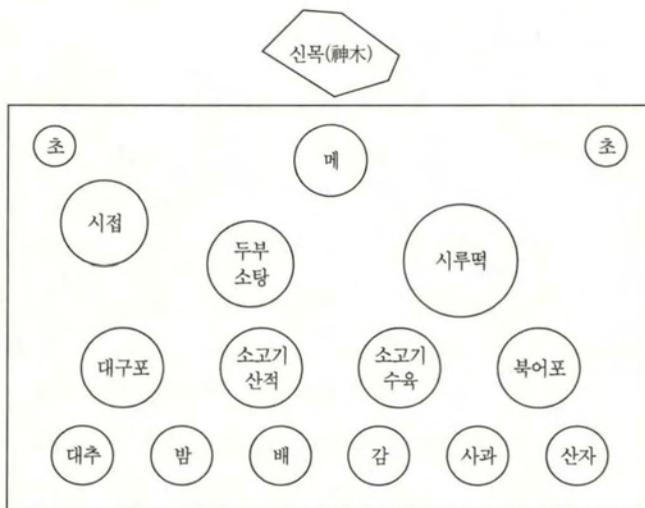
29-4. 용정리 산신티 신목

3) 제의내용

산신제 제의는 음력으로 반드시 10월 초순 홀수 날에 이루어진다. 제의 시간은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올린다. 용정리에서는 이 제사를 '산신제'라고 표현하며 신목이 있는 곳을 '산신티'라 부른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읍내에 있는 유명한 지관을 찾아가 날을 받았으나 현재는 음력 9월 말에 제보자의 집에서 제보자가 결정한다. 아무리 생기복덕이 잘 맞아도 그 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집은 제관 후보에서 제외된다. 일단 선정된 제주와 제관은 그 날로 술가지를 끼운 금줄을 대문에 두르고 매사에 근신하며, 특히 비린 음식이나 외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 만약 부정한 것을 하다가 동네 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제주 혹은 제관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본인은 바깥출입을 자제한다. 또한 제의 3일전 오전에는 제주 및 제관이 산신티에 올라 잡초를 치고 주변 청소를 한다. 이때 미리 준비해간 짚으로 주저리를 튼 터주거리와 임기현웅(남, 80세)이

직접 쓴 50cm 정도의 각기목에 ‘土地山神之神’이라고 쓴 비목(碑木)도 함께 신목 앞에 심는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제주(祭酒)로 사용할 ‘조리’를 담은 밥과 누룩을 가지고 가 신목 아래에 묻어 두었다가 이튿날 제의 때 사용한다. 그 양은 소두 1되 정도쯤 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미리 선정하였던 제물 구입자가 주로 포천 읍내에 나가서 구입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가격을 흥정하지 않으며 가장 좋은 물건으로 선택하며, 유교식 기제사에 쓰는 제물로 장만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제물은 삼색실과(대추, 밤, 감(꽃감))와 배, 사과, 등 과일과 대구포, 통복어 3마리, 소고기(소고기 산적용과 소고기 수육용), 두부, 다시마, 산자 등을 구입한다. 특히 시루떡과 메는 반드시 제주 집에서 장만한다. 산신터에는 제주와 제관 동장, 통장 등과 부정이 없는 몇 분이 참석하며, 제물이 도착하면 제물을 담아 진설을 마치고 제관이 잔을 드린다. 보통 11시경 산에 올라 제의를 올리면 2시경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먼저 제주가 술을 한잔을 붓고 절을 올리면 초헌관이 축을 읽는다. 이어서 아헌관, 종헌관이 절한다. 축문은 나중에 소지를 올릴 때 함께 태워 올린다. 그 다음은 마을 이장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고 함께 제의에 참석했던 분들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 순서로 제의가 진행된다. 제의가 끝나면 각 가가호호의 백지 소지를 올리게 된다. 소지는 ‘아무개 소지올시다 금년에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남은 소지종이에 복어와 시루떡을 신목에 매어달고 제의를 마친다. 제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동네 어른들이 산신터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음복을 하게 된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고기를 제물로 넉넉히 준비하였다가 동네 가가호호 나누어 주었으나 마을 회의에서 간소화를 주장하여 이와 같이 현



〈그림 63〉 군내면 용정 1리 산신제 제물상차림

장 음복으로 간단히 제의를 마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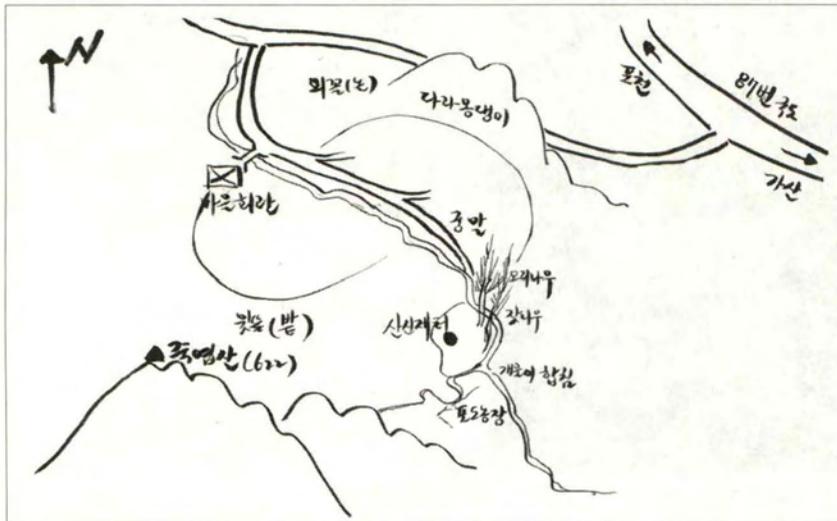
용정리에서는 '이중계'가 있어 동네 대소사를 관할한다. 이중계의 대표는 '영좌'라고 하는데 최소 환갑을 넘긴 어르신이 선출된다. 산신제의 제비 마련은 이중계에서 가을 추곡으로 추렴하여 진행하는 것이 전통이다.

□ 제보자 : 임기현(남, 80세, 산신제 축문과 산신터에 '土地山神之神'이라는 문구를 써서 비목을 세워들 만큼 적극적으로 산신제에 참여)

29-4. 가산면 금현 2리 궁말 산치성

1) 마을개관

포천군 가산면은 군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지역이 마흘군으로 일컬어졌던 고구려시대부터 현재까지 그 관할구역 내에 속하여온 지역이다. 1914년 읍면통폐합에 따라 청량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가산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평지가 발달하였으며 기름진 충적평야가 전개되어 농사에 적합하다. 조사지역인 금현 2리 궁말 역시 논과 밭이 풍부한 농촌 지역이다. 마을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고,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앞 내는 포천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마을 뒤로는 남쪽으로 우뚝



〈그림 64〉 가산면 금현 2리 궁말 당 위치도

솥은 죽엽산(622m)이 마을 동쪽 국사봉(546m)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주로 밭이 발달하였다. 마을에 많은 성씨로는 김해 김씨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여러 성씨들이 들어와서 세거하는 전형적인 각성만이 마을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공장을 제외하고 약 70세대가 살고 있다. 약 마을의 논들은 주로 '다라몽맹이라' 불리는 야산 구릉 너머로 길고 넓게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궁말 논농사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밭은 주로 죽엽산 산록 아래로 펼쳐지고 있는데 과거 감자나, 옥수수를 심던 것에서 요즘에는 대단위 과수농사나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 현재 궁말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농사를 포기하고 동네에 들어온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궁말에서는 논농사를 통한 벼농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과수, 축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야채 등을 일부 생산하고 있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앞 내(川)를 따라 죽엽산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는 내가 죽엽산 입구에서 갈라지는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가



29-5. 궁말 산치성터

로 20여 m, 세로 10m에 이르는 공터에 좌측 개울 쪽으로 오래된 잣나무와 오리나무가 여러 그루 서있고 일부는 고사하여 태풍으로 넘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이 나무들은 직접 위하는 신수(神樹)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나무들에 톱이나, 낫을 가하지 않는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잣나무의 경우는 이 인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 말구 지름이 80cm는 족히 되어 보인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산치성터'라 부른다. 현재 이곳으로 우회도로가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측량 결과를 표시하는 붉은 깃발이 제당터 가운데 꽂혀있다. 마을에서 도로가 신설될 경우 제당을 옮길지 아니면 제의 자체를 포기할지는 마을에서 선택할 문제로 남아 있다.

3) 제의내용

산치성일은 음력 9월 초순 3일 이내에 날을 잡아 이루어진다. 제의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때 올린다. 마을에서는 ‘산치성’이라고 표현하며 제당이 있는 공터를 특별히 ‘산치성터’라 부른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과 제관, 축관, 화주의 선출은 제일 확정 전 음력 8월 말일 즈음으로 대략 제의가 행해지기 2-3일전 쯤 마을회관에서 결정된다. 제의 일자는 가급적 날을 보고 선정하며 가급적 빠른 날을 잡는다. 제관, 축관, 화주, 선정은 올해는 무슨 띠에 몇 살짜리가 맞는다는 생기복덕을 가려 선택한다. 일단 제관, 축관, 화주가 선출되면 그 날부터 제관 및 축관, 화주로 선출된 집에는 창호지를 끼운 금줄을 대문에 두르고 매사에 근신하며 바깥 출입을 자제한다. 특히 비린 음식이나 외지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다. 또 제당에도 올라 금줄을 메고 당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대부분 궁말 사람들은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치성에 참여하는 편이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 중 조라는 술을 담지 않고 식혜로 담는다. 제의 하루전날 화주는 밥과 엿질금, 향아리를 챙겨서 산치성터로 가서 조라를 담는다. 특히 제물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은 소머리와 소다리이다. 원래 궁말에서는 ‘통소’를 사용하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소머리와 다리로 제물을 약소화 하였다. 소머리와 다리는 인근에 있는 ‘내천’의 도살장을 찾아 미리 제물로 쓸 것임을 알리고 좋은 농우황소로 예약한다. 이 밖에 제물로는 삼색실과(대추, 밤, 감(곶감))와 북어포를 구입한다. 특히 시루떡은 반드시 화주 집에서 장만한다. 제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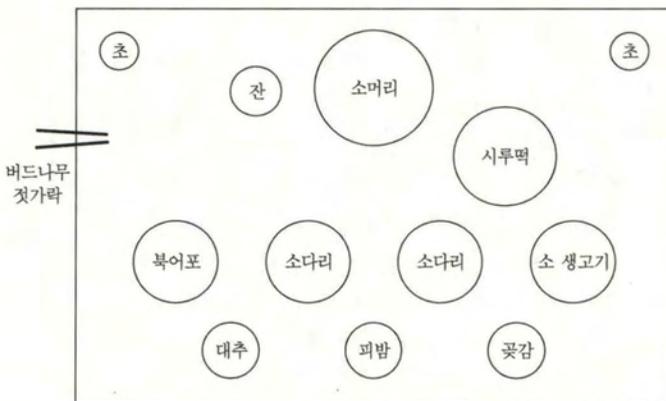
유세차00십월00삭일 감소고우
 청성구구 동준지축 각유방진 명왕죽엽조어
 수원중간 운악서음장오령중 자각채운
 상표유지 기중인연 사기미불 유죽오인 치대반편
 신막비상 북비유수왈 유죽오인 치대 반편
 필연부속 습빈색풍 고요구시 회우질화
 여혼편모 모침동수 거천연일재성 길월영진
 소지위선 지성무문 유시재숙 질주 황관
 성일주일 일전축분 향번영중 승서기서섭
 거호표잔 와주이멸 유산행무사 수행무재
 세우풍적 축이물고 가태인 안 종년히히
 신역유광 세수기형 축사기등 신기
 상향

〈가산면 금현 2리 궁말 축문〉

가 완료되면 산치성터로 향한다. 산치성터에는 제관, 축관, 화주 및 동장, 통장 등이 제의를 치르기 위해 깨끗한 옷을 입고 치성터로 향한다.

제물이 도착되면 곧 진설을 마치고 제관이 잔을 드린다. 보통 11시경 산에 올라 제의를 올리면 1시경에 모든 제의가 끝난다. 먼저 제관이 술을 한잔을 붓고 절을 올리면 이어서 축관이 축을 읊는다. 축은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써진 것을 천천히 읽는다. 그리고 나면 이장이 술을 붓고 절을 올린다. 재배가 모두 끝나면 축문은 나중에 소지를 올릴 때 함께 태워 올린다. 그 다음은 통장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고 함께 제의에 참석했던 분들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 순서로 제의가 진행된다.

제의가 끝나면 각 호당 소지를 올리게 된다. 소지는 '동네무탈'과 '사육가축의 죽음과 병을 막아 달라'는 내용과 가가호호별로는 나름의 소원을 올리게 된다. 모든 소지는 제관이 맡아 올려주며 소지가 모두 올라가면 모든 제의가 끝난다. 제의가 끝나면 남은 소지종이에 소고기를 조금 떼어 치성터 구석에 뿌려둔다.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한다. 음복이 끝나는 대로 철상 한다. 제주집에서는 저녁을 준비하여 제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마을 회관에서도 동네 분들이 모여 술을 한잔씩 하는 것으로 음복을 대신한다. 옛날에 통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화주집에서는 마을 어른들을 위해 간단한 음복 준비를 하고 제물로 올렸던 통소를 똑같이 분배하여 가가호호 돌리는 것으로 모든 제의가 끝이 났으나 통소를 사용하지 않고 소다리와 머리를 마을 회관에 두고 누구나 와서 음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장은 제의 경비를 설명하고 결산 보고를 한다. 궁말에서는 마을공동기금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제의 경비를 마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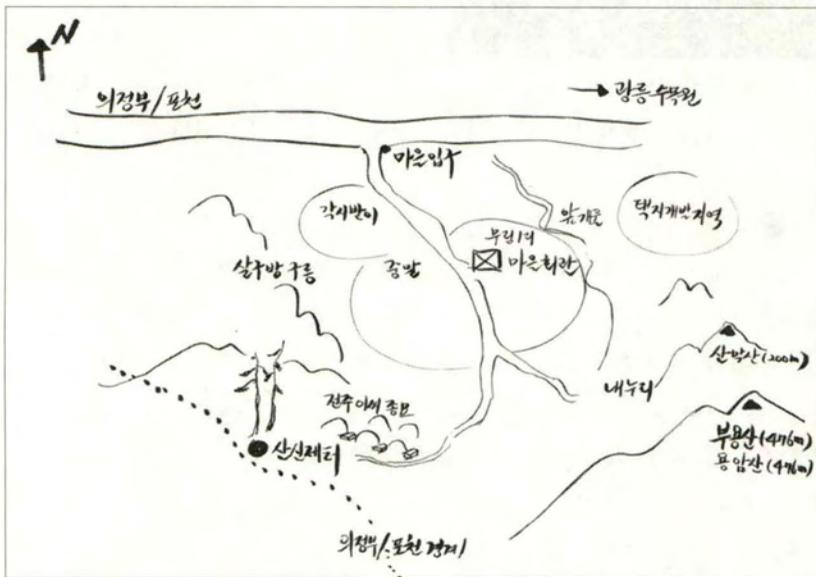
〈그림 65〉 가산면 금현 2리 궁말 산치성 제물상차림

□ 제보자 : 김창옥(남, 73세, 궁말노인회)

29-5. 소흘면 무림리 증말 산신제

1) 마을개관

소흘면은 포천군의 서남단에 위치한 면으로 용암산(용암산476m)을 기점으로 의정부시와 연하고 있다. 본래 남면이라 칭하여 오다가 1895년 외소면과 내소면을 병합, 소흘면으로 개칭되었다. 북쪽만이 포천읍을 향하여 터져 있고 모두 산으로 둘러 포천천과 그 지류가 모두 북류하며 그 유역에 경작지와 취락이 발달되어있다. 특히 과수농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배의 생산량이 군내 1위이다. 조사지인 무림리 증말은 98번 지방도가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마을 동쪽으로는 용암산 줄기인 산막산(200m)이 위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능참봉어른(세종대왕릉을 지키던 능지기)이 내누리에 살다가 현재 증말이 양지바르고 살기 좋으니 분동하는 것이 좋다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 쪽으로 토지들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대부분 과수나무들이 들어서 있다. 과수나무는 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산막산 앞쪽으로는 개발지역으로 변경되어 대규모의 주택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증말이 남양주와 의정부가 연하고 있어 택지개발에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을에는 서울이나 의정부에서 들어온 외지인들이 공장을 지어 놓거나, 전원 주택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 전체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박이들은



〈그림 66〉 소흘면 무림 1리 증말 산신제터 위치도

대체로 논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외에도 과수 농사가 발달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속성 야채와 양계, 육우, 양돈을 하는 가구도 늘어났다.



29-6. 증말 산신제 터

이른다. 마을 회관에서 산신제당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의 신체는 신목(神木)으로 수령 100년 정도의 소나무로 내누리로 가는 길 끝 야산(살구방)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산제사터를 기점으로 왼쪽은 의정부시 낙양동으로 들어가는 경계지점으로 제당 아래쪽으로 의정부 낙양동의 농토가 계곡 사이로 펼쳐져 있다. 제당 오른쪽에는 전주이씨 증중묘가 산개되어 있다. 원래 증말의 산신제는 내누리와 분동되기전 함께 올렸으나 한국전쟁 이후 별도로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내누리에서 제의를 올리고 난 후 수일 있다가 제의를 행하는 것은 '증말이 작은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산신제터에는 소나무에 작년 8월에 올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소나무는 홍송(紅松)으로 말구 지름이 약 30cm 정도에

3) 제의내용

마을에서는 이 제의를 '산신제'라고 한다. 제의는 음력으로 8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택일한다. 원래 증말은 내누리에서 분 되었기 때문에 내누리에서 제의를 올리고 난 후 작은집의 의미로 제의를 올리기 때문에 2-3일 늦게 올린다. 제의 시간은 원래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올렸으나 지금은 저녁 9시쯤에 제의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산신제를 지내는, 신목이 있는 곳을 '산신제터'라 부른다. 제의일시 최종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제의를 행하기 3-4일 전에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진다. 생기복덕을 철저히 맞춘 후 제관, 축관, 화주, 및 상꾼 2명 정도가 선발된다. 상꾼들은 젊은 사람들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산신제를 배우고 앞으로 마을의 일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단 선정된 제주와 축관, 하주는 매사에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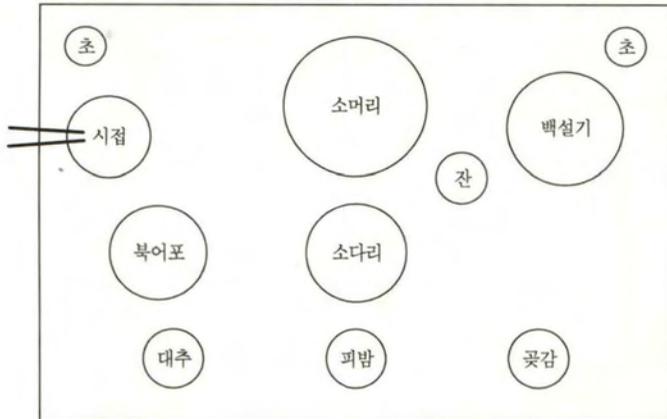
신하며, 특히 비린 음식이나 외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또한 제의 하루 전에는 화주와 상꾼들은 산신제터에 올라 잡초를 치고 주변 청소를 한다. 그리고 이 때 제주(祭酒)로 사용할 '조라'를 담을 밥과 쌀과 누룩을 가지고 가 소나무 신목 아래에 묻어 두었다가 이튿날 제의 때 사용한다. 조라는 많이 담지 않고 1되 정도쯤 담근다.

제사에 쓰이는 주된 제물은 소머리와 우족(牛足)이다. 원래 증말에서는 소 1마리를 제물로 사용하다가 1970년대 이 후 소머리와 소다리로 제물을 약소화하였다. 소머리와 다리는 인근에 있는 의정부 시내 정육점에서 맞춘다. 가급적 한우를 선택하며 황소로 예약한다. 이 밖에 제물로는 삼색실과(대추, 밤, 감(곶감))와 북어포를 구입한다. 특히 시루떡은 반드시 화주 집에서 장만한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면 초저녁에 산신제터로 향한다. 산신제터에는 제관, 축관, 화주 및 동장 등이 제의를 치르기 위해 마을회관에 머물렀다가 산신제터로 향한다.

제물이 도착되면 곧 진설을 마치고 제관이 잔을 드린다. 보통 9시경에 산에 올라 제의를 올리면 1시간 정도면 모든 제의가 거의 끝난다. 제의 차례는 먼저 제관이 술을 한잔을 붓고 절을 올리면 이어서 축관이 축을 읊는다. 축은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마을 이장이 술을 붓고 절을 올리는 것으로 제의는 모두 끝난다.

산신제의 마지막 순서는 가가호호의 소지를 올리는 것이다. 소지는 가가호호별로 나름의 소원을 고하며, 소지가 모두 올라가면 제의가 끝난다. 그 후 남은 소지종이에 소고기를 조금 떼어 신목에 걸고 북어포도 걸어둔다.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이 끝나면 바로 마을회관으로 향한다.

마을회관에서 제물로 올린 소머리와 다리를 삶게 될 국물을 끓인다. 보통 제물을 사올 때 내장과 선지를 넉넉하게 사오기 때문에 소머리와 다리가 익는 동안 충분히 음복을 할 수 있



〈그림 67〉 소홀면 무림 1리 증말 산제사 제물상차림

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음복은 사실상 잔치에 가깝다. 사실상 마을 잔치는 이튿날까지 이어지게 된다. 옛날에 통소를 제물로 올렸던 때는 통소를 똑같이 분배하여 가가호호 돌리는 것으로 모든 제의가 끝이 났으나 통소를 사용하지 않고는 소다리와 머리를 마을 회관에 두고 누구나 와서 음복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장은 제의 경비 지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결산 보고를 한다. 증말에서는 마을기금이 조성되어있어 이를 제의 경비로 사용한다.

□ 제보자 : 한춘수(남, 74세, 노인회장)

30. 하남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30-1. 하산곡동 고양골 단오제와 산신제

1) 마을개관

하남시 하산곡동 고양골은 하남시 중심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가장 큰 봉우리인 청량산(해발 480m)과 동쪽으로 검단산(해발 535m) 산자락이 끝나는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고양골 앞으로는 광주로 진입하는 43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지로 토박이들은 대체로 농사를 짓고 있다. 주로 논농사가 주를 이루며 100% 수리 안전담과 농기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일부 가옥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야채와 원예 농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양골은 현재 50% 이상 세대가 전형적인 도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급속한 도시화가 진척되고 있으면서도 현재 고양골에는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신앙 2가지가 전승되고 있다. 매년 5월 단오에 이루어지는 ‘단오제’와 함께 매년 이월 초 2년에 한번씩 짝수 해에 검단산에서 올리는 ‘검단산산신제’를 함께 올리는 혼치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림 68〉 하산곡동 고양골 당 위치도

◎ 단오제

2)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은 43번 도로가 지나가는 서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1980년 (동부면(광주시))당시만 하더라도 당나무 주변에는 논밭이었던 것이 현재는 당나무 우측에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고 전면에는 노촌(路村)이 형성되어 있다. 당목은 수령 350년 정도의 느티나무로 영양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천현동 동사무소에서는 당목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나무를 보호하고 있다. 고양골 사람들은 단오제를 “느티나무 위한다, 느티나무 위하는 날” 등으로 부른다. 원래 이곳에서 관행되었던 단오제는 6.25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다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1990년부터 다시 제사를 이어가고 있다.



30-1. 고양골 단오제 당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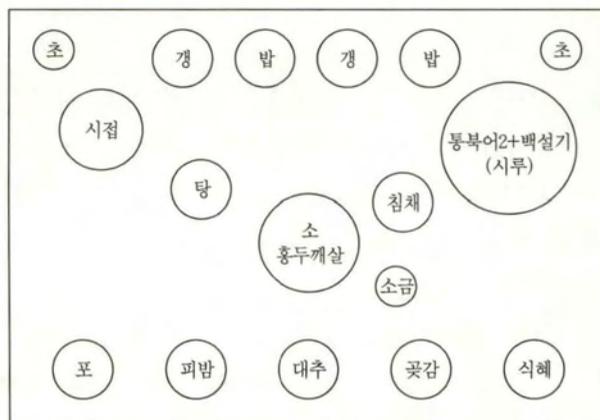
3) 제의내용

제의 일시는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 이루어진다. 시간상으로는 오전 11시 정도에 제의를 행하게 된다. 제의 일시인 음력 5월 단오가 가까워지면 일주일전 쯤 마을회관에서 글을 읽고 동네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들에 의해 생기복덕을 살펴 제관을 선출한다. 이때 제관으로는 제관 3분(초현관, 아현관, 중현관), 축관 1명, 당주 1명, 집사 4명이 함께 선출된다. 이날 제관

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제일까지 목욕재계하고 근신하는 생활을 하여야한다. 요즈음도 이러한 근신은 강조되지만 옛날보다는 엄격하지 않다. 단오제 하루전날이 되면 제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목인 느티나무에 모여 부러진 가지나 바닥에 잡초 등을 뽑으며 제당을 깨끗이 청소한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당주’와 ‘집사’들이 함께 광주시내로 장을 보러간다. 요즈음은 하남 시내로 가서 제수를 장만한다. 제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게 되며 절대 값을 깎지 않는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단오제를 올리는 제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건 값을 높게 받지 않는다. 제물로 쓰이는 통돼지는 양돈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나 예전에는 동네 돼지를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기타 제물로는 대추, 밤, 감(곶감) 등 삼색실과와 호두, 은행 및 소탕 조리용 두부와 나물, 소고기 흥두께살, 북어 등을 약간 준비한다. 이밖에 제물로 침채(김치)와 백설기를 당주집에서 준비한다. 제기(祭器)의 경우 원래 대대로 내려오던 사기 제기는 모든 폐기하고 현재 스테인레스 제기를 사용하고 있다. 제물 구입 경비는 최근 단오제 복원 후에는 하남시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주고 있으며 고양골 주민중 단오제가 다가오면 자발적으로 기부되는 경비로 모두 것을 준비하고 잔치까지 치른다.

단오제 준비가 완료되면 제물을 느티나무 신목으로 옮기고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초헌관이 강신하여 술을 올리고 절을 두 번하고 나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동네의 평안’, ‘가축의 무병생육’, ‘건강과 복’, ‘곡식풍년’을 기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제의를 올리는 유교식 제의를 행한다. 제의시 특별히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요즈음에는 하남에서 활동하는 문화패들이 참석하는 농악단이 제의 시작 전 땅을 밟



〈그림 69〉 하산곡동 고양골 단오제 제물상차림

고 제의가 모두 끝나고 난 후 풍물을 울려 분위기를 돋군다.

이날 제의가 모두 끝나면 마을회관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지금은 하루 정도 잔치를 벌이지만 한국전쟁 전에는 3일 정도 아무 일도 않고 함께 놀았던 “대동공휴일”이었다. 단오제의 경비 결산은 당일 잔치가 있을 때 발표하게 된다. 시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잔치에서 대체로 일정 금액이 이월되어 다음 제의 때 사용한다.

● 산신제

1) 당의 위치 및 형태

제당을 마을에서는 ‘산치성터’로 부르며, 마을 뒤편에 자리한 검단산 5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군부대 작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의를 올리게 될 때는 사전에 미군 부대에 알려서 제의를 행하는 실정이다. 신체는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육송이 신목으로 되어있다. 신목이 있는 쪽에는 샘터가 있어 제의를 올릴 때 메를 짓거나, 옛날에 제주로 올릴 조라술을 담는 물로 사용한다. 이 곳 제장은 두 마을이 함께 제의를 올리는데, 고양골의 경우는 짝수해 음력 2월에 창우동의 경우는 짝수 해 음력 10월에 제의를 올린다. 또 고양골은 산할아버지를 모시며 창우동은 산할머니를 모시는 차이가 있다. 산할아버지의 영험성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검단산 산할아버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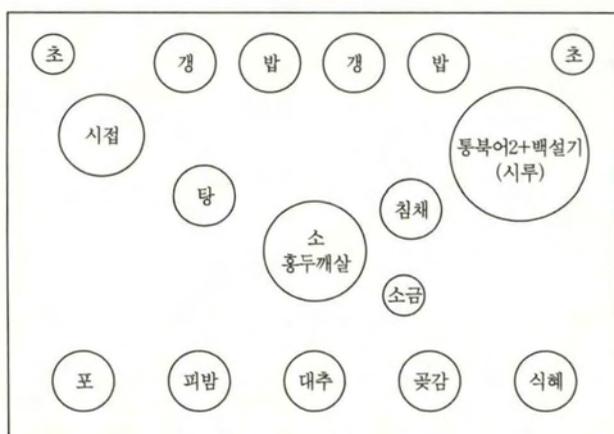
2) 제의내용

제의 일시는 음력으로 2월 초 날을 잡아 정하게 된다. 제의일시 확정과 제관의 선출은 보통 마을회관에서 1월 말경 최소 제의 1주일 전쯤 이루어지는데, 글을 읽고 동네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들에 의해 제일의 확정과 생기복덕을 살펴 제관을 선출한다. 이때 제관의 선출 뿐 만 아니라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단오제와 마찬가지로 제관 3분(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1명, 당주 1명, 집사 4명이 함께 선출된다. 이날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제일까지 목욕재계하고 근신하는 생활을 하여야 되는데 단오제 때 금기보다 강도가 높다. 일단 제의 날자가 정해지면 제관들은 엄격한 자기 근신에 들어가고 술과 담배도 입에 떼지 않는다. 또, 각 제관들 집 대문위에는 금줄이 설치된다. 금줄은 왼새끼에 솔가지를 30cm 간격으로 끼운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금줄을 설치한 곳 아래쪽에는 드문드문 붉은 황토를 뿌려 잡

귀와 외부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단오제와 마찬가지로 당주와 집사가 함께 광주시내로 나가 장을 보아온다. 요즈음은 하남시내로 가서 제수를 장만한다.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게 되며 절대 값을 깎지 않는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단오제를 올리는 제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건값을 높게 받지 않는다. 제물로는 단오제와는 달리 반드시 소를 사용한다. 6. 25한국전쟁 이후에는 통소 대신 소머리로 대신하고 있다. 이밖에는 ‘단오제’와 마찬가지로 대추, 밤, 감(곶감) 등 삼색실과 소탕제작용 두부와 나물, 소고기 흥두깨살, 북어등을 약간 준비한다. 이밖에 제물로 침채(김치)를 당주집에서 준비한다. 기타 떡집에서 빵아와 당주 집에서 백설기를 준비한다. 특히 단오제와는 다르게 세웅(메를 술째 올림) 2그릇과 식혜가 올라간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단오제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제수를 특별히 제장에서 담아서 쓰는 조라를 하게 되는데 제의 당일 아침에 제관과 당주가 제장에 도착하여 약 소두 1되 분량으로 누룩과 쌀밥을 향아리에 넣고 땅에 묻는다. 12시간 정도 후 조라는 신기하게 술이 되었다고 한다.

제물 구입 경비 역시 단오제와는 달리 반드시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 각출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의 준비가 완료되고 날이 저물면 제관과 당주 집사들은 서둘러 산을 검단산을 오른다. 이 때 동네 분들 중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제물이 진설되는 동안 메가 준비되는데 술 째 제사상에 올리는 ‘세웅’으로 준비가 된다. 제의 방식은 ‘단오제’와 같으나 축문이 별도로 없다. 또 단오제에는 없는 소지올리기가 제의 마지막에 수행된다. 소지는 가옥별로 동네 전체가 올려진다. 제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음복이 있다.



〈그림 70〉 하산곡동 고양골 산신제 제물상차림

음복이 완료되면 북어를 신목(神木)에 매어 달고 철상을 한다. 제의에 참여하였던 분들은 하산하면서 바로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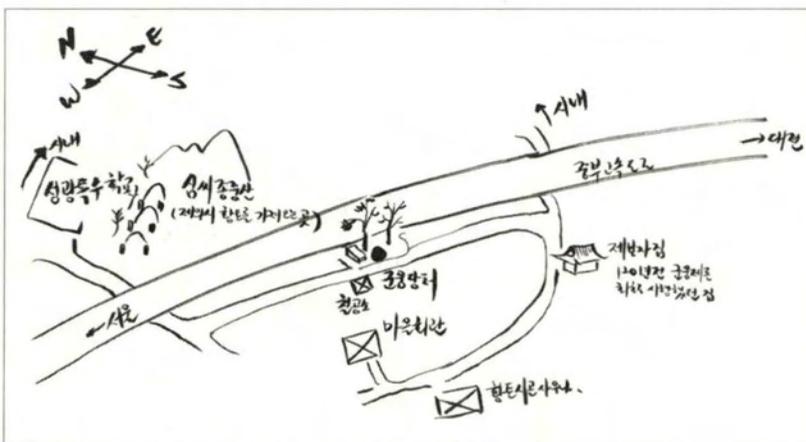
이튿날 마을회관에서는 산신제가 잘 끝났음을 방송으로 알리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음복한다. ‘산신제’의 경비 결산 역시 당일 음복이 있을 때 발표하게 된다. 이월금은 다음 제의 때 사용한다.

- 제보자 : 유성목(남, 76세, 하산곡동 고양골)
- 유건목(남, 71세, 하산곡동 고양골)
- 남기호(남, 74세, 하산곡동 고양골)

30-2. 천현동 샘재마을

1) 마을개관

하남시 천현동 샘재마을은 남쪽으로 객산(해발 301m)을 등지고 동쪽으로 100번 중부고속도로를 접하고 있다. 약 40호 정도의 각성반이 마을로 현재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중소공장과 상업공간이 들어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사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부추 농사가 주종을 이룬다. 현재 부추는 하남시의 대표적인 농업 생산물로 명성이 높다.



〈그림 71〉 천현동 샘재마을 당 위치도

2) 당의 위치 및 형태



30-2. 샘재 군웅제터

할머니가 계신다고 믿고 있다. 본 샘재 군웅제는 정확한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우다. 제보자인 이영애씨(女 80세) 시할머니가 시집을 오면서 군웅제(群雄祭)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처럼 마을에서 군웅제 제사권을 물려받고 마을 전체의 동제가 된 것은 약 50년 전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온 동네가 피폐할 때 한 집안에서 올리던 군웅제가 동네제사가 된 것이다. 이후 매년 정월 초사흘 올리는 마을 제사로 정착되었다.

마을 앞길은 100번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나있다. 현재 마을 주 입구는 100번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후미진 뒷길이 되어 버렸다. 제당은 고속도로를 따라 난 마을길 왼편에 고속도로와 붙어서 위치하고 있다. 제당에는 수령 30년 정도의 소나무 3그루가 축대 위에 나란히 서 있다. 앞쪽에는 군웅성신(群雄聖神)이라 새겨져 있는 60cm높이의 오석(烏石)으로 된 비석이 서있다. 측면에는 천현동 농협에서 지원하여 세워둔 비석이란 명문이 새겨져있다. 아래쪽에 제단으로 사용되는 상석 역시 같은 시기에 놓여진 것이다. 원래 제당에는 오래된 소나무 고목이 있었으나 30년 전 쯤 말라죽고 제보자의 시아버지가 뒷산에서 나무를 ‘양자시켜’ 신체로 모시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웅제터에는 군웅 할아버지와 군웅

3) 제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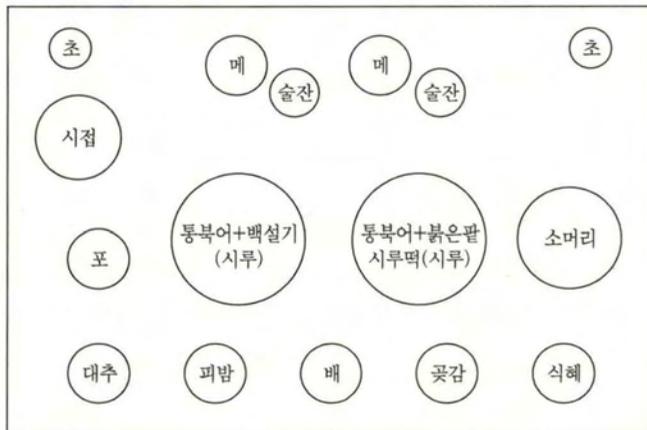
제의는 격년제로 일시는 음력으로 정월 초사흘에 올린다. 제관의 선출은 보통 마을회관에서 정월 초하루날 이루어지는데, 글을 읽고 동네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들²⁸⁾에 의해 생기복덕을 살피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의 선출은 당주 1명, 제관 1명, 축관 1명이 선출된다. 이 밖에도 사소한 잔치레 일을 거들 집사 2분도 함께 뽑아서 실제 이날 선출되어 몸가짐을 조신해야 하는 사람들 5명이 선출되는 것이다. 일단 군웅제를 지휘하게 되는 당주와 제관은 매

28) 현재 수년간 이계남씨(男, 74세)가 맡고 있다.

우 엄격한 자기 근신에 들어간다. 바깥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목욕을 자주하며 비린 음식을 먹지 않는다. 부부생활도 자제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한지 백지와 술가지를 끼워 만든 금줄을 치고, 현재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한 심씨 종중산 모퉁이에서 채취한 황토를 문 앞에 뿌린다.

제의에 올라가는 제물은 초이튿날 당주와 이장이 함께 하남 시장에 나가 장만한다. 제물은 대추, 밤, 배, 감(곶감), 사과와 소머리는 특별히 단골로 가는 정육점에 부탁하여 깨끗하고 큰 것으로 구입하여 온다. 장을 본 후에는 당주가 집에서 백설기와 팔시루떡을 한말 정도 찐다. 과일은 껍질을 까지 않는 상태로 준비한다. 제주로 올릴 조라 역시 초이튿날 준비한다. 옹기 단지와 누룩 및 고두밥을 쪄서 군웅제당터에 있는 신목 앞에 묻어둔다.

제관과 당주, 축관, 집사는 해가 지기를 기다려 준비된 도포를 입고 군웅제터로 향한다. 이때 동네에 부정이 없는 분들은 모두 함께 군웅제터로 모여 제의를 지켜본다. 목제기를 이용하여 진설이 시작되고 바로 이어 제의가 시작된다. 제의는 제관이 ‘양주’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제관의 재배가 끝나면 이어서 축관이 바로 축을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무사태평, 가족의 무병생육,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축이 끝나면 당주가 다시 술을 오리고 재배를 2회 거듭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사람들 전체 이름과 생년을 부르면서 올린다. 소지는 제관, 축관, 당주와 그의 가족소지를 먼저 올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올린다. 군웅을 별도로 모시는 시내에서 온 외지사람들도 소지를 올려준다. 마지막으로 통복어와 떡, 과일, 소머리 등 일부분을 떼어 신목에 걸쳐두고 철상한다.



〈그림 72〉 천현동 샘재마을 군웅제 제물상차림

제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주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는다. 미리 준비한 끓는 물에 갖은 나물을 넣고 제상에 올렸던 소머리를 넣어 국밥을 만든다. 동네 분들이 모두 함께 먹으며 덕담을 나눈다. 또한 샘재마을은 '동지회'라는 마을 동계(洞契)가 있어서 동네 애사, 경사를 모두 관할한다. '동지회'의 회비는 월 2,000원씩이다. 군웅제 경비 역시 동지회에 관할 하기는 하나 특별히 군웅제의 경우는 사람들이 정성껏 낸 일부 소지대가 있어 마을 기금으로 이월된다. 기금의 결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 정월 달 날을 잡아 마을이장이 실시한다.

□ 제보자 : 이영애(여, 80세, 천현리 408번지)

31. 화성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31-1. 매송면 야목리 당제사

1) 마을개관

야목 3리는 당골이라고 부르는 마을로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매송 IC에서 빠져 47번 국도를 타고 내려가다가 오른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하지만 산신제는 2리인 들목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참여하는 세대수가 약 120호 정도가 된다. 야목 3리는 풍양 조씨가 입성촌으로서 11대조인 조익이라는 분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현재는 20세대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각성반이로 구성되고 있다. 이 마을은 약 50% 정도가 논농사 등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나머지는 안산 등의 기업체로 출퇴근하는 편이다. 축산은 3가구가 하고 있는데, 5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15호가 축산을 했으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줄어든 편이다. 마을에는 화성한과 공장이 있으며, 특용작물로 참외가 있다. 초등학교로는 송라리에 있는 송라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며, 중고등학교는 인근 안산이나 수원 등으로 나간다.

원래 이 마을의 당제사는 새마을운동 때 미신타파를 한다고 해서 없어졌으나, 그 후 마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쌍초상까지 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 때문에 무당에게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제사를 안지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네 사람들의 여론도 다시 지내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1985년부터 다시 부활시키게 되었다. 그 후부터 동네가 편안하고 풍파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2) 당의 구조와 위치

당이 위치한 당골 뒷산은 용의 아가리에 해당되는 형국이다. 당목은 소나무로 현재 솔잎혹파리병으로 고사를 한 상태로 있으며, 당 앞에는 상석을 설치하여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는 상석위에 천막을 치게 된다. 원래는 당집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흙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약 130호로부터 1만원씩 거둬 상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이 근처에서 흙이나 나무를 건드린 사람은 불상사를 당한다고 하여 이 주위에 고목나무가 있어도 빨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한 예로 7-8년 전에 정원수로 나무를 3명이 캐

서 가져갔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동네사람들은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당의 오른쪽 밑에는 제물을 장만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그 밑으로 당우물이 있다. 당우물은 제의날 오전 중에 한번 품어준다.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31-1. 아목리 당제 제당

가스통과 가스버너 등을 이곳까지 경운기로 운반하였으며, 과거에는 호룽불을 이용했지만 약 200m 정도 전기줄을 연결하여 불을 밝힌다.

2) 제의 과정

이 마을에서는 제의일이 음력 10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이날에 맞춰 당주를 선정하는데, 특별하게 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이장 중심으로 행해진다. 현재 이장은 2년째 당주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면장을 지냈던 이용림씨가 맡아서 했다. 당주집이나 당에는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리지 않는다. 다만 당주는 당에 오르기 전에 목욕재계를 한다. 특히 일주일 전부터 마을 전체가 개고기 등 비린 것을 잡아 먹지 않는다.

제물의 구입은 이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돼지의 구입이다. 돼지를 구입할 때 인근 어천의 양돈장에서 구해오며 수놈으로 정한다. 이때 값을 깎지 않는다. 구해온 돼지는 당일 날 아침 10시경에 이장집에서 잡으며, 돼지머리는 삶아서 제물로 사용한다. 나머지의 돼지는 개인별로 분배하는데, 대개 1근 정도이나, 상주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외의 제물로는 삼실과와 사과, 배, 포 등이다. 술은 담지 않고 정종을 사용한다. 떡으로는 백설기를 하는데, 3되 3홉 3작이다. 당제사에 쓰이는 제기는 현재 마을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이외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천막·상·버너·전기줄 등이다.

준비가 끝나면 오후 3시쯤 당으로 오른다. 약 5명 정도가 오르는데,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당에 올라 나무 등을 자르고 주위를 청소한 후에 돼지를 삶고 떡 등을 장만한다. 축도

당에 올라와서 쓴다. 1985년도 축문은 한자로 씌어졌지만, 1996년도의 축문은 한자와 한글을 병용하여 쉽게 읽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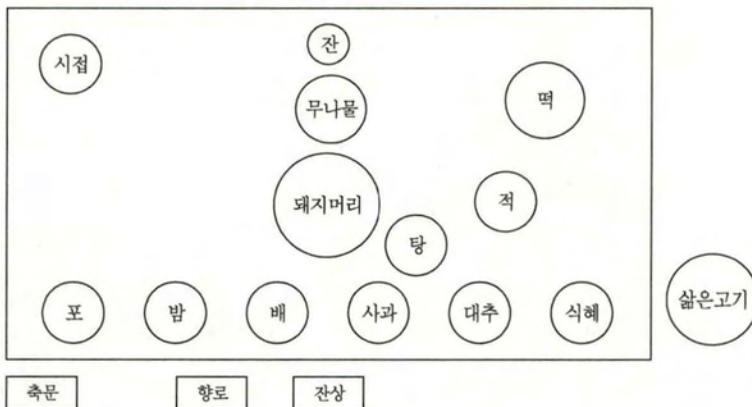
維歲次丙子十月壬子朔初一日壬子
 幼學趙敦星 敢昭告于
 堂山之靈日洞里太平家家安寧年年하여 주시고
 豐登五穀이 陳陳하고 疾病이 不侵하며 災禍消
 滅하고 六畜이 繁盛하고 萬物이 興旺教化
 日新하여 萬事如意하여 주시길 伏祈萬萬
 謹以犧牲하오니 祇薦于神 尙
 響하시옵소서

<1996년도 축문>

維歲次乙亥十月丙子朔初一日
 丙子幼學李承珪敢昭告
 于
 堂山之靈日洞里泰平家家
 安寧年年豐登五穀陳陳疾
 病不侵災禍消滅六畜繁
 盛萬物興旺教化日新萬事
 如意伏祈萬萬謹以犧牲祇
 薦于神靈尙
 響

<1985년도 축문>

제물의 준비가 완료되면 밤 10시부터 제사에 들어간다. 먼저 당목 앞에 터주가리를 만들어 북어와 떡을 걸어 놓는다. 그런 후 제물을 진설하며, 이것이 완료되면 잔을 올리고 당주가 먼저 절을 한다. 제물의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탕은 무와 두부를 넣어 만든 것이다.



<그림 73> 야목리 당제 제물상차림

그런 다음에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린 후 절을 하는데, 이때는 올라온 사람이 모두 절을 하게 된다. 이후 소지에 들어가며, 대동소지가 없고 개인소지만을 올려준다. 소지가 끝나면 음

복을 하고 하산을 하게 된다. 하산 후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하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음복을 하지 않는다. 제보자는 “배고픈 시절에나 모였지, 요즘은 먹을 걱정이 없는 때라 누가 오느냐”고 하였다. 내려온 사람들은 마을회관으로 와서 돼지고기를 분배하기 시작한다. 약 1근 정도를 담는데, 이를 일회용 도시락에 담아서 다음날 아침 나누어 준다.

3) 결 산

이 마을의 당제사는 마을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집집마다 각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3,000원씩 거두었으나, 1998년은 5,000원씩 거두었다. 이 금액은 당제사로만 집행하며, 작년의 경우 45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올해는 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당주에 대한 사례는 없으며, 이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

□ 제보자 : 조돈성(남, 61세, 풍양 조씨로 현재 이장)

31-2. 매향 1· 5리 당고사



31-2 매향 1리 해나무 당목

1) 마을개관

매향리는 미공군의 사격장이 위치해 있어 언론에도 종종 소개되는 마을이다. ‘매향(梅香)’이란 지명은 옛날 서원과 구장이라는 두 문장가가 마을이름을 지을 때 서원은 매(梅)자를 구장은 향(香)자를 짚어서 매향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 매향 1리는 고온리로 불리며, 지금도 어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마을이다. 150여 가구가 거주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이기에 1리에서 5리를 분리시켰다. 이 마을은 수원 백씨와 천안 김씨가 대성을 이루는 마을이다.

2) 제의 내용 및 제장

매항 1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이나 동짓달에 길일을 택해서 ‘당고사’를 지내고 있다. 1리에서 분리된 5리의 주민들도 당고사에 참여한다. 만약 당고사 날짜를 정해놓고 마을에 상이나 거나 아이들이 출생하면 달을 넘겨서 새로 날을 잡는다. 1999년의 경우엔 음력 11월 7일에 지냈다.

당고사의 제당은 두 개로 이뤄지는데, 하나는 왜나무 신목이고 다른 하나는 터주거리 형태의 당집이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마을 뒤편 산에 왜나무와 당집이 있으며, 둘은 70여 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당집을 ‘각시당’이라고 부른다.

당고사를 지내게 되면, 당고사 하루 전에 공동우물을 청소한 후 나무 세 개를 걸쳐놓음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다. 당일에는 오전 중에 당집을 청소하고 주민들도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한다. 당고사는 대체로 밤 10시경에 지내는데,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 고사는 당주와 보조자가 제물을 진설한 후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으로 간단히 진행된다. 소지는 당주를 위한 소지와 마을 어른들을 위한 소지, 그리고 대동소지를 올린다.

제물로는 소머리와 삼색과일, 그리고 떡·북어포·조리술을 올린다. 당고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던 때에는 조암장에서 소 한 마리를 사다가 잡았다고 한다. 당고사를 끝마치면 당주집에



31-3. 매항리 각시당

서 간략히 음복하고, 아침엔 당주집에서 주민들이 모여 음복을 하고 결산을 하면서 쇠고기를 분배한다. 비용은 일단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서 결산을 볼 때 추렴을 한다. 소를 잡던 시절에는 당고사를 마치고 나서 마을잔치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를 당잔치라고 불렀다.

□ 제보자 : 이윤재(남, 73세, 우정면 매항 4리 732-2번지)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계당 제 2부

전승현황표



여 백

1. 가평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가 평 읍	금대리 쇠터	산제사	음력9월9일 (실제 9월8일)		참나무		당주·제관 축관	소머리 과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4) 경기민속지II(p.176) 한국의 산간신앙(p.320)	
	금대리 비령대	산제사	음력 9월9일	비령대마을 안쪽 물안산 계곡 당집		초헌관·이 간·삼배 축문·독축 소지	헌관3명 유사2명	소·백설기 북어9마리 삼색실과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문화유적(p.267)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4) 한국의 산간신앙(p.215)	
	두밀리	산치성	8월24일22시 매월 음력 7월초	마을 산계곡 산제당(마을 에서20분)	함 석 으 로 된 두간짜 리 산제당	진설·재배 소지 음복	당주·제관 축관	소머리 삼색실과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67)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 산간신앙 『강원·경기·충북·충남편』 1993	
	이화리	산치성	2월1일22시	염창계곡(터) 산	터		제관	술·과일 포	4년전 단절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67)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 산간신앙 『강원·경기·충북·충남편』 1993	
	마장리	산제사		서낭당					소멸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67)	
	읍내2리	산제사· 보납산 산신제	음력10월중 택일	보납산 한석봉바위	돌탑	진설·재배 소지 음복	제관7·8명	돼지머리 과일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6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 고	
가 평 읍	읍내3리	산신제	양력 12월말	보 남 산 입 구 개울가	1칸 기와집	진설·재배 소지·음복	이장·제관 및 동네어른 조금	돼지머리 과일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7)	
	읍내리	산신제	10월	산제당	초가 2칸정	분향·헌작 축시	제관2명	감주·백반 떡·우수 과실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I 『한강』 (p.474) 한국의 마을제당(p.52)	
	읍내6리 향교리	산치성	음력10월 중 택일 밤1시경	제당	초자 2칸 정도의 당 집·당 집 소멸	분향·헌작 축시	제관2명 생기복덕을 기준	감주·백반 떡·우수 과실	10년전 단절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I 『한강』 (p.474) 한국의 산간신앙	
	읍내리 향교마을	유림의 향교제사	음력 2월 초정 음력8월 초정	대성전 (향교)	조선기와집 18평(가평 초등학교옆)	초헌관분향 아헌관헌작 중헌관헌작 동종형헌관헌 작·서종형헌 관헌작·제관 일동 3배	30명 헌관 5명 (초헌관·아헌 관·중헌관·동 종형헌관·서종 형헌관)	소머리 백미·일반 어물·과실 술·우육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53)	
	개곡1리	개답지 고사	12월중 택일	능버리 별판(터)	터	진설·헌작 재배·음복	이장·재무 당주	동네기금 돼지머리 삼색실과 포·술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I 『한강』 (p.473) 한국의 산간신앙	
	개곡2리	산치성	10월1일 21시	줄밭골 계곡	터				2년전 단절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I 『한강』 (p.473)한국의 산간신앙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 고
상 면	봉수리	산제사	음력10월중 택일	서낭당	터		제관 마을사람	돼지머리 주과포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8)	
	행현1리 (건너마 을·이촌)	산신제	9월초	제당		진설·재배 축·소지	주민중제 관선정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9)	
	행현2리	산제사	매년 음력9 월 초하루	당집·당목	합석	진설·재배 독축·소지	제관의4명	소1마리 술	1950년경 소멸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8)	
하 면	상판리	산치성	음력 9월1일	뒷산	고목 (제단)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제관·축관 화주3명	돼지머리 삼색실과 메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8) 한국의 마을제당(p.71)	
	하판리	거리 서낭		현리에서 운 악산으로 가 는 고갯마루					10년전 단절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8)	개인적 치성
	신상리	산천 제사	음력10월2일	안곡절앞 마을뒷산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제관·축관 등· 6명	통돼지·물 과일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9)	
	대보리	산치성	매년10월2일	제당과 도랑물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제관의 5명	소머리·과일 술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69)	
북 면	제령리	산제당	매년음력 8월1일 새벽1시	당집	기와	일 반 제 사 와 같 음 축문·소지	부정없는 남자후보들 30여명	돼지머리 주과포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272) 한국의 마을제당(p.57)	한국의 마을 제당에는 7월 7일에 제를 지낸다고 함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 고	
북 면	화악1리	산신제	매년 음력 10월 1일-3일	제당			제관	주과포 돼지머리	5년전 단절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2) 산간신앙-강원·경기·충북	
	도대리	산제당	매년 음력 10월 1일	수푸당	기와한칸	기제사	20대 이상으로 부정이 없는 남자 제관 3명	돼지머리 주과포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2) 한국의 마을제당(p.54)	
	백둔리	산제당	매년 음력 8월초	당집(마을회관에서 500m떨어진비탈)		진설·재배 소지	부정이 없는 사람 선출/제관·도관·이장	돼지머리 주과포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2)	
	목동리	산제사	음력 8월초	개관산입구 고목	느티나무	기제사	생기복덕에 기준하여 제관3명	삼색실과 소머리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55)	
	소범리 소곡마을	산치성	음력10월초	제당(神木)느티나무의 잡목	사 방 2 m 양회대	일반산제 와같음	제관 축관	삼색실과 소머리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56)	
설 악 면	가일1리	산제사	음력9월1일	유명산 계곡 입구 등산로	바위사이 시멘트 제 단			돼지머리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69)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3) 한국의 마을제당(p.60)	
	가일2리	서낭당	매년 9월1일	산제당	신목		제관	돼지머리 주과포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0)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3) 한국의 마을제당(p.5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 고
설악면	묵안리	산치성	음력10월1일	당집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2)	
	위곡1리	산제당	음력9월9일	당목 바위 및 앞산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제관외 5-6 명정도	북어·술 돼지머리	15년전부터 시작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1) 경기도의곳(p.251)
	송산1리 소리마을	산치성	음력9월초 날잡아서	신목	소나무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생기복덕이 맞는 분과 이장·반장	돼지머리 삼색실과 나물·북어 술·메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3) 경기민속지 I (p.591) 경기민속지 II(p.181)
	방일1리			마을뒷산 중턱				돼지머리 주과포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0)
	가일2리 대일동	산신제	음력9월9일 9시	제당2곳	기와집· 신목	진서·재배 소지	부정이 없는 사람 선출·당 주 및 노인 몇 분	돼지머리 주과·포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2)
	방일2리	산제당	음력9월1일	마을뒷산	당목 (소나무)	진설·배례 현작·고축 배례·소지	당주·동장 반장의	통돼지 백설기	현전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p.270)
	방일리 양방동	산치성	9월2일	덕암산중턱 산제당	신목 (소나무)	기제사 방식	축관·당주 7명	통돼지·삼 색실과·통 북어·시루 떡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3) 경기민속지 II(p.18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 고
설악면	방일리 음방동	산치성	음력 9월 초로 택일함	마을뒷산 벼락바위	바위	진설·재배 독축	가정이 청결한 자 중 당주·이장·반장 5명	돼지머리 포·시루떡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 -한국의 마을제당 인용)	
	선촌리 울업	산치성	음력 9월1일	산제당부락 동쪽으로 신선봉 중턱	신목 (참나무)	진설·재배·독축·소지·음복	40대 이상의 운이 좋고 부정이 없는 자/제관·당주·축관·제관	떡·술 우육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 한국의 마을제당(p.61)	
	선촌2리 장돌	산치성	음력9월1일	산제당뒷산 굽달산바위	바위	진설·배례·헌작·고축·배례 소지	당주	돼지머리 배·사과·밤 포·식혜·메탕·백설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7-480)	
	신천리 한거동	산제사	9월1일	산제당	신목 (소나무)	분향·고축·酒	제관	과일·산자 돼지1마리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한국의 산간신앙 한국의 마을제당(p.62)	
	신천리 명장	산치성 (도당굿)	음력 9월1일 12시경	신목	소나무	축문·소지 음복	제관·독축·보조 등3명	소머리·삼색실과·술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한국의 산간신앙 경기도의 굿(p.251)	
	신천리 한가골	산제	9월초	산제당	신목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한국의 마을제당	
	신천리 사근천	산치성	음력 9월1일 20-24시	성황당 마을 서쪽 굽달산 아래 중턱	당집	제단을 준비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 올리고 절한다	주민중 제관선정·기타 몇명	백설기·소고기·삼색과실·술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3) 한국의 마을제당(p.68)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 고
설악면	신천리 사그내 마을	산치성 음력 9월1일	성황당	바위	별신굿	제관	주 백설기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69)	
	신천3리 행거막	산제사 음력 9월1일	신목	소나무	분향·고축 술	생기가맞는사 람(제관)	과일·산자 돼지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	
	천안리 부지동	산치성 음력 9월9일	산제당	신목 (잣나무)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청결한자 제관·당주부 부	술·소머리 소고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3)한국의 마을제당(p.66)	
	창의리 섬말 마을	산치성 9월1일-5일	사당	신목(느티 나무)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제관·당주	소머리·삼 색실과·포 술·시루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	
	천안리 천현	산치성 매년음력 9월9일 8-12시	산제당	신목 (잣나무)	진설·재배 독축·소지 음복	40대이상부 정 이 없 는 남 녀 제관·당주	술·소머리 삼색실과 포·떡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3)한국의 마을제당(p.67)	
외서면	청평리 창말 마을	산치성 3월3일 9월9일 오후6시	당집	기와집2평	진설·배례 고축·소지	40대이상의부 정 이 없 는 남 자 (당주)제관	술·밥 백설기 소머리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70)	
	삼회1리 (쇄골)	산치성 3월3일 06시						5년전 단절	산간신앙-강원·경기·축복·충남편	

2. 고양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구산동	노루메	도당굿	3-4년 10월경	마을뒷산 정상부 도당나무 대감집	당 집 · 대 감 옷 · 대 감 모 자	굿(3-4일)	당주·중당주 하당주	돼지·소머리 소족·소간	단절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125)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76)
	거구메	산제사	매년10월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19)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76)
덕양구	관산동 두포	산치성· 도당제	10월1일	마을뒤식미 산중턱	두 개의 바위	축문 읽지 않음	7-10명	소머리·소족 적·밤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2-123)
	고양동	당고사	10월 1일	부근당	제당안에는 아 무 것 도 없음		제관	팔시루떡 소고기·술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94)
	관산동		음력 10월 3일	산치성 부락 동쪽		제관 혼자 제를 올리며 축을 읽음	제관	술		한국의 마을제당(p.96)
	내유리		음력9·10·11월 중 3일 이내 부정이 없으면 택해서 함	산신당	신목	유교식	제관 당주	술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97)
	내유리 유산		10월3일	산신	신목	진실→강신 →초혼→대 축→배례	제관	술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9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덕양구	내유리 음달마을	음력 정월1일 8월15일 (년2회)	사당	기와 건평 40평 내외		제관	술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99)		
	효자동 (북한동)	산제	8월1일 10월1일	의상봉 노적봉	제터·제단	제사·축문-단 배	제주3명	삶은소- 부위별	소멸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121)	
		도당굿	3년에 한번 4월초순	부황사터 산신각	굿당·세계 의 화상	열두거리굿	무당10명	통돼지 소머리	소멸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강매리 매화정마을	음력 10월 1일 (4-5년에 한번)	도당	신목	도당할아버지 도 당 할 머 니 빌고 절함	상당주 중당주	술·백반 소머리 돼지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126)		
	행주외동 (신주외리 서원마을1)	4월拾貳日			春秋享祀	제관10명	술 고기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127)	6·25전쟁때 당 손실	
	행주외동 (서원마을2)	음력7월6일	紀功祠 부락중앙	권 울 장군 영정	권울장군 기제사	행주서원 유림	기제사와 같음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128)	2001년부터 복원시행	
	창릉동 (동산동)	도당굿	격년 3월3일	신목	무당을불러굿 을함	제관술 인절미 소머리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한국의마을제당(p.111)		
	용두동 발랑손마을	연2회	도당	신목	도당굿	제관	술·백반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113)		
일산구	성석동 진발	산제사	3월3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일 산 구	운봉동	동제	10월4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19)	
	설문1리		음력 10월3일	산제당	신목	친설·분향 극축·배례	제관 축관	술·백반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101)
	문봉리 상촌마을		10월1일	상당	신목·초가	상당→산신 당→천신당	제관	술·백반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100)
	성석리 泥田마을		4월3일 10월3일	山祭祀터	신목	서낭제사	제관3명	시루떡·술 인절미 달떡·우족		한국의 마을제당(p.102)
	지영리		11월2일 (3년에 1번)	상당			제관	술·떡·밥·돼 지고기·과일		한국의 마을제당(104)
	송포동 법곶· 이산포	도당제	3년에 한번 10월10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고봉동 (설문동)	산신제	10월1일-2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백 석 동 (울동)	산신제	격년 10월						신도시건 설로소멸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19) 경기도의 굿(p.245)
	가좌4리 당음마을		동지·선달	삼신당	신목		무녀3명			한국의 마을제당(p.105) 경기도의 굿(p.245)
	구산1리	산신제	음력11월 그믐	부락 서쪽	신목			술·밥·떡 소고기·과일 돼지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107)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일 산 구	덕이리 자방	산제사 음력9월15일 오후 6시	자방 뒷산	신목	분향후 재배	제관	삼색과 통돼지 또는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108)	
	덕이리 추산마을	음력10월2일	삼신당	신목이 있 었으나 지 금은 없음	제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받듬	당주	술·떡 돼지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109)	
	마두동 낙민마을	早朝부터 日暮時까지	도당산		山굿	무녀	술·백반 片肉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122)	신도시건설 로 소멸
	백석동 방기마을	도당굿 일정하지않음 春·秋節	도당산	초가 소나무	上堂→ 도당굿	무녀	술·백반 돼지고기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123)	
	백석동 흰돌마을	무당이 날을 택하되 주로 봄철	부락 동쪽 남향 도당	정사각형 의 흰돌	도당굿과 절차동일	무당	보통 기제사와 같음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124)	흰돌의 위 치 옮겨 놓 고 시행
	풍산동 풍리리 민촌마을	연2회 음력2월30일 9월30일		도당나무	일반 기제사와 동일	당주	시루떡·술 북어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125)	
	마두· 장항동	말머리 도당굿 3년에 한번 3월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경기도의 굿(p.245)	장항과 마 무리의 6마 울이 지냄
	가좌동 중산	은행나무 고사 10월1일					돼지머리 시루떡 삼색과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125)· 한국의 마을제당(p.10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일 산 구	가좌동 음송	산치성 도당제	10월2일	마을뒷산중턱· 고창테	제당터· 신목	축문-소지	당주·제관3인 -총7인	백설기 삼색과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124)	
	원신동 물구리	서낭고사	매년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원신동 새말	도당제	10월1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원신동 한우물	산신제	3년에 한번 10월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능곡동 삼성당	도당굿	격년 10월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124)	
	풍산동 (산황동)	산치성	10월1일	마을뒤편 산정상터	신목		당주·제관	통돼지·삼 색과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126)	
	홍도동 (원홍동) 나무드머리	도당제	격년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경기도의 굿(p.245)	
	풍산동 풍동(식골)	도당굿	격년마다 10월10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 경기도의 굿(p.245)	
능곡동 후동	도당굿	격년 10월	천주교인 묘지뒤	신목	열두거리굿			소멸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9-127) 경기도의 굿(p.245)		

3. 과천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과천동	과천동 (하1리)	도당제	음력10월	남태령의 느티나무	느티나무	유교적 제례	당주 제관 대축 소임	백설기 돼지머리 우족·북어 식혜·산자 적과채소 3색과실 막걸리	현전 (복원)	과천시지(p.352-354) 경기도의곳(p.150)	하리2·3리의 통장이 참여
	광창마을 (하3리)	대동고사		마을입구	느티나무		통돼지 과일·북어 떡	현 전 (근래에 들어서 지내게 됨)	과천시지(p.354-355)		
	뒷골 안골 (하3리)	산신제				당주 제관		소멸	과천시지(p.355)		
주암동	삼부골 (삼포)	동네고사	음력10월 상달에 택일	옥녀봉 아래 큰바위 밑	제서타	진 설→축문→소지	당주나 축관	백설기·술 삼색나물 소머리·탕 조라술·메	소멸	과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50) 과천시지(p.356-357) 경기도의 곳(p.150)	
	주암1리 (원주암마을)	도당제	음력10월 초하루	SK유류저장소 내 도당터	도당바위와 곁에 참나무와 벗꽃나무	진 설→축문→소지	당주 축관 소임4명	삼색과일 삼색나물 주라술·메 탕·적·포	현전	과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52) 과천시지(p.356)	
문원동	세골	산고사	10월상달 초하루	마을 뒷산의 정상	주걱바위	염불→비손	무당 (박보살)	돼지머리 삼색과일 통북어	단절되었다가 부활	과천시지 (p.357-35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문 원 동	새털말	산신제	10월상달 초하루				아주머니3-4	돼지머리 날고기(소살고 기)·메·삼색과 일·복어·탕	단절되었 다가 부 활	과천시지 (p.358-359)	남자들은 지내 지 않고 여자들 이 중심이 됨
갈 현 동	찬우물	우물고사	음력4월 과 7월	대동우물	콘크리트로 사방을 둘러 쌓아놓음			막걸리 복어 참외(여름)	현전	과천시지 (p.360-361) 경기도의굿(p.150)	
	가일	서낭제	10월상달 초하루	마을뒷산	서낭나무	유교식	축관 제주 당주	돼지머리 백설기 삼색과일	현전	과천시지 (p.361)	웃말·범말·가일 이 함께 지냄
관 문 동		도당제	10월상달 초하루·3 초 하 루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향교 뒷산의 당집			당주 제관	삼색과일 떡·산자	소멸	과천시지 (p.361)	
중 양 동		도당제		성황당(1978 년 헐림)						경기도의굿(p.150)	
과 천 시			음력정월 대보름	8단지부림교		유교적제례 진설·초헌· 아헌·중헌· 소지	시장·문화원 장·민속보존 회장·시민	돼지머리·생고기 적·콩·팥·수수· 조·밤·대추·배· 사과·무·배추	현전		고천시민 200여 명이 참여, 태평제

4. 광명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옥길동	두길	산신제·도당제	음력10월 초정유일	마을 동편 작은 동산	사창터	강신→독축→풍악→대동소지	만신 제관4명	삼색실과 조과 돼지머리	소멸	광명시지 (p.581-584)	
	식골	산신제·도당고사	음력7월1일 10월1일 (예전에는 택일)	도당고개		마을곶한후 제를 지냄	만신·제관	과일·떡 소머리·술	현전	광명시지 (p.586-598)	
	해방촌	산신제	음력 10월 초사흘	만수산 중턱바위		간단하게 절만 올림	만신·제관	삼색과일 술 돼지고기	현전	광명시지 (p.590-592)	만신이 마을을 떠난 후 단절되었다가 다시 부활
일직동	자경리	산제사	음력 10월 초하루	성재산 중턱	상나무	유교식제사	제관·축관	삼색과일 막걸리 소머리	현전	광명시지 (p.593-594)	성재산에 여러 자연 마을들이 대동으로 지냄
	양지편	당고사	음력 10월 초사흘	당두골	향나무	재배→현작→축문→소지	제관·축관	삼색과일 부침개·떡 산자·과자 조기·햅쌀 돼지머리	현전	광명시지 (p.596-600)	
노은 사동 사들	군웅제와 용왕제	음력 정월 초이틀	마을입구	소나무	소나무에서 군웅제를 지낸 후 대동우물에 내려와 용왕제를 지냄		제관	소머리·과일 시루떡·포나물	현전	광명시지(p.601-604) 경기도의 곳(p.12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광명동 원팽배	산 산 제 (도당굿)	음력 10월 초하루	마을뒷편	은행나무	굿→본제사→마무 리굿	바깥당주	조라술·소머 리·떡·과일 복어·식혜	현전	광명시지 (p.607-609)	사흘에 걸쳐 행해짐
가학동 노리실	군웅제	음력 10월 초열흘경	마을 앞 안산 제당	벚 가 리 로 만들어짐	제관이 삼 배를 한 후 수행원들이 삼 배를 하고 축 원을 함	제관	술·떡 돼지머리 과일·복어	현전	광명시지 (p.611-613)	군웅제가 끝나면 바로 제관이 정해 지기 때문에 제관 의 금기기간이 김
철산동 쇠머리	도당고사	음력 10월 초하루	왕재산	사당		만신	떡시루와 돼지머리 막걸리	소멸	광명시지 (p.615-616)	마을소멸로 인하여 제의도 소멸
하안동 밤일	도당제	음력 7월 1일	도당산 중턱	느티나무	재배를 하고 술을 올린 후 축문을 읽고 소지를 함	제관	과일 소고기 떡·술	소멸	광명시지 (p.617-618)	교인들의 반대가 거세어 지내지 않게 됨
학은동 능말	산신제	음력 2월2일							경기도의 굿 (p.125)	
소하동 가리대	산신제	음력 10월 초사흘	뽕죽산 중턱 산제당		재배를 올린후 축원	얕은 당주	돼지머리·복 어·산자·밤 사과·대추	현전	광명시지 (p.621-623)	
소하2동 영달말	도당고사 (대 동 고 사·도당 굿)	음력7월 그믐날· 10월 초하루	구름산 줄기 도당고개	짚으로 터주加里만 듬		제관· 만신	조라술· 떡 생선 삼색과일	92년부터 단절	광명시지(p.625) 경기도의 굿 (p.129-131)	·도당굿은 모두 열 두거리로 진행 ·이웃한 큰말, 작은 말도 함께 지냄

5. 광주시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경안동	경안3동	산제사	정월 보름안	마을 뒷산기슭 성황당	돌무덤 신목				40년전 단절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107) 한국의마을제당 제1권	
	송정2동	산신제	정월	마을 앞산 정상 당	신목 (참나무)				20년전 단절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107)	
송정동	탄벌2동	산제사	음력 3월·10월	마을산중턱	신목		당주2명	소머리·복어 술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송정4동	산고사	음력 2월경	장군산 기슭	신목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107)	
	회덕동	산고사	음력 10월	마을 산중턱 산고사터	신목 (소나무)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107)	
	목현1동	장승제	격년 5월 단오	마을입구	장승/숫대	진설·재배· 스님독경	스님 동네주민	돼지머리 삶은 것·삼색실과·복어·시루떡	현전	광주의역사와 문화유적 (p.106-107) 경기지방장승·숫대신앙	
	목현2동	산제	음력 10월 1일	산제당	당집·신목	제물진설- 제-분축- 축원-소지	당주·제관 3인	노급 2그릇 소염통·삼탕 삼색나물·9가지 과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07-108)	
	광남동	장 지 리 후지마을	산신제	매년 음력정월초 길일택 밤12시	산제당	당집·신목		제관 1명의 청결한 성년 6명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107) 한국의 마을제당(p.130-13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광 남 동	역 1동	당고사	음력 10월	마을 서북쪽 산밑 당집	당집·신목	상당	제관 3명	술·백반·흰떡 소고기 과실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07) 한국의 마을제당(p.129) 경기도의 곳(p.212)	도당 곳은 사라지고 제만 남아 있음
	직동	도당곳	매년9월							경기도의 곳(p.212)	
초 월 면	무갑리	도당곳	격년 음력2월						현전	경기도의 곳(p.212)	장승제만 지냄
실 촌 면	부항2리	산신제· 장승제	정월	마을입구	신목(엄나무) 장승	산신제를지 내고장승제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2)	
	상열미리	우물고사	2-3년에 한번 음력 2-3월	마을뒷산	우물	진설·재배 음복	마을전주민	소머리·실과 외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2-113)	
	삼1리	탑고사	정월 보름밤 달뜰때	마을입구 돌탑 신목(신목은 할머니탑에만 남음)	돌탑·신목	진설·절·소 원빌기	마을전주민 참여	시루떡·막걸 리·북어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2-114)	
오 포 읍	신현2·4리	서낭제	음력10월	부처당골 서낭당	돌무더기 신목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5)	
	능평3리	서낭고사	정월 보름경	마을입구 성황당	돌무더기 신목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오 포 읍	문형1리 (부영골)	산신제·산제	3월1일04시 10월1일04시	마을 뒤 문형산 산지당	당집·신목		당주1명·소임 2-3명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5) 한국의 산간신앙(p.267)	
	문형리 봉골마을		년2회 오후6시경	제당	초가2칸		3명			한국의 마을제당(p.144)	
	매산 1리	산신제	격년 음력 10월 1일	백마산입구 신목	참나무화제 소실 소나무모심	기제사·축문	제관6명	복어·삼 색실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5)	신목은 왜가리로 인해 죽음 선출된 남녀각 각 3명이 제의 를 담당
	매산 3리	산신제	음력 10월	마을야산정상 서낭당	돌무더기 신목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5)	
	양벌1리	산신제	9월3일 23시 3년에한번	마을 남쪽 당재	신목(소나무·참나무)	기제사동일 축문·소지	주민중 제관·추관 선정 5명	소고기 실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5)	
	양벌 3리	산신제	격년 음력 10월	마을 뒷산 도당터	신목·부군당(상수리 나무)	기제사동일 축문·소지	당주·하주3명	소머리 소족 떡시루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5)·산간신앙	마을회관에 모심
중 부 면	엄미리	산신제·장승제	음력2월 격년제	마을앞산 산제당	신목·장승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8)	중부고속도로 개설로 소멸
	엄미2리	산신제 장승제	음력2월 격년제	미라울 내부	신목·장승	산신제후 이 튕날 장승제	몸이 정한 분으로 제관 선출	떡· 정화수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8)·경기지방장승·숫대신앙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중부면	상번천1리	산치성	음력 7월 그믐밤0시	퇴촌방향 장작산초입	신목(참나무)	독축·소지	마을에서 선 출된 당주 외 30명	소머리·소간 염통·뇌·콩 팥·과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8)	
	하번천리	산제사· 장승제	음력 10월초 (1-5일사이)	은곡마을 옆 칠사산 기슭 마을입구 개 울 산신당	장승/숫대	산신제후 이 튄날장승제	산신제 제관 외6명	통소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8) · 경기도지방장승 · 숫대신앙	
	불당리	산신제	격년 음력 10월	마을 뒷산 중 턱 산제터	바위	독축·소지	제관·이장의 수십명	돼지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8)	
	검복리	장승제	음력 3월초	마을입구	장승	일반기제사 와유사	제관과 축관 이장	기제사음식 과 동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18)	
초월면	대쌍령 1-3리	정충제	정월초이틀 밤9시-11시 30분	마을 북서쪽 대로 변 정충 묘	사당		생기복덕이맞 는자제관선출 동장·반장	소머리·천엽 북어포·조울 이시·매·술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한국의 마을제당(p.146)	1·2 리 가 돌아가며 제를 주관
	쌍동1리 도곡마을	정제사 산제사	음력10월 밤12시	마을뒷산초입	우물	유교식·축 읽기·소지 올리기	생기복덕이맞 는자 제관4명	소머리와 대추·밤·술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한국의 마을제당(p.150)	
	쌍동2리	산신제	음력10월	마을뒷편 전 주이씨 효령 대군과 선산	신목(참나무) 호당				현전 (부정기)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지금은 특 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제를 올림
	학동2리	산신제	정월	마을입구 서낭당	돌무더기· 신목				20년전 단절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초 월 면	선동1리	산제사	격년 2월초순	마을 뒷산 기슭 당	당집 (슬레이트) 신목 (참나무)	소지-축문	당주·화주	소머리·통 북어·식혜 무나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당집엔 '군웅'이 라하여 쌀을 넣 어둔 향아리를모 셔둠
	선동2리	산제(군 웅제)	정월 열나흘	마을내고 개 산제터	신목은 태풍으로 넘어져 고사	일반기제사 축문·소지	제관의 소수	바·대추 배·사과 북어포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마을전체에서 제 사에 참석하는가 옥이 매우적음
	용수 1-3리	산제사	정월보름경	마을동편 산정상 국 시당	신목 (참나무)		부정이없는 남자	술·백반 삼색과실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한국의 마을제당(p.151)	2리가 제를 주관
	신월리 (두월)	산제사	격년 1월3일	무갑산 신목	신목 (참나무)	일반기제사 사방식 축문·소지	제관3·소임3	소죽·부위 별·삼색실 과·북어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한국의 산간신앙(p.273)	
	신월3리 (탄동·숫 골)	산제사	정월 열나흘	마을입구	신목 (참나무)	일반기제사 축문·소지	제관의3명	돼지1마리 밤·대추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한국의 산간신앙(p.273)	제육으로 돼지잡 아 이를 신목에 걸어둠
	지월1리	산제사	격년 정월초	마을 남쪽 산제사터	신목·우물	일반기제사 축문·소지	제관의 4명	소·통북어 삼색과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125)	
	지월3리	산신제	격년 선달 그믐경	마을 뒷산 산제터	산치성터	일반기제사 축문·소지	제관	통 돼 지 생 것·백설기 1시루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12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초 월 면	무갑리	산제사 장승제	격년 음력2월초	마을입구에 장승2기	신목·장승	산제사후 장승제	제관과 이장 반장·유지 몇 분	삼색실과 포·떡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경기도의 굿(p.212) 경기지방장승·숫대신앙	현재는 장 승제만 지 냄
	서하리	산제사 장승제	음력2월초 택일	장승·신목 마을당산	신목·장승		제관의 5명	소머리·삼색 실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경기지방장승·숫대신앙	장승제는 격년·장승 은 세곳
	도평리 섬뜰마을	산제사 (위령제)	음력 10월초하루 밤12시	마을입구 가마소산 남쪽 산제당	신목·제단	유교식 축입기	이장·축관	소머리·천엽 간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한국의 마을제당(p.148)	
퇴 촌 면	관음 2리	산제 장승제	음력3월 내지 10월 (격년제)	마을 입구 야산정상 산제당	신목 제단 장승	장승백이 있 는 육당서하 고 소당으로 가서 한다	당해신수보 아 제관선출 외 5명	소머리(돼지1 머리)·술·포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7)·경기지방장승 ·숫대신앙 한국의 마을제당(p.152) 경기민속지Ⅱ(p.230)	장승제는 격년·산제 는 마을에 우환시
	우산1리	산치성	매년 길일을 받아 정함 2월초	마을 앞 당산 정상·마을입 구·산제당	신목·장승	유교식제의 축문	30대 이상의 남자로 책을 보고 정함 제관	통돼지·복어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7) 한국의 마을제당(p.153)	
	도수1리· 오리	산신제	정월	국사봉정상	신목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7)	
	원당리 1-2	산제사	음력2월초순 밤12시-1시	마을골짜기	신목 (참나무)	상당→하당	부정이 없는 자·당주 하주	복어·밤·대추 산자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7)·한국의 마을제당 (p.154-15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퇴 촌 면	우산2리	산치성	2월초 (격년제)		장승				현전	경기지방 장승·숫대신앙	
	정지2리	산치성	음력 9월초 산신하강일 에 택일	마을남쪽 산정상 산치성터	신목(참나 무)우물	진설·재배·축 문·소지	당해에 신수를 보아 대길한 사람 당주2명. 비당주	암통돼지 술·포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7)·경기지방 장승 ·숫대신앙	
외 부 읍	도곡리 상리동		7월3일	산신당	당집·신목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한강』(p.476) 한국의 마을제당	
	덕소2리 새루		10월		신목(느티 나무)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한강』(p.476)	
	팔당2리 상팔당	산신제	2월초 9월초	산신각	당집 소나무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한강』(p.476)	
	월문리	산치성	9월9일	산제당	바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한강』(p.476)	
낙 생 면	대압리		음력10월1일	산제당	신목	돼지고기를 울 려놓고 지냄	제관	술·돼지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132)	
	판교리	너 더 리 산제사	음력10월1일	부락동쪽 산정	신목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며 지냄	제관 축관	생돼지·술 소머리 물고기 삼색실과		한국의 마을제당(p.133)	
	하산운리		음력10월1일	도당	신목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며 지냄	제관 당산주	청주·백반 흰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13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남 종 면	귀여1리	산신제	음력 10월	마을앞 강변 도로변 서낭당	신목			15년전 단절	광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p.109)	
	검천2리	산치성	음력 10월	마을입구 도로변	신목 (소나무)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p.109)	
	검천3리	산제사	음력 10월	마을 서남쪽 (골안)	신목 (참나무)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p.109)	
	수청1리	산제사	격년 음력 정월 보름전 (현재는 비정 기적)	마을 뒷산 정상	신목 (소나무)	일반제사형식 축원	제관외1명	돼지머리 막걸리 포·메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p.109)
	이석리	산신제	2월초	산신제터	터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Ⅱ 「한 강」 (p.476)	
도 척 면	노곡리	우물고사	선달그믐12 시(1월1일)	마을가운데 우물(향나무) 동네 개울 양 쪽3곳 제의	우물 신목 (향나무)	간단히 진설하고 축한다	제관외 5명	소고기·실 고·포·술 메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p.110)
	유정2리	미륵제	정월초하루· 4월 초파일· 7월 칠석	마을회관앞 미륵불	돌미륵	춧불켜고 축원	마을주민 전체참석	춧불·과일 떡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p.110,111)
	방도1리	장승제	정월 대보름밤	마을입구	돌장승	장승제를 지내기 전에는 서낭제라 고해서 신목을 모 시고 제를 드렸음	제관 및 마을사람 전체참석	돼지머리 시루떡·술	현전	6년전 장승제 후 중단되었다 가 2001년부터 복원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도 척 면	상림2리	산신제	부정기	밤송골 고사나무	신목·우물			현전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110)	마을에 있을때 제를 올림
	도옹2리	산신제	3년마다 정월초	마을 뒷산중턱 산제사터	신목 (소나무)			소멸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110)	
	진우1리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마을뒷산정상 산제사터	산제터·샘	일반기 제사와 비슷 축원·소지	제관의 1명 돼지머리 포·주·메	현전		
대 왕 면	심곡리	우물고사	음력 7월초	대동우물	돌로 쌓아지음	제관	소1마리 술		한국의 마을제당 (p.135)	
돌 마 면	도촌리 섬마을		음력 8월1일	선황당	신목	이장 당산주	술·어포		한국의 마을제당 (p.137)	
	수리 수반마을		음력 10월 13일 음력 5월 28일	제당	瓦家 4間	진설·현작배	제주		한국의 마을제당 (p.138)	
	야탑리		음력10월16일	산신당	초가	상당·하당	당주1명 제관2명	술·백설기 소머리 과실·복어 돼지머리	한국의 마을제당 (p.139)	
	율리		추석	제당	기와집	제관	삼색실과		한국의 마을제당 (p.140)	
	정자리		음력8월1일	무산군당	기와집 4간정도	일반 제사법	제주	일반적	한국의 마을제당 (p.14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동부면 천현리 샘재마을		음력 정월3일				제관2명 축관1명	초헌·아헌 삼헌·샘재 戶戶祀願		한국의 마을제당(p.142)	
서부면 감일리 정림마을		음력 7월1일					소머리 술		한국의 마을제당(p.143)	
남한산성	도매당왕 신도당굿	매년 8월28일	청량당	당집이 있 었으나 사 라짐	청량당에서 제를 지낸후 대동굿 거행			현전	경기도의 굿(p.212)	원래는 정월 초2일 에 했으나 현재는 8 월에 행해짐

6. 구리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갈매동	도촌마을	산치성	음력 3월 초순	도당산 당집	기와지붕 1칸 당집	치성→ 서낭맞이→ 분굿	도가·화주 시주·대집 이숙수	팔시루 북어·조포 계면떡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40) 구리시지(p.659-666) 경기도의 굿(p.241)	
	담터마을 (동구동 관할)	산치성	음력	산22번지 66호 배나무밭앞	도당굿 굿터	축문 절·소지	당주 삼화주 도가·영주	생채소 소고기	현전	구리시지의역사와 문화유적 (p.234) 경기도의 굿(p.241) 경기민속지Ⅱ(p.164)	
사노동	인제마을 (동구동 관할)		음력 10월 삼일	마을 뒷산 정상 바위		축문 절·소지	제관의	밥·밤 대추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06)	
	사노동 안말 (동구동 관할)	산치성 (언제는 할머니제사· 안말은 할아버지제사)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초사흘	안말에서 북서쪽으로 20분 당집	소나무로 둘러싸인 2칸짜리 당집	축문→ 절→소지	제관	소간·소천엽·소산적 시루떡·밤 백설기 과일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28) 구리시지(p.669-671) 경기도의 굿(p.241)	도당굿은 소멸 산신제만 전승 안말·두레물골·언제말·양지말이 함께 지냄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아천동 우미내마을	대동고사	음력 10월초	서낭당고개 서낭당	당집(오방 색 깃발)	축문·절 소지	당주의 참석 하고 싶은 자	시루떡·백 설기·삼색 실과 복어포 숙주나물 고사리·메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06) 구리시지(p.666-698)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 『한강』(p.476) 경기민속지Ⅱ(p.161)	
교문동 한다리마을	대동고사	음력 10월 초하루	마을입구 치설낭구	향나무	집안제사 방식	제주	시루떡 복어 삼색실과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09) 구리시지(p.674-675)	
수 택 동	수늬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경로당옆 당집	현대식 건물	도당굿형식	당집 관리자 무당	소머리 소족 삼색실과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15) 구리시지(p.672-673) 경기도의 굿(p.241)	
	검배마을	서낭나무 고사	음력 정월· 시월상달					소멸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16)	
	이촌마을	산치성	음력10월초	일화제약정문 근처 당집		삼잔 삼배 소지	제관·제주 대주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1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인 창 동	궁말 (동구동관할)	산치성	음력 10월1일- 3일	인창초교 옆 당집	동구능 산의 세곳	세 곳 에 서 각 기 다 른 제 물 로 치 성 드 림	제관	떡·복어 나물 소머리·죽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18)	
	동창마을 (동구동관할)	산신제 부군제	음력정월 초하루	동구능 산바위 동구동사무소 뒤	치성바위 양기와집 (소멸)	상당은 산신당 하당은 부군당	제관	돼지·떡 삼색과일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24) 구리시지(p.676-678) 경기도의 곳(p.241)	우물고사도 지 냈 으 나 1960년 대 소멸
토 평 동	벌말 (수택3동관할)	우물고사 도당굿	음력 7월·10월 초하루	경로당 옆 돈대	느티나무	도당굿 형태	제관	삼색실과 소머리·떡	현전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206) 구리시지(p.666-698)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 『한강』 경기도의 곳(p.241) 경기민속지Ⅱ(p.170)	도당굿은 소멸

7. 군포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군포읍 당동	도당제	1월과 7월	당산봉의 산신당		유교식	제관	조라술·떡 북어·소머리 과일(1월과 7 월에 올리는 과일 달라짐)	현전	군포시지 (p.877-881) 경기도의 굿(p.170)	당너머·도랫말 범말·아구랑 동막골주민이 모두 참여
군포2동	도당제	음력 7월1일	삼성도당						경기도의 굿(p.170)	
괴곡리 느티울	산신제	7월초하루		당나무 당우물	유교식	제관	조라술·간 소머리·천엽 소죽 4개 갈비 반짝	현전	군포시지 (p.881-883) 경기도의 굿(p.170)	과거에는 정월 에도 지냈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음
산 본 동	수리	산신제	정월 7월	수리산 태을봉	큰당에 제 를 올린후 작은 당으 로 옮겨 지냄	당주(제관)	조라술·밤 소머리·죽·떡 내장·꽃감 대추·사과	현전	군포시지 (p.883-886) 경기도의 굿(p.170)	
	궁안마을	도당제	상부정·피 부정을 피 해서 제사 를 지냄						경기도의 굿(p.170)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남 면	산본2동 광정마을	산축제	음력1월3일 7월4일	할아버지당 할머니당	기와지붕	당주4배 축문·소지	당주·축관	소·북어·삼실 과	현전	경기민속지Ⅱ(p.248)	
	당동 도랫마을	산제사	음력 정월·7월 적당한 날 2회	도당	기와1칸반	상당	당산주	술·우육 과실·백반		한국의 마을제당(p.231)	
	금정동 금정마을	산신제	7월1일		참나무	소지·독축	제관·축관	소·북어·부두 떡	현전	경기도의 굿(p.170) 경기민속지Ⅱ(p.241)	
	금정리 피곡마을	산제사	음력7월	뒷산	신목	축 호명 세 대별	제관	소 한필		한국의 마을제당(p.230)	
	부곡리	당고사	그때 時를 잡아서	골프장 밑	신목	제물 올리 고 제배	당주	소머리 백설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32)	
	부곡리 삼성마을	도당제	7월초하루	마을 서편의 도당제산	참나무	유교식	제관·당주 축관·봉주 2명	소머리·족 간·천엽 도가니·배 사과·밤·자두	현전	군포시지 (p.884-888)	10월 초하루 도 지냈으나 지 내 지 않고 있음
	이리동 이리마을	당고사	봄·가을 (임으로 정함)	주자영당	개와집	상당	제관	일반제사상과 같음		한국의 마을제당(p.235)	
	사정리 가리대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3일	마을 서쪽 구름산중턱	신목	유교식	당주2명	술·백반 통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23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남 면	사정리 오리동	음력7월1일 9월1일 (년2회)	도당	신목		선당주 얇은당주	백설기·술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237)	
	일직리	도당고사	음력10월3일	일직리 山 41번지	신목	유교식 제의	당주 2명	술·떡 통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239)	
	철산리 원철산동		음력1월1일	덕수장씨 사당	기와4평	유교식 제의		술·떡국 삼색실과	한국의 마을제당(p.238)	

8. 김포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월 곶 면	보구곶리	산신제	삼월삼짓날· 음력10월	마을 산정상	터줏 가 리 가있는 자 리·평평한 곳	유교식으 로제를 지 낸후 대동 굿을 지냄	제관·도가	술·사과·배 감·떡·북어 돼지머리·산 신제술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Ⅲ (p.661-663) 경기도의 굿(p.195)	부정기 적
	성동1리 산성마을		3년마다 1회 씩 음력2월1일	여왕당	벽은 시멘 트 지붕은 기 와	해나무-서 낭당-여왕 당-해나무 -별신굿	산주 이장	술·백설기 소머리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170)	
고 촌 면	신곡리 7리 영사정	산신제	10월1일	마을우측 산록	제당	안고사(안 택굿)→당 고사(여자 는사배·남 자는재배)	얇은당주 선당주·만 신	시루떡·밤·대 추·돼지머리 제주·우끼·쌀 그릇	현전	김포군지(p.1500-1502)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32)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Ⅱ 『한강』(p.476) 한국의 마을제당(p.159) 경기민속지Ⅱ(p.151)	
	신곡6리 은행정	산신제	10월2일	등대산 용바위	신목	일반 가정 제사와 같음	얇은당주 선당주	술·백설기 제육·과실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31)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Ⅱ 『한강』(p.476) 한국의 마을제당(p.160) 경기도의 굿(p.19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고 촌 면	향산리	당산제	음력11월초	도당산	방형의 벽돌조 1칸 건물	진설→배례→ 헌작→고축→ 배례→소지	제관	돼지머리 조라술·고 사떡·복어 삼색과일	현전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9)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 술조사Ⅱ 『한강』 (p.491-494)	향산1리·2 리가 한해 씩 번갈아 가며 지냄
	태6리 대준	도당제	10월초순 (음력9월9일)	마을 도당나무	합석 2칸 내 외 규모 당집	상-절-축-소 지올림	제관·당주	조라술	현전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30)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 술조사Ⅱ 『한강』 (p.476) 한국의 마을제당(p.162)	
	전호리 별말	동제		마을 나무						경기도의 굿(p.195)	
	태1리 장곡	우물제	칠월칠석	마을아래 우물				돼지머리 소머리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31)	
	전호 1리 전호		4년주기	도당	신목	무당의 축원 으로 시종	신 당주 않은 당주	술·떡 쇠고기 과실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 술조사Ⅱ 『한강』 (p.476) 한국의 마을제당(p.161)	
	풍곡 4리 신동		길일을 택하 여 제를 지냄	당집	소나무		당산주	술·소고기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 술조사Ⅱ 『한강』 (p.476) 한국의 마을제당(p.163)	
	신동2		길일을 택하 여 제를 지냄	신동당	신목		당산주	술·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16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통진면	도사리	10월초		당집			백설기 삼색실과 밀전병	현전	김포군지 (p.1502-1054)	대동으로 지 내왔으나 몇 년전부터 개 인이 지냄
	도사리	미륵제 정월초·사월 초파일·칠월 칠석	미륵당	슬레이트 지붕·블 록담		김씨		현전	경기민속지II(p.149)	
	동을산 1리	산신제 정월초 택일	산신제터	신목	현작·독축 소지	제관·축관 도가집	통돼지 기타제물	현전	경기민속지 I (p.581-587)	
김포동	운양리 샘재마을	음력10월15일 오후11시	부락 서쪽 모담산 산 마루	상수리 나무		제관5명	술·백반 백설기 소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167)	
	풍무3리	서낭당제 봄, 가을 2번	마을 소나무	신목	축문읽고 절	제관	시루떡	소멸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p.126)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술 조사II 『한강』 (p.476)	
	운양4리 대촌	당산제 음력 10월 초하루	마을 산나무	도당 산나무		제관 당주	떡 돼지머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술 조사II 『한강』 (p.476)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p.127)	
	운양3리	도당제 10월 6일				당주 2명		현존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p.12)	
	대촌동	음력 10월	도당	신목	상당·하당 (별신굿은 3년에 1번)	당주 2명	술·닭 소머리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16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김포동	운양리 발산동		음력 정월 십사일	상당	신목		제관(이장)	떡 한시루 사과·밤 대추·복어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166)	
양촌면	학운1리 고음달	도당굿		학운산 나무	신목· 터줏대감		화랭이 제관		단절되었 다가 재 전승	김포시의 역사와문화(p.134)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7)	
	학운3리 삭시	산치성	음력 1월	신목			무당	과일 술·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7) 김포시의 역사와문화(p.133)	
	석모1리 석산	산고사	음력 10월				무당			경기도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II 『한강』 (p.477) 김포시의 역사와문화(p.132)	
	양곡리	동제	음력5월 15일							김포시의 역사와문화(p.132)	
	울생리	도당								김포시의 역사와문화(p.135)	
대곶면	대벽리 (대명리)	서낭당굿 (대동굿)	음력10월 (20일)	서낭당		유교식후 만신굿	마을사람누 구나·만신	백설기 시루떡 술·돼지고기	소멸 (복원)	도서 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I (p.653-654) 김포시의 역사와문화(p.136) 경기도의 굿(p.196)	
	대능리		매년1회 (가을)		신목					한국의 마을제당(p.168)	
	약암리 약산마을		음력 2월 18일	대성원	기와	일반제사 와 같음	제관(원장)	술·과실 백설기 백반		한국의 마을제당(p.169)	

9. 남양주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평내동 장내마을	산치성	매년 음력 10월9일	마을 동남쪽 약수함 아래 산제당	방1칸 부엌1칸 벽돌집	절→축문→ 절→소지	안당주 바깥당주 나무꾼 소임·축관	소머리·배·사 과·대추·밤·통 북어·산적·간 천엽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73)	
호 평 동	평촌마을	매년 음력 3월3일· 9월9일	천마산줄기 3부능선 별통제의 산신당	1칸 슬레이 트 지붕의 벽돌집	진설→재배 →축문→소 지	당주·부당 주 제주	삶은소머리·백 설기·밤·대추 사과·소간·천엽 노구메 3그릇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6)	
	호만마을	매년 음력 3월3일· 9월9일	천마산 줄기 3부능선 천지골의 산신당	산신당 주변 노 송 앞 예 바위제단	진설→재배 →축문→소 지	당주 소임2명	떡·소고기·닭 북어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9)	
조 안 면	시우리	매년 음력8월1일	마을 뒤 산등성이 산제당	새 로 지 은 건물로 앞 문이 띄어 있음	소 화 주 가 10시경 지 내고 나면 육화주가 1 시경 다시 지냄	제관 소화주 육화주	백설기·오곡밥 과일·소죽·삼색 실과·소머리·소 내장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28)	
	조안리	매년 음력10월3일	신양수 검문 소 뒤 동산 위 도당집	시멘트블록 집·조라터 주가리	본제사 전 6시경 소제 사를 지냄	제관·축관 당주·화주	소머리·밤 대추·곶감 팥시루떡 노구메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3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조안면	조안리 조동마을	산제사	매년 음력9월1일	마을뒤쪽 중심가 당집	직사각형 한 칸 벽돌집		당화주부부 조라화주부 부·축관	소머리·떡 북어·과일 산담한쌍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34)	철성을 모 시는 것이 특징
	진중2리	산치성	음력 10월 초하루 자정	마을뒤쪽 산의 재당	당집은 없고 평평한 터	유교식	제관 당화주	쌀·돼지 소머리·술 삼색실과 북어포	현전	남양주시지 (p.331-332)	
오남읍	팔현리	산신제	음력 8월(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정이 있을 시는 10월안으로 지냄)	팔현1리 산신각	절의 산신각 처럼 지어져 있음	유교식의례 절차	당주 제관	소머리 소족·떡·메 과일	현전	남양주시지 (p.332-333)	
가운동	가재울 마을	도당제	2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초	마을 뒤쪽 산 도당집	기와울림	유교식	제관·축관 화주·소임	소의사족 머리·꼬리 술·사과·배 감·북어포 팔시루떡	현전	남양주시지 (p.333-334)	도 당 굿 도 행 해 졌 으 나 지금 은 단절
수동면	입석4리	산제사	음력7월에서8 월사이의 길일	오득산의 중턱	블록조에 지붕 을 아스팔트싱 글로 했음	진설·현작·독 축·재배·소지· 철상·음복	당주 제관2명 축관2명	검은돼지 삼색과일 탕·술	현전	남양주시지 (p.329-331)	오득산신령 ·축령산신 령을모심
	송천리 송나마을	산신제	음력8월2일	산제당	초가1칸	상당	제관3명	술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 (p.315)	
	수산리 내마산마을	산신제	음력9월9일	동리 서남쪽 산	신목	제물을 차려놓 고 절	제관3명	소머리 술·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31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별내면	덕송1리	산신제	음력10월	산신각 (철거되었음)			당주 제관	황소·술·대추·감·복어포·삼색과일	현전	남양주시지 (p.326-329)	
와부읍	팔당리 상팔당마을	산치성	음력 2월초와 9월초	마을뒷산 중턱 산신각	슬레이트 지붕 2개의방	아침의 본제사와 저녁의 파제사	화주부부 2명	밤·대추·사과·배·곶감·산자약과·탕·식혜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97)	
와부읍	월문4리	산제	음력 9월9일 밤12시	마을 동쪽 갑산줄기 제일아랫쪽 산제당	제당 입구 6개의 산제바위	진설→축문→소지	제관 시주 화주	황소·산적·통복어·백설기·노구메 12그릇	현전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03)	
	월문5리 글개월마을	산신제	음력 9월초하루	마을 뒤 산중턱의 산신당	소나무 세 그루	유교식의례 절차	제주 화주	황소·팔시루떡·사과와밤·산자·복어	현전	남양주시지 (p.317-318)	과거에는 음력2월초하루와 9월초하루에 지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가을에만 지냄
	덕소리 석실마을			선각	사각 적기와집					한국의 마을제당 (p.317)	
	도곡리 상리동	산신제	음력 7월3일	산신당	개와집 신목	잔 올리며 축을 읽고 부락민 소지올림	제관4명	황소머리·소고기·과실·복어·술·흰무리		한국의 마을제당 (p.319)	
진접읍	내각1리 내동마을	산제사	2월초와 10월초	마을뒷산 산제당	옆으로 긴 직사각형 불록집	진설→재배→독축→소지	영좌와 소임	소족·소머리·소내장·통복어·포16개·팔시루떡	현전	남양주시지 (p.318-321)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2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화 도 읍	마석우리 3리	산제사	7월 초길일	산신당	당집	진설·재배· 독축·소지	제관	소죽·소머 리·소내장 통북어포16 개·팔시루 떡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Ⅱ 『한강』(p.474)	
	금남2리	산제사	10월	산제당	신목 (느티나무)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Ⅱ 『한강』(p.474) 경기도의 굿(p.251)	
화 도 읍	가곡1리 안말	산제사	음력 9월9일	마을뒤쪽 산제당	슬레이트 지붕·시멘 트벽	유교식 의례	제관	돼지머리 노구메·북 어포·고사 리·도라지 나물·밤·대 추·꽃감	현전	남양주시지(p.321-323)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Ⅱ 『한강』(p.474)	
		도당굿	3년마다 9월9일	산신터		도당굿을 하 기전에 산제 사를 지냄			현전	남양주시지(p.324-326) 경기도의 굿(p.251)	
	가오실		9월9일		신목 (느티나무)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Ⅱ 『한강』(p.474)	
	사능리	노제	음력 4월·10월 상달중 택함					소고기·삼 색실과·술 떡		한국의 마을제당(p.32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화 도 읍	송능리 상독정동		음력10월1일	터	제단		제관	술·백반·떡 소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330)	
	신월리 새마을1·2	산치성	10월20일	새말뒀산 (옆산)	신목			술·과실·소 머리		한국의 마을제당 (p.334-335)	
진 건 읍	용정리 고리개마을	산신제	음력10월1일		신목	산신제만 드림	제관·축관 제주·화주	술·백반 소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336)	
	용정리 상독정마을 1	산치성	음력9월15일		제단		제관2명	황소1마리		한국의 마을제당(p.337)	
	용정리 상독정마을 2	산치성		마을 동산	제단			소머리·족		한국의 마을제당(p.338)	
	진관리	노계	음력 2월 1일 10월 1일			축사 낭독 (집사) 절을 두 번 반씩 3번	당주·화주	2색과·술 밥·떡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339)	

10. 동두천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상 패 동	인곡 마을	미륵치성 음력 1월 15일 음력사월 초파일	인곡마을 돌미륵당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			떡·과일	소멸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123) 동두천시지(p.332)	
	새말	산신제	용요산 새말부군 돌	비모양과 원형의돌 한쌍	유 교 식 산신제와 부군제의	새말2인 신곡1인 인곡1인	북어4마리 소머리·대추5홉 떡살3말·사족 밤5홉·팥7되 전육4근·사과4개	소멸 (축 문 내용 만 현전)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122) 동두천시지(p.334-335)	
보 산 동	결산리	산신제 매년 9월9일	소요산			화주1인 화덕1인 현관1인 축관1인	돼지고기 신곡·실과	현전	동두천시지(p.333-334)	
송내동 (불현동)	숫대고사	매년 정월 14일	마을 초 입 숫대		제주가 주관	제주	떡한시루 포 막걸리	소멸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127) 동두천시지(p.341-342)	
지행동	종이골	느티나무 고사 매년 정월15일	마을중앙 느티나무	신목	유교식마 을고사	동네주민들	삼색과일·돼지머 리·시루떡·술	현전		1997년부 터 재현
하 봉 암 동	부군굿 (도당굿)	4년마다 음력 10월 상달	부군나무		유교식 산제사와 무당의 부군굿	제 관 · 상 화 주 · 중 화 주 하 화 주	삼색과실 삼색나무 술3잔 탕3기	소멸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121) 경기도의 굿(p.25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지 행 동	행단골	행단제	매년 10월 상단에 택일	마을 은행나무		3일간	지행·송내 행단3개 마을주민		현전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4)	
광 암 동 · 탑 동	동점마을	탑굿	음력 2월 초순	넷물을 경계 로 동서쪽에 두 개의 탑		제를 지낸후 다 음날 아침부터 탑굿을 진행함	제관·집사		10년전 단절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4) 동두천시지(p.345-347)	
		산신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나 이틀날	마을의 국사봉					20년전 단절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4)	
	장림마을	부 군 굿 (도당굿)	3년에 한번 음력 10월	느티나무		밤에 시작해서 다음날 끝내는 하룻거리			소멸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46) 경기도의 굿(p.251)	
소요산 상봉암동	개천제	매년 음력10월3일	원효폭포				오곡 오과 시루떡 돼지머리	현전			

11. 부천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소사구	중1리	10월중 좋은 날에	장 마을 당	蓋瓦 三坪	우물고사 드리고 4시간 마다 신굿	당주 할아버지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184)	
	중3리 1	10월중 좋은날에	간람 마을 당	蓋瓦 3坪		선당주 앞은당주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185)	
	중2리 2		장마을 堂회의 작은집						한국의 마을제당(p.186)	
오정구	고강리 1	음력 7월 초하루	서낭당	신목	숫서낭당 암서낭당	제관	술·백설기 소머리 삼색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199)	
	고강리 2	음력 7월 초하루 새벽1시-3 시	서낭당	신목	숫서낭당 남서낭당	제관	술·백설기 소머리 삼색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200)	
	대장리 섬마을	음력 10월초순	도당	신목	고령자부터 잔을 올림	당주	술·쌀밥 소고기 어물·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01)	
	대장리 큰마을	음력 10월초순	도당	신목	재배	당주	술·쌀밥 소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02)	
	여월리		서낭당	신목		제관	백설기·술 삼색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203)	
	오정리	매3년에 1회씩 가을	도당	신목	상당-국시당- 삼신당-별신굿	좌당주 입당주	주·백편 우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04) 경기도의 굿(p.132)	
	작리		서낭당	신목					한국의 마을제당(p.20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중동 장말	장말도당굿	음력 10월 3일	당	기와	도당굿	도당할아버지·무녀		현전	경기도의 굿(p.133)	
소사구 괴안동	도당제		느티나무						경기도의 굿(p.132)	
성곡동	도당제		여월리로 가는 언덕위의 도당						경기도의 굿(p.132)	
오정구 원종동	도당제	음력3월1일 7월12일	우물		우물고사			현전	경기도의 굿(p.132)	

12. 성남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수 정 구	고등동 등자리	산신제 도당굿	매년 음력 10월 1일	산제막산 산제당	산신력 화본	도당굿	제관 축관	통 돼 지 · 삼 색과일 · 떡	현전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1) 경기도의 굿(p.120-123)	도당굿은 사 라지고 산신 제만 지냄
	시흥동 (사송2동) 송현마을	산제	음력 10월1일 10시	마을 입구 두그루의 회화나무	바위				현전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1)	
	시흥동 모랫말	도당제	음력10월초	마을 뒷산 도당나무	참나무	제관	소한마리	소멸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1)		
	심곡동	산제	음력 7월 1일	천림산 도당터	주택사이 의 공터 우물	제관	쇠 머리 · 우 족4개 · 술식 잔	현전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2) 경기도의 굿(p.120-121)	도당굿은 사 라지고 산신 제만 지냄	
	사송1동(별 말 · 농 막 · 사촌 · 동관)	산제	음력 10월 초순중 택일 0시	농 막 에 서 사촌으로가 는 고개 오 른쪽 산	신목 소나무 참나무	제주내외			소멸		
	신촌동 새말	동네고사	음력7월1일 낮 12시	마을회관내		제주			현전		
	상적2동 옛골	산신제	음력 10월 초중 택일	마을뒤 청계산 등산로입구	소나무		당주 부당주2명		현전	등 산객 들 도 따라 치성을 드림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중 원 구	도촌동 중말·섬말	서낭제 장승제	음력 8월 1일	이왕산 고개 서낭나무	돌무더기		제주·통장		현전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2)	
	상대원동 보통골	도당굿	음력 10월 1일	상수리나무	나무	도당굿	당주·하주		단절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2)	개인이 치성
분 당 구	대장동(모두 만이·별장투 리·대장리)	산신제	매년 단오날	마을 느티나무	고목 상수 리나무		제주·축관	떡	소멸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2, p.93)	
	야탑동	장승제· 산신제	음력 10월 초	성족산 굴 참나무옆 상당· 참나무옆 하당		유교식	당주·유사 축관	떡·막걸리 통북어 쇠머리	소멸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3)	
	이매동 안말 물방아거리	산치성	음력 9월 3일	마을 뒷산 참나무			제관·축관		현전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4) 경기도의 굿(p.116)	
	판교동 너더리마을	산제사	매년 음력 그믐 자정	마을 동쪽 산 정상의 참나무	신목	유교식 진설- 축문	제주 마을 남자 (홀수)	돼지머리 떡·삼색과 일·밥2그릇 국2그릇	현전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4) 경기도의 굿(p.117-119)	과거 정월 보름에는 도 당굿을 지내 기도 했음
		고사나무		판교동 62-1	신목					개인이 치성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4)
너분바위 마을	고사나무		마을중앙의 느티나무길 제일 높은 언덕						개인이 치성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9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분 당 구	삼평동	도당제						소멸	경기도의 굿(p.116)	
	석운동		남쪽 산신제					소멸	경기도의 굿(p.116)	
	동원동 동막골	산제	음력10월1일 저녁7시	동막천 옆	장승2기 서낭나무	당주		소멸		
	하산운동 아랫피루니	산제사 영산제	음력 10월1일 0시	마을뒷산 중턱 빈터	신목	당주·제주		현전		
	운중동	산제사 산고사	음력 10월초순경 저녁7시	마을뒷산 (칭계산) 중턱	나무·바위	당주 화주2명		현전		1987년경에 단절되었다 가 2000년부 터 재현

13. 수원시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팔 달 구	원천동 역말	정계 산신제	봄	방울재 쪽 서낭당(교회쪽에 서낭당이 더있음. 약수터 뒷편에 제당이있었으나 없어짐)	소나무		제관	소고기	소멸	수원시지 (p.527-528)	
	영동시장		매년 음력 10월 7일	영동시장내 거북산당	기와지붕을 인 1칸집	청신→공수→축원	만신	소머리 돼지머리 시루떡 과일	현전	수원시지 (p.528-531) 경기도의 굿(p.89)	시장번영회 주관
	지동 (못골)	못골 호 신당제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1-2일)	호신당	블록벽돌·기와를 올린 당집 (과거에는 짚이엉을 이용)		제관	돼지·떡·감주·삼색과실	소멸	수원시지(p.532) 한국의 마을제당 (p.219) 경기도의 굿(p.89)	1980년대초 당집 소멸
	지동 못골마을 2		음력 10월 1-2일	산신당	초가 건평2평	제당→삼신당	당주	떡·감주 돼지 과실삼색		한국의 마을제당 (p.217)	
세류동 윗버드내마을		산신제	음력10월1일	산신당	기와	산신제	제주	술·소머리 밥·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215)	
장 안 구	파장동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이목동 북쪽 산 산신당	이엉을 엮은 목조건물	절	당주부부	조리술·돼지머리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 유적 (p.100) 경기도의 굿(p.22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장안구	화서동	동래 정씨 월례치성 행사	음력 매월 초하루	동래정씨 선산 밑 부처집	석불모신 단칸 벽돌 집		물·떡·과일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0) 경기도의 굿(p.89)	제로만 지냄	
	하광교동	산제사	매년 음력 10월 마지막날	방죽 지나 기도원 위 상석	정 방형의 시멘트 상석	제관·축관	소머리나 돼지머리 새로지은밥 식혜	현전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1)		
	영화동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조원동 마장산 산신당		도당굿	당주 부부 소와 술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2) 경기도의 굿(p.89)		
	연무동	산신제	음력 10월 중순에 말날을 택일	현 연무동 대명아파트 단지내			당주 부부· 제관·짐꾼	돼지머리·술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2)	
		기우제	수원지역이 가물 때	방죽근처 연무동 일대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2)	
	울전동	정제	매년 음력 7월 초하루	울전동 365번지 가운데마을	우물		제관	통돼지 막걸리	현전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3)	
권선구	금곡동	우물고사	음력 칠월 초하루			유교식	제주	소머리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7)	
	구운동 웃구운들	정제	음력 7월초	동네 우물			제주	소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7)	
		산신제	양력 2월 23일	상구운동 성황당	서낭나무· 성황당			복어·실과 떡	2년 전부터 마을산악회 주최로 전승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0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권 선 구	구운동 아랫구운들	우물고사	매년 칠월 칠석			우물이 생긴 순서대로 네곳	제관 소머리 소족·갈비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 유적(p.107)		
	당수동	우물제	매년 칠월 초하루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 유적(p.107)		
	오목천동 곶집말	정지고사	매년 음력 7월 초하루	곶집말 뒷산 마르 지 않는 샘		제관·축관	소		수원시 역사와 문화 유적(p.107)		
	오목천동 오목내	우물고사	매년 음력 7월 초하루				소	소멸	수원시 역사와 문화 유적(p.108)		
	탑동 골말	서낭제	매년 음력 7 월 1일 아침 10경	골말서낭당	향나무	제관의 재배 후 축관이 축문을 읽음	제관·축관 만신	소머리 제주 정화수	현전	수원시지(p.519-526) 수원시 역사와 문화 유적(p.108) 경기도의 굿(p.89)	600년된 향나무 가 도벌당한 후 1993년 어린 향 나무를 심고 비 석을 세웠음
	호매실동 원호매실	도당제	음매년 7월 칠석	군웅당	제당 (사라짐)	유교식 절차 에 따라 지 냄	만신·제관	북어·정화 수·술·적 배·사과 시루떡	현전	수원시지 (p.526-527) 경기도의 굿 (p.114-115)	당주가 매달초 하루에 당에서 제를 올림
서둔동 서둔말	산신제	매년 음력 10월	현 서둔동 성당자리	신목		제관·축관	소머리 맑은술		수원시 역사와 문화 유적(p.109) 한국의 마을제당 (p.217)	서둔말과 북리 말에서 해를 돌 아가면서 지냄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권 선 구	고색동 큰말	도당굿 도당제	일년에 세 번 정 월 대 보 름 줄 다 리 기 행 사 · 칠 석 · 10 월 초 소 의 날 지 신 제)	도당집	벽돌 기와	영 신 - 초 현 례 - 아 현 례 - 종 현 례 - 소 지 - 송 신	제관		현전 (당제만 거행)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10) 경기도의 굿(p.89)	
	평동 벌말	도당굿	음력 정월 11일	평동사무소 앞 당집	시멘트 기 와를 엮은 1칸 규모	도당굿	주무 조무3명	떡	현전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p.111) 경기도의 굿(p.89)	
팔달구 이의동		도당제		당목·도당						경기도의 굿(p.89)	

14. 시흥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군자동	구준물 마을	군자성황제 매년 2월 (유가돌기) 10월 (신곡맞이)	군자봉 정상 소원당	성황당터 신목	제례의식·부 정풀이·산신 풀이	무당		현전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54,82) 경기도의 굿(p.159) 한국의 마을제당(p.224)	
	성곡리 무들마을	음력 정월15일	승신당	기와집	별신굿	당주	술·백반 백설기 소고기 돼지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26)	
	정주리 오이도동	봄철	성황당	기와집		당산주			한국의 마을제당(p.227)	
	초지리 원당동	음력 정월9일 10월9일 (년2회)	용당	기와집	산불지쇠·도 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별신굿	당주	소머리·과실 술·백설기·쌀 밥		한국의 마을제당(p.228)	
포동	새우개 당제	매년 정월 초순 7월 초순	당 집·당 우물		유교식	제주·집사 축관등 총 5명	돼지·조라술 메 24그릇	현전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82, 67) 시흥군지(p.976-978) 경기도의 굿(p.159)	
	도당굿	매년 정월	당집		巫	무당 화랭이패		소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8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대야동	웃대야리	당제·기우제	매년 정월	소래산 병풍 바위·청룡약수터		儒	북어 막걸리	소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82)	
계수동	안골	장승고사	매년 시월 초순	마을 고인돌	장승·고인돌	儒	선당주·얇은당주·집사·축관 삼색실과·떡·사과·배·감·북어·돼지머리·술	소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82)	
	건지물	도당굿 산고사	매년 10월 3일	도당나무	신목	巫	무당·당주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82)	
과림동	부라위	우물고사	매년 시월 초순	부라위산 터주가리	산신	巫	무당 고사떡·통북어·약수·과일·소고기적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82)	
광석동	나분들	산고사	매년 동짓달	광석산 갈마산		유교식	당주·부당주 소머리·밥 과일·술	소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83)	
	둔대곡	도당굿	10월	당나무 우물	당집 당나무	유교식	무당 소머리·떡 술		한국의 마을제당(p.240) 경기도의 굿(p.159)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83)	
수암면	성포리 성포마을		음력정월5일 칠월 칠석	선왕당	목조2칸	삼신당	당주 술·백반 밥·소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41)	
신천동	용해부리	도당굿 우물고사	매년 7월 1일	마을 우물		무당	조밥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금이동	당제	매년 10월 3일	당나무		유교식	당주	밤·대추·사과·배·소적떡·소머리조라술	현전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2)		
도창동	도당굿	격년 10월 3일	당나무	도당·터주가리	巫	제주	소·쌀·떡	현전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2)		
조 남 동	양달말	산신제	매년 10월 1일	마을당	당나무·장승	儒·巫	당주	소머리·돼지머리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을미마을	도당굿	매년 음력 10월 1일	당산	당나무·장승	儒·巫	당주부부	소·복어·떡조라술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우물고사	매년 음력 7월	마을우물	용왕신	巫		돼지머리떡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방 산 동	고잔	당제	매년 1월 14일	당집	도당·터주가리	儒·巫			소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방골	당제 우물고사	매년 7월 - 우물고사 격년10월초- 당제	우물 당나무	신목·도당·터주가리	儒		소머리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경기도의 굿(p.159)	
물 왕 동	안골	당제	격년 10월 5일	안골 안쪽	신목	儒	당주	소머리·고사떡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월미비석제	당고사	격년 10월 초	마을공터 신당		儒	선당주 2명 앞은당주 2명	소머리·떡 삼색과일·술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논곡동	논줄마을 군웅제	매년 10월 1일	신당 마을우물	당집·우물	儒·巫	당주·축관	소머리 돼지머리	현전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p.83) 경기도의 굿(p.159)	
안현동	당산제	매년 1월 15일	도당나무		유교식		백설기·과일 양조술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능곡동 매골	당제		뒷산 서낭나무		유교식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하중동 관곡마을	당제	매년 1월2일 칠월 칠석	당나무		유교식		1월 2일-떡국 칠석-풍곡·정 안수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하상동 요골	당제	7월	당나무		유교식	당주	정한수	소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화정동 너빌마을	산신제	정월 7월 1일	麻山		유교식	당주	소머리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광석 동	나분들 산고사	매년 동짓달	광석산 갈마산		유교식	당주 부당주	소머리·밥 과일·술	소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둔대곡 도당굿	10월	당나무 우물	당집 당나무	유교식	무당	소머리·떡·술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정왕동 오이도	당제	격년 2월	당산·우물	당집 당나무	유교식 무당	당주 2명	소·술·떡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매화동	도당굿	매년 10월 보름 추수후 7월 보름	당나무	신목·도당 터주가리	유교식 무당		소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p.83)	

15. 안산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부곡동	개별	산신제	음력 10월1일-3일	마을뒷산 곤우봉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산시지(p.524)	개별·벌터·새마을·용기마을이 함께 지냈었음
	새마을	산신제	음력 10월1일-3일	마을뒷산 곤우봉				1986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벌터	산신제	음력 10월1일-3일	마을뒷산 곤우봉				1986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용기 마을	산신제	음력 10월1일-3일	마을뒷산 곤우봉				1986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성포동	계향동	산신제	음력 7월1일	도당산				1981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독주골	도당제	음력 1월15일경	노적봉				1982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성머리	도당제	음력 1월15일경	노적봉				1979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절골	산신제	음력 7월1일	도당산				1981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양상동	아랫버대	정제	음력 7월7일	대동우물	정제터 신목	진설·재배	제관(통장)	소고기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산시지(p.25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양상동 웃버대	정제	음력7월1일	큰우물 옹달물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와 동	뒷골	음력10월3일	광덕산중턱					1987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압실	음력10월3일	광덕산					1987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왜두들기	음력10월길일	마을뒷산					1987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월 피 동	다리피	음력10월1일	도당산					1984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아랫보대	매년 음력7월1일	마을중앙의 대동우물					현전	안산시지(p.524)	
목내동 능안	도당제	음력10월1일	도당산정상					1979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선 부 동	관모산	전제	음력7월7일	대동우물				소멸되었 다가부활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안산시지(p.524)	
	화정2동 너빌마을	산신제	정월 7월길일	마하산 중턱 터	돌로 쌓아 만든 제단	제관3명	정월: 소머리 떡·술 칠월: 소 한마리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p.30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성곡동	무들	갯머리 성황제	음력10월1일	성황당		성황굿	당주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산시지(p.524) 경기도의 굿(p.145)	안말·도란말· 별말등이 함 께 지냄
	별말	성황제	음력10월1일	해봉산정사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말	성황제	음력10월1일	해봉산정사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팔곡2동 셋골마을		산신제	음력10월 초하룻날	팔곡산정사	당집	유교식	제관	돼지머리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314) 안산시지(p.524)	
원시동	범직이	나무제	봄길일	향나무					광복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진말	나무제	봄길일	향나무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대부동	남2리 말부흥 마을	당고사 퐁어제	정월 (선달그믐날 날을 잡음)	당산	당집		당주 2명	밥 조라술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24)	제를 지내기 전 당집을 지 은후 제를 낸 후 헐어버림
	선감2리 탄도	산신제	정월 보름 (3년에 한번)	미륵부리 중턱	컨테이너 박스의 당집	유교식 제 의와 굿	제관·만신	돼지한마리 시루떡 삼색실과 막걸리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17-2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대부동	선감2리 불도	당제	정월 보름	마을 뒷산	당집- 슬레이트 지붕을한 벽돌집	고사를 지 낸후 당산 으로 올라 가 굿을함	당주부부	통닭·식혜 삼색실과 두부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21-322) 경기도의 굿(p.145)	
	선감마을	당고사 당제	정월 시월	당산	슬레이트 의당집	고사	당주	시루떡 쇠고기삶은 것·밥·술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23-324)	대동고사는 지내지 않고 두 집만 고사 를 지내고 있음
풍도동		당제	음력정월 초하루	당산	아 랫 당 (당집) 웃 당 (고 목나무)	윗 당→아 랫 당	당주2명 제관	떡·과일	소멸	안산시지 (p.512-514)	
신길동	능길	도당제	음력 10월3일	뒷산 도당터	터주가리	도 당 굿→ 당제	제관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산시지(p.524) 경기도의 굿(p.145)	
	만해	당제	음력 10월초	봉화재 산정상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산시지(p.524)	
	셋빨	산신제	음력 10월초 길일	뒷산 정상			제관 만신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산시지(p.524) 경기도의 굿(p.145)	
	횃발머리	산신제	음력 10월초 길일	셋빨 뒷산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안산시지(p.52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원 곡 동	땃골	정제 음력 7월1일	대동우물					1980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동산골	산신제	마을뒷산					1980년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양지마을	정제	음력 8월15일	대동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원곡1동 셋뿔마을	도당산 제사	음력10월 초하룻날	마을뒷산	할머니당 할아버지당	유교식제사지낸 후 축원굿을 함	만신 제관	큰당주:소머리 작은당주:시루 막걸리·포·니물	현전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 (p.308)
	능길마을	기우제	마을에 가뭄이 들 때	대동우물 거북바위 목밀		우물고사를 지 내거나 거북바 위 목밀에 불을 지피 기원하기 도 함		현전	안산시지(p.524)	
초 지 동	둔배미		성황당		성황제와 용왕제	무당			경기도의 굿(p.145)	
	주정마을	풍어 기원제	대보름						경기도의 굿(p.145)	
본 오 1 동	딸곡리	부락제	10월	당집					경기도의 굿(p.145)	

16. 안성시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진	비고	
금광면	사흥1리 (석암)	산지사	정월 초삼일	마을 뒤 야산 끝자락 산지당	신목 (향나무)	진설-제비집소지-소년소지	유사2명·제비집 2명	삼색실과·소머리·백설기청수		한국의 산간신앙(p.261)	
	한운리 하동마을	산제사	매년 음력 1월 3일	마을 뒤 국사봉 아래 산제당	시멘트 블록에 슬레이트 지붕	축문-소지	당주·제관 축관 외 3명	소나 돼지의 왼쪽부분	현전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9)	
	사흥리 동막마을	산신제		산신당	신목	상당에서 제관이 禮를 2번함	제관 축관	술·메·소머리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65)	
	삼흥리 하석파마을	산신제	음력 정월 3일	산제당	신목	소머리를 놓고 제관이 축수절 2번절함	제관 축관	술·백반 소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66)	
	상중리 상촌동		음력 정월 길일	삼신당	초가집	술을 붓고 제관 절하고 공이 큰 사람부터 절	당산주2명	술·밤대추·포곶감·통돼지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267)	
	상중리 중촌동 송마을		음력 정월 3일	삼신당	합석2칸	상당-삼신당	삼신당주	술·백반·돼지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69)	
금광면	오산리 입암동 선바위 마을		음력 정월 초삼일	산신당	신목	제물 진설후 독축 재배	제관2명 축관	포·음·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71)	
	오흥리 모산리마을	산제	정월 초삼일	당	초가집	축관이 축낭독 제관이 선제	제관·축관	소머리·삼색과실·포·밥·국·탕		한국의 마을제당(p.27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금광면	한운리 하동		음력 정월2일	산신당	개와집 5평	산신당-천륜당-만륜당-산제당	제관	술·떡·과실 돼지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273)	
	가류리 상가마을		음력 10월1일	산신당	초가집	제대·축문낭독	당주	밤·대추·감 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248)	
고삼면	가류리 신가마을		음력 10월1일	산제당	초가집	제배·축문낭독	당주	밤·대추·감 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250)	
	신창리 창촌마을		음력 10월1일	봉림당	초가집	산신제-당제-동구밖노제	제관·당주	술·소고기 돼지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52)	
공도읍	마정리 구문동		음력 정월중 택일	산신당	기와집	산신당 제사후 정지제 지냄	당산주 제관·축관	술·우족 어적·과일 떡·두부·탕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253)	
	불당리		음력 정월중	산신당	개와집	소지	제관2명	술·떡·과실 소고기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255)	
	승두리 난촌마을		정초 택일	산신당	초가 1칸 이내	당주·축관이 제를 지냄	제관	삼색과일 돼지1두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257)	
	승두리 신촌마을		정초 택일	산신당	기와 1칸 내외	당주·축관	제관	삼색과일 우1두·술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259)	
	용두리 상용두마을		음력 10월 초하루에 택일 밤12시	산신당	초가집	당주·축·소지	당산주	소고기 과실·떡·술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261)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당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공 도 읍	능교리		음력 정월 3일	산제당	양철 2간	제물을 차려 놓고 제관이 절함	제관	삼색과실 돼지고기 떡·술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263)	
	대농리		음력 정월 길일	산제당	초가집	산신에게 절	제관	술·백반 삼색실과			한국의 마을제당(p.275)	
대 덕 면	무릉리 능촌마을	우물고사	음력 정월 15일	정제당	샘	정제만지냄	정제주	술·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276)	
	보동리		음력1월 15일	산신당	신목	산신당- 정제사	당산주	소고기 과실·술			한국의 마을제당(p.277)	
	신령리 누령동	산제사 우물고사	음력 정월 길일	신제당 우물	참나무 돌무더기		당산주 동민 모두 참석	밥·과일·술 돼지고기 떡			한국의 마을제당(p.279)	
	소현리 마루개마을	우물고사	음력 정월15일	대동우물			제관3명	술·소머리 돼지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78)	
	진현리 굴암·용현마 을	우물고사	음력 정월14일	대동우물		큰 우물부터 차례	제관2명	소고기·술			한국의 마을 제당 (p.280)	
	북좌리 뒤재울마을	산신제	음력 정월3일	산제당	기와집	제관이 제단 에 절	제관3명	밥·中頭			한국의 마을제당(p.282)	
보 개 면	가현리 가치레이마을	산신제	음력 10월5일	마을 동북쪽 산중턱		일반제사와 같음	제관	일 반 제 사 와 동일			한국의 마을제당(p.28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보개면	동평동		음력 정월 초하루	효자문	기와집		제관		일반제사와 동일	한국의 마을제당(p.285)
	남풍리 하남동		음력 10월1일 -5일사이	산제당	초가1간 신목	국사당-제석당 -서낭당의순	제관	술·밥·떡		한국의 마을제당(p.295)
삼죽면	율곡리 품곡동 푸무실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마을민 택일	산신당	기와	제관이 흰옷을 입고 지냄	제관 당주		과일·조리술 통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287)
	진촌리 라촌동	산신제	음력 정월 삼일	산신각	1평 신목	재배·산신축 재배·소지	당산주	돼지·백반·과실·술		한국의 마을제당(p.288)
	용월리 월곡동 달골마을	산신제	음력 정월 초이틀	산지당	초가 건평 5평	산지당-산등-산지당	제관3명	술·실과·통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296)
서운면	양촌리	산신제	음력 11월3일	산제당	초가4평		당주·축관 제관		돼지머리·시루떡·술·모빌·잡색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289)
	북산리 두미마을	산신제	음력 정월상순	산제당	천연암석	제단에 제물 차려놓고 제배	제관	메물범벅 대추·밤·감·술		한국의 마을제당(p.290)
서운면	인리 중말마을	산신제	음력12월3일	산제당	초가3평		당주 축관		소머리·시루떡 술·삼색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293)
안성읍	도기1동 도구머리마을	당제	매년 정월 초하루 자시	마을 뒤 동산의 서낭당	남향 슬레이트 지붕	진설-재배-축문	당주·축관 제관·심부름꾼 2명		메 12그릇·술 돼지머리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39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안성읍	아양동 아롱개마을	가을에 아무날 이나 택함	미륵	미륵불	떡 해 놓고 절 농악놀이	동리사람 전원참가	시루떡		한국의 마을제당(p.297)	
양성면	동항리	산신제	음력 정월3일	산신당	기와집	일반제사와 같 음·굿하기도함	제관	술·떡·실과	한국의 마을제당(p.299)	
	이현리	산신제	음력 10월3일	산신당	초가	일반제사와같음	제관	술·소머리 실과	한국의 마을제당(p.299)	
원곡면	금효리	산신제	夜間12시~1시	산신당	초가	일반제사와같음	제당산주	삼석과 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300)	
	내가천리	당제사	음력정월 15일	산제당	초가	당주로 하여금 산신제를 모신 다음 당제는 동 민과 함께 드림	당산주	술·시루·떡 과실 돼지고기	소별	한국의 마을제당(p.301) 경기도의 굿(p.139)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392)
	반재리 주정동	당제사	음력정월	산제당	초가	간 세 번 절 2번 반	당주 지관2명	밥·대추·감 포·쌀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02) 경기도의 굿(p.139)
	원곡면		제주와 당집과 궁합을 보아 시 간을 정함	산신당	소나무 2주	제관이 절 3번 실시	제관	술·떡·과실 우육 또는 돈육		한국의 마을제당(p.304)
일죽면	방초리 주평동마을	산신제	음력 정월 초순 밤11시경	산제당	초가 건평 1간내외	산신당-산제당	주관 제관3명	조리·백반 과실·황우		한국의 마을제당(p.309)
	방초리 오방마을	천(川)제	매년 정월 초삼일	마을 동쪽 죽산도로변 천제당	당집과 제단	진설-축문- 소지	주관 축제관 조라제관	소·백설기 복어·밤 대추	현전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384) 한국의 마을제당(p.30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일 죽 면	주천리 하주천동		음력 정월3일	주천 상당	신목		당주	술·떡 돼지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311)	
	화곡리 대화동	정제	정월중 택일 (2년에 한번)	대동우물	우물	일반제사절차와 같음	제관	술·떡·과실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313)	
죽 산 면	매산리 상구 산마을	산제	매년 음력 9월 9일	죽주산성 내 장군사당·산 신각	3칸	진설-헌작-향노- 봉노-축관	3헌관	소머리 나물류	현전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387)	
	칠장리 극락마을	산제사	매년 음력 10월 15일	칠현산 토골 산제당	목조에 합석지붕	진설-헌작-재배- 독축-헌작-재배- 헌작-재배-소지	공양주 축관 유사 3명	통돼지·밤·대 추·꽃감·복어 3마리·백설기	현전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p.388)	
	칠장리 산직	산제	음력 10월 10일	마을 뒤 칠성산의 산제당	통나무기 둥 슬레이 트지붕	분향-강신재배- 일동참신-초헌- 개반지-소지	삼헌관	생돼지 삼색실과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254)	
	장능리 능북	산제사	매년 음력 10월 2일							경기도의 굿(p.139)	
서 운 면	중동 인리	동제		당집						경기도의 굿(p.139)	

17. 안양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	도당제	음력 10월 초이틀	마을 뒤 관악산줄기 큰골산 방향	돌로 쌓은 옷당·아랫당·정자나무	초헌-아헌-종헌-독축-소지-음복	안당주 바깥당주	시루떡	현전	안양의 역사와 문화 (p.245) 경기도의 굿(p.125)
	평촌동	대동제사		모락산 중턱의 당집						경기도의 굿(p.125)
만안구	석수동	쌍신제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	유유산업 뒤 할아버지산 별장가든 뒤 할머니산	돌탑·산신제단·터줏가리·우물	3번 절-축문	안당주2명 선당주2명	떡12말	현전	안양의 역사와 문화 (p.252) 경기도의 굿(p.125)
	석수1동 삼막골	느티나무제	매년 음력 10월 1일	삼막천 부근 할아버지 당나무 할머니 당나무	신목·우물	삼헌-독축-소지-음복	제관	돼지머리 조라술	현전	안양의 역사와 문화 (p.261)
일동리 수촌마을		음력10월2일	상당	기와 건평 1칸 내외	상당	제관	소머리·떡 삼색·제주			한국의 마을제당(p.243)
호계리	군포마을	군웅제	음력10월1일 오후 5시경	당	초가집 건평 1평	유교식 제사	제관	술·고기 흰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244)
	덕현마을	7월정제	음력 7월1일	마을 중앙 우물		유교식 제사	제관 봉족인	술·과실 흰떡·소1마리		한국의 마을제당(p.245)
신안양리 삼막마을		음력7월1일 10월1일	선왕당	신목	선왕당 그곳에 동시에	당주 축원사	소고기·시루떡·술·과실	현전		

18. 양주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광 적 면	가납1리 가래비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1일	가래비 뒷산 중턱	산제사터	진설-재배-축문	제관·축관 선화주2명	과일·삼색실과 소머리·육탕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p.129)
	효촌1리 회내미마을	산제	음력 9월 3일밤	마을북서쪽 국사봉 4부 능선	산제당	진설-재배-독축 -재배-소지	제관·축관 화주3명	소머리·소적 백설기·조라술 삼색실과	현전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p.130)
	효촌2리 효계동	산제	음력 9월 2일	마을 서쪽 고청산 8부 능선	산제당(조 림식 건물)	진설-춧불-헌작 -재배-독축-재 배-소지	제관·축관 화주2명	조라술·소머리 밤·대추·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p.131)
	효촌2리 거 마을마을	장승제	2년에 한번 음력추석전	마을입구 오른쪽의 장승		진설-헌작-독축 -재배-소지	제관	개·포2마리·조 라술·팥시루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p.132)
남 면	경신리	산신제	11월 초순	월봉산 정상 산신당	임시로 지 은 천막	진설-분향-강신 -헌작-재배-독 축-재배-소지- 음복-고수레	제관·화주 축관·소임 유사	소머리·우족 백설기·통복어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p.134)
	황방리	산신제		원당리사당				소멸	경기도의 곳(p.251)	
	신암1리	산제사	매년 음력 9월 초순	마을 북쪽 감악산아래	산제당 (방 1칸 헛간 1칸)	진설-재배-독축 -재배-소지-음 복-고수레	제관 3명 화주 3명	소머리·배·사 과·밤·통복어 메·백설기	현전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p.135)
백 석 읍	홍죽1리 안골마을	들제사 (우두제사)	매년 음력 7월 1일	마을 앞 들판(앞벌)	진설-재배-독축 -재배-	화주·선화 주·제관 축관	소머리·황계수 탕·백설기 통복어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p.13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백석읍	홍죽1리 홍죽마을	산제	음력 10월 1일	마을 앞 음봉 산 산제터	바위·신목		화주·선화주 제관·축관	소머리·백설 기·통복어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37)	
	홍죽2리 홍죽마을	산제	음력 10월 1일	마을 뒤 월암 산 3부능선	산고사터	재배-독축 -재배-헌 작--재배- 소지	제관·축관· 음식차리는 사람	소머리·배 사과·대추 밤·메 1그릇 팔시루떡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37)	
	홍죽 3리 천죽마을	산제	음력 10월 1일	마을 뒤 월암 산 3부능선 산제당	시멘트에 슬레이트 지붕	진설-헌작 -독축-재 배-소지	상하주·부 하주 2명	우족·영계 통돼지·조라 술·밤·대추 배	현전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38)	
회천읍	회정1리 평촌마을	산신제	매년 음력 정 월 동짓달 초 순이내	마을 서쪽 과 안골 산등성 이 산제사터	제당·바위 ·우물	진설-헌작 -재배-독 축	화주·축관	국수·산자 배·사과·밤 대추·복어 문어·쇠고기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8) 한국의 산간신앙(p.288)	
장흥면	삼하리 매내마을	도당제	음력 9월 9일	노고산 밑 재 라봉 아래	신목	가정의 기 제사와 비 숫	제관·축관 마을대표등 10여명	돼지머리·조 라술·배·감 대추·밤·산자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39)	
	삼상리	도당제(대 동산치성)	격년 홀수해 음력 9월 9일	배울마을 행 주 장씨 소유 의 야산		축문-소지	제관	소머리·소족 진육·생닭 배·사과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2)	
	교현리	산신제	음력 9월 1일 -3일	마을뒤 응달산	신목 (소나무)	대동소지	제관·축관	과일 5가지 떡·쇠고기적 소머리	현전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장 흥 면	울대1리	산신제	음력 3월초-9월초	마을 동쪽 갓 바위 아래 마 을 정상	도당·신목	유교식	화주·축관	팥시루떡·절 편·북어·국 수·소머리 삼색실과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4) 한국의 마을제당(p.323) 한국의 산간신앙(p.324)
		기우제	하지 이후	운경공원 묘지 뒤 용못		유교식		소머리·삼색 실과	20년전 단절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6)
	울대 2리	산신제 (윗산신제· 아랫산신제)		마을 동쪽 태봉 밑 바위				삼색과실·북 어·산적·소 머리	현전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6)
	부 곡 리 장골	산신제	매년 3월과 9월 초하루	마을뒷산 산제당	시멘트 당집	진설-참신-헌 작-독축-소지	화주·제관	소머리·간 천엽·족·백 설기·북어포		한국의 산간신앙 p.295
	부곡리 장천동 안골마을	산신제	음력3월일 9월3일	산신당	초가		제관	떡·소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322)
은 현 면	도하리 항동	산신제	음력9월1일	산제사터			제관 화주2명	술·북어·소 머리·삼색실 과·소채		한국의 마을제당(p.321)
양 주 읍	유양리·	도당굿	음력 3월경	초등학교 뒤 국수당	공터	불사거리·삼거 리·대감놀이·서 낭굿	만신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8) 경기도의 굿(p.251)
		산고사	음력 8월 3일	불곡산 8부능 선 산고사터	신목 산제당	진설-초헌관 아헌관·독축- 종헌관·제배- 소지	제관	조라술·황소 머리1개·은 행·밤·갓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48) 한국의 마을제당(p.32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양주읍	마전리	산신제	음력 7월30일	산신당	초가2간	음복·산제	산신당주	술·백설기·소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325)	
	산북리	산신제	음력 2월초순·10월초순으로 택일함	산신당	초가3간	음복·예단 산제	제관·축관 양화주 2인	통돼지·삼색과일·백설기 소머리·술		한국의 마을제당(p.326)	
	어둔리	산신제	길일 택일	산제당	초가2간	도관-제관·축관-화주가 아래서 지냄	도가·제관 축관·화주	술·백반·소머리·죽·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327)	

19. 양평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강 상 면	병산2리 느리울	산신제	3년에 윤달 든달 2월초순	노지(우물) 작은바위	바위	유교식· 소지	제관 : 생기 복덕이 맞 는 5-6명	통돼지· 산술· 삼 색실과· 떡· 메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 『한강』 (p.475)	
	송학리 학곡마을	산신제	병이 났을 때 수시	서낭당	신목			일반제물	10년전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 (p.341-342) 경기민속지Ⅱ(p.199)	
	화양리 양곡마을		병이 났을 때 수시	서낭당	신목			일반제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 (p.343-344) 경기민속지Ⅱ(p.199)	
	화양리 연곡마을			서낭당	신목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45) 경기민속지Ⅱ(p.199)	
	연양마을		병이 났을 때 수시					일반제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46) 경기민속지Ⅱ(p.199)	
강 하 면	성덕리 성촌마을	산신제 고창제	격년제 음력2월2일	할아버지당· 할머니당· 국 수당· 장승	신목	할아버지당- 할 머니당-국수당- 장승 : 기제사와 동일	도가· 제관	술· 떡· 백반 과실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47) 한국의 산간신앙(p.322) 경기도의 굿(p.234) 경기민속지(p.195)	1-4리를 돌면서 굿
개 군 면	내리 내동	산신제	격년 음력 10월초순	바위밑 산신각	기와집 (1997년 신축)	기제사 축문· 소지	제관 5명 정도	통돼지· 통소	현전	경기민속지Ⅱ(p.200) 한국의 산간신앙(p.32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서 종 면	도장리 국노소마을	산신제	매년 음력 7월 초 자정	당터	제단	상차림-큰절- 축문·낭독	제관 축관	술·백반 돈육·생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54) 경기민속지Ⅱ(p.200)	
	문호리 수대울마을		매년 음력9월8일 자정	산치성터	신목	유교식	제주(당주)	복어·과일 백반 돼지고기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54) 경기민속지Ⅱ(p.200)	
	수능(중)리 노루고개마 울	산치성	음력 7월 초택일	마을뒷산 산치성터	신목· 소나무	진설후재배·축· 소지	당주·반장 이장·새마을 지도자	돼지1마리 과일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61) 경기민속지Ⅱ(p.200)	
	수입리 안마을	산신제	음력 9월 초순택일	산신당	신목	진설·분향·재배 독축·소지	당산주3명 기타개인소지 자	술·떡·백반 돼지고기 과실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63) 경기민속지Ⅱ(p.200) 한국의 산간신앙(p.322)	
서 종 면	수입리외수 입	산신제	음력10월1일 24시	산신당	신목· 소나무	분향·재배·독축 소지	생기복덕제관 도가의 기타 개인소지자	술떡·백반 통돼지머리 과실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경기민속지Ⅱ(p.200)	
	노문리 벽계마을	산치성	매년 음력8월1일	동네앞 봉 우리 빈터		분향·재배·독축 소지	제관·축관·당 주3명	소머리외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65) 경기민속지Ⅱ(p.201)	
양 동 면	석곡2리 새오개	산신제	음력 11월4일18시	제당	소나무 바위	진설·재배·독축 소지·음복	제관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경기민속지Ⅱ(p.201)	
양 서 면	양수리 두돌머리	도당제	음력 9월 초이틀		신목 느티나무	진설·재배·독축 소지·음복	제관·당주·이 장등 20명	소머리·삼 색실과·떡	현전	경기도의 굿(p.236-238)	서낭굿 중 단후 당고 사만 지냄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양서면	용담리 상촌·말암 마을	산제사	음력 10월 택일 5-6시		신목3그루	상당후 하당 제 의 유교식	제관	주·떡·돈육 과실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66) 경기민속지Ⅱ(p.201)	
	부용1리 목왕골	산신제	음력10월중 택일	앞산꼭대기 공터		진설·재배·독축 소지·음복	제관·이장·반 장등5-6명참석	돼지머리 시루떡·메 술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경기민속지Ⅱ(p.201)	
옥천면	신복3리 동막	산신제	음력11월1일	사그막골 입구		유교식제의후 음복	제관·이장외 3-4명	돼지머리 삼색실과 술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경기민속지Ⅱ(p.201)	
용문면	신점리1리	산신제	음력4월7일 (원래가을제 →봄제)	제당· 일주문개울 바위 제단	바위	진설·강신·축문 소지·재배	제관·면장·이 장의50명	멧돼지·삼 색실과·술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덕촌리 운계동	장승제	음력정월3일	마을입구 장승	장승	진설·강신·축문 낭독·재배	제관·축관	백숙개 1마 리·술 삼색과실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68)	
	삼성리	당제		신당	신목				소멸	경기도의 굿(p.232)	
지제면	곡수리 장터마을1		음력7월7일 4시경	성황당	신목	술 부어 놓고 절	동리장	술·백반 쇠고기 각종과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69)	제의 대 상-남성 (김씨)
	곡수리 장터마을2		음력7월7일 4시경	성황당	신목	술 부어 놓고 절	동리장	술·백반 쇠고기 각종과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70)	제의 대 상-남성 (방씨)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지 제 면	일신리 지산동	장승제	3년에1번음력 1월-3월중날 잡아서 2004 년에 예정	장승	신목 장승	진설·재배·독축 소지·음복	제관·이장의반장	술·떡·백반 돈육·과실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71) 경기민속지Ⅱ(p.188)	
	지평리향교	서낭제	음력 2월10일 이전	제당	조립식 판 넬가	진설·분향·강신 음복	제관3명 기관장·이장	돼지머리 술·떡 삼색실과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72) 경기도의 굿(p.232)	
청 운 면	갈운리 물운마을	산치성	수시로 택일 하여	당집	초가집	4배후 진설-향 -4개-소원	대동주민	술·과일·떡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74) 경기민속지Ⅱ(p.202)	
	신론2리 하교론마을	산치성	매년 음력 11월중 택일	당집	초가 한칸	일반 제사와 같음	제관2명	술·포·떡·돼 지머리·향불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77) 경기민속지Ⅱ(p.202)	
	여물리	당치성 산치성 장승고사	매년 음력10월15일	장승(1쌍2 기 50년전 에 없어짐) 앞산성황당	슬레이트 3평	유교식 제의 축·소지·음복	제관·축관 5명정도	돼지머리·불 알·간·대추 밤·과일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경기민속지Ⅱ(p.202)	
	용두1리 용두마을	위령제	매년 음력 6월6일	상당	기와집1칸	일반 제사와 같음	전물군경의 유가 족과 기타사람	삼색과일·술 백반·우육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78) 경기민속지Ⅱ(p.202)	
단 월 면	향소1리 비솔	서낭제 산신제	4년에 1번 음력 11월중	신작로 제당·장승		진설·재배·축 소지·음복	제관·도가·축관 5명	황소1마리 기타 제물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단 월 면	산음1리	산제사	음력10월0일	당목	소나무는 죽고 터만 남아있음	진설·재배·축 소지·음복	제관·추관·도가 집꾼 외 15명	통돼지·과일 메·술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2)	
옥 천 면	용천리	서낭제								경기도의 굿(p.232)	향약이 존속함

20. 여주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대 신 면	율촌2리 배비마을	산신제	음력 5월5일 동트기전 4시	산제당	기와집 전나무 2그루	유교식·축·소지	제관·추관 도가3명	돼지머리 포·주·소간 친엽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II 『한강』 (p.475) 경기민속지 I (p.578)	
	송촌리	장승고사	격년제 음력12월31일0시 새해 새벽까지	마을 가운데 마을입구	장승 오리나무	낮에 장승만들기 0시에는 마을입구 -마을안 제의 진설·배·축문 소지	제주 이장	돼지머리 및 포·삼색 실과·나물 메	현전	경기지방장승·숫대신앙	
	당산리	산신제								경기도의 굿(p.198)	
	상구리	미륵님 모시기·동 제	4월8일 7월7일 1월15일 (1년에3번)	마을뒷산 자락	미륵	진설·기도(축원)	마을주지스 님·마을주 민대부분	떡·밥·냉수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1)	
	초현2리	단오제	음력5월5일 새벽 4시경	뒷산초석 (제단)	평지 소나무	유교식·축·소지· 음복	제관·축관 반장·이장 13명	돼지·술	현전	경기민속지 I (p.571-578)	
금 사 면	이포리	이포도당굿	썩수해 3월 날을 받아서 3일간 계 속됨	삼선당	1칸·슬레 이트로 된 당집	초헌례-축문-아헌 -종헌-축문-소지	만신	소머리 통돼지 각종 주과 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II 『한강』 (p.475) 한국의 산간신앙(p.321) 경기도의 굿(p.199-203)	
	하호리		음력 정월15일 4월8일 7월7일 아침·택일-개인 치성	칠성당	초가	개인별 치성		술·백반 백설기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83)	사찰 행사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가 남 면	연대리	산신제	음력 1월 초3일 새벽2시	산신당	돌무더기 제단	일반제사와 같음	제관·축관	술·백반 과실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80)	
강 천 면	적금리2동	장승고사	음력 정월14일	마을끝 뒤길	소나무로 만든 장승	기제사 소지·음복	제주 동리사람 전 부 참석	삼색실과 피·통복어 밤·대추·곶 감·술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82) 경기민속지(p.207)	
능 서 면	오계2리	산신제	음력정월3일 2년에 한번	마을회관마당 (산불위험으로 마을회관에서 지내기시작)		분향·제배	이장· 산신당주	술·시루떡 돼지고기 삼색실과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84)	
	왕대리 왕터마을	산신제	음력2월2일 오전10시				제관	1床차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85)	
	범도리 번매동마을		일년에 2번	당	개와집	분향축문	문씨가문	술·백반 소고기 과실·떡		한국의 마을제당(387)	
	신지2리		10월	벌터		무당이 축원	무당			경기도의 굿(p.198)	
	백성리	우물제	1월중 택일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1)	
북 내 면	가정리 개정재마을	서낭제	음력정월15 일(일이생길 시는2월4일 로 연기)	선황당	신목 참나무	유교식·독축 소지	당산주·반장 참석하고픈자	떡·밤·백반 술·포·과실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8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북내면	신남리 생이마을	산신제	2년에 1번 동진달 자정	산제당	슬레이트 지붕	일반제사방 식·축문 소지	축관 제관2명	술·떡 돼지고기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390)	
	운촌리 숫말마을		음력 1월14일 7월7일 밤 10시경	강대울 입구	칠성맞이 바위		10명정도	흰무리떡 과일·북어 술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392)	
	석우리	성황제	매년 음력 11월3일						소멸	한국의 산간신앙(p.321)	
여주읍	단현리1동 부라우마을	동제		장승	소나무	장승제 지냄	제관2명	떡 삼색과일	소멸	한국의 민간신앙(p.393)	
	능현리	동제	격년제 음력 1월15일			무당축원				경기도의 굿(p.198)	
점동면	원부리 (원앵이)	마을고사	음력 1월15일 오후 8시		신목	농악대에 의 해서	제관	돼지머리 삼색실과 백설기·북 어포	소멸	한국의 산간신앙(p.321) 경기민속지Ⅱ(p.202)	
홍천면	내사리 사랏마을			산능선			무당		소멸	한국의 산간신앙(p.321)	

21. 연천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청 산 면	궁평리 (청송)	장승제	음력 정월13일	청 송 마 을 옛길목 장 승고개	장승		일반 기제사에 붉은팥·쌀·북 어·실 등 첨가	현전	연천군지(p.765) 연천의 역사와 문화유적(p.165)		
	대전리	성현산 산신제	음력 8월중 길일	성현산 제당(6·25 때소실)	표석	유교식 산제사	돼지머리·오색 실과·어포·한 지·제주	현전	연천군지(p.756)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 학술조사1 「임진강」(p.444)		
	초성1리		음력 9월1일	제당					한국의 산간신앙(p.324)		
연 천 읍	차탄2리	군자 산신제	음력 4월20일	군자산 중턱	철계 구조물	무당굿	서보살	백설기 미나리 조기·밥	현전	연천군지(p.753)·연천의 역사와 문 화유적(p.161)·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3) 한국의 마을제당(p.409) 경기민속지Ⅱ(p.156-161)	
	차탄4리	산신제	음력 10월	햇골마을	당집			20년전 단절	연천군지(p.756)		
	고문2리	산신제	정월 3일	오봉산 자락	제단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3) 한국의 산간신앙(p.324)		
	읍내리	산신제		마을앞산	당			한국전쟁 후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군 남 면	선곡리	기우제	부정기	마을앞 임진강변	바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4)
	옥계1리	산신제	정월	마을동쪽 산정상	신목 (참나무 소나무)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4)
미 산 면	동아리	산신제	격년 음력10월	금굴산	터			1990년대 중반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4)
	마전리	산제						한국전쟁 후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4)
	우정리			당포						경기도의 굿(p.251)
	아이2리	승의전제	3월3일							한국의 산간신앙(p.324)
왕 정 면	동중리	대동굿	부정기	마을회관				1980년대 초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5)
	무등리 가골	산신제 부군굿	음력10월 음력3월	꼬드레봉		제관·축관 유사등5명	삼색실과	한국전쟁 으로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5)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70)
신 서 면	나산리	산신제	음력9월9일	보개산					현전	연천군지(p.765)
	원 당 1 리 배골마을	산신제	3년에 한번 음력10월초	서낭당위 매봉제 꼭대기		제관			소멸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70)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신서면	대광리 산제사	음력3월	마을야산					1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5)	
	도신3리 산제							2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5)	
	도신리		만신집	초가	만신굿	만신	술·떡·백반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407)	
장남면	고량포리 고창굿	3년주기 음력2월	임진강변 부군당	당집				한국전쟁 으로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5) 경기도의 굿(p.251)	
	원당1리 배골 산제사	3년주기 음력10월초	매봉재 정상	터				한국전쟁 으로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5)	
	원당3리 대동굿	추수후	마을중앙	신목				70년대중 반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3) 경기도의 굿(p.251)	
전곡읍	간파리 간패골 산신제	음력3월	마차산자락 간패골	돌무덤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3) 연천군지(p.756)	
	간파리 송산골 산신제	음력3월3일	마치산자락 송산골	신목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3) 연천군지(p.756) 연천의 역사와 문화유적(p.17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전 곡 읍	늘목1리	산신제	음력3월	감악산 곰패당	제단			현전	연천의 역사와 문화유적(p.181)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4)		
	늘목2리	산제	음력3월	감 악 산 곰패당	제단	무당굿	복숭아·개 고기를 제 외한 농사 수확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4) 연천군지(p.760) 연천의 역사와 문화유적(p.181)	현 재 는 개인치성 차원에서 지냄	
	신답리	산치성	정월보름	신답정미 소엿 강 신터	터주가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4)		
	양원리 동편말	산지사	음력 9월초택일	옥녀봉과 마차산의 중간	신목	진 설 → 재 배 → 술3잔 →축문	상화주 당화주 봉조3명	생닭·메 편·두부 무나물	소멸	한국의 산간신앙(p.303)	
백 학 면	두현리	산치성	음력정월	서낭당	신목 돌탑			15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5)	용수무지라 는 우물에서 가우제를 지냈음	
	전동리	산신제	매년 음력 11월20일	마을뒷산 당집	시멘트 제단	진 설 → 재 배 → 독 축 → 재 배 → 소지	제관·축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돼지머리 삼색실과 간·북어 과일·메	1990년대 중반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5) 한국의 산간신앙(p.310)	
	노곡1리	산단제사	양력8월	마을앞산 자락	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백학면	노곡2리	산단제사	음력8월 첫정일	마을뒷산 정상 당집	철제구조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4) 연천의역사와문화유적(p.171)		
		부군제	부정기	마을 회 관 옆		단지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4) 연천의역사와문화유적(p.176)		
	두일1리	대동굿						30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4)		
	백령1·2리	산신제령	음력 10월	제당터					1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5) 연천군지(p.756) 한국의 산간신앙(p.324)	
	백령2리 꽃매마을		음력 8월 정일	산천	신목	신목을 향 하여 축만 읽음	제관 제비 등 30명	술·떡·백반 우육·북어 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403)	
	학곡리	산신제	4-5년마다 추수후				무당			경기도의 굿(p.251)	
	생길· 향길리			성왕당	소나무밑 구덩이					한국의 마을제당(p.405)	
생길리		아침 10시부 터 4시까지	제당	사방3m되는 땅과 돌	보통 제사 와 같음	마을사람들	소머리 떡		한국의 마을제당(p.40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관 인 면	삼율리 보리굴마을		음력 정월 초순 3·4·5일경	산제당	초가집 신목	산 제 당 에 서 제사	하주 세주	과실·주 백반·백병		한국의 마을제당(p.396)	
	이율리 율목동 밤나무굴마을	산신제	3월3일	마을입구 서 쪽에서 남쪽 으로 향하여 제사를 지냄		보통 기제사	마을 중노 인 이상	술·실과·밥 돈육		한국의 마을제당(p.397)	
	중리 신흥골마을 1		매월 1·15일 새벽 6시	칠성전	작은 초가집	밥 올리고 절 3번함	1사람	밥·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398)	
	중리 신흥골마을 2	기우제	해뜰 무렵	시냇물 줄기		키에 물 떠놓 고 동쪽을 향 해 까부르며 비를 오게 해 달라고함	마을사람 모두 참석	없음		한국의 마을제당(p.399)	
	초과리 일구동		1년중 10월 에 신사맛이	제당	초가 1간 신목	신사맛이	무당	떡·밥 삼색실과 돼지고기 무나물		한국의 마을제당(p.400)	

22. 오산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원동	산신제	음력 10월초	당우물						경기도의 굿(p.155)	
내삼미	필봉산신제	9월 그믐날 자정			유교식			현전 1989년 복원	경기도의 굿(p.155)	초기에는 굿 을 한 것으로 추정
금암동 금바위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도덕산 산제당	기와당집	유교식	당주	소머리	현전	경기도의 굿(p.155)	
부산동 웃말마을	당제	음력7월초하루 10월초하루 (1년에 2회)	매암산(땀산) 에 있는 당	슬레이트 지붕	유교식	만신	소마리(7월에는 소고기만 올림) 떡·술·삼색실과	소멸	경기도의 굿 (p.156-158)	새로 당을 축 조하여 당제 를 지낼 예정
갈곶동	당제	음력 10월 초하루	뇌머리산 가운데 당집	기와당집	유교식	주민당주		현전	경기도의 굿(p.155)	
청호2동	당제		골짜기에 당집					소멸	경기도의 굿(p.155)	
탑동	우물고사 산신제	음력 7월1일 10월1일							경기도의 굿(p.155)	
두곡동	산신제	10월1일	뒷산	당제터				현전	경기도의 굿(p.155)	
누읍동	당제 (산신제)	정월 보름			신복				경기도의 굿(p.155)	
양산동	산신제	음력 9월 그믐	큰말-양산봉 작은말-터						경기도의 굿(p.155)	

23. 용인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운학동 내어둔· 외어둔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운학동 돌 무지	산신	고사	제관 (당주와 유사)	소·삼색실 감주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8) 한국의 마을제당(p.446)	거리제 (소멸)
삼 가 동	인근 4개 마을	산신제	음력10월 그믐자정	마을 남쪽 길건너 자 주봉 산제 당	고사	당주 1명 유사 3명	떡·삼색실과 술·돼지머리 두부7모(각 두 부에 말을 한 마리씩 붓으로 직접 그림)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20)	거리제 (소멸)
	2리 공촌마을	산신제	음력 정월 16일 저녁 8시경	마을 서쪽 안산	김침지(도깨 비신)고사	당주 유사 3-4명	시루떡·삼색실 과·포·술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22)	거리제 기우제
	3리	산신제	음력9월그믐	산에 올라 가서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0)	
고림동 금덕정 마을	용왕제	음력10월(3년 에 한번)	마을 뒷 산 우물	우물고사		마을사람 전체가 참여	백설기·쌀·초	30-40년 전 단절	용인의 마을의례(p.26)	
기흥읍	고매3리 구매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마을 북서 쪽 양지말		당주 1명 유사 3명	떡·통밤·통배 사과·통복어 소머리·돼지 술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42) 한국의 마을제당(p.41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기 홍 읍	지곡리 대리울마을	산신제	부정이 없는 초하루	지곡2리 산제 봉의 산제당	제당		제관겸 당주 1명·축관1명 주비7명	삼색실과·북 어20마리·미 역3잎·탕·두 부3모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48) 한국의 산간신앙(p.320)
	지곡리 하동마을1		음력 10월15일	산제당	신목	일반제사와 비슷	제관	일반제사상과 같음. 돼지는 통돼지사용		한국의 마을제당(p.418)
	지곡리 하동마을2			사은정	한식 기와 3간		정을 지키는 책임자			한국의 마을제당(p.419)
	구갈3리 갈곡마을	산신제	매년10월3일	마을 뒤산 정 상부 당집	제당		당주 1인과 물건 나르는 사람 몇명	떡·식혜·메 탕·소·돼지	개발로 소멸위기	용인의 마을의례(p.52)
	고매리 골매골마을		음력10월1일	고매골 산제당	합석	산제당·천성 당·별신굿	당주·제관 축관·소임	삼색실과·술 소고기·떡		한국의 마을제당(p.414) 한국의 산간신앙(p.320) 경기도의 굿(p.175)
	농서1리 웃말마을	산신제·산 제(서로 다 른 의미)	10월 초중 길일	산지봉산	제당		제관·축관· 당주·소임 2명	조라술·돼지머 리 삶은 것·시 루2개·메·삼탕 통복어·나물	1972년경 마을이장이 미신이라 하여 소멸	용인의 마을의례(p.56)
	신갈리 신역동 역말마을1		10월상달	소낭당	초가		제관	삼색실과		한국의 마을제당(p.416)
	신갈리 신역동 역말마을2		10월 상달	산신당	신목		제관	삼색실과 정육		한국의 마을제당(p.41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수지출장소	신봉1리 홍천말	거리제	오월 단오 아침 7시경	큰 느티나무			최고령자 중심으로 7-8명	과일·삶은돼 지고기·인절 미·계피떡·도 라지·고사리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32)	
	성북2리 돌탑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상달 초순	성불마을에서 공정굴로 올라 가는 여우바위 밑의 노적바위 산제당			당주·제관·축 관·소임	소머리·소산 적·삼색실과 배 북어포	대원사에서 대행	용인의 마을의례(p.35) 한국의 산간신앙 (p.320)	
	고기리 손의터마을		음력 9월 초순	산제당	신목	진설·고유	제주·제관 축관	소머리·술 소죽·과자 과일		한국의 마을제당 (p.432)	
	성북리 성서마을		음력 10월 초순	산제사당	초가 건평 1·5칸내외	유교식	제관·축관 소임·당주4명	삼색·술·떡 소나 돼지머리		한국의 마을제당 (p.433)	
	신황리 서황마을		음력 9월 1일	산제당	예전에 신 목 있었음	조사-소제 사-육제사	제관	술·과실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 (p.434)	
	풍덕천리 도월마을		음력 10월 초순	산제당	반칸 초가집	제사	제관	밤·대추·술 우육·돈육 황계·백설기		한국의 마을제당 (p.435)	
백 암 면	백봉2리 백동마을	산제사	음력 9월 30일	북당골	제당(제단 은 따로 있음)	축문-소지- 축문태우고 제배	당주·축관 지관	밤·대추·감 소·통복어·메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 (p.21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백암면	근창1·3리 비두마을 새말마을	산신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마을 북쪽 두무골	2-3평 정 도의 시멘 트 건물		당주·제관 축관	술·탕·삼색실 과·포·돼지머 리·떡		용인의 마을의례 (p.217)	
구성읍	상하2리 상지석마을	산제사	매년 10월초순	산정상에 터주 가리 당집			당주·제관 축관·소임 짐 나르는 사람 몇명	소·돼지·떡 삼탕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66)	
	상하3리 고인돌마을	거리제 (지석제)	10월 초순	마을 입구 도 로변 지석	하지석	유교식	당주·제관	소·백설기·식 혜·술·복어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70)	
	중5리 내촌마을	산신제	음력 7월초순	마을위쪽 낮은 구릉지대 터주 가리		유교식	당주·제관 축관	소·콩시루떡 막걸리·과일 탕·메	택지 개발 이후 소멸	용인의 마을의례(p.72)	
	동백1리 동막마을	산신제	음력 7월 1-2일	마을에서 2킬 로 떨어진 산 정상			제관1-2인 당주1인	돼지머리·탕 배·참외·사과 떡·메	소멸	용인의 마을의례(p.75)	
	동백리 백현마을			성황당						한국의 마을제당 (p.413)	
	마북리 북동마을		음력 7월7석	당	개와집	별신굿	제관	시루떡·술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412)	
모현면	하부곡	산신제	음력 9월 마지막날	마을산			제주·제관	소머리 돼지머리	현전	용인군지(p.944-94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	산신제 음력 10월 중 택일	마을 남쪽의 안산		총 3층의 제단에 동쪽으로 보고 서서 4번 절	초헌관·아헌 관·중헌관 독축관	돼지·삼색실 과·술·메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85) 한국의 마을제당(p.430) 경기민속지Ⅱ(p.259)	
	초부리 초현동	음력 10월	산제당	신목	분향·향신·헌작· 독축·소지·축원· 아헌·삼헌·사시	제관·축관	술 삼색과일		한국의 마을제당 (p.431)	
	능원2리 우명동	산신제 음력 10월 1일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내		분향-초헌-독축- 재배-아헌-재배- 중헌-재배-소헌	당주 1인 제관 1인	돼지·백설기 탕 3그릇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91) 한국의 마을제당 (p.429)	
	동림1리 동림마을	거리제 (정제) 음력 정월 1일	마을의 40년 된 잣나무			제관·이장 총무등 5명 정도	소머리 북어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87)	
포곡면	전대1·3·5·7리 앞고지마을	거리제 정월 보름 오전 10시	은행나무고사			상인번영회 에서 주관	통돼지·삼색 실과·나물·술 춧불2개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98)	1997년 부터 시작
	가실리 동막마을	음력 10월 1일	산신당	초가집	일반제사와 같음	당주·축관 제관	술·떡·우육 실과·북어		한국의 마을제당 (p.462)	
	둔전리 둔전마을		당	초가지붕 에 반평		제관	실과·우육 물		한국의 마을제당 (p.466)	
	신원리 평촌마을1	가을추수 후 고사때	서낭당	신목	시루떡을 놓고 빈다	제관(가정별 로 빔)	떡		한국의 마을제당 (p.46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포 곡 면	신원리 평촌마을2	년중 2차에 걸쳐 기도 (춘추)	굿당	초가집 신목	신굿		술·떡·백반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470)	개인적 치성
	유윤리 소운마을	음력 10월중	철성바위	바위	정한수 떠 놓 고 비는 정도		술·과실·떡		한국의 마을제당 (p.472)	마을 주 부 가 개인적 으로 치성
	삼계1리 두계 울·당굴마을	산제사 (산치성)	10월 초하루	두리봉의 숲속	서 쪽 을 향 하 고 있는 큰 바위	제관·당주 축관·봉주꾼	소·삼색실과 후추·대구포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 (p.100) 한국의 마을제당(p.468) 한국의 산간신앙(p.320)	
	금어1리 어매실마을	거리제 (당제사)	10월 1일	큰느티나무		제관·당주	떡·술잔·나물 세접시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 (p.105) 한국의 마을제당(p.464)	
양 지 면	남명리 용곡마을	가을 (10월15일)	산제당	초가 신목	상당-국시당- 삼신당	당주	술·떡·백반 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421)	
	대대리 한터마을1	음력 10월1일	산치성당	신목	산신당 산차성당	축관·제관 당주	술·소고기·과 실·떡·메밀범 벅		한국의 마을제당 (p.422)	
	대대리 한터마을2	음력 10월1일	산신당	신목	축문을 낭독후 기도	당주·제관 축관	술·과실 황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 (p.423)	
	송문리 정문마을	음력10월-11 월(9일경)	산제당	건평2평		제관 2명			한국의 마을제당 (p.42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양 지 면	양지2리 등촌마을	음력 10월3일	산제당	초가		제관·당주	떡·술 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425)	
	주북리 박성마을	음력 10월15일	당	초가1평	소잡어 제사	당주	술·소고기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426)	
	추계리	길일 택일	산제당	초가 건평 1간 내외	상당	당산주	소고기 술·백편		한국의 마을제당(p.427)	
	평창리	길일 택일	산제당	초가 거평 1간내외	상당	당산주	소고기·술 백편		한국의 마을제당(p.428)	
	평창2리 도창마을	산신제 3년에 한번 10월 초순	마을 앞산 독조봉		분향-재배-헌 작-재배-소지	제관·당주 2명	소머리 떡·메·탕	소멸	용인의 마을의례(p.138) 한국의 마을제당(p.454)	
	송문3리 반정마을	산신제 10월 초순에 길일을 택일	어은산 형제봉 중턱	슬레이트 지 붕의 당집	제단은 동쪽 을 향하고 깊 을 깔아 제물 을 진설	당주·헌관 축관·유사 화부	돼지(날것) 통복어12마리 감12개·밤1되 대추1되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15)	
	주북1리 치루개마을	산신제 2년에 한번 10 월 초하루	마을 뒷산 중 턱 팔각정		분향-재배- 축문	당주·축관 화부	소·과일·술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20)	
	양지4리 등원마을	산신제, (대동치성) 10월 초삼일	마을 뒷산 산 지덕골 중턱 당집		분향-헌작-재 배-축문	당주·제관	소머리·삼색 실과·메·떡 백설기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22)	
	추계1리 외 추계마을	산신제 10월 초순에 택일(초닷새는 넘기지 않음)	마을 뒷산 당집	돌을 쌓아 슬레이트로 지붕	헌작-재배-축 문-소지	당주·제관 축관	소고기·메·삼 색실과·탕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24)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양 지 면	제일리 산매동마을	산 신 제 (산치성)	2년에 한번 10월 에 초순에 택일	산작골 산의 8부능선쯤	슬레이트 지 붕 당집	분향-헌작-제 배-축문	제관·축관	생고기(소 돼지)·복어 삼색실과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27)	
	남곡리 용곡마을	산신제	10월 초순에 택일	무봉산의 당집	슬레이트로 된당집		제관 1인 당주 2인	돼지·떡 삼색실과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29)	
	대대리 한터마을	산신제	매년 9월 그믐 이나 10월 1일 중 택일	굴암산7부능 선쯤	당집이 있 었으나 없 어짐	분향-헌작-제 배-축문	제관·당주 축관	소·삼색실과 떡·조라술복 어·메밀	소멸	용인의 마을의례(p.132) 용인군지(p.946)	
	대대리 아래한터 마을	산신제	2년에 한번 9월 그믐이나 10월 1일 중 택일	마을 뒷산	참나무 주변 바위 2개	분향-헌작-제 배-독축-소지	당주·제관 축관	소·삼색실과 백성기·술	소멸	용인의 마을의례(p.136)	
남 사 면	북1리 당하동마을	산신제 (당고사)	정월 10일-15일	봉황산 정상 의 참나무		당을향해 돼지 머리를 두고 돼자머리 동쪽 에 깔을 둠	제관과 심부 름꾼 2명	통돼지·과일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57) 경기도의 굿(p.175)	
	통삼리 월포동		음력정월15일	산신당	초가	산신당에서 제 지냄	당산주	술·과실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420)	
이 동 면	덕성2리 신창마을	산신제 (산축)	10월말에 택일	산제당	초가	제물을 차려놓 고 축을 읽은 후 절	축관·제관	돼지머리·통 복어·과일·백 설기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71) 한국의 마을제당(p.457)	
	덕성리 삼색동			산제당	사방1칸 당집	제물을 올려놓 고 절	제관·축관	소머리 돼지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45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이 동 면	시미3리 시미곡마을	산신제	10월 초하루	산중턱 당집		절-잔올리고- 적올리고-절- 소지	지관·별지관	대추·간밤·사 과·메·눈이 있는 통복어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74) 한국의 마을제당(p.460)	
	묘봉1리 중리마을	산제사	2년에 한번 10월 초하루	갈미봉	산제당	당주가 절2번 -축관이 술 올리고-	당주·축관	소·대구포	현전	용인의 마을의례(p.179)	기우제
	송전1리 웃말마을	산신제 (호랑이를 위하 는 산제)	부정기적(예 전에는 정월 에 택일)	안어고개 넘 어가는 곳	스레이트 지 붕 산지당	대동소지 안함	제관3-4명	까만 통돼지 복어포·떡·메 탕		용인의 마을의례(p.184)	
	신가리			당나무						경기도의 굿(p.175)	
원 삼 면	맹리 행군마을	산신제	음력10월2일	선향당	신목		당주	석 분		한국의 마을제당(p.451)	
	목신리 신촌동	산신제	음력정월1일	산신당	초가집		당산주	술·떡·과실 돼지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452)	
	좌향리 황골마을	산신제	음력10월중	산신당	기와집	축관이 독축	제관·축관	돼지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453)	
백 암 면	근창리 새말마을		음력10월중	산신당	기와집	제사	산제당주	술·떡·우육 과실·포		한국의 마을제당(p.436)	
	백봉리 백동		음력10월1일	산제당	초가집	축문·소지	당주·제관 축관	우육·과실·술		한국의 마을제당(p.43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백 암 면	옥산리 하산동 아래모리마을	음력 10월1일	산제당	초가집	제만올림	축관·재관 당주	술·우육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439)		
	장평리 평율마을	음력 10월1일	산신당	초가1간 정도	자정제사	당주 지관 2명	삼색실과 돼지제		한국의 마을제당 (p.440)		
	중상리	음력 10월 1일	산제당	초가집	상당	재관	술·떡·백반 우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441)		
	용천리	정월초				도당굿	무당		경기도의 굿(p.175)		
	백암리			당집이 있었음					경기도의 굿(p.175)		
역 삼 동	역말동1	음력10월중 상순	산신당	신목		당주	삼색과실·우 족·적두·흰 떡·술		한국의 마을제당 (p.443)		
	역말동2	음력10월중 상순	상당	초가1간	당상에서 무 당이 별신굿 을 지냄	당주·무당	삼색과실·우 족·적두·흰 떡·술		한국의 마을제당 (p.445)		

24. 의왕시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포일동	새터 서낭제		서울구치소 넘어가는 고갯마루	신목	축원	무당		소멸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48)	마을에 변고가 있어 1997-99년까지 3년간만 지냄	
	양지편 우물고사	정월	마을내 큰우물	우물	제의 음복	제관 마을주민	소	소멸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49)		
	양지뜸 기우제	비가 오지 않아 가물 때	남태령의 망경대 큰바위아래		진 설 · 제 배 · 축문 소지	제관	메 · 명태 · 삼 색실과 · 술	소멸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49)		
내손동	능안마을	능안 산세사	음력시월 초하룻날	모락산의 갈미당집		기제사와 동일	제관 · 소임	떡 · 소죽 삼색실과 조라술	소멸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55)	
학의동	학의1동 학현	산제	음력 10월15일 지나 택일	마을뒤 터	땅에 블록을 박아 제당임을 표시	기제사	당주 · 축관 제물 마련 하는 사람	소머리 · 소죽 삼색실과 다시마탕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61) 한국의 산간신앙(p.319)	일제때 통소 잡아서 제사 모시고 분육
	학의2동	의일산제	음력10월 초하루	도당재	도당	기제사와 동일	제관 · 축관 소임	소죽 · 술 · 삼 색실과 · 떡 소고기산적 북어포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65-467)	일제때 소를 못 잡게 하여 소죽만 올림 · 과거에는 소 잡아 분육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오전동	오매기 산제	음력 시월초승 무렵 택일	마을앞 강산	터 주가리 형 산제당	진설·재배 소지	제관·소임	소머리·소 산적·삼색 실과·식혜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71-473)	
	전주동 산신제	음력 시월초 택일	병풍산	산신바위	진설·헌작 재배·축문	당주내외 축관·제관	소머리·골 탕·식혜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73-475)	
	전주동 단오제	음력 오월 단오날	마을입구등 구나무앞			만신이 주관	떡·소머리 막걸리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76)	만신사망후 중단되었던 것을 마을이 불안하여 부활
이동	어협당제사	음력 시월 초이튿날	홍씨네 산앞 당집		재배·축문	당주·제관 축관	떡·소머리 막걸리	소멸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77) 경기도의 굿(p.171)	
왕곡동	산제·장승제·당집	음력 시월 택일	백운산 자락·남·여장승	기와지붕	유교식 (오 전 에는 장승세움)	유사·사령 소임·분육 하는 집	조리·삼색 실과·소머리·소족·메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87) 경기민속지Ⅱ(p.271-275)	
고천동	도당제 장승제	음력 시월 택일	오봉산 중턱		유교식 (오 전 에는 장승세움)	당주·소임 문서내외	메·조리술 백시루·소 머리·소족 폰·승어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93-495) 경기민속지Ⅱ(p.275-279)	
월 암 동	월암1동 정제	음력 칠월 초하룻날	우물		진설·재배 음복	제관	포·소고기	소멸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501)	
	월암2동 산제 (도당제)	격년제 음력 10월 초순 무렵 택일	마을앞 당집	터주가리 형 당집	유교식·소 지올림	당주·축관 현관 3명	소머리·삼 색실과·포 조롱주	현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97-500) 경기도의 굿(p.171)	

25. 의정부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민락동	본민락마을	산신제 음력10월초 길일(대개 10월3일)	부용산중턱 참나무신목	나무아래 얏트인1칸 건물	밤12시경 제물 지고 올라가 진 설하고 헌작·독 축·소지	제관·축관 육소임	통소·삼색 과일·술·포 시루떡	현전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4)	
	삼귀마을	산신제 음력10월초	마을뒷산중턱 소나무(지금은 오리나무)	산제당	자시부터 진설 하고 유교식	제관인 신 주와 화주	백설기·소 머리·삼색 실과·조라 술	현전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85)	
용현동	어룡마을	산신제 음력10월초	효자봉 마루 턱에 있는 노 송밑→용현사 뒤효제봉		밤 12시경 유교식	제관·화주 축관	소머리·삼 색실과·백 설기·메·술	현전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86)	
고산동	갯바위마을	산신제 산제 도당제 매년 음력 10월초	마을서쪽 산 중턱의 산제당	스레이트 한칸집	자정에 유교식	제관·시주 화주	통돼지·북 어·닭·삼색 실과·메·술 공양미	현전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86)	
호원동	범골마을	산신제 음력2월초 8월초 (년2회)	산신당	양기와	유교식	제관	소고기·시 루떡·밤·호 도·술·조리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 (p.475)	
	다락원마을	산신제 음력8월1일 2월1일 (년2회)	산제당	토담 및 기와집		제관	술·백반·소 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 (p.474)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녹양동	버들개마을	산제 동네제사	음력 10월 3일경	마을산중턱 소나무	소나무옆 공터	유교식	제관·앉은 화주·선화주·축관	소머리 소다리	현전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88)	
	장암동	동먹골 산신제	음력 2월 초 하루와 10월 초하루	수락산 중턱 박대보묘 위 노송		유교식	제관 2명	과일 백설기	현전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87)	
신곡동	새말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새말 뒷산 효자봉 중턱 산신당터	터	새벽1시 동네 세대주 소지	제관·화주 축관	소머리	현전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87)	
	신촌		음력 10월 초순	산제당	양철지붕	일반제사	제관	청주·백반 과실·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473)	

26. 이천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설 성 면	수산리 대죽리	노성산 산제사	음력 정월 초닷새	노성산 당집	기와당집 바위	3일간거행 준비·제사 파제사	제주 축관 화주	통돼지 메·조라술 과실·포·편 나물	현전	이천시지(p.133-137) 한국의 산간신앙(p.323) 경기민속지Ⅱ(p.223-227)	순번에 따라 수산·3리·대죽1·4리에서 주관
	수산리 송계마을		음력 정월 초이레 자정	당집	기와집		제관	과일·포·술 돼지고기 백반		한국의 마을제당(p.478) 경기민속지Ⅱ(p.228)	
	대죽 3·4리	마옥산 산신제	음력10월 첫 번째 인일	연화정사 원경사	산신각 병풍바위 제단	3일간 거행	제관·축관 화주	소머리·메·조 라술·과실·포 편·나물	현전	이천시지(p.134)	불교의식에 따라 산신제를 지냄
	장천3리	찬샘골 우물고사	정월 보름날 전후 길일	참샘우물		유교식제사	제관 2명	소머리 시루떡	현전	이천시지(p.154-155)	장천3리·행죽리 장능리·암산리 금당리주관
	금당리	샘굿	음력 정월대보름	대동우물			제관	쌀·초·북어	현전	경기도의 굿(p.190) 설성면민속조사보고서(p.329)	사물놀이
백 사 면	현방1리	산신제 장승제	음력 정월대 보름·10월대 보름	원적산		유교식 절차 3일간 거행	제관 축관	황소·제·과실 조라술·포·편 나물	소멸	이천시지(p.134) 경기민속지Ⅱ(p.229)	장승제 줄다리기
	내촌리	산제	봄 길일	염주봉	공터 소나무	3배3주 축문	제관·이장 반장 총6명	통돼지 삼색과일 백설기	현전	이천시지(p.134) 경기민속지Ⅱ(p.229)	산제 다음날 마을사물대동놀이 실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백사면	상용리	서낭제	10월상달	마을 당나무	둘메나무 (경기도보 호수)	진설·재 배·축문 소지	이장·노인 회장·면장 반장	고사떡 돼지머리	현전	이천시지(p.150) 경기민속지Ⅱ(p.229)	상황당은 없음
	도립리	산신제	4년에 한 번	원적산 소나무 아래				통돼지·떡 삼색과일	소멸	경기민속지Ⅱ(p.229) 백사면민속조사보고서(p.234)	도립1·2리 합동으로 지냄
율면	고당3리 향매동	산제사	3년에 한 번 씩 음력 정월 대보름	임오산 옹달샘	제단	유교식 3일간	제주 축관	통돼지·메 술·과일·포 편·나물	현전	이천시지(p.134) 경기민속지Ⅱ(p.228) 한국의 산간신앙(p.323)	
	고당1리 (고척·지동)	산신제	1월15일 전후 (2년에 한 번)	임오산 5부 제당터	터	재 배·축 문·소지	주민중제관 선정의 5명 정도	통돼지 1마리	현전	산간신앙	
	오성2리 (자오리)	성황제	음력 정월14일	마을은행 나무	신목	유교식	이장	돼지머리 삼색과일 술·포	현전	이천시지(p.149-151)	개성 왕씨들에 의해서 행해짐
	총곡리	성황제	음력1월14일	성황당		작은 상차림	개인	시루떡·복 어·삼색실 과·백미	소멸	이천시지(p.150) 경기민속지Ⅱ(p.228)	개인적으로 치성
마장면	관2·3·4리	양각산 산신제	격년으로 음 력 정월 초순	양각산	당집·제단 (소단·육단)	유교식	제관·축관 당주·자비 외무	메·황소·조 라술·포·과 실·편·나물	현전	이천시지(p.138-141) 한국의 산간신앙(p.323) 경기도의 굿(p.190) 경기민속지Ⅱ(p.213-222)	‘관동보수회’를 구성 산 신제운영·대 동성책장부 보존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마 장 면	이치리	부락제 (우물고사)	음력 정월 태일	이치2리 입구쪽	자연석		이장 노인회장 제관	돼지머리 삼색과일 백설기·포	현전	이천시지(p.134)	
	오천1리	당고사	격년제 음력 정월 3월·5월중 길일	당나무	은행나무	무속의 형식에 따름	제관·당주	돼지머리 떡·술	현전	이천시지(p.151-152) 경기도의 굿(p.190)	
	오천리	우물고사	정월후	안산 약수 터옆 당집		무속	무당	돼지머리 시루떡·포 삼색과일	현전	이천시지(p.155-156)	
	표교리	노제	모내기전 3월중	노인 회관 앞공터	터	고사후 대동놀이	이장 노인회장	돼지머리·떡 삼색과일·포 동동주	현전	이천시지(p.150) 마장면민속조사보고서 (p.293-294)	
	회억리	대 동 우 물 고사	봄	마을 가운 데 큰우물		산제후 우물고사	축관	돼지머리 삼색과일 시루떡	현전	이천시지(p.156) 마장면민속조사보고서 (p.297)	우물고사 후
신 둔 면	지석리	정 개 산 산 신제	격년제 음력2월1일 밤12시	정개산 중턱	제당	기제사·축 소지	축관·제관 화부2명	황소·감·조 리술·대추 백설기·메	현전	이천시지(p.145-148) 경기도의 굿(p.190) 한국의 산간신앙(p.323)	산제미 한말씩 각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신 둔 면	수남리	응봉산 산제사	3년마다 정월 보름날 전후	응봉산	제단	초혼제 유교식	축관·당주 자비·외무	소머리·메 조라술·과일 포	현전	이천시지(p.134) 신둔면민속조사보고서 (p.288-289)	택일후 금줄
	용면리	당고사	정월 14일	보살당바 위	바위	당고사 굿	무속	시루떡·춧불 삼색실과 복어·백미	현전	이천시지(p.150) 신둔면민속조사보고서 (p.291)	보살당 고사라 고도 하며 10월 상달에 굿
호 법 면	매곡1리 (돈의실)	정제사	음력1월3일 오전9시경	마을공동 우물	우물	재배·축문	제관 집사	까막돼지 우물물	현전	이천시지(p.159-161) 한국의 산간신앙(p.323) 경기도의 굿(p.190)	안말과 바깥말 이 따로 정제사 를 지내고 있음
	후안1리	정제사	정월 대보름내 택일			축문	제관	까막돼지머 리·조라술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23) 경기민속지Ⅱ(p.228) 호법면민속조사보고서 (p.268)	
부 발 읍	산촌리	효양산 산신제 (충무공제의)	음력10월15일 오전7시	효양산	제단 비문	제물진설 신주헌작 재배·당산 축·소지·퇴 식·음복	제관·축관 보조자	통돼지 메·조라술 과일·포·편	현전	이천시지(p.134) 경기민속지Ⅱ(p.228) 한국의 마을제당(p.477)	
	무촌2리 죽당1리 신원2리	서낭제 당고사	음력 정월보름	서낭나무	신목	제수진설 축원	이장 새마을지도 자·청년회장	돼지머리·시 루떡·삼색과 일·막걸리 백미	소멸	이천시지(p.150)	개인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부 발 읍	마암리	정제사	정월 보름	대동우물		축원후 7번 큰절	제관	삼색과일 소머리	소멸	이천시지(p.156-157)	제관 혼자 진행
	수정리	우물고사	정월 초하루 새벽	대동우물		제수진설 축문	제관 봉족관	소고기 대추·밤·곶 감·백설기 약주술	소멸	이천시지(p.157-159)	수정리의 각 마을이 따로 지냄
모 가 면	어농2리	산신제	2월22일	제당	마을초입 호랑이입 형상		제관			경기민속지(p.229) 한국의 산간신앙(p.323)	
	서경리	마국산 산신제	음력정월초순	제단	제단	제물진설 신주헌작 분향제배 강신·초헌 퇴식·음복	헌관 3명 집례 1명 축관 1명 집사 1명	통돼지·백설 기·삼색과일 약과·산자 포	현전	모가면민속조사보고서 (p.271-272)	기우제 겸함
	양평리	우물고사	정월보름 낮10시	마을입구 거북바위 향나무	자연바위	진설·헌주 제배	이장	돼지머리·포 시루떡·삼색 과일·막걸리	현전	모가면민속조사보고서 (p.273-274)	대동놀이 겸함

27. 파주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군 내 면	백련리 통일촌	장승제		마을입구	장승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입진강』 (p.441)	두곳에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 장군 각 1쌍이 있음
	오릿골	산치성	매년 음력 9월14일자정	당제봉의 고들봉		유교식	당주·제관 축과·주비4인	소머리·포 삼색과일 전복	현전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378)	
	등원2 고산골		10월						1991년 소멸	파주군지(p.368)	
	장곡리		9월14일					돼지	현전	파주군지(p.368)	
교 하 읍	상지석2리					장단면 실 향 민 대 동 곳				파주군지(p.368)	
	오도리			산제당		제사지냄				경기도의 곳(p.252)	
파 주 읍	향양1리 서작포	장승제	매년음력 10월	마을어귀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무당 치성	서작포회 회원	돼지머리 팔시루 삼색과일 삼색과자	현전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46)	
	파주1(마산)		10월2일						현전	파주군지(p.366)	
	봉서2리		격년 3월3일							파주군지(p.36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과 평 면	율곡1리	산신제	음력 9월3일	마을 중앙산	바위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2) · 파주군지(p.368) 한국의 산간신앙(p.322)	
	늘노리 개석동	마을고사	추수후	파사서원 우측산모퉁이	신목			한국전쟁 전후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2)	기지촌으로 형성된 마을
	율곡3리	마을고사	양력 3월 첫 일요일	화석정 마을회관	정자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3)	
금 촌 읍	검산1리 만촌동	산치성	매년음력 10월2일	마을의 은봉산 봉우리	광목 차양 치고 차림	대동소지→ 당주 소임 축관 →당주소지 →우마소지	떡 조라술	현전	파주군지(p.381) 한국의 산간신앙(p.235)	
	금촌1 (가나무골)		8월1일					현전	파주군지(p.366)	
	금릉1(서월)		10월1일 (93년부터 8월1일)					현전	파주군지(p.366)	
	금릉2(대창)		10월15일						파주군지(p.366)	
	아동1리곡동	산신제	매년 음력 10월14일 자정	학령산록 산신제당	제당	제관2인 소임4인	내장 뽕 통 돼지·대구포 백미·과일	현전	파주군지(p.366)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5)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법 원 읍	가야2리	도당굿	격년제 추수 후 택일	마을앞 느티나무	터주거리	유가형 산치성	우족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3)	
	응답1 유산동		10월					현전	파주군지(p.367)	
	금곡1 개목동		10월15일						파주군지(p.367)	
	삼방 어둔골	산제사	10월2일	뒷산중턱 소나무	마을 뒷산 중턱 제사터	재배→축문→ 회주4 축관 독축→소지	소머리 붉은수탁	현전	파주군지(p.367) 한국의 산간신앙(p.232) 경기도의 굿(p.252)	
	갈곡리		10월2일자정	삼신산 꼭대기 소나무			7명	통돼지	현전	파주군지(p.368)
	대능리		10월					50년전 소멸	파주군지(p.368)	
	동문1 불기		9월9일자정	산정상 당터	소나무		회주·제관2 운반2	소머리 (돼지머리)	현전	파주군지(p.368)
	동문리			소나무			3인	소머리		파주군지(p.368)
	법원리		10월	소나무			5인	소머리	20년전 소멸	파주군지(p.368)
광 탄 면	용미4리 진지동	진대굿 (대동굿)	10월중 택일	마을 솟대		산치성과 무속형이 혼합된 가을굿 당주	통돼지·시루떡·절편·과일 소고기적	현전	파주군지(p.375)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39) 한국의 마을제당(p.49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광 탄 면	창만리 도마산	음력 10월 1일-3일	산신당 (사라짐)	짚주저리	분향제배 축	제주	술·대추·밤 배·소머리·떡		한국의 마을제당(p.493)	
	신산4·5리	4년마다						현전	파주군지(p.367)	
	방축1리 검진	산치성 매년 음력 10월1일 밤 9시경	뒷산 정상부 근 산치성터	터에 단지 와 제기문 어둠	절→분향→ 술반잔→축 문	당주· 축관	소머리·배 소고기·감 밤·백설기	현전	파주군지(p.380) 한국의 산간신앙(p.228)	
	방축2 (대촌)	도당굿 10월	산의 참나무 아래당터		3일간 산에 서만 지냄		통돼지	1960년대 이후소멸	파주군지(p.367)	
	발랑1 (바랑골)	1월							파주군지(p.367)	
	발랑 셋말동	춘추 수일시 밤1시	堂閣	신목	상당-제사	당주	떡·소머리·술		한국의 마을제당(p.491) 경기도의 굿(p.252)	
문 산 읍	문산2리 하동	도당굿 3년주기 양력 4월 중순 3일간	당집	당 집 안 에 무 신 도 · 당 집 옆에 대 동터주거리	당맞이→본 굿(16거리)	당주3인 소임3인 (문산1-5리 주민)	조라술 소머리 백설기 삼색실과	현전	파주군지(p.370) ·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341) · 경기도3대하천 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1) · 경기민속지Ⅱ(p.153) · 한 국의 마을제당(p.500)	
	내포2리	음력 10월	대동굿	마을중앙				1980년대 중반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 사 I 『임진강』 (p.441)	
	내포4리 안골	노제 격년 음력 7월중 택일	당	신목 (느티나무)	유가형 노제	현관3인	개·조라술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 사 I 『임진강』 (p.441) 파주군지(p.27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문 산 읍	마정2리	대동굿	3-5년주기 추수후	마을주변 4개처 마을회관				부정기전 승(1999 년시행)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1) 파주군지(p.366)	1999년 수 해후 겨울 철에 대동 굿을 함
	마정4 장지말		10월-11월	미루나무		4-5일굿 : 마 을거주 단골무 당	소머리	현전	파주군지(p.366)	
	선유3 선유울		10월-11월 격년1-2월			산제는 1일 대동굿은 3일간	박수무당 5-6인		파주군지(p.366) 경기도의 굿(p.252)	
	이천1리	산치성	음력10월중	마을북쪽 산정	터			한국전 쟁 후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1)	
	이천3리 당리동	산신제	추수후	마을내 당골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1) 파주군지(p.366)	
문 산 읍	당도리	도당제				장단·교하·파 주무당 참여 굿			경기도의 굿(p.252)	
	장산2 신숙		10월중택일					현전	파주군지(p.366)	
	임진리	산신제	음력 10월10일경	마을앞산 임진강 건너 동파리	터	동파리에서 연 기신후후 임진 리에서 동시에 제를 지냄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탄 현 면	갈현 1·2·3리	산제사	음력10월	1리소제당	돌 신목			1990년대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2)	
	금산1·2리	산치성	2년 주기 음력 11월	보현산 중턱	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2) 파주군지(p.366)	
	금산리		3년마다 동 짓달에 백일 밤12시-1시 까지	부락 북서쪽		축문	제관·축관	술·떡 과실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06)	
	금승리 무덕동	대동굿	추수후	마을입구	신목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2)	
	낙하리	도당굿	3년주기 추수후	마을중앙	신목			햇곡식 1968년이 후소멸	파주군지(p.366)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2)	
	대동리	도당굿	3년주기 양력11월	큰골	느티나무	동네만신 불리 3-5일간지냄	만신		파주군지(p.366)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2)	
	문지리	대동굿	부정기	마을경로당	도 당 (신 목소멸)			부정기 전승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2)	3년전 시행
	법흥1리	도당굿	3-4년주기 음력3-4월 또는 10월	마을남쪽 약산	터			1990년대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탄 현 면	성동리 큰말	도당제	봄(음력2월) 가을 (음력10월)	마을 뒷 산 아래쪽 평 평한 도당제		메→→산신맛 이→칠성맛이 →천존맛이	당주 통돼지·소머 리·우족·과 일·팥시루	소멸	파주군지(p.386)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2)		
	성동 당너머		봄(4월8일경)	예전에 당집	화상·석마 2개	뱃사람위주			파주군지(p.366)		
	성동리 요풍동	본향제	음력 2월1일	마을뒷산 본향	터	산치성 도당 곳의 결합형	당주·소임	복어·초 종이	소멸	파주군지(p.387)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2)	
	성동 덜무니	서낭제	가을						파주군지(p.366)		
적 성 면	가월리	마을고사	정월 대보름경	마을안 성황당	신목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1)	1990년 초 중 단 되 었 다가 최근 다시 시행	
	객현2리	산신제	음력9월9일	마을뒷산	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1)		
	구을1리	산신제	가을	마을주둔 군부대 내 부	신목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1)	군 부 대 와 공 동 으 로 산 신 제 를 지 념	
	두지리	산신제	음력 9월9일	마을뒷산	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 (p.44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적성면	석현1·2리	산치성	음력10월1일	마을뒷산 국사봉	신목터 (소나무 느릅나무)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1)	소나무는 소 멸, 느릅나무 는 도둑맞음
	장현리		봄							파주군지(p.368)	
	설마리		10월		벗나무					파주군지(p.387)	
	어유지리	산천제	음력3월1일	마을야산 중턱 산제당터		유가형 산천제	제관·축관	소머리 날것	현전	파주군지(p.382)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2) 한국의 산간신앙(p.322)	
		부군굿	부정기적 (주로 봄)	산천제 제당터		호사굿			소멸	파주군지(p.382)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2)	
	울포리	도당굿	음력10월중	마을입구	신목 (참나무)				1980년대 이전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2)	
	적암리	산신제	음력10월중	마을앞산	바위				1990년대 이전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2)	
	주월리	도당굿	3년 주기 추수후	마을서쪽 국유림암	신목 (상수리 나무)				한국전쟁 직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2)	개인치성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문 하 면	문하리 동편동 동편마을		연초 길일 택합(2년1회)	도당	신목	참배-분향 진설-축독- 배례	초헌·아헌 중헌·당주	술·과실·떡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494)	
	오도리 당현동 당현마을		음력10월중 택일	상당	신목	상당에 고사	당주1명	떡·과실·술		한국의 마을제당(p.495)	
문 하 면	오도리 대촌동 대촌마을		음력 10월중 택일	대촌당	신목	진설-분향- 축독-재배	대축1명 당주	떡·적·과일 술		한국의 마을제당(p.496)	
월 통 면	도내리 내동1		음력8월14일 10월9일	당	개와집		2명	술·백반·떡 과실·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497)	
	도내리 내동2		음력5월10일 정월12일	당	개와집		1명	술·떡·과실 소고기·백반		한국의 마을제당(p.498)	
임 진 면	당동리 그리동 당굴마을		음력2-3월경 3년에 1회	부락 북쪽 뒷산정	신목 사변 후 소실	음복	제관	단술·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499)	
주 내 면	황루리 그리동 붉은밭마을		3월3짓날	도당	신목	음복	제관	밤·대추·떡 꽃감·소머리 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501)	
천 현 면	금곡1리 장승거리마을		음력 10월초정일	산신제단	신목	일반제와 같음	3-5명	술·떡·소머리 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502)	
	갈곡리 안철울마을		음력 10월1일	산신사당	초가	진설·독축· 축·소각	제관	술·떡·사과 배·대추·통돼 지·백반		한국의 마을제당(p.50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천 현 면	동문리 서지동		음력9월9일	산제단		분향·배례 헌작·축문 배례 합저 배례 분축	제관3명	술·떡·과실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04)	
	법원리 삼묘동 안골마을	산신제	음력10월정일 택일	당	신목	참사 독축	제관·축관	술·삼색과실 소고기·편		한국의 마을제당(p.505)	

28. 평택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평 성 읍	노양리 계양마을		매년 정월에 택일	산신당	2년전 허물어짐		만신이 주관	소고기·북어포 시루떡·막걸리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p.376) 한국의 마을제당(p.535)	
	노양리 노산마을		정월보름 8-9시경	각시당	3칸규모의 붉은 기와 집 내부에 환을 모심	술-제배- 소지	각시당 옆 에 사는 기현씨	팔시루떡·삼색 실과·소고기적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p.376) 한국의 마을제당(p.536)	
	갈곶리	성황당제	음력 10월 초하루 밤 11시경			강신→분향 →배례→헌 작→고축→ 소지	제관	소머리·삼색실 과·떡·밥	현전	평택시지(p.1114-1115)	
	대추리	당제	10월3일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1)	
	석봉리 거문돌마을		음력 10월14일	대흥당	초가집		당주·소림 2명	떡·과일·술		한국의 마을제당(p.537)	
고 덕 면	당현1리	당산제 산신제	매년 7월 초 순에 택일· 칠석전후	당집	1칸 시멘트집	술·독축· 대동소지	제관·측관	흰무리떡 세되 삼색실과·막걸 리·소고기적	현전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p.380) 평택시지(p.1115)	
	두릉2리 계루지	당제	매년 정월 7월초 3일			상신→분향 →배례→헌 작→고축→ 소지	제관	소머리(정월) 돼지머리(7월) 삼색실과·떡 조라술	현전	평택시지(p.1115-111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오성면	당거리		매월 동지달 택일	당산	엄나무 아카시아숲		소·술·흰시루 팔시루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3)	
	길음리	당고사	매년 음력 정월	당집	붉은 벽돌로 지은 한 칸 규모의 새집		흰무리떡 세되 소죽	소멸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4)	
	교포리 원교포마을		음력 정월 초 5일	당집	초가	일반제사	제관·제주 이장	술·과실·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11)	
	금곡리 원금곡동 쇠누리마을		음력 10월초	산신당	초가집	일반제사	당주·제관 축관	술·떡·실과우유 돈육	한국의 마을제당(p.513)	
	금곡리 임동 숲마을	산신제	年末 不淨없는날	산신당	기와집	당산주	술·떡·우유·돈 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514)	
	당거리		음력 정월 초	당	초가집	당-소제지로 기원-정제	제관·제주	술·떡·우유·과 실·복어·천엽	한국의 마을제당(p.515)	
	숙성리 신대리		음력 정월 초삼일	서낭당	초가집		당주3명	술·과실·주	한국의 마을제당(p.517)	
	신리 삼궁원		10월 중순	삼궁원당	초가3평		당주	제과실·주	한국의 마을제당(p.518)	
	안중리		음력 10월 오후6시	상당	기와	풍악을 울리고 제사 지냄	당주·제관	술·편·과일·우 유·돈육	한국의 마을제당(p.520)	
	안화리 원안화마을		음력 정월 초순	안화리당	기와2평	상당-국시당- 삼신당	당주	술·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521)	
용성리 운창동		음력 7월1일	산신당	초가집	일반제사	제관	술·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52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진 위 면	봉남3리	당고사	매년 10월 택일	마을뒷산 우 측 산정부근 봉남당집	'ㄱ'자 두칸 집규모	유교식	제관·축관 무당초청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77) 경기도의 굿(p.139)	
	동천리		음력 10월1일-2일 (양일간 선택)	산신제당	초가집	유교식	축관	삼색·술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524)	
	황남리		음력10월중 초순내 택일	신신제당	기와 건평2 칸		제관	소머리·술 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525)	
포 승 면	만호5리	당고사	매년 정월 14일	마을 뒷산 당집	시멘트로 지 은 한칸집		당주와 일 불 사람	소머리·소족 팔시루	8년전 소멸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6) 경기도의 굿(p.139)
	원정면 원정리	당제	음력 7월3일-4일	원정당	사각형(2평)	일반적인 제순	축관·제관	떡·약주·닭 과일 돼지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542) 경기도의 굿(p.139)
	원정리 곡교마을		음력 9월9일	성황당	토담집	축제	제관	떡·고기·술		한국의 마을제당(p.543)
	당두리	당제	음력 정월·7월	당집						경기도의 굿(p.139)
	방림3리 하전	당제	10월(격년)		신목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1)
	홍원2리 마장	서낭제	7월15일		신목					한국의 산간신앙(p.32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청 북 면	삼계리 원삼계마을	음력10월1일 이나 2일경	삼계당	초가 한칸	절·기원·굿	무녀	술·떡·복어 소고기·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529)	
	어연면 어연마을	당산제 음력10월		신목	상당-국시당- 삼신당	당사관	술·떡·백반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30)	
	어연리 황곡마을	당산제 음력10월		신목	상당-국시당- 삼신당	당사관	술·백반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31) 한국의 산간신앙(p.321)	
	옥길면 옥길마을	별신굿 음력10월중순	산신당	초가집		제관	술·떡·백반 소고기·실과		한국의 마을제당(p.532)	
	율북리 밤디마을	당산제 산신하강일	율북당			당산관	술·떡·백반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33)	
	현곡리 원현곡동 가마을		음력7월1일	산신당	초가집	산신당-하당	제관2명	술·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34)
서정동 갈평마을	당제	매년 음력 9월-10월 중 택일	마을 앞동산 위		강신→분향→ 헌작→고축→ 송신→소지	제관	소머리·삼색 실과·백설기 조라술	현전	평택시지(p.1116)	
이충동 동령마을	용왕제	음력 정월 첫 용날	마을 중앙	우물	영신례→헌작 →고축→소지	당주	소머리·밤 꽃감·포 대추·식혜 백설기	현전	평택시지(p.1116-111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송북동 동막마을	정제 거리제	정월 첫 용날	마을입구 느티나무 우물 2곳		강신-분향-헌 작-배례-송신 -소지			현전	평택시지(p.1118)		
현 덕 면	장수리	매년 음력 10월 1일 밤12시	마을 우측 야산 당숲의 당집	시멘트 벽 에 기와를 인 1칸 집	당밖에서 잔 울리고 절하 고 당안에서 술 한잔, 절 한번-소지	당주와 일 할 사람	과일·통복어3 마리·문어발 돼지고기·황계 수탉·소고기	현전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87) 경기민속지 I (p.594-598)		
	권관리	음력10월10일	성당	신목	기도	제관	술·포·과일·떡		한국의 마을제당(p.544)		
	기산리 수산동	길일 택합	산성당	초가집		제관	술·과일·포		한국의 마을제당(p.545)		
	대안리 鵬津동	음력 9월상순	산신당	초가	소지 축원	제관·당주 축관	술·떡·백반·소 머리·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547)		
	두매리	서낭제	음력10월1일	선황당	개와·신목		제주·당주	술·떡·우유·돈 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549)	
	화양리 당현마을	동짓달	상당	기둥4개 초가지붕	초헌·아헌·삼 헌을 올림	제관	술·과일·북어 돼지		한국의 마을제당(p.550)		
	황산리 안중마을	정월에 택일	일월당	초가집			제관(이장)	술·포·실과 식혜		한국의 마을제당(p.551)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청 북 면	광승리 광승동	음력 7월중 길일	광승당	초가집	제사올림	당산주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26)	
	이계리 성골마을	음력 10월 중순경	산신당	초가집	별신굿	제관	술·백반·떡·우 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527)	
	삼계리 용포마을	음력 10월3일	금선당	초가집	저녁부터 조 라-제사를 지낸다	당주2명	술·떡·우육·삼 색과·포·적		한국의 마을제당(p.528)	
유 천 동	원버드내 마을	우물고사	우물가				소머리 삼색실과 시루떡·술·포	현전	평택시지(p.1118)	
송 탄 동	도일동 상리	매년 음력 10월중 택일	도일동 안골 덕암산 중턱	당제	강신→헌작 →분향→고 축→소지			현전	평택시지(p.1117)	
	칠원리 수촌동	정제	음력 정월 초하루	通伏川		제관·축관	술·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08)	
	칠원리		음력 10월 제 관의 나이에 의한 육갑을 보아서 정함	당	초가집	山神祭-淨 祭-堂祭	제관·축관	술·백반·소고 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509)	
유천동 황용마을	우물고사	정월 첫째 용의 날	우물가			제관	소고기·시루떡 삼색실과·술 포	현전	평택시지(p.111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합 정 동	배비마을	당제	정월 14일 자정	마을뒷산 당집		산신제를 지낸 후 대동우물 고사	제관	통돼지 쌀밥·과 청수·주·포	소멸	평택시지(p.1119-1120)	
	조개터	당제	정월 초하루 자시	매봉산 동쪽 중턱	신수3그루 당집	지신제→산신 제→대동우물 고사	제관 축관	생돼지1마리 삼색실과·포 탕·술	소멸	평택시지(p.1120)	
평 택 동	세고교 삼동 은실마을		음력2월3일	산제당	기와집	진설	당산주·축관	주과·떡 돈육		한국의 마을제당(539)	
	합정삼리 통 미마을		음력정월 길일택함	상당	초가집	상당·정제	당제주·축관	술·떡 삼색과실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540)	
	한정이리 조 가터마을		음력 정월초 길일 택함	산신당	초가집	정제-제당에서 지냄	제관	돼지머리 떡·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541)	
비 전 1 동	월곡동 귀골마을	서낭제		서낭당			무당	돼지머리·삼 색실가·시루 떡·술·포	소멸	평택시지(p.1121)	
	자란마을	동신제	매년 정월보름 오시	재랭이 마을 고갯마루	은행나무	정례→강신→ 독축→헌작→ 소지→철상→ 음복→여흥	제주·축관 집례	소머리·시루떡 우족·밤·꽃감 대추·과일	소멸되었 다가 근래 에 부활	평택시지 (p.1121-1123) 경기도의 굿(p.139)	
비 전 2 동	재랭이	당제		자라산 산마 루 서낭당			제관	시루 팔떡·소 머리·삼색실 과·술·포	현전	평택시지(p.1123)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비전 2 동	소사동 소사마을	당제	정월 14일 자시	마을산 당집	참나무	제당 앞에서 제를 지낸후 80m떨어 져있는 미륵불에 헌작	제관·제주	소머리·우족 삼색실과·포 술		평택시지(p.1123-1124)
	용이동 현촌마을	당제	마을회의에 따라 보름안 제 이념	마을 산 당집		신설·분향·강신 헌작·독축·소지	제관·제주	시루떡·삼색 실과·술·포	소멸	평택시지(p.1124)
	죽백동 방아다리	산신제	음력 선달 그믐 자시	마을 뒷산 당집	참나무 신수 당집터	정례·분향·강신 초헌·독축·소지	제관·제주 축관	시루떡·삼색 실과·적·포	소멸	평택시지(p.1125)
지 제 동		당제		당집 있었음					경기도의 굿(p.139)	
안 중 읍	덕우리	산신제	음력 7월1일	산제터						한국의 산간신앙(p.321)
서 탄 면	사리	산신제	음력 10월10일		신목					한국의 산간신앙(p.321)
세 교 동	잔다리	서낭제	정월 초하루 새벽	마을 뒷산 서낭당	스레트지 붓 벽돌집	유교식	제관·축관 화주			평택시지(p.1127-112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동삭동 상서제 마을	당제	선달 그믐 음력 유월그믐 자시	마을 당집		진설·분향·강 진·헌작·대동 소지	제관·축관 제주	검은돼지·시루떡 삼색실과·포·술	현전	평택시지(p.1125-1126)	
신대동 고잔마을	우물고사	정월보름	대동우물		진설·강신·헌 작·독축·대동 소지	제관·축관	소머리·삼색실과 포·시루떡·술	소멸	평택시지(p.1126)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	정월 14일 자시	마을 산중턱 서낭당			제관	소머리·술·삼색실 과·시루떡		평택시지(p.1127)	

29. 포천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관 인 면	냉정1리 산신제	음력9월9일	마을뒷산 서낭당	신목 (소나무)	일반기제 축·소지	제관·이장 반장·동민	돼지머리 일반제사 용진설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임진강』(p.446)	종합학술조사 I
	사정리 산제사	가을(4개반 중 3반은 격 년 4반은 매 년 음력 10 월중 택일)	서낭당	신목 (참나무)	진설·기원	스님주제 제관·이장	통돼지·포 과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임진강』(p.446)	종합학술조사 I
	삼율리 보릿골 산제	정월초 2일 혹은3일	고남산	당	진설후 절 올리고 소 지올림	제관·이장· 반장	백설기 과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임진강』(p.446)	종합학술조사 I
	삼율리 밤나무골 산신제	음력3월3일	마을입구	터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임진강』(p.446)	종합학술조사 I
	중1리 신흥동 산신제	음력1월3일	지장산 정상	산신당 (움막형태 의 흙집) 신목	진설→제 배→축문 →소지	화주 부화주	삼색실과 장담·북어 포·생두부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임진강』(p.446)·포천군의 역사 와 문화유적(p.352)·경기도의 굿 (p.252)·한국의 산간신앙(경기·강 원편)(p.320)	당집은 10 여년 전에 신축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관 내 면	중2리	산제사							2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6)	
	중3리 상삼	산제사	음력 1월 초순 택일	마을 정자터	터	진설·재배·축 문·소지	제관·이장 마을에서 희망자 전원	개1마리·술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6)	
군 내 면	구읍1리	산제사	음력 10월 초순 택일	반월산 정상부	신목	진설·재배·축 문·소지	6명	소머리·술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명산리	산신제	음력 11월 3일	마을뒷산	신목	분향→재배→ 강신→헌작→ 독축→제관의 절→대동소지 →화주소지	제관 화주	소·삼색실 과·백설기 메·정화수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한국의 산간신앙(p.281)	
	상성북리	산천제사	음력 9월 14일	마을뒷산 계곡산제 도랑		분향·재배·강 신·헌작·독축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소머리·소 고기·술	현전	포천군지(p.145) 한국의 마을제당(p.557)	
	직두3리	산신제		마을뒷산	터				2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좌의3리	산치성	음력 1월 15일 10월		신목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한국의 마을제당(p.560)	
	하성북 3,4리	산치성	3년주기 음력10월	화봉산 중턱	신목				2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용정1리	산신제	음력 10월 초순	마을뒷산	신목 (벚나무)	진설·재배·축 문·소지	제관 및 5명	돼지고기 밥·떡·과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당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군 내 면	용정2리	산치성	음력9월9일	마을뒷산	신목	진설·재배·축문·소지	제관	술·과일·우육백반·백병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포천군지(p.145) 한국의 마을제당(p.558)	
	유교1리	대동굿	봄	마을뒤 편도당	신목	제관	굿으로 1박2일 주야로 실시	술·떡 소머리 우족	3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7) 포천군지(145) 한국의 마을제당(p.559)	
일 동 면	사적2·3리	천제사	매년2월초와 8월초	마을 앞산 아래	제당터	진설→분향→재배→헌작	제관·축관 역부	돼지·복어 삼색실과 복어·메·술	현전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6)	
	아곡리 후산광평산		음력8월말이 나9월초	광평산 기슭		산 신 에 계 제사	제관	술·떡·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601)	
소 흘 읍	고모리 셋터마을	산신제	음력8월1일	동쪽산 산제터	제단	진설·분향 재배·축	제관·화부 이장님 대표로	삼색실과 술·백병·소고기	현전	포천군지(p.147) 한국의 마을제당(p.579)	
	송우리 추산동	산신제	음력10월중	서쪽 신사당	제 단 · 당 집(초가)		제관	삼색실과·술 백병·돼지고기	소멸	포천군지(p.147) 한국의 마을제당(p.580)	
	이가팔리 대촌마을	산신제	음력8월1일	남쪽향적 산 삼신당			제관	삼색과·술·백병 소고기	현전	포천군지(p.147) 한국의 마을제당(p.581)	
	무림2리 내누	산신제	음력 8월1-5일	뒷산	신목 (소나무)	진설·재배 축문	제 관 의 이 장 반장	소머리·메·포 백설기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19)	
	무림1리 중말	산신제	8월초	뒷산	신목	진설·재배 축문	외수명제관	소머리·과일·메 백설기	현전	한국의 산간신앙(p.31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소 흘 읍	이동교3리 무란	장승제	음력7월중	마을입구	장승		제관	삼색과일·술 백병·소고기	현전	
	무봉1·3리 충목단	산신제	음력8월2일	향적산	제단		제관	삼색과일·술 백병·소고기	현전	
	무봉2리	산신제	음력2월8일	향적산	제단		제관	삼색과일·술 백병·소고기	현전	
신 북 면	가채2리	산제사	음력10월1일	덕령산	터 (돌로 표시)	진설·축문 소지	하주·축관 일꾼3명·이 장·반장	소 1마리·시루 떡 1말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p.447) 한국의 마을제당(p.582)
	계류2리	산신제	부정기 이른 봄	마을야산	터	진설·축문	제관	소 1마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p.447) 마을에 우 환이 있을 때 지냄
	금동1·2리	산제	부정기 마을에 우환 이 있을 때	마을내부	신목 (은행나무 2본)		제관	소고기·주·밥 떡·삼색과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p.447) 한국의 산간신앙(p.319) 1·2 리 가 함께 지냄
	기지1리 유촌	산치성	음력9월초	마을 뒤 천주산	터	진설→재배 →축문→소 지	제관·축관 화주	백설기·복어 삼색실과 조라술·소머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p.447)
	기지2리	산신제	음력8월그믐	치성골 바위밑	바위	진설·재배 축문·소지	제관·축관 이장·화주 일꾼	통소·술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 조사 I 『임진강』(p.44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신북면	덕둔2리		부정기	마을내부	돌탑 3기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신평1리	산신제	음력 9월15일	덕룡산	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신평2리	산치성	음력 8월초하루	마을뒷산	터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심곡2리	산제사 (육산치성 소산치성)	음력3월3일 음력9월9일	안장골바위 저수지위 당집	바위·스레트 당 집	진설·재배 축문·소지	제관7-8명	안장골-소머리·포·주·저수지-매·과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포천군지(p.147) 한국의 마을제당(p.584)
포천읍	동교1리	산신제	음력8월초	마을 동쪽산	터·제단	진설·재배 축문·소지	5명	소머리·포·술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6)
	동교3리	산제사	동짓달초	마을뒷산	터·제단	진설·재배 축문·소지	4명	소머리·밤·대추·약과·감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선단1리	산치성	봄	왕방산(대진대학교내)	신목(소나무)				4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포천읍	신읍4리	치성	음력2월초	마을회관 위 터	터	진설·재배 축문·소지	제관·축관 집사 등 5명	통개·술 삼색실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어룡1리	산제사	음력10월	마을뒷산	터				1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자작 1·2리	산신제	음력10월	왕방산 중턱	터·바위				30여년전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7)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포천읍	설운리 오곡·사현 마을	산신제	음력9월1일	앞산 삼거리터	터	축문·삼배후 축문	제관의 수명	우두·백설기 포·주	현 전 (5년 정도 중단 후제 실시)	포천군지(p.150) 한국의 마을제당(p.608)	
	설운2리 해룡마을	산제사 탑고사	음력9월15일		신목· 돌무덤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19)	
가산면	금현2리 궁촌동	산치성	음력9월초	죽엽산 입구	터 신목 (жат나무)	일반제와 같음 소지올림	제관2명	밤·대추·복어 감·소머리	현 전	포천군지(p.144) 한국의 마을제당(p.552)	
	금현리 죽곡동	산신제	음력9월초순	부락동쪽 대곡산 정 서향	신목 (소나무) 제단	진설·축문	제관·축관 소임 3명	담근·술·실과 소머리나 돼지 머리	현 전	포천군지(p.144) 한국의 마을제당(p.553)	
	우금리 괴영동	산신제	3월중순	부락북관 우물옆	돌무더기	고축·재배	제관	술·백병·실과 돼지고기	소멸	포천군지(p.144) 한국의 마을제당(p.554)	
	정교리 정교동	산신제	음력10월초	부락뒷산	신목 (참나무) 제단	유교식동계	제관 축관	술·소고기·실과 백병·계적	현 전	포천군지(p.144) 한국의 산간신앙(p.319) 한국의 마을제당(p.555)	
	정교리 용화동	산신제	음력9월초순	마을뒷산	신목 (소나무) 제단	제수·제수·진설 제수·분향·재배 강신재배·전작 독축·재배	제관	감주·소고기 실과·백병	현 전	포천군지(p.144) 한국의 마을제당(p.556)	
내촌면	내리 1,2,3,4리	산치성	음력7월1일	부락북 동쪽	괴목 제단	진설·절·축문 소지	제관및 마을 책임자 10명	소머리·술·떡	현 전	포천군지(p.145) 한국의 마을제당(p.56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내촌면	내리 1·2·3·4리	산치성	음력8월1일	뒷산	노송		제관	소머리·백설기 술·다래·머루 삼색실과	현전	포천군지(p.145) 한국의 마을제당(p.564)	
	마명리 진목정	산신제	음력2월	진목정 서쪽	산에 둘러 쌓여 있음	배례 축문낭독	제관	백반·백병 실과	현전	포천군지(p.145) 한국의 마을제당(p.565)	
	마명리 원마명마을	산신제	음력7월13일	부락북쪽	노송으로 둘러 싸인 제단	배례 축문낭독	제배	백반·백병 실과·우유	현전	포천군지(p.145) 한국의 마을제당(p.567)	
	원명덕동	산신제	음력3월초순 음력9월초순	서산 산록	초가 1칸내외	산신제 장풍헌제	제관	우유·병·반 과·주	현전	포천군지(p.146) 한국의 마을제당(p.569)	
	소학리 (2·3리) 효죽동	산치성	음력 8월-9월	남방 산등성이	신목	분향·재배 축낭동	제관	술·백반·삼색 실과·백병·돼 지고기	현전	포천군지(p.146) 한국의 마을제당(p.570)	
	소학1리	산제사	음력7월1일	남쪽산정	신목 (느티나무)	축문낭동 배례	제관	돼지다리 머리·백병·백 반·삼색실과	현전	포천군지(p.146) 한국의 마을제당(p.571)	
	신팔리 청담마을	산제사	음력8월중	마을서편	신목 제단	보통제법 따라	제관	술·백반·백병 돼지고기·실과	현전	포천군지(p.146) 한국의 마을제당(p.572)	
	음현리 1·4리	산제사	음력8월1일	원음현 무 동산	평지·고목	산신제	제관	소머리·삼색실 과·백설기	현전	포천군지(p.146) 한국의 마을제당(p.573)	
	진목리 (1·4리) 오림포동	산제사	음력10월1일	북쪽 턱골 산 중턱	신목	산제	제관	술·병·백반 실과우유	현전	포천군지(p.146) 한국의 마을제당(p.575)	
	진목2리	산제사	음력10월1일	가운데 산밑	초가 제단	산신제	제관	주·반·백반·실 과·육	현전	포천군지(p.147) 한국의 마을제당(p.57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영 북 면	대회산리	신치성	음력9월9일	천제당	신목	재배·호주별 소지·음복 우육분배	제관·당주	주·소채 우두	현전	포천군지(p.147) 경기도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한국의 마을제당(p.586)	
	문암리	산치성	음력9월9일	새매기 꽃짜기	신목		제관	실과·떡 돼지고기 술	현전	포천군지(p.147) 경기도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한국의 마을제당(p.589)	
	야미리	산제	음력9월9일	불무산 (웃배리)	터			제석주·떡 과실·우육	현전	포천군지(p.147) 경기도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한국의 마을제당(p.590)	
	산정리 하동	산제	음력9월9일	망봉산 입구터	신목 (소나무)	재배·호주별 소지·음복	제주·부정없는 자 이장·화주 등 10여명	통돼지·포 떡·과실	소멸	경기도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백일리		음력3월3일 9월9일 년 2회	마을 남 쪽 동산 산제당		여러 신명을 모시고 제물 을 차려냄	제관	통돼지·적 시루떡		한국의 마을제당(p.592)	
	산정리 상동	산치성	음력9월9일	명선산 입구	신목	재배·호주별 소지·음복	제주·부정없는 자 이장·젊은 분 6명	통돼지·포 떡·과실	소멸	경기도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산정리 산안	산치성	음력9월9일	명성산 (북쪽 골 짜기)	신목	재배·호주별 소지·음복	제주·화주·마을대 표	제석주·떡 과실·돼지 머리	현전	경기도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영북면	소회산리	산신제	음력9월9일	마을앞산	바위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운천 1·2·3·6·7·8리	산제	음력9월9일	각홀산 영북초등학교 터	터	진설·재배 축문·음복	1·2·3·6·7·8리	통돼지·떡과실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한국의 마을제당(p.591)	1·2·3·6·7·8리가 함께 지냄
	운천4리	산제	음력8월	마을내부	신목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운천5리	산치성	음력9월9일	마을앞산	터	진설·재배 축문·음복	제주·이장 화주 10여명	통돼지·떡과실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운천9리	산제	음력9월9일	고란(보화보육원뒤)				현전			
	자일1리	산제	음력9월9일	마을앞산	터 신목	진설·재배 축문·소지 음복	제주·이장 화주 10여명	통돼지머리 떡·과실·메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자일3리	산제	음력9월9일	각홀봉 (명성약수터)	샘		제주·이장 화주 30여명	통돼지머리 떡·과실·메 조라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약40여년 전부터 연고지 없이 죽은 이들을 위해 산제를 지냄
	자일4리	산제	음력9월9일	한탄강변	신목	음복·회의 호당소지	제관	통돼지 시루떡·적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포천시지(p.146)	
영중면	거사2리	탑제	음력1월18일	마을 하천변	탑	분향·고축 소지	마을사람 전원	삼색과일 돼지머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p.448)	

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진승여부	출 전	비고	
영 중 면	성동1리	산신제	추수후 택일	마을 하천변	바위	분향·고축 소지	마을사람 전원	삼색과일 돼지머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8)	
	성동3리	산신제	음력10월초	풍혈산 (계곡)	신목	분향·고축 소지	마을사람 전원	삼색과일 통돼지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8)	
	양문1리	위령제	양력6월25일	행상바위	신석	분향·고축 소지	마을사람 산악회원	삼색과일 주·과·포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593)	
	양문2리 광평동2	산신제	음력9월9일	산제터	신목	분향·고축	마을사람전원	주·과·포 돼지머리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594)	
	성동4리	산신제	음력10월3일	능원산	신목	분향·고축 소지	마을사람전원	삼색과일 통돼지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8)	
	양문2리 후포동	산신제	음력10월3일	능안골	신목	분향·고축	마을사람전원	주·과·포 돼지머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9)	
	양문3리 면산제	산신제	음력3월초 9월초 (년2회)	산제당골	바위	분향·고축 소지	마을사람전원	주·과·포 통돼지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9) 포천군지(p.148)	
창 수 면	주원1리	산제	음력10월	마을뒷산	신목			한국전쟁 직후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9)		
	주원5리	산제사	격년 음력10월	마을뒷산 정상부	터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9)		
	추동1리	산제사	음력2월초	마을 뒷편 중현산 초입	신목	진설·축원 축문·소지	제관·이장 등 5명	통돼지고기 백설기·돼 지머리·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p.44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창수면	추동2리	산제	짜수해 음력9월9일	마을 뒷산 정상부	신목	제관이 동 시에 5곳의 제를 주관	도 화 주 · 화 주 · 축 관 · 제 관 등	삼색실과 돼지고기 백설기 돼지머리·포	현전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9)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3) 한국의 마을제당(p.605)	제단을 동서남 북과 중앙에 5 개 마련·도화 주화주·제관 각 5명
	추동3리	산제사	음력11월	면화골	바위 신목				소멸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 I 『임진강』 (p.449)	
	가양2리 원가양마을		일정치 없음	서낭당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p.602)	
	주원4리 옥병마을	당제사	한식날	영당	기와집	유교식제의	동네 전주이씨	술·떡·백반 소고기·과실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604)	
이동면	노곡2리	산제	추석 전후 년 1회	마을서쪽 관음산 초입 동향		진설·독축	제관	제상1개·삼 색과실·양초 주·육·포	현전	포천군지(p.148) 한국의 마을제당(p.595)	
	노곡1리	산제	추석 전후 년1회	마을북쪽사 양산 중턱		제물설치 축문낭독	제관	젓상1개 삼색과실·양 초·주·육·포	현전	포천군지(p.148) 한국의 마을제당(p.596)	
	연곡리	산제	음력2월8일 8월중택일 낮12시	마을뒷산산 제당	터 신목	분향·재배 (노인잔치 겸해서)	제관	통돼지 삼색실과	현전	포천군지(p.149)	
	연곡리 제비울마을		음력9월	마을 서쪽산 밑 봉음사	기와 평7평	패지참→제 당→분양→ 재배	제관	돈육·쌀 삼색과일	소멸	포천군지(p.149) 한국의 마을제당(p.597)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이 동 면	장암리 마당바위마을	산제사	음력 8월13일	장암부락 뒷동산	터	진실→헌작→ 폐사→음복	제관	주·백병·백반 우유·과실	현전	포천군지(p.149) 한국의 마을제당(p.599)	
	아곡리		음력 8월말-9월초	광평산 기슭 남향	석상1개	산신에게 제사	제관	주·백병 우유	현전	포천군지(149) 한국의 마을제당(p.601)	
	도평1·4리	산제	음력9월중	산제당골			제관	삼색과일 소 또는 돼지 머리	현전		
	도평2리	산제	음력3월3일 9월9일	광덕산 (금경폭포)	폭포		제관	삼색과일 소 또는 돼지 머리	현전		
	연곡4리	산제	음력2월초 8월초	섬바위	바위		제관	삼색과일 소 또는 돼지 머리	현전		
	연곡3리	산제	음력3월3일 8월3일	도장골			제관	삼색과일 소 또는 돼지 머리	현전		
	연곡2리	산제	음력3월1일 8월중	먼두둑			제관	삼색과일 소 또는 돼지 머리	현전		
	연곡1리	산제	음력8월중	봉우재			제관	삼색과일 소 또는 돼지 머리	현전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화 현 면	지현3리	산신제	음력9월1일	두리동 산신터	돌탑	진설·헌작 축문·소지	화주2명 축관1명	통돼지·백설기 새옹밥·삼색과 일·조라술	현전	
	지현2리	산신제	음력9월9일	큰사기당골	돌탑	진설·선작 축문·소지	화주2명 제관1명 축관1명	돼지반쪽 백설기·조라술 삼색과일	현전	
	화현2리 강 구동마을	산신제	매년 음력8 월초	마을 뒤 현등산 아래 산신당	조립식 건물	진설→헌작 →축문→소 지	화주 축관 제관	백설기·새옹밥 삼색실과 조라술	현전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7)
	명덕리2리	삿갓제	음력 정월 보름사이에 길일택		돌탑 신목				소멸	한국의 산간신앙(p.320)
	명덕3리	산신제	음력 3월초 10월초 택일	제당	초가 1칸 내외	진설·분향 축문·소지	제관·화부 축관외1명	소 부위별·과실 술	소멸	한국의 산간신앙(p.320)
일 동 면	길명2리	산신제	음력 8월초	서북쪽터	터	진설·헌작 축문·소지		소·떡·술 삼색과실	현전	
	기산7리 청계	산신제	음력 9월초	동남쪽터	터		현관·축관	소머리·술 삼색과실	현전	
	기산8리 소야	산신제	음력 8월초	서북간터	터		현관·축관	돼지·삼색과실	현전	
	화대2리	산신제	음력 8월초	동남간터	터		현관·축관	소머리·떡·술 삼색과실	현전	

전송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송여부	출 전	비고
일 동 면	수입1리	산신제	음력 8월1일	서쪽터	터		현관	돼지·술 삼색과실	현전		
	수입4리	산신제	음력 8월중 (3년에 1회)	서쪽터	터		현관	소머리·떡·술	현전		

30. 하남시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미사동 (풍산동관할)	성황제	매년 음력 8월초	한강변 성황당과 신목	섬 안쪽 참나무 두 그루	유교식	제관 축관 유사	통소 한마리 시루떡·술 과일·포·채 탕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57) 역사도시하남(p.642-646)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6)	
하산곡동 고양골 (천현동관할)	단오제	음력 5월 5일	마을 느티나무	느티나무	분향→강신 →헌작→독 축→소지	제관·유사 축관·당주	통돼지·떡 술·삼색과일 말린고기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59) 역사도시하남(p.646)	
하산곡2동 (천현동관할)	산신제 (할아버지 산신제)	2년에 한번 작수해정월 에 택일	검단산	터 소나무	분향→강신 례→헌작→ 독축→소지	제관·축관 유사·당주 화부	소머리·밤 대추·삼색과 실·북어 2마 리·백설기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58) 역사도시하남(p.654)	하산곡2 동과창우 동는 짝 을 이룸
창우동	산신제 (할머니 산신제)	2년에 한번 작수해·음력 10월 초하루	검단산	터 소나무	분향→강신 례→헌작→ 독축→소지	제관·축관 영주·화부	소머리 삼색과일 포·백설기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359) 역사도시 하남(p.655)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 『한강』(p.476)	
덕풍동 수리골	산신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수리골 뒷산	느티나무				소멸	역사도시 하남(p.656)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감이동 정림마을	우물제	매년 7월 초하루	대동우물 소멸 후 공터에서		노인 잔치 겸해서 진행	제관·당일제 사에 참석하 신분중에 연 세가 많은 분	소고기·과실	현전	역사도시 하남(p.651)	
항동 외골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금암산 정상바위 밑		유교식	제관	밥·탕·나물 과일·건포 육제물이 없음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8) 역사도시하남(p.654)	
춘궁동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이 성 산 의 산신당		강신→분 향→초헌 관→고축 →아헌관 →종헌관	상주 하주	상단제:외·조라 하단제:소머리·약 주·대추·밤·감 백설기·무나물 다시마튀각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8) 역사도시하남(p.651-652)	상단과 하단, 두곳에서 제 가 거행
신장2동	거리제	매년 음력 9월 초하루	마 을 회 관 옆나무	참나무	유교식	제관	소머리·백설기 제주·삼색실과 포·채·탕	소멸 1994년 아파트단지 형성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57) 역사도시 하남(p.649-650)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 술조사Ⅱ 『한강』 (p.476)	
천현동 샘재마을	군웅제	음력 정월 초하루	500년 된 노송 3그루 (죽은 후 작은 소나 무 대체)	소나무	진설→헌 작→독축 →분축→ 소지	당주·제관 축관	소머리 삼색과일 포·떡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60) 역사도시 하남(p.648-64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범동마을	목신제 (해나무 동계)	음력 상달 10월 1일	마을 해나무	둘레 약 5미터		무당	생돼지 술·떡·과일	현전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60) 역사도시 하남(p.647-648)	
교산동	칠성신앙	객산 서쪽 자락 칠성 바위						소멸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61)	

31. 화성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마도면	두곡1리	우물고사	정월보름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4)		
	두곡2리	우물고사	정월보름 추석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4)		
	백곡1리	우물고사	정월보름 추석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4)		
	쌍송2리	당제	정월 열나흘	당	상수리나무	유교식	제관 외 6명 여자불참	소고기·삼색 과일·떡·조라 술	현전 부정기적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5-406)	마을의 교회 설립후 당제 에 참여하는 주민 줄어들음
	슬항1리	당고사	정월보름 추석	당	느티나무	초헌관이 나무에 술 을 세 번 붓고 난 후 유교식으로 진행			현전 부정기적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7-408)	
	해문2리	당제	정월	당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4)	
서신면	광평리	당고사	10월	당	소나무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9)		
	매화1리	우물고사	정월 열나흘 추석 무렵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9)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서 신 면	송교1리	우물고사	정월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9)	
	용두리	서낭고사 뱃고사	정월 보름	서낭·당	당목 당터	풍어굿	제관 (이장·어촌 계장)	소머리·삼 색 과일·복 어포·시루 떡·송어·막 걸리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0-411) 『어촌민속지』 경기·충남편인용 경기도의 굿(p.205) 경기민속지 I (p.599)	소멸되었다 가 1998년 다시 지내 기 시작
	제부리	당제 (당고사)	10월	동성황 서성황	당집 소나무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09)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도의 굿(p.205)	
송 산 면	고정2리	당제	정월 보름	궁당	소나무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한국의 마을제당(p.633)	
	고정3리	당제	2월 보름 안 (3년마다)	본당(소당) 군웅당 각시당 (왜갈당)	당집 나무바위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한국의 마 을제당』 서울·경기도편	
	고포3리	당제	정월 보름	큰머리당	당제터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도의 굿(p.205)	
	쌍정2리	우물고사	10월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육일2리	당제		당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송 산 면	용포1리	당제 (당고사)	10월	당	소나무	마을주민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도의 굿(p.205)	교회 다니는 주민들이 많 아서 당제에 참여하는 주 민 줄어듬
	중송1리	당제		당	당나무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천등1리	당굿		서낭당	서낭목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독지3리	당제	정월 보름	당	소나무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2)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도의 굿(p.205)	
우 정 면	화산5리	당제	정월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화수1리	당제	10월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화수3리	정사 (井祀)	정월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 『경기민속지』 I	
	운평1리		2월 (3년마다)	금성당	당집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 『한국의 마을제당』	
	원안1리	우물고사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우정면	원안3리	우물고사	정월 보름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이화1리	산제	2월(격년)	당	소나무 바위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도의 곳(p.205)	
		우물고사	7월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이화3리	우물고사	7월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조암1리	당제	2월 (4년마다)	윗당 (산신당 각시당 아랫당)	슬라브건 물 당집 엄나무	유교식 (윗당→아 랫당)		소머리 떡·적 북어포 조라술 삼색과일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도의 곳(p.205)	30여 년 전 까 지 는 당곳 을 함께 함
	조암2리	당고사	10월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주곡1리 구슬마을	봉제	10월(오전)	봉제산	터	우물고사→ 당에서제사	마을사람 모두	돼지머리 삼색과일 떡·포·조라술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주곡1리 장작원마을	산제사 (당고사)	10월 (3-4년마다)	봉제산	당산			소머리 삼색과일 떡·포·조라술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우 정 면	호곡 1-3리	산제사	정월 정일(丁日)	할아버지당 할머니당	당집·당목 당산	할아버지당 →할머니당 제물진설 재배 독축	할아버지당: 소머리 할머니당:닭 삼색과일·떡 조라술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도의 곳(p.205)	할아버지당 은 3리에 할머니당은 1리에 위치
	화산4리	당제사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장 안 면	어은4리	산신제	정월	산신당	당집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장안 1-9리	우물고사	7월		우물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당제	2월초	각시당·곡 목당·돌서 낭·본당	향나무 당 목·서낭목 당목·당집	각시당→곡 목당→돌서 낭→큰당	제관(당주) 축관	현전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민속지』 I 경기도의 곳(p.205)·한국의 산 간신앙(p.321)	당주는 남녀 구분 없음
	노진1리	당제		당	당산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노진 2·5리	산신제 (2리) 도당굿 (5리)	3월	할머니당 할아버지당	당집 당목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장 안 면	독정2리	우물고사	정월 보름 추석		우물 향나무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독정1리	우물고사	정월 보름 추석		우물 느티나무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덕다1리	당굿	정월·10월		해나무 우물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13)		
	사랑1리	당고사	정월	당	소나무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사랑2리	당굿	정월	서낭당	소나무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석포1리	당고사	정월 보름	당	당집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석포5리	산신제	10월초	산신당	당집	유교식	제관	떡·포 조라술	현전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기민속지』 I 개관편	유교식으로 진행되나 여 성들도 참석 가능
	석포6리	산신제	10월	당	당집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수촌2리	당제	정월	서낭당	당목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수촌2리	우물고사	정월보름· 추석		우물				소멸	도서 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0)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남 양 동	장덕1리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3)		
	남양리 기곡동	음력 12월27일	당	기와집		남양홍씨	술·고기 떡·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609)		
	신외1리	서낭고사	정월 보름 가을	도당	당나무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3) 경기도의 굿(p.205)	대동서낭고 사→개인고 사	
	신외2리 고잔	도당굿	정월	도당	터주가리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3) 경기도의 굿(p.205)		
	활초리	당제	10월 초하루	서낭당이	당나무	큰중부	시루떡 과일 술 한 잔	소멸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p.423)	마을사람들 이 모두 한 집안이였기 에 큰집에 서 주관	
	문호리					3-7일간 굿	제관·무녀		어업이 쇠 퇴함에 따 라 소멸	경기도의 굿(p.205)	
봉 담 읍	마하2리 말무덤이	당제사	음력 10월 1일			진설-축문- 소지	당주와 축관	소·밤·대 추·감·포	소멸	한국의 산간신앙(p.241)	
	내리 안골마을		음력 10월 초 길일 택	상당	신목	분향·제배 독축	제관·축관	술·과일 떡·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623)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봉 담 읍	하가동리		음력10월15일	산신당	합석	유교식	제관·축관	떡시루·술 과일·복어포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627)	
	동화리 반고개 역말마을		음력10월초하루	당	개와집	분향·재배 독축	제관·축관 당주	술·과일·떡 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625)	
	당하리			마을뒷산 당집						경기도의 굿(p.205)	
동 탄 면	금곡2리 (신암)	산제사	음력 10월 1일	마을뒤 팔 봉산 북쪽 자락 당골 당집	당목·당골 우물	진설·재배 축원	당주·도가 유사	소		한국의 산간신앙(p.246) 한국의 마을제당(p.610)	
	산척리 산척마을		음력 10월상순	산척당	신목	진설·재배 축원	제관·축관 당주	삼색과실 소고기·술		한국의 마을제당(p.611)	
	송리 솔아래마을		음력 10월상순	송리당	신목	진설·재배 축원	5명	술·떡·소고 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612)	
	장지리 장지내마을		자정	산신당	초가집	진설·재배 축원	제관·축관	술·과실·떡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613)	
	오산2리	산신제	음력 9월 그믐 저녁 9시경			진설·축문 재배·소지	당주·축관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양 감 면	사창리	음력 3월1일	당	초가집	상당·하당	당주·제관	술·소고기 과실·어물		한국의 마을제당(p.634)	
	용소리 송내동 소란마을	음력 10월1일	송내당	초가집	상당	제관	술·소머리 과일·포·떡		한국의 마을제당(p.636)	
	신왕2리 독주동	음력 1월2일		신목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1)	
비 봉 면	유포1리 당곡말	당제사	음력 11월3일	제당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1)	
태 안 읍	배양리	산신제	음력 9월1일		신목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1)	
정 남 면	계향리	산신제	음력 10월10일	당집	초가집	유교식 당주·제관 축관			한국의 마을제당(p.642)	
	계향4동	산신제	음력 10월1일 격년	산제터	신목	독축·제배 당주·축관			한국의 마을제당(p.643)	
	보통3리 남동	당제사	음력 9월29일	제당		제관			한국의 산간신앙(p.321) 한국의 마을제당(p.649)	
	백리		음력 10월1일	산신당	초가집	제관·축관	술·떡·백반 소고기·과실		한국의 마을제당(p.647)	
	오일리		음력 10월1일	당	초가집	당주·축관	조라·떡 소고기·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648)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의장소	제장형태	제의방법	제의참석자	주요제물	전승여부	출 전	비고
정 남 면	관항리1	음력 9월30일	담안당	초가집	상당-제	당주	술·떡·소고기 과일		한국의 마을제당(p.644)	
	관항리2	음력 9월30일	탑상골당	기와집	상당-제	당주·축관	술·떡·과일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645)	
매 송 면	肅谷면 쑥골마을	음력 10월1일	당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大岩石	상당	당주·제관 축관	삼색과실 소고기		한국의 마을제당(p.613)	
	야목리 빈정마을	음력 11월1일	당	초가집	제 올림	제주·당주	술·떡·백반 소고기·과실 소머리		한국의 마을제당(p.616)	
	야목 2·3리	음력 10월1일	당	터주가리 신목	삼출(밤·대 추·산자)을 차려 놓은 후 제배	제관·축관	통돼지 1마리 삼색과실 식혜	현전	한국의 마을제당(p.618) 경기민속지Ⅱ(p.282-284)	
	원평리 원뜰마을	음력 10월1일	산신당	개와집	독축	제관	소머리·식혜		한국의 마을제당(p.620)	

사진 목록

- 1-1. 가평군 외서면 청평 8리 개미허리에 있는 산제당터(p. 14)
- 1-2. 가평군 외서면 청평 8리 개미허리에 있는 산제당터 누석단(p. 14)
- 1-3. 가평군 외서면 청평 8리 마구전마을 산제사 축문(p. 16)
- 1-4. 가평군 서면 행현 2리 산제사 - 축령산 중턱에 있는 산제사 당집(p. 18)
- 1-5. 가평군 가평읍 읍내 3리 당집. 보납산신제단(寶納山神祭壇)(p. 21)
- 2-1.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한우물마을 도당터(느티나무)(p. 24)
- 2-2.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 능골마을 제장(p. 26)
- 2-3.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물구리 마을 제장(p. 28)
- 2-4.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진밭마을 산신제단(p. 30)
- 2-5.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진밭마을 산신제터(구름상)(p. 30)
- 3-1. 과천시 갈현동 가일마을 산신제 신체(p. 34)
- 3-2. 과천시 갈현동마을제장 찬우물(p. 36)
- 3-3. 과천시 갈현동마을제장 가자우물(p. 36)
- 3-4. 과천시 과천동 하1리 도신제 당나무(p. 38)
- 4-1. 광명시 가학동 노리실 군웅당 전경(p. 41)
- 4-2. 광명시 가학동 노리실 군웅당 안 터주(p. 41)
- 4-3. 광명시 가학동 공세동 당나무 앞(p. 44)
- 5-1.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노루목에 있는 정제사터와 신목(보호수)(p. 47)
- 5-2.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안터마을 정제사터(p. 47)
- 5-3.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리 장작산에 있는 산치성터 신목(p. 51)
- 5-4. 광주시 중부면 엄미2리 벽수골 위 산치성터가 있는 마을 뒷산(p. 54)
- 5-5. 광주시 중부면 엄미2리 미라울 길목에 있는 장승(천하대장군)(p. 55)
- 5-6. 광주시 중부면 엄미2리 미라울 길목에 있는 장승(지하여장군)(p. 55)
- 6-1.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마을 서낭당(p. 59)
- 6-2. 구리시 교문 1동 할아버지당 신수(神樹) 향나무(p. 62)
- 6-3. 구리시 교문 1동 할머니당 신수(神樹) 향나무(p. 62)
- 6-4. 구리시 갈매동 당집(p. 66)
- 7-1. 군포시 금정동 산축제 독축(p. 72)
- 7-2. 군포시 산본2동 수리산 산신제당(p. 73)

- 7-3. 군포시 산본2동 산신제 축문(p. 76)
- 8-1.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도당신령비(香山里陶唐神靈)(p. 78)
- 8-2.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안에 보관중인 조라술 단지(p. 78)
- 8-3.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 당으로 가는 제관(p. 80)
- 8-4.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 제물진설(p. 81)
- 8-5.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 조라술 거르기(p. 81)
- 8-6.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 독축후 재배(p. 81)
- 8-7.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 고시례(p. 81)
- 8-8.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 소지(p. 81)
- 8-9.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 당문에 걸어 놓은 북어(p. 81)
- 8-10. 김포시 통진면 동을산리 상야마을 산신제 - 신목과 산신제터(p. 83)
- 8-11. 김포시 통진면 동을산리 상야마을 산신제 - 조라술 묻는 터(p. 83)
- 9-1.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내동마을 산제사를 올리는 당집 전경(p. 88)
- 9-2.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당집 오른쪽에 조라술을 담는 곳(p. 88)
- 9-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제당
- 제물을 찌거나, 음복용 요리를 위해 술을 거는 야외화덕(p. 89)
- 9-4.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당집 내부. 희생 소를 올려놓는 제단(p. 89)
- 9-5.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산제사용 산신축(p. 90)
- 9-6.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산제사 - 봄철용 제물 물목기(p. 90)
- 9-7.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산제사 - 제물 진설용 제기(제관집에 보관)(p. 90)
- 9-8.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1리 산신당 전경(p. 93)
- 9-9.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1리 산신당 내부 산신할아버지상(p. 94)
- 9-10.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2리 조곡마을 산신당(p. 97)
- 9-11.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2리 산신당 재건 기념비(p. 97)
- 9-12.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산신각 전경(p. 100)
- 9-13.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산신각 측면(p. 100)
- 9-14.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산신각 정면(p. 101)
- 9-15.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산신각 내부 산신도(p. 101)
- 10-1. 동두천시 하봉암동 산신제단(p. 105)
- 10-2. 동두천시 하봉암동 부군나무(p. 105)
- 10-3. 동두천시 지행동 종이골 제장(p. 107)

- 10-4. 동두천시 지행동 행단골 은행나무 제장(p. 108)
- 10-5. 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노리 솟대(p. 110)
- 11-1. 부천시 원미구 역곡 1동 벌웅절리 제장 - 우물(p. 115)
- 11-2.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사래리 산치성 제장(p. 117)
- 11-3. 부천시 원미구 춘덕산 산치성 약수터(p. 120)
- 12-1.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제사 제장 - 옷우물(p. 122)
- 12-2.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제사 제장 - 거북바위(p. 122)
- 12-3.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마을 산신당(p. 124)
- 12-4.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마을 산신당 내부(p. 124)
- 12-5.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모랫말 산신제 신체(p. 126)
- 12-6.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샘골, 송현마을 제장 - 뱀바위(p. 127)
- 13-1. 수원시 권선구 탑동 골말 서낭제 - 제물 분육 소 1마리(p. 135)
- 13-2. 수원시 권선구 탑동 골말 서낭제 - 만신과 부인들의 치성(p. 135)
- 13-3. 수원시 권선구 탑동 골말 서낭제 - 마을제관들의 재배(p. 135)
- 13-4.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내 거북산당(p. 137)
- 13-5.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당집 외부(p. 138)
- 13-6.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당집 내부(p. 138)
- 13-7.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당집 전경(p. 139)
- 14-1. 시흥시 신현동 포동 새우개 당집 전경(p. 140)
- 14-2. 시흥시 신현동 포동 새우개 당집(p. 140)
- 14-3. 시흥시 신현동 포동 당제 - 대동우물(p. 143)
- 14-4. 시흥시 신현동 포동 마을입구 장승(p. 143)
- 14-5. 시흥시 금이동 당집 전경(p. 145)
- 14-6. 시흥시 금이동 당집(p. 145)
- 15-1. 안산시 팔곡동 당집(p. 148)
- 15-2. 안산시 팔곡동 당집 내부 산신행화와 산신불(p. 148)
- 15-3. 안산시 팔곡동 천신제장의 상들과 향들(p. 148)
- 15-4. 안산시 팔곡동 당우물(p. 148)
- 15-5. 안산시 양상동 아랫버대마을 정제터와 신목(p. 153)
- 15-6. 안산시 양상동 아랫버대마을 정제터(p. 153)
- 15-7. 안산시 선감동 불도당집 정면(p. 155)

- 15-8. 안산시 선감동 불도당집 내부(p. 156)
- 16-1. 안성시 아양동 아롱개마을 미륵부처 제당 - 좌:보살입상, 우:석불입상(p. 159)
- 16-2.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상촌마을 제당 전경(p. 163)
- 16-3.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상촌마을 제당 내부(p. 163)
- 16-4.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상촌마을 제당 정면(p. 163)
- 16-5. 안성시 도기동 도구머리마을 제당(p. 169)
- 16-6. 안성시 도기동 도구머리마을 제당 내부(p. 169)
- 17-1. 안양시 관양동 수촌마을 당집(p. 172)
- 17-2. 안양시 석수동 할아버지산 제단(p. 174)
- 17-3. 안양시 석수동 할아버지산 우물(p. 174)
- 17-4. 안양시 석수 1동 삼막골 할아버지 당나무(p. 175)
- 17-5. 안양시 석수 1동 삼막골 할아버지당 우물(p. 175)
- 18-1.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제물준비(국거리용 두부)(p. 180)
- 18-2.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산제사터 제상(녹동매)(p. 180)
- 18-3.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조라술 따르는 모습(p. 180)
- 18-4.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제물상차림(p. 180)
- 18-5.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헌작(p. 181)
- 18-6.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독축(p. 181)
- 18-7.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명단소지(p. 181)
- 18-8. 양주군 광적면 가납 1리 산제사 - 음복(p. 181)
- 18-9.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제당(p. 183)
- 18-10.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제당 - 조라술 주저리(p. 183)
- 18-11.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치성 - 제물운반(p. 187)
- 18-12.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치성 - 녹음매와 용떡(p. 187)
- 18-13.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치성 - 조라술 내리기(p. 187)
- 18-14.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치성 - 제물상차림(p. 187)
- 18-15.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치성 - 독축(p. 187)
- 18-16.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치성 - 묵념(p. 187)
- 18-17.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산치성 - 철상(p. 187)
- 19-1. 양평군 양수 5리 두물머리 도당터 신목 ; 느티나무 원경(p. 190)
- 19-2. 양평군 양수 5리 두물머리 도당터 신목앞 제단(p. 190)

- 19-3. 양평군 강상면 병산 2리 느리울마을 산치성터 바위(p. 194)
- 19-4. 양평군 강상면 병산 2리 느리울마을 산치성터 우물(p. 194)
- 19-5. 양평군 지제면 일신 3리 지산마을 천하대장군(p. 199)
- 19-6. 양평군 지제면 일신 3리 지산마을 지하여장군(p. 199)
- 19-7. 양평군 용문면 덕촌 1리 운계마을 입구 장승(p. 202)
- 20-1.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생이마을 산신각 전경(p. 205)
- 20-2. 여주군 강천면 적금 2리 장승(p. 208)
- 20-3.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쪽띠마을 원수골 산신당터(p. 212)
- 20-4. 여주군 능서면 오개 2리 마을회관앞 제의터(p. 215)
- 21-1.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산신제당(p. 217)
- 21-2.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종현산 산신제단(p. 220)
- 21-3.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장승(앞)과 풀무산 자살바위(p. 221)
- 21-4.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감악산 산제당 - 비뜰대왕당(p. 223)
- 21-5.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감악산 산제당 - 상당(p. 224)
- 21-6.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감악산 산제당 - 우물당(p. 224)
- 22-1. 오산시 금암동 당집 전경(p. 227)
- 22-2. 오산시 금암동 당집 내부(p. 227)
- 22-3. 고산시 금암동 당우물(p. 228)
- 22-4. 오산시 갈곶동 당집(p. 228)
- 23-1. 용인시 지곡리 산제당(p. 231)
- 23-2. 용인시 지곡리 산제당 내부(p. 232)
- 23-3. 용인시 지곡리 산제당 - 묵은 당 터주가리를 나무에 묶어둔 장면(p. 232)
- 23-4. 용인시 지곡리 옷장승(p. 233)
- 23-5. 용인시 지곡리 중간장승(p. 233)
- 23-6. 용인시 지곡리 아랫장승(p. 233)
- 23-7. 용인시 양지면 송문 3리 당집(p. 235)
- 23-8. 용인시 양지면 송문 3리 당집 내부(p. 235)
- 23-9.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 산제당 제물상차림(p. 238)
- 24-1. 의왕시 왕곡동 당집(p. 241)
- 24-2. 의왕시 왕곡동 장승(p. 242)
- 24-3. 의왕시 고천동 제당(p. 245)

- 24-4. 의왕시 고천동 장승과 솟대(p. 245)
- 25-1. 의정부시 민락동 삼귀마을 산제당터 터주가리(p. 249)
- 25-2. 의정부시 고산동 갓바위마을 제당(p. 254)
- 26-1.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성황제당 신목(p. 257)
- 26-2. 이천시 모가면 어농 2리 어룡골마을 유래비(p. 261)
- 26-3. 이천시 모가면 어농 2리 호신제 제당터(p. 261)
- 26-4. 이천시 호법면 매곡 1리 돈의실마을 정제사터 “어른우물”(p. 264)
- 27-1. 파주시 금촌읍 아동 1리 안산말 祭舍門(p. 266)
- 27-2. 파주시 금촌읍 아동 1리 안산말 祭舍(p. 267)
- 27-3. 파주시 금촌읍 아동 1리 안산말 제사터(p. 267)
- 27-4. 파주시 금촌읍 아동 1리 안산말 학령산신제 제물상차림(p. 267)
- 27-5. 파주시 금촌읍 아동 1리 안산말 산신제 축문(p. 269)
- 28-1. 평택시 동삭 2동 상서제마을 당집(p. 276)
- 28-2. 평택시 세교동 은실마을 당집 전경(p. 280)
- 28-3. 평택시 세교동 은실마을 당집 내부(p. 280)
- 28-4. 평택시 안중면 덕우리 산신제 분육장면(p. 284)
- 28-5. 평택시 안중면 덕우리 우물고사(p. 285)
- 28-6. 평택시 안중면 덕우리 산신제(p. 286)
- 29-1. 포천군 영중면 양문 2리 산제사후 복어를 신목에 걸어둠(p. 290)
- 29-2. 포천군 영중면 양문 2리 산제사터 신목(神木)(p. 290)
- 29-3. 포천군 영중면 성동 3리 산제당터 신목(p. 293)
- 29-4.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 산신타 신목(p. 297)
- 29-5. 포천군 가산면 금현 2리 궁말 산치성터(p. 300)
- 29-6.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증말 산신제 터(p. 304)
- 30-1. 하남시 하산곡동 고양골 단오제 당목(p. 308)
- 30-2. 하남시 천현동 샘재 군웅제터(p. 313)
- 31-1.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당제 제단(p. 317)
- 31-2. 화성시 우정면 매항 1리 해나무 당목(p. 319)
- 31-3. 화성시 우정면 매항 1리 각시당(p. 320)

그림 목록

- 〈그림 1〉 가평군 청평 8리 마구전마을 산제당 위치도(p. 13)
- 〈그림 2〉 가평군 외서면 청평 8리 마구전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p. 15)
- 〈그림 3〉 가평군 상면 행현 2리 산제사 터 위치도(p. 17)
- 〈그림 4〉 가평군 상면 행현 2리 산제사 제물상차림(p. 20)
- 〈그림 5〉 가평군 읍내 3리 마을 산제당 위치도(p. 21)
- 〈그림 6〉 가평군 읍내 3리 산제당 제물상차림(p. 22)
- 〈그림 7〉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정제사 위치도(p. 46)
- 〈그림 8〉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정제사 제물상차림(p. 48)
- 〈그림 9〉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리 당 위치도(p. 50)
- 〈그림 10〉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리 산신제 제물상차림(p. 52)
- 〈그림 11〉 광주시 중부면 엄미 2리 당 위치도(p. 53)
- 〈그림 12〉 광주시 중부면 엄미 2리 장승제 제물상차림/산신제 제물상차림(p. 56)
- 〈그림 13〉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마을 당 위치도(p. 58)
- 〈그림 14〉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마을 서낭당제 제물상차림(p. 60)
- 〈그림 15〉 구리시 교문 1동 한다리마을 당 위치도(p. 61)
- 〈그림 16〉 구리시 교문 1동 한다리마을 대동고사 제물상차림(p. 63)
- 〈그림 17〉 구리시 갈매동 담터마을 당 위치도(p. 65)
- 〈그림 18〉 구리시 갈매동 담터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p. 67)
- 〈그림 19〉 군포시 금정동 산축제 제물상차림(p. 71)
- 〈그림 20〉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 제물상차림(p. 79)
- 〈그림 21〉 김포시 통진면 동을산 1리 상야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p. 84)
- 〈그림 22〉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1리 내동마을 당 위치도(p. 87)
- 〈그림 2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1리 내동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p. 91)
- 〈그림 24〉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 1리 산신당 위치도(p. 92)
- 〈그림 25〉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 1리 산신당 제물상차림/당집내 진설단(p. 95)
- 〈그림 26〉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2리 조곡마을 당 위치도(p. 96)
- 〈그림 27〉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2리 조곡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p. 99)
- 〈그림 28〉 안산시 팔곡동 산신제 제물상차림(p. 149)
- 〈그림 29〉 안성시 아양동 아롱개마을 미륵고사 제물상차림(p. 160)

- 〈그림 30〉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상촌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p. 165)
- 〈그림 31〉 양주군 광적면 가남 1리 산신제 제물상차림(p. 179)
- 〈그림 32〉 양주군 백석읍 홍죽 3리 천죽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p. 186)
- 〈그림 33〉 양평군 양서면 양수 5리 두물머리 도당 위치도(p. 189)
- 〈그림 34〉 양평군 양서면 양수 5리 두물머리 도당제 제물상차림(p. 192)
- 〈그림 35〉 양평군 강상면 병산 2리 느리올마을 산치성터 위치도(p. 193)
- 〈그림 36〉 양평군 강상면 병산 2리 느리올마을 산신당 제물상차림(p. 196)
- 〈그림 37〉 양평군 지제면 일신 3리 지산동 장승 위치도(p. 197)
- 〈그림 38〉 양평군 용문면 덕촌 1리 운계마을 장승터 위치도(p. 201)
- 〈그림 39〉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생이마을 산제사터 위치도(p. 204)
- 〈그림 40〉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생이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p. 206)
- 〈그림 41〉 여주군 강천면 적금 2리 장승 위치도(p. 207)
- 〈그림 42〉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쑥떠마을 산제사터 위치도(p. 211)
- 〈그림 43〉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쑥떠마을 산제사 제물상차림(p. 213)
- 〈그림 44〉 여주군 능서면 오개 2리 산제사터 위치도(p. 214)
- 〈그림 45〉 여주군 능서면 오개리 가뭇할머니 산제사 제물상차림(p. 216)
- 〈그림 46〉 의왕시 왕곡동 산신제 제물상차림(p. 243)
- 〈그림 47〉 의정부시 민락동 삼귀마을 산치성터 위치도(p. 250)
- 〈그림 48〉 의정부시 민락동 삼귀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p. 252)
- 〈그림 49〉 의정부시 고산동 갓바위마을 산치성터 위치도(p. 253)
- 〈그림 50〉 의정부시 고산동 갓바위마을 산치성 제물상차림(p. 256)
- 〈그림 51〉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안말 성황제당 위치도(p. 258)
- 〈그림 52〉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안말 성황제 제물상차림(p. 259)
- 〈그림 53〉 이천시 모가면 어농 2리 어룡골 산제사터 위치도(p. 260)
- 〈그림 54〉 이천시 모가면 어농 2리 어룡골 산제사 제물상차림(p. 262)
- 〈그림 55〉 이천시 호법면 매곡 1리 돈의실 정제사터 위치도(p. 263)
- 〈그림 56〉 이천시 호법면 매곡 1리 돈의실 정제사 주저리 썩은 삼밭이(p. 265)
- 〈그림 57〉 파주시 금촌읍 아동 1리 안산말 산신제 제물상차림(p. 268)
- 〈그림 58〉 포천군 영중면 양문 2리 당 위치도(p. 289)
- 〈그림 59〉 포천군 영중면 양문 2리 나분들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p. 292)
- 〈그림 60〉 포천군 영중면 성동 3리 당 위치도(p. 293)

- <그림 61> 포천군 영중면 성동 3리 삼합마을 산신제 제물상차림(p. 295)
- <그림 62> 포천군 군내면 용정 1리 당 위치도(p. 296)
- <그림 63> 포천군 군내면 용정 1리 산신제 제물상차림(p. 298)
- <그림 64> 포천군 가산면 금현 2리 궁말 당 위치도(p. 299)
- <그림 65> 포천군 가산면 금현 2리 궁말 산치성 제물상차림(p. 302)
- <그림 66> 포천군 소흘면 무림 1리 증말 산신제터 위치도(p. 303)
- <그림 67> 포천군 소흘면 무림 1리 증말 산제사 제물상차림(p. 305)
- <그림 68> 하남시 하산곡동 고양골 당 위치도(p. 307)
- <그림 69> 하남시 하산곡동 고양골 단오제 제물상차림(p. 309)
- <그림 70> 하남시 하산곡동 고양골 산신제 제물상차림(p. 311)
- <그림 71> 하남시 천현동 샘재마을 당 위치도(p. 312)
- <그림 72> 하남시 천현동 샘재마을 군웅제 제물상차림(p. 314)
- <그림 73> 화성시 야목리 당제 제물상차림(p. 318)

참고문헌

-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박물관·가평군, 1999.
-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임진강, 경기도박물관, 2001.
-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II/한강, 경기도박물관, 2002.
- 경기도의 굿, 하주성, 경기문화재단, 1999.
- 경기민속지 I/개관편, 경기도박물관, 1998.
- 경기민속지II/신앙편, 경기도박물관, 1999.
- 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 고양군지, 고양군지편찬위원회, 1987.
-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 과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박물관·과천시, 2000.
- 과천향토사(2권), 과천시, 1994.
- 광명시지, 광명시지편찬위원회, 1993.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군, 2000.
- 구리시의역사와 문화, 서울대박물관·서울대인문학연구소·구리문화원, 2000.
- 구리시지(2권), 구리시지편찬위원회, 1996.
- 군포시사, 군포시사편찬위원회, 1999.
- 김포군지, 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77.
-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김포시·한양대박물관, 1999.
-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남양주시, 1999.
- 남양주시지(6권), 남양주시편찬위원회, 2001.
-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화성군 해안지역, 경기도박물관, 1999.
-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안산시 해안지역, 경기도박물관, 2000.
-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I/김포시 해안지역, 경기도박물관, 2001.
- 동두천시사(2권),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1998.
-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두천시·한양대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이천시 백사면, 강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이천시문화원, 1996.
-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이천시 설성면, 강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이천시문화원, 1997.
-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이천시 울면, 강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이천시문화원, 1997.
- 성남시사, 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
-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성남시, 2001.

- 수원시사(4권), 수원시, 1995~99.
-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수원시, 2000.
- 시흥군지(2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시흥시, 2000.
- 안산시사(3권),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성시·단국대 중앙박물관, 1999.
-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문화원, 1998.
-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양주군, 1998.
-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양평군, 1999.
-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0.
- 연천군지, 연천군지편찬위원회
- 오산시사(2권), 오산시, 1998.
- 용인군지,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 용인의 마을의례, 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 이천시사의 역사와 문화유적, 서울대박물관·이천시, 1998.
- 이천시지(7권),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박물관·의왕시, 2001.
-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박물관·의정부시, 2001.
- 파주군지, 파주군지편찬위원회
-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파주시·한양대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도박물관·평택시, 1999.
-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02.
-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사학과·포천군, 1998.
- 포천군지(2권), 포천군지편찬위원회, 1997.
- 하남시사(2권), 하남시사편찬위원회, 2000.
-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박물관·하남시, 1999.
-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
- 한국의 산간신앙/강원·경기편, 김중대·김지옥·송민선, 민속원, 1996.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 문화재관리국, 1978.
- 화성군사, 화성군사편찬위원회, 1990.
-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화성군, 경희대 중앙박물관, 1989.
- 部落祭, 朝鮮總督府, 1937.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祭堂)

발행일 2002년 12월 26일

발행인 송승영

편집인 김태훈

편·저자 김지욱

공동저자 김종대·천진기

교열 김지욱

교정 백은영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 239-1020, FAX. 239-3785

인쇄처 도서출판 우일 TEL. (031) 242-9001

- 이 책은 경기도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비매품)

- 이 책의 원고와 사진은 저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작업의 견수를 맡은 김지옥은 1962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대학교때부터 쪽 우리 민속 문화에 대해 공부해왔다. 현재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김종대는 1958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국문학쪽에서 시작하여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저서도 많다.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유물과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기도문화재위원이고, 도깨비 박사다. 천진기는 1961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김지옥과는 대학 선배 사이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띠동물 박사다. 이들 셋은 모두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에 적을 두고 전국을 누비며 민속조사를 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소위, 셋이 한패거리다.

